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⑤

後
滄
集

후
창
집

2

김택술 지음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후창집(後滄集)》으로 하였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발 간 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2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옹변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 종 범

目 次

후창집 제9권

| | |
|-----------------------|----|
| 전사건 일중에게 보냄 임술년(1922) | 21 |
| 與田士狷 鎰中 壬戌 | |
| 전사건에게 답함 을축년(1925) | 23 |
| 答田士狷 乙丑 | |
| 전사건에게 답함 을축년(1925) | 25 |
| 答田士狷 乙丑 | |
| 전사건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7 |
| 答田士狷 丙寅 | |
| 전사건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9 |
| 答田士狷 丙寅 | |
| 전사건에게 답함 정묘년(1927) | 30 |
| 答田士狷 丁卯 | |
| 전사건에게 답함 정묘년(1927) | 33 |
| 答田士狷 丁卯 | |
| 전사건에게 답함 정묘년(1927) | 33 |
| 答田士狷 丁卯 | |
| 전사건에게 답함 무진년(1928) | 34 |
| 答田士狷 戊辰 | |
| 전사건에게 답함 기사년(1929) | 36 |
| 答田士狷 己巳 | |

| | |
|------------------------|----|
| 전사건에게 답함 기사년(1929) | 37 |
| 答田士狷 己巳 | |
| 전사건에게 답함 기사년(1929) | 39 |
| 答田士狷 己巳 | |
| 전사건에게 답함 임신년(1932) | 41 |
| 答田士狷 壬申 | |
| 전사건에게 답함 계유년(1933) 4월 | 45 |
| 答田士狷 癸酉 四月 | |
| 전사건에게 보냄 계유년(1933) | 48 |
| 與田士狷 癸酉 | |
| 전사건에게 보냄 갑술년(1934) | 50 |
| 與田士狷 甲戌 | |
| 전사건에게 보냄 을해년(1935) | 52 |
| 與田士狷 乙亥 | |
| 전사건에게 답함 을해년(1935) 8월 | 56 |
| 答田士狷 乙亥 八月 | |
| 전사건에게 보냄 을해년(1935) 10월 | 57 |
| 與田士狷 乙亥 十月 | |
| 전사건에게 보냄 을해년(1935) | 64 |
| 與田士狷 乙亥 | |
| 전사건에게 답함 병자년(1936) | 64 |
| 答田士狷 丙子 | |
| 전사건에게 답함 병자년(1936) | 66 |
| 答田士狷 丙子 | |
| 이여우 석하에게 답함 신유년(1921) | 67 |
| 答李汝禹 碩夏 辛酉 | |

| | | |
|---------------|-----------|-----|
| 이여우에게 보냄 | 임술년(1922) | 72 |
| 與李汝禹 | 壬戌 | |
| 방옥경 관에게 답함 | 기축년(1949) | 74 |
| 答房玉慶 | 瑄 己丑 | |
| 강사신 신극에게 보냄 | 신사년(1941) | 77 |
| 與姜士愼 | 信極 辛巳 | |
| 족제 행원 효술에게 답함 | 갑인년(1914) | 79 |
| 答族弟行源 | 孝述 甲寅 | |
| 족제 행원에게 답함 | 병진년(1916) | 86 |
| 答族弟行源 | 丙辰 | |
| 강하중 봉화에게 답함 | 기묘년(1939) | 89 |
| 答姜和中 | 鳳和 己卯 | |
| 강경함 동영에게 답함 | 임오년(1942) | 92 |
| 答姜敬涵 | 東泳 壬午 | |
| 족제 사의 홍재에게 보냄 | 을축년(1925) | 94 |
| 與族弟士毅 | 弘梓 乙丑 | |
| 족제 사의에게 답함 | 병인년(1926) | 96 |
| 答族弟士毅 | 丙寅 | |
| 족제 사의에게 답함 | 병인년(1926) | 97 |
| 答族弟士毅 | 丙寅 | |
| 족제 사의에게 답함 | 정묘년(1927) | 101 |
| 答族弟士毅 | 丁卯 | |
| 족제 사의에게 보냄 | 정묘년(1927) | 103 |
| 與族弟士毅 | 丁卯 | |
| 족제 사의에게 보냄 | 기묘년(1939) | 106 |
| 與族弟士毅 | 己卯 | |

| | |
|-------------------------|-----|
| 족질 문경 형익에게 답함 을축년(1925) | 109 |
| 答族姪文卿 炯翼 乙丑 | |
| 족질 문경에게 답함 병인년(1926) | 111 |
| 答族姪文卿 丙寅 | |
| 족질 문경에게 보냄 경오년(1930) | 113 |
| 與族姪文卿 庚午 | |
| 족질 문경에게 답함 계유년(1933) | 114 |
| 答族姪文卿 癸酉 | |
| 김소련 구락에게 답함 기미년(1919) | 115 |
| 答金巢蓮 龜洛 己未 | |
| 김소련에게 답함 신유년(1921) | 117 |
| 答金巢蓮 辛酉 | |

후창집 제10권

| | |
|-------------------------|-----|
| 족제 희숙 현술에게 답함 무오년(1918) | 123 |
| 答族弟希淑 賢述 戊午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기미년(1919) | 125 |
| 答族弟希淑 己未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자년(1924) | 138 |
| 答族弟希淑 甲子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자년(1924) | 131 |
| 答族弟希淑 甲子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 131 |
| 與族弟希淑 乙丑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 132 |
| 答族弟希淑 乙丑 | |

| |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 134 |
| 與族弟希淑 乙丑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 135 |
| 答族弟希淑 乙丑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기사년(1929) | 137 |
| 與族弟希淑 己巳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기사년(1929) | 139 |
| 與族弟希淑 己巳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기사년(1929) | 141 |
| 答族弟希淑 己巳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경오년(1930) | 146 |
| 答族弟希淑 庚午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신미년(1931) | 149 |
| 與族弟希淑 辛未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계유년(1933) | 150 |
| 與族弟希淑 癸酉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계유년(1933) | 152 |
| 與族弟希淑 癸酉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 154 |
| 答族弟希淑 甲戌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 154 |
| 答族弟希淑 甲戌 | |
| 족제 희숙에게 보냄 갑술년(1934) | 155 |
| 與族弟希淑 甲戌 | |
|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 157 |
| 答族弟希淑 甲戌 | |

| | |
|-------------------------------------|-----|
| 황치실 신연에게 보냄 기묘년(1939) 與黃致實 信淵 己卯 | 164 |
| 황치실에게 답함 정해년(1947) 答黃致實 丁亥 | 165 |
| 김사금 종연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金士兢 鍾淵 丁卯 | 166 |
| 김사금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金士兢 丁卯 | 167 |
| 명찬구 우진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明燦九 宇鎭 癸亥 | 168 |
| 명찬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明燦九 丙寅 | 170 |
| 명찬구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明燦九 庚午 | 173 |
| 한유성종연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韓有聲 鍾淵 戊辰 | 176 |
| 양극명 병희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楊克明 秉晦 辛酉 | 181 |
| 양극명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楊克明 癸亥 | 183 |
| 양극명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楊克明 戊辰 | 187 |
| 양극명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楊克明 庚午 | 188 |
| 양극명에게 답함 경진년(1940) 與楊克明 庚辰 | 191 |

| | |
|--------------------------|-----|
| 최여중 태일에게 보냄 병인년(1926) | 192 |
| 與崔汝重 泰鎰 丙寅 | |
| 최여중에게 답함 계유년(1933) | 195 |
| 答崔汝重 癸酉 | |
| 최여중에게 답함 갑술년(1934) | 298 |
| 答崔汝重 甲戌 | |
| 최여중에게 보냄 을해년(1935) | 200 |
| 與崔汝重 乙亥 | |
| 최여중에게 보냄 경진년(1940) | 201 |
| 與崔汝重 庚辰 | |
| 최여중에게 보냄 갑신년(1944) | 203 |
| 與崔汝重 甲申 | |
| 족제 김명중 건식에게 보냄 을축년(1925) | 204 |
| 與族弟明仲 建植 乙丑 | |
| 임경백 병일에게 보냄 갑자년(1924) | 205 |
| 與林敬伯 秉一 甲子 | |
| 임정로 중원에게 답함 을축년(1925) | 207 |
| 答林貞老 鍾元 | |
| 소재준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11 |
| 答蘇 在準 丙寅 | |
| 방옥범진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14 |
| 答房玉範 珍 丙寅 | |
| 방옥범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15 |
| 答房玉範 丙寅 | |
| 방옥범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17 |
| 答房玉範 丙寅 | |

| | |
|-------------------------------|-----|
| 방옥범에게 답함 정묘년(1927) | 218 |
| 答房玉範 丁卯 | |
| 채중일동건에게 답함 계해년(1923) | 219 |
| 答蔡中一 東建 癸亥 | |
| 채중일에게 답함 무진년(1928) | 220 |
| 答蔡中一 戊辰 | |
| 채중일에게 답함 무진년(1928) | 221 |
| 答蔡中一 戊辰 | |
| 채중일에게 답함 기사년(1929) | 222 |
| 答蔡中一 己巳 | |
| 채중일에게 답함 무인년(1938) | 225 |
| 答蔡中一 戊寅 | |
| 채중일에게 답함 기묘년(1929) | 227 |
| 答蔡中一 己卯 | |
| 손성백 주택에게 보냄 정축년(1937) | 228 |
| 與孫誠伯 周澤 丁丑 | |
| 이문수 덕래에게 답함 신유년(1921) | 230 |
| 答李文修 德來 | |
| 이도형에게 답함 기묘년(1939) | 233 |
| 答李道衡 己卯 | |
| 청도의 여러 사람들에게 답함 임술년(1922) 10월 | 235 |
| 答清道諸人 壬戌十月 | |
| 청도의 여러 사람들에게 답함 계해년(1923) | 240 |
| 答清道諸人 癸亥 | |
| 용동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냄 병인년(1926) | 244 |
| 與龍洞諸人 丙寅 | |

| | |
|------------------|-----|
| 남에게 답함 병진년(1916) | 246 |
| 答人 丙辰 | |
| 남에게 답함 경인년(1920) | 249 |
| 答人 庚申 | |

후창집 제11권

| | |
|-----------------------|-----|
| 최이구 민열에게 보냄 을해년(1935) | 251 |
| 與崔以求 敏烈 乙亥 | |
| 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 | 253 |
| 與崔以求 乙亥 | |
| 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 | 254 |
| 與崔以求 乙亥 | |
| 최이구에게 답함 기묘년(1939) | 257 |
| 答崔以求 己卯 | |
| 최이구에게 보냄 기묘년(1939) | 259 |
| 與崔以求 己卯 | |
| 이사유 한응에게 답함 경오년(1930) | 260 |
| 答李士裕 漢膺 庚午 | |
| 이사유에게 답함 임신년(1932) | 263 |
| 答李士裕 壬申 | |
| 이사유에게 보냄 임오년(1942) | 265 |
| 與李士裕 壬午 | |
| 이사유에게 답함 기축년(1949) | 266 |
| 答李士裕 己丑 | |

| | |
|-----------------------------|-----|
| 중제 자유 인술에게 답함 기사년(1929) | 268 |
| 答宗第子由仁術 己巳 | |
| 중제 자유에게 보냄 계유년(1933) | 271 |
| 與宗第子由 癸酉 | |
| 중제 자유에게 답함 계유년(1933) | 275 |
| 答宗第子由 癸酉 | |
| 이협천 재영에게 보냄 기미년(1919) | 279 |
| 與李協天 在英 己未 | |
| 이협천에게 답함 경신년(1920) | 282 |
| 答李協天 庚申 | |
| 이헌영에게 답함 을축년(1925) | 283 |
| 答李 憲永 乙丑 | |
| 김순만 상락에게 답함 을축년(1925) | 285 |
| 答金順萬 常洛 乙丑 | |
| 족숙 낙조에게 답함 을축년(1925) | 288 |
| 答族叔 洛潮 乙丑 | |
| 소태화 진석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89 |
| 答蘇太化 鎮奭 丙寅 | |
| 조철하에게 답함 병인년(1926) | 290 |
| 答趙澈夏 丙寅 | |
| 이기용에게 보냄 갑자년(1924) | 291 |
| 與李起容 甲子 | |
| 최이득 종열 이관 일섭에게 보냄 을해년(1935) | 293 |
| 與崔以得 宗烈 以貫 一燮 | |
| 최이관에게 보냄 병인년(1926) | 295 |
| 與崔以貫 丙寅 | |

| | |
|-------------------------|-----|
| 김진옥 수성에게 답함 경오년(1930) | 297 |
| 答金振玉 秀聲 庚午 | |
| 김진옥에게 보냄 경진(1940) | 298 |
| 與金振玉 庚辰 | |
| 김군장 한두에게 보냄 무진년(1928) | 299 |
| 與金君章 漢斗 戊辰 | |
| 김유정 용에게 답함 정묘년(1927) | 300 |
| 答金孺定 浦 丁卯 | |
| 박희재 근호에게 보냄 기사년(1929) | 302 |
| 與朴晦哉根浩 己巳 | |
| 박희재에게 답함 기사년(1929) | 305 |
| 答朴晦哉 己巳 | |
| 나익부 인상에게 보냄 을축년(1937) | 307 |
| 與羅益夫仁相 乙丑 | |
| 나익부에게 보냄 정묘년(1927) | 309 |
| 與羅益夫 丁卯 | |
| 홍찬오 석규에게 보냄 무진년(1928) | 310 |
| 與洪燦五 錫奎 戊辰 | |
| 족질 영노 형린에게 보냄 을축년(1925) | 312 |
| 與族姪靈魯 炯麟 乙丑 | |
| 장문거 연풍에게 답함 무진년(1928) | 313 |
| 答張文居 然豐 戊辰 | |
| 장문거에게 답함 기사년(1929) | 314 |
| 答張文居 己巳 | |
| 조정호 찬흥에게 답함 정묘년(1927) | 317 |
| 答趙正豪 燦興 丁卯 | |

| | |
|--|-----|
| 유성오 삼중에게 보냄 기사년(1929) 與劉省棼 三鍾 己巳 | 318 |
| 송기창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宋基滄 乙丑 | 319 |
| 송기창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宋基滄 丁卯 | 321 |
| 유우일 만중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劉于一 萬鍾 庚午 | 325 |
| 박종기에게 보냄 與朴 鍾基 | 326 |
| 김동길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 東吉 乙丑 | 326 |
| 홍자정 석모에게 보냄 무진년(1928) 與洪子正 錫模 戊辰 | 327 |
| 이태원 인수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仁洙 辛未 | 329 |
| 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 330 |
| 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 332 |
| 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 333 |
| 문학수에게 답함 答文 學洙 | 335 |
| 족제 사문 홍술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弟士聞 興述 癸酉 | 336 |

| | |
|-----------------------|-----|
| 최원경 갑열에게 답함 임신년(1932) | 338 |
| 答崔元敬 甲烈 壬申 | |
| 박남룡에게 답함 계유년(1933) | 340 |
| 答朴南龍 癸酉 | |
| 강제칠 기석에게 답함 무인년(1933) | 342 |
| 答姜齊七 璣錫 戊寅 | |
| 권영규에게 답함 | 343 |
| 答權寧奎 | |
| 안수근에게 보냄 | 344 |
| 與安壽根 | |
| 손창오 동선에게 답함 정축년(1937) | 345 |
| 答孫昌午 東宣 丁丑 | |
| 손창오에게 답함 무인년(1938) | 347 |
| 答孫昌午 戊寅 | |
| 조카 김상현에게 보냄 정사년(1917) | 348 |
| 與金姪庠鉉 丁巳 | |
| 조카 최춘열에게 보냄 계해년(1923) | 351 |
| 與崔甥春烈 癸亥 | |
| 조카 박진호에게 답함 을해년(1935) | 352 |
| 答朴甥珍浩 乙亥 | |

후창집 제12권

| | |
|--------------------|-----|
| 재종조부께 올림 병인년(1926) | 355 |
| 上再從祖 丙寅 | |

| | |
|--------------------------|-----|
| 하수 족숙 낙구에게 올림 을해년(1935) | 356 |
| 上河叟族叔 洛龜 乙亥 | |
| 송고 족형 익술에게 보냄 기미년(1919) | 357 |
| 與松皐族兄 翊述 己未 | |
| 수동의 여러 종친에게 보냄 신미년(1931) | 361 |
| 與壽洞僉宗座 辛未 | |
| 족형 사일 형술에게 보냄 계미년(1943) | 362 |
| 與族兄士一 垆述 癸未 | |
| 족제 명익 병재에게 답함 무진년(1928) | 363 |
| 答族弟明益 柄梓 戊辰 | |
| 족제 명익에게 답함 계유년(1933) | 365 |
| 答族弟明益 癸酉 | |
| 족제 명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 367 |
| 與族弟明益 辛巳 | |
| 족질 상집 형돈에게 보냄 신사년(1941) | 373 |
| 與族姪庠集 炯敦 辛巳 | |
| 족숙 경원 낙상에게 보냄 병인년(1926) | 375 |
| 與族叔景元 洛相 丙寅 | |
| 족질 응봉 형일에게 답함 계유년(1933) | 377 |
| 答族姪應鳳 炯日 癸酉 | |
| 성재 종중에 올림 무오년(1918) | 380 |
| 上星齋宗中 戊午 | |
| 성재 종중에 보냄 무인년(1938) | 382 |
| 與星齋宗中 戊寅 | |
| 분재 문중에 올림 기미년(1919) | 386 |
| 上粉齋門中 己未 | |

| | |
|----------------------|-----|
| 분재 문중에 보냄 무인년(1938) | 388 |
| 與粉齋門中 戊寅 | |
| 계제 여안에게 답함 병진년(1916) | 390 |
| 答季弟汝安 億述 丙辰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병진년(1916) | 393 |
| 與季弟汝安 丙辰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 394 |
| 與季弟汝安 丁巳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 398 |
| 與季弟汝安 丁巳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 399 |
| 與季弟汝安 丁巳 | |
| 계제 여안에게 답함 기미년(1919) | 401 |
| 答季弟汝安 己未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을축년(1925) | 404 |
| 與季弟汝安 乙丑 | |
| 계제 여안에게 답함 병인년(1926) | 408 |
| 答季弟汝安 丙寅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묘년(1927) | 410 |
| 與季弟汝安 丁卯 | |
| 계제 여안에게 답함 무진년(1928) | 414 |
| 答季弟汝安 戊辰 | |
| 계제 여안에게 답함 기사년(1929) | 422 |
| 答季弟汝安 己巳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경오년(1930) | 423 |
| 與季弟汝安 庚午 | |

| | |
|----------------------|-----|
| 계제 여안에게 답함 경오년(1930) | 424 |
| 答季弟汝安 庚午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신미년(1931) | 426 |
| 與季弟汝安 辛未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갑술년(1934) | 428 |
| 與季弟汝安 甲戌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무인년(1938) | 430 |
| 與季弟汝安 戊寅 | |
| 계제 여안에게 보냄 을유년(1945) | 431 |
| 與季弟汝安 乙酉 | |
| 삼종제에게 답함 병자년(1936) | 432 |
| 答三從弟 丙子 | |
| 형복에게 부침 병진년(1916) | 436 |
| 寄炯復 丙辰 | |
| 형복에게 부침 | 438 |
| 寄炯復 | |
| 형복에게 부침 신유년(1921) | 445 |
| 寄炯復 辛酉 | |
| 형복에게 부침 경오년(1930) | 448 |
| 寄炯復 庚午 | |
| 형복에게 부침 경술년(1934) | 449 |
| 寄炯復 甲戌 | |
| 형복에게 부침 기묘년(1939) | 450 |
| 寄炯復 己卯 | |
| 형태에게 부침 갑자년(1924) | 451 |
| 寄炯泰 甲子 | |

| | |
|-----------------------------------|-----|
| 형태에게 부침 병인년(1926) | 453 |
| 寄炯泰 丙寅 | |
| 형태에게 부침 | 454 |
| 寄炯泰 | |
| 형관에게 부침 계유년(1933) | 458 |
| 寄炯觀 癸酉 | |
| 형관에게 부침 아울러 사위 박진호에게 보임 계유년(1933) | 459 |
| 寄炯觀 兼示朴錫珍浩 癸酉 | |
| 형관에게 답함 을해년(1935) | 462 |
| 答炯觀 乙亥 | |
| 형관에게 부침 을묘년(1915) | 464 |
| 寄炯觀 乙卯 | |
| 아이들에게 보임 경진년(1940) | 464 |
| 示兒輩 庚辰 | |
| 조카 형수에게 답함 경진년(1940) | 466 |
| 答從子炯洙 庚辰 | |

후창집 제9권

전사견 일증에게 보냄 임술년(1922)

與田士狷 鎰中 壬戌

지난번 삼일간의 정담은 10여년 사이에 처음 있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봄과 여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지러운 티끌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다시 얼마나 될는지요. 다만 우리의 교유는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어 일시의 즐거움에 기빠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개 장차 인(仁)을 보완하고¹ 잘못을 규간하여 종신토록 즐거움을 향유한 이후에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형에게 어찌 감히 작은 즐거움으로만 서로 어울리고 즐거움의 큰 것은 면려하지 않겠습니까. 형의 뛰어난 재주를 평소에 흠모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문리가 치밀하고² 기백이 강건하며, 언론이 통활하고 의지가 광대함이 이처럼 뛰어난 것은 오늘 이후에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형을 성문(聖門)에서 칭하는 광자(狂者)의 무리³라고 하여도 과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와 같은 재주

-
- 1 인(仁)을 보완하고 : 보인(輔仁)은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다는 뜻으로, 《논어·안연편》에 “군자는 학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라고 하였다.
 - 2 문리가 치밀하고 : 《중용장구》 제31장의 집주(集註)에 “문(文)은 문장(文章), 이(理)는 조리(條理), 밀(密)은 상세(詳細), 찰(察)은 명변(明辯)이다.”라고 하였다.
 - 3 광자의 무리 : 《맹자·진심하》에 맹자가 광자에 대해 말하기를, “그 뜻이 커서 항상 고인을 말하지만 평소에 그 행실을 돌아보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其志嚶嚶然, 曰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 而不掩焉者也.)”라고 하였다.

와 뜻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진실로 하고자 한다면 어떤 덕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어떤 학업인들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형이 만일 영특한 기질을 다듬고 높은 논지를 재단하여 침잠하고 조용히 증정정수로 돌아간다면 선보(宣父)의 문하에 술성공(述聖公)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형에게 단지 손을 한번 뒤집는 쉬운 일이거늘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유시(喻示)하기를 세유들의 병폐는 마땅히 고쳐야 하고 신기계의 발명은 혹 취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공정한 마음이요 트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름지기 나에게 있는 것이 중정하고 정수한 연후에야 고치고 취하는 것이 모두 본연의 권도에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격한 생각과 활대한 견해로 그 사이에 손을 쓰려 한다면 끝내는 공정하지 못하고 트이지 못한 지경으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마음으로 아뢰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與田士狷 鎰中 壬戌

向來三日亶亶，十餘年間，初一樂事。於焉春夏交代。滾滾塵寰，此樂亦復幾何。第吾人結交，不容握手促膝，快一時之樂而止。蓋將輔仁規過。享終身之樂而後已。弟於兄。安敢以小樂相與而不胥勸以樂之大者乎？兄之逸才，非不素所豔賞，至於文理密察，氣魄剛實，言論通豁，志意宏大，若是之度越，今而後始得深知矣。弟於是謂兄爲聖門所稱狂者之流，不爲禍也。以若才志，不爲則己，苟欲爲之，何德之不可成，何業之不可就。兄若磨礪英氣，裁制高論，沈潛從容，反之于中正精粹，是則宣父之門述聖公其人也。此在吾兄特一反手之易

4 술성공(述聖公) : 자사(子思)를 가리킨다. 사성(四聖)은 복성공(復聖公) 안자(顏子), 종성공(宗聖公) 증자(曾子), 술성공 자사(子思), 아성공(亞聖公) 맹자(孟子)이다.

易, 何憚而不爲哉? 向喻以世儒弊癘, 在所當改, 新機發明, 或有可取。誠公心通見。然此須在我者, 中正精粹然後, 其改其取, 皆當於本然之權。不然而以過激之想豁大之見, 欲下手於其間, 其不終歸於不公不通之科者, 幾希矣。并此心告, 幸乞統諒。

전사건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田士狷 乙丑

보내주신 편지에서 풍조의 급박함을 탄식하고, 후진의 실각을 근심으로 여기며, 교육가의 말만 숭상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변통하려고 생각하시니, 가히 세도의 근심과 아주 뛰어난 견해를 우려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통변하겠다는 뜻만 나타내고 통변하겠다는 법을 가리키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가려운 자가 긁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천루한 저로 하여금 그 방법을 보이게 하시니, 이는 어찌 보고 듣는 것을 귀머거리와 맹인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귀머거리와 장님이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은,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자와 일찍이 다른 적이 없은즉, 무매한 저의 견해도 통변을 바람이 고명과 같다는 것 또한 오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내 소견도 없고 듣는 것도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은즉, 공손히 우리 형과 같이 사광(師曠)과 이루(離婁)의 재주를 지닌 자가 지시하는 것을 기다려서 받들어 행할 뿐입니다. 부디 자주 상세하게 교시해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다만 생각해보건대 속세의 유자들은 통변의 이야기를 잠깐 듣기만 하면 비웃음과 비난이 반드시 사방에서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름지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통변의 일은 삼대가 서로 계승한 것과 같아서⁵ 삼강오상(三綱五常)⁶처럼 항상 떳떳이 따라야 할 것과 문질삼통(文質三統)⁷처럼 손익한 것과 같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학문에 있어서 마땅히 만세에 떳떳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문(浮文)⁸과 강변(強辯)⁹은 교육에 있어서 가히 때에 따라 손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통변을 비웃은 자는 한갓 삼대의 상인만 알고 삼대의 손익은 모르는 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다만 두려운 것은 우리가 통변하는 방법이 시의에 적절하지 못하여, 혹 폐단을 제거하려다 폐단을 생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점도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상세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答田士猗 乙丑

惠書嘆風潮之急，而患後進之失脚，悶教育家之尙言，而思欲通變，

-
- 5 삼대가 서로 계승한 것과 같아서 : 《논어·위정》의 집주에, 마음이 “인습한 것은 삼강과 오상을 이르고, 가감한 것은 문·질, 삼통을 이른다.” 라고 하였다.〔所因，謂三綱五常，所損益，謂文質三統。〕주희는 “삼강과 오상은 예의 대체이니, 삼대가 서로 계승하여 모두 그대로 인습하고 변경하지 않았으며, 가감한 것은 문장과 제도 중에 약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三綱五常，禮之大體，三代相繼，皆因之而不能變，其所損益，不過文章制度小過不及之間。〕”라고 하였다.
- 6 삼강오상(三綱五常) :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인륜을 말한다. 三綱은 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이다. 五常은 유교의 다섯 가지 중요한 인륜으로, 仁，義，禮，智，信이다.
- 7 문질삼통(文質三統) : 하·은·주 삼대의 정사를 말한다. 문질(文質)은 하(夏)나라는 충(忠)을, 은(殷)나라는 질(質)을, 주(周)나라는 문(文)을 숭상한 것을 말하고, 삼통(三統)은 하나라는 정월(正月)이 인월(寅月)이어서 인통(人統), 은나라는 축월(丑月)이어서 지통(地統), 주나라는 자월(子月)이어서 천통(天統)임을 말한다. 《論語 爲政 馬氏註》
- 8 부문(浮文) : 실용에 아무 소용이 없는 부박(浮薄)한 문장이다.
- 9 강변(強辯) :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거나 굳이 변명하는 것이다.

可仰世道之憂超誨之見。然但示變之之意，而不指變之之法，則使人如痒者之待爬。反欲淺陋者示其方，則豈非責視聽於聾瞽者乎？雖然，聾瞽之欲視聽，未始異乎聰明者？則昧見之欲通變，與高明同者，亦非不久矣。終無奈無所見無所聞，則恭俟，曠婁之才如吾兄者，指畫而奉行焉。幸亟詳示如何。弟念世儒乍聞通變之說，笑譏之必四至。然是則不須慮也。此正如三代相繼，三綱五常之常因，文質三統之損益。道德倫理，學問之當萬世常因者也。浮文強辯，教育之可隨時損益者也。其笑通變者，不幾乎徒知三代之常因而不知三代之損益者乎？但恐吾之所以變之者，不能適其宜，而或至於去弊而生弊也。此又當精審而詳定也。

전사건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田士狷 乙丑

저들은 세력이 세고 우리들은 세력이 약하니, 화의(和議)가 병의 발미가 된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론(正論)과 편설(偏說)은 번갈아 승부가 되고, 하늘의 공정함과 사람의 삿됨은 상호 굴신하니, 화의의 실행에 통절하게 격분되어 도리어 쇠퇴한 우리 힘을 진작시켜 일으킬 수 있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존부장의 이번 거사는 후사를 함께 이루기를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단지 족히 선사의 무함(誣陷)함만 깊게 하여 저들의 아비도 없고 의를 그르친 그 입을 천년 뒤에 실행시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형께서 죽음으로써 간쟁할 날이니, 힘쓰고 힘쓰십시오.

사자가 토끼를 잡는 법에서 더욱 악을 미워하는 엄격함을 우리

러 볼 수 있군요. 주자가 이른바 임금과 어버이에게 무례한 자를 보거든 매가 새나 참새를 쫓아내듯 하라고 한 말씀¹⁰이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토끼와 참새는 지나치게 번성하고, 사자와 매는 매우 약하니, 아마도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비록 그렇지만, 방향에 따라 무리가 모이고 사물은 무리대로 나뉘니,¹¹ 사자와 매는 저절로 사자와 매일 것이요, 토끼와 참새는 그대로 토끼와 참새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스스로 그 힘을 강하게 하여 저들이 끝내 우리들에 의해서 잡히고 축출되는 바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答田士猗 乙丑

彼張吾衰，和議之爲崇，誠然誠然。然正論偏說，迭爲勝負，天公人私。互爲屈伸，安知不有痛切激厲於和議之行而反以振起吾力之衰德者乎？但恐尊府丈此舉，欲圖後事之同濟，而適足以深先師之誣，實彼輩無父悖義之口於千秋也。此吾兄以死諫爭之日也，勉之勉之。獅子搏兔法，尤仰惡惡之嚴。朱子所謂見無禮於君親者，如鷹鷂之逐鳥雀者，非此之謂耶。但兔雀太盛，獅鷹太弱，恐難濟事。雖然。方以類聚，物以羣分，獅鷹自獅鷹，兔雀自兔雀。只在吾輩自強其力，使彼終爲吾之所搏逐耳。

10 주자가 …… 한 말씀 : 응전은 모두 매의 종류로 군주에게 무례하거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보면 매가 새들을 쫓듯이 몰아냄을 뜻한다. 《춘추좌전 문공 18년 조》 계문자가 임금에게 한 말이다.

11 비록 …… 나뉘니 : 《주역 · 계사 상》에 “事情의 방향은 類에 따라 모이고 물건은 무리로써 나뉘기 마련이다.(方以類聚，物以羣分.)”라고 하였다.

전사건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田士狷 丙寅

근자에 형께서는 자주 구름과 부평초처럼 떠돌아서, 그리움이 있어 편지를 쓰고 싶어도 장소가 없고, 편지가 있어 답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강은 비록 이 때문에 변하지 않겠지만, 다만 두렵기는 세찬 바람과 사나운 우레¹²에 미쳐 서로 도모하지 못한 것을 우려합니다. 호남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어떤 판본이건 불문하고, 절대 용동(龍洞)에 허락해선 안 된다는 그대의 견해는, 유독 머리를 끄덕이게 합니다. 백리 먼 길을 급히 간 것도 더욱 흔복(欣服)할 만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의 큰 일이 있으니 의심이 있으면 서로 헤아리기를 꺼리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곧바로 서로 고쳐나간다면 어찌 실수가 있을지를 근심하겠는지요. 이전에는 항상 생각을 형께서는 불과 뜻은 크고 말은 높지만, 행실이 혹 말을 덮지 못하는 광자(狂者)라고 여겼는데, 근일의 일로 보건대 비록 먼저 말을 행하고 뒤에 말이 따르는 군자라고 일컬어도¹³ 지나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도래본(島來本)¹⁴은 내가 진실로 형께서 부득이 용동에 주었다

12 세찬 바람과 사나운 우레 :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만일 세찬 바람과 빠른 우뢰와 폭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낮빛을 변하며 비록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앉는다.(若有疾風迅雷甚雨, 則必變, 雖夜必興, 衣服冠而坐.)”라고 한 말을 실천한 것이다.

13 근일의 …… 일컬어도 : 《논어 · 위정편》에, “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신(其)이 말할 것을 먼저 실천하고, 이후에 뒤따르게 할 것이다.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라고 하였다.

14 도래본(島來本) : 바다에서 건너온 판본으로, 하동수정본을 말한다.

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 또한 일찍이 스스로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송씨(宋氏)로 인해서 형께서 이 판본까지도 아울러 깊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께서 일을 꼼꼼히 하고 말을 삼간다는 것이 이와 같을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의를 끝내 지키고 대사를 이룰 자, 형이 그 사람입니다. 간옹(良翁)의 집안사람 중에 다만 전일중(田鎰中) 한 사람이 있다고 운운하며, 세간의 공정한 의론이라고 한 것은 진실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가히 믿고 주인으로 삼아 근심이 없습니다. 원컨대 형께서도 항상 행실이 말을 덮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혹 많은가를 자성(自省)하여, 힘써 한번 옛 모습을 변화시켜 전체의 군자를 이워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答田士猗 丙寅

近兄多作雲遊萍蹤，有懷而書之無所，有書而答之何地。青天白河，雖不以此而少變，但恐疾風迅雷，不及相謀，是所慮也。湖藏勿問何本，絕不許龍，高見獨點一頭。而百里急駕，更可欣服。吾人尚有種種大事，有疑焉不禪相確，有過焉隨卽相棊，何患有失。前此乎常謂兄不過爲志大言高，行或不掩之狂者，以近日事觀之，雖謂之先行言後從之之君子，不爲過也。何也。島來本，吾固心認兄之不免投龍。兄亦未嘗自言不投。始因宋氏，知兄之并與此本而深藏。不圖兄密事慎言之若是也。終能守大義成大事者，兄其人乎。良翁家中，只有田鎰中一人云者，世間公議，眞不虛矣。吾輩可恃以爲主而無憂爾。願兄亦常自省行不掩言者，尙或多乎，務要一變故態，而成全體君子，區區不勝其望焉。

전사건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田士狷 丙寅

갑자(甲子) 동짓달 20일에 존부장께서 옹정(甕井)¹⁵에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홍희(洪憲)는 어디로부터 현동(玄洞)¹⁶의 통문을 얻어 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삼가 통문을 공경히 읽어보았습니다” 라고 운운하시고, “김택술 군의 이름도 통문에 들어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아마도 여러 해 동안 많은 세월을 스승 간재를 따랐으니 반드시 터득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옛 도리를 능히 지키지 못해 이 벗 김택술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존부장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제가 홍희를 만나기를 이 앞부터였더라면, 나는 이미 홍희에게 천대를 받으니 어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겸연쩍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있겠으며, 이 뒤부터였더라면, 천하에 어찌 내 자신은 선사의 훈계를 지키고 선사를 무함(誣陷)했던 자를 토벌하며, 선사를 위하여 죽음을 허여한 주체가 되었다고 나라 사람들의 이목에 알려져 있는데, 도리어 저 관부의 사령인 오진영에게 구차히 야부하는 김택술이 될 수 있었습니까?

答田士狷 丙寅

甲子至月念， 聞尊府丈到甕井言於衆中曰。洪憲從何而得見玄洞通文。致書于余曰敬讀通文云云， 金澤述君名參通文， 想其積年從師，

15 옹정(甕井) : 남원군 기지면 옹정 지역으로 향아리처럼 생긴 우물이 있어 '독우물' 또는 '옹정'이라 하였다.

16 현동(玄洞) : 전남 익산시 삼기면 기산면리로 현산(玄山)에는 간재의 묘가 있다.

必有所得。吾則不能守舊，有愧此友云云。或說弟之見洪，前乎此云耶，則我已爲洪之所賤，何以有此想慕歉愧語，後乎此云耶。則天下安有身爲守訓討誣爲師許死之大骨子于國人耳目，而反營營彼府使令之金澤述乎。

전사건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田士狷 丁卯

어제 옹정(甕井)에 오신 행색을 보았고, 오늘은 석관(石館)에서 보내온 정겨운 편지를 받으니, 직접 대면을 하던지 편지를 받던지 간에 모두가 다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저 또한 장차 형을 물 위의 부평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쭉대 사이에서 뒤따르고자 한 것은, 어찌 단지 곤궁한 거처에 여러 가지 끌리는 일로 형이 안타까워하기 때문만 이겠습니까? 현광(玄狂)은 이미 일을 맞이한 후창(後滄)이고, 후창은 아직 일을 맞이하지 못한 현광이지만, 그 발자취의 선후에 곤궁함이야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매번 보건대 사람들은, 유림의 액운과 세운이 궁극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세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 처하는 방법이 있을즉,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찌 아마도 미진한 바가 있어서 줄곧 우졸한 병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처세의 방법은 변치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 죽음과 삶을 통틀어 말하자면, 우활하고 졸렬함을 변화시켜서 능통하고 솜씨 있는 자가 된 사람은, 형체는 살지만 몸은 죽은 대로 귀결되지 않음이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처한 바가 끝내 정당함을 얻었는지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스스로

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이에 큰 일이 있지만 단지 우리들이 능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다한 배포(排布)¹⁷도 모두 뜬구름이 될 뿐이라, 일체의 시비에 대해서 기를 토해낼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형께서는 매번 건강으로 스스로를 매번 허여하여, 남이 피곤하여 기운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굶주린 쥐만도 못하게 여겼거늘, 한번 환난을 겪고 나더니¹⁸ 이 말을 갑자기 발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 삼아 옛사람으로서 복자(伏雌)를 삶고 염이(屨屨)¹⁹를 태운 자가 형의 오늘날과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후래의 배포와 토기가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현재 일삼는 바는 날마다 몇 말의 쌀을 먹고 백만의 군대를 몰아서 변방을 소탕하는 것과 같지 않고, 오직 의리를 밝히고 난적을 토벌하여 오늘날과 훗날의

- 17 배포(排布)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애써 행하는 일이다.
- 18 한번 환난을 겪고 나더니 : 《맹자 · 고자 · 하편》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必先苦其心志，苦其筋骨，餓其體膚，窮乏其身，行拂亂其所爲，所以動心忍性，增益其所不能。]”라고 하였다.
- 19 복자(伏雌)를 삶고 염이(屨屨)를 태운 자 : 《孟子 · 萬章上》에, 춘추 시대 백리해가 일찍이 초나라에서 남의 소를 기르며 지낼 때, 진 목공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백리해를 재상으로 발탁한 뒤 잔치를 열었다. 그때 마침 백리해의 옛 아내가 재상의 관아에서 샅일을 하다가 남편을 알아보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기를 “백리해여! 다섯 마리 양의 가죽으로 이별하던 때가 생각난다. 암탉을 삶아 먹고, 문빛장으로 밥을 지었네. 오늘날엔 부귀하여 나를 잊었던 말인가?(百里奚，五羊皮，憶別時，烹伏雌，炊屨屨。今日富貴，忘我爲?)”라고 하였다. 백리해가 그 노래를 듣고 누구냐고 물어보니 바로 자기의 옛 아내였으므로 다시 그와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이목을 일깨우는데 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비록 기진맥진하지만 마음은 죽지 않고 혀도 여전히 남아있고 붓도 몽당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의 재주로도 이런 상황을 면치 못하고 도리어 이에 남은 용기를 더욱 복돋으라고²⁰ 나같이 비열한 자를 질책하시니, 어찌 일찍이 약한 장수에 강한 군졸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하셨습니까? 진실로 당신의 말씀이 한때의 비분강개하고 상심한 나머지 나온 것으로 다른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이 한마디 말이 이미 듣는 자로 하여금 기운을 잃게 하니 형도 조금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答田士狷 丁卯

昨見襄旅行色，今奉石館情書，以面以書，在在傷心。弟亦行將追兄於水萍風蓬之間者，豈但以窮居百掣見隣於兄。蓋玄狂己當之後滄，後滄未當之玄狂轍迹先後之涸，豈有間哉。每見人說儒林之厄世運之極。然聖人無擇世之術，有處世之法，則吾輩所以處此世者，豈非有所未盡而一向爲迂拙所崇也耶。但處世之法，通常變死生而言，則變迂拙而爲通巧者，鮮不歸形生心死。然則吾輩所處終得正當耶，不可以不自反，亦不可以不自信。自信自反之間，大有事在，顧吾未之能焉。高見以爲如何。許多排布總成浮雲，一切是非，無緣吐氣，是何喻也。兄每以堅剛自許，見人疲薶，不啻餒鼠若也，而一經空佛此言之猝發何也。試看古人烹伏雌炊屨屨者，視兄今日果何如，後來排布吐氣又何如。且吾輩目下所事，非如日食數斗米，驅百萬兵，掃蕩微塞確在明義理討亂賊喚醒今與後耳目。顧雖殄殄心不死矣，舌尚任

20 남은 용기를 더욱 복돋으라고 : 《春秋左氏傳·成公2年》에, 춘추 시대 제나라 고고(高圉)가 진나라 군진으로 돌입하여 혼자서 휘젓고 돌아온 뒤에 자기 군사들의 용기를 복돋워 주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다면 나의 남은 용기를 팔아 주겠다. [欲勇者, 賈余餘勇。]”라고 하였다.

矣，筆不禿矣，何爲而出此言也。以兄之材不免此狀，乃以益賈餘勇責卑劣如弟者豈曾聞弱將之下有強卒乎。固知盛喻出於一時慨傷之餘非有他也，只此一言已使聽之者喪氣則兄亦少未之思也。

전사건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田士狷 丁卯

음당(陰黨)이 선사의 원고를 고친 죄를 문식(文飾)하여 말하기를 “선사의 오묘한 도와 정밀한 의리는 문자로 다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만약 우리 몇 사람이 선사께서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전수한 것으로 개수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원고를 완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호라! 선사의 80년 동안 진리를 쌓은 공부를 문사가 당신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여겨서 반드시 저들의 개수와 보완을 기다린 후에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더욱 지극히 통절합니다.

答田士狷 丁卯

陰黨文飾其改稿之罪曰，先師之妙道精義，有非以文字蓋者，若非吾輩幾人以口傳心授者，改補之，稿不得完云。嗚呼。曾謂先師八十年眞積之工，辭不足達其意，必待渠輩改補而後得完乎。尤極痛絕。

전사건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田士狷 丁卯

올해도 남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월은 날마다 줄어들

고, 세상의 어두움은 날로 심해지며, 머리털의 상설(霜雪)은 날로 더해지고, 눈앞의 죽음은 날로 꺾박해 옵니다. 매번 송구봉(宋龜峰)의 ‘흉중의 계책은 끝내 무용하니 천하에 남아가 다신 살지 못하리라’는 시구를 낭송하면 비장하고 격렬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대의 회포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 만남은 정히 어느 곳일는지요. 바람을 맞으며 서글플 뿐입니다.

答田士狷 丁卯

此歲又無多月矣。天之歲月日減一日，世之黑暗日甚一日，鬢邊霜雪日添一日，眼前溝壑日迫一日。每誦宋龜峰胷中大計終無用。天下男兒不復生之句。未嘗不悲壯激烈。想高懷之亦一樣也。新歲常着，定在何地。臨風冲悵。

전사건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田士狷 戊辰

천정(千亭)의 육위문(六偉文)²¹은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²² 한 나라는 삼고(三古)에 가까운 시대인데도 위서(僞書)가 세상에 돌아다녔고, 이정(二程) 선생의 문집은 양시(楊時)에게서 나왔는데도 유초(游酢)의 문장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²³ 옛날에도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말세의 시대에서야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선사를 모시

21 육위문(六偉文) : 상량문을 말한다. 상량문에는 아랑위(兒郎偉)라는 글이 여섯 번 들어가므로 이렇게 칭한다.

22 간재가 육위문을 지은 적이 없는데 지었다고 하여 변괴라 한 것이다.

23 이정 …… 뒤섞여 있습니다 : 양시(楊時)와 유초(游酢)는 정이천(程伊川)의 문하생으로, 사양좌(謝良佐)·여숙(與叔)과 함께 ‘정문사선생(程門四先生)’으로 일컬어진다.

고 있을 때에 모(某)씨의 대대로 내려온 문헌을 보니 모 현인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선사께서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괴이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아무개 고을에 문지(門地)²⁴는 한미한데 집안은 좀 넉넉한 사람이 그 아버이를 장례 지내는데 연재(淵齋)²⁵의 만사를 얻었다고 칭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일에 천정의 옥위문도 이와 견주어서 동일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사께서 평생 전혀 옥위문을 짓지 않은 것은 헛되고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암(蒼巖)의 간청으로 인하여 옥위문을 쓰지 않는다는 계율을 깨뜨리고 허락하였지만 또한 병암(炳庵)²⁶을 시켜서 대작(代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눈으로 본 것이니 천정의 옥위문이 허위라는 것은 널리 문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가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答田士狷 戊辰

千亭六偉，亦一變怪。漢近三古，僞書行世，程集出楊，雜以游文。古猶如此，況叔季乎。昔侍先師，觀某氏世獻有某賢文字。先師怪其無據。又於某鄉地微家溫者，葬其親，稱得淵齋挽而用之者。今日千文視此一例。先師乎生絕不作六偉文，以其虛華也。特因蒼巖懇請，破戒許之，而亦令炳庵代作。此弟之目覩，千文之僞，不待博詢而可決也。

24 문지(門地) : 가문(家門), 문벌(門閥)을 가리킨다.

25 연재(淵齋) :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다. 호가 연재이고 자는 화옥(華玉)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한말의 문신이며 학행(學行)으로 천거 받아 **좌주(祭酒)**에 기용된 뒤 **서연관(書筵官)·경연관(經筵官)·대사헌**을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했다.

26 병암(炳庵) : 김준영(金駿榮, 1842~1902)이다. 간재선생에게 사사하였다.

전사건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田士狷 己巳

편지를 받으니 스스로를 평한 말씀이 비록 위겸(摛謙)²⁷의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소인(小人)들이 미워하고 범부(凡夫)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법도를 바꾸어서 합치할 수가 없고, 저들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대로 방임할 뿐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그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서 병이 될까 두려워 한즉, 제가 비록 안으로 반성하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²⁸ 군자에게서 미움과 두려움을 얻은 것이 혹 지혜와 인에만 전력하고, 의젓하게 임하는 것은 소홀히 하며 쉽게 하는데 있다면, 이것은 끝내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형이 만약 능히 이 점에 있어서 만일 이와 같이 하면 병이고,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약이 된다²⁹라고 하는 훈계를 한다면 더욱 뜻을 더하십시오.

答田士狷 己巳

承惠自評之語，雖出於摛謙之意，亦不敢絕不謂然也。彼小人之惡之也，凡夫之懼之也，吾不可以改度而合之，任彼之惡懼而已。惟君子

27 위겸(摛謙) : 《주역》〈겸괘(謙卦) 육사(六四)〉에, “겸손함을 베풀어 이롭지 않음이 없다.[无不利摛謙.]”라고 하였다.

28 제가 …… 할지라도 : 내성불구(內省不疚)는 자기의 내면을 살펴 흠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안연(顏淵)〉에 “내성불구하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內省不疚 夫何憂何懼]”라고 하였다.

29 형이 …… 약이 된다 : 《朱子大全 卷64》. 주희(朱熹)의 〈혹인(或人)에게 답한 편지〉에, “이와 같음이 병이 됨을 알면 이처럼 하지 않는 것이 약이 된다.”라고 하였다.[如此是病，即便不如此，是藥。]”라고 하였다.

之恐其逸出軌轍而病之， 則吾雖內省而不疚， 其所以得此於君子者， 或在於專力知仁忽易莊澁之由， 則終有不可視爲無事者。 兄若能於此知如此是病不如此是藥之訓， 一倍加意焉。

전사건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田士狷 己巳

듣자니 당신의 종형 사인(士仁)이 선사의 연보와 묘갈을 음성 사람 오진영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음성 쪽 사람에게 왔으니, 아마도 헛되지 않은 듯합니다. 알 수 없으나 미리 존부장께 여쭙고 아뢰어서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일을 알지 못하는데, 손자가 조부(간재)의 일을 멋대로 했다는 것은 진실로 그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존부장이 아버지 일에서 아버지의 의(義)를 무함(誣陷)하고, 아버지의 원고를 어지럽히고, 아버지의 문인에게 화(禍)를 입히고, 아버지의 일을 이을 사람을 압송하게 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더욱 그러한 이치는 없습니다. 그런 즉 그 음성 사람에게 연보와 묘갈문을 맡긴 일에 대한 설은 거짓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사인은 본래 오진영의 무함(誣陷)함에 흔들리고 미혹되어서 시시비비에 모호했은즉, 아울러 진주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조차도 능히 보존치 못했으니 멋대로 중대한 일을 오진영에게 맡긴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기억해보니 옛날에 임동만(任動萬)이 전옹(全翁)³⁰의 시장(諡

30 전옹(全翁) : 전재 임헌회(全齋 任憲晦. 1811~1876) 선생으로 간재의 스승이다.

狀)³¹을 신기선(申箕善)³²에게 요청했을 때 선사(간재)께서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차라리 시호가 없을지언정 신기선의 시장은 써선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진영이 선사께 죄를 얻은 것은 어찌 신기선이 전용에게 죄를 얻은 것에 견줄 것인가요? 이 일로 가히 오늘의 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인의 부탁은 진실로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만 저들 오진영 쪽의 저가 부탁을 받고 부끄러움도 모르니, 어찌 그리 얼굴이 두꺼울 수 있습니까? 비록 그러나 근래에 이러한 것을 초래한 것은 어찌 존부장께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친분으로서는 아들이고, 나이로서는 노성한 인물이어서 일의 전말을 알 것입니다. 또 문장과 식견으로는 스스로 말아서 충분치 않을 수가 없는데, 어찌 일찍 연보와 행장의 일에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도외시하여 이런 변란을 낳게 했습니까? 이러한 일은 모두 용동의 간행물 한 가지 일에 심력(心力)과 의리(義理)가 모두 꺾이게 되어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탄식합니다. 그러나 오늘에 미쳐서 변란을 구하고, 뒷일을 잘 마무리할 계획은, 여전히 존부장의 신상에 있습니다. 우리 형의 입장에 있어서도 또한 응당 뜰을 지나면서 도를 깨우쳐줄 방도³³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答田士獮 己巳

聞令從兄士仁，託先師年譜墓碣於陰人。而此說來自陰邊，似不爲

31 시장(論狀) : 재상이나 학자들이 지내 온 일을 적은 글이다.

32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은 조선 말기의 학자요, 문신이다.

33 뜰을 지나면서 도를 깨우쳐줄 방도 : 원문의 과정(過庭)은 원래 ‘부친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으로, 공자(孔子)의 아들 백어(伯魚)가 뜰을 지나갈 때, 공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 시(詩)와 예(禮)를 공부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論語 季氏》

虛。未知已稟白于尊府丈而託之否。子不知父事而孫擅祖事，固無其理，使之託父事於誣父義，亂父稿，禍父門人，押父嗣孫之人尤無其理。則其說不可謂不虛矣。雖然。士仁本不免撓惑於震誣而模糊於是非，則并不能存羞惡於晉囚之禍。而擅託重事於震，容無怪者矣。昔任動萬之請全翁諡狀於申箕善也，先師有書曰，寧可無諡號，申狀不可用。震之得罪於先師，豈直申於全翁之比乎。此可以斷今日事也。士仁之託，固出於不識分數，渠之受託而不知恥，何其顏厚也。雖然邇來致此者，豈非尊府丈不思故歟。以親則子矣，以齒則老成而悉始終矣。以文識則足以自任而無不足矣，胡不早自力於譜狀之役，佻倪至今而俾生此變也。總爲龍刊事之崇，心力義理，俱被沮喪。收拾不上，可歎也已。然及今救變善後之策，猶在尊府身上。在吾兄，亦應有過庭喻道之方矣。唯是之俟爾。

전사건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田士狷 己巳

일전에 그대의 족속 김형두(金炯斗)가 와서 말하기를, 지난 해 오월에 선현의 자취를 역사책에 넣는 일로 홍희(洪憲)를 방문해 만났는데 홍희가 족속의 안부를 물었고, 학문하는 것이 돈독한지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하여 김형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고, 홍희가 말하기를 “지난번 오진영이가 와서 나를 만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오진영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매우 거칩니다”라고 하여서, 나를 찾아온 김형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일 년 전에 오진영이가 홍희를 방문하였는데, 홍희가 말하기를 이러한 때는 오진영 그대가 서울 홍희의 집에 오셔서 나를

방문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대가 들은 것이 일 년 전 일이 아닌가 하였더니, 김형두가 말하기를 “홍희는 분명히 지난 번 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아, 사람이 늙어서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 형은 영남에 있을 때, 오진영의 당파가 나에게 대해 비난하며 이른 말이었던 ‘홍희를 만나서 무엇인가 말을 일을 요구했다는 설’을 녹송(錄送)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또 제가 답하기를 홍희가 춘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흠’자가 들어있는 아우는 구덕(舊德)을 먹으면서³⁴지내는데, 자신은 시속을 따르는 것이 부끄럽다”고 답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오진영이가 누차 홍희를 만나 것이 어찌 진실로 현재의 책임을 요구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늙어서 미칠 수 없으니, 참으로 우습습니다. 또 홍희가 일찍이 오진영이가 고도의 편지를 작위를 가진 민영휘(閔泳徽)와 사인에게 준 것 때문에, 크게 불초한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제 와서 단지 매우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우하여 말을 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答田士猗 己巳

日前鄙族金炯斗來言曰，去年五月，以先蹟入史事，訪見洪憲，洪問族叔安否，又問爲學彌篤否。答曰然，洪曰向者吳震泳來見我。因曰此人麤甚，余謂斗曰年前吳訪洪，洪曰此時公不宜入京訪我京訪我。子之所聞非年前事耶，斗曰洪分明言向者云。噫人之老猶無恥若是耶。兄不記在嶠時錄送吳黨謂余見洪束任之說乎。又不記弟答以洪與春府書，有欽弟食舊德己徇時之語乎。吳之累次見洪，豈真求時任者

34 구덕(舊德)을 먹으면서 : 《주역》에 나오는 말로 ‘옛 덕을 간직하니 옛 사람을 따르더라도 길하다.’라고 하였다. [象曰，食舊德，從上，吉也。] 흔히 유학자로 생활하는 것을 ‘구덕을 먹는다’라고 한다.

耶。然老無及矣。可笑也己。且洪曾以吳之致古道書於閔爵泳徽與士仁書，謂之大無狀人云。而今只謂鹿甚者以待初面人，而不欲索言故耶。

전사건에게 답함 임신년(1932)

答田士狷 壬申

유씨³⁵가 간행한 전재(全齋) 선생 연보는 저도 또한 근자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보에서 이르기를, 전재 임헌회 선생께서 문인 간재 전공에게 명하여 오선생의 수언(粹言)을 모아서 14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실로 형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설인행(禮說印行) 조목에도 또한 이르기를 간재 전공이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의 명령 아래에서 문인의 성명을 쓰지 않고 그 별호를 쓰고 높여서 공이라고 한 것은 도대체 어느 경전에 나오는 것입니까? 유씨 쪽에서 온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보는 임참봉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선자인 임헌회의 문인인 간재를 지목하여 호를 이야기하고 공이라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예의 체면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이 출행했다는 연보의 조목을 보면 곧바로 유모 서모 종행했다고 말하고, 호를 쓰지 않고 연보에 부록한 문인의 제문 제목 아래에도 또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한 쪽에서 의를 듣고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변명하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기를 면치 못한 것입니다.

35 유씨 : 유영선 柳永善, 1893~ 1961)으로 호는 현곡(玄谷)으로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또 부록인 <간재록(良齋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사 간옹께서 신미년 모월 삭(朔)일에 우리 선자를 모시면서 고하기를, ‘꿈을 꾸었는데 소자인 제 나이가 41세 된다고 말했습니다.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아 목숨의 한계가 닳쳤구나, 그러나 참으로 한스러운 것은 학문에 소득이 없이 죽는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자께서 곧바로 그 목소리에 응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후로 41년이 더해져서 82세가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현자의 면학을 위해서 신명이 견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덕과 학문을 닦아 수업할 날이 여전히 많으니 더욱 면진하여 성인과 철인을 기약하는 것이 노부의 바람이니라”라고 연보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가히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사의 학문은 진실로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서 나이가 부족한 것도 잊었고, 전옹께서도 사람을 가르칠 때 또한 다만 인(仁)을 제 소임으로 삼아 죽은 후에 그친다는 법문을 쓰시니, 반드시 알기 어려운 수단(修短)³⁶을 마음에 따져서 말씀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사께서 실제로 꿈을 아뢰는 일이 있고, 전옹께서 실제로 이러한 꿈을 해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과 말할 때에 한번의 웃음거리가 됨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후인의 가칙(柯則)³⁷이 되는 보록에 기대어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말에 근거하여 추구해보면 파탄되고 불치되지 못함을 면치 못하여, 실로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볼 수 없는 경우이겠습니까? 선사는 신축생(辛丑生)인즉, 신미년(辛未年)에는 나이가 31세입니다. 어

36 수단(修短) : 목숨의 길고 짧음을 말한다.

37 가칙(柯則) : 《시경(詩經)》 빈풍(豳風) 벌가(伐柯) 편에 유래하는 말로 표준, 전범(典範) 또는 귀감이라는 뜻이다. “도끼 자루를 뱀이여 도끼 자루를 뱀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않네.(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하였다.

찌 41세가 되어 명하니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41세를 더하면 72가 되니 어떻게 10년을 덧붙여서 82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왕이 문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꿈을 꾸었더니 상제가 나에게 치아 9개를 주었습니다”라고 하자, 문왕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나이를 치아라고 하여, 내가 너에게 셋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왕은 97세에 붕어하였고, 무왕은 93세에 붕어하였습니다. 지금 간재에게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은, 선사의 82세 천수에 억지로 끌어다 합치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용의 선견의 지혜가 거의 문왕의 이 일과 같음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예기(禮記)》의 이러한 설들은 대부분 후인들이 견강부회하여 나온 것으로, 이미 선유(先儒)의 논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으니 제가(諸家)의 기술 조목에 《조선사략(朝鮮史略)》³⁸과 《대동사강(大東史綱)》³⁹ 두 서책 가운데에 전용을 칭송하고 선양하는 말을 기대하였는데, 《사강》은 듣건대, 북도인(北道人)이 저술한 것으로 음성의 오진영이가 교감한 것이요, 의화군(義和君)이 서(序)를 단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사략》은 일제의 작위를 받은 대감 아무개의 저작이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대한의 국자감을 지낸 선생께서 어찌 일제의 작위를 받은 모 대감의 소작(所作)의 무거움을 빌리고 그가 칭찬하는 말을 빌려서 기재한단 말입니까? 임참봉의 연보 발문에 ‘오진영과 유영선이 함께 일을 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씨는 식견으로 스스로를 허여하고 그 오진영 문인의 무리가 선사보다

38 조선사략(朝鮮史略) : 1923년 김종한이 우리나라 역사를 편년체로 저술한 역사서이자 학술서이다.

39 대동사강(大東史綱) : 1929년에 김광이 간행하여, 단군조선부터 대한제국 순종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우월하다고 칭송하는 자인데, 그 교감한 바가 이에 이와 같으니
아아, 그 견식의 고루함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열독하고 얻
은 실착(失錯)도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밖에 수많은 오류
가 있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형이 만약 다시 연보를 본다면, 모름지기 다시 상세하게 보여주
시어, 하나하나 곧바로 변론하시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대개 전용
의 연보와 묘지는 오진영이가 가히 도울 일이 아닙니다. 비록 일
이 정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옳지 않거늘, 하물며 병폐가 이
와 같이 많을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공론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答田士狷 壬申

柳刊全齋先生年譜，弟亦近得暫見。而其云先生命門人良齋田公，取
五先生粹言爲十四卷，誠如兄言。(禮說印行條亦云良齋田公所編)師
命之下，不書門人姓名，而書其別號，尊之爲公者，是出何典。自柳
邊來者，有云譜是任參奉作。故目其先子門人而曰號曰公此爲得體。
然則其於先生出行條，直言尹某徐某田某從行，而不書號，附錄門人
祭文題目下，亦然者皆何也。此不免爲一邊聞義不服，強辯自是之失
也。且附錄良齋錄有云。先師良翁辛未某月朔，侍吾先子告曰，夢一
道士，道小子年爲四十一云，覺來思之，命限至矣，可恨者學無所得
而死。先子卽應聲曰，自今四十一加之於後，爲八十二歲，得不爲賢
者勉學，神明警告者乎。進修之日尙多，彌加勉進，期以聖哲，是爲
老夫之望。此又可疑者，先師之於學，固俛焉孜孜，忘年數之不足。
全翁教人，亦但以仁爲己任，死而後己之法門，必不以難知之修短較
於心而形於言。使先師而實有是告夢，全翁而實有是解夢，不過爲語
次間一笑之資，不宜載於柯則後人之譜錄。而況卽此而求之，自不免

破綻不合而未見實有是事者乎。先師是辛丑生，則辛未之歲，爲年三十一矣。安得爲四十一而命限至。自今更加四十一則爲七十二，安得加十年而爲八十二乎。武王告文王曰，夢帝與我九齡，文王曰古者謂年爲齡，我與爾三。文王九十七而崩，武王九十三而崩。今良齋之有是錄，而牽合於先師八十二之天年者，欲使人知全翁先見之知，殆若文王此事也。然曾不知禮記此等說，多出後人傳會者，已有先儒所論也。又有一焉，諸家記述條，載朝鮮史略大東史綱二書中稱揚全翁語，史綱聞是北道人所著，陰吳所校，義和君所序。未知著者爲何等人。吾不敢言。史略此非月爵大監某之所作乎。堂堂大韓之國子先生，何所籍重於日爵大監之所作而引載其語乎。任參奉譜跋，有吳柳同役語，吳以見識自許，而其徒稱以優於先師者，而其所校勘乃如是，噫其見識之固陋。亦可知己。霎時閱見所得失錯，已至於此。安知此外不有幾多謬舛乎。兄若再見，須更詳示一一立辨，如何。蓋全翁譜誌，非吳之所可相役者。雖使事出精當，猶爲未可，況疵病之此多乎。然而世無公論，柰如之何。

전사건에게 답함 계유년(1933) 4월

答田士狷 癸酉 四月

지난 25일에 전순형(田舜衡)이 내방하여 원고에 관한 일을 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문기를 음인이 이른바 행하죽상(杏下竹床)⁴⁰에서 잘 헤아려 행하라는 설(說)은, 이는 스승에게 인의(認意)⁴¹가 있다

40 행하죽상(杏下竹床) : 이른바 '행하죽상독대설'이란 간재(良齋)께서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살구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는데 오진영이 지나가므로 그를 불러 독대로 이르기를 문집은 "나 죽은 후에 임자가 요량 것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설이다.

고 무함(誣陷)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순형이 말하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또 묻기를 음인이 서모(徐某)에게 답한 편지에서 이른바 “그 사실은 원래 선사의 말씀하지 않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승에게 인교가 있다고 무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형이 말하기를 “이것은 말실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서로 이별할 때 제가 순형에게 말하기를, “어제 논한 음인의 두 가지 설⁴²에 대해서 그대는 끝내 모른다고 하고 또 말실수라고만 여깁니다”라고 하였는데, 순형이 말하기를 “마음속의 춘추(春秋)⁴³는 사람마다 모두 있으니 저라고 어찌 소견이 없겠습니까? 다만 속담에 그 나라에서는 춘추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왼쪽을 편들면 오른쪽이 노하고, 오른쪽을 편들면 왼쪽이 화를 내니, 제가 어찌 그 사이에서 간여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무함하고, 무함하지 않았다는 그 물음에서 사람들은 가슴속에 춘추가 있다고 대답한즉, 그대 또한 무함하지 않았다고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슴속에 춘추가 있다’는 것은 나와 무관한 곳에만 쓰고, 일이 자기의 분수 상에 이르면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은 나의 아버지와 같아서 일이 스승에 관여되면 그것이 크

41 인의(認意) : 여기에서 인의는 후창 쪽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출간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오진영 쪽에서는 출판사에서 인가를 받아주면 출간해도 좋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42 두 가지 설 : 하나는 음변 쪽의 ‘행하죽상설’이고, 하나는 오진영이 서모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씀하지 않은 교시를 받아들였다’고 한 것이다.

43 마음속의 춘추 : 본문의 ‘皮裡春秋’는 ‘살가죽 속의 춘추(春秋)’라는 말로 곧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시비를 가려 포폄(褒貶)을 가하는 것이다. 진(晉)나라 때 소준(蘇峻)을 평정한 공신으로 벼슬이 정토대도독(征討大都督)에 이른 저부(褚裒)를 대신(大臣) 환이(桓彝)가 일찍이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가죽 속의 춘추가 있다.[季野有皮裏春秋]”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의 皮裡春秋 살가죽 안에 춘추가 있다.

게 자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절의가 없다고 무함(誣陷)하는 것은 그 죄가 큼니다. 이때에 춘추를 써서 구두나 붓끝을 쓰지 않고, 다만 가슴속에 있는 춘추만 써서 타인의 혐의와 노여움만 회피한다면, 이는 스승을 섬기는 도를 잃은 것이고, 자가의 분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속에 보존된 것이 끝내는 오유(烏有)⁴⁴에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시비(是非)의 실질은 자기의 본성에서 터득되고 마음에서 구비되는 것이어서, 끝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是)를 비(非)라 하고 비를 시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형이 음성 쪽을 편들어도 오히려 감히 허물을 가려주고 엄호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춘추가 있다고 일컬으니, 만일에 여기서 제가 순형의 잘못을 변론하고 주도한 것이 조금이라도 억지스러웠다면, 순형의 평소 이기기 좋아하는 기질로 어찌 이 말을 즐겨 하였겠습니까!

순형조차 이와 같으니 온 세상의 공론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문제인(同門諸人)들이 모두 다 그 나라에서는 춘추가 어렵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으니, 학계의 부실함이 하나와 같이 이 지경에 이르러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어찌할는지요!

答田士狷 癸酉 四月

去念五田舜衡來訪，提出稿事，余問陰人所謂杏下竹床料量爲之之說，是不爲誣師有認意乎。衡曰不知也，又問陰人答徐某書，所謂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者，是不爲誣師有認教乎。衡曰此語失也。翌朝相

44 오유(烏有) : 없는 것이다. 한나라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자허부(子虛賦)〉에서 자허, 오유 선생, 망시공(亡是公)이라는 가공의 세 인물을 설정하여 문답을 전개했는데, 자허는 ‘빈말’이라는 뜻이고 오유 선생은 ‘무엇이 있느냐’는 뜻이고 무시공은 ‘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후세에 허무한 일을 말할 때 흔히 자허·오유라 하였다.

別, 余謂衡曰昨論陰人二說, 子終以爲不知及語失而已乎。衡曰皮裡春秋, 人皆有之, 吾豈無所見。但諺不有其國難舞之語乎。左之則右怒, 右之則左怒, 吾何能涉其間乎。余曰子於誣與非誣之間, 答以有皮裡春秋, 則子亦不謂之非誣也。然皮裡春秋, 用之於與我無關之地, 事到自家分上, 則用不得。師者同於吾父也, 事關先師則其爲自家也大矣。誣師以無節義, 則其罪也大矣。於是乎用春秋, 不以口頭筆端只以皮裡而避人嫌怒, 則是忘事師之道, 棄自家之分。吾知其皮裡所存, 亦終歸於烏有也云云。蓋是非之實, 得於性而具於心者, 終無柰, 不容以是爲非以非爲是。故雖以衡之右陰, 猶不敢遮護而謂有皮裡春秋, 如使此中辨討少涉抑勤, 以衡平日辯勝之氣, 豈肯作此言。衡猶如此, 并世之公論可知。然同門諸人舉皆其國難舞之見, 學界之無實, 一至於此, 誠可吁歎柰何柰何。

전사건에게 보냄 계유년(1933)

與田士狷 癸酉

형이 근자에 선사(先師)의 <문인록>을 간행하려 한다는 것을 들은 듯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일의 어려움은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퇴(山頹)⁴⁵ 후에 변형(變形)⁴⁶한 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만약 선사의 엄정한 법문을 준

45 산퇴(山頹) : 위대한 학자나 스승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른다. 여기서는 간재의 죽음을 이른다.

46 변형(變形) : 머리 자른 자와 머리 자르지 않는 자로 <문인록>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보발한 자는 문인록에서 잘라 없애자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간재 생전에 머리를 잘라 쫓겨난 자를 <문인록>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수하여 변형한 사람을 모두 잘라낸다면 저들이 장차 말하기를, “선사께서도 잘라내지 않는 사람을 어찌 감히 잘라낸단 말인가?” 라고 하여 원한과 노여움이 때로 일어나서 화가 장차 몸에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사의 엄정한 법문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문인록>에 보존한다면, 선사의 훈령이 장차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자손으로서 부조(父祖)를 바른 도리가 아닌 것을 그릇된 도리로 섬겨서, 이미 스승에게 할거된 자도 어지럽게 들고 일어나서 “형체를 훼손한 것은 동일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잘라내고 저들은 보존해주는가”라 하고, 선사의 말을 듣고 부조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넣어주라고 하니, 이는 또 어찌할 것입니까?⁴⁷ 이 뿐만 아니라 비록 훼손(毀形)하지 않았더라도, 근일에 무인(誣認)⁴⁸하여 원고를 바꾸고 사문에게 죄를 얻은 무리들을 가히 할거한다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요컨대 진실이 드러날 날이 되지 않으면, 이 일에 대해 말하기 어렵습니다.⁴⁹ 그러니 부디 그만 두시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與田士狷 癸酉

似聞兄近欲刊先師門人錄。果然否。此事之難，固非一端。最是變形於山類後者，何以處之。欲遵先師嚴正法門而盡割其人也，則彼將曰，

47 그렇다고 해서 …… 어찌할 것입니까 : 간재는 생전에 변형하면 제자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 선사가 돌아가신 후에 변형한 사람들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후창은 말하였다. 그러나 선사가 돌아가신 후에야 바꾼 사람들이니 문인록에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8 무인(誣認) : 스승이 인가를 받으면 출간해도 좋다고 무함하는 일이다.

49 요컨대 …… 어렵습니다 : 전사건이 <문인록>을 만든다고 하자, 후창이 빼야 할 사람을 넣자니 선사의 훈령에 누가 되고, 그렇다고 빼자니 별때 처럼 일어나 비난할 것이므로 그만두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先師之所不割，何敢割之，怨怒羣起，禍且及身。不遵而存之也，則非惟先師之靈，若將浼焉，而子孫之事父祖以非道，其已見割者，又將紛然而起曰，毀形同也何割吾而存彼也，此又柰何。不但此已，雖不毀形，近日誣認改稿，得罪師門之輩，可以割去者，不亦多乎。此皆如何措置。要之不到水落石出雲歸山立之日，難以語此事。千萬已之，毋至不可收拾之地，如何。

전사건에게 보냄 갑술년(1934)

與田士狷 甲戌

춘간(春間)의 한번 이별은 묘연(渺然)하기가 꿈만 같습니다. 소식을 받을 길이 없으니 슬픈 마음을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근자에 선사집(先師集) 습유(拾遺)⁵⁰를 편간한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는지요? 저는 형에게 이미 충성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문인록>의 간행에 대해서도 그 허물을 보고 규간(規諫)⁵¹하여 거의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끝내 그만 둘 수 없게 된 것은 또한 무슨 마음입니까? 한번 음성의 무함(誣陷)가 나온 뒤로 우리들이 유훈을 근거하여 저들의 무함(誣陷)를 변토했고, 또한 유훈을 지켜서 자기의 직분을 다했으니, 이러한 의리를 익숙히 강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형세를 헤아려 보면 인의가 없었다면 뚜렷한 이치가 없은즉, 형의 이 거사는 또한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50 습유(拾遺) : 빠뜨린 글을 말한다.

51 규간(規諫) : 옳은 도리로써 임금이나 웃어른의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으로 간언하는 것이다.

세기(世基)가 마지막에 존장(尊丈)의 여지가 없다고 배척한 것은 어찌 용동(龍洞)의 간행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존장이 앞에서 실수하고 형은 또 뒤를 이어서, 저들의 입을 꺼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 뿐만 아니라 저들이 유훈을 가리켜 여노(女奴)의 석서(石書)하는 습관이라고 지목한 것이 어찌 천고의 절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만약 여러 자손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간재의 유훈을 지키는 이가 없다면 아울러 방관자들이 좌담한 것까지 거짓된 유훈으로 비견되지 않을 것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어찌 더욱 통분하지 않는가요? 형의 고견은 제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께서도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의리가 어떠한가를 묻지 아니하고, 영세하고 조각난 문자를 원집과 속집 외에 수집하여 인쇄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떤 부득이한 까닭이 있어서 입니까?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적이 보견대 동지 제공들이 대부분 모를 잘라서 둥글게 하고, 다시 옛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마음이 심히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이 고립되어 돕는 이가 없음을 느껴서, 항시 가슴이 사나워지고 그것을 밖으로 풀지를 못합니다. 형이 만약 저의 말을 또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마땅히 산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며 교유를 그치고, 붓을 불사르며 사문(師門)의 일을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초목과 더불어 짝이 되겠으니 능히 이 고충을 이해해 주시겠지요.

與田士獮 甲戌

春間一別，渺然如夢。音信莫憑，悵仰何已。似聞近圖編刊先師集拾遺，果然否。弟於兄既忠未效。於門人錄之刊，見過相規。迄可止之，而今又終不能已者，抑何心哉。一自陰誣之出，吾輩據遺訓而辨彼誣，

守遺訓而盡己分，此義非不講之熟矣。諒今之勢，無無認清楚之理，則兄之此舉，亦何心哉，吾不可得以知也。世基之最後斥尊丈以無餘地者，豈非以參龍刊故耶。尊丈失之於前，兄又繼後而不憚彼口何也。不寧惟是，彼輩之指遺訓爲女奴石書習，豈非千古絕痛。乃使衆子孫無一人守者，則并與徧觀坐談而不歸之僞遺訓者鮮矣，豈不尤可痛乎。兄之高見非惟弟所不反，亦兄所自許。今乃都不問義理若何，欲收印零文片字於原續之外者，有何甚不得已之故。怪事怪事。竊見同志諸公多利方爲圓，非復舊意見。非惟心甚不滿，亦覺身孤無助，常懷惡而不能遺也。兄若又不見聽，則當入山杜門，息交焚筆，不復言師門事。而長與樵牧爲伍矣，幸能諒此若哀否。

전사견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田士狷 乙亥

선장(先丈)께서 돌아가신 일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달 10일에 나의 아우가 완주(完州)에서 와서 말하기를, “정재 어른이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는 경달(驚怛)⁵²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의(情義)로 헤아려 보면 곧바로 달려가고 싶은데,⁵³ 손에 부조할 것도 없고 내 자신 여행갈 노자도 없어서, 조금 며칠을 기다려서 동행할 사람과 약속

52 경달(驚怛) : 남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손윗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는 것이다.

53 포복(匍匐) : 《예기(禮記)》〈단궁 하(檀弓下)〉에 “상사(喪事)가 나면 부복(扶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급히 가야 한다는 포복(匍匐)과 같은 뜻이다. 《예기》〈문상(問喪)〉에도 “포복해서라도 가서 곡(哭)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을 하고 또 돈도 마련하려 했습니다만 또 모두 어긋났습니다. 비로소 29일에서야 최여중(崔汝重)과 나란히 가서 영귀(靈几)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형께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비통한 사사로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아! 지난 겨울에 형이 저의 집에서 병으로 신음할 적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가대인(家大人)께서 정력이 더욱 그르쳐져서 아마도 오래 세상에 계시지 못할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탄식을 그치지 않으셨지요. 이 말이 오래지 않았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한 기운(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감응하여 먼저 당신의 마음과 말에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만사가 다 그만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일은 중간에 겪었던 영남과 음성의 허다한 파란으로 앞날에 선자(先子)에게 바라던 허다한 뒷일을 어찌하여 잊고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애형께서 집촉(執燭)⁵⁴한 날에 저에게 보낸 답서의 초안에 그것이 마지막 글씨라는 것을 알고서 마음이 측연하였습니다. 그 잊지 않고 눈을 감지 못한다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릇 이러한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애형의 신상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아버이를 위해 가장 절실한 급무는 평일의 문자를 수습하여, 이로써 선자를 위한 변무의 설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대처가 미진한 것까지 개수하고 보완하고 엄호한 연후에, 허물을 감추고 덮어야 이에 효(孝)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을 것이라 여겨지니, 이것이 참으로 크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54 집촉(執燭) : 임종을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예기》〈단궁 상(檀弓上)〉에 증자(曾子)가 병들어 누웠을 때 동자가 구석에 앉아 촛불을 들었다는 말이 있다.

데 애형께선 어떻게 대처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설달에 선장이 편지를 음성에 투서하여 음성과의 교유를 끊었는데, 애형께서 여기기를 “이미 일찍이 주도하였으니, 교절한 지가 본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 절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인지라 차라리 그 혈당(血黨)⁵⁵을 배척하여 교절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 당혈을 끊으면 음성을 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했던 이러한 일은 매우 엄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건대, 선장이 하는 바가 정히 그 마땅함을 얻어서 임종의 큰 절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편지를 보내 미처 교절할 경황이 없었다면 무엇으로써 음성과의 교절을 증명하여 저 원수를 풀라는 입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⁵⁶ 이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연보 초안은 미처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중반 이후는 저에게 이어서 완성하기를 부탁했는데, 그 편지가 여전히 상자에 있습니다. 만약 일찍 책임을 맡겼더라면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사양했겠습니까?⁵⁷ 지금은 뜻밖에 변괴가 속출해서 국세가 전환되었으니, 이 일이 끝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형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계신지요? 대저 몸이 있는 연후에 집상(執喪)⁵⁸할 수

55 혈당(血黨) : 오진영을 따라 다니는 무리, 잔당을 말한다.

56 해구(解仇)를 풀라는 입들 : 중립파이다. 호파와 영파 원수끼리 화해하라고 종용하는 파를 말한다. 원수를 풀라는 쪽에선 전사건의 아버지가 언제 음성과 교절한 적이 있느냐 옛날부터 성토해왔으므로 교절한 것과 다름없다(전사건의 생각) 작년 설달 죽기 전에 확실히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 아들의 생각처럼 교절한 것이면 굳이 편지를 안보내도 된다고 한 그 말은 매우 엄정했다. 그러나 후창의 생각은 지금에 와서 저 중립파의 입을 막을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확실히 보낸 편지가 있으니 간재 집안 쪽에서 생각할 때는 확실히 우리 호남 편이다.

57 만약 …… 사양했겠습니까 : 전사건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전사건에게 대필 편지를 쓰게 하였던 것 같다. 연보 속간을 후창에게 맡긴다고 하여, 정서되지 않은 연보 초안을 후창에게 보낸 정황이다.

58 집상(執喪) : 부모의 상사에서 상제로서의 예절을 지키는 일이다.

있고, 가히 선인의 일을 전술할 수 있습니다. 애형의 현재 병세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급히 다스려 몸을 잘 보호하고 증책을 맡아서 큰 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與田士狷 乙亥

先丈哭事，何言何言。去月十日家弟自完來言，靜齋丈以昨晨下世。聞之驚怛，不知所云。揆以情義，即欲匍匐，而手無贖物，身無行資，稍待幾日，約件辦金，而又皆抵牾。始以二十九日，與崔汝重聯行慟哭于靈几而兄則不在，悲悵之私，又如何可言。噫昨冬兄在槃廬吟病中，常言家大人精力益敗，似不久世，奈如之何。仍中夜起坐，獻歎不已。此言未幾，果至於斯。豈其一氣相感，先兆於心言歟。今焉而後萬事已矣，最是中間所經嶺陰許多波瀾，前頭所望先子許多後事，何能忘棄而遽歸。哀兄執燭日所送答弟書草認是絕筆而讀之心惻。知其不忘而不瞑者在也。兄此餘案總在哀兄身上。而目下爲親最切急務，在收拾平日常文字，使爲先子辨誣之說，不至泯滅。并與有事以來，處之未盡者，而爲之改補掩蓋之然後，乃得爲孝。然想多有事不由己者矣，此實大難。未知哀兄何以處之。客臘先丈之投書絕陰也，哀兄以爲既曾討之，絕固久矣。今復書絕是自辱，不如斥絕其血黨。絕其黨則絕陰不待言。此甚嚴正然以今觀之，先丈所行正得其當，而可謂臨終大節。如其未遑，何所證其節陰而杜彼解仇之口耶。是則幸矣。惟是年譜草，未及了役，是爲恨事。中半以後，託弟續成，書猶在篋。使早委責，弟雖不敏，亦何敢辭。今焉變出不意，局勢頓換，不知此事竟如何爾。哀兄於此，又何以爲心。大抵有身然後可以執喪，可以述先。哀兄現崇，不可謂輕。惟望亟治，善保身任重責以終大孝。幸甚。

전사건에게 답함 을해년(1935) 8월

答田士狷 乙亥 八月

오늘 들으니 박애(朴哀)⁵⁹가 끝내 상경해서 김씨(金氏)를 맞이해서 정사(精舍)에 거처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조부의 문자를 찬술하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일전에 형과 내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고한 것이 참으로 간절했는데, 제가 이에 이 말을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창암 어른은 일생동안 선사를 높이 섬긴 것이 문인들도 가히 미칠 바가 아닙니다. 사후의 큰일⁶⁰은 이에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의 수중에서 나오니 이에 어찌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명절 전에 함재(涵齋)⁶¹ 어른께서 저에게 전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유영선(柳永善)⁶²이 와서 사과하기에, 내가 이미 원한을 풀었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만 김씨에 붙은 자를 토벌하는 것이 사사로운 원한 인줄만 알고, 오진영이 무인(誣印)하고 난고(亂稿)한 것을 조장한 것이, 사문의 공적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유영선이가 함께 어른께 와서 사과할 때에 마땅히 함재어른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네가 만약 현천(玄仟)에 사죄하려 하거든, 비록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일이 이곳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가을에 권순명(權純命)⁶³과 화해한 실수는 오히려 창졸간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

59 박애(朴哀) : 부모님 상 중에 있는 박씨를 말한다.

60 큰 일 : 조부의 문자인 행장을 찬술하는 일이다.

61 함재(涵齋) : 김낙두(金洛斗)이다.

62 유영선 : 유영선(柳永善, 1893~1960)은 호가 현곡(玄谷)이며 良齋 田 愚의 제자이다.

63 권순명 : 권순명(權純命, 1891~1974)은 호가 양재(陽齋)이며 良齋 田 愚의 문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분명히 고한 것을 들은 후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어른께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시니 오늘날 이 의(義)를 누구와 함께 더불어 말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번 탄식합니다.

答田士狷 乙亥 八月

今聞朴哀竟上京，邀金處知精舍，俾撰其祖文字云。日前兄我守而告之者，何等懇切，而渠乃不有之此快耶。蒼丈一生尊事先師，有非門人之可反。而身後大事，乃出於倍師人手中，寧不慨歎。節前涵齋丈傳言於弟曰，柳永善來謝過，吾已解仇，是但知黨金之討之爲私仇，而不知助震誣印亂稿之爲師門公仇也。當其來謝也，當曰爾若謝罪玄仔，則雖不謝過於吾可也云矣。惜乎其事不出此也。昨秋解權之失，猶可諉之倉卒未思。今復如此於聞人明告之後何哉。此丈而猶復如此，此日此義，誰可與語。爲之一歎。

전사건에게 보냄 을해년(1935) 10월

與田士狷 乙亥 十月

일전에 희숙(希淑)⁶⁴을 석동(席洞) 묘제에서 만났습니다. 희숙이 말하기를, “현암(玄巖)으로 가서 김상(金庠)⁶⁵을 만나 그에게 문장을 다시 고쳐 사죄하라고 고한즉, 김씨가 말하기를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늘날 오진영이가 나의 동정을 엿보아서 장차 어찌하려고 하니, 내가 경솔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

64 희숙(希淑) : 후창의 족제이다.

65 김상(金庠) : 김씨 성을 가진 성균관 유학생으로 김용숙을 말한다.

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상사의 이 말은 다 칭탁(稱托)⁶⁶하는 말입니다. 단지 고치지 않을까를 근심할 뿐이지, 만일 능히 고칠 수 있다면 오진영이도 간재가 스승이므로 장차 무슨 말로 죄를 짓겠습니까?

희숙이 또 말하기를, “박인규(朴仁圭)가 나의 책상에서 형님께서 김상사를 언급한 편지를 보고 낯빛을 바꾸며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후창이 어찌하여 우옹(尤翁)⁶⁷을 폄하한 전일중(田鎰中)과 더불어 친후하단 말인가요?’였습니다”라고 희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온 조선을 움직여서 대사(大事)를 거행하여 평일에 이루지 못한 것을 기어이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두렵습니다.

또 책상 위에 있던 편지글에서는 다만 그 고친 것이 명백한 것을 보고서 대응한다고 말했는즉, 본래 가히 노할 일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더욱 두려워할만 합니다. 비록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우옹을 폄하했다면 어찌 그 사람을 직접 성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친한 자가 김씨를 논하기를 기다려서 아울러 성토하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그런 일이 없고 단지 불과 우옹을 머리에 이고서 김씨를 보호하는 패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옹을 모독하고 희롱하는 죄를 어디에다 귀결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통분할 일입니다.

희숙이 또 말하기를, “현암에 가서 들어본즉, 형님께서 박진호(朴震鎬)에게 김씨의 문장을 받지 말라는 말을 권해서 윗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아! 우리들이 당일에 신중히

66 칭탁(稱托) : ‘핑계’를 이르는 말이다.

67 우옹(尤翁) : 우암 송시열을 말한다.

고하여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그 말이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여 도리어 조소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행했던 것은 진실로 창암 선생을 위한 일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했던 대로 명월주(明月珠)⁶⁸를 암실에 던졌다면 누가 그 보배로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만 번 남에게 비웃음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바가 없고, 도리어 비웃은 자들의 식견이 없음을 제가 비웃었습니다. 양가의 교분이라든지 유명간의 믿음이라든지 사실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기극(忌克)⁶⁹할 지경으로 귀결시키니 어찌 이런 자는 운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희숙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숙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진호(震鎬)⁷⁰에게 인척의 교분은 그만두더라도, 교학의 의리가 창장에게 있다고 칭한 즉, 간재의 문하에 출입한 지 30년에 도의로써 서로 믿는 것이 늙거나 젊다고 하여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승의 일로 인하여 창장과 함께 음적의 화를 입은 즉, 실로 생사에 있기 어려운 연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신 창암의 집안 행장을 초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진호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나에게서 구하여 이미 집안 행장문을 유실하고 다시 저에게 청해서 제가 그를 위해서 다시 행장문을 본초가 없어진 이후에 완성해주어서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련됨이 이와 같아서 이로 인해 문장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논급했습니다. 또 연전에 오진호가 그 조부의 문자를

68 명월주(明月珠) : 《사기》 노중련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에, “명월주(明月珠)와 야광벽(夜光璧) 같은 좋은 보배를 몰래 길 가는 사람에게 던지면 칼자루를 잡고 노려보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그 까닭은 이유 없이 자기 앞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69 기극(忌克) : 다른 사람의 재능(才能)을 시기하여 꺼리고 능멸하는 것이다.

70 진호(震鎬) : 오진영의 아우인 오진호인 것 같다.

모씨의 집안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안은 간옹의 일에 불만이라는 것을 말해서 만류시켜 그친 일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정성으로 간옹을 섬기는 것이, 문인과 다름없던 창암이었습니다. 그 사후의 문자를 간옹 생전에는 스승으로 섬기다가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는 홀연히 배신하고 떠난 여흥 김씨에게 문자를 청하니, 어찌 모른 척 월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을 보듯이, 냉담하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오진호 조부의 원고 일은 저에게 방문하여 질의한 즈음에 있었습니다! 김씨의 집안은 높고 문장도 아름답습니다. 오진호가 이를 사모하여 그리했겠지만 그러나 유독 삼세(三世)의 교분과 우의, 장초가 관련된 정리는 김씨가 능히 먼저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는지요.⁷¹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만이지, 아울러 가히 말할 수 있는 정리까지 생각지 아니하고 비웃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오진호가 여전히 나이가 적어서 깊이 말할 것이 없지만, 모든 이러한 말들은 어찌 일어나야 할 때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희숙이 말하기를, “내 또한 처음에 듣고서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하고 의심을 하였는데 이제 편지를 받고 보니 진실로 옳고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오형께서는 박인규(朴仁圭) 등이 연명하여 편지하는 것에는 일종의 의사(意思)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또 선사의 문인인 김진식(金璉植)의 이름이 끼어있는 것이 뜻밖의 변고라 여겼기 때문에 다소의 개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나, 예로부터 국가의 변란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

71 오진호가 …… 않았는지요 : 창암이 죽은 후 간재를 비판했던 김씨의 글을 받았다면 죽은 창암이 받아들였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실의 관채(管蔡)⁷²의 일부터도 그러했습니다. 어찌 유독 오늘뿐이겠습니까?

금일 오진영과 김용숙의 변란이 나온 것은 선사의 가까이에서 나왔으니, 어찌 김진숙을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이 일 때문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여 스스로 위정척사의 기가 꺾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락자저’는 전사건이 보낸 편지의 말입니다. 유경조(柳景肇)가 말하기를, “김중옥(金仲玉)이 김종현(金鐘賢)이가 논한 <음작정절사전(陰作鄭節士傳)>⁷³을 보고 말하기를 ‘독서 삼십년에 다만 취모(吹毛) 몇 자⁷⁴ 만을 보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⁷⁵ 이것은 자정(子貞)이 친히 묶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정에게 말하기를, “내가 중옥이 과연 이런 말을 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군자가 치지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정밀히 살펴 밝게 구별하여 겉과 안을 통관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밖에서부터 두루 몽실하게 본다면 양목(楊墨)의 인의(仁義)가 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자(韓子)의 박애(博愛)가 인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맹자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배척했고, 주자는 논하여 한유를 도를 알지 못한다고 논했습니다. 그러니 사람 말에 조금 허물이 있는 것을 밖으로 터럭으로 덮어 능히 볼 수 없다고 하면, 어찌 독서가 귀할 것이 있겠습니까?⁷⁶

72 관채(管蔡) :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다. 주공의 동생들로서 중앙 정부에 반감을 품고 마침내 은(殷)의 반경(盤庚)과 더불어 삼감(三監)의 난을 일으켰다.

73 음작정절사전(陰作鄭節士傳) : 음인이 지은 정절사전이다.

74 취모(吹毛) 몇 자 : 남의 허물을 억지로 찾아내는 것을 이른다. 아마 남을 비판하는 소리가 많았던 것 같다.

75 유경조 …… 했습니다 : 오진영이가 쓴 《정절사전》이 있고, 오진영이가 쓴 이 책을 김종현이가 논하였다. 즉 오진영이가 쓴 책을 김종현이가 논하고, 김중옥이가 김종현이 논한 글을 보았다.

76 그러니 …… 있겠습니까 : 이 말은 김중옥의 말을 찬성한 것으로, 김종

단지 억지로 끝을 두어 억지로 허물을 찾는다면, 심술(心術)에 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컨대 제가 아무리 낮다고 하여도 이 정도까진 이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 수십 년에 터럭 이면의 허물을 살피지 못한 자와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도 터럭을 취해서 억지로 돕는 자를 싫어합니다. 또 천하가 중화(中華)인데도 유자들이 능히 천하를 중화로 만들지 못하고 이적(夷狄)으로 가게 했다는 오진영의 설은 그 허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가히 엄폐할 터럭도 없음에도 엄폐만을 일삼으니 또한 마땅히 어떠하였겠습니까?

與田士狷 乙亥 十月

日前過希淑於席洞墓祀。希言往見金庠於玄巖，勸其改告由謝罪，則曰此非不欲爲，但今吳震泳伺我動靜，將欲如何。吾不敢率爾。希言止此此是稱托之辭。只患不改苟能改之吳將何辭而罪之。希又言朴仁圭於弊案，見兄主語及金庠之書，變色大怒曰，後滄何以與貶尤翁之田鎰中親厚。希言止此 此非欲動全鮮舉大事。期遂平日之未遂耶。可怕可怕。且鄙書只言觀其改之明白而應之，則元非可怒者，而猶如此尤可怕也。雖然有人而實貶尤翁，則何不直討其人。而待其所親者論金事而并討耶。可知其無實事，而不過戴尤翁爲護金之干牌也。然則侮弄尤翁之罪，何所歸乎。非可怕而實可痛也。希又言往玄巖聞之，則兄主勸朴震鎬勿受金文之言，爲衆笑罔。噫吾輩當日守告而不憚煩，至慮其言不見用反見嘲笑，而猶且爲之者，實出於爲蒼巖一念矣。果然如其所料，投明月於暗室，孰知其爲寶今雖萬被人笑。實無所愧，反笑笑之者之無見也。不思兩家之契分，幽明之相信，及事實

옥은 오진영을 비판한 사람이다. 남의 허물 있는 말을 터럭으로 덮어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독서가 귀할 것이 없다. 독서가 귀한 것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허물을 지적해 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關係之如何，而遽歸人於忌克之科，豈非不知數者耶。余謂希曰，吾於震鎬，戚分姑舍，而稱有教學之誼於蒼丈，則出入良門三十年，道義相信，不以老少而有間。以至於因師事而同受陰禍，實有死生難忘之故。故代草家狀之文。震不於他而求吾，既又遺失狀文，再請於吾，吾乃爲之再成狀文於無本草之候，而不憚勞。相關如此，因而論及受文，在所當然。且年前震欲受其祖文字於某家。吾爲言其家不滿良翁事而止之，已事在焉。今以誠事良翁，無異門人之蒼巖。身後文字，請於師事良翁生前，而忽然倍去山頽後之驪金也，豈容越秦視而不爲之一言乎。況在震以祖稿事，訪余質疑之際乎。金之地闊高矣，文章美矣。震雖慕此而然，然獨不念三世契誼，狀草關係之情理。非金之所能先乎。不用忠告則不用已矣，并不思可言之情而笑之者何哉。雖震尙年淺不足深言，几此云云，豈非起於起處乎。希曰吾亦始聞而疑兄主胡至如是，今承所喻誠然誠然。嗚呼吾兄以朴仁圭等聯書，有含一種意思，而先師門人金璉植之參名。爲意外之變故。致多少慨歎。此非不然。然從古以來家國之變。常起於肘腋之下。自周室管蔡事而已然。何獨今日乎。今日吳金之變出，已出於先師之肘腋，何論金璉植乎。皆不足以此無樂而自沮於衛闕。無樂自沮來書語。柳景肇言金仲玉見金鐘賢所論陰作鄭節士傳曰，讀書三十年，只學得吹毛覓疵。此子貞親聞而傳者也。弟謂子貞曰，吾雖未知仲玉果有此言，然君子之致知窮理，貴在精察明辨，通貫表裡。若自外泛觀，則楊墨之仁義，非不爲德，韓子之博愛非不爲仁，而孟子斥之以爲異端，朱子論之以爲不知道。若人言之有疵者，外爲毛掩而不能見，則烏足貴乎讀書哉。但有意吹覓，則有害心術。故君子不爲也。吾自信汗不至此矣。吾則又惡夫讀書數十年，不能察毛裡之疵者，與夫知其有疵而取毛強掩者也。且此天下華而儒不能華天下卽夷之說，其疵易見，并無可掩之毛者，而專事掩覆，則其心術又當如何哉。

전사건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田士狷 乙亥

어떤 사람을 칭하기를 ‘사람의 불인(不仁)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흠재(欽齋)⁷⁷는 김용숙의 고문(告文)을 의리에 해가 없다고 여겼지만, 희숙(希淑)은 이렇게 배척했으니, 그 고문을 지은 자가 지극히 불인하다는 것이 또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규는 이 때문에 희숙에게 노하지 않고, 진실로 고치는 게 확실한가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후창의 편지를 보고 노했습니다.⁷⁸ 그러니 나에게 어떻게 할 생각인지 참으로 괴이합니다.

與田士狷 乙亥

稱人以人之不仁胡至此極，則斥之無以加此矣。欽齋以金告文爲無害於義，而希淑以此斥之，則其作告文者之極不仁，尤當如何哉。然而仁圭不以此怒希淑而怒觀其誠真改明而應之之書。於我思欲如何何哉可怪也已。

전사건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田士狷 丙子

신헌(愼軒)이 몰래 사순(士順)과 자경(子敬)에게 준 편지에 여차

77 흠재(欽齋) : 최병심(崔秉心, 1872~1957)의 호이다. 간재의 문인이다.
78 그러나 …… 노했습니다 : 후창이 앞의 편지에서 말하길, 상대 쪽에서 김용숙이가 고친다고 했는데 그가 진실로 고치는지 확실히 보고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편지에 썼다. 인규가 그 편지를 보고 성을 낸 것이다.

여차 ‘감히 변명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함을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재(全齋)79의 비문은 선사께서 친히 고친 것입니다. 때문에 《고변록(考辨錄)》 가운데는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전씨는 《고변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세 선생의 질의(質疑)에 관해 설(說)한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들이 비록 말하기를, “선사께서 이르기를, ‘사고(私稿)를 정리하여 바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이견(而見)80을 의지했다고 말하기에 우리가 이것을 빙자해서 임의대로 스스로 개찬(改竄)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다만 선사가 이정(釐正)이라 말하였지, 어찌 일찍이 개찬이라 말하였던 것인가요? 또한 오이견에게 맡겨 이정한 이 일은 임술년(壬戌年) 5월에 친히 이정하기 이전에 있었은즉, 이미 때가 지난 훈계에 속합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훈계이므로 마땅히 근거로 해선 안 됩니다. 저들의 설이 근거가 없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저들의 미풍에 겁을 먹고 먼저 근심하고 두려워 할 마음을 품으니, 어찌 이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기를 기르는 것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答田士狷 丙子

慎軒以陰與士順子敬書有所云云有懼其不敢封辨不得抗拒之意，殊不然也。全碑是先師親改。故不言於考辨錄中。田不關傳三先生說質疑，有如考辨錄所載矣。渠雖曰先師云私稿釐正，專恃而見，籍此而任自改竄，然只曰釐正，何嘗曰改竄乎。且此在壬戌五月親自釐正之前，則已屬過時之訓。而不當爲據也。彼說之無據也如此，而恟於威風，先懷憂懼豈非見理不明養氣未充之故耶。

79 전재(全齋) : 임헌회(1811 ~1876)이다. 조선 말기의 학자이다.

80 이견(而見) : 오진영의 字이다.

전사건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田士狷 丙子

오호라! 금일 사문(師門)의 일은 자손으로는 형만 계시고, 문인으로는 오직 저뿐입니다. 저는 이미 곤궁하고 실패한 것이 이와 같은데, 형 또한 저처럼 위태로워 도도히 치달리는 세파를 능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도가 그릇되고 저들의 설이 옳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또 선사가 과연 인의(認意)와 인교(認教)가 있어서 저들이 선사를 무함(誣陷)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들이 선사의 원고에 대하여 과연 고친 것도 없고, 선비의 무리에 화를 끼치는 것도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늘의 뜻이 이와 같을까요?

아아! 이 무슨 말입니까? 선사에게 인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선사께서 남긴 유고의 손때가 여전히 새롭고, 또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간재의 손수 개정한 판본을 대조한 《고변록》이 지금 버젓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선비의 무리에게 화를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일에 독을 준비해서 죽음을 맹세한 물건이 여전히 상자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호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족히 난세라 이를 수 있겠으며, 어찌 족히 하늘을 기필할 수 없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스스로를 믿을 뿐입니다.

答田士狷 丙子

嗚呼今日師門之事，在子孫惟兄在門人惟我。我既窮敗若此，兄又殊殊如彼，奔波滔滔，莫之能遏。豈吾道非而彼說是耶。豈先師果有認意認教，而彼不爲誣，彼於師稿果無所改，於士類果無所禍耶。不爾何天意之若是。曰惡是何言也。謂先師有認教也，遺書之乎澤尙新

矣， 謂師稿之無改也， 手本對照之考辨錄自在矣。 謂士類之不禍也， 當日備毒誓死之物， 尙在篋笥矣。 嗚呼不者， 烏足謂亂世， 烏足謂天不可必乎。 以此自信而已。

이여우 석하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李汝禹 碩夏 辛酉

택술(澤述)은 품격이 저열하고 학문이 거칠어서 다른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오형께서 지금 시대의 현인과 호걸의 높은 덕과 넓은 학업을 나에게 장려하시면서 정함(庭函)⁸¹의 아래에서 들었다고 한 것을 어찌 뜻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 장차 어떤 말로 사례해야 하겠는지요. 형이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그 선생 장자의 가르침은 어찌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어찌하겠는지요. 이는 아마도 제가 내면의 덕을 버리고 겉만을 꾸미며 실질을 제거하고 화려한 것에만 나아갔기 때문에, 선생 장자께서 그것에 속임을 받아서 우연히 소시(所試)의 칭찬⁸²을 두어서 그 장래를 기약한 것뿐입니다.⁸³

형께서 미처 말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현재 성취된 실제적인 미덕으로 오인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입장에서 진실로 스승과 부친을 속이는 것이 되거니와, 형의 입장에서도 또한 소홀함을 면

81 정함(庭函) : 정은 부친을 말하고 함은 스승을 이른다. 즉 부친과 스승이다.

82 《논어》〈위령공〉에 “만약 칭예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시험해 봄이 있는 것이다.〔如有所譽者，其有所試之矣。〕”라고 하였다.

83 이는 …… 것 뿐입니다 : 이 말은 ‘선생 장자께서 나의 겉모습만 보고 한번 칭찬한 말을 두어서 앞으로 현호(賢豪)가 될 것이라고 기약만 들 뿐’이라는 것이다

치 못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남몰래 스스로를 닦아서 소박하고 진실한 덕을 쌓아질 것을 제가 마땅히 힘쓸 터이니, 정밀하게 살피고 밝게 살피어서 사람 칭찬을 구차하지 않는 것은 형도 가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구하는 은근한 뜻은 당신의 깊은 마음에서 나와서, 요컨대 겉으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에게 만일 가히 규간할 허물이 있거나, 가히 보완할만한 흠결이 있다면 어찌 감히 침묵하여 취용(取容)하여 스스로 선유(善柔)⁸⁴의 죄에 빠지겠습니까? 다만 제가 형을 보건대 덕의 모습이 화려하고 뜻과 행동이 돈실하고 언론은 상세합니다. 저처럼 노둔한 재주로 쫓아갈 바가 아니거늘⁸⁵ 또 어찌 감히 억지로 드러나지 않은 허물과 흠결을 찾아서 구차히 꾸짖는다는 비판을 취하겠습니까? 굳이 저에게 말을 구하신다면, 또한 정밀하게 살피고 사람을 구차히 칭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불과 단지 이 사람을 잘못 칭찬한 것으로 인하여 당신께 개진할 따름입니다, 이 일 이후로도 또 어찌 알겠습니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있어서 가히 옥(玉)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고, 반딧불같이 작은 불빛이 햇빛을 도울 일이 없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편지에서 “자기를 버리고 홀로 있을 때를 삼가기 바랍니다.”⁸⁶라

84 선유(善柔) : 《논어》〈계씨(季氏)〉에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며, 해로운 벗이 세 가지이니, 곧고 진실되고 건문이 많으면 유익하며, 편벽되고 아침을 잘하고 말만 잘하면 손해가 된다.〔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라고 하였다.

85 저처럼……아니거늘 : 본문의 십가(十駕)는《순자》〈수신(修身)〉에 “천리마가 하루에 천 리를 달리지만, 노둔한 말도 열흘을 달리면 역시 그 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夫驥一日而千里, 駑馬十駕, 則亦及之矣.〕”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86 자기를 버리고…… 바랍니다 : 근독(謹獨)은 홀로를 삼가는 것으로 두 가지 뜻이 있다. 즉 남이 보지 않는 유독(幽獨)의 곳에서 조심하는 것

는 훈계를 주셨는데, 진실로 증세를 진단하여 약제를 투여하고 굶주림을 가련히 여겨서 식량을 진흙한 것과 같으니, 우리 형의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은 충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벼이 있으니, 어찌 은혜를 새기고 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형 또한 어찌 저의 병폐를 모두 알아서, 작은 악과 숨겨진 사특함까지 한 번 쏘어서 없애겠습니까? 오로지 훗날 더 자세히 살펴서 더 맹렬하게 다스려 줄 것을 바랍니다.

대저 우리들이 서로 닳고 서로 힘쓰게 해서 세한(歲寒)을 기약해야지, 어찌 갑자기 짧게 편지를 오고가는 사이에 효과를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아아! 봉우지간의 도리가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저 아침에는 금란지교(金蘭之交)⁸⁷와 같다가 저녁에 풍파(風波)를 일으킨 자들은, 진실로 친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색이 유문의 도의로써 교유한다고 이름 하는 자들도 책선(責善)⁸⁸하고 잘못을 보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서는 칭찬하여 그 장점을 치켜세우다가, 물러나서는 비난하면서 단점을 드러내는 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잔인하고 이치를 해치는 것이

과 남이 모르고 자신만이 아는 은미(隱微)한 마음을 삼가는 것이 있다. 《중용(中庸)》 수장(首章)에 “숨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고 세미한 것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 라고 하였다.

87 금란지교(金蘭之交) : 매우 두터운 친교를 뜻하는 말로, 《주역(周易)》 계사 상(繫辭上)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니 그 예리함이 쇠를 끊는다. 마음을 같이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라고 하였다. 단금지교와 지란지교를 합한 말이다.

88 책선(責善) : 상대방에게 선행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책선은 봉우 사이에 적용되는 도리이다. 부자가 책선하는 것은 은의(恩義)를 해치는 것 가운데 큰 것이다.〔責善，朋友之道也。父子責善，賊恩之大者也。〕”라고 하였다.

또한 매우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혹 의론이 합치되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서로 병장기를 쓰는 일까지 이르게 되니, 풍속을 해치고 세상에 화를 끼치는 것이 더욱 참혹합니다.

저는 비록 불초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을 보기를 기슬(蟻蝨)⁸⁹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고 치아(鴟鴞)⁹⁰보다 더 미워합니다. 제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니, 어찌 차마 제 자신이 친히 이러한 일을 범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세풍(世風)에 구속되고 습속에 익숙해져서⁹¹ 혹 그렇지 않기를 기약하지만 그럴 경우도 있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과 더불어 따로 맹세와 훈계를 세워서 혹여라도 끝내 소인의 교유로 귀결되지 않기를 생각합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저와 같은 마음이라 즐겨 들을 것이라 여깁니다.

본심(本心)이란 이치에 합치되어서 과불급(過不及)이 없다는 명칭입니다. 다 이치에 합치되지 않아서 과불급이 있다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비록 도심(道心)이라 할지라도 본심이 되지 못하고, 모두 이치에 합치되어서 과불급이 없다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심이라 할지라도 본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중용(中庸)》 서문에서는 본심을 인심과 도심을 공통하여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혹 그대의 견해와 합치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89 기슬(蟻蝨) : 사람에 기생하는 이[風]로서 옷엿니와 머릿니를 통틀어 일컫는다. 이와 서캐이다.

90 치아(鴟鴞) : 솔개와 갈까마귀이다.《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사람은 가축을 잡아먹고, 사슴은 풀을 뜯어 먹고, 지내는 뱀을 달게 먹고, 솔개와 갈까마귀는 쥐를 좋아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民食芻豢, 麋鹿食藜, 螂蛆甘帶, 鴟鴞嗜鼠, 四者孰知正味?)”라고 하였다.

91 본문의 분(憤)은 관(愼)의 오류인 것 같다.

答李汝禹 碩夏 辛酉

澤述品劣學疎，最出人下者也。何圖吾兄以當世賢豪德崇業廣，見獎謂是聞諸庭函之下。弟於此將下辭以謝之。謂兄之誤也，其於先生長者之教，何不誤也。則弟非其人何。此殆弟遺內飾外，去實就華，先生長者爲其所欺，偶有所試之譽，而期其將來。兄未及諦察語意，認以爲見成之實美也。是則在弟固爲誣罔，而在兄亦不免踈忽也。要之閭然自修，朴實負荷，弟當勉勵，精審明察，譽人不苟，兄可留意歟。求教之勤，認出肝膈赤衷，要非皮面白談。兄苟有過可規闕可補者，安敢嚙默取容，自陷於善柔。但以弟見兄，德容之和粹，操履之敦實，言論之詳覈。有非弟十駕之追者，又何敢強覓過闕於未形，以取苟訾之譏哉。無已則亦惟曰精審明察，譽人不苟，不過因誤獎此漢而陳之己矣。繼此以往，又安知不有他山之石。可資攻玉，螢火之爝，倘助日光乎。蒙惠舍己慎獨之戒，誠診證投藥，憫飢賑糧，不有吾兄實心，惡能忠告乃爾。有友若此，寧不鏤恩服義。雖然兄亦安得盡知弟病，纖惡隱慝，一刷刷下。專仰異日察地細而治之猛耳。大抵吾輩交修胥勸，歲寒以之，何可遽責效於造次往復之間耶。噫友道之哭久矣。彼朝金蘭而夕風波者，固不足道也。名爲儒門之道義交者，不惟不責善補過而已，乃有進而滄滄然推其長，退而訛訛然揚其短者，比比焉。其忍心害理，亦已極矣。甚或至於因議論之不合，成戈戟之相尋，傷風禍世，尤其慘矣。弟雖無似，視此輩不啻賤之若蟻蝨，惡之若鴟鴞。心既惡之，豈忍身親犯之。雖然世風之囿，俗習之憤，或不免不期然而然者，故思欲與吾兄另立誓戒，毋或終歸小人之交也。仰想同情而樂聞也。本心者，合於理而無過不及之名也。以其未盡合理而有過不及者言，則雖道心不得爲本心，以其盡合於理而無過不及者言，則雖人心亦得爲本心。故曰庸序本心通人道心而言。未知此或合於盛見否。

이여우에게 보냄 임술년(1922)

與李汝禹 壬戌

적막한 물가⁹²에 가히 더불어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없고, 단지 밭 사이에 늪은 농부를 따라서 날마다 농사일을 하니, 도리어 학도들을 모아놓고 허튼 변론을 일삼은 자보다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해가 저물고 나면 호미를 메고 돌아오면서⁹³ 말하기를, “오늘도 가히 공짜 밥을 먹지 않았다고 이를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삼연옹(三淵翁)⁹⁴이 “세간만사는 모두 허위요, 오직 봄날에 소를 끌고 가는 소리만 약간이나마 사람의 뜻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을 읊으며 내 자신을 견주곤 합니다.

백수(白水)에 사는 양공(楊公)은 그 학문은 논의가 독실하고 행동은 더욱 진실하며, 문사에 통달했으며 이치가 더욱 수승(殊勝)⁹⁵합니다. 참으로 천상(泉上)의 덕망과 지혜가 높은 제자요, 남녘의 으뜸가는 학자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남긴 문집이 나를 일깨움이 매우 많습니다. 저 태극(太極)은 기(氣)를 겸하고 신(神)은 태극이고, 하늘에는 세 가지 기가 있으며, 또는 마음은 이기(理氣)를 합

92 적막한 물가 : 본문의 ‘寂寞之濱’은 보통 자기가 사는 곳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93 해가 …… 돌아오면서 : 《시경(詩經)》〈채미(采芣)〉에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해 또한 저물리도다.(曰歸曰歸, 歲亦莫止.)”라는 구절과, “옛날에 내가 길을 떠날 때에는, 버들가지가 휘휘 늘어졌는데, 지금 내가 돌아올 때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도다.(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라는 구절이 나온다.

94 삼연옹(三淵翁) : 조선 숙종 때의 시인인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을 가리킨다. 김창흡은 형 김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고, 이기설에서는 이황의 주리설과 이이의 주기설을 절충하였다.

95 수승(殊勝) : 뛰어난고 훌륭함을 이른다. 가장 빼어난 일로 세상에 희유하리만큼 아주 뛰어난 것이다.

친 것이라든지, 지각(知覺)과 지용(智用)의 여러 학설에 이르러서는 후학의 의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교감자의 안목이 문집을 짓는 이보다 높은 연후에 교감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감하는 일은 천루(淺陋)한 제가 전혀 감당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무릅쓰고 말았으니, 의심나는 대목에 산정(刪定)할 곳을 띠지로 표시하여 본가의 재결을 기다리는 것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것은 본 문장 가운데 큰 논의로써, 편(篇)마다 문장마다 대부분 이런 뜻⁹⁶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크게 작자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듣건대, 남의 문집을 교감하는 자는 임의대로 산정하고 제거하여 본래의 면목을 허물어뜨려선 안 됩니다. 만일 이를 멋대로 산정하고 범하여 본래 면목을 없애면, 이는 교정자의 문집이지 작자의 문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 또한 이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집에 대해 감히 침삭하지 못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고견으로는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암경(巖卿)⁹⁷이 갑자기 고인이 되셨다는데 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외의 학문에 정미한 곳은 비록 내가 깊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 당의 빼어난 선비이거늘, 오늘 이 지경이 되었다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만시(挽詩) 한 편을 보냈으니 조만간 혹 당신께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96 이러한 뜻 : 태극(太極)은 기(氣)를 겸하고 신(神)은 태극이고, 하늘에는 세 가지 기가 있으며, 또는 마음은 이기(理氣)를 합친 것이라든지, 지각(知覺)과 지용(智用)의 여러 학설을 말한다.

97 암경(巖卿) : 허업(許業, 1883~1922)이다. 기우만, 광종석, 전우를 금세의 장덕으로 여겨 알현하였다. 1922년(임술년) 2월 24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선영에 묻혔다.

與李汝禹 壬戌

寂寞之濱，無人可與語者，惟逐田間老農，曰有所事，覺得反有實於聚徒浮辯者。日既暮，荷鋤而歸曰，今日可謂不素食矣。時誦三淵翁世間萬事，都是虛偽，惟春日野中吐牛聲，差強人意之語，以自況耳。白水楊公，其學也論篤而行益實，辭達而理尤勝。信乎其爲泉上高足，南中巨擘。卒業遺集，警發弘多。至如太極兼氣，神爲太極，天有三氣，心合理氣，知覺智用諸說，則不無後學之疑矣。嘗聞校讐者眼目，高於作者然後。乃可濟事，是役也萬非淺陋之可堪者。然既已冒當，則籤刪疑案，俟本家裁決，似無不可。但此爲本集中大議論，篇篇章章多，是此義，此而剛却，大非作者本旨。抑又聞之，校人文集者，不可任意剛抹，壞却本來面目。如其犯此，是校正者之集，非作者之集，此言有理。弟於是集，不敢籤剛者，亦此意也。未知高見以爲如何。巖卿遽作古人，此何事耶。他精微去處，雖不可深悉，大抵是吾黨秀女，令焉至此，安得不悼惜也。曾有挽詩一篇送往，早晚或及雅覽也。

방옥경 관에게 답함 기축년(1949)

答房玉慶 瑄 己丑

옛날 간재 선생을 모시고 그대의 병사(丙舍)⁹⁸에 머물러 공부 할 적에 그대는 관각(卍角)⁹⁹이었고, 나는 약관(弱冠)이었습니다. 약관과 동자는 비록 다르지만 나이는 실로 견수(肩隨)¹⁰⁰인지라, 나의

98 병사(丙舍) : 원래 무덤 가까이에 지은 집이지만 여기서는 고택을 뜻한다.

99 관각(卍角) : 총각, 동자(童子)이다.

100 견수(肩隨) : 윗사람과 함께 걸을 때, 예를 갖추는 뜻으로 윗사람보다

생각에 피차 나이가 넉넉하고 거처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¹⁰¹ 거의 해마다 상종하여 종신토록 서로 힘쓰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별은 많고 모임은 적어 이삭(離索)¹⁰²한 것이 오래되어 관선(觀善)¹⁰³이 드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자에 길이 막혀 그대를 만나지 못한 것이 이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 아이가 남쪽으로 가서 그대를 알현하게 되어 근년에 안부를 갖추어 알게 되었고, 또 그대의 편지까지 받들고 와서 나에게 묻는 안부가 주밀하고 진지하여 정의(情誼)가 많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번 완미하고 송독함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싫증나지 않습니다.¹⁰⁴

조금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이다. 《예기 곡례(禮記 曲禮)》 상편에 “내 나이보다 10년 이상이면 형님으로 모시고,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따라 간다.(十年以長則兄事之, 五年以長則肩隨之.)” 라고 하였다.

101 본문의 연월(燕越)은 원래 북쪽 끝 연(燕) 나라와 남쪽 끝 월(越) 나라로 멀리 떨어져 있다.

102 이삭(離索) : 이군삭거(離群索居)의 줄임말로,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친지나 벗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사는 신세를 말한다.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지낸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03 관선(觀善) : 상관이선(相觀而善)의 줄임말로, 친구들끼리 서로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대학의 교육 방법은 좋지 않은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예(豫)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르치는 것을 시(時)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르치는 것을 손(孫)이라 하고, 서로 좋은 점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을 마(摩)라고 한다. 이 네 가지가 교육이 흥한 이유이다.(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不陵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謂摩, 此四者教之所由興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04 본문의 무두(無黻)는 《시경》 국풍(國風)의 주남(周南) 〈갈담(葛覃)〉의 두 번째 구절에 “참덩굴이 쪽쪽 뻗어, 골짜기 가운데에 뻗어가서, 그 잎새가 뻑뻑하거늘, 그 덩굴을 베어 삶아서, 굵고 가는 갈포옷 지으니, 입으매 싫지가 않다.(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莫莫, 是刈是穫. 爲絺爲綌, 服之無黻.)”라고 하였다.

말씀하시기를, “국정이 실마리를 이룰 길이 없고, 또 예의가 전 일과 같지 않으며, 세속이 오랑개의 지경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옳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재주도 없고 지위도 없어서, 한갓 근심만 할 뿐 이익 됨이 없습니다. 다만 제공(諸公)이 오묘한 계책을 내서 시대의 폐단을 잘 구하여, 나라의 운명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겨울의 절개를 우뚝 세우고, 세상을 구제할 경륜을 품으라.”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천루한 제가 어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만 두십시오. 그만 두십시오. 대개 세상의 변란은 무궁하니 우리 힘으로 능히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덕과 학문은 진보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마땅히 더욱 면려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 예의가 없고, 오랑개의 풍속을 범하고, 학문의 실마리를 성취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는 외에는, 감히 다른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마원(馬援)¹⁰⁵과 범익겸(范益謙)¹⁰⁶의 훈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신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와 저는 모두 늙었습니다. 오늘 여러 해 만에 처음 받은 편지인데, 왕복하는 관례적인 말로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이 경개(傾蓋)¹⁰⁷의 초심에 부응하기를 기약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세세

105 마원(馬援) : 중국 후한(後漢) 때의 장군이다. 마원이 호협(豪俠)하여 의리를 중시하는 두보(杜保)를 자기가 애지중지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본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지없이 경박한 사내가 되고 말 것이니, 이는 이른바 “범을 그리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꾸로 개같이 되고 마는 것이다.[畫虎不成反類狗]”라고 조카들을 경계시키면서 아예 그를 본받지 말라고 훈계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106 범익겸(范益謙) : 송나라 사람 범충(范冲)으로, 익겸은 그의 자이다. 범익겸은 열네 가지 좌우명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107 경개(傾蓋) : 수레를 멈추고 일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길에서 잠깐 만나는 것을 뜻한다. 《사기(史記)》 권83 <추양열전(鄒陽列傳)에 “속어

한 말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행여 저를 헤아려 줄 수 있겠는지요.

答房玉慶 瑄 己丑

昔倍先師留學尊門丙舍也，尊則卍角，我則弱冠。冠童雖殊，年實肩隨，意謂彼此年富，居不燕越，庶可課年相從，終身交勛矣。孰謂中間別多會少，離索久而觀善稀也。邇來阻闕，比前尤甚。不意兒子南行，獲拜門屏，備審近年之安侯，又奉尊函而來，有以見問訊周摯，情誼藹溢，屢回玩誦，感荷無斁。所喻國政之就緒無路，禮義之無復前日，世俗之入於夷虜，誠然誠然。然吾輩無才無位，徒憂無益。只望諸公之妙出籌策，善救時弊，益新國命而已。至於挺立大冬之節，濟世經綸之懷，尤何敢當於淺陋哉，已之已之。蓋世變無窮，非吾力之所能如何。德學難進，在吾心之所當加勉。弟常恐吾身之無禮義，犯夷虜，而學無就緒外，不敢有他念。亦以馬援范滂謙之戒，不可不思也，未知尊意以爲如何。尊與我俱老矣。今於積歲初書，不欲以往復例語仰答。竊期終副傾蓋初心，不覺鬮縷至此，幸得見諒否。

강사신 신극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姜士愼 信極 辛巳

당신의 집안 가운데 100년 전에 휘(諱)가 석빈(碩彬)이란 분이 계신지요? 이제 듣자하니 《유현연원록(儒賢淵源錄)》을 간행하는데 그 가운데 저의 고조를 그 문인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니 이 무슨

에 ‘백발이 되도록 오래 사귀어도 처음 사귄 듯하고, 수레를 멈추고 잠깐 만났어도 오래 사귄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서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諺曰，白頭如新，傾蓋如故，何則，知與不知也.]’라고 하였다.

일입니까? 강공(姜公)의 도학(道學)과 연원(淵源)은 제가 고루하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조는 비록 효성과 학문의 실재가 있었지만, 일찍이 제자의 집지(執贄)¹⁰⁸하는 예로써 같은 시대의 유문(儒門)에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행하는 곳의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괴이합니다. 이는 반드시 강공의 본손(本孫)이 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데 역지로 제자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피차간에 모두 생색이 없어서 도리어 선조에게 누를 끼치고 죄를 얻을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후 집안 아이를 보내서 탐지하게 하고, 기어이 저의 고조의 성(姓)과 휘를 <문인록>에서 끄집어 낸 후에 그만두고자 합니다.

만일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찌 끝내 탈이 없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좌하께서 그 사람¹⁰⁹을 잘 깨우쳐서 급히 바르게 귀결하게 하여, 아무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겨운 교분을 제가 믿고, 또 당신 집안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을 이렇게 아뢰니, 행여 물 흐르듯이 보지 말기를 더욱 간청합니다.

與姜士慎 信極 辛巳

貴族中，限百年前，有諱碩彬否。聞今刊儒賢淵源錄中，以鄙之高祖，錄爲其門人云，此何事也。姜公之道學淵源，坐此孤陋。愧未曾聞。

108 집지(執贄) : 제자가 스승을 처음 빌 때에 예폐를 가지고 가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논어》〈술이(述而)〉에 “수(脩) 한 속(束) 이상을 가지고 와서 집지(執贄)의 예를 행한 사람에게는 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子曰，自行束脩以上，吾未嘗無誨焉.)”라고 하였다.

109 그 사람 : 편집인으로 나의 고조를 <문인록>에 넣은 사람을 일컫는다.

鄙之高祖則，雖有孝學之實，未嘗以弟子執贄禮，出入於并世儒門矣。未知刊所諸人，何所據而爲此。絕可恠也。此必爲姜公本孫之所請。然非其實而強名之，則彼此俱無生色，反爲累先而獲罪，可不懼哉。玆遣家兒探知，期於拔出鄙高祖姓諱而後己。如不見聽，則豈終無事。切乞座下善諭其人，亟爲歸正而無事如何。仰恃情契，且在貴族中，故如是衷告，幸勿泛視更懇。

족제 행원 효술에게 답함 갑인년(1914)

答族弟行源 孝述 甲寅

과오만 날로 쌓인다는 말은 휘겸(摠謙)¹¹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학문을 근심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성(上聖)¹¹¹이 아니니 누가 과오가 없겠습니까? 오직 고치는 것이 어렵고 두 마음 갖지 않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학인(學人)이 종신토록 독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 이겠습니까? 그 과오를 고쳐서 다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오를 짓지 않는 경지를 지나가면 곧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청컨대 과오가 쌓인다는 이유로 한갓 근심과 걱정을 품지 말고,

110 휘겸(摠謙) : 겸손을 이른다. 《주역》〈겸괘(謙卦) 육사(六四)〉에 “겸손을 베풀어 이롭지 않음이 없다.[無不利，摠謙.]” 하였는데, 그 전(傳)에 “휘(摠)는 퍼는 상(象)이니, 사람이 손으로 퍼는 것과 같다. 동식(動息)하고 진퇴(進退)함에 반드시 겸손(謙巽)함을 펴야 한다.[摠，施布之象，如人手之摠也。動息進退，必施其謙.]” 라고 하였다.

111 상성(上聖) : 으뜸가는 성인이다. 후한의 공융은 조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요 임금은 천종의 술이 아니면 태평 시대를 세울 수 없었고, 공자는 백고의 술이 아니면 지고의 성인이 될 수 없었다.[堯不千鍾，無以健太平，孔非百觚，無以堪上聖.]”라고 하였다. 《孔北海集 書 與曹操論酒禁書》

더욱 모름지기 심지를 크게 하고 마음속을 너그럽게 하십시오. 독서를 익숙하게 하며 함양을 두텁게 하여 맹렬히 성찰하고 진실되게 실천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됨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하면¹¹² 그 과오도 참되게 될 것이며, 쌓인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어찌 크게 쾌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후세로 올수록 운수가 쇠퇴하여 인물이 묘연하니 집안의 자제로서 좋은 자리를 품수받아서 가히 유학의 도를 짚어질 자가 참으로 적습니다. 만약 모처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식량을 전대에 싸고 발을 묶어서 가서 만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우 행원은 명민한 자질과 강의(剛毅)한 바탕을 지녔으니 이 도를 짚어질 수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근자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런 현자를 보게 되니 그 환희와 다행스러움이 어찌 단지 입에서 나올 뿐이겠습니까?¹¹³ 오직 바라건대 힘써 더욱 노력하여 높은 덕을 세우고 넓은 공업을 닦아서, 안으로는 가문의 명망을 더욱 번창하게 하고, 밖으로는 세도(世道)를 구축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112 이와 같이 …… 오래하면 : 본문의 진력역구(眞積力久)는《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참되게 쌓아 가며 오래도록 노력해야만 학문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는데, 학문은 죽음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眞積力久則入, 學至乎沒而後止也.)”라고 하였다.

113 근자에 …… 뿐이겠는가 : 《서경》〈진서(秦誓)〉에 “어떤 한 신하가 있는데, 그는 한결같이 정성스럽기만 할 뿐 다른 특별한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널찍하여 모두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서, 남이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지닌 것처럼 기뻐하고, 남에게 훌륭한 점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으로 좋아하여,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다. 그런 자는 진실로 남을 잘 포용하여,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若有一个臣, 斷斷兮無他技, 其心休休焉, 其如有容焉,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彥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학장구(大學章句)》 전(傳) 10장에도 이 말이 인용되어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옛날에 일찍이 외람되게 수사(洙泗)의 근원을 탐색하고 염락(濂洛)¹¹⁴의 흐름을 따라서 7척 되는 작은 몸을 가지고도 수많은 성현들의 지극히 무거운 도를 감당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풍수(風樹)¹¹⁵의 환난을 만나서 혼백을 잃고 많은 식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마련하느라 손발이 부르트고 못이 박혀서 나이가 장년인데도 마음이 먼저 쇠퇴하였고 늙기도 전에 정기가 이미 썩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서를 마주하여 완미하고 뜻을 찾을 때마다 새로 아는 것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옛날에 본 것까지 잊달아 잃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니 학문과 살림하는 일을 합쳐 한 가지 일만 하라고 알려주시니, 이것은 진실로 지극한 논의라 참으로 알아서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일이 있으니 옛날의 성인으로서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경우 몸소 생업을 다스렸다는 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있었더라도 어찌 우리들처럼 아래로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몸을 땀으로 적시고 진흙으로 발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아관(兒寬)¹¹⁶처럼 경서를 끼고 호미질을 하는 경우와 동생(董

114 수사(洙泗) …… 염락(濂洛) : 수사는 노나라 곡부(曲阜)에 있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이곳은 공자가 강학 활동을 했던 곳이다. 여기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염락(濂洛)은 송대의 성리학을 뜻하는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준말로,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자(程子),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자(朱子)를 통칭한다.

115 풍수(風樹) : 부모가 돌아가셔서 봉양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 제9권에, “고어가 말하기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 [樹慾靜而, 風不止. 子慾養而, 親不待.]”라고 하였다.

116 아관(兒寬) : 한(漢)나라 무제때 사람으로 《漢書 兒寬傳》에 “아관이 품팔이를 할 적에 늘 경서를 몸에 지니고 밭일을 하다가 휴식할 때면 독송을 했다. [時行賃作, 帶經而鋤, 休息輒讀誦.]”라고 하였다.

生)¹¹⁷과 같이 낮에 밭 갈고 밤에 책 읽는 경우는 그들의 지조가 견고하여 족히 천년 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끝내 대도(大道)를 들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공맹과 정주를 기약했던 것이 이제는 마침내 아관과 동생의 무리가 되는 것에 그쳤으니 이것이 가히 크게 한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독서와 농사를 아울러 행하는 자를 능히 독행(篤行)이라고 일컫는 것은 가하지만 능히 도를 알았다고 일컫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¹¹⁸ 대저 학문하는 도리는 식견이 우선이고 팔조(八條)의 우선은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으뜸입니다. 때문에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익숙히 읽고 넉넉히 생각하여 여유를 두고 맘껏 학문하여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 천하의 변화를 곡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실제적인 일에 증험하여 좌우에서 그 근원을 맞닥뜨리지 않음이 없으니,¹¹⁹ 이를 아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한 사람의 신분으로 독서와 농사의 힘을 나누게 되어 일찍이 하루하루 편하게 앉아 감투할 겨를이 없이, 한 가지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자득한 흥취를 못 보게 되니, 그 도를 아는데 또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행하는 바가 끝내 결길로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어, 그 이른바 독행이라는 것도 끝맺음을 잘 할 수

117 동생(董生) : 동소남(董召南)을 말한다. 안풍에 은거하여 주경야독하며 부모를 받들고 처자를 거느리며 살았다. 한퇴지가 그의 이러한 삶을 두고 <동생행(董生行)>이란 글을 지었다.

118 이 때문에 …… 아닙니다 : 이 말은 주경야독하며 행실이 도탑다고 평한 것은 옳지만, 주경야독하며 도를 알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농사보다는 학문만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119 좌우에서 …… 없으니 :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맹자가 학문에 있어서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몸의 좌우에서 취하여 쓸 때 그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된다.(取之左右逢其源.)”라고 하였다.

있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더욱 한스럽습니다.

대개 인사는 기필할 수가 없고 기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절굉(折肱)¹²⁰하여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에게 말씀을 드리니 한가할 때 더욱 채찍을 가하여 하루에 천리를 가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논하여 “제위(諸位)의 묘사(墓祀)¹²¹에서 같은 날 함께 천향(薦享)¹²²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게을러서 선조를 공경하는 체제에 손상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옳습니다.¹²³ 이것이 곧 부자(夫子)가 이른바 “체제에서 관주한 이래로 내가 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¹²⁴ 나도 또한 종전에 이 점을 불안하게 여겼지만 개정하자는 의론을 감히 발의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나의 행실이 평소애 비루하고, 나이가 낮아서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뒤로 처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행원(行源)이 비로소 발의하게 되었으니 우리 행원의

120 절굉(折肱) : ‘팔을 분지른다’는 뜻으로 친히 겪은 것을 말한다. 원문은 삼절굉(三折肱)으로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결국 이를 극복하게 된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3년 조에,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가 군주를 치려 하자, 제(齊)나라의 고강(高彊)이 “세 차례 팔뚝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三折肱, 知爲良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1 묘사(墓祀) : 묘지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122 천향(薦享) :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123 그대가 …… 옳습니다 : 족제 행원이 후창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조상들의 묘 제사에서 전날 고조부 따로 하고 다음날 증조부를 모시는데, 같은 날 천향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고 게을러서 선조를 공경하는 예를 손상시킨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이른다.

124 이것이 …… 뜻입니다 :《논어》〈팔일(八佾)〉에, 공자가 말하기를 “큰 제사를 지낼 때 강신(降神) 이후의 의식은 내가 보고자 하지 않는다. [禘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也.]”라고 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성의가 점점 해이해지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 선조를 공경하는 절실함과 의에 옮겨 실천하는 용기¹²⁵는 평범한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자가 말한 바, “적손이 차례대로 연일 제사를 행하자”고 하신 말씀은, 종묘의 위패가 훼손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친족관계가 다해서 묘지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거기에서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문의 오늘날의 일로 논하건대, 제위의 자손들이 각각의 조상을 제사지내되, 종파(宗派)와 지파(支派)의 선후를 구애받지 말고, 아울러 날짜의 고르지 못한 것도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갑위(甲位)의 자손은 갑위에게 성의를 다하고, 을위(乙位)의 후손은 그 을위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정례(情禮)의 올바름을 얻고 또한 인사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나의 뜻은 이미 그대의 뜻과 대체로 서로 부합되니 자세하게 설파하진 않겠습니다. 행여 부디 문중이 모인 날에 모름지기 이 뜻을 가지고 들러서 완곡하게 어른들 앞에서 진달하여 기어이 듣고 따라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시에 편리함을 취하는 습속을 씻고, 백세(百世) 후에도 예(禮)를 다하는 규범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오늘에 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찌 성대한 거사가 아니겠습니까?

答族弟行源 孝述 甲寅

過誤日積，認出搗謙，而亦可以見憂學之勤也。然人非上聖，孰無過誤。惟改之爲難，不貳爲尤難。今夫學人終身慥慥者，欲何爲也。改其過誤，不復作爾，過此便沒事。請勿以過誤之積，徒懷憂疚，更須大心志寬胸次。熟讀書厚涵養，猛省察實踐履。如此真積力久，則過

125 본문의 사의(徙義)는 《논어》 <안연편> 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신을 위주로 하고 불의에서 정의로 옮겨 가는 것이 덕이 높아지는 길이다.(孔子曰，主忠信徙義崇德也.)”라고 하였다.

者其誠矣，積者其消矣。豈不大快活乎。世降運衰，人物眇然，人家子弟，稟得好資質，可能負荷此道者絕少。如曰某處有斯人焉，孰不欲橐糗裹足而往見之哉。今行源明敏之資，剛毅之質，不可謂不任此道者。而乃近於吾族見之，其歡喜慶幸，豈啻若自其口出哉。惟願勉加努力，立崇德修廣業，內而昌族望，外而扶世道，用副區區之望也。如澤述者，昔嘗妄擬探洙泗之源，浯濂洛之派，將七尺眇然之軀，任千聖至重之道。一朝風樹，喪魂遞魄，百口喫着，胼手胝足，年壯而心先頹，未老而精已短。每對經玩索，不惟新知之無得，并與舊見而隨失，豈不哀哉。今承惠書，乃以學問治產，合爲一道見喻，此誠至論，固知佩服。但所恨者則有之，古之聖賢，如孔孟程朱，未聞有躬治產業者也。雖或有之，豈至如吾輩之下同編氓，沾體塗足乎。若乃兒寬之帶經而鋤，董生之朝耕暮讀，其志操堅確，足以感人於千載，而未聞其終聞大道也。向之自期乎孔孟程朱者，今究不過作兒董之流而止，則此非大可恨者耶。故吾嘗曰書農兼治者，謂之能篤行則可，謂之能知道則未也。夫學問之道，識見爲先，八條之教，格致居首。故古之君子，必熟讀剩思，優遊厭飫，窮天下之理，盡天下之變。然後驗之行事，無不左右逢其源，此之謂知道。今乃以一人之身，分力於書農，曾無一日安坐講討之暇，不見一理窮研自得之趣，其於知道不亦遠乎。既不知道，則日用所行，終不免旁蹊之墮，而其所謂篤行者，安能保其克終乎。是又重可恨也。蓋人事不可必，機會不可矣。此皆鄙所折肱而自懲者，故聊以奉似，幸於無事之時，益加鞭策一日千里也。所論諸位墓祀，同日并薦，煩褻懈怠，有傷敬先之體者，極是極是。而此正夫子所謂禘自既灌而往者，吾不欲觀之者也。區區亦從前不安於此，而不敢發改正之議者，誠以行卑年淺而自後也。今得吾行源而始發之，其敬先之切，徙義之勇，匪夷所及也。然朱子所云，嫡孫次第連日行祭，此以宗未毀者言之。則初非擬論於親盡墓祀者。

只以吾門今日之事論之，諸位子孫，各祭其祖，不拘宗支派先候，并不關日子參差。甲位之孫，盡其誠于甲位，乙位之孫，盡其誠于乙位，則其於情禮，既得其正，而亦無人事之難便矣。鄙意既與高見大槩相符，不須細破。幸於門會之日，須將此意，宛轉委曲，陳達於長老前，期於聽從而實行焉，則洗一時取便之習，立百世盡禮之規，實在於今日矣。豈非盛舉乎。

족제 행원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族弟行源 丙辰

부순(俯詢)¹²⁶하신 “사물에도 명덕(明德)의 본체(本體)가 있습니까?”하는 설(說)에서 족히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공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학장구(大學章句)》와 《대학혹문(大學或問)》에 근거해서 논하자면, 그대의 설은 끝내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듯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명덕이란 인심의 허령(虛靈)한 기(氣)를 하늘에 연어서 이치를 갖추어 만사에 응하는 것으로, 만물일원(萬物一原)의 성(性)을 오로지 이(理)로써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록 기의 분수를 마음이 점유하였으나 그 마음속의 기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리 확연히 확 뚫려 흠 없이 만선(萬善)을 모두 갖추었고, 또 기질의 기가 만 가지로 고르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있어서는 지극히 지혜로운 것도 이 마음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기질의 기가 만 가지로 고르지 않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록 지극히 어두운 자라 할

126 부순(俯詢) : 상대방이 나에게 묻는 것이다.

지라도, 일찍이 그 본체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과 사물이 태어날 때에는 고르게 천지의 이기(理氣)를 받으니, 이른바 명덕이라는 것은 불과 이기의 테두리 내의 한 사물에 불과한 즉, 마땅히 사람과 사물이 고루 소유하는 것 같지만 유독 사람만 독점하고 사물은 참여할 수 없다고 일컫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기의 바르고 통한 것을 얻어서, 그 형체가 평정(平正)하고 단직(端直)하고, 사물이 태어날 때는 기의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어서 그 형체가 가로놓고 뒤집어져서, 형기(形氣)의 동일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여, 리(理)의 전체가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사람과 사물에 명덕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보내온 편지에서는 이에 인과 사물을 리의 한 가지 근원에서만 궁구하고, 또 금수를 기의 본래 청한 것으로 이끌어서 사물에도 명덕의 본체가 있다는 것으로 삼았으니, 첫 번째는 성을 명덕으로 인식한 견해이고, 두 번째로는 기질을 명덕으로 인식한 견해입니다.

하물며 이 금수의 기가 본래 맑다고 운운한 말은 더욱 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질의 청탁(淸濁)과 수박(粹駁)¹²⁷을 주자는 다만 정통한 기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말했거늘, 이제 행원은 기질의 청탁수박을 동식물에게까지 언급하여 헛되이 청하였으나 끝에 가서는 탁하다는 사이에서 변명하니, 이것은 이미 불안함이 큰 것입니다.

명덕의 본체를 주자는 단지 기에 구속되고 욕망에 가려진 사람

127 수박(粹駁) :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장재가 본성을 구별할 때 사람과 동물은 기(氣)의 편전통색(偏全通塞)에 따라 구별되는 반면, 인간 사이에는 청탁수박(淸濁粹駁)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에게만 말했습니다. 이제 행원은 아울러 지극히 완악하고 지극히 어두운 금수에게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주자는 사람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을 명덕이라고 여겼거늘, 이제 행원은 도리어 금수에 한 점 밝은 곳을 명덕이라고 여기니, 만일 행원의 말과 같다면 주자가 이른바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이 정히 명덕에 있다고 말한 것은 도리어 쓸모없는 불필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매우 불안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答族弟行源 丙辰

俯詢物有明德本體之說，足見不明不措之功。然但據大學章句或問而論之，高明之說，似終有難從者。竊以爲明德者，人心虛靈之氣之得乎天而具理應事者也，非如萬物一原之性之專以理言者也。雖曰占得氣分，而其爲氣也，洞徹無瑕，萬善咸備，又非如氣質之氣之有萬不齊者也，惟其非如萬物一原之性。故在物則雖至慧者，不得與焉，惟其非如氣質之有萬不齊，故在人則雖至昏者，未嘗損其本體。蓋人物之生。均受天地之理氣，所謂明德者，不過理氣圈內一物，則宜若人物之均有，而其謂獨專於人而不與於物者何也。正以其人之生也，得氣之正且通者，而其形平正端直，物之生也。得氣之偏且塞者，而其形橫倒反側，卽此形氣之不同，而此理全體有充不充之異焉，是乃人物明德有無之大分也。來書乃推原人物於理之一本，又引進禽獸於氣之本清，以爲物有明德本體之證，一則認性爲明德之見也，一則認氣質爲明德之見也。矧此禽獸氣本清之云，尤所未敢信也。氣質清濁粹駁，朱子只言於正通者之中，今行源乃并及於偏塞者，而枉費分疏於本清末濁之間，此既不安之大者。明德本體，朱子只言於氣拘慾蔽之人。今行源乃并及於至頑至冥之禽獸。朱子以人之具衆理應萬事爲明德，今行源乃以禽獸之一點明處爲明德，若果如行源之言，朱子所謂

人之所以異於禽獸。正在於明德者。乃爲無用之贅言矣。豈非不安之尤者乎。明德本體。朱子只言於氣拘慾蔽之人。今行源乃并及於至頑至冥之禽獸。朱子以人之具衆理應萬事爲明德，今行源乃以禽獸之一點明處爲明德，若果如行源之言，朱子所謂人之所以異於禽獸，正在於明德者，乃爲無用之贅言矣。豈非不安之尤者乎。

강하중 봉화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姜和中 鳳和 己卯

저는 재주가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학문의 방법도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저를 끼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떳떳한 성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능히 호오(好惡)¹²⁸를 알기 때문에 원수와 적들이 앞에 가득하고 화와 근심이 뒤를 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허물이 될까 두려워하여 저를 멀리합니다.

오직 그대만이 멀리서 돌아봐주시고 또 편지를 보내시어, “총명하고 특달(特達)함이 남쪽 조선에서 뛰어나고, 신독(愼獨)하고 진실함이 후진들의 법칙이 된다”는 등의 말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좌하(座下)께서는 구차하게 사람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살피시는 공정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¹²⁹

128 호오(好惡) : 《논어》〈이인(里仁)〉에 공자가 말하기를 “오직 인자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惟仁者，能好人，能惡人.)”라고 하였다.

129 본문의 중오필찰(衆惡必察)은 《논어》〈위령공(衛靈公)〉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衆惡之 必察焉)”라고 하였고，《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 죽일 만한 점을 발견한 뒤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살펴도 가히 취할만한 것이 없으면 한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에 끝내 귀결되지 않겠습니까?¹³⁰ 심지어는 지나치게 스스로에게 겸손하시어 천근(淺近)한 저의 학문에서 얻은 것을 살펴보기에 이르러서는, 이는 진실로 옛날 군자가 학문에 민첩하고 하문(下問)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이켜 보면 내 마음에 얻은 바는 없지만 어찌 이로 인하여 평일에 듣는 것을 받들어 올려서 성대한 뜻을 체인(體認)¹³¹하고, 아울러 저의 소견을 그대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주자가 훈계하여 이르시기를, 대체로 학문을 할 때는 다만 한 개의 시(是)와 비(非)를 분별하기를 요하여, 저것인 비(非)를 버리고 이것인 시(是)를 취하기를 요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시(是)와 비(非)는 마음이 있을 때는 천리와 인욕의 기미(機微)이고, 일에 있어서는 득실의 관문이 되며, 말을 들을 때는 사특함과 정도의 차이이며, 사람을 볼 때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입니다. 그러니 네 가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눈을 붙여서 어떤 것이 리이고, 득이고, 정도이고, 군자이며, 어떤 것이 인욕이고, 실이고, 사특함이고, 소인인가를 간파하여야 합니다.

진실 되게 힘을 써서 극복하고 또 행하거나 그치며, 부척하거나 물리치며 친하거나 소원하게 한다면, 이것이 이른바 분별하여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¹³²

〔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 見可殺焉然後，殺之.〕”라고 하였다.

130 한마디 말로 …… 않겠습니까 :《논어》〈자장〉에 “군자는 한 마디 말로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되기도 하므로 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君子一言以爲知，一言以爲不知，言不可不慎也.〕”라고 하였다.

131 체인(體認) :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여 부응함이다.

132 진실 …… 것입니다 : 극복한다는 말은 극은 인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행지(行止)한다는 것은 득 있는 것을 행하고 실수한다는 것을 그친다는 것이고 부척(扶斥)한다는 것은 정도를 붙들어 올리

이 말이 주자의 본 뜻에 어긋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힘쓰는 나머지, 또한 이 말로 그대의 요청에 우러러 색책(塞責)¹³³ 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그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¹³⁴ 예로부터 세속의 풍습에 갇히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하기 어려우니, 혹 조금이라도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있으면, 행여 그릇된 견해와 망령된 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네 가지에 뜻을 더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答姜和中 鳳和 己卯

僕材不逮人，學不知方，人所不齒。徒以彝性不泯，猶能知好惡，故仇敵滿前，禍患隨後，人皆恐爲所累而遠之。惟座下既垂遠顧，又致耑書，以聰明特達，出於南鮮，慎獨眞實柯則後進等語稱之。座下非苟譽人者，是必出於衆惡必察之公心。然察之而無可取，則不終歸於一言之不知乎。至於過自撝謙而求見淺學之所得，則是固古之君子敏學下問之事。顧雖無自心之所得，豈可不因是而奉獻乎日之所聞。以體盛意而并質所見也哉，朱夫子有訓曰，大凡爲學只要分別一箇是非，

고 사특함을 배척한다는 것이며, 군자를 친애하고 소인을 멀리한다는 것이다.

133 색책(塞責) : 책임을 벗기 위하여 걸만 돌려대어 꾸미는 것이든지, 어떤 요청에 부응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134 본문의 소릉(昭陵)은 《新唐書 卷97 魏徵列傳》에 나오는 말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당 태종이 문덕황후를 그리워한 나머지 그녀가 묻힌 소릉을 바라보려고 원중(苑中)에 층관(層觀)을 지어 놓고는 때때로 관망하다가 하루는 위징(魏徵)과 함께 올라갔는데, 위징이 “신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종이 손으로 소릉을 가리켜 보여 주자, 위징이 “이 소릉 말입니까?”라고 반문하기에 태종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위징이 “신은 폐하께서 멀리 있는 헌릉을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과 같은 것은 신이 벌써 보았습니다.(臣以爲陛下望獻陵，若昭陵，臣固見之.)”라고 답하였는데, 태종이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층관을 헐어 버린 고사가 전한다. 헌릉(獻陵)은 태종의 부친인 당 고조의 능호이다.

去彼而取此耳。竊惟所謂是與非者，在心則爲理慾之幾，在事則爲得失之關，聽言則邪正之異也，觀人則君子小人之別也。於此四者，明著眼而見得熟爲理得正與君子，孰爲慾失邪與小人。實用力而克復之，行止之，扶斥之，親疎之，則是所謂分別而去取也。不知此不爽朱子本旨否乎。而區區自勉之餘，亦欲以此仰塞尊請。固知其爲已見之昭陵，從來世風易囿，化質難盡，或有一分坐在者，幸勿以爲錯見妄言，而不妨加意於此否。

강경함 동영에게 답함 임오년(1942)

答姜敬涵 東泳 壬午

만년에 공부의 효과를 거둔다는 말씀에서 족히 진학을 부지런히 하신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우물을 팔 때에도 샘을 얻기에 도달하기 어렵고, 석가산을 쌓을 때도 한 삼태기 때문에 쉽게 그르칩니다. 이와 같이 선비는 항시 만년에 이지러집니다. 《시경》에서 이르길, “모두가 시작은 있지만 끝은 능히 마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¹³⁵

애시(哀侍)¹³⁶는 이미 이것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맹서할 줄 아시니,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은혜로운 가르침을 이 과루(寡陋)한 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

135 시에서 …… 했습니다 : 《시경(詩經)》 대아(大雅) 당(蕩) 편에, “하늘이 못 백성을 내시니 그 명을 믿을 수 없도다. 처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나 그 끝을 잘 맺는 사람은 드물도다. [天生烝民，其命匪諶。靡不有初，鮮克有終.]”라고 하였다.

136 애시(哀侍) : 서간문에서 흔히 쓰는 말로, 거상(居喪) 중에 있으면서 홀아버지나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어머니 상 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때문이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일찍이 공자께서 훈계하여 이르시기를, “노년에 이르러서는 경계함이 득실에 있다”¹³⁷라고 하셨습니다.

애시는 나이가 오순(五旬)에 가까운즉, 역시 점차 늘어갑니다. 가정의 일을 짊어지는 것은 비록 그만 둘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생각과 일에서 항상 모름지기 재산을 보존하고 생계를 꾸리는 일을 줄이고 학문을 쌓고 덕을 세우는 분수를 더해나가야 합니다. 요컨대 한가지의 일삼음이 있는 연후에¹³⁸ 거의 가히 만년의 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니, 행여 이 말로써 뜻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答姜敬涵 東泳 壬午

收功晚節之喻，足見進學彌勤之意。蓋井難及於得泉，山易虧於一簣。士常失於晚節。詩所謂鮮克有終者此也。哀侍既以此自知戒誓，則宜無靠於別人，乃以惠教望此寡陋者何哉。雖然竊嘗聞孔子之訓曰，及其老也，戒之在得。哀侍年近五旬，則亦已向老矣。擔任家務，雖不可已，於日間意念事行，常須減却保產營生分數。添却積學立德分數，要有一段必有事焉然後，庶可以收晚節之功矣，幸以此加意如何。

137 노년에 이르러서는 …… 있다 : 《논어》〈계씨(季氏)〉에 “군자에게 세 가지 경계함이 있으니, 젊을 때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여색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한창 강하므로 경계함이 싸움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므로 경계함이 얻음에 있다.(君子有三戒，少之時，血氣未定，戒之在色，及其壯也，血氣方剛，戒之在斗，及其老也，血氣既衰，戒之在得.)”라고 하였다.

138 본문의 필유사언(必有事焉)은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의 호연장(浩然章)에 보이는 말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일에 반드시 종사하여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족제 사의 흥재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士毅 弘粹 乙丑

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시초점을 쳐서 항괘(恒卦)에서 해괘(解卦)로 가는 괘를 얻었고, 또한 금귀(金鬼)가 왕성하여 비록 변괘가 되어 복덕(福德)을 등지는 곳으로 나아가나 매우 힘이 없습니다. 현제(賢弟)가 시초점을 쳐서 진괘(震卦)에서 풍괘(豐卦)로 가는 괘를 얻은 것과 흡사 서로 동일하니 누가 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대개 화복(禍福)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나의 의리를 극진히 할 뿐입니다. 그 효사를 보며 말하기를, “그 덕을 항상(恒常)하지 않으면 곧 부끄러움이 닥치게 된다”¹³⁹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공자께서도 평소에 칭하였던 것인즉 신명(神明)이 우리들에게 훈계한 것이 깊고 절실했습니다. 만약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의리에 미진한 바가 있다면, 이는 덕이 항상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큰 것이니, 선사께 죄를 얻게 되고 신명에게도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니, 가히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 성찰하여 드디어 ‘항’이라는 글자로 나의 서재에 편역으로 삼았으니, 대개 주자가 자호한 돈옹(遯翁)의 고사¹⁴⁰를 외람되게 본뜬 것입니다. 비록 주자는 일이 자신에게 관계

139《주역》恒卦 九三爻의 爻辭에 “그 덕이 항구하지 않은지라 혹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리라.(不恒其德, 或承之羞.)”라고 하였다.

140 주자가 자호한 돈옹(遯翁)의 고사 : 송 영종(宋寧宗) 경원(慶元) 연간에 한탁주와 조여우가 권력 쟁탈전을 벌일 때 주희 등이 조여우의 편을 들었는데, 한탁주가 득세한 뒤에 승상 조여우 이하 59인을 모조리 몰아내는 한편, 도학을 위학(僞學)이라고 규정하고는 주희의 학문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주희가 수만 언의 봉사를 작성하여 조여우를 변호하려고 하였는데, 문인 채원정이 점을 쳐 보니 돈괘(遯卦)가

되니 자신의 원고를 불사르고 그 자취를 숨긴 것은 마땅할지라도, 우리들은 일이 선사에 관계되니 마땅히 선사의 의리를 밝혀서 그 덕을 떳떳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비록 다르지만, 처신하는 도리는 일찍이 동일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또한 알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날 밤에 객관(客館)에서 우리 아우가 운운한 말이 나의 마음에 합치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항덕(恒德)의 훈계를 신명에게 얻어 그로써 느낀 것을 적어 언급하니, 생각건대 깊이 헤아려 주리라 봅니다.

與族弟士毅 弘梓 乙丑

昨有人爲余筮，得恒之解。亦金鬼旺盛雖變出午福德而太無力。與賢弟筮得震之豐，恰恰相同，孰謂占不可信也。蓋禍福天定不須問，只要盡吾義而已。觀其爻辭曰，不恒其德，或承之羞，而此爲孔子之雅稱者，則神明之所以戒吾輩者，深且切矣。若貪生惡死，義有所未盡，是德不恒而羞之大，得罪先師矣，得罪神明矣。可不戒哉。於是惕然加省，遂以恒字扁吾齋，蓋僭擬朱子自號遯翁故事也。雖然朱子事關當身，焚己稿而遯其跡固也，吾輩則事關先師，當明師義，恒其德也。晦顯之雖殊，道未嘗不同，此又不可不知也。前夜客館，賢弟有所云云，有會于心。適得恒德之戒于神明，因以識感者告及，相深見諒也。

동인괘(同人卦)로 변하였으므로, 주희가 잠자코 초고를 불사르고는 마침내 둔옹(遯翁)이라고 호를 바꿨다는 기록이 전한다. 《周易筮述 卷8》 《吹劍錄外集》

족제 사의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族弟士毅 丙寅

세상에서는 바야흐로 내가 밤에 꿈꾼다고 여기는데, 나는 낮에 참된 일을 겪는다고 여깁니다. 참과 꿈, 낮과 밤을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에 일도(日度)¹⁴¹와 성전(星躔)¹⁴²이 이미 만고에 바뀌지 않는 즉, 갑이 낮과 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을이 잠자는 것과 꿈꾼다고 하는 것을 하늘이 실로 살피실 것이니, 절로 마땅히 그 득실을 변정(辨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에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밤에 꿈이 되니, 꿈에서 주공을 뵈는 것은 항상 이 도를 행하려는 마음을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낮에 외물에 곡망(梏亡)¹⁴³되면 어찌 밤의 꿈이 편안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능히 낮에 하는 일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꿈꾸는 일을 반드시 맑게 한다면, 이것으로 극진할 것입니다. 우리 아우가 별지

141 일도(日度) : 해가 다니는 길로 황도(黃道)라고도 한다. 진(晉)나라 육기가 나이 사십에 친구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허전함을 비탄조로 읊은 <탄서부(歎逝賦)>에서 “슬프다. 강물은 온갖 물줄기를 모아 큰 흐름을 이루는데, 그 물줄기는 날마다 도도하게 흘러가고, 세상은 온갖 사람들을 겪으면서 세대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둘씩 늙어서 사라지는구나.(悲夫. 川閱水以成川, 水滔滔而日度, 世閱人而爲世, 人冉冉而行暮.)”라고 하는데서 일도가 나온다. 《文選 卷16》

142 성전(星躔) : 별자리로 성좌(星座)이다.

143 곡망(梏亡) : 《孟子 告子上》에, 물욕의 구속을 받아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밤낮으로 성장시킨 바와 이른 새벽의 맑은 기운에 의해 호오(好惡)의 본성이 남들과 비슷하게나마 겨우 되살아났지만, 낮의 소행이 이를 곡망함이 있으니, 곡망함이 반복되면 야기(夜氣)가 족히 보존될 수 없다.(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라고 하였다.

에서 “낮과 밤이 서로 어긋나서 낮에는 수고로워도 꿈은 맑다”고 하는 말은, 혹 일시의 어떤 이유에서 나왔지, 정당 되는 말은 아니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언급해드립니다.

答族弟士毅 丙寅

世方處我以夜以夢，自處以晝以眞。眞夢晝夜，果惡乎定。天地之日度星躔，既萬古不易，則甲之是晝是夜，乙之是寐是寤，天實鑑只，自應辨定其得失也。且晝之所思，夜必爲夢，夢見周公，以其常存行此道也。朝晝梏亡，亦安保其夜夢之安也。人能晝眞之必正，而夜夢之必青，斯其至矣。別幅晝夜相違晝勞夢清之喻，或出一時有爲，而究非竟語，故茲及之。

족제 사의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族弟士毅 丙寅

어제 대암(拾巖)에서 돌아오니 정겨운 편지가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바빠 편지를 열어 읽어보니 그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도 읽기 전에 나도 모르게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해 가눌 수 없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아우의 언론과 사상이 전일과 문득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우는 오당(吾黨) 중에서 평소 강의(剛毅)하다고 칭찬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굳건한 소나무와 오래된 잣나무와 같은 그대가 세찬 눈바람에 압박되어 꺾이고 좌절되려하십니까! 허 차는 소리로 괴이한 일이라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윽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이는 아마도 우리 아우가 때를 만

나 마땅함을 제제하여 평상시와 변화시에 처할 의리의 취지를 지극히 하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그대가 먼저 이미 생각해서 얻고, 틈 없는 사이인 나에게 토로하고, 자신이 몸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닌즉, 그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은 대개 과도한 우려였습니다. 또 밤에 능히 편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보니, “마음은 몸의 주인으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또 마음의 소리인지라 그 마음에서 발생해서 그 일을 해치게 된다.”¹⁴⁴라고 맹자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성인이 이 말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청컨대 그대의 편지에서 거론한 바를 근거해서 대략 논하겠습니다. 대저 하늘의 호오(好惡)는 진실로 나의 뜻한 바가 아니요, 또한 저들의 뜻한 바도 아닙니다. 대개 하늘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따름입니다. 나와 저들의 선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늘이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고 저들을 형통하게 한다고 하여, 하늘이 우리의 악을 싫어하고 저들의 선을 좋아한 것을 의심하여 끝내 의리에 안주할 바를 궁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저들을 따른다면,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대저 기수(氣數)¹⁴⁵의 어긋남은 하늘이 홍수나 큰 가뭄같이 원래 자가(自家)의 일에 속한 것도 오직 하늘도 어찌하지 못하거늘, 하

144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마음속에서 생각을 일으켜 급기야는 정사에 해를 끼치고 만다.〔發於其心 害於其政〕”라고 하였다.

145 기수(氣數) : 길흉·화복의 운수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15년조에 “귀갑(龜甲)으로 점을 치는 것은 사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서초(筮草)로 점을 치는 것은 기수(氣數)를 대표하는 것이다. 사정이 발생한 뒤에 현상이 있게 되고, 현상이 있으면 사정이 더 발생하고, 사정이 더 발생한 뒤에 기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물며 인사의 득실에 있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이로써 아우는 ‘의를 따라 함께 하는 것은 진실로 군자가 되고, 세상과 함께 변하여 옮겨가는 것¹⁴⁶’은 결코 떳떳한 훈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시대와 형세를 아는 것을 정자(程子)는 “역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일렀지만, 또 말하기를 “시세가 비록 변하더라도 내 어찌 감히 현재의 왕의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어기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는 반고(反古)¹⁴⁷를 훈계하여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효성스러운 우리 아우의 오늘날 시대를 알고 옛 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훈계를 생각해 보니, 공자와 정자의 취지를 놓친 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에 이르러서는 선성인 공자와 선현인 정자의 학문을 생각하고 힘써서, 세도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약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만약 유자가 졸렬한 법도를 고수하는 것을 깊이 애석하게 여긴다면, 나는 아우가 말하는 ‘졸렬한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졸렬한 법도라

146 의를 따라 …… 옮겨 가는 것 : 본문의 ‘義之與比’는《논어》〈이인(里仁)〉에 “군자는 천하의 모든 일에 대하여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없어서 오직 의로운 것을 따를 뿐이다.(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라고 하였다. 또한 ‘與世推移’는 《사기(史記)》권84 굴원열전(屈原列傳)의 어부사(漁父辭)에, “성인은 사물에 막히거나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 미루어 옮겨가나니, 온 세상 사람이 혼탁하거든 어찌 그 흐름을 따라서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고?(夫聖人者, 不凝滯於物, 而能與世推移, 舉世混濁, 何不隨其流已揚其波.)”라고 하였다.

147 반고(反古) : 《중용》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재앙이 그 몸에 닥칠 것이다.’〔子曰：愚而好自用，賤而好自專，生乎今之世，反古之道，如此者，裁及其身者也。〕”라고 하였다. 옛 도리에 반하지 말라고 경계함을 이른다.

는 것이 천하의 왕 노릇하는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관중(管仲)의 기량이 작은 것 같다¹⁴⁸고 한다면, 그것은 옳거니와, 혹 제멋대로 걷고 시속을 쫓는 일을 못하는 것을 가리켜 졸렬하다고 한다면, 이는 천하를 이끌어서 금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고견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우리 아우가 한번 소회를 토로하여 그 씩씩한 마음을 한번 통쾌히 한 것인데, 나는 한번 그대의 의론을 듣고 가히 우려하여 질병이 되었으니, 인정이 같지 않고 어찌 상반되는지요? 이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고서 끝내 한마디 말¹⁴⁹으로써 실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答族弟士毅 丙寅

昨自坵巖歸，情翰留案。忙手披讀，其喜何既。然讀之未半，不覺惘然如有所矣。恍然惚然，無以爲懷，其故何哉。以吾弟言論思想，忽異於前日也。吾弟非吾黨中素剛毅稱者乎。胡爲乎貞松古柏，爲虐雪獐風之壓迫而欲摧折也。咄咄怪歎，夜不能寐，既而徐思之，此殆吾弟欲因時制宜，以極常變義理之趣。既得之於思，試一吐於無間，非謂身親如何也，則其惘然恍惚者。蓋過慮也。於是又夜能安寢。雖然

148 관중의 기량이 작은 것 같다 : 《논어》〈팔일(八佾)〉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管仲)은 그릇이 작구나.’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관중은 검소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은 삼귀대를 지었으며 자신의 일을 검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子曰: ‘管仲之器, 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라고 하였다.

149 한 마디 말 : 《논어》〈자로(子路)〉에 “정공이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은 이와 같이 기필할 수는 없거니와 사람들 말에 ‘나는 임금된 것은 즐거울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曰 一言而喪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라고 하였다.

又反思之，心身之主也，思出於心，言又心聲也，發於其心，害於其事，孟子既云，聖人不易斯言，則吾何敢釋然如也。請就來喻所舉而略論之。夫天之好惡，固非吾之所志，亦非彼之所志。蓋好善而惡惡而已。吾與彼之善惡，果未知安在。然若以天之厄吾而通彼，疑天之惡吾惡而好彼善，遂不究義理之攸安，而舍吾從彼則左矣。夫氣數之舛差，天於洪水太早之元屬自家事者，尙且柰何不下，況於人事之得失乎。是知義之與比，固爲君子，而與世推移，決非經訓也。且知時識勢，程子謂學易之方，而又謂時勢雖變，某安敢變違時王之制。孔聖戒以復古，而非先王之德行，不敢行。又以爲孝吾弟今日識時復古之訓，無乃失孔程之旨乎。至於吾所當爲者，思勉先聖賢之學，期補世程之萬一是也。若以儒者膠守拙規爲深惜，則不省其拙規者指何也。若謂不知有王天下之道，如管仲之器小則可矣，或指不能闊步趨時而爲拙，則此率天下而爲獸也，高見豈至此乎。吾弟則一吐所懷，壯心爲之一快，而吾則一聞高論，過憂爲成一疾，人情不同，何若是相反，是必有其故也。幸惟深思遠覽，無終爲一言之失如何。

족제 사의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族弟士毅 丁卯

편지에서 말한 권순명(權純命)의 일은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잃고 보름도 되기 전인 사람과 혼인을 한 것은 허물이 아니고 바로 악(惡)입니다. 하물며 김희중(金熙中)씨가 전한 바로는, 저 상중(喪中)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권씨가 강요했다는 설이 나오게 되어서는 그 정상(情狀)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만약 그 실정을 얻으면, 애곡히 여기고 기뻐

하지 말라”¹⁵⁰ 하셨으니 그 권순명의 행위를 궁구해보면 참으로 가련합니다. 대개 상중을 틈타서 처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아비가 없는 짓입니다. 또 더불어 동일한 죄를 받는다는 것은 예율(禮律)에 공통된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가 사라진 시대를 만나서 몸소 유자의 의관을 입고 친히 아비 없는 짓을 범하니, 그 죄를 생각하건대 가련한 것이 아니고 통분한 일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저 권순명이 오진영에게 붙어서 스승의 의리를 무함하고 사인(士仁)을 구속시키고, 또 선사의 손자에게 화를 끼치는 것은, 이는 스승을 업신여기는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내 아비를 없이 여기는 것도 어찌 괴이할 것이 있겠는지요! 또 김종희(金鍾熙)가 이현기(李鉉璣)씨를 마주하여 이곳 후창 쪽 사람을 매도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이완용과 조정을 함께 할지언정, 이 도적들과 세상을 나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는데, 참으로 비웃을 만합니다. 저 김종희가 진실로 이러한 큰 바람이 있다면, 어찌하여 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스스로 매장하지 아니하며, 또 어찌하여 빨리 매국노의 발 아래로 달려가서 조정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아! 스승을 위하여 변무(辨誣)한 사람을 미워하고, 매국노와 조정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법을 무릅쓰고 인산(因山)¹⁵¹ 전에 혼례를 행하여 무군(無君)의 자취를 즐겨 밟았던 것입니다.¹⁵² 대개 김종희

150 만약 …… 말라 : 《논어(論語)》〈자장(子張)〉에, 맹씨의 사사로 임명된 양부(陽膚)가 증자에게 옥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증자가 “윗사람이 도리를 잃어 민심이 떠난 지 오래되었다. 만일 범법한 실정을 파악했으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라고 하였다.

151 인산(因山) : 조선 시대, 태상왕(太上王)과 그 비(妃), 왕과 왕비, 왕세자와 그 빈(嬪), 왕세손(王世孫)과 그 빈의 장례이다.

또한 오진영의 스승을 업신여김에 붙어서 권순명과 자취를 같이한 자입니다. 스승이란 만법(萬法)의 근원이니 이미 스승을 업신여기는 자라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이 어찌 일관(一串)된 일이 아니겠는지요! 오호라, 참혹합니다.

答族弟士毅 丁卯

示權純命事備悉。其與喪父望者爲昏，非過也乃惡也。而況金氏熙中所傳非彼之欲，乃權之強之之說出，而其情狀暴露矣。曾子曰如得其情，則哀矜而勿喜，究厥所爲，眞可哀也。蓋乘哭娶妻，是爲無父。與受同罪，禮律通然。當此蔑倫之世，身被縫章，親犯無父，言念其罪，非可哀也，又可痛也。雖然彼黨震泳，而誣師義械士仁而禍師孫者，則其無師也久矣。終以至於無父者，何足怪乎。又示以金鍾熙對李氏鉉璣罵此中人曰，寧與完用同朝，不與此賊并世，極可好笑。渠信有此所大願也，何不掘地及泉而自葬，又何不疾趣賣國賊脚下而同朝也。噫疾爲師辨誣人，願與賣國賊同朝者，非無君之心乎。此所以冒法行婚於因山前，甘蹈無君之跡也。蓋熙亦黨震無師，與命同轍者。師者萬法之原也，既爲無師者，則無父無君，豈非一串事乎。嗚呼慘矣。

족제 사의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族弟士毅 丁卯

152 이 때문에 …… 것입니다 : 이 말은 “스승을 위해 변무한 사람을 미워하고 이완용과 조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니, 이러한 무리들이야말로 임금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종황제 인산 전에 혼례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초육일에 정재(精齋) 어른¹⁵³이 와서 말하기를, “고윤거(高允舉)에게 들어보니, 고윤거가 말하기를 ‘권순명이 나의 집안의 부음을 듣고도 혼기를 물리지 않고 발행(發行)¹⁵⁴한 날에 가서 비로소 말을 하고 또 혼례한 후에 귀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한결같이 근자에 들은 것과 서로 부합하니, 교묘하게 하려다 도리어 졸렬하게 된 간악한 상황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돌리는 악한 태도도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듣자니 권순명은 여전히 석농(石農)¹⁵⁵이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이 뚜렷하게 근거가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또 권순명이 말하기를, “원재(遠齋)가 한번은 석농의 필주(筆誅)¹⁵⁶를 겪고 나서는 염상(鹽霜)의 풀이 되었다”고 말하니 더욱 가소롭습니다.¹⁵⁷

與族弟士毅 丁卯

初六日靜丈來言，聞諸高允舉，則命也聞高訃而不退婚期，始往言於發行之日，又歸家於烝禮之後。一與此近所聞相符，欲巧反拙之奸狀可笑也。歸罪其父之惡態可憎也。聞權猶大言石農改師稿，鑿鑿有據。又言遠齋一經石農筆誅，爲鹽霜之草，尤可笑也。

153 정재(精齋) 어른 : 오병훈(吳秉勳, 1870~1964)으로 호가 정재(精齋)이다. 간재 전우의 문인으로 간재로부터 받은 서신 40여 통이 전한다.

154 발행(發行) : 상여가 출발한 날이다.

155 석농(石農) : 오진영이다.

156 필주(筆誅) : 글로 하는 성토로 필삭(筆削)과 같은 뜻이다. 죄 있는 자를 실제로 죽일 권한이 없어서, 그 죄상을 명백하게 기록하여 세상에 남기는 것을 말한다. 죄악을 글로 써서 비판하는 것이다.

157 또 …… 가소롭습니다 : 원재는 후창 쪽의 사람인데, 권순명은 “원재가 우리를 그렇게 성토하더니 오진영이가 한번 성토하니 풀이 소금에 절여지고 서리에 시든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족제 사의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族弟士毅 戊寅

지난번에 보계(譜系)¹⁵⁸의 범례를 물어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대보공(大輔公)에게 이미 시조라고 쓰고 또 이부공(吏部公)에게도 시조라고 쓴다면, 한 성(姓)의 계보에서 두 시조가 있게 되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이부공을 중조(中祖)라고 쓴다면 부안에 본관을 둔 김씨의 족보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중시조라고 일컫는 것도 또한 마땅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이부공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시조라고 쓰고 궐초(厥初)¹⁵⁹를 대보공이라 쓴다면 ‘궐초’라는 두 글자는 살아있는 시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조(遠祖)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가리키는 것이 광범위하여, 그러므로 주자가 8대조까지 원조라고 칭했으니, 성씨을 얻고 관을 나눈 조상 이부공에게는 가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대보공은 본디 우리 김씨를 처음 있게 한 조상이니, 시조라고 <김씨세계(金氏世系)> 편에 쓰고, 이부공은 모조(某祖)라고 쓰지 말고, 다만 <부녕김씨세계(扶寧金氏世系)> 편에 일세(一世)라고 쓰고,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후예라고 주(註)를 달면 아마 잘못이 아닐 듯한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答族弟士毅 戊寅

向詢譜系書例，竊思之，於大輔公既書始祖，又書始祖於吏部公，則

158 보계(譜系) : 한 집안의 혈통과 역사를 적은 책이다.

159 궐초(厥初) : 어떤 일의 맨 처음이라는 뜻이다. 《시경》〈생민(生民)〉에 “처음 주(周)나라 사람을 낳은 것은, 바로 강원이었나니, 낳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올렸도오.(厥初生民，時維姜嫄，生民如何，克禋克祀.)”라는 말이 나온다.

一姓之系，有兩始祖者，固爲不可。於吏部公欲書以中祖，則貫扶之金譜，始於此，而謂之中祖者，亦恐未當。以此而書始祖於吏部公，以厥初書於大輔公，則厥初二字，是指生人時代之言，非指祖上當身之言，亦不親貼。至於遠祖，所指泛廣，故朱子於八代祖亦稱之，則非可書於得姓與分貫之祖也。然則如之何而可也。大輔公固始生之祖，以始祖書之於金氏世系之篇。吏部公則不書某祖，只書一世於扶寧金氏世系之篇，而註以新羅敬順王之后，恐不爲朱，未知如何。

족제 사의에게 보냄 기묘년(1939)

與族弟士毅 己卯

근일 들어 서풍이 점차 높아지니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개탄하고, 학업이 황폐함을 한탄합니다.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옛날 학업을 함께 하던 동지들이 시대 따라 변하기도 하고, 혹은 형편에 끌리기도 하고, 혹은 음적(陰賊)에 변화되기도 하였으니, 돌아보면 서로 상장(相將)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나 혼자 스스로 마음에서 말하니 이러한 때 이러한 회포를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근자에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가득 기쁘고 위로되어 날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우리 아우는 좋은 자질과 좋은 재성(才性)을 지녔으니, 어찌 이것이 근자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무개 아무개 무리들에 미칠 바이겠습니까? 매번 상자 속에 소장된 갑을연간에 아우가 지은 오진영을 배척하는 문자를 읽을 때면, 그때마다 그 의리가 밝고 문사가 탁 트임을 감탄하여, 갑자기 가슴속이 청쾌(淸快)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집안이

몰락하고 아버지가 늙음으로 인하여, 뜻이 나뉘고 공부도 소홀해 짐을 면치 못했으니, 아까 이른바 ‘형세에 이끌린다’는 말이 이 때 문입니다. 옛날에도 또한 아버이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굽히고 봉록을 받기 위해 벼슬을 한 자가 있었는데, 현재의 정세도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선현이 논한바 ‘안자(顔子)는 도의(道義)로써 아버이를 모셨기 때문에 안로(顔路) 또한 굶주려도 기뻐했다’는 설로써 보건대, 사람의 자식으로서 어진 부모를 둔 우리 아우와 같은 자는, 피차 경중의 사이에 마땅히 취사할 바를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맹자는 부귀영화를 얻은 것은 명(命)이 있으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훈계를 주셨습니다. 아우가 일찍이 말하기를 “몇 년 동안 집안 살림을 꾸리다가 조금 여유를 얻으면 사십 후에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 사십이 넘었는데도 과연 어떠합니까? 지나간 일을 인하여 미루어보면 미래를 알 수 있으니, 다시 몇 년이 지나면 세월이 너무 늦어서 단약(丹藥)을 완성할 기약¹⁶⁰도 없으니, 외물을 추구하다 얻지 못하고 안으로 초심만 여기게 되는 격이라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오직 바라노니, 아우는 오늘부터 옛 생각을 통렬하게 쓸어버리고, 새로 심력을 굳혀서 초년에 실수를 후회하고 만년의 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¹⁶¹ 여기에 맹자가 말한 “구하면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¹⁶²

160 단약을 완성할 기약 : 학문의 업적을 성취한다는 뜻이다.

161 초년에 …… 바랍니다 : 동우(東隅)는 해가 뜨는 곳이고 상유는 해가 지는 곳으로, 동우는 인생의 초년을, 상유는 인생의 만년을 뜻한다. 마원(馬援)이 “처음에는 비록 회계에서 날개를 드리웠지만 마침내 민지에서 날개를 떨칠 수 있었으니, 동우에서는 잃었지만 상유에서 거두었다 이를 만하다.(始雖垂翅回谿, 終能奮翼馳池, 可謂失之東隅, 收之桑榆.)” 하였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162 구하면 …… 때문이다 : 맹자가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하니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함에 도가 있고 얻음에 운명이 있다. 이 구함은 얻음에 무익하니 밖에 있는

라는 훈계가 있는 즉,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괴로워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그 반드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여 끝내는 둘 다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려고 합니까? 바라건대, 하늘이 아름다운 자질을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을 생각하여, 평일에 뜻과 사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고립(孤立)한 형세를 도와서 조금이나마 무너진 세상의 학문을 부축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與族弟士毅 己卯

比日來西風正高，慨年矢之邁往，歎學業之荒無。士之悲秋，從古而然。加以舊學同志，或爲時變，或爲勢製，或爲陰化，環顧而無人相將。有思而獨自語心，比時此懷，如何形喻。際茲聞近欲一顧之報，滿心欣慰，惟日望之。仍念賢弟好稟質好才性，豈此近人稱某某輩之所可及者。每讀樊篔所藏甲乙年間斥陰文字，輒歎其義明辭暢，頓覺胸中清快也。然而坐於家落而親老，不免志分而功疎，向所謂或爲勢掣者此也。古亦有爲親而屈志祿仕者，則賢弟情勢，安得不然。但以先賢所論顏子以道義養親顏路雖飢亦喜之說，觀之，人子之有賢父母如賢弟者，於彼此輕重之間，宜知所取舍。而況孟子有得之有命求在外者之訓乎。賢弟嘗言幾年經理，稍得贏裕，則四十後專意學問，今幾年過而四十餘矣，果如何也。因往推之，來者可知，更過幾年，則歲月太晚，成丹無期，外求未得，而內負初心，豈不可恨。惟望賢弟斷從今日，痛掃舊念，新著心力，悔東隅之失，而收桑榆之功也。此有孟子求則得之求在我者之訓，則其可得也必矣。何若而舍其必得而求其不可必得，竟至於兩無所得也。願思所以不負天與美質之思，而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求則得之，舍則失之，是求有益於得也，求在我者也，求之有道，得之有命，是求無益於得也，求在外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盡心上》

償得平日之志業。亦以助得淺陋孤立之勢，少扶世舉之類，區區不勝懇至之心。

족질 문경 형익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族姪文卿 炯翼 乙丑

족질이 근일에 진걸(震杰)¹⁶³의 변란에 곧바로 변명하여 배척하고 죄를 성토했던 것은, 맹자가 변론을 좋아했던 마음¹⁶⁴입니다. 족질이 서검(書檢)¹⁶⁵으로 자수한 것은 황보규(皇甫規)¹⁶⁶의 장한 의리요, 분주히 소식을 전한 것은 탁계순(卓契順)¹⁶⁷의 고풍(高風)과

163 진걸(震杰) : 오진영(吳震泳)과 강태걸(姜泰杰)을 이른다. 강태걸은 오진영의 제자로, 간재의 선집을 만들어 서울에 가서 인가를 받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이 일에 반대하는 김택술과 최병심 등을 진천서에 고소한 인물이다.

164 변론을 좋아했던 마음 :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공도자(公都子)가 외인(外人)들이 모두 부자더러 변론하기를 좋아하는데 어째서 그런가라고 하자, 맹자가 말하기를 “내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내 부득이해서이다. 천하에 인간이 살아 온 지 오래되었는데, 한 번 다투어지고 한 번 혼란하였다.〔予豈好辯哉。予不得已也。天下之生久矣，一治一亂。〕”라고 하였다.

165 서검(書檢) : 봉함한 곳에 도장을 찍고 글을 쓴 것이다.

166 황보규(皇甫規) : 중국 후한의 장수로, 강(羌)을 정벌한 공을 인정받아 도요장군에 올랐다. 환제 때 당고의 화가 일어나 진번, 이응 등 당대의 명현들이 다수 체포되었는데 황보규는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스스로 상언하기를 “신이 지난번에 고 대사농 장환을 천거한 것은 곧 신이 당을 붙쫓은 것이요, 또 옛날 신을 좌교로 좌천시킬 것을 논할 때에 태학생 장봉 등이 글을 올려 신을 변호해 준 것은 바로 당인들이 신을 붙쫓은 것이었으니, 의당 신도 이 당옥에 연좌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를 불문에 부쳤다고 한다. 《後漢書 卷65 皇甫規列傳》

167 탁계순(卓契順) : 당나라 정혜사 수흥의 문도이다.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39 차운정혜흥장로견기(次韻定慧欽長老見寄)의 서(序)에

같습니다. 총괄하면 간옹(良翁)의 한 가지 일을 위한 정성으로 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틈을 주지 않았고, 호남의 선비와 환난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 통문에 참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금도 그치지 않았으니 어찌 그리 씩씩한지요! (족질이 간재에게 배우지 않았다. 오진영을 성토하는 통문에 이 조카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전일(前日)에 1500명 제자들 가운데 이름을 날려 영예를 드러낸 자와 59명의 반열에 의를 분발하고 공을 과시하는 자들과 이에 혹 두려운 마음으로 움츠리거나 또 기쁜 마음으로 연락(燕樂)만을 즐기는 자들도 족질에게 비교해보면 능히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이에 그대가 근년에 힘써 법도를 지키고 진실 되게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은 간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효과입니다. 이로부터 더욱 극진함을 궁구해나가면 간옹의 자취가 그 장차 그대에게서 이어질 것이니, 누가 사제의 교분이 미처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간재의 전술(傳述)을 얻지 못했다고 이르겠습니까? 또한 어찌 사제의 교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스스로를 겸연쩍게 여기겠습니까? 원컨대 더욱 힘쓰고 힘쓰십시오.

答族姪文卿 炯翼 乙丑

賢於近日震杰之，變立辨討罪，孟子好辯之心也。書檢自首，皇甫規之壯義也，奔走通信，卓契順之高風也。總之爲良翁一事之誠，不以分不定而有間，與湖土同難之志，不以通不參而小歇，何其偉哉。彼前日之揚名榮於千五百之中，奮義誇功於五十九之列者，乃或惴惴然龜縮，响响然燕樂，視賢能無愧乎。於是乎益信賢之年來力守規模，

“소주(蘇州) 정혜사 장로 수흠이 그 문도 탁계순을 혜주(惠州)로 보내 나의 안부를 묻고” 라고 하였다.

實下工程，不負良翁之教之效也。從此益究其至也，則良翁之緒，其將於賢焉見紹矣，孰得以分未及定。謂非得其傳，亦何可以此而自斂也。願益加勉旃。

족질 문경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族姪文卿 丙寅

그대가 물었던 도를 밝히는 방법은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우리들이 말세의 세상을 만나서 이 이론은 임금과 재상의 치교(治敎)가 없고, 아래로는 사우(師友)의 이끌어줌이 없습니다. 오직 마땅히 스스로 그 뜻을 우뚝하게 세우고 그 힘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뜻이 서면 견해가 높아지고, 힘을 굳세게 하면 사사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견해가 높아지고 사사로움을 이기게 되면, 도가 그 밝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속에 휩쓸려가는 무리들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근일에 오당(吾黨) 중에 가히 믿을만한 자를 보아도, 또한 대부분 심력을 굳게 세우지 못합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회포가 사나워집니다. 나의 경우 죽음이 눈앞에 있고 호랑이가 밖을 먹어대니,¹⁶⁸ 구사일생의

168 호랑이가 밖을 먹어대니 : 《장자》 <달생(達生)>에 “노(魯)나라에 단표란 자가 있어 바위굴에 은거하면서 물만 마시고 속세의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여, 나이 70이 되어도 얼굴이 마치 어린애와 같았는데, 불행히 굴주린 호랑이를 만나서 잡아먹혔다. 또 장의(張毅)라는 사람은 부잣집, 가난한 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명리를 얻기에 급급했는데, 나이 40에 속으로 열병이 나서 죽었다. 단표는 내면의 정신만을 기르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고, 장의는 외면의 몸만을 기르다가 열병이 그 안을 침범한 것이니, 이 두 사람은 모두 그 뒤쳐진 것을 채찍질하지 못한 것이다.〔魯有單豹者，巖居而水飲，不與民共利，行年七十而猶有嬰兒之色，不幸遇餓虎，餓虎殺而食之。有張毅者，高門縣薄無不走也，行年四十而

경우라 할지라도 또한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실수를 할지언정 내 자신을 속이기를 원치 않고, 차라리 힘이 미치지 못할지언정 스스로 선을 굿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물의 유혹된 사사로움으로 나의 본심의 밝음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문경의 요청에 내가 스스로 힘쓰고자 하는 바로써, 족질에게 고하니, 이미 안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 리가 다 환히 밝아져서 호연지기가 유행한다는 오묘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족질과 내가 애써 힘써 백 번 천 번¹⁶⁹ 노력한 후를 기다려 각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장으로 논하여 저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答族姪文卿 丙寅

所詢明道之方，豈易言哉。雖然吾輩當末極之世，上無君相之治教，下無師友之指引。惟當自卓其志，自強其力。志卓則見高，力強則私克。見高而私克，道其有不明者乎。世之滔滔者流，吾下欲說。竊觀近日吾黨中可恃者，亦多不能強卓心力於利害之際。每一念之，心懷作惡。如余者溝壑在前，虎食于外，得一生於九死。則亦幸矣，然乃若其志，則寧失於不知，不欲其自欺，寧力之未至，不欲其自畫。勿以外誘之私，昧吾本心之明也。今於文卿之請，以所欲自勉者奉告，吾知文卿之不以己見昭陵而不加意也。至於萬里明盡浩氣流行之妙，尚待兩家困勉百千之後，各以自然之文論著者，有日也否。

有內熱之病以死。豹養其內而虎食其外，毅養其外而病攻其內，此二子者，皆不鞭其後者也.)”라고 보인다.

169 백천(百千)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해야 한다. (人一能之，己百之，人十能之己千之.)” 라고 하였다.

족질 문경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族姪文卿 庚午

듣자하니 역사책을 기술하는 일로 우당(藕堂)과 말을 하였다 하니, 크게 나의 뜻을 굳건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우당이 나를 대면하여 말하기를 “우암(尤菴)¹⁷⁰이 사국(史局)¹⁷¹에 편지를 보내어 수옹(睡翁)¹⁷²의 일을 기재하기를 청한 것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암이 선열을 선양하는 것이 본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지, 오늘날의 세상이 우암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암 당대에 수옹의 일을 기록한 사람이 청나라 사람¹⁷³으로 도독부를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그 가운데에 사국을 설치했다면 우암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저들 총독부의 역사를 믿을만하다고 하여 그 가운데에 기입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저 《통감집람(通鑑輯覽)》은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친히 비평한 것이니, 믿을만한 문자로써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만, 대명(大明)의 유민(遺民)으로서 그 조상의 일을 이 《통감집람》에 기입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170 우암(尤菴) : 송시열이다.

171 사국(史局) : 고려와 조선시대 사관이 사초를 꾸미던 곳으로 예문관과 춘추관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72 수옹(睡翁) : 송갑조(宋甲祚)로 송시열의 아버지이다. 자는 원유(元裕)이고 호가 수옹(睡翁)이다.

173 본문의 애신씨(愛新氏)는 청나라 때의 성씨이다. 《한한대사전》(2004)에서는 청 태조 누르하치를 난 만주족의 한 부족 이름이었는데, 뒤에 청 임금의 성씨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애신각라(愛新覺羅)’는 본디 만주족 가운데 한 부족 이름이었는데, 그 부족에서 성장하여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의 업적을 기리고자 그 후대 임금이 부족명을 성씨로 삼은 것이다.

與族姪文卿 庚午

聞以史事與藕堂有言，大強人意。向藕對余言，以允菴與書史局，請載睡翁事爲證，然是但知允菴闡揚先烈之足法，而不知今之世與允庵時異也。使愛新氏置督府於我邦，設史局於其中，允庵決不爲此也。又以彼史爲可信而求入其中，夫通鑑輯覽清帝康熙親批也，可信文字，孰加於此，然未聞大明遺民之求入其祖事於是編也。

족질 문경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姪文卿 癸酉

치흑(薙黑)의 변란¹⁷⁴에도 내가 만일 빼앗기지 않으려는 뜻만 있다면 일본인들이 강제해도 어찌 저들의 뜻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원나라와 청나라처럼 일체의 강압적인 법¹⁷⁵을 사용하던 시절에도 오히려 보전하여 지키는 사람이 있었거늘, 오늘날의 변란은 비록 심하다고는 하지만 원나라 청나라에 비교해보자면 어찌 조금 느슨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 느슨함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차츰차츰 그 그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가 보낸 시에서 이른바 강한 쇠일수록 쉽게 녹는다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맹서하고, 죽어도 변치 않겠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찌 이치와 외형 둘 다 온전히 하는 한 가지 다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유금(兪金)과 노중(盧中)이 심의(深衣)를 입고 위모(危帽)를 쓰며 무리 가운데서 홀로 걸었으니, 만일 이것을 할 수 없다

174 치흑(薙黑)의 변란 : 머리 깎고 서양 옷으로 입으라는 단발령과 개복(改服)을 뜻한다.

175 일체의 강압적인 법 : 본문의 일체법(一切法)은 확일 양단하는 것으로 강압적인 법을 뜻한다.

면 인산(仁山)과 백운(白雲)처럼 금화(金華)¹⁷⁶에 은거하는 것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서동해(徐東海)처럼 바다와 산을 떠돌며 고생하면서 머리털을 온전히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는 가정의 편안함과 의식의 따뜻하고 배부름만을 탐하고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 되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答族姪文卿 癸酉

雍黑之變，我苟有難奪之志，彼之強勤，胡得焉。夫以元清用一切法之世，猶有保守之人，今日之變，雖云甚矣，比之元清，豈不稍緩乎。惟其緩而驅之，故久而駸駸，盡入其網。盛詩所謂剛鐵易鎔是也。然自誓死不變者言之，豈非理形兩全之一幸耶。俞金盧中之深衣危帽，獨行衆中，如不可得，則仁山白雲之金華隱居可爲也。又不可得，則徐東海之流轉海山。辛苦全髮可爲也，如曰此猶不能爲，則是貪戀於室家之宴安，衣食之溫飽，而不爲者也，復何言哉。

김소련 구락에게 답함 기미년(1919)

答金巢蓮 龜洛 己未

그대가 시를 써서 보여준 뜻을 때때로 한번 읊조리니 참으로 크게 탄식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건대, 산은 무너질 수 있고 옥도 부서질 수 있어도, 굳건한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고 여깁니

176 금화(金華) : 송나라 학자 백운(白雲) 허겸(許謙, 1270~1337)의 고향이다. 허겸이 나라가 망할 무렵 인산(仁山) 김이상(金履祥)을 따라 배워서 그 학문을 성취하였고 중외(中外)에서 두루 천거하였으나 모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宋元學案 卷82》

다. 세속의 비웃음은 저들이 시끄럽게 비웃는 대로 맡겨두고, 높은 모자와 넓은 띠는 감춰서는 안 됩니다. 거세고 험한 파도와 같은 신평조는 그대로 하늘에 달든지 내버려두고, 우리 유학의 명맥¹⁷⁷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그 밝은 하늘이 천추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제자로서 학문에 힘쓰는 것은 끝내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이 글을 보면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산중에서 보내는 세월은 족히 기억할 만한 것이 없고, 오직 책상 위의 한 질의 서책으로 날마다 회옹(晦翁)의 가르침¹⁷⁸을 받습니다. 때때로 백풍(伯豐)과 안경(安卿)¹⁷⁹ 등 제공들의 강독이 있으니, 몹시 계발(啓發)¹⁸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대와 더불어서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答金巢蓮 龜洛 己未

示意時一諷詠，良足浩慨。然僕謂岡可崩玉可碎，鐵心石腸不可渝也。世笑俗嗤，任爾喧聒，冠峨帶博，不可藏也。鯨濤鰐浪，任爾滔天，吾之洙泗一棹，不可摧也。要之并與皓天而千秋不返，弟子之勉學，終不可已也。高明見此，又以爲如何。山中日月，無足記者，惟案上一部書，日承晦翁之警效。時有伯豐安卿諸公之講貫，殊有啓發之樂。而恨不與高明共之也。

177 유학의 명맥 : 수사(洙泗)는 중국 산둥성 곡부를 지나는 두 개의 강물 이름으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에 가깝고 또 그 강물 사이의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 유가(儒家)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78 회옹(晦翁)의 가르침 : 《주자대전》을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9 백풍(伯豐)과 안경(安卿) : 후창의 제자이거나 친구들로 함께 《주자대전》을 강독하고 있는 것 같다.

180 계발(啓發) : 《논어》〈술이(述而)〉에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속으로 통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열어 주지 않으며, 애태우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되, 한 귀퉁이를 들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은 세 귀퉁이를 반증하지 못한다면 다시 더 일러 주지 않아야 한다.(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라고 하였다.

김소련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金巢蓮 辛酉

이전 편지에서 물으신 말씀은 내가 감히 선사의 가르침에 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심이 축적되어서 부득불 생각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만일 기질성(氣質性) 세 글자를 기운성(氣運性)이라고 간주한다면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이제 기질성 가운데 성(性)이라는 한 글자를 기운성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질성 세 글자를 기운성으로 간주하면, 성(性)과 기(氣)가 각각 한 글자씩 점유하여 성은 이치(理致)의 실자(實字)가 되니, 이는 기질에 구애되는 이치가 됩니다. 만일 기질성의 성의 한 글자로써 기운성으로 간주한다면, 성과 기가 한 글자로 합성되어 성은 자음의 허자(虛字)에 불과하게 되니, 이는 기질의 기운을 일컫는 것이 됩니다. 실리(實理)와 사법(詞法)에 구해보아도 온당치 못한 바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 보내온 편지를 보니 기운성이 세 글자를 해석한 것인지, 한 글자를 해석한 것인지, 분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의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해당시켰으니, 아마도 간재선생의 뜻을 살피지 못한 듯합니다. 만약에 기의 측면에 나아가 말한 것을 가지고 기운성이라고 일컫는다면, 그 말한 것이 어찌 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리어 기질에 구애되는 리라는 설이 됩니다. 어찌 선사가 침묵하여 리를 말하지 않는 본뜻이겠습니까? 만약 또 이와 같다면 종전에 설한바, 기질성 세 글자도 무엇인들 기의 측면에 나아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건대, 따로 기운성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사람을 불러 일깨우려하겠습니까? 부디 자세히 헤아려서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老洲)¹⁸¹는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 두 가지 성을 체일(體一)¹⁸²과 용수(用殊)¹⁸³로 나누었습니다. 체일은 이미 리의 체일인즉, 용수도 유독 리의 용수가 아니겠는지요. 간재선생 문하에서 기질성의 성이라는 글자를 기운성이라고 간주한 것은 곧 사람들이 리라는 글자를 겸대(兼帶)하여 볼까 꺼려하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여기에서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유사하지 않는 듯합니다. 보낸 편지에서 “리가 없는 기는 애매모호한 어법이고, 사문의 본의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만약 이와 같다면, 천하에 어찌 리가 없는 와석(瓦石)이 있겠으며, 리가 없는 분양(糞壤)이 있겠습니까?¹⁸⁴ 리는 어디에도 있지만, 와석과 분양을 가리켜 리라 이름 한다면, 또한 어찌 올바른 말이겠습니까? 보내온 편지에서 “이 성(性)이 악(惡)에 어지럽혀지면 마땅히 기질성이라고 말해야 하고, 이 물이 진흙에 탁해지면 마땅히 진흙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은 정히 나의 설과 같습니다. 만약 성을 기운이라고 해석하면, 다만 마땅히 기질이라고 말해야지, 기질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다만 마땅히 진흙이라고 말해야

181 노주(老洲) : 오희상(吳熙常, 1763~1833)이다. 인물성동이론에 있어서 는 인(人)과 물(物)은 근본적으로 이(理)가 같을 뿐만 아니라 신(神)도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그 동일하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형기(形氣) 때문이라 하여 호론의 인물성이설(人物性異說)을 반대하고, 낙론의 인물성동설(人物性同說)을 일원분수(一原分殊)로 설명했다.

182 체일(體一) : 본체가 하나라는 말이다.

183 용수(用殊) : 작용이 다르다는 말이다.

184 천하에 …… 있겠는가 : 와석분양(瓦石糞壤)은 《장자(莊子)》 지북유(知北遊)에서 동곽자가, “이른바 도(道)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장자는 없는 데가 없다고 하면서, 땅강아지나 개미에도 있고, 피에도 있고, 기와나 벽돌에도 있고,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네.〔東郭子問於莊子曰，所謂道，惡乎在？莊子曰，無所不在。東郭子曰，期而後可。莊子曰，在螻蟻。曰，何其下邪？曰，在稊稗。曰，何其愈下邪？曰，在瓦甃。曰，何其愈甚邪？曰，在屎溺。〕”라고 하였다.

지, 진흙을 진흙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맑은 물이라고 일컬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노주의 설과 같습니다. 만일 이 또한 “원초의 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찌 이치에 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혼탁하기 때문에 침묵하여 원초의 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물은 과연 샘 가운데의 물이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만든 물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견해로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기질성이 비록 잡박하지만 성은 성이고 또 진흙물이 비록 혼탁하지만 물은 물입니다.

노주가 논한 기질성은 기의 측면에서 설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그 결론은 요컨대 기라고 말하지 않고 요컨대 성이라고 말하였은즉, 그 이름을 세우고 조목을 결정하는 것이 리에 있습니까? 기에 있습니까? 했을 때, 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질성의 경계를 말하자면 마땅히 기라고 말해야 하고, 본연성의 경계를 말하자면 마땅히 리라고 해야 함을, 내가 비록 자질과 재주가 둔하지만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미 그 성이 되는 바는 기질성도 성이 되고, 본연성도 성이 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진실로 그 기를 겸하여 가리켰다고 하여 성이라는 명칭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선사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아마도 다만 기질성과 본연성이라는 경계의 구별만 주장하고, 그 성이 동일하여 하나라는 것을 빠뜨리는 혐의가 없지 않을 듯합니다. 견우인성(犬牛人性)의 성을 《주자대전》에서는 비록 기질성이라고 간주했지만,¹⁸⁵ 《주자집주》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순수함은, 사람과 물

185 견우인성(犬牛人性) …… 간주했지만 : 《맹자집주(孟子集註)》〈고자상(告子上)〉의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 가운데 ‘사람과 사물의 성에 차별이 없다’는 고자의 논리를 반박하여 맹자가 말한 “그렇다면 개의 성이 소의 성과 같으며 소의 성이 사람의 성과 같은가?〔然則犬之性, 猶牛之性, 牛之性, 猶人之性與?〕”라고 한 대목에 주자의 주(註)는 “맹자가 또 말하기를 ‘만약 과연 이와 같다면 개와 소와 사람이 모두 지

(物)이 다르다는 글로써 보자면, 이는 기를 따라 달리 나타나는 본연성으로, 선악을 겸한 불성(不性)의 성¹⁸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람되게 이 견우인성의 성(性)이라는 글자는 기질성으로 보아도 맞고 본연성이라 간주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 인용하여 사문에서 지적한 것이 악에 물들여진 성이라 논한다면 그것은 층위가 다른 듯하니, 이 내용은 마땅히 따로 논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리와 기를 밝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 식견을 증장하고 실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근일에 이기(理氣)를 설파하는 자들의 체신과 처사를 보면, 반드시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낮지 못하고, 혹은 미치지 못하니 참으로 괴이합니다. 어찌 성인이 이른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잘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꼭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¹⁸⁷라는 것이 이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가만히 그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매번 사람들과 명리를 강론하고 변명하는 즈음에는 나의 마음을

각이 있고 능히 운동을 하니 그 성이 다를 것이 없다.’고 하니, 이에 고자가 스스로 그 말이 그른 것을 알고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孟子又言, 若果如此, 則犬牛與人, 皆有知覺, 皆能運動, 其性皆無以異矣. 於是告子自知其說之非, 而不能對也.)”라고 하였다.

186 선악을 겸한 불성(不性)의 성 :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간 본래의 성품을 본연지성 또는 천지지성(天地之性)이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품을 말한다. 장재((張載, 1020~1077)는 저서 《정몽(正蒙)》〈성명(誠明)〉편에서 “형체가 있는 뒤에 기질의 성이 있으니, 이를 잘 회복하면 천지의 성이 그대로 보존된다[形而後有氣質之性, 善反之則天地之性存焉.]”라고 하였다. 즉, ‘기’는 궁극적인 실재인 ‘태허’로 정의되며 기가 양의 영향을 받으면 표면으로 떠올라 그 기운을 퍼뜨리며, 음의 요소가 강하면 기는 침잠하여 물질세계의 구체적인 것들을 응축·형성한다고 말했다.

187 덕이 있는 사람은 …… 아니다 : 《논어》헌문(憲問)에 “덕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에 합당한 말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꼭 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 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돌이켜 돌아보고 전전긍긍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유자(儒者)의 강변(講辨)은 시대의 폐단을 구하고 세상의 화를 그쳐 힘쓰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심을 논하면서 심하게 다투는 것이 근세 유문(儒門)의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풍속은 금수와 같게 되어서 윤리강상(倫理綱常)이 끊어지고 파괴된 것이 금일 천하의 화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절대로 명목(名目) 사이의 부질없는 쟁변에 힘을 쏟아서 오래 쌓인 시대의 폐단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마땅히 윤리강상 위에 급급하게 뜻을 쏟아서, 크게 일을 처리할 방도를 세워 절반이라도 세상의 화란을 그치게 해야 합니다. 이 뜻을 우리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金巢蓮 辛酉

前書之詢，非敢有貳於師訓，但以疑之蓄也，故不容不思問。蓋如以氣質性三字作氣運性，則孰敢疑之。今以氣質性性之一字，作氣運性，故有所未達。何也。以氣質性三字作氣運性，則性與氣，各占一字，而性爲理致之實字，是謂氣質所拘之理致也。以氣質性性之一字，作氣運性，則性與氣，合成一字，而性不過爲字音之虛字，是謂氣質之氣運也。求之實理與詞法，恐有所未繚也。今承來喻，不分氣運性是解三字與一字，槩以就氣上言者當之，似未察先生之旨也。若以就氣上言者，謂社氣運性。則其所言者，豈非理乎。是則還是氣質所拘之理之說也。豈先生禁不言理之本意乎。且若如此，則從前所說氣質性三字，孰有不就氣上言者，另立氣運性題目，欲以喚醒人乎，幸細商而更教也。老洲以天命氣質兩性，分體一與用殊。體一既是理之體一，則用殊獨非理之用殊乎。師門之以氣質性性字，作氣運性者，非正恐人帶着理字看乎，此之謂疑。若不相似然者。來喻，非謂無理之

氣是混淪語法，又非師門本意，若如此則天下又安有無理之瓦石，無理之糞壤乎。然指瓦石糞壤而名之曰理，則豈成說乎。來喻此性爲惡所汨，則當曰氣質性，此水爲況所混，則當曰沙泥水。二句正鄙說也。若必訓性以氣運，則只當曰氣質，不當曰氣質性，只當曰沙泥，不當曰沙泥水也。謂之本清之水則不可者，誠如老洲說。如曰此亦，原初之水，則又何害理。苟以混濁之故，禁不言原初之水。則此水果非泉中之水，乃中間人造之水耶。故淺見竊以爲氣質性雖雜，而性則性爾，沙泥水雖混而水則水爾。老洲之論氣質性，就氣上說去者，孰敢曰不然。但其決案，不曰要之是氣，而曰要之是性，則其所以立名定目者，在理乎在氣乎，言氣質性地頭，當曰氣。言本然性地頭，當曰理。鄙雖鈍根，亦豈不知。但既曰其所以爲性者，一則固未嘗以其兼指氣而不許性之名也。如師訓，則恐不無但主地頭之別，而遺却其性一之嫌也。犬牛人性之性，大全雖作氣質性，以集註仁義禮智之粹然，人與物異者觀之，是隨氣異見之本然性，非兼善惡之不性之性也。故妄以爲此性字，做氣質性亦得，做本然性亦得。今引此以論師門所指爲惡所汨之性，似非其倫，此則又當別論也。夫所貴乎明理氣者，豈非欲長識見而資踐履乎。然而每見近日能說理氣者之行已處事，未必有勝於餘人，而或不及爲，絕可怪也。豈聖人所謂有言者不必有德者此耶。僕見此等人，心竊恥之，不欲蹈其餘轍。每與人講辨名理之際，反顧于己心，有所兢兢也。儒者之講辨，務在救時之弊。而息世之禍，性鬪心戰飛矢揮戟者，非近世儒門之弊乎。禽風獸俗，絕綱破常者，非今日天下之禍乎。爲今之計，絕不可肆力於名目間爭辨，以助積久之時弊。正宜汲汲注意於倫綱上大理會，息得一半分世禍也。此意吾輩不可以不知也。高明以爲如何。

후창집 제10권

족제 희숙 현술에게 답함 무오년(1918)

答族弟希淑 賢述 戊午

덕행과 문장, 학업을 합일해야한다는 말에서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 성대한 뜻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덕행은 문장과 학업을 포함하지만 학업과 문장은 덕행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때문에 세 가지에 각각 치력(致力)한다면 끝내 합일되기 어렵거니와 오로지 덕행에 힘쓴다면 두 가지는 합일을 기약하지 않아도 합일할 것이다. 때문에 말하기를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다.”¹⁸⁸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온축하여 덕행이 되고 실행하여 학업이 된다.”¹⁸⁹고 하였으니 참으로 미더운 말씀이다. 요순과 문왕 주공은 큰 덕행으로 빛나는 문장과 드높은 공업을 이루었으니 가장 으뜸이다. 공자와 안자 이하의 여러 성현은 문장이 진실로 여기에 있었으나 곤궁하여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천하를 제도하진 못했으나 옛 성인을 이어 후학에게 길을 열어준 공적은 요순보다 뛰어나다.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188 덕이……말이 있다 : 《논어》〈헌문(憲問)〉에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이 있으나 훌륭한 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189 온축하여……된다 :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누편(陋篇)〉에 “성인의 도를 귀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것을 몸에 쌓아 두면 덕행이 되고, 밖으로 행하면 사업이 된다. 저 문사만을 일삼는 사람은 비루하다.(聖人之道 入乎耳 存乎心 蘊之爲德行 行之爲事業 彼以文辭而已者 陋矣)”라는 말이 나온다. 《근사록(近思錄)》〈위학(爲學)〉에도 실려 있다.

여상(呂尙)과 제갈공명(諸葛孔明)의 학업이 저같이 탁월한 것은 그들이 성인의 도를 참여하여 들었고 몸소 군자의 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훈(伊訓)과 열명(說命)¹⁹⁰, 단서(丹書)와 출사표(出師表)¹⁹¹의 문장이 또한 후인의 보배가 된 것이다. 저 한유는 비록 문장에 뛰어난 자이나 끝내는 성현의 무리로 중시하는 바가 여기 덕행에 있었기 때문에 홀로 제자(諸子)의 으뜸이 되었고 불교를 배척한 학업 또한 위대하였다. 위양(衛鞅)과 왕맹(王猛) 같은 족속이나 유주(柳州 유종원)와 미산(眉山 소동파)의 무리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은 자들로 비루하여 끼어 줄 것이 없다. 공문(孔門)의 사과(四科)¹⁹²에서 문학의 자유(子游)와 자하(子夏)나 정사의 중유(仲由)와 염구(冉求)가 어찌 일찍이 덕행에 힘쓰지 않았으랴. 오직 그 힘쓸 바 덕행에 전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과 정사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덕행의 안연과 염옹(冉雍)이 문학과 정사에 짧다고 말한다면 확실한 의론이 아니다. 이것이 이른바 오로지 덕행에 힘쓰면 문장과 학업 두 가지는 저절로 합일한다는 것이다. 가만히 보내온 문장을 보니 문사가 씩씩하고 뜻이 확고하여 족히 나약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러나 세운 과목의 중요성의 여부와 용력(用力)의 전일함과 느슨함에 있어 혹 구별이 작기 때문에 나의

190 이훈(伊訓), 열명(說命) : 《서경》의 편명이다. 〈이훈〉은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훈계한 내용이고, 〈열명〉은 은나라 고종(高宗)과 부열(傅說)에 대한 글이다.

191 단서(丹書), 출사표(出師表) : 《단서》는 주 무왕(周武王)이 즉위할 때 강태공(姜太公)이 올린 경계의 말씀이다. 《출사표》는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제갈량이 북벌(北伐)할 적에 2대 황제 유선(劉禪)에게 올린 표문으로 우국충정의 내용이 담긴 명문장으로 유명하다.

192 공문(孔門) 사과(四科) : 《논어》〈선진(先進)〉에 보면 공자께서 제자들을 평하여 “덕행(德行)에는 안연과 민자건, 염백우와 중궁이고, 언어(言語)에는 재아와 자공이고, 정사(政事)에는 염유와 계로이고, 문학(文學)에는 자유와 자하이다.”라고 하였다. 후세에 이를 공문 사과(孔門四科)라고 불렀다.

어리석은 견해를 개진하니 살피고 정정하여 회교(回教)하기 바라노라.

答族弟希淑 賢述 戊午

德行文章事業合一之喻，可見不安小成之盛。然吾嘗以爲德行包文章事業，事業文章不能包德行。故三者各致其力，則終難合一。專務德行，則二者不期合而自合矣。故曰有德者，必有言，又曰蘊之爲德行，行之爲事業，亶其信哉。堯舜文周之大德，煥乎之文，魏乎之功，尙矣。孔顏以下諸聖賢，文固在茲，而窮不得位，故雖無康濟天下，繼開之功，賢乎堯舜。伊傳呂葛之業，如彼卓然者，以其與聞聖人之道，而躬行君子之德也。故伊訓說命丹書出師表之文，亦足爲後人拱璧。如韓愈氏，雖工於文者，終是聖賢之徒，而所重在此，故獨擅雄於諸子，而闢佛之業，厥亦偉矣。至若衛鞅王猛之屬，柳州眉山之類，棄本逐末者，陋矣不足齒。如孔門之四科，遊夏之文學，由求之政事，何嘗不務德行者哉？惟其所務不專，故止於此而已。然謂顏冉之德行，短於文與政，則非確論也。此所謂專務德行則二者自合者也。竊觀來章，辭壯志確，足以起懦。然於立科之賓主，用力之專歇，或少區別，故爲陳瞽見諒訂回教也。

족제 희숙에게 답함 기미년(1919)

答族弟希淑 己未

보내온 편지에서 먼저 부로(父老)께서 서재를 설립하여 가르침을 세운 뜻이 이처럼 은근한데도 자제들이 면학하여 몸을 성취하지 못함을 근심하였으니 이는 전 가문의 공통된 근심이다. 마지막엔 자신을 반성하고 질책하여 부형의 소망을 저버릴까 두려워하였으

니 이는 바로 자기의 실질적인 병통을 근심한 것이다. 전 가문을 근심함은 인(仁)이고 자기를 근심함은 지(智)이니, 간절하고 부지런히 인지를 추구하는 자는 우리 희숙이로다. 그러나 전 가문의 근심은 서로 수양하고 면려함은 있지만 그 성취의 여부는 오로지 나에게만 있지는 않은 즉 희숙이 금일에 부지런히 애써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 것도 참으로 자기에게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가문의 부로가 되기는 오히려 가능해도 희숙의 부형은 더욱 능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가문의 자제가 성취가 없는 것은 오히려 설명할 수 있거니와 희숙의 성취가 없는 것은 이럴 이치가 없으니 어째서인가? 몸소 경작하며 학문에 힘써 오래도록 게을리 않는 분이 누가 희숙의 엄군(嚴君)과 같았으며, 공부와 학문을 쌓아 나아갈수록 더욱 독실함이 또한 희숙처럼 엄족(嚴足)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가. 나는 이 때문에 말하기를 “희숙의 부형의 능하기 어려움으로 보아 희숙의 학문은 반드시 성취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석년(昔年)에 선자(先子 돌아가신 부친)께서 내가 학문에 열중하기를 위하여 머리가 세도록 집안일을 하시면서 쓴 것을 달게 여기고 장원을 개척하고 묘소를 경영하며¹⁹³ 숙수(菽水)를 마시면서도 후회 없으시고 불초의 학문이 성취되어 가문의 명성이 창성하기를 바라셨다. 불초 또한 이를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큰일이라고 여겼다. 어찌 알았으랴, 학문은 성취하기 어렵고 생명은 유한하여 나의 학문과 부모의 생명 둘 다 기대할 수 없어 갑자기 천고의 한이 되었음을.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현양함도 헛된 지경이 되었고 자식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해 그 죄가 참으로 커서 천지를 우러르고 굶어봄에 회한한들 어찌 미칠 수 있으랴. 세월은 쉽게 잃고 좋은 기회는 지속되기 어려우니, 부디 고명한 그대는 나의

193 장원을……경영하며 : 원문은 ‘斥庄經斧’인데 뜻이 미상이다.

실패를 거울삼아 제때에 미쳐 일신의 학문을 완성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지어다. 분방(分房 집안이 나뉘는)은 오래 되었지만 친아우처럼 여기므로 외람되이 속말을 드리니 깊이 헤아려 꾸짖지 말지어다.

근자에 《의례》 일단을 읽고 지은 글은 전중(典重)하고 간아(簡雅)하여 고문의 기상이 있으니 희숙이 문사로 뜻을 전달함이 이와 같도다. 선비가 삼일이면 괄목상대(刮目相對)한다는 것이 진실된 말이다. 문장은 도가 보존된 바가 아니나 문장이 아니면 또한 도를 전할 수 없다. 근일에 문장이 끊김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는데 그대가 여기에 뜻을 두고 보추(步趨)가 자못 심상하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힘쓰고 힘쓸지어다.

答族弟希淑 己未

來書，首以父老之入齋設教，若是其勤，而子弟之不勉學成身爲憂，此則全門之通患也。終之反躬責己，惴惴焉懼負父兄之望，是乃憂一己之實病也。全門之憂仁也，一己之憂智也，懇懇勤勤求厥仁智者，其吾希淑乎。然全門之憂，交修胥勸則有矣，而其成與否，有不專在我，則希淑今日之孜孜矻矻，不得不措者，又不直在於一己乎？吾嘗以爲全門之父老，猶可能也，希淑之父兄，更難能也。全門子弟之無成，猶可說也，希淑之無成，無是理也，何也？躬耕縱學，久而不倦，孰有如希淑之嚴君者乎，積功累學，愈往愈篤，又有如希淑之不厭者乎？吾故曰希淑父兄之難能，而希淑之學之必成也，昔年先子，爲不肖縱學，白首幹家，苦以爲甘，斥庄經斧，啜菽靡悔，庶冀不肖之學成而昌家聲也，不肖亦以此爲報親之大者也。孰知難成者學？有限者壽，兩相不待，遽作千古之恨，立身顯親，既歸虛境，闕修子職，其罪孔大，俯仰穹壤，悔恨何及。流光易失，好會難常，幸高明視我爲覆

轍折肱，而及時成身，母胎後悔也。分房雖遠，親弟是視，猥進肺言，深諒不謫。近讀儀禮一段爲文，典重簡雅，有古文氣味，希淑辭達，乃若是乎。三日刮目，眞實語也。文非道之所存，非文亦無以傳道。近日文絕，莫此爲甚，而高明有志乎此，步趨頗不尋常，幸甚幸甚。勉之勉之。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族弟希淑 甲子

풍년에는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쌀알이 흩어져도 아낄 줄 모르다가 흉년엔 배가 텅 비어 흩어진 쌀알을 구해도 얻지를 못한 다. 나는 현제(賢弟)에게 유시할 것이 있다. 한창 동당에서 무릎을 좁힐 때에는 착한 말이 양양하게 충만하여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여기지만 급기야 소식이 끊겨 쓸쓸하게 앉은 연후에 전날의 놀이를 회상하면 천상의 즐거움 같다. 지난번에 준 두 편지는 감사하게 받았다. 전씨를 준엄하게 질책했으니 그 마음을 깨우겠고 정씨를 명백하게 유시한 것은 그의 미혹을 돌이킬 만하여 모두 후세에 전해져 떳떳할 만하다. 이와 같은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또한 다시 어찌하겠는가. 이처럼 시비가 전도되고 착란한 날을 맞아 그대 같이 곧지만 각박하지 않고 상세하지만 번다하지 않는 문필(文筆)로 유연히 사람을 감동시키고 크게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다행히 동지 가운데 있고 더욱 더 다행히도 동종(同宗)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 나는 심히 기뻐하노라. 듣자니 올겨울에 문장에 크게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한가? 뿌리가 이미 견고하고 체재 또한 갖추어져서 일은 절반이지만 공은 반

드시 배가 될 것이다. 힘쓰고 힘쓴다면 강하(江河)가 터지듯이 패연(沛然)하여 막지 못함을 볼 수 있으리라. 나는 젊어서부터 문자에 자못 우월하고 게을러 힘을 다하지 않았다. 이제 이단을 물리치는 일을 당하여 문사가 뜻과 어긋나 전달하기 어려움을 느끼니 매우 스스로 후회하고 한스럽게 여긴다. 저들이 짊어진 죄가 산과 같은데도 교만하게 날뛰며 스스로 득의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그들의 해미(蟹尾)와¹⁹⁴ 같은 글을 믿는 것이니 더욱 애통하고 가증스럽다. 그렇지만 천하의 시비는 의와 불의일 뿐, 저들이 글을 쓴다면 나는 나의 의(義)를 쓸 것이니 내가 어찌 저들을 두려워하겠는가. 기억하건대 옛날에 선사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오이견(吳而見)의 글은 기이함을 숭상하여 본받을 것이 없다”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종현(鍾賢)의 문장은 또한 스스로 뜻을 전달하니 삼가 기이함을 숭상하는 오이견의 글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비록 근본을 중시하고 기대와 면려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문장에 능하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이견의 문장을 취하지 않으신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 어진 아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대가 편지에서 용감하게 나아가고 견해가 분명하여 조용히 (사문의 도를) 발휘한다고 나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전 호남의 명맥이 나 한 몸에 달려있다고 여기니, 그대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로되 인물평¹⁹⁵의 잘못됨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설사 몇 가지 근사한 것이 있어도 어찌 이렇게 여러 어른 가운데에서 우열을 따진단 말인가. 어찌 사체(事體)와 예

194 해미(蟹尾) : 게가 기어가는 것처럼 가로로 쓰는 글자라는 의미로 한문 이외 영어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95 인물평 : 원문은 ‘월조(月朝)’로 월단(月旦)과 같아 인물평으로 해석하였다.

의에 합당하겠는가. 내가 희숙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여긴 것은 곧 이 점에 있고, 마땅히 같고 닳을 것도 이 점에 있다고 여기네. 그러나 그대의 뜻은 진실로 덕으로써 사랑해 주는데서 나왔으니, 도타운 뜻을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答族弟希淑 甲子

樂歲合哺鼓腹，粒米狼戾，而不知惜也。饑年饉秋，腹枵然，而求狼戾之米，不可得也。吾於賢弟有喻焉。方其促膝于同堂，昌言洋洋充然，以爲常久也，及乎鴈斷魚沈，索然悄坐然後，回想前遊如天上樂也。二書向荷投示，責田峻切，可警其心，喻丁爽白，可回其惑，皆可傳有辭於後，若此而不警不回，則亦復何哉？當此是非倒錯之日，如君直不傷刻，詳不失煩之筆，有能油然感人轟然警人者，幸而在同志中，又尤幸而在同宗中，豈偶然哉？吾深喜之。聞今冬大肆力于文章云，信然否？根既固矣，體又具矣，事將半而功必倍矣。勉旃勉旃，江河之決，吾見其沛然莫禦也。吾則於文字，少頗迂懶不致力。今當言距之役，覺得憂憂乎難達，殊自悔恨。彼邊之負罪如山，而驕騰跳踉，自以爲得者，徒恃若爾輩蟹尾之文，尤極痛憎。雖然天下是非義與不義而已，彼以其文，我以吾義，吾何畏彼哉？記昔先師雅言曰，吳而見之文，尙奇不足法，又謂之曰鍾賢之文。亦自達意，慎勿效尙奇如而見文。此雖出於重本期勉，而非謂澤述之能於文也，然其不取吳文之意，較然矣，然則不惟不當畏。亦不足畏，未知賢弟以爲如何？若盛喻之以進勇見明，從容發揮與我，至謂全湖之命脈，在我一身。君非不知我者，月朝之失，一至於此。設有一二近似者，遽此軒輊於諸丈中，豈當乎體禮？吾以爲希淑之不知我者，正在此處，所當磨礱處，亦在於此也。然其意則固出於以德之愛，厚意曷不領納。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族弟希淑 甲子

저들은 영남의 인간(認刊)¹⁹⁶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진실로 사공(事功)을 중시하고 도의를 따지지 않은 것이다. 만일 영남의 인간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선사의 글자와 구절 하나하나가 충심과 혈성을 쏟았거늘, 간행반포를 청원한다면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유서가 되어 영원히 먼지와 좀 사이에 매몰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마음이 뒤늦게 차가워진다.

答族弟希淑 甲子

彼邊以嶺認刊之不順就爲恨，此眞事功爲重而不計道義者，苟嶺認刊之順就也。已我先師字字句句，瀝忠瀝血，請願刊布，決是自辱之遺書，將永埋沒塵蠹之中矣。念到于此心，爲之追寒。

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希淑 乙丑

저들이 간행을 인가한다는 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탐문할 수 있을까? 소심(小心 황종복)의 편지 끝에 이미 이 말이 있고 신철현이 흠재(欽齋)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오진영이 그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오진영) 장차 인간(印刊)하겠다고

196 인간(認刊) : 간재의 문집을 일제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간행한다는 뜻이다.

말하였다고 한다. 저 오진영의 기량을 헤아리건대 반드시 일없는 자가 아니니, 바로 이미 나온 강대걸의 인가를 써서 멋대로 인간하는 것이다. 사람의 기탄없는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나 저들은 한창 시대를 따르고 기염이 거세니 또한 어찌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의 정도를 지켜 흔들리지 말아서 유서를 거슬러 선사의 의리를 어둡게 하지 않게 할 뿐이다. 이 의리를 각자 글로 만들어 동지들에게 서로 고하여 한 사람도 인간(認判)으로 꺾여 들지 않도록 함이 옳으리라. 선사가 신헌(愼軒)에게 답한 편지에서 전도(傳道)의 어려움을 논한 것이 현본(玄本 현동의 판본)에 실려 있는가? 만일 실려 있지 않으면 추가로 들이는 것이 옳으니, 관계의 중요성이 다른 글에 견줄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與族弟希淑 乙丑

彼邊認判之說，在在入聞，何以則探其內容乎？小心書尾，既有此言，申徹鉉與欽齋書，吳訪渠家說，吾將認判。料彼伎倆，必非無事者，乃其用已出之姜認而恣印也。人無忌憚，胡至於此？然彼方趨時，氣燄熾張，亦沒奈何。只當守吾正而不撓，不歸於悖遺書而昧師義而已。斯義也，各自爲文，相告同志中，無至於一人折入於認判爲可。先師答愼軒書，論傳道之難者，見載於玄本否？如不見載，追入可也，爲其關係之重不比他文故耳。雅意如何？

족제 희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族弟希淑 乙丑

그대가 권장하고 지켜세우는 여러 말들은 너무 과장된 점이 있어

서 사람의 마음이 편하기 어렵다. 하물며 이 몸은 현재 일변(一邊 오진영 측)의 원수가 되어서, 이를 갈고 말들을 떠벌이며 주야로 나의 틈을 엿보고 있거늘 어찌 우리 쪽에서 빈틈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니 이제부터 맹서(盟誓)를 세워서 서로의 잘못을 힘써 공격하고 지나치게 과장된 화두(話頭)는 제거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 옳을 것이다. 영재(英才)를 진작한다는 말 또한 실제의 말이 아니다. 내가 애초 진작할 솜씨가 아니거늘 영재가 어찌하여 이르겠는가. 요컨대 남에게 미칠만한 선(善)이 나에게 있고, 저들에게 믿고 따를 정성이 있게 된 연후에야 이에 실효(實效)를 말할 수가 있다. 이제 피차가 모두 능히 그러하지 못한즉, 울옹(栗翁 울곡 이이)이 이른바 “보탬은 없고 비난만 초래한다.”는 것이니 진실로 부끄럽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일찍이 삼대(三代)의 교법(教法)이 폐해져서 후세(後世) 인재(人材)의 성취가 어려움을 한스러워하였다. 이제 만약 옛 제도를 조금 회복하여 사과(四科)의 재질을 따라서 육예(六藝)¹⁹⁷의 방술(方術)을 더해준다면, 학문의 의취(意趣)와 가르침의 규모(規模)를 거의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진실로 뜻이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미비함을 어찌하겠는가. 요컨대 동지들 몇 사람이 협조하기를 기다린 후에 혹 시험해볼 수 있으리라.

答族弟希淑 乙丑

獎詔諸說，有涉浮誇，令人難安。況此身現爲一邊讐物，磨牙鼓吻，日夜伺釁，豈容自吾邊人啓隙而授之乎？從今立誓，相與勤攻闕失，刪却張大話頭，至可至可。振發英才，亦非實際語。我初非振發之手，則英才何由而至？要之我有及人之善，彼有信從之誠，然後乃可言實

197 육예(六藝) : 고대에 사(士) 이상의 계급이 갖추어야 했던 필수 교양으로,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예법, 음악, 활쏘기, 말 몰기, 서법, 수학이다.

效。今彼此皆不能然，則栗翁所謂無補貽譏者，誠可愧矣。雖然吾嘗竊恨三代教法之廢而後世人材之難成也。今若稍復古制，因四科之材，添六藝之術，庶見學有意趣，教有規模。此則固有志，而柰力量之不足，設施之未備何？要俟同志者幾個人協助後，或可有試耳。

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希淑 乙丑

지난번에 박노학(朴魯學)을 만나서 문기를 “정재(靜齋)가 고소를 면한 것은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 또한 화평을 청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을 성토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하면 모두 고소당하는 화가 없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과 화평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고 오진영을 성토하면 고소를 면치 못하니, 금일의 고소는 과연 오진영이 한 것인지 강대걸이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서진영(徐鎭英)과 동실(同室)의 사람이면서 오진영을 변호하는 자인데도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는 이창환(李昌煥)의 ‘금번 일은 석농(石農)이 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똑같이 오진영의 허물을 옹호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

내가 박노학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고소에 대해서 그대가 이미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즉,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전언(轉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유학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한인(韓人)을 일본관청에 고소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이미 인간도 아니면, 오진영이 동문인(同門人)을 원수의 처지인 일본관청에 고소해서 기어코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오사문(吳斯文)’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이 없었다.

與族弟希淑 乙丑

昨見朴魯學問，靜齋之得免告訴，非以乞和於吳乎？朴曰然。吾亦乞和則得免告訴乎？曰然。討吳諸人，俱皆乞和，則都無訴禍乎？曰然。吾曰和吳則得免，討吳則不得免。今日告訴，果吳之爲也，非姜也。朴曰不得不謂吳事也，此人徐鎮英一室而護吳者，其言猶如此，此與李昌煥今番事石農免不得之言，同出於掩護不得也。吾謂朴曰，今日告訴，子既云不得不謂吳事，則我有一轉問。今有以儒自名者，訴韓人于日官則如何？曰此非人也，此既非人，則吳之訴同門人于所讐之地，期欲構殺者，當以何物名之？子猶稱以吳斯文可乎？朴無言。

족제 희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族弟希淑 乙丑

은(隱)의 권순명이¹⁹⁸ 음성의 오진영에게 준 편지에서 이르기

“우리들은 사림(士林)에 화(禍)를 끼친 소인(小人)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음성의 오진영이 답하여 이르기를 “사람에 화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선사(先師)에게 누를 끼쳤다.”라고 하였다. 이는 목리(木里)에서 말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아우도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는가? 진(秦)나라 영정(嬴政 진시황)도 시법(諡法)을 제거했고, 남곤(南袞)도 자기의 원고를 불살랐으니, 대개 고금에 악행을 행한 자는 스스로 그 죄를 알지 아니함이 없었다. 은의 권순명이 편지에서 ‘사림에 화를 끼친 소인’이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제공한 단사(斷辭)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늘의 떳떳한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음성의 오진영이 ‘사림에 화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선사에게 누를 끼쳤다’고 답한 것은 또한 사림에 화를 끼친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고의로 경중(輕重)이 전도(顛倒)되고 착란(錯亂)한 말을 하여 사람을 현혹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가장 간교한 점이다. 선사를 사림에 대비하면 선사가 무겁고, ‘사림에 화를 끼친 것’을 ‘선사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비하면 ‘사림에 화를 끼친 것’이 무겁다. 이 이치가 분명한데도 저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그 꾀가 비록 간교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곤궁하여 도피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이 여덟 글자¹⁹⁹ 사이에 자기의 기교를 드러내고 마음이 완악하고 험한 정상(情狀)이 다 노출되었다.

答族弟希淑 乙丑

隱權與陰吳書云，吾輩難免禍士林之小人，陰答云，不但禍士林，累先師也。此是木上所誦云，曾聞知否？秦政除諡法，南袞焚已稿，蓋

198 은(隱)의 권순명 : 원문은 ‘隱權’으로 은이 들어가는 지명에 사는 권순명이란 뜻인데 지명을 찾지 못했다.

199 여덟 글자 : 원문의 ‘不但禍士林 累先師’ 여덟 글자를 말한다.

古今爲惡者，未有不自知其罪矣。隱書禍士林小人，是自供斷辭，而出於天彝之猶存也。陰答不但禍士林累先師者，亦自知禍士林罪之莫逃，而故爲輕重倒錯語以眩人也。此其最黠處也。先師對士林則師重，禍士對累師則禍重。此理昭如而彼言如此，其計雖黠，實出窮遁也。蓋此八字之間，閃巧頑險之情狀盡露矣。

족제 희숙에게 보냄 기사년(1929)

與族弟希淑 己巳

어제 백광오(白光五) 형이 내방(來訪)해서 이원재(李遠齋)의 말을 전하기를, “근자에 김희숙(金希淑)과 권고경(權顧卿 권순명) 두 사람이 우리 집에서 만났다. 내가 두 사람에게 통관(通款 마음)을 열고 대화함을 권했는데, 권고경은 말하기를 ‘실컷 타격을 받은 자가 감히 먼저 청할 수 없다.’고 하고, 김희숙은 말하기를 ‘선사(先師)를 섬긴 자로서 의리상 통관할 수 없다.’고 하니, 권고경이 마침내 몸을 일으켜 떠났다.”고 하였다. 듣고 나니 우리 아우의 처의 [處義 의(義)에 맞게 처신함]가 엄정함이 기뻐다. ‘오진영이 (선사의) 묘에 아뢰어 죄를 자복하는 것을 권순명이 저지한 것은 그 죄가 오진영의 죄보다 더하다.’는 것이 우리 아우의 평소의 말인즉, 금일의 처의도 내가 본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의리가 더욱 어두워지고 기강이 더욱 퇴패(頹敗)하여 옛날의 강직하고 올곧은[剛毅直方] 자들도 그 기개가 가만히 녹아 사라져 지위(脂韋)와 호도(糊塗)²⁰⁰를 행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 때에, 이에 우리 아우의

200 지위(脂韋), 호도(糊塗) : 지위(脂韋)는 미끈한 기름과 무두질한 가죽처럼 유약하게 군다는 뜻으로, 보통 구차하게 세상에 영합하는 사람들

의연한 일착(一著)이 사람의 심목(心目)을 일깨움이 이와 같으니 어찌 기쁘고 다행이지 않은가. 또한 시비가 오래되면 저절로 정해지기 때문에 오진영 쪽의 무리들이 비록 완험(頑險)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자못 점차 그 죄를 아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단지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이러한 중정(中正)한 의론이 이완되어서 죄를 사면 받고 용납 받으려는 이것이 본디 권순명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니 그가 ‘감히 먼저 (통관을) 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원재(遠齋)의 경우 또한 일찍이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혔다고 하여 오진영과 권순명의 무리를 성토하였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화니대수(和泥帶水)²⁰¹를 의리로 삼아 다시 사람들이 훈초(薰草)와 악초(惡草)를 한 그릇에 담기를 바라니, 진실로 이른바 “이미 예에 맞게 스스로 처신도 못하고 또 예에 맞게 남을 대우하지 못한다.”²⁰²는 것이 이것이다. 나는 가만히 이를 한탄하고 애석하게 여긴다. 연전에 우형근(禹炯根)이 나를 배알 했을 때, 나는 꾸짖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그가 뒤늦게 사죄했을 때에도 누워서 응대하지 않았다. 혹자는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의심했지만, 나는 후회한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 아우가 처신한 의(義)를 듣고 이전 일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으니, 아우를 가상히 여기고 다시 내 자신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다시 원하건대 우리 아우는 무릇 일상생활에서 진덕수업(進德修業)하고 사특함과 올바름[邪正], 의와 리[義利], 선과 악[淑慝], 전아함과 속됨[雅俗]이 간여 된 즘음에는 모두 이 예(例)로 단정하

을 비유하고, 호도(糊塗)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201 화니대수(和泥帶水) : 흙탕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뒤섞여 구분되지 않는 두루뭉술한 태도를 말한다.

202 이미 예에……못한다 : 《小學 嘉言》에 나오는 말이다.

여 곳곳이 우뚝 서고 순수하여 티끌 없는 군자(君子)를 성취하도록 하라.

與族弟希淑 己巳

昨得白兄光五來訪，傳李遠齋言，近金希淑權顧卿兩值於吾家。吾勸二人通款，權則曰飽受打擊者，不敢先請，金則曰事先師者，義不可以通，權遂起身而去云。聞來竊喜吾弟處義之嚴正也。命沮震告墓服罪 其罪浮震，吾弟雅言，則今日之處義，吾固知之。然見今義理益晦，紀綱益頹，舊日之剛毅直方者，不免潛銷暗鑠而爲脂韋糊塗之時，乃得吾弟毅然一著，警人心目有如此者，豈不喜幸？且是非久則自定，故震邊一隊，雖云頑險，其中亦頗有漸知其罪。只望日久月遠，此中正論之弛緩赦罪而容與者，此固命之所願也。其云不敢先請者宜矣。若遠公則亦嘗以誣師亂稿，討震命輩矣，猶自以和泥帶水爲義，復欲人之薰猶同器，誠所謂既不能以禮自處，又不能以禮處人者此也。竊爲之嗟惜也。年前禹炯根之拜吾也，吾叱斥不受，及其追謝也，臥而不應。或者疑其爲過，而不曾自悔矣。今聞吾弟所處之義，益信前事之不至己甚，既庸欽尙，復以自幸。更願吾弟凡干日用進修邪正義刊淑慝雅俗之際，皆用此例斷定，成就挺然特立粹然無瑕之君子人也。

족제 희숙에게 보냄 기사년(1929)

與族弟希淑 己巳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은 절로 지당함이 있는데, 나는 순응하고 저는 거슬러서 체세(體勢)가 서로 같지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쪽 학자들은 깊이 거절하고 힘써 배격하여 저들과 화합하기를 추

구하지 않았지만, 저쪽 학자들은 지리한 말과 번다한 설명으로 오직 우리에게 절교(絶交)될까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도 아마 불안한 점이 있는듯하다.” 이것은 주자(朱子)가 이심경(李深卿)에게 답한 편지이다. 이 말은 우리 사문(師門)의 시비를 따지는 즘음에도 인용하여 유시할 수 있다. 지난날 희숙(希淑)이 목리(木里)에서 권순명(權純命)을 만나서 이원재(李遠齋)가 두 사람이 서로 통관(通款)하기를 요청했을 때, 권순명이 말하기를 “내가 감히 먼저 요청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뚜렷하게 통관을 ‘본디 바라던 바.’라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들에게 절교 될까를 두려워해서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희숙이 말하기를 “선사(先師)를 섬기는 자로서 저들과 통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른바 “깊이 거절하고 힘써 배격하여 일찍이 저들과 화합하기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곧 이 한 가지일로도 저들과 우리의 순역(順逆)과 당부(當否)를 또한 판정할 수가 있다.

與族弟希淑 己巳

天理人心，自有至當，我順彼逆，體勢不侔。是以爲吾學者，深拒力排，未嘗求合於彼，而爲彼學者，支辭蔓說，惟恐見絕於我，是於其心，疑亦有所不安矣。此朱子答李深卿書也。此可以引喻於吾門是非之際也。向日希淑之遇權純命於木里，而李遠齋之請兩相通款也，彼曰我不敢先請，顯有固所願之意。是所謂恐見絕於我，而心有所不安者也。希淑曰事先師者，不敢通彼者，是所謂深排力拒，未嘗求合於彼者也。卽此一事，彼與我之順逆黨否，亦可判也。

족제 희숙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族弟希淑 己巳

지금 풍우(風雨)가 갑자기 몰아치고 시랑(豺狼)이 앞길을 막아 중도에 넘어진 자들이 어찌 한(限)이 있으랴. 그런데도 우리 아우는 정신을 떨치고 용맹하게 곧장 앞으로 나아가 갈수록 더욱 굳건하니,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비록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기빠서 잠을 못 잤다는 나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부디 원컨대 더욱 면려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반계수록》은 얼마나 보았는가? 짐작하고 헤아려서 통행(通行)할 실질적인 뜻이 있음을 보았는가? 정전제(井田制)를 행하지 않으면 다스림이 모두 구차하다는 것은 고금의 정론으로 다른 말이 없는 것인즉, 반계(磻溪 유형원)의 균전설(均田說)도 비록 옛 제도는 아니지만 실로 정전(井田)의 뜻을 얻었다. 만약 선치(善治)를 원치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진실로 선치를 행하고자 한다면 이 균전설을 버리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급박하게 부인(富人)의 전지(田地)를 빼앗아야 한다는 어려움은 횡거(橫渠) 때부터 이미 대처할 방법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 다만 땅은 더 넓어지지 않고 사람은 날로 더 늘어나서, 전지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요구는 끝이 없으니 또 어찌할 것인가. 중국의 진장형(陳長蘅)이 이르기를 “만약 큰 재해와 큰 난리, 큰 역병이 없다면 25년 사이에 백성의 인구는 마땅히 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험 삼아 우리나라의 현 상황으로 계산하건대 이 말은 진실로 옳다. 그렇다면 형세 상 반드시 해마다 이미 주었던 전지를 나누고 빼앗아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연후에야 일이 끝날 것이다. 그 사이에 분란(紛亂)과 생경(生梗)의 사단(事端)이 생각건대 또한 심할 것이다. 이치를 따라 순응

하여 아무 탈 없이 행할 방도를 이미 정심(精審)하게 연구해보았는가? 행여 나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곳의 장과(長課)는 현재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에 있는데 한번 거의 끝나간다. 그러나 권질(卷帙)이 호양(浩穰)하고 정력이 천단(淺短)하여 두루 망라하지 못했으니, 비유컨대 굶주린 자가 갑자기 성찬(盛饌)을 만나서 급급히 탐식(貪食)하느라 실제로는 그 참된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대개 팔가(八家)의 문장에 대해서는 모씨(茅氏 모곤(茅坤))가 본디 상론한 것이 있다. 내가 (당송팔가문을) 살짝 맛본 바로는, 창려(昌黎 한유)의 문장은 기(氣)를 토해내면 무지개를 이루고 침을 뱉으면 비가 되어, 해상에 신기루가 일어나고 풀숲의 거미가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서 강대하고 기묘함이 각각 그 극진한 데 이르렀다. 읽어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고 괴이하게 해서 감격하여 흥분시키는 희락(喜樂)의 정(情)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탁월하여 미칠 수가 없다. 유주(柳州 유종원)의 문장의 강함은 한유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강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것이고, 묘함은 한유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묘함이 아니라 법식(法式)이 있는 것이다. 그 크고 기이함도 또한 장기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그 기사(奇事)의 팝진(逼真)함과 의론의 절당(切當)함은 실로 문장가의 궤범(軌範)이다. 여릉(廬陵 구양수)의 문장은 문사와 이치가 모두 극진하고 기운과 법식을 지극히 갖춰서 화실(華實)을 겸하여 포괄하였으니, 비유하면 대인군자(大人君子)가 현단복(玄端服)을 입고 큰 띠에 활(笏)을 들고 묘당 위에서 주선(周旋)하는 것과 같아서 그 착한 말과 좋은 계책, 반듯한 발걸음이 모두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그 기상은 응중(凝重)하고 풍채는 뛰어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지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읽으면 깊이가 비록 다르

나 총명한 자나 둔한 자가 모두 그 맛을 알고, 배움의 다소는 같지 않아도 솜씨 있는 자나 졸렬한 자나 모두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다 궁구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삼소(三蘇)의 문장에서 노천(老泉 소순)의 기굴(奇崛)함과 자유자재 함은 한유와 유사하고, 날카롭게 솟아서 범하기 어려운 기상은 유종원과 유사하나, 전형(典型)의 엄밀함과 단련(鍛鍊)의 정숙(精熟)함과 문채의 찬란함은 끝내 손색이 있으니 생각건대 혹여 만년(晩年)에 성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파(東坡 소식)의 기사(奇詞)와 웅론(雄論)은 창려와 비슷하고 풍신(風神) 꾸밈은 여릉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조예가 홀로 도달한 곳은 하늘이 돕고 신명이 발현한 듯하여 거의 인연(人烟 세속)의 말투가 아니다. 그러나 문사가 이치보다 과하고 문채가 그 바탕을 지나쳐 학문에 폐단이 없다고 이를 수 없다. 그 아우 영빈(瀕濱 소철)은 그 형 동파의 체제를 갖추었지만 미약한 자라고 이를만하다. 그 홀로 초연하여 정신이 발현된 것에 이르러서는 내가 참여하여 논할 바가 아니다. 왕안석(王安石)과 증공(曾鞏)의 문장은 비록 웅기(雄奇)한 기상과 문채의 발현은 적지만 경술(經術) 가운데 근본하고 한결같이 전형(典型)과 승묵(繩墨)에서 나와서 모두 유자(儒者)의 문장에 가까운데, 왕안석이 나은 듯하다. 팔가(八家) 가운데서 한유가 지극하고 구양수가 다음이다. 한유는 비유하자면 성인(聖人)의 신묘하여 알지 못하는 경지요, 구양수는 비유하자면 현인(賢人)의 성대한 덕이 날로 드러난 것이다. 성인은 사람마다 배워서 갑자기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인은 학문에 근거가 있고 성인에 들기가 가깝다. 나는 이 때문에 말하기를 “문장을 배우는 자가 만일 높은 재주가 아니라면 한유는 갑자기 배울 수가 없으니 여릉을 배워서 학업에 바탕이 있고 효과를 기약할 수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한다. 우리 아우는

한유를 배우다가 곤궁한 자이다. 이에 나의 어리석은 견해를 개진 하니, 그대의 견해와 크게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다.

금번 여름에 연달아 여안(汝安)의 편지를 받았다. 살펴보니 그 문사(文辭)가 점차 진보하고 취향(趣向)이 더욱 맑았다. 이를 확충하여 크게 하면 앞날이 거의 낙막(落莫 쇠락)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매우 기뻐하노라. 생각건대 종족(宗族) 가운데 그대가 이미 우뚝 두각을 드러내 용기를 돋아 앞장서 창도하고, 여안이 또 자기의 재주를 다 써서 그 뒤를 잇고자 하니 어찌 선령(先靈)의 음우(陰佑)가 아니겠으며, 우리 가문의 여경(餘慶)이 아니겠는가. 10대 조에서 분가했다고 하여 소원한 족속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그대를 친 아우처럼 보고 지도하여 함께 대도(大道)에 이를 것이니 그 두터운 기대를 가누지 못하겠노라.

答族弟希淑 己巳

顧今風雨驟至，豺狼當前，中途而踣躓者何限。而吾弟抖擻精神，勇往直前，愈往愈健，此豈偶然者。雖謂之天意，未爲過也。喜而不寐，吾非虛言。幸願加勉，副此專望也。《磻溪隨錄》看得幾何？見有酌量通行之實趣否？不行井田，爲治皆苟，古今定論而無異辭者，則磻溪均田之說，雖非古制，實得井田之意。若不欲爲善治則已，苟欲爲之，舍是而不能也。亟奪富人田之難，自橫渠已有處之有術之說。但地不加廣，人日益衆，田有盡而人之求無已則又柰何？中國陳長蘅謂，如無大災大亂大疫，二十五年間，民口當加一倍，試以我國現狀計之，此言良是。然則勢必逐年而分奪已授之田，以給其未授者然後乃已，其間紛亂生梗之端，想亦甚矣。循理順應行所無事之方，已得精審研究否？幸示及也。此中長課，見在唐宋八家文，而一遍垂畢。然卷帙浩穰，精力淺短，包羅不周，譬如飢者之猝遇盛饌，急於嚙羹嚼炙，

而實不知其真味也。蓋八家之文，茅氏固有詳論者矣。若乃區區一指之染嘗，則以爲昌黎之文，吐氣成虹，噴沫成雨，海蜃之起樓，草蛛之結網，剛大奇妙，各極其至。讀之使人驚怪感奮，喜樂亦不一其情，而莫測端倪，卓乎其不可及也。柳州之文，剛或似韓，而實則匪剛伊鑣，妙或似韓。而實則匪妙伊法，其大其奇，又恐非所長也。然其記事之逼真，議論之切當，實爲文章家軌範。廬陵之文，詞理俱到，氣法備至，華實兼該，譬如大人君子。端委紳笏，周旋於廟堂之上，昌言嘉模，規行矩步，無不中度。氣象凝重，風采秀發，令人愛敬而不倦，故讀之淺深雖殊，聰鈍皆知其味。學之多少不同，巧拙均獲其效，然及其至則有不能究者也。三蘇之文，老泉之奇崛自由，有似乎韓，鑣峭難犯，有似乎柳，典型之嚴密，鍛鍊之精熟，文采之煒燁，終有所遜，意其或者晚成之故也。東坡之奇詞雄論，彷彿昌黎，風神色澤，彷彿廬陵。而其造詣獨造處，若天助神發，殆非人烟口氣，然恐詞勝其理，文過其質，不可謂學之無弊也。其弟瀕濱，可謂具體於乃兄而微者，至其超獨神發，則非所與論也。王曾之文，雖少雄奇之氣，文采之發，本之於經術之中，而一出於典型繩墨，俱近於儒者之文，而王似爲優矣。八家之中，韓至焉歐次焉。韓譬則聖人之神妙不可知者也，歐譬則賢人之盛德日可見者也。聖非夫夫之可學而驟至者。賢人則學之有依據，入聖爲近。吾故曰學文章者，自非高才，韓不可猝學，不如學廬陵之業有地而效有期也。吾弟是困於學韓者。故茲陳瞽見，未知不大逕庭於盛見否。今夏連得汝安書。見其文辭漸進，趣向愈清。充此以大之，前頭庶不落莫矣，吾甚喜之。念宗族中，左右既嶄然出頭，鼓勇前倡，汝安又欲竭駑步而繼其後，豈非先靈之冥佑門戶之餘慶哉？十世之分，莫曰疏屬。視同親弟而指導之，偕至大道，不勝其厚望焉爾。

족제 희숙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族弟希淑 庚午

지난날 금강산에서 보낸 편지는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대략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였거늘, 우리 아우는 무엇을 보고서 우화(羽化)한 신선(神仙)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지닌 현인(賢人)과 변화무쌍한 문장으로 나를 기대하고 찬탄하기도 부족해 이어서 축하하고 부러워하는가. 신선은 본디 성현(聖賢)이 말하지 않는 것이고, 문장은 비록 도(道)의 오묘함을 발휘하지만 우리 유자(儒者)의 극치가 아닌데, 게다가 나는 늙어서 미칠 수도 없다. 다만 호연지기는 배우기를 원하는 바이다. 금강산이 맑게 솟은 것은 마땅히 나의 호연지기를 도와서 기를 만한테도, 자질이 잡박하고 공부가 소홀하여 일찍이 그 기운을 받아 기를 바탕으로 없어서, 끝내 산은 산이요 나는 나라는 탄식으로 귀결되었으니, 그대가 나를 권장하여 언급한 말에 대해 부끄러워 대답할 수가 없다.

우리 아우 같은 경우는 나이와 힘이 모두 건장하고 견문(見聞)이 부유하며 기상이 호매(豪邁)하니, 한 번 이 산에 올라 기절(奇絶)함을 받아들이고 보아서 시문(詩文)에 오묘함을 담는 것도 오히려 여가의 일에 속할 것이다.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와 땅에 서린 웅장함이 천지 사이에 가득 찬 호연지기를 도와 성취할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문장과 도의가 지극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속을 초월한 것이다. 신선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또한 세속을 초월한 사람일 것이니 어찌 꼭 우화등선한 자라야 하는가. 부디 급히 도모하여 나처럼 늙을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기를 바란다. 학자는 모름지기 지보(地步)를 넓게 하고 심목(心目) 간에 터득한 연후에야 도를 말할 수 있다. 삼가 보통의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는 국

한된 학문을 하지 말라.

신라태자(新羅太子)²⁰³의 유적을 공경히 받들어 살펴보았는데, ‘동경의열 북지영풍(東京義烈 北地英風)’ 여덟 자의 전각이 완연히 어제 일과 같았다. 망군대(望軍臺)의 병졸들과 비로봉(毘盧峰)의 묘소도 뚜렷하게 가리킬 수 있어서 사서(史書)과 족보(族譜)에서 보지 못한 것을 다 들었으니 이 여행은 진실로 헛되지 않았다. 아, 태자의 고절대의(高節大義)가 진실로 천지에 뻗치고 일월처럼 빛나니, 상론(尙論)하는 자는 한(漢)나라의 유심(劉諶)²⁰⁴에 견준다. 그러나 나는 생각건대 처신이 종용(從容)하여 효성을 손상시키지 않은 것은 유심보다 일격(一格)이 높다고 여긴다. 백세(百世) 후에도 감동치 않을 자가 없거늘, 하물며 후손이 되는 우리 입장에서 어찌 단지 방황 하고 차마 떠나지 못할 뿐이겠는가. 태자 때문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양호(羊祜)²⁰⁵는 큰 덕이 있지 않았고 양양(襄陽) 사람들 중에 가

203 신라태자(新羅太子) :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태자인 마의태자(麻衣太子)로, 삼베옷을 입고 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금강산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

204 유심(劉諶) :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아들인 유심(劉諶)을 가리킨다. 촉한이 위(魏)나라 장군 등애(鄧艾)의 침공을 받고 수도인 성도(成都)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유선은 항복할 것을 결심했는데, 유심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유선이 듣지 않자 그는 유비(劉備)의 사당에 가서 통곡하고 처자(妻子)를 죽인 다음 자결하였다. 《三國志 卷33 後主傳》

205 양호(羊祜) : 위(魏)나라 말엽에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순욱(荀彧)과 같이 나라의 기밀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진(晉)나라가 들어서자 거평후(鉅平侯)에 봉해졌고 도독형주제군사(都督荊州諸軍事)로 10년간 나가 있었는데, 재임하는 동안에 둔전(屯田)을 실시하여 식량을 비축하면서 오(吳)나라를 정복하는 전략을 짰다. 평일에는 갑옷을 입지 않고 가벼운 갖옷에 허리띠를 느슨히 맨 차림으로 오나라 장수 육항(陸抗)과 사신을 교환하면서 원근을 안심시켜 강한(江漢)과 오나라 사람의 인심을 수습하였다. 그 뒤에 두예(杜預)를 추천하여 자신의 후임으로 삼았

까운 친족도 없었지만, 단지 그 은혜가 사람에게 미쳐서 ‘타루비(墮淚碑)’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우리 태자의 대절(大節)은 삼한(三韓)을 빛냈으니 어찌 양호의 작은 은혜에 견줄 것인가. 경순왕(敬順王)에서 함께 나온 여러 김씨(金氏)들은 태자에 대해서 본손(本孫)이 아니다. (그러나) 방계의 후손이 팔도(八道)에 가득 찼는데, 천년이 흐르도록 여전히 돌조각에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일까. 실로 전인(前人)이 미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없을 수 없다. 비록 우리 김씨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으나, 누가 동지들과 도모하고 힘을 합쳐서 이 좋을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거듭 탄식하노라.

答族弟希淑 庚午

曩日金剛書，忙遽疲困中，略掛一二，吾弟何所見，而以羽化之仙，浩氣之賢，變態之文章期，贊之不足而繼以賀羨也？仙固聖賢之所不道也，文章雖可以發揮道妙，而非吾儒極致，且老矣無及。惟浩氣則所願學，山之清峭聳拔，宜若助養吾氣，而質駁工踈，曾無受養田地，竟歸山自我自之歎，盛獎之及，愧無以對。若吾弟者，年力俱壯，聞見富而氣豪邁，試一陟此山，奇絕之所領覽，入妙乎詩文，尚屬餘事。其高插天，其雄蟠地，有以配成塞乎兩間之氣，吾不疑也。文與道之至，其人己超俗矣。仙子無則已，有之亦超俗人是已，豈必羽化者？幸亟圖之，無待如余之老也。學者須放着地步，得之心目間然後，可與言道。慎勿似一般耳食局煞學也。新羅太子遺跡，敬得奉觀，而東京義烈北地英風八字刻，宛然如昨，望軍之卒，毗峰之墓，歷歷可

다. 그가 죽은 뒤에 남주(南州)의 사람들이 저자를 파하고 통곡하였으며 그가 평생 노닐던 현산(峴山)에 비를 세우고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두예가 그 비를 타루비(墮淚碑)라고 이름을 붙였다. 《진서(晉書)》 34권 〈양호열전(羊祜列傳)〉

指，備聞史與譜所未見者，此行諒不虛也。噫！其高節大義，固已亘天地光日月矣，尙論者，比於漢之劉諶。然吾則以爲處得從容，不傷孝思，高諶一格也。百世之下，宜莫不感，矧在吾之爲後裔者，豈但彷徨不忍去，爲之墮淚而不禁也。羊祐非有大德，襄陽人并無懿親者，徒以其惠及人，而至有墮淚之碑。若太子之太節，光輝三韓，豈羊祐之小惠比也？諸金之同出於敬順王者，於太子非本孫，則傍裔彌滿八城也，而閱勢千餘，尙不見片石紀實，此曷故焉？實不能無憾於前人之未遑。雖以吾金之力，尙可以與此，然疇能謀合同志，成此好事，重可嘆也。

족제 희숙에게 보냄 신미년(1931)

與族弟希淑 辛未

옛날에 반계(磻溪) 유공(柳公 유형원)은 매년 해가 질 때마다 탄식하여 말하기를, “오늘을 또 헛되이 보냈구나!” 하였다. 그 스스로 안타까워한 것을 살펴보면 바로 지업(志業)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공이 장정을 뽑아서 무예를 강명(講明)한 일과 정치에 관해서 저술한 서적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나 같은 자는 유공의 경륜(經綸)과 도략(韜略)이 있지는 않지만, 매년 세모(歲暮)에 당해서는 문득 ‘금년을 헛되이 보냈구나.’하는 탄식을 발한다. 무엇 때문인지, 나 스스로도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탄식은 해를 기준으로 하고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니, 내 뜻이 크고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만일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자가 말하기를 “유공의 탄식은 뜻이 방국(邦國)의 경륜에 있고, 김택술의 탄식은 뜻이 신심(身心)의 학문에 있으니, 그

크고 작음과 느슨함과 절실함은 비록 다르지만, (뜻이) 모두 사사로운 사특함에 있지 않고 공정함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과 훗날의 식자도 그렇게 여길지는 모르겠다. 우리 아우도 평정(評定)을 덧붙이기를 바라노라.

與族弟希淑 辛未

昔礪溪柳公，每日暮輒歎曰：今日又虛度矣。跡其所以自悼，乃志業之未展也。觀其選丁講武之舉，著述政治之書，其心可知已。如余者，非有柳公之經綸韜略，而每當歲暮，輒發今年虛度之歎何哉？亦不自知其故也，然其歎也，以年而不以日，其志之不大且切則可知已。如有解之者曰：柳公之歎，志在邦國經綸，金某之歎，志在身心學問，其大小慢切雖殊，俱不在乎私邪而在乎公正則一也。未知今與後之識者以爲然否。望吾弟之加以評定焉。

족제 희숙에게 보냄 계유년(1933)

與族弟希淑 癸酉

현재 이곳에 오는 이가 얼마 되지 않아 고요히 거처하게 되니, 종전에 본원(本原)의 공부가 결여되어 착수할 만한 전지(田地) 마음의 본바탕이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 곧바로 마땅히 뜻을 용경(用敬)에 오로지 하여 미발(未發)의 기상을 함양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실천의 근본으로 삼고자 한다. 나는 이천(伊川)의 반나절 정좌(靜坐)는 실행하지 못하지만, 또한 때때로 눈을 감고 마음을 보존해서, 감히 마음을 내버리지 않고 점차 수렴하여 고요한 경계로 들어가니 기상(氣象)과 의사(意思)가 전날에 비해 다름을 느끼는

듯하다. 궁리하고 연구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이미 나이가 노쇠하고 정기(精氣)가 천단(淺短)하니, 마땅히 간약(簡約)함을 돌이켜 구해야 할 시절이거늘, 또한 종전의 박학상설(博學詳說)²⁰⁶의 공부가 없음을 깨달으니 비록 돌이켜 요약하고자 한들 어디에서 바탕을 취하겠는가. 아마도 편고(偏枯 반신불수)한 학문을 이룰까 두렵다. 그러나 이미 젊은 시절을 그르쳐서 뒤늦게 닦해도 어쩔 수 없으니, 우선 알고 들은 것 가운데 나아가 일맥(一脈)의 선자(線子)²⁰⁷로 평일의 지해(知解)를 일관되게 하고 한 자루의 손잡이²⁰⁸를 종신토록 패복(佩服)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진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범부의 졸렬하게 수양하는 법에 견주는데, 그러나 우리 아우의 큰 안목에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與族弟希淑 癸酉

見此來者無幾，可以靜處，覺得從前欠却本原工夫，無田地可得下手。欲卽今便當專意用敬涵養於未發，特爲格致踐履之本。伊川之半日靜坐，雖不得行，亦且時時閉目存心，不敢放下，漸次收入靜界，氣象意思，似覺有異於前。至於窮研之功，旣已年衰精短，恰當反求簡約時節，而亦覺從前無博詳工夫，雖欲反約，何所取資？恐成偏枯之學。然旣蹉却少壯，追咎無及，且就所知所聞中，見得一脈線子可貫平日知解，一把柄子可作終身佩服，庶不至虛度此生。竊自附於下士拙修之法，未知不見笑於吾弟大眼目耶。

206 박학상설(博學詳說) : 《맹자(孟子)》에 보인다.

207 선자(線子) : 선자는 양선(陽線)과 같은 뜻으로 동짓날 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박학상설의 공부를 통해 얻는 성과를 비유하는 듯하다.

208 한 자루의 손잡이 : 본원 공부를 의미하는 듯하다.

족제 희숙에게 보냄 계유년(1933)

與族弟希淑 癸酉

전서(前書)에서 유시하기를 “창응(蒼鷹)은 시령에 있어도 청산에 서 날기를 꿈꾸고, 늙은 천리마는 마구에 엮드려 있어도 뜻은 먼 길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 뜻과 이 꿈은 곧 공자(孔子)가 도(道)를 행하고자 하여 주공(周公)을 본 것과 같다.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성해서 행하고자 함이니, 어찌 이 뜻과 꿈이 없겠는가. 그러나 만약 추풍(秋風)이 높지 않은데 창응이 산에서 날고, 얼음이 녹지 않았는데 천리마가 길에서 달린다면 병 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이다. 그러니 우선 그 날개를 다듬고 그 발을 가뿐하게 하여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옛날의 현재(賢才)가 재덕(才德)을 감추고 은둔하면서 태평을 기다린 것도 이 때문이다. 생각건대 그대의 견해도 이렇게 마음에 정산(定算 결정함) 한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듣자 하니 여산(黎山)에 사는 동족 기백(基伯)이 나에게 문장을 지어서 군(郡)의 일로 선조(先祖)의 사당을 건립하는 의론을 받기 하라고 말해놓고, 조정의 명령으로 서원을 철폐했는데, 옥사(屋社)²⁰⁹ 후에 신설하는 것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장을 쓰거나 의론을 일으키는 것 모두 나에게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편치 않다고 말한 것은 실로 나의 뜻과 같다. 일찍이 이 일

209 옥사(屋社) : ‘옥사(屋社)’는 패망한 나라의 사직에 지붕[屋]을 설치하여 햇볕을 막는 것으로, 나라가 망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기(禮記)》〈교특생(郊特牲)〉에 “천자의 대사(大社)는 지붕을 덮지 않아 서리·이슬·바람·비를 직접 맞게 하여 천지의 기운이 통하게 한다. 이런 까닭에 망한 나라의 사직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한다.〔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是故喪國之社屋之不受天陽也〕”라고 하였다.

을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미 철폐된 서원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설의 경우 조정의 명령과 관계가 없으니 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나재(懶齋)와 함재(涵齋) 두 어른의 설이고, ‘이미 철폐된 것도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데 하물며 신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김성구(金聖九)의 설이다. 선사(先師)께서 어떤 사람에게 서원의 터에서 단향(壇享)하는 것을 허여한 것이 〈연재설(淵齋說)〉에 보이는데, 다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린 일이 대고(大稿)에 보인다.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선사의 정론을 당일에 듣지 못했으니, 부디 잘 생각해서 고견을 알려주는 것이 어떠한가?

與族弟希淑 癸酉

前書喻以蒼鷹在架，夢飛青山，老驥伏櫪，志在長途。此志此夢，卽孔子之欲行道而見周公也。士生斯世，幼而學之，壯而欲行之，安得無此志此夢也？然若秋風未高，鷹飛于山，冰凍未解，驥走乎程，其不見病也者幾希。且可刷其翮輕其足而俟之。古之賢才，所以抱藏才德隱遯俟清者此也。想高見以此定算于中者久矣。聞黎山族基伯，謂我作文發起於郡事先祖建祠之議，而以朝令掇院，屋社後新設爲未安云。以文以發，俱我無是。然其所云未安者，實吾意也。嘗以此問人，則以爲既掇之院不可以復。若新設則非關朝令，可爲之者，懶涵兩丈說也。既掇者猶不敢復，況新設乎者，金聖九說也。先師許人以院址壇享，見淵齋說，復以書止之事，見大稿。而新設與否，未聞定論於當日矣，幸入思議，示以高見如何？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族弟希淑 甲戌

그대는 답장에서 조정의 명령으로 철폐한 서원을 신설(新設)하는 것과 복설(復設)하는 것은 모두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 또한 일찍이 김성구(金聖九)의 설을 옳다고 여겼다. 이제 편지에서 “‘옛 서원도 오히려 철폐하는데, 하물며 그 신설을 용납할 것인가’라고 한 것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말을 받아 보니 매우 이치에 합당한 말이라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答族弟希淑 甲戌

惠覆朝令撤院，新設復，俱不可爲。鄙亦曾以金聖九說爲是。今承舊者猶撤，況容其新，不待多言之喻，理到之言，無復可疑矣。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族弟希淑 甲戌

그대가 보낸 편지에서 《주연집(珠淵集)》의 <퇴송복원소유교문(退送復院疏)>와 <유교문(儒教文)>을 근거로 서원의 신설과 복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고려시대의 여러 현인들도 본조(本朝)의 포상과 금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도 옳다. 대저 원우(院宇)의 설치는 비록 현자를 높이고 강학하는 장소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일 내외(內外)의 분수를 안다면 다만 그 마음이 없을까를 근심하지 그 장소가 없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어찌 괴롭게도 옥사(屋社)하여 임금이 없는 날에 선제(先帝 고종)의 명령을 어기고 멋

대로 설립한다는 말인가. 요컨대 마땅히 본조가 중흥하는 날에 조정에 요청하여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왕자(王者)가 흥기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우리들은 이 점에 있어서 논의가 결정됐다고 이를만하다.

答族弟希淑 甲戌

來書據《珠淵集》退送復院疏儒教文，斷以不容新復設院者是矣。麗朝諸賢，從本朝褒禁者亦是矣。大抵院宇之設，雖曰尊賢講學之所，然苟有知內外之分，只患無其心，不患無其所。何苦於屋社無君之日，違先帝之令而擅設乎？要之當於本朝中興之日，請而行之。不然則俟有王者作焉已矣。吾輩於是乎可謂論定也。

족제 희숙에게 보냄 갑술년(1934)

與族弟希淑 甲戌

우리 아우는 근일에 학문사변의 공부가 다시 어떠한가? 여기 상황은 근래에 내 일신(一身)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해짐을 느낀다. 세밀하게 이 증세를 살펴보니 바로 도의(道義)에 대한 생각이 장차 가볍게 된다는 조짐이다. 대개 이는 방촌(方寸) 내에 본래 두 주인을 두고 두 가지 일을 아울러 주재함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증후(證候)를 마땅히 일찍 이겨내고 제거하여 부지불각 중에 가만히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일러 “이것을 밝히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明此之謂剛]”라는 것이다. 만약 천천히 기다려 천취(遷就)하여 다스리고자 한다면 주기(主氣)는 약하고 객세(客勢)는 이미 강해져서 다스릴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아우는 본디 문기를 좋아하고 또한 변론하기를 즐기니 혹 생각이 여기에 미쳤는가? (도의가) 그 행사(行事)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스승을 높이고 무함(誣陷)을 변론하는 일이다. 지난번에 그대가 ‘우선 서서히 하자’고 말한 것들은 이제 모두 다시 변론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애초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았거늘, 끝내 이와 같이 된 것은 주객(主客)의 기세(氣勢)와 강약(強弱)의 분수를 일찍 변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김용승(金容承)의 고문(告文)이 나온 지 지금 이미 많은 해가 흘렀다. 비록 한둘의 곧바로 변론한 자가 있었지만, 우리 아우도 반드시 한마디의 표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개 이 고문의 변괴는 가평의 김평묵이 지은 전옹(全翁 : 임헌회)의 제문(祭文)보다 못하지가 않다. 우리 아우는 이전에 이미 오진영을 성토했고 후일에 또 그 당여(黨與)까지 성토했어서 사방에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다. 이렇게 그대의 이름을 모두가 아는데, 빠트리고 그 사이에 한마디 말이 없다면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말하겠는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지 그만 둘 수가 없다. 대략 이렇게 언급하고 또한 근일에 스스로 깨달은 것을 개진하여 우리 아우가 더욱 힘쓰는 보탬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 부디 살펴보고 아울러 회신을 바라노라.

與族弟希淑 甲戌

吾弟近日問辨之工，更復如何？此狀比來覺得身家之念轉切。細察此候，乃是道義之思將輕之漸。蓋方寸之內，元不容有兩主而并宰也。今此證候，宜早克去，不使潛滋暗長於不知不覺之中，此之謂明此之謂剛也。若欲徐待遷就而治之，則主氣弱而客勢已強，無得治之日矣。吾弟固嘗好問，而亦且樂辨，或慮及此否？其見於行事，則今日吾輩尊師辨誣是也。往者其言姑徐徐者，今皆不能復辨而止。其初未

必欲其如此而終至如此者，不能早辨主客氣勢強弱之分故也。未知吾弟以爲如何？金容承告文之出，今已許多年矣。縱有一二立辨者，然竊以爲吾弟必不可無一言之表明。蓋此告文之變，不下於嘉金祭全翁文。吾弟前既討吳，後又討其黨，四方無不知名。以無不知名 而闕焉無復一言於其間，則人將謂何？於公於私，俱不可但已。略爲及之，且陳近日所自覺得者，以爲吾弟有加無勉之助。幸爲察之，并望回示。

족제 희숙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族弟希淑 甲戌

편지를 보고 매우 기뻐한 것은 기꺼이 서로 강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첫 번째 의제에서 말하기를 “정견(定見)은 구차하게 동일할 수 없고, 소집(素執 평소의 뜻)은 구차하게 추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지금의 강명(講明)하는 일에 일컫는다면 나로 하여금 끝내 장차 소망이 없게 만들 것이다. ‘의아심을 갖고[藏其疑訝]’부터 아래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有所難辭]’에 이르기까지의 한 대목의 말과 뜻은 완연히 삼연(三淵 김창흡)이 지은 <의상중구서(擬上仲舅書)>의 기미(氣味)이다. 진실로 그대의 정견과 소집이 이와 같으니, 차라리 우선 느슨하게 시일을 기다리는 것을 마치 새가 알을 품어 천천히 기혈을 감동시켜 들이는 것처럼 해서 중도(中道)의 오묘함을 성취하는 것이 십분 합당한 도리가 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태양증(太陽證)이 발작하고 또 지의(遲疑)의 습관을 이루면 그대로 태타(怠惰)하고 위미(委靡)한 지경에 함몰되어서, 도리어 한 건의 큰 그릇된 일을

초래할까 두려워 이 때문에 끝내 다시 논하는 것이다. ‘사문난적(斯文亂賊)을 성토할 때는 그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살펴야 한다.’는 말은 옳다. 오진영은 진실로 심복(心腹)의 질병이요 소장(蕭牆 : 내부)의 적이다. 김용승도 어찌 다르겠는가. 오진영은 ‘스승에게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하였고 김용승 또한 ‘선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오진영은 스승의 절의를 무함하여 깨트렸고, 김용승 또한 선사(先師)의 학술을 고문으로 배척하였다. 이 밖에 피차의 어지러운 일들을 거의 모두 거론하여 비교하긴 어려우나, 단지 한 가지 일이라도 경중을 따져 그 성토를 완급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김용승이 소장(蕭牆)에서 화를 일으킨 것도 오진영과 동일하거늘 어찌 사문(師門) 밖의 졸개라고 하는가. 그가 사문 밖에서 자립한 것은 화를 끼친 이후의 일이니 이는 사문 밖에 서서 화를 끊임없이 짓는 자이다. 오진영은 사문 내에 서서 화(禍)를 끊임없이 짓는 자이다. 비록 사문 내외(內外)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장(蕭牆)의 변란에 관계되어 화가 그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하물며 오진영의 인무(認誣)는 변론이 쉽지만, 김용승이 학술을 배척한 것은 밝히기가 어렵다. 비록 우리 아우처럼 밝은 자도 또한 ‘완급경중(緩急輕重)’이라는 말을 두어 속임 당함을 면치 못한 것을 더욱 볼 수가 있다. 김용승이 스승을 배반하고 모독하는 고문(告文)을 지은 것은 과연 진실로 자기의 유감을 풀려고 하는데서 나온즉, 그의 죄는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지은 것보다 심한 점이 있다. 단지 문도가 아니라고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선사의 학술을 배척함에 여지가 없었거늘, 우리 아우는 작은 질병으로 여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문밖의 졸개를 억지로 맞아 읍을 했다.’고 말했는데, (김용승의 잘못을) 변척(辨斥)한 것을 ‘읍을 해서 맞이했다.’고 한 것은 천하에 있지도 않고 고금에 처음 듣는 것이다. 이 일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다른 일은 오히려 무엇을 바라겠

는가. 백세(百世)의 공론은 비록 세상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간여하지 않으면 그 공정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사로움일 뿐이다. 한 사람의 사사로움이 점차 행해지면 백세의 공정도 장차 기멸 곳이 없으니, 이 때문에 옛날부터 ‘의(義)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²¹⁰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아우의 신상에 이르러서 이미 ‘공(公)’자가 없으니, 오히려 어느 겨를에 백세(百世) 후에 김용승의 죄를 논할 것을 바라겠는가. 양묵(楊墨)의 말도 애초에는 또한 어지러운 사설(辭說)에 불과했으나 끝내 천하에 가득 찼다. 하물며 김용승이 설한 바는 또 한때의 어지러운 사설에 견줄 바가 아니다. 선사의 학술을 배척하여 다시 세상에 밝혀지지 않게 하였고 사문의 쇠잔한 명맥을 박상(剝喪)하였으니 ‘사람의 불인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전날 그대의 유시와 진실로 같다. 사문난적 오진영이 단지 자신만을 해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서로 큰 차이가 난다. 우리 아우는 경중의 권도(權道)를 잃은 것이 분명하다. 혹자는 성토하고 혹자는 성토하지 않으니 어찌 모순이 아니겠는가. ‘오진영을 성토한 일을 김용승에게 시행하라고 한 것은 있고, 김용승을 용서하라는 것으로써 오진영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하면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두찬진진(杜撰陳臻)’의 인용은 온당하지 않다. 정자(程子)가 위에 있으면서 따지지 않은 것은 제자가 아래에 있는데 더불어 변론함은 이것이 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生前)과 사후(死後)도 또한 저절로 분별이 있으니 변무(辨誣)를 가히 그칠 것인가? 예전에 만일 정자의 신후(身後)에 문인의 변론이 없었다면 정자가 지금처럼 정자로 추앙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맹자(孟子)가

210 의(義)를……것이다 : 《논어》〈위정(爲政)〉에 “제사 지낼 만한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非其鬼而祭之，諂也。見義不爲，無勇也。〕”라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양목에 대한 변척에서 유독 불공대천의 원수와 같이 여겼다는 것은 있었지만 다른 것은 듣지 못했다. 어찌 그 충역(忠逆)과 부사(父子)의 분수로써 변척에 힘을 더하였으랴. 가령 김용승이 기극(伎克)하는 마음을 내서 선사를 생전에 흥분하여 매도했다라면 당시엔 절로 선사가 계셔서 높이는 듯하지만, 선사를 모독하는 고문이 금일에 있게 된 것은 마땅히 변명해야 한다. 우리 아우는 한유(韓愈)의 문장을 숙독한 사람이다. 한유의 글 중에 이르기를 “면면히 이어지다, 점차 약해져서 사라지게 되었거늘 이러한 때 그 사설(邪說)을 고무하여 틈을 타니, 오호라 그 불인(不仁)이 심하다!”라고 하였다. 이미 불인하다고 하고 또 심하다고 하였으니, 즉 곧바로 위급한 지경에 있어서 오악(惡惡)의 정(情)이 또한 더욱 절실하였던 것이다. 우리 아우 또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늘, 이제 ‘오악의 정이 또한 다시 절실한 것은 형세이지 의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사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부사(父師)가 무함(誣陷)(誣告)을 입은 것을 보고도 변명하고 성토할 줄 모르는 자는 칼로 갈라도 아픔을 모르는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매우 미워한다는 말씀이다. 일이 부사(父師)에 관계되면 매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중도(中道)에 맞고, 다른 일 없이 미워하기를 심하게 하면 난(亂)을 일으키는 법이다. 인용한 한씨와 구씨, 진씨와 유씨의 일은 잘못이다. 저들은 의론으로 대대(對待)한 것이고 김용승은 침범하고 배척하여 윗 사람을 범한 것이니 어찌 나란히 견주어 동일시하는가. 만일 구양수가 <계사(繫辭)>를 의심하여 아울러 공자까지 의심하고, 유씨가 <중용> 주(註)를 의심하면서 아울러 주자(朱子)까지 병통으로 여겨서, 한결같이 배척하기를 김용승이 선사에게 한 것처럼 했다면 한씨와 진씨가 어찌 성문(聖門)의 적이요 사문의 적이라고 성토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쳤겠는가. 우리 아우는 한·구·진·류가 소집

(素執)을 구차히 같게 하지 않았고, 같지 않더라도 똑같이 현인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김용승에 대한 일에 견주었다. 그리고 탄식하며 “그만이로구나!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에 자신을 해당시켰다. 우리 아우는 진실로 현명하거니와 김용승 또한 진실로 현인이 되어, 다시 분붕(分崩)하고 괴란(壞亂)한 검극(劍戟 다툼)의 장이 없게 돼서 참극의 화를 면하게 되었으니 그대 쪽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다만 흠모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만약 김용승의 모독하는 고문이 선사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면, 선사가 어찌 가평 김평묵의 전용에 대한 제문을 배척하여 물리쳤겠는가. ‘독고(瀆告)’의 독(瀆)이라는 글자에서 누를 끼쳤다는 것을 저절로 볼 수 있다. 전서(前書)에서 이르기를 “수립(修立: 몸을 닦아 세움하고 이름을 드날려 천하 후세에 아무 개의 말이 가히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비록 말이 많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곧 우리가 수립(修立)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서로 보건대, 수립은 근본이고 변무(辨誣)는 지말(枝末)이라고 하였거늘 이제는 변무가 근본이고 수립이 지말이라고 하여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나의 말을 살피주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부끄러워서 땀이 난다. 선사가 가평 김평묵의 〈제매산문(祭梅山文)〉을 보고서, 곧바로 변척하기를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여력을 남기지 않은 것이 어찌 일을 벌이기를 좋아해서 그랬겠는가. 또한 반드시 심히 부득이한 점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대개 변척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이어서 변명까지 하니 그 또한 아마도 전배(前輩)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우리 아우도 이러한 곳으로 침침히 달려 들어가니 나의 마음에 안타깝게 여긴다. 내가 감히 한씨와 진씨가

구씨와 유씨에게 대처한 것과 동일하게 하지 못한 것은, 나의 경우가 단지 의론의 작은 일이 아니라 실로 사문의 도적을 방과하는 것에 관련 된 큰일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돌이켜 생각할 바탕이 될 수 있겠는가.

答族弟希淑 甲戌

見書甚喜，以其肯相講論也。但初題謂定見不可以苟同，素執不可以苟求，此非不然，謂之於今所講之事，則使我殆將無望。藏其疑訝以下 至有所難辭一節，語意宛然是三淵擬上仲舅書氣味。信乎其有定見素執也，如此則無寧姑且緩之以待時日，如鳥抱卵，徐使氣血感入以成中字之妙，是爲十分恰好道理。非不知此，不免而我太陽證發，又恐遲疑成習，仍陷怠惰委靡之科，反得一件大差事來，是以卒復論之。討賊審其輕重緩急之說當矣。吳固心腹之疾也，蕭牆之賊也。金何異也？吳言師有認教，金亦言先生可易。吳則誣破師義，金易告斥學術。餘外彼此之紛紜，殆難悉舉而比較，只有一事容有輕重而緩急其討者乎。金之起於蕭牆，亦與吳同也，何以云門外卒乎？若其自立於門外，則貽禍以後事。是立於門外而作禍不已者也，吳則立於門內而作禍不已者也。雖有門內外，而俱係蕭牆之變，禍之不已則同也。何況吳之認誣易辨 而金之斥學難明。雖明如吾弟者，亦不免有緩急輕重之說，而爲所瞞過，尤可見矣。金之倍師瀆告，果然直由逞憾而發，則其爲可罪，更有甚於無知而妄作矣。非但自處以非門徒而已。斥其學術，無復餘地，吾弟以爲疥癬之疾何也？門外之卒強之迎揖之云，以辨斥爲迎揖，天下所未有，古今所初聞。此猶如此，他尙何望？百世之公雖自世，而吾不與焉，則公不在吾而，在吾者私而已。一人之私漸行，而百世之公，亦將無賴，所以古有無勇之譏者也。到吾弟身上，已無公字，尙奚暇望百歲之後論其罪乎？楊墨之言，初亦不過

胡辭亂說，而竟至盈天下。況金所說，又非一時胡亂之比。排斥先師學術，不復明於世，剝喪斯文殘脈，人之不仁，胡至此極，誠如前日所喻矣。較諸震賊只好自賊，相萬萬也。吾弟失輕重之權也審矣。或討或否，豈非矛盾乎？胡不以討震者，施之於金則有之，不以宥金者惠之於震則莫是，杜撰陳臻之引不當矣。程子在上而不與之較者，弟子在下而乃與之辨，是不成道理。生前死後，又自有別辨，其可已乎？向使程子身後，無門人之辨，程子之爲程子，未可知也。孟子於楊墨之辨，獨有如不共戴天之讎，其他未聞也。豈以其忠逆父子之分而辨之加力哉。使金出伎克而奮罵於先師生前，則自有先師在似推詭，瀆告之文在於今日，則在所當辨明矣。吾弟熟讀韓文者。有曰綿綿延延，浸以微滅，於其時也，鼓其邪說而乘之，嗚呼！不仁甚矣。既曰不仁，而又謂之甚，則以其正在危急之地，而惡惡之情，亦復轉切也。吾弟非不知有此，而今日惡惡之情，亦復轉切勢也，非義理何也？先師嘗曰目見父師被誣，而不知辨討者，是刀截而不知痛，此疾之已甚之辭也。事關父師則疾之已甚，乃爲中道無他而以甚則亂也，所引韓歐真劉事誤矣，彼以議論對待，此以侵斥犯上，安可比而同之？使歐而疑繫辭，并疑孔子，使劉而疑中庸註，而并病朱子，一於排斥如金容承之於先師，則韓真豈不以聖門之賊師門之賊討之。而但於無事而已乎？吾弟謂韓歐真劉素執不可苟同，而不同者亦不害爲同爲賢人，比於對金之事。嗟歎以已矣乎，不復見斯人以自當之。吾弟固賢矣，金亦同爲賢人，無復分崩壞亂劍戟之場，免夫慘極之禍，因風想望，只切歎。金之瀆告，不爲先師之累，則先師何以斥退嘉金祭全翁文乎？於瀆告之瀆字，累自可見矣。前書云修立揚名，使天下後世知某之言爲可信者耳。若不如是，則雖多亦奚益哉？此分明宜寡無多之謂，正以吾輩無所修立故也。以前書觀之，則修立爲本，辨誣爲末，今日辨誣爲本，修立爲末，至謂不見察乃至於此，甚庸愧汗。先師於

嘉金祭梅山文，見卽輒辨，不淹晷刻，不遺餘力，豈好多事而然哉？亦必有甚不得已者，存乎其間耳。今之君子，槩以不辨爲是，從以爲之。其亦優勝於前輩而然歟？吾弟亦欲駸駸於此科，心竊悶之。不敢自同於韓眞之處，歐劉所遭，不但議論之小事，實關放過師門之賊之爲大故故也。此亦可以爲反隅之資歟？

황치실 신연에게 보냄 기묘년(1939)

與黃致實 信淵 己卯

상천이 진노하여 이러한 큰 흉년을 내리니 슬프다 우리 어려운 백성들은 어찌 살아갈까. 오호라 하늘이 순수한 성품과 영명(靈明)한 마음을 중생에게 부여했거늘, 지금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성품을 해쳐서 의리를 없애버리고 윤리강상을 무너뜨리고 끊어버려 온 세상이 도도(滔滔)하게 함닉(陷溺)하게 되었다. 유자의 복장과 의관을 하고 성현의 글을 읽는 자들 또한 혹여 더욱 심하기도 하니 어찌 하늘의 진노를 범하지 않겠으며, 다 그렇지는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모두 연좌의 죄과(罪科)에 들지 않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진노를 공경하여 감히 유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유희도 감히 못하거늘 하물며 의를 멸하고 윤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죄를 누우치고 자신(自新)할 바를 생각하지 않으랴. 그러나 세속의 인사는 본디 주관할 수 없으니,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히 급히 돌이켜 구하여 안으로 반성하여 이르기를 “혹여 한 생각 한 가지 일이라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성품을 해쳐 의를 멸하고 윤리를 무너뜨리는 종자가 되어, 끝내는 유속(流俗)과 분별이 없이 도리어 유자(儒者)이면서 더

욱 심한 자로 귀결되지 않는가.”해야 한다. 다 그렇지 않는다는 자들의 반열에 있는 것을 스스로 의지하여 편안하게 무사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현재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진노를 푸는 방도이다. 비록 몇 사람이 조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는 아니나, 또한 필부도 천하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고명한 그대는 어떻게 여기는가.

與黃致實 信淵 己卯

上天載怒，降此大無，哀我癸獨，何以聊生。嗚呼！以純粹之性，靈明之心，賦與衆生，乃今之人，自昧其心，自害其性，以至滅棄義理，敦絕倫常，舉世滔滔，載胥及溺。而儒冠服而誦聖賢者，亦或甚焉，如何不干犯天怒，而其不盡然者，亦皆入於連坐之科乎。詩云敬天之怒，毋敢戲豫，戲豫且不敢，況於滅義敦倫之事，而不思所以悔罪自新乎，然而世俗人事固管他不得，但在吾輩，亟宜反求內省曰：或有一念一事，昧心害性，爲滅義敦倫種子，而終無別於流俗，却同歸於一種儒而甚焉者否。不容自恃參在不盡然之列，而恬然無事。此爲目下恐懼修省敬天解怒之方也。雖非幾箇人之所能朝夕秦效者，亦豈不聞匹夫與有天下責之語乎？高明以爲如何？

황치실에게 답함 정해년(1947)

答黃致實 丁亥

보낸 편지에서 내가 지은 오씨 가문의 문자에 대해 말과 뜻이 곡진하고 조금도 사사로움에 구애됨이 없어 군자의 법필(法筆)이라고 이를 만 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다만

평생 죽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못하고 또한 감히 형식만 본떠서 일시적으로 수응(酬應)할 꾀도 내지 못한다. 저가 정성으로 요구해서 내가 정성으로 부응하였을 뿐이다. 이 때문에 세상의 작가가 지극히 교묘한 생각으로 포장하고 선양하여 그 집안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뜻을 쓰지 않고 의례적인 말만 습용(襲用)하여 단지 이를 바탕으로 글을 팔아 재물을 사는 것을 깊이 미워하는 것이다.

答黃致實 丁亥

示喻以拙作吳氏家文字，爲辭旨曲盡，無一毫拘私，可謂君子法筆，此何敢當。但平生固不能諛墓中人，亦不敢依樣畫葫，爲一時酬應計。彼以誠求，而吾以誠副而已。是以深厭夫世之作家，不極其巧思，鋪張揄揚以悅其人，則又略不致意，襲用例語，只資賣文博貨者也。

김사공 종연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金士兢 鍾淵 丁卯

중립한 자는 오진영의 당여(黨與)가 되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했는데 극히 옳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쪽의 편의를 차지하고 박쥐의 술수를 번갈아 쓰니 그 간사함이 막심하고 그 병폐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성이면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치가 비록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먼저 선입견이 마음에 있으니 끝내 저들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때문에 말하기를 “감동하여 깨친 자는 반드시 식견의 잘못은 비교적 많지만 간사에 관계됨은 비교적 적은 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고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金士兢 鍾淵 丁卯

中立者之鮮不爲震黨，極是極是。此輩人兩占便宜，互用蝙蝠，其奸莫甚，其病難醫。至誠未有不動，雖有其理，此輩則先有物在中，終動他不得。吾故曰其動而悟者，必其見識之失較多，而奸私之係較少者也。未知高明以爲如何？

김사공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金士兢 丁卯

지난 보름 후에 익산 김윤청이 나를 동곡(東谷)으로 방문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길을 돌아 창동으로 왔습니다. 문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후장은 나를 만나겠는가?” 하기에, 내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김씨가 “호남과 영남 양측이 깨끗이 씻고 화해함이 어떤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만약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誣陷)하고 선사의 손자를 압송하고 사림에 화를 끼친 죄를 현동의 묘소에 자복하고, 또한 진주에서 간행한 난본(亂本)을 거두어 물로 세척하고, 싸리를 지고 사우(士友)에게 사죄한다면 혹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이 이미 늦었다. 나의 뜻은 이와 같은데 공론은 또 어떤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나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군요.

與金士兢 丁卯

去望後，益山金允淸訪我東谷不遇，轉至滄東入門曰：後滄見我乎否乎？吾曰欲見我何意？金曰湖嶺兩邊，蕩滌和解如何？吾曰約震泳

服誣先師押師孫禍士林之罪於玄洞墓所， 又收晉印亂本而水洗之，
負荊謝于士友間， 則或可許否， 然事已晚矣。 吾意如何此， 未知公
議之又如何？ 金無所置對而去， 未知鄙言是否？

명찬구 우진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明燦九 宇鎭 癸亥

스승이 서거한 후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요. 공산에 풀이 우
거지고 가을 곡식이 익어 가는데, 어느덧 연사[練事 소상(小祥)]가
지나니 일신의 애통과 천추의 한이 확연(廓然)하여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리 먼 곳의 편지를 받으니 어찌 편지를 읽고 눈물
을 뿌리며 바람을 맞아 정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오호라, 스승을
그리는 애통한 정은 천성이니 천성은 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두
려운 마음으로 각각 자신의 몸을 공경히 하고 상호 면려하여 선사
의 학문을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는 태평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사
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근일 제공의 행위를 보건대
혹 이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의견 차이를 인하여 끝내는
만촉(蠻觸)²¹¹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운기(運氣)에
관계되고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일찍이 그 병통의 근원을
궁구해보니 기를 검속하여 이치를 좇지 못하고, 사사로움을 제거

211 만촉(蠻觸) : 장자(莊子)가 가상한 작은 두 나라 만(蠻)과 촉(觸)을 가
리킨다. 장자의 설명에 따르면, 달팽이의 왼쪽 뿔에는 만씨(蠻氏)의 나
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촉씨(觸氏)의 나라가 있는데, 서로 땅을 다투
며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해서, 이후로 작은 이익이나 일을 가
지고 부질없이 다투는 것을 풍자하는 말로 쓰인다. 《장자(莊子)》〈칙양
(則陽)〉

하여 공정함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공정한 이치가 천하에 행하지 못한지가 오래입니다. 고명께서 스스로 근심하여 천루한 저에게 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닙니까. 요컨대 공정과 이치란 다만 일개 선(善)을 말할 뿐입니다. 마음을 비워 천하의 선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혀 천하의 선을 도우며, 마음을 고르게 하여 천하의 선을 보고 마음을 세밀하게 하여 천하의 선을 살피며 마음을 착실하게 하여 천하의 선을 실천하는 것이 기와 사사로움을 검속하고 제거하여 이치와 공정을 좇고 따르는 공부입니다. 진실로 능히 그럴 수만 있다면 어찌 덕이 나아가지 못할까를 근심하고, 제공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어찌 사도(師道)가 밝지 못할까를 근심하며, 천하 사람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어찌 위육(位育)²¹²을 이루지 못할까를 근심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운기의 관섭(關涉)과 못성품의 고르지 못함을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단지 가만히 자신을 닦아 나의 선을 다하고 나의 덕을 높일 뿐입니다.

만물이 모두 화락하게 되는 기초는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내가 뜻만 두고 이루지 못한 것을 들어 그대에게 드러서 과문(寡聞)한 나에게 묻는 뜻에 부응하니, 즐겨 듣고 깊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答明爨九 宇鎮 癸亥

山哭樑哀，日月幾何？空山草宿，秋天穀升，奄見練事之已過，一體之痛，千載之，廓乎其罔涯也。乃於此時獲承千里書，如之何不攬牋揮淚嚮風馳情也。嗚呼安仰之慟天也，天吾無如之何矣。將恐將懼，

212 위육(位育)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라고 하였다.

各敬爾身，互相勉勵，守先師之學，待必返之天，是爲盡在入之道也。竊觀近日諸公之爲，乃或此之不圖。始因意見之參差，終致蠻蜀之角立，是亦運氣攸關，非人力之致耶。蓋嘗究其病源，由於不能檢氣而從理，祛私而徇公也。噫公理之不行於天下也久矣。高明之所自憂而求之淺陋者，亦非爲是耶？要之曰公曰理，只消道一善字是已。虛其心有以受天下之善，廣其心有以與天下之善，平其心有以觀天下之善，細其心有以審天下之善，實其心有以踐天下之，是乃檢祛從循之功也。苟能爾也，何憂乎德之不進，諸公之能爾也，何憂乎師道之不明天下，人人而能爾也，何憂乎位育之不遂也。雖然運氣之關，衆性之不齊，又非一人之所可如何？只得闔然自修，有以盡吾善而崇吾德焉。萬物一春之基，未始不由我而立矣。區區有志而未能者，舉而呈似，以副問寡之盛，想樂聆而深會也。

명찬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明燦九 丙寅

저옹에 궁검을 통곡하고²¹³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아 또 용어(龍馭)가 승천하니²¹⁴ 태평의 소망이 영원이 끊어졌고 어육(魚肉)의 참화가 장차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이르신 “만산 가운데서 통곡해도 오히려 부족하니 요컨대 구천(九泉) 아래 몸을 묻어야 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바람이나 쉽지 않은즉 오직 3년간 공경히 복상하며 망극한 애통을 풀어낼 뿐입니다. 한 쪽 의론

213 저옹에……통곡하고 : 저옹은 십간 가운데 무(戊)를 가리킨다. 무오년(1918년) 고종의 서거를 의미한다.

214 용어가 승천하니 : 순종의 죽음인 듯하다.

에서 마땅히 복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은 아마도 정미(1907년)에 선양을 받은 것이 따질 만하고 경술(1910년)에 나라를 잃은 것이 폄하할 만 하다고 여겨서 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로 후세의 사가(史家)가 여하히 평가하는 일이지, 본국의 신민(臣民)이 감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송나라 휘종(徽宗)은 오국의 포로였으나 사마 박주변은 제복(制服)을 요청하였고, 남송의 고종(高宗)은 금나라의 신하이자 조카였지만 주자는 세실(世室)을 청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조(仁祖)는 성하(城下)의 치욕을 면치 못했지만 우암(尤庵)과 동춘당(同春堂) 제현이 조의 칭호에 이설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복상반대의 설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미년의 선양(禪讓) 일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원수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상황(上皇 고종)의 강제명령에 꺾박되어 사면할 수 없는 것으로, 일찍이 (황제를) 엿보거나 외람되게 도모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경술년의 일은 패망의 조짐이 점차 쌓여 이에 이르러 결과를 이룬 것으로, (고종)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닌즉 그 이른바 따질 만하고 폄하할 만 하다는 말은 감히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산양과 안락²¹⁵의 일을 인용하여 복상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산양은 땅을 별도로 분봉(分封)받은 것이 15년이고 안락은 온 집안이 낙양으로 옮긴지가 8년이라, 그 구신(舊臣)과 유민이 멀리 떨어져 소식이 통하지 않아 생사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군주가 도성에서 거주하고 궁궐에 남시며 종묘의 향사(享祀)를 폐하지 않고 시종과 신료들도 의구한 것과는 다릅니다. 산양과 안락 두 분의 죽음엔 일체의 신민이 제복하고자 하여도 그 형세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위주(魏主) 조예(曹叡)는 오히려 산양을 위하

215 산양과 안락 : 후한 헌제와 유비의 아들 유선이다.

여 소복을 입고 발상(發喪)하고 시호를 ‘효헌황제(孝獻皇帝)’라고 하였으니, 흉보(凶報)가 도착했다면 어찌 구신과 유민이 제복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선사(先師)의 경우 금일의 의론을 기다리지 않고 금일의 인심을 보지 않고도, 일찍이 3년 복을 마땅히 입어야 한다고 단정하셨으니 군자의 고견(高見)은 원래부터 스스로 정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이르기를 “옛 임금이 이미 흥(薨)하고 새 임금이 이어 조(殂)했다.”고 하였는데, 흥조(薨殂) 두 글자는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두 황제를 폄강(貶降)하는 실수²¹⁶를 느끼지 못한 것이니 급히 고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答明榮九 丙寅

著雍之哭弓劍，日月幾何，又遭龍馭遽賓，庶幾之望，其永絕矣，魚肉之慘，其將至矣。來書所喻，痛哭萬山中，猶爲未足，要之埋身九泉下者，正吾人之願而未易，則惟有虔服三年，以洩罔極之痛而已。一種議論之謂不當服者，似以丁未受禪之可議，庚戌失國之可貶。然此則自有後世秉筆之權衡如何，非本國臣民之所敢道也，是故宋徽宗五國之俘虜，而司馬朴朱弁卽議制服，高宗金人之臣姪，而朱子至請世室，我仁祖不免城下之恥，而尤春諸賢，無異議於祖稱。此可以破其說矣。且也丁未事出於內賊外讐之脅迫，上皇之強命而辭免不獲者，非曾有覬覦冒圖之心。庚戌事，由於積漸之敗亡，至是結局，而非自己以致之者，則其所謂可議可貶者，非惟不敢道，亦不忍道也。或者至引山陽安樂事而證其無服，則有大不然。山陽分地別封者十五年，安樂舉家遷浴者八年，其舊臣遺民，落落隔遠，聲息之莫通，存

216 폄강하는 실수 : 고종과 순종은 황제인데, 흥과 조는 제후의 죽음에 쓰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沒之難的。有異乎今日，吾君之居我都城，御我宮闕，而宗廟享祀之不替也，侍從臣僚之依舊也。則其於山安二公之卒也，雖欲一切制服，其勢難也。然魏主叡猶且爲山陽素服發喪，諡曰孝獻皇帝，則凶報所到，安有舊臣遺民終不制服之理乎？至若先師，則不待今日之商確，不見今日之人心，而早以當服三年爲斷，可見君子高見元自前定也。來喻云舊君既薨，新主繼殂，薨殂二字，出於一時之未思，而不覺貶降二帝之失，亟改之如何？

명찬구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明燦九 庚午

오늘날 예교(禮敎)가 사라져서, 세상에서 돈독한 학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평생 정력을 다하여 의칙(儀則)을 강정(講定)하다가도 사소한 이해에 구애되어 삽시간에 대절(大節)을 어기고 범한 자가 있음은 이 무슨 까닭일까요. 단지 구이(口耳)사이 에 절문도수(節文度數 예의 형식)의 예(禮)만 빙자하고, 일찍이 심전(心田 마음바탕) 위에서 시청언동(視聽言動)을 예에 합치시키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예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네 가지 조목²¹⁷이 도학의 정본(定本)이 되어 잠시라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겠습니다. <소기(小記)>에 이르기를 “삼년상이 있는 자는 두 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삼년상이 아닌 자는 두 번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처자가 없는

217 네 가지 조목 : 공자의 제자인 안연(顔淵)이 인(仁)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답한 네 가지 조항을 말한다. 《論語 顏淵》

경우 궤연(几筵)을 사계(沙溪)의 설에 의거하여 일 년 만에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노비의 삼년복은 본디 본족(本族)의 오복(五服)과 견주어 논할 것이 아닙니다. 수암(遂菴)에게서는 다만 노비의 제사를 삼년 지낸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설이 있는데 온당한 듯합니다.

남계(南溪)가 말하기를 “본생(本生) 조부를 모시며 봉양한 자는 제주(題主)에 종조(從祖)라 한다.”고 하였고, 도암(陶菴)은 말하기를 “본생 조부가 후사가 없으면 사당에 반부(班祔)하고 종부라고 제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본생 조부는 칭호는 종조이고 상복은 대공(大功)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판단하면 삼년복이 없는 자로 출후(出後)한 자식이 3년간 궤연을 받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경호(鏡湖)가 말하기를 “본생가에 만약 남주(男主)가 될 만한 다른 친족이 없다면 출후한 자식이 백부 숙부라고 제주하여, 임시로 그 제사를 섭행(攝行)하고 여주(女主)는 쓰지 않으니 이는 혐의를 분별하고 종통(宗統)을 중시하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출가한 딸이 와서 제사를 주관하고 출후한 자식이나 손자가 3년 상을 섭행하는 것 또한 미안합니다. 하물며 출가한 딸의 상복은 기년에 그침에라.

우암이 말하였습니다. “예에 근거하면 주인이 연고가 있으면 소상과 대상을 지내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은 곡만 하고 변제(變除)한다. 이 날 약간의 제품(祭品)을 기일의 제의(祭儀)와 같이 차린다.” 수암은 말하기를 “부친상의 소상과 대상에서 장자가 병이 들었으면 날을 가려 물려 거행하는 것이 옳다. 이는 정례(正禮)이다.”고 하였습니다. 수암에게는 또 만일 어려움이 있으면 곧 개자(介子)²¹⁸를 뽑아 대행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마땅

218 개자(介子) : 적장자 외의 중자(衆子)이다.

히 우암의 ‘주부가 주인과 함께 동시에 제복(除服)하지 못하면 후 일을 기다려 자리를 설치하여 곡하고 제복한다.’는 설을 방조(傍照)하여, 주인의 병이 나은 후에 허위(虛位)를 설치하거나 혹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제복함이 마땅한 듯합니다.

答明祭九 庚午

見今禮教掃地，世之號爲篤學者，竭其精力，講定儀則於生平，而拘些利害，違犯大節於霎時者亦有之，此曷故焉？只憑節文度數之禮於口耳間，不會向心田上用視聽言動合禮之功爾。益知非禮四勿，爲道學定本，而不可須臾離也，小記曰有三年者，則爲之再祭，觀此則無三年者，不再祭可知也。弟死無妻子者几筵，依沙溪說葶年而撤恐宜。奴婢三年本非可與本族五服比論者，遂菴只有奴婢祭三年未聞之說恐當。南溪曰爲本生祖侍養者，題主以從祖，陶菴曰本生祖無從班祔于廟，以從祖題主。蓋本生祖，以稱則從祖也，以服則大功也。以此斷之，則無三年者而出後子之子，三年奉几筵未穩。鏡湖曰本生家若無他親可爲男主，則出後子以伯叔父題主，權攝其祀，而不用女主，別嫌重統之義，據此則出嫁女來主其祭。而出後子若孫，攝行三年亦未安。且況出嫁女服，只止於葶年也乎。尤菴曰據禮，主人有故，則不得練祥，餘人只哭而變除。是日略設祭品如忌日儀，遂菴曰父喪練祥。長子有病，擇日退行爲可。此皆是正禮也。遂菴又有如難卽差使介子代之說。若然則又當旁照於尤菴主婦不得與主人同除，則待後日設位哭除之說，主人病愈後設虛位，或往墓所，哭而除服恐宜。

한유성 종연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韓有聲 鍾淵 戊辰

예전 음인(陰人 오진영)의 화를 만나 사생(死生)이 닥쳐올 때에 함께 화를 당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찍이 지나며 안부를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대만이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은덕으로 나를 권장해주니 그 풍모가 탁연하여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대의 이런 행위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에 나의 감사함에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청풍이 동남쪽에서 불어오면 문득 '이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운남(雲南) 사시는 분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흠뻑 맑은 바람에 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허공의 실체가 없는 형상임에도 오히려 그대가 있는 곳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뜻을 같이하는 그대의 편지 한통이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음에 어떠하겠습니까? 도를 근심하고 세상일에 번뇌하는 절절한 언사와, 도를 안고 세상을 피하려는 간절한 뜻이 나를 깨우쳐주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기쁘고 마음 트이는 일이 근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옥(獄) 중에서 상서(尙書)를 읽고, 배 안에서 대학(大學)을 공부한다.”라는 말씀은 지금 시절의 의리에 딱 들어맞아서 사람을 잘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자(朱子)가 이른바 “한 숨결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의 게으름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미 설파하여 남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오히려 굶주리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많은 숨결이 앞에 남아있는지 모르면서 세도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라도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 강학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 즐거움이 어떠하신지요?”라는 축하의 말은 그대의 밝은 지혜로도 한 가지 일을 잘못 헤아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즐거움이란 기쁨 이후에 얻어지는 것인데 이미 기쁨이 사라졌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원로들이 모두 떠나고 늙은이 중 여전히 선비의 명성을 띠고 있는 자가 드뭅니다. 그리하여 인가의 자제들 중 서책을 끼고 방황하는 자들이 기약하지 않고 스스로 이르는데 나 또한 오늘날 청년들의 독서가 그 이름만으로도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대처럼 바깥에서 막연히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볼 만 한 자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명성만 있을 뿐 실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믿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배우는 자는 진실한 공부가 없어서 서로가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죄는 만방과 관계가 없고, 만방의 죄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²¹⁹라는 가르침처럼 가르치는 자의 허물은 배우는 자와 관계가 없지만, 배우는 자의 허물은 가르치는 자에게 과오가 있으니 이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학문을 돈독히 하고 지조를 지켜 우뚝 뻗어난 선비가 되어서, 기쁘게도 한 고을의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요사이 학문하는 절도를 자세히 알지 못해 울적해하다가 원기산(元氣山)에 집을 짓고 학생들에게 강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자(朱子)께서 이르시기를 “공자의 덕은 태화원기(太和元氣)”라고 하였은즉 그대가 강론하고 있는 공자의 유훈과 남은 가르침 또한 천지의 원기가 아니겠습니까? 천지의 원기를 원기산에서 강론하고 있으니 사람과 땅이 서로 어울리고 이름까지

219 내 몸의……있다 :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서경》 〈탕고(湯誥)〉

부합합니다. 이는 고시(古詩)에 이른바 “정자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명성이 이미 좋다.”²²⁰라는 것과 진실로 부합합니다. 이제 그 실질을 확충하여 부합시키는 일은 오직 그대의 힘쓰는 여하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상의 진덕수업(進德修業)하는 교수의 과목들을 적어 보내서 나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건대 사람이 사람 되는 실질은 윤리강상(倫理綱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아래로 모두 어두워져 윤리강상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권이 박멸하고, 군신이 평등하며, 이혼하고 스스로 중매하며, 나이가 많아 쓸모없다는 등의 설이 결국 공론(公論)과 상식이 되었음에도 막는 이가 없습니다. 사륜(四倫)이 이와 같으니 봉우유신(朋友有信)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금수가 되어가니 그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기수(氣數)가 변천하여 이적(夷狄)에게 물들어 이처럼 큰 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도 선비라는 자가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금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통함과 근심으로 절반이라도 이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작금의 선비들은 구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삼년상을 틈타 혼례를 행하여 부자(父子)의 은혜를 해치고, 선왕의 법을 범하여 올바른 가정의 시작부터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비단 한, 두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리강상을 무너뜨리고 몸소 금수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이

220 정자……이미 좋다 : 마존(馬存)의 〈연사정(燕思亭)〉 시 중에 “주인은 금 거북 풀어 술 산 노인이니, 정자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명성 이미 아름답네(主人定是金龜老, 未到亭中名已好)”라는 구절이 나온다. 《고문진보》

떨리고 심장이 꺾입니다. 그대 또한 이런 말을 들으면 크게 놀라고 깊이 애통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금일 선비들이 마땅히 강론하여 밝혀야 할 것이 윤강(倫綱), 두 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 말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대 또한 이 뜻을 잘 생각하여 보존하고, 수행하여 행동의 다스림으로 삼으십시오. 또 언어로 삼아 드러내고 저술하여 문장으로 삼으십시오. 나아가 안으로 가정에서 실천하고 밖으로 고을에까지 미치게 한다면 풍속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윤강(倫綱), 두 글자를 하나의 큰 제목으로 삼아서 높이 선창하고 자세히 깨우쳐주어 크게 포상하고 무겁게 폄하(貶下)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도에 많은 도움이 있게 하는 것이고 실로 천지의 원기를 도와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진덕수업의 나머지로 삼고 미루어 나가 학생을 교수하는 과목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저 성리(性理)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윤리강상의 본원(本源)이 되고, 문장의 묘함은 또한 윤리강상의 시용(施用)이 됩니다. 오늘날의 화는 아시아 풍조나 유럽 사조의 동탕함에서 오로지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리설이 밝혀지지 않은 까닭에 어두워졌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윤리 강상의 도가 밝게 행해진다면 마을의 민요마저도 문장의 쓰임이 되는데 흠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리설의 다툼은 도리어 서로 싸움을 초래하기에 이르고, 문장의 기이함은 쉽게 배우의 희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문으로 이름난 선비들 중, 그 상류는 현담(玄談)이나 공리(空理)를 설하여 명목만을 닦고, 그 하류는 교묘하고 화려함을 닦아 꾸미는 것만 힘씁니다. 그리하여 서당의 급한 임무는 윤리 강상의 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대사임에도 여기에 마음을 극진하게 쓰지 않으니 늘 그 점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은근하고 같은 뜻을 가

짐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이 크게 길어졌으니 부디 산만하다고 꾸짖지 마시고 더욱 헤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答韓有聲 鍾淵 戊辰

曩遭陰禍，死生迫頭，同禍幾人以外，未嘗見過而問焉者。惟賢座致書以慰藉之，用德以勸獎之，風義卓然，令人可感。然賢座此時此爲，非以私也，乃以公也，則吾之感之，亦豈有他？時有清風自東南來者，輒曰此吾雲南同人信息也，未嘗不恰然而醉風。是虛空無形之物，猶以其自仙鄉方面而來故，心悅之若是，矧茲一幅華函，實出乎吾同人心畫，而現墜於吾案乎。而切切然憂道憤世之辭，懇懇然抱道遯世之志，有所警發於陋劣者爲多。其所欣豁，蓋比來初事。獄裏尚書舟中大學之喻，可謂切中時義，亦可謂善導人也。然此事約而言之，朱子所謂一息尚存不容小懈者，已道破無餘。今吾輩尙此飢打食困打眠，不知其幾多息在前，安可諉以世道無柰而少懈於自治乎？屏牆有徒，其樂何如之賀？賢座之明，不免一籌錯料。樂由說而後得，既無其悅，安有其樂？但今長德并逝，老蒼而尙帶士名者亦鮮。故人家子弟之挾書彷徨者，不期而自至，吾亦以今日年少之讀書，其名可貴故受之。自外而遙想，其中似有可觀者，然教與學者，皆以其名而不以其實。故上無孚感之動人，下無朴實之用功，可謂胥失之矣。然朕躬有罪，無以萬方，萬方有罪，罪在朕躬，則教者有過，無以學者，學者有過，過在教者，是之愧耳。久知賢座敦學有守，蔚爲秀士，充然喜一方之有恃。然猶以未悉近日爲學節度爲鬱，茲承結屋元氣山中，與朋徒講貫，朱夫子謂孔子之德爲太和元氣，則卽此賢座所講孔子之遺訓餘教，亦非天地元氣乎？講元氣乎元氣之山，人地相得，名與之符。是則古詩所謂未到亭中名己好者，充其實而符之，惟在賢座自勉之如何。何不并以日間進德修業牌下教授課目而示之，使膚淺者有所取法也？竊惟人所以爲人之實，以倫綱在也。見今上黜下瀆，倫喪綱墮。親權撲

滅，君臣平等，離婚自媒，年多不用等說，遂成公論常式而莫之遏。四倫如此，友道之信，尤不待言矣。人而禽獸，慘不可說也。噫！氣數變嬗，夷狄染化，致此大禍。爲士者無位無權，無可禁之術。其憤痛憂惻，思所以救得一半分之心，豈得已乎？乃或近日之爲士者，不惟無思救之心，甚而至於乘三年之喪而行婚嫁，賊父子之恩，犯先王之法，乖正家之始者，不但一二數焉。其與於喪倫墮綱而身親爲獸行，莫大於此。而所謂是可忍孰不可忍者，聞見所及，不覺膽掉而心折也，賢座聞此，得無大驚深痛者乎。吾故曰今日士子之所當講明者，倫綱二字是已。賢座如不以鄙言爲非，請自存之爲思慮，修之爲行治，發之爲言語，著之爲文字，以至內而用於家庭，外而及於鄉黨，大而化之風俗。另以倫綱二字，立一大題目，高唱細喻，大褒重貶。使世道得有多少裨益，寔扶植天地元氣之道也，以此爲進德修業之餘，推而作教授朋徒之課目，如何如何？若夫性理之奧，雖爲倫綱之所本源，文章之妙，亦爲倫綱之所施用。然今日之禍，謂不專由於亞風歐潮之動盪，而以性理說不明之故，則疑若迂矣。苟倫綱之道明行，里巷謠諺之作，亦足爲文章之用而無欠矣。而況性理之爭，反致戈戟相尋，文章之奇，易歸俳優作弄乎。而今之士之號爲學問名家者，其上者談玄說空，名目之是競，下者騁巧鬪靡，雕繪之是勤。至於堂下急務，扶植倫綱元氣一大事，不甚致意焉。此尋常慨歎于中者，茲於俯詢之勤，感聲氣之密邇，不免發之太長，幸不諒以冗蔓而加諒否。

양극명 병회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楊克明 秉晦 辛酉

그대의 선조인 백수(白水)선생은 일찍이 우리 고을의 선덕(先德)

임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덕을 고찰하고 상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신께서 《백수유집(白水遺集)》을 보여주셔서 더욱 명리(名理)의 설과 돈실한 행동이 진실로 천문(泉門)²²¹의 고족(高足) 뛰어난 제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가 받들어 다 읽고 나니 저의 어리석은 견해를 깨우쳐줌이 많아서 감사하고 다행스러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감의 일은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옛사람들은 “교정자의 안목이 반드시 작자의 안목보다 높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실질적인 말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미 스승의 명이 있었으니 제호어로(帝虎魚魯)의 변별²²²에 대해서는 어찌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문과 발문에 이르러서는 그대가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을 버리고 누구를 향하겠는가?”라는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선생님은 비록 한계가 엄격하시지만 지극한 정성이라면 금석 또한 뚫는데 이를 것입니다. 또 이 문장은 일반적인 요구와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끝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그대의 진실한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타인에게 의지할 것이 없으니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答楊克明 秉晦 辛酉

尊先祖白水先生，昔嘗聞知爲吾省內先德。竊恨無由考德而尙論。頃蒙示以遺集，益知名理之說，敦實之行，允爲泉門高足。謹奉卒業，有以啓發味見者多，感幸何已。校讐之役，鄙何敢當？古人云校正者之眼目，必高於作者之眼目，乃得濟事，此眞實際語也。雖然既有師

221 천문(泉門) : 한천(寒泉)의 문정(門庭)이라는 뜻으로 이재(李穡, 1680~1746)의 학파를 뜻한다. 한천은 그의 호로 그는 조선 후기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이다.

222 제호어로(帝虎魚魯)의 변별 : 제호어로(帝虎魚魯)는 초서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들다. 이를 변별한다는 것은 교감을 의미한다.

命，帝虎魚魯之辨，則安敢不效力也？至於序跋，高明所喻，舍吾先生而向誰者，誠得之先生之鐵限。雖嚴至誠所到，金石亦透。且此文字，有異於恒例酬應，則豈有終不遂願之理乎？此則惟在高明誠力如何，非他人所得與也，惟諒裁焉。

양극명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楊克明 癸亥

오늘 동짓날 그대의 편지를 받고 학업과 밝은 덕이 아울러 빛나고 분수에 따라 깊이 독서하시어 여행 중에도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음을 알고서 나의 마음에 족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계구(戒懼)하는 것이 부족하고 작은 사특함을 제거하기 어려워 날로 허물이 쌓인다.”라고 근심하시었는데 그것이 곧 공자가 말한 극기(克己)이고, 맹자가 말한 구방심(求放心)입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꿰뚫으면 우리는 능히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벗은 간절히 그것을 근심하시니 스스로 기약한 제이등인을 범치 않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것을 듣고 기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나를 쫓아 절차탁마하겠다는데 이르러서는 구익(求益)을 급히 하여 먼저 외(隗)로부터 시작한다는²²³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비록 내 몸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찌 감히 끝내 침묵하여 그대의 은근한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오호라! 기(己)는 사사로움입니다. 한번 사사로움이 행해지면 억만의 선행이 사라지고 그것을 몸에 두면 몸이 망하고, 가정에 두면 가정이 망하고, 국

223 외(隗)로부터 시작한다 : 선종외시(先從隗始)의 의미이다.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가에 두면 국가가 망하고, 천하에 두면 천하가 망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성인 안자(顔子)께서 일삼은 것이고 정자(程子)께서 경계하신 것으로 그와 같이 명백한데도 저 어두운 이들은 일찍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게 그 욕망을 따르는 자들은 그만이라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간이 사공(事功)에 뜻을 둔 자들도 가정, 국가, 천하에 급급하여 예(禮)가 아닌데 움직이고, 의(義)가 아닌데 일삼는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비록 요행히 일을 이루고 공(功)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실한 덕을 잃고 성현의 법문(法門)을 잃은 것이니 도리어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동중서(董仲舒)가 이른바 “그 의만을 바르게 행하고 그 이익은 꾀하지 않는다.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은 계산하지 않는다.”²²⁴라는 두 마디가 족히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극기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안회(顔回)는 그 마음에 삼 개월 동안 인(仁)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 이후에는 때때로 인을 어기는 것을 면치 못한 즉 이는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이를지나 더 나아갔다면 변화해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맹자께서는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그 놓친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방일자자(放逸自恣)한 것이 방심(放心)임을 알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합리(不合理的)한 것이 방심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는 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記)에는 구용(九容)²²⁵

224 그 의만을……않는다 : 동중서는 천인책(天人策)에서 “대개 인인(仁人)은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이익은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은 생각지 않는다.[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漢書 卷56 董仲舒傳》

225 구용(九容) : 군자가 수신하는 아홉 가지 몸가짐으로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바르게, 입은 신중하게, 말소리는 고요하게, 머리는 똑바르게, 숨소리는 고르게, 설 때는 의젓하게, 낮빛은 단정하게 한

이 있고 어(語)에는 구사(九思)²²⁶가 있습니다. 구용을 갖추어 불면 이중(不勉而中)에 이르고, 구사를 갖추어 불사이득(不思而得)²²⁷ 이룬다면 그것이 곧 구방심(求放心)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부도(道)와 의(義)에 힘쓴다는 동중서의 훈계와 구용(九容), 구사(九思)의 방도에 뜻을 더한다면 전날의 근심이 족히 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는 모두 생각을 분별하고 행동을 독실하게 하는 일이니, 이에 앞서 박학심문(博學審問)의 공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벗처럼 천분이 약간 노둔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편지 중 “가난하여 유학할 수 없는 이 상재(傷哉)의 탄식²²⁸은 어찌하겠습니까?”에 이르러서는 천고지사의 눈물을 떨구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천명이 있으니 분수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이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힘써 행한다면 일이 절반은 넘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총명예지(聰明睿知)는 모두 경(敬)으로부터 나온다.”²²⁹라고 했으니 이는

다.[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禮記 玉藻》

226 구사(九思) : 군자가 생각하는 아홉 가지로 “볼 때는 밝게 보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밝게 듣기를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할 때는 충성되기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집중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날 때는 문기를 생각하고, 분노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을 것을 보고서는 의리를 생각한다.[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논어》〈계씨(季氏)〉

227 불면이중(不勉而中), 불사이득(不思而得) : “성(誠)의 경지에 이르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과불급(過不及)이 없고,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터득해서 자연히 도에 합치되는데, 이런 분이 바로 성인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중용장구》〈제20장〉

228 상재(傷哉)의 탄식 : “가슴 아프구나! 살아서는 봉양도 제대로 못했고, 죽어서는 예를 갖추지도 못하였네.[傷哉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也]” 《예기》〈단궁 하(檀弓下)〉에 나오는 말로 가난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다

229 총명예지(聰明睿知)……나온다 : “총명예지가 모두 이 공경으로 말미

모두 우리 벗의 분수에 들어맞아서 수용해야할 훈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나이 40에 성취도 없이 또 세모를 맞이하여 다만 형주(荊州)자사 도간(陶侃)의 “살아서는 무익하고 죽어서는 알려짐이 없다.”라는 한 구절을 쓸쓸히 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세간에 남겨두어 후진들에게 전거(前車)의 거울이 될 수 있다면 또한 무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答楊克明 癸亥

卽承南至日惠函，知學體有相，與陽德并昭，隨分劇讀，不以旅遊而少弛，已足以慰相愛者心。又進而憂戒懼之未實，隱慝之難除，尤悔之日積，此正孔子所謂克己，孟子所謂求放心。透此一關，吾人之能事畢矣。吾友切切然惟是之憂，其不犯第二等人自期者斷斷矣。聞此而喜，幾乎不寐。至於欲從淺陋而淬礪之，則亦可見急於求益，先從隗始之意也。顧雖躬之不逮，安敢終於嚙嘿以孤勤意乎？嗚呼！己者私也。一私之行，億萬衆亡矣，在身亡身，在家亡家，在國亡國，在天下亡天下，豈不畏哉？顏聖之所事，程子之所箴，若是其明切，而彼昏狂之曾不念知。而甘循其慾者，已矣不足道，間有有志事功者，急於家國天下，不暇恤於一動之非禮。一事之不義，雖其幸而事成而功立，其亡己之實德，亡聖賢之法門，則顧不大歟？要之董子所謂，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兩語，足以爲究竟法，此豈非克己之極致乎？孔子曰，回也其心三月不違仁，三月之後，不免有時乎違仁，卽此是心之放也。過此以往，乃化之之聖也。故孟子曰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人皆知放逸自恣之爲放心，而不知心之少不合理者，卽是放也，求之之道，當如何？記有之曰九容，語有之曰九思，

암아 나오니, 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상제에 제항하는 것이다.[聰明睿知 皆由是出, 以此事天饗帝.] 《논어집주》〈헌문(憲問)〉

九容而至於不勉而中，九思而至於不思而得，則此豈非求放心之極致乎？幸於道誼之訓，二九之方，加之意焉，則向之所憂者，不足憂矣。雖然此皆思辨行篤之事，前此有博學審問工夫。而如吾友之天分稍魯者，最不可闕。其於貧無以遊學，何此傷哉之歎？所以墮千古志士之淚也。然亦有命焉，不可分外求之。古人云但於己知處，力行之，則思過半矣，又曰聰明睿智。皆由敬出，此又爲吾友分上適中受用之訓也，如何如何？澤述四十無成，又此歲暮，怛然而傷心，只誦陶荊州生無益死無聞之句耳。然留此物於世間，作後進前車之鑑，則亦不爲無益也耶。

양극명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楊克明 戊辰

편지를 받고 그대 선조의 문집이 인출된 곡절을 다 알았습니다. 세상사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열에 여덟, 아홉은 된다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저도 전일에 원대하지 않은 견해로 정력을 망령되이 허비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한들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발문은 간행된 판본에 넣어서는 안 되고 변란 후에 스스로 교정한 것을 인증하여 본 초고에 회송하시는 것이 참으로 옳을 것입니다. 대저 이 일은 그대가 궁핍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니 정상(情狀)과 사실이 보지 않아도 불 보듯 합니다. 일이 잘못된 것이 그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도 어찌 어른을 끊었다는 죄로 스스로를 질책하시는지요?

答楊克明 戊辰

承書備悉尊先集印出曲折。所謂世間事不如意者，十常八九者此也。鄙之前日以不遠之見，妄費精力者，至今追悔莫及。所撰跋語，不可使入印本，而自證校正於變亂之後，本草回送，至可至可。大抵此事，總由高明貧乏，不能自主致然，情狀事實，不見若火。事不由高明，何可以絕長者之罪，自訟哉？

양극명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楊克明 庚午

그리워하던 차에 받은 편지 한통은 백봉(百朋)도 어찌 이보다 값지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물음이 있었는데 답이 없으니 아마도 저를 버리셨네요?”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버린 것이 부끄럽고 무거워 천금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상자를 열어보니 과연 봄에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신 가운데 나를 일깨우는 말이 있어서 곧바로 답장을 썼을 터인데, 지금 무슨 말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답장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망망하여 답장의 유무를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자질이 혼약하여 50이 되기도 전에 정신이 막히고 혼미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가련히 여겨 용서해주시고 노여워 마십시오. 비록 그러하나 나의 어두움은 자질의 병이지 몸의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땅히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대가 말씀하신 병은 자세히 헤아려보니 곧 몸이 받은 절실한 병폐로 다스리지 않으면 낫지 않고, 약을 쓰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

나 다스림은 심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만 급히 도모하는 것의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통쾌하게 보고 통쾌한 말을 들어서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오(吳)객, 태자(太子)의 고사²³⁰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찌 <7계(七啓)>²³¹의 수단이 있겠습니까? 그만두지 않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금강산을 노닐었는데 비로봉(毗盧峯)에 올라서 창해를 굽어보니 마치 작은 연못 같았고, 저 열도(列島)에 웅거해서 각자 주인 노릇하는 이들은 작고도 작아보였습니다. 구룡폭포를 보니 천장길이의 흰 비단에 만곡(萬斛)의 진주인양, 멀리서 바라보니 눈을 놀라게 하였고 가까이서 바라보니 정신이 혼미하여, 진실로 천하의 장관이었고 평생의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칠칠(崔七七 최북)²³²의 광우(狂愚)함을 비웃었으나 또한 그 절속(絶俗)함을 찬탄하였습니다. 또 정양사(正陽寺)에 오르니 만이천봉이 모두 반쯤 얼굴을 노출하여 운하가 걷히고 펼쳐지는 가운데 출몰하였습니다. 아침저녁의 변화가 황홀하여 기이한 형상을 형용하기 어려웠는데, 우암 송시열의 “산과 구름이 함께 흰색이라, 구름인가 산인가 구분하기 어렵더니. 구름은 돌아가고 산만 우뚝하니, 일만이천 봉우리로다.”라는 시가 거의 잘 비유

230 오(吳)객, 태자(太子)의 고사 : 한(漢) 나라 매승(枚乘)이 오객(吳客)과 초 태자(楚太子)의 문답 형식으로 지은 ‘칠발 팔수(七發八首)’에 광릉(廣陵) 곡강(曲江)에 이는 파도의 장관을 멋지게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文選》

231 7계(七啓) : 문체의 하나로 위(魏) 나라 조식(曹植)이 지은 글이다. 이러한 문체로 칠발(七發), 칠격(七激) 등의 명문이 있다. 자연의 장관을 멋지게 묘사하여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32 최칠칠(崔七七) : 최북(崔北)이다. 칠칠은 최북이 자신의 이름 ‘북(北)’자를 파자한 것이다. 술과 유람을 매우 좋아하여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에서 술에 취해 “천하의 명인(名人)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名山)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일화가 전한다. 《金陵集 卷13 崔七七傳, 韓國文集叢刊 272輯》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산을 떠나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니 하얗기는 한겨울의 눈을 뒤집어쓴 것 같았고, 뾰족하기는 연꽃이 물위에 솟은 것 같아서 깨끗하고 맑고 상쾌하여 반점의 티끌도 보이지 않아 사람의 심신(心神)을 깨끗하게 씻어줌이 무릇 인간세상의 슬픔과 번뇌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에 씻어 내렸습니다. 고질병이 든 자가 금강산을 맞이한다면 그 고질병이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 오객(吳客)이 광릉의 파도를 가지고 비유를 설파한 것과는 다르니 그대도 그럴 뜻이 없지요? 발과 눈이 이르는 것을 갑자기 실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마음으로 그 청쾌한 기상을 상상하여 그대의 가슴 사이로 흘려보낸다면, 아마도 신기(神氣)가 평안해짐을 느낄 것이니 무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견해는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答楊克明 庚午

懸念頭一書，百朋何足多也。但有問無答遐棄等語，愧負之重，又千金反輕也。發視舊筭，果有殷春書。而語多警發，想必隨即修謝，而今不記將何語奉答，則亦無有乎爾否。追想茫茫，莫辨有無，生稟昏弱，未五十而精魄之遁已若此，可哀恕而勿怒也。雖然賤子之昏，質病非身病也。只當自治，治亦未易。細審所示美慎，乃肌膚所受切近災者，不治不瘳，不藥不治，治亦不甚難，只在亟圖之如何爾。見快事聞快語以祛之，亦或一道。高明之求我以吳太子故事者，以此也。然僕安有七啓手段耶？無已則有一焉。僕曩遊金剛山矣，上毘盧之峰，俯視滄海，小若曲沼，彼雄據列島而各伯者，又小之小者也。觀九龍之瀑，千丈白練，萬斛眞珠，遠望駭眼，迫視眩精，眞天下壯觀，生平快事。笑崔七七之狂愚，而亦歎其絕俗。登正陽之寺，萬二千峰并露半面，而出沒於雲霞卷舒中。朝暮變幻，奇形莫狀，宋尤菴山與

雲俱白，雲山不辨容，雲歸山獨立，一萬二千峰之詩，差可謂善喻也。離山而遠，通看全體，則皓皓若大冬之封雪也，尖尖若芙蓉之出水也，潔淨明爽，不見半點埃氛，令人心神灑落。凡世間諸相可悲可惱者，并不覺一時消下。使有沈痾者當之，其祛體也必矣。此又皆實事，而非如吳客廣陵濤之設諭者，高明其無意乎。足目之到，如難猝辦，先須心到，想其清快氣像，而流注於胸隔間，則庶覺神氣平怡，不爲無益矣。未知雅見以爲如何？

양극명에게 보냄 경진년(1940)

與楊克明 庚辰

옛날 현자는 난세를 만나면 깊이 은둔하거나 멀리 떠나서 끝내 화를 면했습니다. 예컨대 하복(夏馥)이 임려산(林慮山)에서 나무를 가옥으로 삼은 것과²³³ 신도반(申屠蟠)이 양탕(梁瑒)지역에서 자취를 끊은 것²³⁴ 등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절임에도 여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다만 그대는 날이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분연히 해냈으니 어찌 그리 용감하신지요? 올 여름 풍우로 그대의 정원에 감과 밤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이 이것조차도 한미한 선비의 먹을거리로는 사치라고 여겨서 그것을 덜고자 했는가 하여 웃어봅니다. 나 또한 덕유산과 두류산, 두 산 사이에 뜻을 둔

233 하복(夏馥)……것과 : 하복은 후한 때 사람이다. 영제(靈帝) 때 국정의 잘못을 거침없이 말했다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환관들의 미움을 사 체포령이 내린다. 이에 성명과 모습을 바꾸고 임려산(林慮山)에 들어가 품팔이꾼이 되어 살다가 죽었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夏馥》

234 신도반(申屠蟠)……끊은 것 : 은사인 신도반은 한나라가 쇠퇴해지던 것을 보고 양탕(梁瑒) 지역에 자취를 숨기고 은둔하여 살았다. 《後漢書 卷53 申屠蟠列傳》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한스럽게도 늙어서 이미 농사지을 힘도 없고 자손 또한 따르는 이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는지요? 한갓 간절히 그대를 부러워할 뿐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 또한 선비가 변란에 처하는 것이니 이치를 궁구하고 식견에 전진하여 몸을 완성하고 세상을 선하게 하는 유업(儒業)의 성취를 어찌 잠시라도 잊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름지기 성인의 훈계인 “즉이학문(則以學文)”에서 즉(則)자의 뜻을 체인하여 농사짓고 나무하는 여가에 부지런히 서적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로 성실하게 공부하여 얻은 것과 의심나는 것을 풍(風)편에 보여주시어 강론상장(講論相長)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與楊克明 庚辰

古之賢者，遭亂世，深藏遐舉，卒以免禍。如夏馥之林慮樹屋，申屠蟠之梁碭絕迹。今其時也，而尙屬晚矣。惟賢不俟終日，奮然能之，何其勇也？今夏風雨，貴園柿栗想大損，豈天以此謂寒士食侈而欲減之耶，奉呵奉呵，僕亦留意德裕頭流兩山之中久矣。但恨老矣，既不能服田，子孫又無可從者，柰何柰何？徒切健美而已。雖然此皆士之變處，處變則然，而至於窮理進識，用究成身淑世之儒業，何可須臾忘也？望須深體聖訓則以學文則字之意，耕樵餘力，勤親簡編。日有慥慥，以所得所疑，因風示及，資講論相長之益如何？

최여중 태일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崔汝重 泰鎰 丙寅

근래에 비로소 그대가 봄날 용동(龍洞)의 간소(刊所)에 답한 편

지를 얻어 읽어보니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며, 뜻이 간곡하고 의리가 엄격하며, 문장 또한 넓고 넓어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그대의 진취와 수립이 이와 같은 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대를 언급하여 “못사람들이 바야흐로 머리를 움츠릴 때에 서검(書檢)의 화를 함께 하였고, 동문들이 서로 무관심할 때에 제일 먼저 환난에 달려와 이치에 근거해 사람을 질책하여 스승을 어긴 죄를 바로잡아 시비(是非)를 드러내었고, 바른 도(道)로써 아버지를 깨우쳐 공사(公私)의 슬픔을 극진히 하니 예제(禮制)가 밝아졌다. 그러니 근자의 선비들 중 실제 학문에 힘쓰는 것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보았다.”라고 말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 않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대의 평소 자질은 겸손하고 겸손하여 말을 몸에서 내지 못하고, 몸이 옷을 이기지 못하는 자와 같지 않았던가요? 말없이 몸소 실천하는 것이 만석군(萬石君)²³⁵의 순수한 자질이며, 말 많은 자가 덕이 없다는 것이 공성(孔聖)의 지극한 훈계입니다. 자장(子張)의 기세당당함은 함께 인을 행하기 어렵고²³⁶, 신정(申枏)의 분노는 강함이 될 수 없다는²³⁷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대저 하늘이 사람에게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을 부여했으니, 비록 신명에 통하고 사해를 빛

235 만석군(萬石君) : 석분(石奮)은 한 경제(漢景帝) 때의 대부(大夫)인데 공경과 근신으로 이름이 높았다. 네 명의 아들이 모두 현달하여 만석군(萬石君)으로 불리었는데, 자식들을 훈계할 때 밥상을 마주한 채 가만히 먹지 않고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를 책망하며 사죄하였다고 한다. 《史記》〈卷103 萬石君列傳〉

236 자장(子張)…어렵고 : 자장은 춘추 시대 전손사(顛孫師)의 자이다. 《논어》〈자장(子張)〉에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당당하구나, 자장이여! 함께 인(仁)을 행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237 신정(申枏)…없다 : “공자가 ‘나는 아직 강(剛)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자, 혹자가 ‘신장(申枏)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신장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니, 어찌 강일 수 있겠는가.’ 하였다.”라고 하였다. 《論語》〈공야장(公冶長)〉

나게 하는 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면의 일에 불과하여 본래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기욕(氣欲)에 가려져 그 본성을 상실한 자가 많습니다. 고로 아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효자를 기리고, 군주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신을 포상합니다. 만일 오늘날 유적(儒籍)에 이름이 들어있는 자들이 모두 의(義)를 따르고 예(禮)로 행동한다면 그대가 비록 현명하다 해도 누가 그대를 이같이 특별히 공경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그대는 더욱 힘써서 순수지선의 성분을 확충하여 대덕(大德)의 성취를 기약하고, 소성(小成)에 안주하지 말아서 오늘날의 선비 가운데 돈실한 학문을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와 일찍이 동사(同社)에서 교학상장의 의가 있었기에 무릇 다른 동문들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대의 선을 보고 기뻐하여 나도 모르게 세세히 여기에 이르렀으니 깊이 진심을 헤아려 주리라 생각합니다.

與崔汝重 泰鎰 丙寅

近始得哀春間所答龍刊書，讀之名正言順，意懇義嚴，文章亦恢恢然有地步，不圖哀進就修立之如許也。日者鄙與人語及於哀曰，書檢同禍於衆方縮首之時，首先急難於同室越視之際，據理責人，正違師之罪，是非以著，以道喻親，盡公私之哀，禮制以明。近日衿紳中，實地敦學，吾於斯人見之矣，聽者不以爲不然。蓋哀之素質，非謙謙然言若不出身若不勝者乎？益信不言躬行爲萬石君淳質，而有言無德爲孔聖之至訓。子張之堂堂，難與爲仁，而申枏之悻悻，未得爲剛也。夫天既賦人以純粹至善之性，雖通神光海之德，究不過分內事，本非異事。但爲氣欲之蔽，而喪失其性者多矣。故以其有不愛其親者也，而孝子旌以其有不敬其君者也，而忠臣褒。如使今之托名儒藉者，舉皆由之以義，動之以禮。哀雖賢，誰敬異之若此哉？惟哀勉之，充盡性分，期就大德，毋安小成。而作今士中敦實學也，鄙於哀，曾有同

社相長之誼，非比凡他同門故，見其善而喜，不覺縷縷至此，想深諒實體也。

최여중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崔汝重 癸酉

‘흑치(黑薙)의 재앙’²³⁸에 보는 것마다 마음을 상하니 말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이른바 “복장을 변하게 하는 것이 장차 제도까지 변하게 하여 오랑캐 세상으로 몰아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밝은 견해입니다. 저들이 색깔 옷을 조선의 옛 제도라 하여 권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를 거짓으로 유인하는 술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나라의 옛 복식이라 하여 따르는 것은 크게 생각이 밝지 못한 것입니다. 무릇 이 백의(白衣)는 고례(古禮)를 고찰해보아도 정색이 아니요, 국전(國典)을 참고해 보아도 숭상할 것이 아니어서 본래 구구하게 이것을 지켜야 할 이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시국이 바뀐 후 저들에게 심복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색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자(箕子)도 백색을 숭상하여 수천 년의 유풍이 되었으니 족히 천하만국에 떳떳함이 되고 훗날 양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편지에서 “구한말의 유족(遺族)이 희미한 잔영으로 남고 오직 백의(白衣) 두 글자가 있는데 저들은 통쾌하게 아울러 말살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한 나의 말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질책할 것이 없고

238 흑치(黑薙)의 재앙 : 서양문물이 밀려들어오면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단발령과 검은 서양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던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 유자(儒者)된 자들은 죽음이 있을 뿐 어찌 차마 따르겠습니까? 오언절구 시의 비분한 묘사와 굳센 맹서는 세 번 반복하여 읽고 난 후에도 감격이 그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문득 보내온 시운을 따라 나의 뜻을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같은 뜻이기에 시가 이루어져도 다른 언사가 없으니 어찌 꼭 보위(步爲)할 것입니까? 비유컨대 새장에 갇힌 새가 서로 슬프게 호소할 따름이니 도리어 맥없이 웃습니다. 근자에 우리들 중 시에 뛰어난 자는 그대만한 자가 없습니다. 묘사가 정밀하고 결속이 견고하여 환히 빛나고 엄숙하게 올려서, 나는 실로 눈을 부릅뜨고 뒤쫓을 뿐이니 지적해 달라는 부탁은 논할 것이 못됩니다. 다만 시(詩)의 도(道)는 귀결점이 완순자적(婉順自適)에 있습니다. 그대는 현재 시의 용공이 비록 이와 같더라도 구경일착(究竟一着)에 종사하는 것을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각초절(鑱刻峭絶)한 뜻은 넘치고 우유부진(優遊不盡)한 흥취가 적을까 두렵습니다. 비록 그러하시든 작은 도(道)이니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 가운데 “처음 뜻을 저버릴까 근심한다.”라는 공부초지(恐負初志) 4글자로 이는 사람의 심목(心目)을 깨웁니다. 생각건대 근자의 동지들 중 나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으로 가히 믿을만한 사람은 희숙(希淑), 자유(子由), 그대, 그리고 여안(汝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안은 목숨을 부지하는 데도 힘이 넉넉지 않으니 어느 겨를에 학업을 다스리겠으며, 자유 또한 빈궁하여 진덕수업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직 희숙과 그대만이 다행히 이런 근심을 면하여 학업에 힘쓸 수 있는데, 희숙은 바야흐로 순풍에 돛단 듯 그 나아감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공부초지(恐負初志) 4글자를 그대에게서 얻어 이 학문이 사망하는 날에 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욱 견고함을 우려할 수 있으니 어떤 기쁨이 이와

같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뜻을 저버릴까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 만이거니와 진실로 저버릴까 근심한다면 처자의 허물이 어찌 그대를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속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덕에 나아가고 뜻을 지키는 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이 묶여 자주 사우(師友)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근심으로 삼는다면 옛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힘을 써야지 타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자주 만나고 덜 만나는 일을 급급해하겠습니까? 대개 공(慤) 한 글자 가운데 무한한 공부가 들어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인의 우근척려(憂勤惕慮)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공부하는 절차는 그대 또한 마땅히 알고 있을 터이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모으고 뜻을 더하는 여하에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答崔汝重 癸酉

黑薙之禍，觸目傷心，言之不忍。來喻所謂變黑將爲變制，而驅之於左衽者，眞明見也。彼以色衣謂朝鮮舊制而勸之者，固詐誘我人之術也。我人之亦以爲故國服用而從之者，何見義之不明也。蓋此白衣，考之古禮而非定色。參之國典而非所尚，本無區區守此之理。但在今日，則爲換局後不心服之特色。而亦箕聖尙白，數千年之遺風，足以有辭於天下萬國。而爲他日陽復之基。是其關係，豈不重大且大歟？來喻所謂舊韓遺族，迷痕殘影，惟有白衣二字，而彼快於并滅者，亦吾言也。餘人可無責，爲吾儒者，有死而已，何忍於從之也？五絕詩悲憤之寫，剛毅之誓，三復以還，令人感激無已，不覺輒步來韻以示志。然要之彼此一志，詩成而無他詞，亦何須步爲？誓如籠鳥之相呼以訴悲爾，還呵還呵，第近日吾黨中工詩者，無如賢者，模寫精切，結束緊固，燁然而光，鏘然而鳴，吾實瞠乎後矣，斤正非所論。但詩

之道，歸在婉順自適。今賢者見在用工，雖不得不如此，然有事於究竟一着，不可不念。不爾恐鑱刻峭絕之意勝，而少優遊不盡之趣耳。雖然，詩是小道，亦何足說？最是書中恐負初志四字，醒人心目，念此近同志中。年下余而可恃者，非希淑子由與賢者及汝安乎？而安弟救死不贍，奚暇治業，由亦貧窮，恐妨進修。惟希與賢者，幸免此憂，可以有爲，希方順風張帆，其進難量。而今又得此四字之喻於賢者，可仰守道之心彌堅於斯文喪亡之日，何喜如之？雖然，吾則以爲如不恐負則己，苟能恐負，妻孥之累，烏得以羈絆之？不惟不得以羈絆，正所以爲進德酬志之地也。如以絆身而未得頻從師友爲憂，則古人又有須用己力難仰他人之語。亦何必切切於頻踈之間也？蓋恐之一字中，有無限工夫在。究而論之，聖人之憂勤惕勵，亦不過此。其間工程節度，在賢者亦當爲己見昭陵。茲不縷陳，惟在會心加意之如何爾。

최여중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崔汝重 甲戌

자유(子由)의 죽음은 참혹하여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이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거꾸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대의 말씀과 같습니다. 부음을 듣고 처음에 비통함이 가슴을 메워 자리를 설치하고 바라보며 통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내일 장례식에 참석하여 스스로 한번 통곡하려고 오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임시 매장하여 혼백을 모셔놓은 자리조차 없었으니 어느 곳에서 슬픔을 뿜겠습니까? 그리하여 곧바

로 신주를 설치하게 하고 신주가 설치되면 곡을 하려고 했는데, 신주가 설치되는 사이에 참석한 빈객들과 안부를 주고받다보니 슬픔을 잊어서 곡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있어 다시 조문을 갖추어 묘로 가서 곡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저 자유는 도(道)를 구하고 학문에 뜻을 둬서 어찌 그리 절실한지 늘 “오늘날의 풍조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금일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를 말살하고 저놈들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목제(默齋)거사김군자유지구(柩)”²³⁹라는 10글자를 명정(銘旌)에 써서 그 뜻을 선양하고 나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데도 할 수 없으니 한탄을 그치지 못합니다.

答崔汝重 甲戌

子由不淑，慘不忍言。福善禍淫，倒行逆施，誠如所喻。聞訃之初，悲慘填胸，欲設位望哭。旋思明當會葬，自當一慟，今不必爾，孰謂其業已藁葬？又無靈筵洩哀之所乎，即使之設靈，靈既設一哭而歸，然設具之頃，不免與衆賓寒暄酬答。哀散而不能成慟，追思歉然，更當操文哭其墓爾。念渠求道志學，何等切實，常謂當此風潮，可恃者此人，今焉至此。天欲抹殺此道而爲時輩報仇也，痛哉痛哉！欲以默齋居士金君子由之柩十字爲書銘旌，闡其志表我心，而不可得，歎恨不能已也。

239 목제(默齋)거사 : 자유(子由)의 호가 목제(默齋)이다.

최여중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崔汝重 乙亥

무릇 사우(祠宇)는 서원이라 통칭하는데, 서원은 본디 독서 때문에 이름을 얻은 것이고, 독서는 의리를 강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강학하는 곳이 있고, 그 강의하는 것은 선현의 도(道)입니다. 이제 무함(誣陷)하여 인가를 내고 원고를 고쳐서 선사의 도의(道義)를 말살하려는 족속들과 더불어 사우의 일을 함께 한다면, 서원의 강당에서 독서하고 강의하는 것이 무명무실(無名無實)할 뿐 아니라 도리어 선사(先師) 도의(道義)의 명과 실을 이 서원 강당에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니, 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어른들이 저 무리들을 마주하여 선사의 진영이 엄숙하게 굽어보는 아래에서 무함하여 인가한 것과 원고 고친 것을 바로잡고 성토한다면 저들이 스스로 그 죄를 알아서 창을 되돌리고 음성을 배척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장차 마간지론(馬肝之論)²⁴⁰에 부쳐서 성리설이나 경전의 뜻을 두루 몽실하게 논하면서 이것을 독서 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무위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어른들이 애초에 저들과 변론할 뜻이 없음을 알았고, 도리어 타인들이 무함하여 인가를 내고 원고를 고쳤다는 설을 끄집어내었으니, 화사(華祠)의 여러분들이 사우(祠宇)의 일에 방해를 초래할까 두려워했다고 여깁니다. 그런즉 그들의 마음가짐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240 마간지론(馬肝之論) : 말의 간(肝)은 원래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 고기를 먹을 때에 말의 간을 먹지 않더라도 맛을 모르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 데에서 인용한 말이다. 즉 성인이 하는 일은 범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우선 제쳐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의리를 모르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晦庵集》〈卷57 答陳安卿〉

與崔汝重 乙亥

夫祠宇通稱書院，書院本以讀書而得名，讀書所以講義。故院必有講堂，所講者乃先賢之道也。今與誣認改稿，蔑先師道義者之血黨，與同祠事，則所謂讀書講義于院于堂者，非惟無名無實，反壞了先師道義之名實于院于堂，吾不知其宅心如何也。今諸丈若對彼輩，辨誣認討改稿於先師真像儼臨之下，彼自知其罪，而倒戈斥陰則幸矣。如其不然，則其將以是付之馬肝之論，與之泛論性理經義而曰，此是讀書講義，則已極無謂。吾則以爲又知諸丈之初無意於與彼辯論，而反恐他人惹出誣改之說，而華祠僉席致妨祠事也，然則其所宅心，不難知也。

최여중에게 보냄 경진년(1940)

與崔汝重 庚辰

그대의 선조 만육(晩六)선생이 우산(牛山)을 팔았다는 설이 수백년간 유전되면서 충절에 누가 됨이 많았습니다. 오직 그대가 처음으로 변명(辨明)한 의론을 발명하여 제종(諸宗)이 하나로 돌아가 각각 문자를 두게 되었고, 사우(士友)들에게 돌이켜 청하여 돕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후에 의혹이 제거되고 사라져서 마치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으니 비로소 선생의 대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대는 진실로 훌륭한 후손이라 이를 만하니 선생의 신령께서 어찌 “나에게 후손이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간옹(良翁)선사의 인의인교(認意認教)에 대한 설은 후래에 누가 나라 안 사림(士林)들을 모아 한마디 말로 변명(辨明)하여 그

대가 우산의 문건에 대한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리하나 일이 기왕에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 훗날 이치가 끝내 밝혀질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그대 선조의 우산에 대한 설이 깨끗하게 드러난 것으로, 우리 선사의 인의인교(認意認教)에 대한 설도 흰하게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다만 사람이 통하고 막힘을 만나는 것은, 산자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각각 길고 짧은 시운이 있고, 하늘이 중론(衆論)을 결정하는 것은 고금을 살펴보건대 또한 빠르고 늦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 선조의 높은 절개가 어찌 그리 오래도록 허물이 되다가 오늘날에야 비로소 밝게 드러났겠습니까? 아! 우리 선사의 일이 흰히 드러날 날이 조만간 가까이 있을 것인가? 먼 훗날에 있을 것인가? 허전한 마음에 한숨 한번 짓습니다.

與崔汝重 庚辰

尊先祖晚六先生買牛山之說，流傳數百年，有累忠節者多矣。惟高明始發辨明之論，諸宗歸一，各置文字，轉請士友而助之。今而後疑祛惑破，若披雲覩青，先生之大義始著。若高明者眞可謂肖孫，而先生之靈，豈不曰余有後乎？嗟呼！我良翁先生認意認教之說，後來何人能合國中士林，而一辭辨之，如高明之於牛山券也。雖然，事既無實於前，則理終有明於後，在所必然。吾以今尊先牛山說之破露，亦知先師認教說之掃清有日也。但人之遭通塞，無論存亡，自有久近之運，天之定衆論，歷觀古今，亦有早晚之時。不然以尊先先生高節，何其久見累而今始白哉？嗟呼！我先師白脫之日，在近而早耶，久而晚耶，爲之曠然一歎也。

최여중에게 보냄 갑신년(1944)

與崔汝重 甲申

지난번 이별 후에 현금 20원을 태아(泰兒 후창의 아들)에게 두고 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일 이바지로 보태라’ 한 뜻이라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날 오락에 대해 심히 비웃을 뿐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그대도 잘 알 것입니다. ‘궁한 살림에 반찬값이라도 보태라’라고 한 뜻이라면 거친 보리밥과 맑은 된장국이 나의 일상 분수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생일이 가까워오는데 반찬값을 주는 것은 이름만 다르지 실제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벗은 재물을 통용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의리를 지녔으니 비록 이보다 더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꼭 사양하겠습니까만 다만 이 선물에 대해서는 받고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태아로 하여금 곧 돌려드리려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주자(朱子)같은 대 현인께서도 생일날 아침에 진동보(陳同甫)가 보낸 좋은 과일과 옷감의 선물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후학인 내가 옛 현자인 주자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미치지 못하면서 유독 이것만 지나치다면 왜곡된 정(情)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동보가 주자를 친애하는 것보다 더 깊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이 끝내 불공스럽게 물리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선 생일을 지나 이 돈을 써서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우한 그대의 은혜를 잘 마치겠습니다.

與崔汝重 甲申

向別後，置二十圓金于泰兒而去何也？謂資晬辰之供也，則鄙於世人之此日娛樂，不惟笑之甚而疾之，賢所知也。謂助窮饑需也，則麥飯

之羸，土醬之淡，是其常分，毋庸爲也。矧此近啐而助饌，豈非名殊而實同乎？噫！吾友之賢，義可以通財矣，雖大於此者，何必辭之，但於此餽，受之不安，卽令泰兒還呈矣。旋復思之，以朱子之大賢，於其生朝，猶不却陳同甫香果裘材之遺，後學之於昔賢。他不一及而獨此過之，似近矯情，且况賢之愛我深於陳之親朱乎，此所以不敢終爲不恭。且當過啐用之，以卒老老之惠也。

족제 김명중 건식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明仲 建植 乙丑

금일의 화(禍)로써 풀릴 수 없는 지경에 걸린 자들이 우리 김씨 중에 많습니다. 듣자하니 음성의 적들이 가장 원수로 삼는 사람이 옹김(甕金), 창김(滄金), 석김(石金)²⁴¹이라고 들었는데 마땅히 그러할 것입니다. 대개 오진영을 성토하는 일을 선창해 일으킨 자가 우리 김씨이고, 성토하는 붓을 잡은 이가 우리 김씨이며, 성토하는 글을 인포(印布)한 자도 우리 김씨입니다. 종국에 음성 무리들의 세 가지 패악한 문장을 반박해 깨뜨린 것도 우리 김씨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원독(怨毒)에 쌓인 배가 어찌 잠시라도 우리를 잊겠습니까? 또 선사께서 20년간 뜻과 절개를 지키고 만세토록 영면하신 곳도 바로 우리 김씨의 고장입니다. 호남의 큰 집안 중 선사의 문인이 많은 것이 또한 우리 김씨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림을 연합하고 정론을 주장하여 저들의 간사한 모의와 패악한 행동을 타파할 이도 우리 김씨입니다. 그러니 우리 김씨를 탄

241 옹김(甕金), 창김(滄金), 석김(石金) : 옹정, 창동, 석동의 김씨로 추측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압할 때에 저들은 방자하여 거리낄 행동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도적이 주인을 미워하는 것은 자고로 그러한 것이니, 나를 원수 잡듯이 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에 즐겨하는 것이 참으로 그럴만 합니다. 일문(一門)에 화가 모인 것이 심히 헤아릴 수 없지만 다만 의로움의 여부만 보고 화(禍)의 다소는 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만약 사문을 없애려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김씨 중 많은 사람들이 만난 처지가 천추에 반드시 공정한 의론이 있을 것이니 다시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與族弟明仲 建植 乙丑

今日之禍，罹於不可解者多吾金人。聞陰最所讐者，甕金滄金石金，宜乎其然也。蓋討震之役，倡起者吾金也，秉筆者吾金也，印布者吾金也，終而駁破陰黨三悖文者，亦吾金也。彼其怨毒之腹，豈肯須與忘哉？且先師廿載獻靖，萬世考終，乃吾金之鄉也。在湖南巨室，先師門人之多，又莫如吾金。則足以聯合士林，主張正論，打破彼之奸謀悖舉者，吾金也。壓得吾金，則可以恣行無憚也。盜憎主人，自古而然，執我仇仇，抵死甘心者，亶其然乎。一門萃禍，雖甚罔測，然但觀義之當否，不問禍之多少。天苟喪斯文則已，否者，吾金多人之所遭，千秋必有公議矣，復何恨乎？

임경백 병일에게 보냄 갑자년(1924)

與林敬伯 秉一 甲子

지난번 댁에 갔을 때 집안이 깨끗하고 책들이 가득 찬 가운데 옥 같은 사람이 고문(古文)을 낭송하는데 금석 악기 소리 같았습니

다. ‘땅이 신령해야 인걸이 나온다.’라는 말이 진실로 마땅한 듯 했습니다. 어진 선조들이 계셔서 즐거움의 흥취를 깊이 알지 못했다면 어찌 규모와 배치가 그처럼 성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에 어진 부조(父祖)가 계시고 아름다운 산수를 차지하여 좋은 서적들을 다 읽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는 삼대 소원과 세간의 완전한 복을 그대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 가문에서는 어진 자식을 얻었고 우리 당(黨)은 그대 같은 빼어난 선비가 있으니 그 복을 또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이처럼 두텁고, 친척들이 나를 우러르며, 사람들의 나에게 대한 믿음이 이같이 깊고 무거우니, 만일 인도(人道)를 다하고 천직(天職)에 힘써 달효(達孝)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세도(世道)의 복마저 손상시키는 것이니 어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뜻이겠습니까? 원컨대 그대는 힘쓰십시오. 이 도가 상해서 혼란한 날을 맞아 훌륭한 재주와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을 오랜 친분이 있는 자식에게서 보게 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처럼 속마음을 내어 보입니다. 부디 헤아려 정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與林敬伯 秉一 甲子

頃入仙室，境落清爽，綉帙充棟，中有玉人，朗誦古文，聲出金石。雖地靈人傑之相得，固其宜也。非有賢父祖深知樂要之趣，安得經營舖置之此盛哉？家有賢父祖，占得佳山水，觀盡好書籍，人所稱三大願者，世間完福，高明既兼有之矣。在尊門而得高明之賢子，在吾黨而有高明之秀士，其福又何可量？天之所付我者，若是之厚，親之望我，人之恃我，又此深重，如不能盡人道致天職成達孝，豈惟不享己福，并與世道之福而損之，豈上天畀付之意？願高明勉之。當此道喪混亂之日，見英材碩器於舊要之子，喜不自勝，敢此衷告。庶或見諒領情。

임정로 종원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林貞老 鍾元 乙丑

편지를 받고 탁월한 의리와 빛나는 문장으로 나처럼 음성인의 간담을 도끼로 깨트리려고 하는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의리는 이미 우러러보았지만 문장이 이렇게 빛나는 것은 오늘 이후 처음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로(貞老)를 깊이 알지 못했던 일이 부끄럽습니다. 이 의리와 문장을 확충시켜 나간다면 우레처럼 날카롭고 바람처럼 빠르게 앞길로 나아가 산악처럼 우뚝하고 햇살처럼 환한 목표를 향해 사특함을 변별하고 정도(正道)를 지켜서 성인을 이어 태평시대를 열 사람이 바로 그대일세. 그런데도 무엇을 돌아보며 다른 것을 구하시는가? 선사(先師)의 도를 밝히고 춘추(春秋)의 대의를 세우는 것은 나 자신부터 주장하는 것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인품이 낮고 학문이 얕아 족히 경중이 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사문의 망극한 변을 만나 음기가 홀로 높고 여섯 양기가 막혀있는데, 세상에 확연히 양묵(楊墨)을 물리쳤던 맹자 같은 사람이 없어서, 불초한 내가 나서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고 힘을 다해 분별하여 성토하다가 큰 화를 입게 되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대가 편지에서 “의를 밝히고 세상을 선하게 했다.”라는 말씀은 어찌 감히 그렇다고 하겠습니까만, 스승을 잇고 적에게 아부했다는 것만큼은 두려워하고 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또 실질 없는 명성과 공(功)이 없는 포상을 장황하게 선양하여 심지어는 “귀의하여 의지하고 우러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선생님께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세풍에 구속되지 않아서 끝내 모른

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지요? 아니면 윤리 강
 상이 끊어지고 무너져서 스승을 무함(誣陷)하고 도적에게 붙은 자
 들이 도도하게 횡행하는데 여전히 몇 사람이 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 세도의 다행이요, 뜻을 숭상하는 동지라 여겨 희비(喜悲)가
 교차하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경도된 것이 아닌지요? 그렇
 다면 그대의 정(情) 또한 슬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낸 편지 가
 운데 지나치게 칭송하고 지나치게 겸손한 말은 나의 뜻에 마땅치
 않습니다. 오직 옛사람에게 스스로 기약할만하지 못하지만 차마
 세속의 흐름에 자포자기 못한다는 그 절실함이 실로 마음에 와 닿
 았기 때문에 뚜렷이 내 귀에 들어와 처연하게 마음을 감동시켰습
 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내가 평일에 기대했던 것과 서로 부합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 속(俗)이라는 한 글자가 사람을 함정에 빠
 뜨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속이 무엇인가요? 무릇 도의(道義)를
 헤아리지 않고 시절을 따라 스스로 편한 것이 곧 그것입니다. 오
 직 스스로 편한 것이 그 소재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를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천만 악과 사특함
 이 모두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요사이 음성 오진영 일파의 무함(誣
 陷)질과 패악이 세상의 재앙이 된 것은 결국 스스로 편함을 헤아
 린 것도 아니면서 크게 제멋대로 한 것이니 심히 두려운 일입니
 다. 진실로 마음으로 세속의 생각을 끊고 몸으로 세속의 습속을
 끊는다면 말과 행동이 닦아져 시절에 따르지 않고 옛것을 본받으
 며, 스스로 편하지 않고 옛것을 쫓아 오로지 도의로 나아갈 수 있
 으니, 또한 어찌 고인(古人)을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나와
 그대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니 원컨대 서로 힘써서 일생을 마칩시
 다. 그대가 편지에서 말한 “상화(相火)가 병의 빌미가 되었다.”²⁴²

242 상화(相火)가……되었다. : 심(心)은 화(火)에 속하는데, 심은 몸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臟器)이므로 군주지관(君主之官)이라 하

라는 것은 아마도 학동들을 가르치다가 속이 답답해 그렇게 된 듯 합니다. 그대처럼 견해가 밝은 사람이 그러한 병이 있을 줄 생각지 못했습니다. 대저 청년시절에 씩씩하게 도모할 것은 마음껏 유람하고 널리 배우며 천하의 좋은 인물들을 두루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문을 넓히고 천하의 좋은 산수를 마음껏 보면서 문장을 계발시키는 것이 어찌 지극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람 사는 일에는 달고 쓰고 권면하거나 나태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옛사람이 몸소 농사짓거나 품팔이하면서도 경전을 놓지 않은 자가 있었고, 오래도록 병을 앓으면서도 학업을 성취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학동을 가르치는 일은 구속되는 일이긴 하지만 밝은 창 앞에 편안히 앉아 날마다 서책을 가까이하는 일이니, 농사짓고 품팔이하며 여러 해 병을 앓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어찌 여력이 없겠습니까? 비록 자신보다 나은 이는 없다 할지라도 가르치면서 학업의 반은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고뇌하고 마음을 태우면서 상화가 빌미가 되는 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소강절(邵康節 소옹)선생은 “분수에 편안하면 치욕이 없다.”라고 하였고, 정자(程子)께서는 “이치를 따르면 넉넉하다.”라고 했는데, 비록 그대는 “학문을 근심함이 절실하고 이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편안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안분순리(安分順理)” 4글자가 그대의 화를 내리는 좋은 약재라고 말합니다. 의가(醫家)에서 말하는 독서를 금하고 생각을 끊는 것이 그대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유의하십시오. 다시 바라노니 여행이 편안하고 덕이 진보하여 안으로는 마음이 넉넉하고 밖으로는 몸이 건강하여 제 마음의 기도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 심화를 군화라고 한다. 상화는 군화와 상대되는 말로, 간(肝), 담(膽), 신(腎), 삼초(三焦)의 화를 통틀어 가리킨다.

答林貞老 鍾元 乙丑

辱書，有以見卓然者義，燁然者文，斧破陰膽之同聲。義固已仰，文之燁然，今而後始見。愧夫前此猶不深知吾貞老也。充此之義之文而進，雷厲風迅之前途，嶽喬日朗之究境，辨邪衛正繼聖開平，卽其人焉，何待乎環顧求覓？明先師之道，立春秋之義，卽自我主之，何待乎賴人？至於此漢，豈足爲有無，陋劣膚淺，猝當師門罔極之變，一陰獨尊，六陽壹鬱，世無鄒聖拳踢之廓如也，則顧此無似，雖欲不爲能言之徒而得哉？竊不自量，竭力辨討，至被大禍而不悔。明義淑世，豈敢云然，忘師附賊，是懼是免。高明乃以無實之名，非功之褒，張皇鋪揚，至有歸有依仰不阿所好等語，何哉？無乃不囿世風，終難坐在裏許而不之覺耶？抑以綱絕倫敦，陷師黨賊，滔滔皆是，而尚有幾箇人拔出其流，爲世道之幸，志尚之同，故悲喜交極而不覺傾倒歟？然則高明之情，亦可謂戚矣。蓋來書中，若溢美退托之屬，無有以當鄙意者，惟雖未能自期於古人，亦不忍自棄於流俗之言，爲切實由中，螢然入耳，戚然動心。而一與此漢之平日自待者相符，何其幸歟？噫！俗之一字，爲陷人窞也久矣。俗者何也？凡不揆道義徇時自便者是己。惟其自便所在，故易入而難出。不揆諸道，故千惡萬慝，皆從此生。至於近日陰震一隊之誣悖禍世，究亦不揆自便之大肆也，甚可畏也。苟能心絕俗念，身絕俗習，則發言制行，將見不徇時而倣古，不自便而從古，粹然一出於道義，亦何古人之未能期哉？此吾與子之所共勉者，願與交勸而終身焉。喻及相火作祟，似因訓蒙鬱墊致然。不意吾賢昭明見解之有此也。夫在青年壯圖，縱遊博學，交盡天下好人物。而恢斥聞見，觀盡天下好山水，而助發文章，豈不是至願？但人事有甘苦勸逸之殊。故古之人，有躬耕行傭而帶經者，積年善病而成業者。矧此訓蒙，雖云絆繫，安坐明窓，日親簡編，其視耕傭積病者，豈無餘力乎？雖云勝己則無，又不有學半之益乎，又何至於惱惱煎煎

相火之作崇乎? 邵子曰安分無辱, 程子曰順理則裕, 雖切於憂學而非
 關利欲, 其不安且順則均矣。吾故曰安分順理四字, 是降火之良劑。
 醫家所云禁讀絕思, 非所以治美慎者也? 幸試留意。更祈旅安德進,
 內腴外晬, 慰此心禱。

소재준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蘇 在準 丙寅

나는 졸렬하고 견해가 얇아 백에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어서
 본래 남의 본보기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고 음성의 적들을 주토(誅討)하여 첩첩 깊은 재앙의 그물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친척이나 지인들도 두려워서 피하며 감히
 가까이하지 않는데, 고명한 그대께서 일찍이 교분이 없었는데도
 먼저 편지를 주시니 참으로 정성스러움이 지극합니다. 게다가 “의
 를 높여서 굽히지 않고 바른 깃발을 높이 세우셨다.”라고 찬탄하
 시고 “성인 공자께서도 광(匡)땅에서 경계하는 마음을 두시고 진
 (陳)땅에서 곤액을 당하셨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돌아보건대
 비록 이를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대의 높은 품모는 실로 오늘날
 처음 보는 바입니다. 또 오진영의 죄를 논하면서 “도깨비 같은 놈
 이 스승을 무함(誣陷)하고 도리어 주인을 몰어서 양기를 사라지게
 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저에게는 “형벌을 받더라도 웃음을 머금고
 만년의 절개를 성취하기 바란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것
 이 곧 옛날에 이른바 “인자(仁者)만이 사람을 미워하고, 군자(君子)
 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러러 공
 경하고 굽어서 사례하는 것이 단지 높은 품모가 사람을 감동시키

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대는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견해와 덕이 이와 같으니, 훗날 마침내 선사의 도를 전하고 7일의 우레 소리를 울릴 자가 두류산(頭流山) 아래 용성군(龍城君) 보절방(寶節坊)²⁴³의 소재준(蘇在準)이 아니겠습니까? 그대의 편지 가운데 “기질을 바로잡기 어려워 사육이 틈을 타고 일어나며, 깊은 분노가 절로 가득차서 전전긍긍하며 편치 못합니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편지가 왕래하는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 애써 공부하고 맹렬히 성찰한 깊은 체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능력으로도 먼저 어렵게 여기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대의 견해와 덕이 그처럼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충해보면 전면의 성취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끝내 선사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세간의 영재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풍조를 초탈하여 이 도에 뜻을 둔 자는 드뭅니다. 도에 뜻을 둔 자는 있지만 탁연히 독립하여 시종일관 절개를 지킨 자는 더욱 드뭅니다. 이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똑같은 길로 도도히 흘러서 그 파란을 돌이키고 그 역류하는 물길을 막는 이가 없습니다. 그대는 재주와 뜻이 모두 우뚝하여 이러한 사실을 개탄한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타락한 풍속을 일으키고 도탄에 빠진 천하를 구제하고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장차 우뚝 솟은 두류산의 빼어난 경치를 그대의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대는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편지에서 이르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얼굴을 한 번 보았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대의 눈길에 화답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243 용성군(龍城君) 보절방(寶節坊) : 일제 강점기 때의 행정구역 명칭이다.

서로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강학하는 것도 기약할 수 없으니 어찌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글은 마음의 소리이고 글씨는 마음의 획이며, 마음은 내면이고 얼굴은 외면입니다. 이미 그 마음을 얻었으니 얼굴을 못 본들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하물며 그 마음의 소리와 마음의 획으로 구해본다면 그대의 모습과 풍채를 오히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위로할 따름입니다.

答蘇 在準 丙寅

走陋拙疎淺，百無一能，本不足爲人取。竊不自量，誅討陰賊，深入重重禍網。人之親知，亦且畏避不敢近，乃高明先施於未曾通款之地，極其殷摯。至以抗義不屈赤幟一豎贊之，孔聖之畏匡困陳慰之。顧雖不敢當，高明之高風，實今之初睹也。且其所論震罪者，直以鬼魅誣師反噬滅陽斷之，所昂賤子者，終以含笑斧鑊成就晚節望焉。是則古所謂仁者之惡人君子之愛人非耶？仰欽俯謝，又非但以高風之動人也。高明年尚少，而之見之德也，已如此，他日卒傳先師之道，轟雷聲於七日者，非頭流山下龍城郡寶節坊蘇在準乎？乃知書中氣質難矯，私欲闖發，深自憤懣，兢惕不寧等語。非往復間自道例談，實出真地苦工猛省深體之餘。惟其之心之力，先難之若是也，故有之見之德之斯大也。充此而進，前頭所就，其可量乎。吾故曰卒傳先師之道者，乃高明也。噫！世間英才，不爲少矣。能超脫時風，而志乎斯道者鮮矣，志乎道者有矣。能卓然獨立終始一節者，尤鮮矣。此所以滔滔一轍，回瀾障川之無其人也。高明才志俱卓，慨歎乎此者蓋久。而思欲以起末俗之衰，濟天下之溺也。吾將以屹屹頭流之秀色，較看於高明撓不動摧不折之德也。惟高明加勉焉。來書謂一面陋顏於衆中，而鄙於英眇，和此亦無。遠地盍簪，未易前期，曷勝於邑？然文心聲

也, 筆心畫也, 心內也面外也。既得其心, 未面何傷? 況持此心聲心畫而求之, 其風儀顏采, 猶有可想者乎。用是自慰而已。

방옥범 진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房玉範 珍 丙寅

대상(大喪)²⁴⁴의 졸곡(卒哭)은 7개월 뒤에 지내야 하니²⁴⁵ 지금 법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졸곡은 공적인 상(喪)이나 사적인 상을 막론하고 애통한 마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더구나 예월(禮月)에 날을 점쳐서 따로 기일을 안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곧 부장(報葬)하면서 졸곡의 기일을 기다리는 것이니 상순(上旬)이나 중순(中旬)을 써서 길일을 급하게 잡는다는 혐의에 가까워서 안 되고 하순(下旬)을 써야 아마도 인정과 예의를 다할 듯합니다.

선사께서는 무오년(1919년, 고종의 승하) 대상에 다음해 6월 18일을 졸곡의 기일로 삼으셨는데, 이는 월초부터 9번 우제(虞祭)²⁴⁶를 지내는 달을 계산하여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제님은 소견에는 “부장한 경우 서둘러 우제를 지내고, 졸곡제는 예월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²⁴⁷라고 예경(禮經)에 드러난 이상, 졸곡

244 대상: 이해 4월 26일 순종 황제가 창덕궁에서 승하하였다.

245 임금의……하니: 사(士)는 3개월에 장례하고 그 달에 졸곡제를 지내며, 대부(大夫)는 3개월에 장례를 하고 5개월에 졸곡제를 지내며, 제후(諸侯)는 5개월에 장례를 지내고 7개월에 졸곡제를 지낸다. 《禮記 雜記 下》 김택술은 조선을 여전히 중국의 제후국으로 여긴 것이다.

246 9번 우제: 이는 황제가 지내는 우제(虞祭)의 횟수를 가리킨다.

247 서둘러……한다: 서둘러 장사 지낸 경우[報葬]에는 서둘러 우제를 지내고[報虞], 석 달이 지난 뒤에 졸곡제를 지낸다. 《禮記 喪服小記》

을 지낼 달에서 우제를 지낼 날짜를 뒤미처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번 9월 하순 중 강일(剛日)을 골라 모여서 망곡례(望哭禮)를 지내겠습니다. 평소 선사께 미처 여쭙어 질정하지 못한 것이 절로 안타깝습니다.

答房玉範 珍 丙寅

大喪卒哭之宜用七月，而不從今式，極是極是。而卒哭，無論公私喪，是奪情之事。況非禮月筮日之自有排期者，乃是報葬而俟期者，則不宜用上旬中旬以近渴吉之嫌，當用下旬，恐盡於人情禮意。先師於戊午大喪，以翼年六月十八日爲卒哭之期，此則自月初計九虞月子而然。然區區妄見以爲：“‘報葬、報虞，卒哭必俟禮月。’既著禮經，則不必追計虞祭日子於卒哭之月也。”故敢於今番擇九月下旬中剛日，相聚望哭。自恨未及稟質於先師平日也。

방옥범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房玉範 丙寅

강론에 동참할 수 없다는 말씀은 비록 안타깝지만 그곳이나 이곳이나 모두 성현의 책이 있고 시비(是非)를 가리는 천성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밝은 본심에 돌이켜 구하고 이치가 지극한 가르침에 질정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똑같이 옳다고 여기고,²⁴⁸

248 사람의……여기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즉 의리이다. 성인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알았다. 따라서 의리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마치 고기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孟子 告子上》

선철(先哲)의 말씀은 나를 속이지 않아²⁴⁹ 가는 곳마다 환히 아는 것²⁵⁰이 곧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믿을만 하니 멀리서 권면할 따름입니다.

저더러 간옹(良翁,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진짜 제자라는 말씀은, 아, 이 무슨 말입니까. 선사께서 헤아릴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을 눈으로 보고도 분변(分辨)하고 토죄(討罪)하여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함정에 빠트린 자만 패악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구제하지 않은 자도 패악한 제자임을 면치 못합니다. 제가 무함(誣陷)을 토죄한 것은 화를 당하여도 후회가 없으니, 패악한 제자임을 면하기만 해도 다행일 것입니다. 어찌 진짜 제자임을 감히 바라겠습니까.

答房玉範 丙寅

未由同榻講貫之喻，雖則可恨，彼此皆有聖賢之書，亦同具是非之性，苟能反求本心之明，質之理到之訓，則人心之所同然，先哲之不我欺，觸處洞然，卽此而在矣。此可以相恃而遙勉爾。良翁眞弟之云，烏是何言？目見先師之陷於不測，而不辨討而救之，不惟陷之者之爲悖弟，亦不救者之不免爲悖弟。吾之討誣，遭禍而無悔，僅免爲悖弟卽幸矣。安敢望眞弟也？

249 선철의……않아: 맹자가 “공명의는 ‘주공이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으니,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리오.’라고 하였다.”라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孟子 滕文公上》

250 가는……것: 《논어(論語)》〈위정(爲政)〉에 공자께서 “내가 안회(顔回)와 종일토록 이야기해 보니, 내 말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러나 물러간 뒤에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내가 말한 바의 이치를 충분히 드러내 밝히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구나!”라고 하신 경문(經文)에 “안자(顔子)는 자품이 침착하고 순수하여, 성인에 대해서 체단(體段)을 이미 갖추었다. 공자의 말씀을 들으면 묵묵히 이해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닿는 곳마다 환하여, 스스로 조리가 있었다.”라고 주자가 주석을 달았다.

방옥범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房玉範 丙寅

소자[小子, 제자(弟子)]라는 호칭은, 아, 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터 보내오신 편지마다 선생(先生)이라는 글자가 있었으니 옛날 학사(學士)중 연장자를 선생이라고 한다는 글이 있었고,²⁵¹ 지금 세속에 이 풍조가 성행하니 감히 대뜸 감당하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괴이하게 여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오래전부터 바꿀 수 없는 일정한 내력이 있는 두 글자를 함께 써서 갑자기 오늘날 편지에서 저를 부를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설사 당신과 제가 실로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유익함이 있더라도 이미 선사를 선생이라고 불렀으면 타인을 선생이라고 재차 불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하루도 실제로 사제(師弟)였던 적이 없는데 그저 향모하는 지성스러운 마음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선사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뒤 문하의 연소자들이 노성(老成)한 이들에게 학업을 마치더라도 더 이상 사제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가릉(嘉陵)과 김(金), 류(柳)의 일을 거론하는 김에 전거(前車)의 귀감²⁵²으로 삼으셨으니 지금도 그 말씀이 귀에 남아 있습니다. 부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251 학사……있었고: 맹자와 송경(宋淸)이 석구(石丘)에서 만났을 때 송경이 맹자에게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해 조순손(趙順孫)이 “학사중 연장자이므로 선생이라고 하였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孟子 告子下》

252 전거의 귀감: 《순자(荀子)》〈성상(成相)〉에 “앞 수레가 넘어졌는데 뒷 수레가 모르니 언제 다시 깨달을까?”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선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答房玉範 丙寅

小子之稱，惡是何言？前此來函，每有先生字，意謂：“古有學士年長者之文，且今俗此風盛行，則雖不敢遽當，亦不須大怪矣。”孰謂其并以遠有來歷一定不易之二字，忽稱於今書？雖使高明與吾，實有教學相長之益，既已稱於先師，則不當再稱於他人，況未曾有一日師弟之實，而徒以向慕之勤，有此妄舉，何所當乎？高明之所以致此，以其不曾聞先師之訓也。我死之後，及門年少雖卒業于老成，勿爲復以師弟之名相稱，因舉嘉陵、金·柳事，爲前車之鑑，至今言猶在耳。千萬已之已之。

방옥범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房玉範 丁卯

옛 사람들은 방소(方所)없이 널리 배워 일정한 스승이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섬기며, 돌아가시면 심상(心喪) 3년을 입는다.’²⁵³ 라는 말을 보면 군부(君父)와 똑같이 존송했으니 타인을 재차 스승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후세 사람들은 유현(儒賢)들에게 두루 배사(拜師)할 때마다 사제 관계를 정하는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가 죽은 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이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에게서 학업을 마쳤는데도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니 이는 본받을 만합니다. 더구나 선사의 가르침에, 앞서 이미 한 스승을 함께 섬겼으면 지금 더 이상 사제 관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그 도리가 더욱 정밀합니다.

253 죽을……입는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에서 인용하였다.

答房玉範 丁卯

古人雖博學無方而無常師，若其服勤至死，心喪三年，與君父同尊之，師宜不再稱於人也。後世之歷拜儒賢，輒定師生者，未知其得當也。近齋沒後，梅山卒業于老洲而不稱師弟，此可法也。而況先師之訓，乃謂前既同事一師則不宜今復爲師生也，其義尤精矣。

채중일 동건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蔡中一 東建 癸亥

전에 보낸 편지를 받았었는데 정다운 편지를 재차 받으니 깊이 아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아, 우리가 아끼는 것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구하는 바는 의기를 함께 하는 것이니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면 고금으로 시대가 다르고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불과 탁자를 함께 쓰고 편지가 끊이지 않더라도 정다운 교분이라고 한다면 맞지만 뜻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틀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의 인(仁), 맹자의 의(義), 정자의 경(敬), 주자의 성(誠)이 아니겠습니까? 구하여 얻은 것이 같다면 아끼는 마음이 이에 더욱 깊어질 테니, 어찌 매우 통쾌하고 흡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수(淸秀)하고 돈실(敦實)한 당신께 바라는 바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뒤에도 도의(道義)를 지키기를 기약하고 같은 시대의 글벗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자 이를 위하여 속마음을 토로하니, 헤아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시는 살펴보니 착실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허나 현재

심제(心制) 중이어서 받들어 화답할 수 없어서 한탄스러운데, 비평과 윤색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부족한 제가 보기에 온당치 않은 부분을 대략 거론하여 보내오니, 다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答蔡中一 東建 癸亥

既荷前書，再奉情函，非相愛之深，烏能致此？噫，吾人相愛，豈徒爾哉？所求者聲氣之同，聲氣苟同，古今之殊、朔南之遠，猶朝暮遇也。其未然，雖衾卓相聯、赫蹄不絕，謂之情交則可，同志則非也。吾人之所求者何？孔仁、孟義、程敬、朱誠者非耶？求之而所得者同，則相愛者，於是乎愈深，豈非多少快洽乎？區區於高明之清秀敦實，所望者深，故欲相期於千載，而不作并世文友而止，爲此吐蘊，想見諒領會也。盛詩可仰，實實用功。見在心制中，未由奉和悵悵。批潤何敢？略舉未安於鄙見者以呈，幸更裁諒。

채중일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蔡中一 戊辰

보내신 편지에서,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탕반(湯盤)의 명(銘)²⁵⁴을 읽고 경계하여 살피는 마음을 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존선조(尊先祖) 신재(新齋) 어른이 편액을 쓴 의(義)에 느끼는 바가 있어, 마침내 집에 신운(新雲)이라고 편액을 써서 살피고 반성할 바탕으로 삼았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한마디 말이 죽을 때

254 날마다……명: 탕 임금이 목욕하던 그릇의 명(銘)에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고 하였다. 《大學》

까지 실천할 만하다.255”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덕을 닦을지어다.256”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면, 전성(前聖)에게는 어진 제자가 될 것이고 존선조에게는 빼닮은 후손이 되어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온갖 선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학문이 이로부터 근본이 단단해질 줄 알겠으니 우려려 경하드린 뒤, 끝맺음을 잘하여 실제로 부응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答蔡中一 戊辰

承喻以讀湯盤日新之銘，有所警省者，因有感於尊先祖新齋翁取扁之義，乃以新雲扁居室，庸作觀省之資。此正古人所謂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亦惟所謂無念爾祖聿修厥德者，苟有得乎此，於前聖爲賢弟，於尊先爲肖孫，行一物而衆善備。知高明之學自此其著落，仰賀之餘，竊願克終而副其實也。

채중일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蔡中一 戊辰

《이아(爾雅)》〈석친(釋親)〉에 “잉손(仍孫)의 아들을 운손(雲孫)이라 한다.”라 하고, 그 주석에 “가볍고 먼 것이 뜬 구름과 같다.[輕遠如浮雲]”라고 하였습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거론하신 “5대손을 내손(來孫)이라고 한다.”라는 구절도 그 이하에 각기 다른 명칭이

255 한 마디……만 하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서 인용하였다.

256 너의……닦을지어다: 《시경(詩經)》〈대아(大雅) 문왕(文王)〉에서 인용하였다.

있고, 《이아(爾雅)》에도 근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²⁵⁷ 대개 8대손을 운손이라 하는 것이 가볍고 멀다는 이유로 이름을 얻은 이상 8대손 이후를 운(雲)이라 통칭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겠고, 8대손 이전은 아마도 갑자기 칭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가볍고 멀다는 의미에 저절로 귀결될 것입니다.

答蔡中一 戊辰

《爾雅》〈釋親〉云：“仍孫之子曰雲孫。” 註言輕遠如浮雲也。來書所舉“五代孫曰來孫”，以下各有別名，亦有《爾雅》可據。蓋以八代孫爲雲孫，既以輕遠得名，則八代以後通稱雲可無害，而以前則恐難遽稱，而自歸於輕遠也。

채중일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蔡中一 己巳

그대가 이름과 자(字)를 고친다고 어지러이 정하지 못하여 남들이 어떻게 부를지 모르게 하니, 그것이 원래 이름과 자를 쓰지 못하는 이유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비록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지금

257 그 이하……있습니다: 《이아(爾雅)》 〈석친(釋親)〉에 “아들의 아들은 손자(孫子)이고 손자의 아들은 증손(曾孫)이고 증손의 아들은 현손(玄孫)이고 현손의 아들은 내손(來孫)이고 내손의 아들은 곤손(冪孫)이고 곤손의 아들은 잉손(仍孫)이고 잉손의 아들은 운손(雲孫)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 각각 “손(孫)은 후(後)의 뜻과 같고, 증(曾)은 중(重)의 뜻과 같고, 현(玄)은 친숙이 아득하다는 뜻과 같고, 내(來)는 왕래하는 친족이라는 말이고, 곤(冪)은 후(後)의 뜻과 같고, 잉(仍)도 중(重)의 뜻이고, 운(雲)은 뜬구름처럼 가볍고 멀다는 말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세상 술인(術人)들의 ‘글자를 고르고 과를 뽑아 복록(福祿)을 추구한다.’라는 설에 현혹되었다면 착각하신 것입니다. 《시경(詩經)》에서 “길이 천명에 짝함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다.²⁵⁸”라고 하였고, “화락한 군자여 복을 구함이 샅되지 않다.²⁵⁹”라고 하였습니다.

큰 덕을 세우고 큰 명성을 얻고 큰 복을 누린 옛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면 그 마음 씩씩이와 처신이 반드시 광명정대하였고, 글을 짓고 이치를 궁구한 것이 반드시 성실하고 정밀하였으며, 잡아 지킨 절의는 확고하여 뺏기지 않았고, 남들에게 베푼 혜택은 주변에 두루 미쳐 천하의 모든 사업을 조처하기까지 하였으니, 순수하게 한결같이 도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달하여 임금과 재상의 자리에 앉아 당세에 부귀 영화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고 빈궁하여 큰 스승이 되어 백대까지 우러러보는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모두 고되게 심력(心力)을 쓰고 스스로 쉬지 않고 힘써서 이를 수 있었고 신통한 술법과 그옥한 도에 기묘한 길상(吉祥)을 바라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및 송대(宋代)의 정선생(程先生)과 우리나라의 석담(石潭) 이선생(李先生)의 이름을 한 번 살펴보면, 모두 평범하여 특별할 게 없는 글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덕업의 존승이 저처럼 우뚝하고 부귀의 복이 저처럼 장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를 지금 세상의 과를 뽑아 결단하는 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서 하나하나 어긋나지 않고자 하더라도 싫어도 필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258 길이……길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에서 인용하였다.

259 화락한……않도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에서 인용하였다.

주공(周公)께서는 《역(易)》의 효사를 다셨고, 공자께서는 〈단전(象傳)〉과 〈상전(象傳)〉으로 부연하셨으니 괘를 뽑아 결단하여 길(吉)을 취하는 정밀함은 응당 주공과 공자만한 분이 없고 그 후손이 변창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응당 성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숭대(崇大)하고 광후(廣厚)하고 광명(光明)한 뜻을 가진 현달하고 기약할 만한 등의 좋은 글자들을 버리고 동물 중에 하찮은 금(禽)과 리(鯉)자를 쉽게 취하여 이름 지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백금(伯禽)의 어짚은 명철함에 미치지 못하고 백어(伯魚)의 수명은 요절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복덕이 모두 이름 짓는 데 달렸다면 성인께서 그 자식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여 일찌감치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글자를 골라서 이름을 지어 흉(凶)을 피하고 길(吉)로 나아간다는 설이 허망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대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상서(祥瑞)와 재앙(災殃)이 각각의 부류에 따라 이르는 것은 이치의 상(常)이고 간혹 이와 반대로 화복을 거꾸로 시행하거나 잘못 내려주는 것은 운수의 변(變)입니다. 상은 본디 천명이거니와 변도 천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자께서 “요절과 장수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자신의 덕을 닦아 천명을 기다려야 하니, 이것이 바로 천명을 지키는 방법이다.”²⁶⁰라고 하였으니, 아! 지극한 말씀입니다.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지나친 우려를 말씀드리니 행여 비정하다면서 괴이하게 보지는 않으시겠지요.

答蔡中一 己巳

賢之改名改字，紛然無定，使人莫知所呼，其出於不得然之故，吾雖

260 요절……방법이다: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서 인용하였다.

不可知，如或眩於今世術人擇字作卦求取福祿之說，則誤矣。《詩》曰：“永言配命，自求多福。”又曰：“豈弟君子，求福不回。”歷觀古人之立大德、得大名、享大福者，其用心行己，必光明正大也：修辭研理，必誠實精到也。秉節守義，確乎其不拔也：惠人澤物，洽乎其周徧也，以至措之天下一切事業，其不粹然一出於道？故或達而位君相，享富榮之樂於當世：或窮而作宗師，受瞻仰之尊於百代矣。然蓋皆勞其心力，自強不息，而有以致之，非希覬奇慶妙祥於神術窈冥之間而得之也。試觀孔子、顏子、曾子、子思、孟子，及宋之程先生、我國石潭李先生之名諱，并不過尋常非表著字而止，德業之崇，如彼巍巍也：尊榮之福，如彼其久也。雖欲以之強合於今世卦斷之法，而求其一一不差，必不可得也。周公繫《易》之爻辭，孔子贊《象》、《象》，斷卦取吉之精，宜莫周、孔若也：欲昌厥後，宜亦聖人心也。乃名其子也，舍却崇大廣厚光明底許多美好可顯可期等字，容易取動物微細底禽鯉字而名之，何也？伯禽之賢，不及睿哲：伯魚之年，未免短夭。若人之福德，盡繫命名，聖人何所惜於其子而不早施之也？於是乎益知擇字作名避凶趨吉之說之妄也。大抵作善作惡，祥殃各以類至者，理之常也：其或反此，而倒施錯降者，數之變也。常固天命也，變亦不可不謂之命也。孟子曰：“夭壽不貳，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噫其至矣。相愛之心，貢此過慮，幸不以非情而見怪否？

채중일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蔡中一 戊寅

봄에 당신의 재종씨가 와서 “중일(中一)이 요즘 큰 일을 이끌고 있다하여 물어보니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璉)]의 원고를 간행하는

일에 크게 힘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제가 듣고서 스승을 위하는 정성에 삼가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흉한 무리인 권(權)에게 교감을 맡겨 스승의 무함(誣陷)을 변석(辯析)한 글들이 한꺼번에 산삭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크게 힘쓰니 또한 이 일을 전적으로 주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지르십니까? 음흉한 무리들을 토죄하는 통문에 원재 어른께서 이름을 넣지는 못했지만 따로 무함을 변석한 문장을 지었으니 명백하고 엄정한 내용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권(權)이 원재 어른께 보낸 편지에서, 존장께서 호남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허나 지금 모두 산삭되었으니 더 이상 당시 원고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원재 어른께서 평소 진주본(晉州本) 《간재집(良齋集)》²⁶¹이 더 이상 원래 체제의 말이 아니라 【《제진본고변록(題晉本考辨錄)》】고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원재 어른 사후의 원고에 다시 해당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문생 중에 당신 같은 분이 그릇된 이들에게 교감을 맡겨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개 이 한 가지 일은 스승에게는 치욕이고 제자에게는 죄가 됩니다. 사문에서 무함의 큰 변고를 알았음에도 원고에서 한 마디 명백하게 변별하는 말을 볼 수 없으면 이미 원재 어른을 욕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후세에 원재 어른이 스승의 무함을 변별하지 않았다는 치욕을 받는다면 또 어찌 당신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아끼는 마음이 깊으므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충고

261 진주본 《간재집》: 1926년 10월, 문인 오진영(吳震泳), 김정호(金楨鎬) 등이 진주에서 활자로 간행한 문집을 가리킨다.

하니, 바라건대 모쪼록 빨리 계획을 바꾸어 원고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答蔡中一 戊寅

春間令再從氏來言：“高明近營大事業，問之則云‘大出力於遠齋稿刊事也.’”鄙聞之，竊歎其爲師之誠。今聞託校於陰黨之權，而辨師誣文字一并刪去云。高明既大出力，則亦可謂專主此事，而胡乃鑄錯之至此？討陰之通，遠丈雖不參名，其自爲辨誣之文，則明白嚴正者，不勝其多，權與遠丈書所謂丈丈非湖則恐難爲說者此也。而今皆刪去，則非復當日遠稿面目矣。夫孰知遠丈平日所歎《良稿》晉本，非復原來體制【《題晉本考辨錄》】之語，復當於其身後之稿也乎？又孰知有門生如高明輩託校非人，而致失本面也乎？蓋此一事，師爲病而生爲罪，當師門認誣之大變，而無一言辨明之見於稿，則既足以病遠丈矣。使遠丈得不辨師誣之病於後世者，又豈非高明之罪乎？鄙於高明愛之也深，故不覺忠告至此，望須幡然改圖，使之快復本面如何？

채중일에게 답함 기묘년(1929)

答蔡中一 己卯

보내신 편지는 잘 보았습니다. 대개 지금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제자가 스승의 문집을 고치는 것은 만고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신께서 원재(遠齋)의 문집을 고치는 것은²⁶² 오진영(吳震泳)이 《간재집(良齋集)》을 고친데서 배웠으니,

262 당신께서……것은: 원문은 ‘高改遠文’이다. 문맥을 살펴 ‘高’뒤에 ‘明’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당신은 서둘러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간행은 천천히 하시는 것이 지극히 옳고 또 옳습니다. 그러나 권(權)이 산삭하고 원재 어른께서 변무(辨誣)한 글들을 함께 복구하지 않는다면 큰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그것은 원재 어른으로 하여금 스승의 무함(誣陷)을 변석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答蔡中一 己卯

示喻備悉. 蓋今天之下無變不有, 而最是弟改師文, 萬古所朞有. 而高<明>改遠文, 學得於吳改良文, 高明之急復本而緩印行者, 極是極是. 然而不并復權刪辨誣諸作, 則終不免罪大者在以使遠師爲不辨師誣之人故也. 宜加驚惕而無誤焉.

손성백 주택에게 보냄 정축년(1937)

與孫誠伯 周澤 丁丑

지난번 현광(玄狂, 전일중(田鎰中))의 글을 적어 보내 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당연히 즉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많은 일에 구애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감히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높은 재주와 뛰어난 문장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이 아쉽고, 또 바른 도리를 확고하게 보고서 홀로 서서 변치 않았는데 임종 때에는 동기(同氣)에게 바른 말을 하고 황천에 가서는 천고에 한을 품기까지 한 것이 슬픕니다.

내 병은 사문의 변고와 가정의 불화가 빌미가 되니 이 때문에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참으로 옳습니다. 다소의 유

문(遺文)은 관계된 것이 적지 않아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허나 그 책임이 후사자(後死者)들에게 있으니 저를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감히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선대의 뜻과 사업을 이어받는 방도의 경우는 두 아들에게 달려 있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현재 풍조(風潮)에 나아가니 어찌 아버지의 고심(苦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모조록 차분한 겨를을 틈타 선부(先父)가 병중에 두 아들에게 남겼노라고 모부인(母夫人)이 당신께 전해준 유언과 훗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와 사문의 의리에 관계되었던 일은 후창에게 가서 물으라고 상세히 알려주어, 제게서 들은 말이 귀에 가득하고 마음에 새겨 아버지의 뜻을 실추시키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與孫誠伯 周澤 丁丑

向以錄送玄狂文字託之，謂即當然，而訖未見報，想以多務爲拘，不敢奉怪。但念惜其高才雄文，不可復見；又悲其正義確見，孤立不變，以至屬續而正言於同氣，歸泉而齋恨於千古也。嘗言吾病爲斯文之變、家庭之乖所崇，是以不療，信然矣。其多少遺文，關係不少，不可不傳，而責在後死，責我一般，其敢虛徐？至於繼述之道，在其二子，而年尚幼，現進風潮中，豈能知乃父苦心？雖然，高明須乘從容暇日，詳諭以其母夫人所傳君子病中治命二子、他日事關父·祖·曾、斯文義理者，往問後滄，而聽之之言於鄙人者，使之盈耳銘心，不至失墜其父之義，如何如何？

이문수 덕래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李文修 德來 辛酉

당신이 지은 <맹달²⁶³론(孟達論)>에서 “끊임없이 배반하여 불충(不忠)한 사람이니 《통감강목(通鑑綱目)》에서 잘못 살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리는 엄격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여 중(中)을 잃고 주자(朱子)의 의도를 깊이 살피지 않은 듯합니다.

군자가 남을 논함에 본디 법도가 있어 그 생애 전체를 논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부만 논하는 경우가 있고, 후반부만 논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 경우가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맹달의 전반부는 참으로 임금을 배반하여 불충하였다고 해야 하지만 후반부는 마음을 바른 데로 돌려 죽음으로 충성한 점을 허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통틀어 논하자면 앞은 욱되었지만 뒤는 충절을 지킨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신의 논의에서는 구분함이 없이 개괄하여 ‘끊임없이 배반하여 불충하였다.[反復不忠]’ 4자로 그의 평생을 결단하였으니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불안한 것은 화(禍)를 두려워한 데서 나왔다는 말은 당신의 논의가 옳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른 데로 돌려 목숨을 걸고 충절을 지킨 마음까지 아울러 의심한다면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끝까지 화를 두려워 한데서 나왔을 뿐이라면 위

263 맹달: 삼국시대 때 장수이다. 처음에는 유장(劉璋) 휘하에 있었다가 유비(劉備)에게 항복하였다. 관우(關羽)가 오나라 손권(孫權)과 전투를 벌이다가 포위되었는데도 성의 수비를 핑계로 구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비의 원한을 사서 위(魏)에 투항하였다. 위나라에서는 조비가 그를 잘 대우하였지만 그의 사후 입지가 좁아지자 다시 촉에 귀순하려고 난을 일으켰다. 결국 사마의(司馬懿)에게 간파되어 기습을 받고 사망하였다.

(魏)의 임금을 아첨하여 섬겨서 총애를 단단히 받아야 옳고 원수를 제거하여 후환(後患)을 끊으려고 모의해야 옳고 신성(新城)이 오(吳)와 닿았으니 오가 위를 강하게 맞서면 오로 도망가는 것이 또한 옳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화를 피하고자 도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몰래 모의하여 이미 배반한 임금과 피폐해진 촉에 돌아가서 만 번 죽을 상황에서 살길을 찾고자 했겠습니까?

대개 그의 불안한 마음이 화를 두려워한 데서 나왔을지라도 촉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죄를 뉘우친 데서 나왔으니, 죄를 뉘우치는 것은 의리(義理)의 바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으므로 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잃으면서도 절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자가 이에 어찌 전날의 죄로 오늘날의 절의를 가려서 《통감강목(通鑑綱目)》에서 포장(褒獎)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자께서 직접 《통감강목(通鑑綱目)》의 범례(凡例)를 정하면서 “장수가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경우 ‘죽었다.[死之]’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통감강목(通鑑綱目)》의 의례(義例)가 정밀합니다.²⁶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의도를 깊이 탐구하지 않고 사실을 자세히 구하지 않은 채 “주자께서 이 부분은 혹 잘못 보신 듯하다.”라고 한다면 어찌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승을 믿는 도리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당신께 깊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릇 군자가 남을 책망하는 것은 자기를 책망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경우는 지극한 선(善)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과오를 매

264 《통감강목》……정밀합니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35 〈답유자징(答劉子澄)〉에 “《강목(綱目)》 역시 약 20권 정도 수정했는데 의례가 더욱 정밀해져서 상하 약 천 여년 동안의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참으로 행적을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우 섬세하게 살피지만, 남을 책망하는 경우는 이끌어 도(道)에 이르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취할만한 선이 있으면 죄과를 뒤미처 기록하지 않아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 권면하였습니다. 전인(前人)이 만년에 세운 절의가 앞서의 허물을 충분히 덮을 점이 있다면 그 속에 속임수와 반역이 있다고 의심을 품어 마음을 해치고 게다가 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막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여곤(呂坤)²⁶⁵만 유일하게 “공정한 논의는 율령(律令)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사람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보다 엄격하니, 율령으로 원통한 바는 공정한 논의 덕분에 밝혀지지만 공정한 논의로 원통한 바는 만고에 반안(反案)이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경솔히 남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²⁶⁶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외울 때마다 남을 논의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아울러 보내드리니 밝게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答李文修 德來 辛酉

盛作《孟達論》謂之“反覆不忠之人，而以《綱目》爲失照勘者”義則雖嚴，恐過嚴失中，而又不深悉朱子之意也。君子論人，自有其法，有論其全體者焉、有論其前一截者焉、有論其後一截者焉，三者不可得以相掩也。孟達之前一截，固當謂之叛主而不忠也。後一截則不得不許其反正而死忠也。統其全體而論之，則先黷而後貞可也。今盛論無所區分，而概以反復不忠四字，斷其平生，則非其實也。至於其心不

265 여곤: 원문은 ‘呂抱’이다. 문맥을 살피 ‘抱’를 ‘坤’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여곤은 자 숙간(叔簡). 호 심오(心吾) 또는 신오(新吾)다. 만력 연간에 진사가 되었으나 국사를 걱정하여 올린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벼슬에서 물러나 문하생과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저술에 힘썼다. 저서에 《신음어(呻吟語)》가 있다.

266 공정한……된다: 《신음어(呻吟語)》 권2 <수신(修身)>에서 인용하였다.

自安，出於畏禍，則盛論是矣。然并與其反正死節之心而疑之，則未知深得其情否也。若使其心果始終出於畏禍而已矣，則諂事魏主以固寵可也。謀除讐隙以絕後患可也。新城接吳，吳強敵魏，逃之吳，亦可也。凡所以圖免禍者，宜無不至也。何苦而密謀通書，歸己背之主、疲弊之蜀，求一生於萬死之中哉？蓋其不安之心，雖出於畏禍，歸蜀之心，乃出於悔罪，悔罪者，義理之良心也。惟其有是心也，故城陷之日，能殞身而立節也。朱子於此安得以前日之罪，掩今日之節而不褒之於《綱目》也。朱子親定《綱目》凡例曰：“將帥死節曰死之。”又嘗曰：“《綱目》義例精密。”今不深原其意而詳求其實，乃曰：“朱子於此，或失照勘。”則豈謹思信師之道哉？因此而深有所仰告於高明者。夫君子之責人也，與責己不同，責於己者，欲其止於至善也，故省過察惡，極其纖悉；責於人者，欲其引而至道也，故其人有可取之善，則不追錄罪過，使之有以自新而益勸，至於前人之晚節樹立，有足以蓋前愆者，則尤不當致疑逆詐於其間，以害心術，重沮後人勸也。呂抱[坤]獨有言曰：“清議酷於律令，清議之人酷於治獄之吏，律令所冤，賴清議以明之，清議所冤，萬古無反案矣。是以君子不輕議人。”每誦此言，未嘗不兢兢乎其論人也。并茲奉似，幸唯亮炤。

이도형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李道衡 己卯

《순자(荀子)》를 읽은 적이 있는데 <괘시(俛詩)>²⁶⁷는 두루 살피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학문에 힘쓰라. 하늘이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군이 제자들이 학문에 힘쓰라고 하여 천추

267 괘시: 이는 《순자(荀子)》 권18 <성상편(成相篇)>에 보인다.

(千秋)의 명운을 반드시 되돌리는 책무를 제자의 어깨에 지운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제자는 가정의 부형(父兄), 유문(儒門)의 사장(師長), 조정의 경대부(卿大夫)의 근본이니 제자가 학문을 하여 훗날 어진 부형, 어진 사장, 어진 경대부가 된다면 정치, 교술, 풍속이 모두 바르게 되어 천하가 태평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온 나라의 유가 자제 중 부형의 뜻을 이어 부지런히 학문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신 한 사람 뿐입니다. 오늘날처럼 천리가 막히고 인심이 바르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 문하에는 시비와 흑백이 분명하지 않아 간재 어른의 춘추 대의가 거의 매몰되었으니 더욱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동문(同門) 동지(同志)의 자제 중에서 당신을 얻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상 존대인께 축하를 드리고 이어서 그 재주를 제가 지닌 것처럼 좋아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좋아하는 것이 어찌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문과 세도를 위하여 장래에 보탬이 있으리라 바라니 당신께서는 10배는 더 힘쓰소서. 덕으로 자기를 이룬 자가 드러나 쓰인다면 가까이 있는 한 가문부터 멀리는 한 나라까지 천리를 아뢰고 인심을 밝히고 시비를 바로잡고 춘추의 엄격한 공을 확고하게 할 것이니 이때가 천명이 되돌아오는 때이고 제자의 책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아끼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니 혹 장려하고 추켜올리는 예사로운 말로 알고서 소홀히 한다면 이 길고 자세한 내용이 좋은 말로 남을 기쁘게 하는²⁶⁸는 결과로 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유념

268 좋은……하는: 《논어(論語)》〈학이(學而)〉편의 “말을 좋게 하고 얼굴 빛을 곱게 하는 사람이 인(仁)한 이가 적다.[巧言令色, 鮮矣仁.]”라는 구절의 주석에, “말을 좋게 하고 그 얼굴빛을 좋게 하여 외면에 꾸미기를

하여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答李道衡 己卯

嘗讀《荀子》，〈俛詩〉不泛，言“士子勉學，天不忘也。”而必曰弟子勉學，以千秋必返之責，擔在弟子 肩上者 何也？竊思之弟子者 家庭父兄、儒門師長、朝廷卿大夫之本也。弟子有學而爲父兄、師長、卿大夫之賢者於他日，則政治教術風俗皆得其正，而天下平故也。今日全國中儒家子弟繼父兄而勉學者，未知有幾多人乎否？而以吾所知，獨高明一人。天理晦塞、人心不正，未有若此時，其在吾門，則是非不明，黑白未分，良翁春秋之義幾乎味焉，尤爲寒心，乃以此時，得高明於同門同志間子弟中，豈非幸哉？故尋常爲尊大人獻賀，繼而有不啻若己有之之好矣。噫，賀之好之，豈以私哉？總之爲斯文世道，而望其有補於將來也，願高明十倍加勉。以德成乎己者，發而用之，近自一門，遠至一國，奏天理、明人心、正是非、定春秋嚴之功焉，則卽此是天返之日，而塞得弟子責矣。愛之也深故望之也切，如或認作獎詡例語，而少忽之，則凡此翮縷，不適爲好言悅人之歸乎？千萬留省焉。

청도의 여러 사람들에게 답함 임술년(1922) 10월

答淸道諸人 壬戌十月

경신년(1920) 9월 제가 계화도(繼華島)에 들어가 선생께 “옛날에 쓰신 선친의 전문(傳文)²⁶⁹을 묘표(墓表)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면, 인욕(人慾)이 횡행하여 본심(本心)의 덕(德)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라고 청하고서 이어 본초(本草)를 드리니, 선생께서 한 번 다 보시고 “다행히 그 체제가 묘표로 삼을 만하니 고치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렇다면 문고(文稿)에도 옮겨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마침 밤이 깊어 김귀락(金龜洛)에게 본초에 주필(朱筆)로 전(傳)자는 묘표(墓表)자로 고치고 찬(贊)자는 명(銘)자로 고치게 하였으나 문고에는 미처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이 생겨 급히 떠났습니다. 허나 스승의 명을 받았는 데다가 개정본이 있었으므로 줄곧 의심없이 자신하였고, 김학재(金確齋, 김학수(金鶴洙))어른께서 묘표를 쓰는데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

신유년(1921) 여름 그 연유를 희경(禧卿, 유영선(柳永善))에게 알려서 문고에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희경은 그저 저의 말을 믿고 선생의 앞에서 의심없이 떼어 옮겼는데, 선생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희경이 제가 한 말을 선생께 말씀드리자, 선생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종현(鍾賢, 김택술(金澤述))이 어찌 했겠는가? 이는 반드시 내 허락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또한 어찌 굳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희경의 편지에 있는 말입니다.】

고경(顧卿, 권순명(權純命))이 계화도에서 와서 이 일을 제게 말하기에, 제가 개정본을 고경에게 보여주고 사실대로 모두 말하였습니다. 고경이 그 연유를 가서 여쭙자 선생께서 그때서야 깨달으시고 제게 편지를 보내어, “옛날 지은 선공의 전찬(傳贊)은 지금 이미 묘갈명으로 고치고 다른 부분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시다. 또 학재가 묘비에 글을 쓰는데 이름을 빌려주었다면 내가 감히 고사(固辭)할 수 없으니 나중에 사고(私稿)가 완성되기를 기다

269 선친의 전문: 김택술의 선친은 벽봉(碧峰) 김낙진(金洛進)으로 《간재집(良齋集)》〈김벽봉전(金碧峯傳)〉을 가리킨다.

렸다가 전찬(傳贊) 2자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보낸 편지에는 묘비에는 표(表)로 새기고 사고에는 전편(傳編)에 그대로 두고 주(註)를 더하라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한마디도 간절히 여쭙지 못하였고 전의 끝에 주를 달았는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난번 계화도에서 각처의 선비들에게 부음(訃音)을 알릴 때 문고를 꺼내 보니 전 말미에 첨가한 주는 있는데 묘비와 문고를 구별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께서 경신년 초의 명과 신유년 초의 편지대로 되돌리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서 희경에게 “주어(註語)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알리자 희경이 즉시 “그렇다면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이에 희경이 편(編)을 옮기고 제가 전찬 2자를 고쳤습니다. 목록에 “묘표에 옮겨 넣었다[移入墓表].” 4자도 희경이 썼습니다. 당시 순재[舜在 성기운(成璣運)] 및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으니 애당초 제가 멋대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대저 선생의 주는 실로 묘비에 표로 새기고 문고에는 전편에 넣으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애당초 선친에게 인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을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을 지을 때 및 작년 가을에 보낸 편지에 모두 이 말이 있습니다.】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은 처음에 “묘비에 표로 새기고 문고에는 전편에 넣으려는 것은 듣자하니 선생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나 끝내 표편(表編)에 넣었고 순재는 처음에 “선생께서 왜 제목을 고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한 뒤로는 또한 다른 말이 없었으니, 어찌 모두 사사로운 친분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뜻밖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으니 매우 황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자리에 형중(亨仲, 이종택(李鍾宅))과 경보

[敬父, 김종희(金鍾熙)]도 참여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당시에는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다가 지금에서야 근거를 끌어다 세워 호도(糊塗)한 잘못이라도 있는 양 저를 몰아가니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개 오늘날 우리들이 피차를 막론하고 어찌 스승의 문고가 완전무결하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스승의 명이 이미 그러하였으니 선친의 글은 전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본디 온당합니다. 이는 선친에게 아무런 보탬이나 손해가 없으니 제가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먹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헤아려 주십시오.

청도에서 당시에 오진영이 “이 주어(註語)를 보면 누가 표편에 넣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운운하여 이런 까닭에 앞뒤로 두 개의 논의가 있었으니 스스로 죄송한 마음에 보내는 답장입니다. 이 편지에서 “결국 표편에 넣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은, 마땅히 끝 부분에 “이 주어를 보면 ‘누가 표편에 넣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표편에 넣기로 정했습니다.”라고 해야 했는데, 문장이 상세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흠입니다. 대개 훗날 저쪽에서 이를 꼬투리 잡아 말할 줄 생각 못했으므로 더 유념하여 살피지 않아서 이런 허술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계해년 가을 권순명이 편지로 “제가 신유년 겨울에 문고에는 전편에 그대로 두고 본가는 표로 고쳤다는 편지를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전(本傳) 아래 또 친필 주해가 있으니 혹시 다시 처분이 있을 듯합니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대개 유영선은 이미 주어를 보고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하여 옮기면서 ‘묘표에 옮겨 넣었다.[移入墓表]’ 4자의 친필도 함께 옮겼습니다. 오진영도 ‘이 주어를 보면 누가 표편에 넣자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권순명은 끝내 친필로 주해를 달
았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전을 표편에 넣는 것은 본디 그들도 같이 보고서 공
정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진영은 제가 선친의
전에 농간을 부리다가 탄로나서 수정받았다고 하면서 원수로
여기니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 그 험악한 마음씨를
어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추기하였다.】

答清道諸人 壬戌十月

庚申九月 澤述入華島 請于先生曰：“昔年下筆先人傳文，願改作墓
表。”因以本草獻之，先生一覽畢曰：“幸其體裁可作墓表，其改之也。”
且曰：“然則文稿亦當移定也。”時值夜久，只令金龜洛就本草，以朱
筆，改傳字爲墓表字、改贊字爲銘字，文稿未及移定。而翼朝有故急
出，而既承師命，且有改定本，故一向自信無疑，又得確齋金台寫表
借銜矣。辛酉夏，以其由告禧卿，使之移稿，禧卿但信澤述言，於先
生前，無疑割移。先生曰：“胡爲而然？”禧卿以澤述言白，先生曰：
“余所不許，鍾賢豈爲之？是必有余諾，然亦何必乃爾？”【余所不許以
下，禧卿書中語。】顧卿自華島來，以其事語澤述，澤述以改定本示顧
卿，具告以實。顧卿以其由往稟，先生始悟，下書澤述曰：“昔年所作
先公傳贊，今既以碣銘，而它不易一字。且又得確台丈寫書借銜，則
愚未敢固辭，而俟後就私稿，不得不改傳贊二字也。”後番下書，則以
墓刻用表私稿仍傳添註之意，教之。故更無一言懇稟，而傳末之註不
註，亦不知之矣。向者，華島通訃于各處謁文家也。出見文稿，則傳
末有添註，而無墓與稿區別之語。故意“先生其復庚申初命、辛酉初
書歟？”乃告禧卿曰：“註語如此。”禧卿卽曰：“然則移定可也。”於是
禧卿移編，澤述改傳贊二字，目錄中移入墓表四字，亦禧卿筆。其時

舜在及諸人，皆在座，初非澤述擅改也。大抵先生之註，雖實出於表墓傳稿之意，初非有慳惜於先人，特以防他人之難處也。【作傳時及昨秋下書，皆有此語。】石農之始謂刻表傳稿，聞是先生意云，而終入於表，舜在之初有先生何不改題之說而後，亦無他辭者，豈皆牽於顏私而爲之哉？料外忽承僉狀，雖甚惶愧。然向日座上亨仲、敬父皆參在，何故默無一言，今乃引立援據，歸人於有若糊塗之科，殊不可曉也。蓋今日我輩，無論彼此，豈不但欲師稿之盡善歟？師命既然矣，則先人文字，仍置傳編，自是穩貼。此於先人無所增損，澤述豈敢有貳見乎？伏惟僉諒。

清道當日，吳謂：“觀此註語，孰不以爲入表？”云云，所以有前後貳論，自悚之答書也。此書中終入於表，當作“終曰：‘觀此註語，孰不以爲入表？’而定入於表。”而文不詳備是欠，蓋未料後日彼邊之執此爲言，故不加意察之，而有此疏漏也。癸亥秋，權純命書有曰：“此漢辛酉冬，既傳文稿仍傳本家改表之下書，然本傳下，又有親筆註解，則恐或更有處分。”云云，蓋柳既見註語謂“移定可也”而移之，并有移入墓表四字之親筆，吳又謂“觀此註語，孰不以爲入表”而決定矣。權終以親筆註解謂更有處分。當初傳之入表，自是渠輩同見公決者，而今吳謂余幻弄父傳而綻露見釐正，而作仇，則渠輩又同然一辭，吁其險心，何可當也？【追識】

청도의 여러 사람들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清道諸人 癸亥

아무개들이 아립니다. 10월에 보내신 답장에서, 천리(天理)와 인

정(人情)이 옛날에는 감춰졌다 지금 드러나 앞뒤로 차이가 있다고 반복해서 깨우쳐주신 것으로도 이미 감사한데 곧바로 친절하게 미혹된 부분을 지적하셨으니,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무어라 사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삼가 생각건대 천리와 인정은, 진실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기수(氣數)가 기승을 부려 드러나고 감춰지는 차이가 있고 진실로 동일한 것이지만 시기에 따라 같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무릇 간재의 사고(私稿)를 간행하자는 거사가 벌써 심상(心喪)을 지내는 3년 동안 있었으니 영전이나 묘소에 간소(刊所)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어찌 천리와 인정에 지극히 합당하여 의석(議席)에서 준엄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발의는 봉우(朋友)인 정평언(平彦, 정형규(鄭衡圭))가 익산(益山) 현동(玄洞)에 간소를 설치하여 옛날 자공(子貢)이 시묘살이했던 의리²⁷⁰를 붙이고자 하였는데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의 난처하다는 말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두 번째 발의는 예동(禮洞)의 김우(金友)가 계화도에서 재무를 관장하고자 했는데 아들 경부(敬父)와 다투어 정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의는 영, 호남의 사람들이 다시 상의하려고 했는데 석농이 고함치고 손을 휘둘러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발의는 김석린(金錫麟)이 계화도에서 사고를 교정하려고 했는데 유희경이 당돌하다고 논척하여 이날까지 못했습니다. 천리와 인정이 ㄷㄷㄷㄷ하고자 하여도 기세에 가려졌으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다는 것은 인심이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억지로 똑같이 한데

270 자공이 시묘살이했던 의리: 익산 현동은 전우의 초장지(初葬地)이다.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공자께서 돌아가시자 3년이 지난 다음 문인들이 집을 챙겨 돌아갔지만, 자공(子貢)은 다시 돌아와 묘 마당에 집을 짓고서 홀로 3년을 거처한 다음에 돌아갔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서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걱정 없이 간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영남에서는 일제에 인가(認可)받는 근심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 비할 수 없으니 여막을 지키면서 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의리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예에도 합당하니 이에 천리와 인정이 다시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억지로 똑같이 한 것과 달리 참으로 인심이 똑같은 데서 나올 것입니다.

석농이 대의(大議)를 말하고 순재가 업무를 맡았으니 누가 중망(衆望)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겠습니까? 간행하자는 논의를 낸 이는 본디 발인(發靛) 전 천백 인 중에 있었고 간소를 영남에 보내자는 이는 반우(返虞) 뒤 수십 인 중에 있었으며, 영남으로 사고를 보내는 경우는 선사의 친아들 정재[靜齋, 전화구(田華九)]도 미처 몰랐으니 아마 모두 동의하시는 가운데 끝내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고, 급박하지 않은 가운데 끝내 갑작스러운 점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 설달의 경장(更張)은 과연 잘못된 거행이었으니, 도(道)로 스승을 섬기는 데 합당하였다면 과감하게 결정하여 속히 진행해야지 곧바로 다시 상의한 것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사고를 받들어 전적으로 진행한다고 이미 편지에 썼다면 화합하는지 순응하는지를 막론하고 단지 신의를 지키려고 해야 하는데 끝내 예월(輓軌)의 경계²⁷¹를 면치 못한 것은 또 어째서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지엽(枝葉)이지 본질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국가의 일로 따지자면, 가령 받드

271 예월의 경계: 예월은 수레와 우마(牛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멍에, 끌채 등이다. 《논어(論語)》〈위정(爲政)〉에서 공자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예(輓)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軌)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신의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없다고 경계하였다.

시 임금을 떠난 뒤에야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을 경우 혹 그렇지 않는 것지만 임금을 따르며 나라를 보존하는 경우와 어찌 같겠으며, 가령 반드시 여막을 떠난 후에야 사고를 완성할 수 있는 일의 경우 혹 그렇지 않는 것지만 일거양득(一舉兩得)으로 천리를 온전히 체득하고 인정을 두루 흡족하게 하는 경우와 어찌 같겠습니까?

여러 공들께서 아마도 회답해주시리라고 밤낮으로 바란 지가 오래되었는데 답장에서 너희는 너희 갈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길 간다는 결안(結案)이 갑자기 나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멍하게 어찌할 바 모르게 하니, 저희들이 이에 또한 더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그동안 스승이 몸소 정리한 사고대로 묘재(墓齋)에서 간역을 시행하여 속히 활자로 인쇄하여 일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혹여 가르침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는 점을 헤아리어 깊이 탓하지 않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答清道諸人 癸亥

某等白. 承十月惠覆, 以天理人情之今昔隱顯、先後異同, 反復詰喻, 既以仰感, 指迷旋切, 愧悚莫省所謝也. 雖然, 鄙等竊以爲天理、人情, 固顯然底, 而氣之所乘, 有隱現之殊, 固同然底, 而時之所隨, 有異同之分也. 夫刊稿之舉, 既在心喪三年內, 則設於靈前或墓下, 豈非天理人情之至當而峻發於議席哉? 初發而鄭友平彥之欲設於玄洞, 以寓古人築場之義也, 則爲石農難處之說而罷之: 再發而禮洞金友之欲爲掌財於華島也, 則爲其子敬父所爭而止之: 三發而嶺、湖諸人之欲再作商議也, 則爲石農之所喝揮而未成: 四發而金錫麟之欲校稿於華島也, 則爲柳禧卿之斥以唐突而不得于斯時也. 天理人情 雖欲不

冊，爲氣勢所蔽，而顯行得乎？然則其所謂同者非人心之所同然，出於不得已之強同也。及其有湖刊之保無憂慮而不比嶺之涉於認累，則守廬而設刊，於義無愧，於禮爲得，於是乎天理、人情益復顯。然而貳於向之強同者，乃真出於人心之同然也。石農之發大議，舜在之受幹務，孰敢以爲不合衆望也？但刊議之發，固在於發引前千百人中，而刊所之之嶺，乃在於返虞後數十人中，其送稿於嶺也，至如先師親子靜齋，而亦未及知，則恐僉同之中，終有未同者存也：不遽之中，終有卒遽者存也。客臘之更張，果涉錯舉，則已如其合於以道事師也，宜乎勇決而速行之，其旋爲更商者，果何意也？奉稿專進，既筆之於書，則勿論其洽和與順應，但要信義之是守，而竟不免輓軌之戒者，又何也？雖然，此皆枝葉而非本之論也。請以來書所喻國家事質之，如必離君而後可存宗社，則已或其未然，孰若從君而存國也？如必離廬而後可完稿事，則已或其未然，孰若一舉兩得而爲全體天理、周洽人情也乎？諸公之庶幾回見，日夜望之者久矣。豈意其我邁爾征之結案，忽發於盛教也？使人惘然而失圖也，鄙等於此，亦復奈何？只得奉先師遺訓，依前後稿親定本，設役於墓齋，亟圖活印而竣事矣。倘蒙恕其違教自專而不深罪之，則幸甚。

용동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龍洞諸人 丙寅

용동본의 간행이 음흉한 무함이 자행(恣行)하고 진주본 간인이 한창 벌어지는 시기에 있으니 인가(認可)할 때의 무함(誣陷)을 먼저 토론하지 않고 급급하게 원고를 간역하니 선사의 원고를 온전히 지킨다는 명분도 이미 잃었고, 앞뒤의 의리도 음흉한 사람이

그 사이에 동참하는 것을 비호(庇護)하였다는 점을 면치 못합니다. 그 본(本)이 정순(正順)하다고 할 수 없지만, ‘헌정(獻靖)²⁷²의 남은 글’이라고 한 것은 세상에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근래에 사문(斯文) 송연구(宋淵求)씨에게서 인가를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선사의 뒷일이 곳곳마다 스스로 욕을 당하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가르침을 어기고 선사를 욕되이 한 죄를 작년 겨울에 진주본을 성토했던 글에서 이미 다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인가받아 간행하는 본 중에 실린 저희들 집안의 편지, 묘지(墓誌), 행장(行狀) 등 모든 글들은, 묵묵히 입 다문 채 내버려두어 가르침을 어기고 선사를 욕되이 한 죄에 함께 귀결될 수 없기에 이에 연명(聯名)으로 알리니, 속히 하나하나 빼서 간행본 속에 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與龍洞諸人 丙寅

貴刊之設，在陰誣肆行、晉印方張之日，不先討認誣，而汲汲稿役，已失衛師，先後之義，且又不免護陰人之同參其間，其本不可謂正順也，然惟其所謂獻靖遺書云者，足以有辭於國中矣。近於宋斯文淵求氏，聞乞認得許之報，噫先師後事在在自辱，良可痛也。其背訓累師之爲罪，昨冬討晉章已盡，復何言哉？惟是認刊中所載鄙等家牘誌狀一切文字，不可舍默任他同歸背累之罪，故茲以聯告 亟爲一一拔出，勿入刊中，幸甚。

272 헌정: 헌정은 옛 임금을 위해 자기 의리를 고수한다는 말로, 《서경(書經)》〈미자(微子)〉에 미자가 기자(箕子)와 비간(比干)에게 충고를 한 말에 기자가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자신의 뜻을 선왕에게 바칠 것이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은둔하겠다.[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邈.]”라고 답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남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人 丙辰

보내신 편지에서, “사람은 태어나 성(性)이 똑같고 심(心)과 기질(氣質) 또한 본디 똑같은데, 다만 용처(用處)에서 심, 기질이 성을 주재하지 않아서 천년 동안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고, “본디 선한 심과 본디 맑은 기를 보존하여 용(用)을 가지런히 하여 체(體)와 합한다.”라고 하셨는데, 제 견해는 이 부분에 속으로 헤아려볼 점이 있습니다.

“심, 성, 기질은 만인이 본디 같다.”라고 한 이상 성인(聖人)과 광인(狂人)의 높고 낮은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처에서 심, 기질이 성을 주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용(用)이란 것이 과연 이것이 무엇이기에 모두 똑같은 셋 가운데서 차이를 스스로 만듭니까?

예전에 이로 인하여 설을 얻었었습니다. 성은 무위(無爲)한 것이므로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여 성인과 범인이 똑같은 바입니다. 심은 유위(有爲)한 기이니 본디 선하지만 흘러서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근본을 말하면 모두 똑같지만 말단을 말하면 다름이 있습니다. 기질에 이르면 기가 드러나 작용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근본은 청수(淸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음양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초기를 말했을 뿐이니, 유기(游氣)가 형질을 이룬 뒤에는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이 만 가지로 고르지 않습니다.

온갖 고르지 않은 물건으로 천하의 온갖 일을 대응하면 가벼이는 어긋나고 무겁게는 패악스러운 변고가 있을 터이고, 본디 선한 마음이라는 것도 따라서 직분을 잃어 순전한 성을 받들어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용처에서 성을 주재하지 않는다

는 말이 어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용이 어긋나는 과실을 논하자면 기질의 구애(拘礙)로 심이 잘못 응대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께서 “부여받은 기질이 고르지 않아 성에 갖춰진 바를 알아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²⁷³”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찰하여 사욕을 이기는 방도를 논하자면 모두 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 반드시 기질을 따르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께서 “학문하여 크게 유익한 것은 스스로 기질 변화를 구하려는 데 있다.²⁷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질이 사람에 따라 같지 않음은 마치 흙탕물은 맑은 층과 탁한 층이 다양하고 철이 섞인 은은 순정한 부분과 불순한 부분이 들쭉날쭉한 것과 같아서, 상지(上智)는 순은과 맑은 물이고 하우(下愚)는 질이 나쁜 철과 진흙덩어리입니다. 무도(無道)한 자들을 제외하고, 현자 이하로 천고에 위대하고 독실한 선비들 중에 평생 심력을 쌓아 변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유기가 두터워 맑게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음양의 화생(化生)을 회복할 수 없게 됨을 끝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의 기는 그 성취를 궁구해보면 지극히 넓고 높고 정미하고 깊지만 끝내 약간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다른 나머지들은 논할 겨를 없고 도량이 협소한 백이(伯夷), 공손치 않은 유하혜(柳下惠), 뛰어난 재기의 맹자(孟子)에 이르러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로써 말하자면, 보내신 편지에서 본심과 본기를 보존하여 체에 합하고 용을 가지런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더욱 분명합니다.【이하 빠짐.】

273 부여받은……못한다: 이는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서 인용하였다.
 274 학문하여……있다: 이는 《장자전서(張子全書)》 권12 <어록(語錄)>에서 인용하였다.

答人 丙辰

來喻謂：“人生性同，心與氣質亦本同，特於用處，心、氣質之不幸於性，而千載無完人。”又謂：“保其本善之心、本清之氣，齊其用而與體合。”淺見於此有商量于中者矣。既曰：“心、性、氣質，萬人本同。”則宜無聖、狂高下之殊，而又曰：“特於用處，心、氣質之不幸於性”所謂用者，果是何物，而自作差異於三者皆同之中也？嘗因此而得其說焉。夫性者，無爲之物也，故純粹至善而聖、凡之所同也。心者，有爲之氣也，其本雖善，而流或爲惡，語其本則皆同，語其末則有異也。至於氣質則氣之克著，而見於作用者也。其本雖曰清粹，此以二氣化生之初而云爾，逮夫游氣成質之後，則清濁粹駁，有萬不齊。將有萬不齊之物，以應天下之萬事，乃有輕差重悖之變，所謂本善之心者，從而失職，而不能奉循乎純善之性。來喻所謂用處之不幸乎性者豈非此也？蓋論用差之失，則以氣質之拘而致心之錯應，故朱子曰：“氣稟不齊，不能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論省克之方，則都管此心作主而必令氣質聽順，故張子曰：“爲學大益，在自求變化氣質也。”雖然，氣質之隨人不齊，如帶泥之水清濁多般、和鐵之銀純雜相錯，上智之純銀·清水、下愚之惡鐵·泥塊。除是不道，自賢者以下，千古俊偉篤實之士，積生平心力，欲其化而入聖者，何限，而終無奈得乎游氣者重而澄清不得，無以復陰陽化生。厥初之氣，究其所就，雖極博高精深，終未免帶些氣質，他餘不暇論。至於伯夷之隘、柳下惠之不恭、孟子之英氣，可知已。末由此言之，來喻所謂保本心、本氣，而齊用合體之難者，尤較然也。【以下缺】

남에게 답함 경인년(1920)

答人 庚申

이(理)는 순진(純眞)하고 무위(無爲)하여 신(神)을 기다려야 쓰이게 됩니다. 신은 영명하고 유위(有爲)하여 저 리를 묘하게 합니다. 【이는 만물을 묘하게 하고 온갖 이치를 묘하게 한다는 묘²⁷⁵이니, 본연의 묘와 다릅니다. 아래 4개의 묘도 그렇습니다.】 묘하게 하는 것은 신이고, 묘하게 되는 것은 이이니, 신이 아니면 묘하게 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참되고 하나는 영묘하여 능(能, 주제)과 소(所, 객체)가 각기 다르니 어찌 섞어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제넘은 생각에는, 울곡 어른의 23자 불역결(不易訣)²⁷⁶은 이기(理氣)의 단안(斷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신(理神)의 단안이 될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答人 庚申

理也者，純眞無爲，待神而爲用者也。神也者，靈明有爲有以妙【此是妙萬物、妙衆理之妙，與本然之妙不同。下四妙字亦然。】夫理者也。

275 만물을……묘: 만물을 묘하게 한다는 말은 《주역(周易)》〈설괘전(說卦傳)〉에 “신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神也者，妙萬物而爲言者也.]”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고, 온갖 이치를 묘하게 한다는 말은 주자가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치지(致知)의 지(知)에 대해 “지(知)는 심(心)의 신명(神明)으로, 온갖 이치를 묘하게 하여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276 불역결: 《울곡전서(栗谷全書)》 권10 〈답성호원 임신(答成浩原壬申)〉에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게 하는 원인은 이(理)이니,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라고 하고서 자주(自註)에, “‘발지(發之)’ 이하 23자는 성인(聖人)이 다시 나와도 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妙之者神也，所以妙者理也，非神則不能妙，非理則無所妙。一真一靈能所自別，胡得混爲一物？故妄謂栗翁卅三字不易訣，非獨爲理氣斷案，亦可以爲理神斷案也。

후창집 제11권

최이구 민열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崔以求 敏烈 乙亥

나의 문장을 그대가 전할 만하다고 여겨서 선사(繕寫)하여 소장하려고 한데 아마도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본디 문장에 재주와 식견도 없고 또 힘을 쏟아 붓지도 않았습시다. 나아가 유학자의 이치가 뛰어난 문장으로 세교(世敎)에 보탬이 되지도 못했고, 물러나 문인의 기교있는 말로 남의 이목을 즐겁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장차 누구에게 보일 것이며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대저 고금의 문장에 진력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육일옹(六一翁 구양수)은 오히려 다 사라졌다고 슬피 탄식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맹자(孟子), 한유(韓愈), 주자(朱子), 송시열(宋時烈) 네 현인의 문장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전해지는 실체를 궁구해보면, 맹자는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변별했고, 한유는 노자와 불가를 변별했고, 주자는 육상산(陸象山 육구연)을 변별했고, 송시열은 흑수(黑水)²⁷⁷를 변별했으니, 이처럼 이단을 변별한 것을 제이의(第二義)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씨와 김씨가²⁷⁸ 무함(誣陷)과 배신의 변을 일으켜 사도(師道)가 밝혀지지 못

277 흑수(黑水) : 윤희를 가리킨다. 윤희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 여’ 자로 겹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희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278 오씨와 김씨 : 간재의 문인이었던 오진영과 김용승으로 보인다.

함을 통분해하고 사벽(辭闕)²⁷⁹할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여 허다한 심력을 소비해 수많은 문장을 썼습니다. 확연한 효과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단을 물리치는 무리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찍이 많이 양보할 수 없어서 스스로 맹자, 한유, 주자, 송시열 네 현인의 마음을 본받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 맹자께서 우(禹)임금,周公(周公), 공자, 삼성의 공을 이은 것도 실로 이점(이단을 물리친 것)에 있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평생의 학문은 하나도 성취한 바가 없지만 오직 이 일만큼은 가히 손에 쥐고 선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간옹의 도가 끝내 어두워질 이치가 없으니, 나의 변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태양 빛에 의지하고 천리마 꼬리에 붙어서 함께 비추고 아울러 이르는 것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밖의 부수적인 글들은 오직 변문에 의지해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그대가 써서 소장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점을 보셨기 때문이겠지요.

與崔以求 敏烈 乙亥

鄙文君以爲可傳，欲繕寫而藏之，恐不必爾也。自念於此，素無才識，又不致力。進不得爲儒者理勝之文之裨蓋世教退，不得爲文人巧麗之辭之悅人耳目。將誰觀而誰傳？夫以古今盡心於文字間者，六一翁猶發泯滅可悲之歎，況如余者哉？惟是孟韓朱宋四賢之文，傳至于今炳炳如也。而究其可傳之實，則辨楊墨，辨老佛，辨象山，辨黑水者，不可作第二義看矣。吾於吳金誣倍之變，痛師道之不明，慨辭闕之無人，費了許多心力，立了許多文字。廓如之效，雖不能奏，言距之徒，

279 사벽(辭闕) : 말로 밝혀 물리친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尙書書)>에 “양자운(揚子雲)이 이끄기를 ‘옛날에 양주와 목적이 정도(正道)를 막으므로 맹자가 말로 밝혀 물리쳐서 환하게 터놓았다.[古者楊墨塞路 孟子辭而闕之廓如也]”라고 하였다. 《古文眞寶後集》

曾不多讓，自以爲法孟韓朱宋四賢之心。如孟子承禹周孔三聖之功者，實在於此。又自以爲平生爲學，無一所就，惟此事可以藉手見先師也。噫！良翁之道，無終晦之理，則吾之辨文，亦可保其不泯。所以依光附尾，同照并致者，又在於此。而外此漫著，惟賴辨文而并傳歟。君之欲寫藏而備不虞者，其有見於此耶。

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崔以求 乙亥

일전에 나의 이름이 <도지학행편(道誌學行篇)> 초단(草單)²⁸⁰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 또한 반드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확실히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심장이 뛰고 불안합니다. 예전에 《잠헌보감(簪獻寶鑑)》이 간행될 때에 선사의 위치와 덕망으로도 오히려 벼슬아치도 아니고 훌륭한 선비도 아니니 마땅히 그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나 택술과 박중당(朴中堂)에게 명하여 가서 공평(公坪) 박모에게 부탁해 기어코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나처럼 학문도 없고 덕행도 없어서 천만부당한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결단코 실질 없는 명성을 무릅쓰고 하늘을 속이는 죄안을 얻어서 세상에 넘치는 비웃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급히 간행소로 가서 만약 나의 이름이 있거든 초고에서 빼버리는 것이 참으로 옳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비록 불초

280 초단(草單) : 아직 정서되기 이전의 것을 초단이라 하고, 정서하여 도장을 누르고 수결을 받으면 이를 정단(正單)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제 아버지를 높이고 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려할만한 것은 다수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 본군의 서책 이외에 부안군의 서책도 아울러 검토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與崔以求 乙亥

向聞賤名入於〈道誌學行篇〉草單中之說。吾固知其不可信。賢亦云必無是事，故不以爲意矣。今再聞有人的見之說，則心動而不安矣。昔年《簪獻寶鑑》之刊也，以先師之位德，猶自謂非簪非獻，不宜在其中，命澤述及朴中堂往囑公坪朴某，期令勿入。況如賤子之無學無行萬萬不當者乎？決不敢冒當無實之名，得欺天之罪案，而取溢世之笑罔也。賢其亟往刊所，如有賤名，拔去草單，至可至可。兒輩雖不肖，吾信其不以此尊其父而又諱之。萬有一可慮者，多數之宗族也。本郡券以外，扶安卷兼閱如何。

최이구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崔以求 乙亥

지난날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족형인 원숙(元淑)씨를 방문했습니다. 원숙이 이르기를 ‘그대의 집례(執禮)와 여묘(廬墓)가 나의 가르침에서 흥기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근래에 지은 〈과족제최효자여묘(過族弟崔孝子墓廬)〉라는 시를 보여주며, 그 가운데 “‘상(喪)을 만나서 예를 행하는데 어진 기풍이 있다(丁憂執禮有仁風)’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어진 기풍은 실로 그대 후창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내가 “이 무슨 말인가요? 나의

행의(行義)는 진실로 남을 교화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안 대대로 효성이 지극하고 거상(居喪)을 잘하는 가풍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어찌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을 버리고 타인의 가르침에 흥기되어서이겠습니까? 그것은 형께서 잘못 아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이 말은 이미 실질을 잃은 것인즉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했던 까닭은 그대가 나를 오랫동안 종유하여 깊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생각해보건대 그대가 만일 처음도 잘하고 마지막 끝도 잘 맺어서 세상에 이름이 거론되기를 소련(小連)과 대련(大連)²⁸¹처럼 한다면 어찌 나에게도 영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대가 만일 정문(情文)²⁸²을 다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뒷말을 두게 된다면 나에게도 어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이미 그렇다 하고, 또 생각해보니 집상(執喪)의 예를 다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효 가운데 한 가지 일이고, 학문을 하여 덕을 세워서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성취하는 것은 효의 전체입니다. 그러니 치우치거나 온전히 다하는 사이에 소효(小孝)와 대효(大孝)가 갈리는 것입니다. 지금 심산 외로운 여막 가운데서 만 가지 인연을 끊고 오직 아버지 효도 일념만을 자석이 남쪽을 가리키듯 할 것입니다. 같은 효라고 하면 어찌 편소한 효만 일삼고 온전하고 큰 효는 힘 쓰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삼년간 독례(讀禮)²⁸³의 여가에 경전을

281 소련(小連)과 대련(大連) : “소련과 대련이 거상을 잘하여 3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3개월을 해이하게 하지 않고, 1년을 슬퍼하고, 3년을 걱정하였는데, 이들은 동이(東夷)의 사람이다.”《예기(禮記)》〈잡기(雜記)〉

282 정문(情文) : 내용과 형식으로, 예를 들면 제사(祭祀)에 있어서 조상을 사모하는 것은 정(情)이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儀式)은 문(文)에 해당한다.

283 독례(讀禮) : 거상(居喪) 중에는 상례 및 제례와 관련된 예서(禮書)만 읽어야 해서 상중에 있음을 말한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상례를 읽고, 장사 지낸 뒤에는 제례를 읽는다.[未葬讀喪禮, 既葬讀祭禮.]”《예기(禮

읽고 의리를 생각하고 궁구하여 많은 근본자리를 세운다면 일생동안 덕을 세우고 몸을 닦는 효에 있어서도 힘쓰기 쉬울 것이니, 그렇게 하는 일이 지극히 옳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남들이 나에게 이택(麗澤)²⁸⁴의 공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가르침의 근원을 묻는다면 그것은 옛날 구산옹(臼山翁)²⁸⁵의 교화를 친히 받들어 흥기한 것임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별지)

조석(朝夕)의 곡(哭)은 생전의 혼정신성(昏定晨省)²⁸⁶ 본뜬 것입니다. 혼정신성에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이니 조석의 곡도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묘(廬墓)에는 묘소에 궤전(饋尊)이 없는데 조석의 절까지 아울러 없앤다면, 이는 끝내 종일토록 묘소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석으로 묘소에 올라갈 때에는 마땅히 절하고 곡을 해야 합니다. 이 절하고 곡하는 선후는 소학(小學)에 “왕부(王褒)가 조석으로 절하고 꿇어앉아 비통하게 호곡했다.”라는 문장에 근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與崔以求 乙亥

向日歸路，訪貴族兄元淑氏。淑謂哀之執禮廬墓爲興賤子之風。因出

記》〈곡례(曲禮)〉

284 이택(麗澤) : 붕우(朋友)가 함께 학문을 강습하여 서로 성장해 감을 뜻한다.

285 구산옹(臼山翁) : 구산은 간재 전우의 호 가운데 하나이다.

286 혼정신성(昏定晨省) : “자식이 된 자는 어버이에 대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려야 하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한다.[凡爲人子之禮冬溫而夏淸 昏定而晨省]”《예기》〈곡례(曲禮)〉

其近作〈過族弟崔孝子墓廬〉詩，丁憂執禮有仁風之句曰，此所謂仁風，實指後滄而言。余曰惡是何言？吾之行義，固無可以風人者。設有之，其家自有篤孝善居喪之世風。安得舍其世風而興他人風？兄誤矣誤矣。蓋此言既失實際，則不必再道。但其所以來此，則豈非以哀從我久而信之深也乎。因此而思之，哀能克始有終，稱名於世若小大連之爲，則豈不有榮於我乎？又反此而思之，哀若未盡情文，人得以議其後，則於我亦豈好聞乎？此既然矣，抑又念之，執喪盡禮以報劬勞之恩，孝之一事，爲學入德以成親之遺身，孝之全體。偏全之間，大小分矣。今於深山孤廬之中，萬緣潛息，惟有孝親一念如鐵指南。等是孝也，豈容徒事偏小而不勉全大乎？須於三年讀禮之暇，看取經傳，念究義理，立得幾多本地，其於一生立德成身之孝，庶易爲力，至可至可。苟如是也，人謂我麗澤有功，不欲多讓。若問風之所自，自是舊日親承白山翁之風而興之者，有不可誣也，如何如何？

(別紙)

朝夕哭，是象生時定省。定省不拜者，朝夕哭亦當無拜。然至於廬墓，墓既無饋尊，而并無朝夕拜，則是終日無拜於墓也。其可乎？朝夕上墓當拜哭。拜哭先後，據小學王哀朝夕拜跪悲號之文，可見。

최이구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崔以求 己卯

지난번 그대가 윤월에 돌아가신 분의 상기일자(祥忌日子)에 대해 물으시기에 윤달에 붙은 달과 날을 쓴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윤달의 다음 달 날짜를 쓰려고 하니, 가히 근거로 삼아 이들을 배척할 수 있는 예서(禮書)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고찰해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쟁변하는 것이 또한 수고롭지 않은가요? 세속은 무지한 데다 더욱 겸하여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무지한자는 참으로 가엾지만 이기기 좋아하는 자는 증오스럽습니다. 무지한 자는 깨우쳐줄 수 있지만 이기기 좋아하는 자는 깨우쳐줄 수도 없습니다. 1년 전에 호중(湖中)의 어떤 사람이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예설을 근거로 장례식장에서 힘써 변론했다가 어떤 사람에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참으로 우습고 이러한 풍토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호승(好勝)의 폐단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일로 보건대 그대는 가히 예를 그르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음만한데도 도리어 믿지 않고, 모 성씨의 하는 바가 이와 같다느니, 모 서원의 중론이 이와 같다느니 주장들 합니다. 아! 모성(某姓) 현조(顯祖)의 선현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행할 바일까요? 오늘날 서원은 진실로 독서하고 강례(講禮)하는 곳입니까? 이같이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예도 오히려 이와 같은 설로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니 그들의 이기기 좋아하는 습성을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방임하고 쟁변하지 않는 것이 아마도 말할 때와 침묵할 때의 올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崔以求 己卯

向問以閏月亡者祥忌日子，答以閏所附之月日。今又以人不見信而欲用閏之此月之日，索可據而斥之之禮書，故考出寫送。然與此等人爭辨，不亦勞乎？世俗無知，更兼好勝。無知者可哀，好勝者可惡。無知者可喻，好勝者不可喻。年前湖中有人據沙溪禮說，力辨於葬會中，被人批頰云。此事可笑，此風可怕。而好勝之弊，以至於此。以今事論之，高明即可信其爲不誤禮之人，及不之信而曰某姓氏所行如此，

某書院僉論如此。噫! 某姓顯祖之先賢, 今生存而所行乎? 今之書院, 眞讀書講禮之所乎? 似此明白易知之禮, 猶欲以此等說, 壓倒人, 其好勝之習, 如何抵當得? 任其所爲, 勿與之辨, 恐得爲語嘿之道。如何如何?

최이구에게 보냄 기묘년(1939)

與崔以求 己卯

그대는 지난날 태용(泰庸) 신경재(申敬齋)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지요? 그때 구암집(苟庵集)²⁸⁷을 간행하지 않고 깊이 소장한 것은 완순(完順)군이 저들(총독부)의 인가를 요청하여 구옹(苟翁)께 누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완순군은 도를 배운 군자가 아닌데도 오히려 이 의리를 압니다. 하물며 우리 간옹선사는 일생 도를 배워 당대 유학의 종장이었는데, 저들의 인가를 내서 원고를 간행하라는 교시가 있었던 말입니까? 오진영이 인가(認可) 내는 일로 누를 끼치는 것으로도 부족해 또 이러한 설로 무함(誣陷)하니, 오호라! 애통합니다.

與崔以求 己卯

君不記向日申敬齋泰庸之言乎? 其不曰苟庵集之不刊行而深藏, 以完順君之不欲請彼認而累苟翁乎? 完順非學道君子, 猶知此義。矧乎吾

287 구암집(苟庵集) : 구암은 신응조(申應朝, 1804~1899)의 호이다. 1852년(철종3)에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이조, 예조 판서를 지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재집권하게 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 저서로 《구암집(苟庵集)》이 있다.

良翁先師一生學道，爲當世儒宗，而有出認刊稿之教乎？吳也認累之不足，而又以此說誣之，嗚乎！痛矣。

이사유 한응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李士裕 漢膺 庚午

내가 처음 여행하던 숙소에서 그대를 만났을 때에 단결한 용모와 청아한 자태, 굳은 지조와 화락한 말을 보니 타고난 유자(儒者)의 기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와 며칠 이야기를 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경도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간에 어찌 이처럼 좋은 자질의 사람이 있었던 말인가? 이는 반드시 마음속에 뜻으로 숭상함이 있을 것이니 함께 도에 나아갈만한 자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마음으로 흠복하고 거의 일 년이 지나도록 잠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홀연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니 스스로 말하길 ‘일찍 고아가 되었으나 학문을 하고 싶어 주경야독 하였고, 근자에는 객지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도를 향한 일념이 불길처럼 타올라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편지를 받들고 세 번 탄식하기를 “이러했구나! 이 사람이” 하면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이 있었고 궁함을 당해 뜻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대를 알게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나 또한 25세 이후로 농사지으며 독서하면서 온갖 곤고를 겪은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가업을 그르쳐서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나이가 젊고 힘이 강해서 정신을 가다듬어 독서에 정진할 시기인데, 농사일로 몸을 수고롭게 하고 먹고 살아야할 계산이 마음을

어지럽힌 것이 이처럼 오래된다면, 학문을 쌓고 학업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금일에 이르도록 ‘오류(汗流)들을 부끄러워하여 함께 하지 아니하고 구학(溝壑)을 가리켜 잊지 않는 뜻’을 대략이나마 세운 것은 일찍이 곤궁을 당하던 날의 힘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제 온 편지를 읽어보니 나와 그대가 겪었던 일과 뜻한 바가 너무나 흡사하여 이미 동병의 탄식이 절실합니다. 처음에 더불어 도에 갈만하다고 여겼던 자가 끝내 함께 돌아갈 수 있어서 더욱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 천하에 얻기 어려운 것이 동지인데, 이미 동지를 얻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힘쓰게 하여 이른바 도학을 구하고자 생각지 않는다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진실한 마음은 성심(誠心)입니다. 옛날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원성을 가르칠 때에²⁸⁸ 성심으로 하였고 망언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대의 편지에서 ‘나를 선생 대군자라 칭하고 쏘(灑掃) 물 뿌리고 비로 쓰는 일)의 일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나의 실제 모습을 마주하면 진실로 실질과 맞지 않는 망언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청하건대 향후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런 넘치는 칭찬은 삭제하시고, 정성스럽고 진정으로 교류하여 함께 귀숙(歸宿)할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옳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귀숙할 곳 또한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평생토록 몸가짐에 있어서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밝게 착안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용기 있게 발걸음을 디딘 연후에 거의 참된 경지의 소재를 알 수 있을 것입

288 사마온공……때에 : 사마온공은 송(宋)나라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3)으로 죽은 뒤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 부른다. 원성은 북송의 명신인 유안세(劉安世, 1048~1125)로 그가 원성 사람이므로 그렇게 칭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의 문인이다. 《宋史》에 〈劉安世列傳〉이 있다.

니다. 이제 그대와 몇 건의 서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궁리(窮理)는 절근(切近)한 것을 먼저하고 현원(玄遠)을 멀리합시다. 마음 닦는 것은 작은 악(惡)도 끊고 은독(隱獨)을 삼갑시다. 자기를 닦는 것은 허명을 멀리하고 실덕을 힘씁시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근검에 힘쓰고 영리추구를 그치며, 세상을 부지하는 것은 윤리를 숭상하고 물욕과 이익을 낮추며,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문사를 경시하고 경학을 중시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추구해나가서 “언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²⁸⁹면 비록 진리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李士裕 漢膺 庚午

僕始遇高明於旅次也，見其端潔之容，清雅之態，介然之操，藹然之言，天來是儒者氣像。與之語數日，不覺傾倒。以爲世間安得有好資質若此？是必中有志尚，可與適道者也。心固欽服，蓋經歲而未嘗暫忘也。忽承辱賤，奉審自道早孤欲學，中兼耕讀，近作館苦之狀，而向道一念，如火益烈，自有不可遏者。僕奉簡而三歎曰，有是哉！若人也，於是乎益知其自幼絕異之質，蓋信其當窮益堅之志，微此書，吾猶淺知夫若人也。噫！僕亦二五以後，且耕且讀，備經困苦爲七年者。爲其失怙敗業奉老艱食故也。此正年壯力強致精劇讀之時，而犁鋤之役勞其身，粟帛之筭撓其心，若此之久，其不能積學而富業也審矣。雖然至于今日，粗立羞汗流而不同，指溝壑而不忘之志者，未始非當日困衡之力也。今讀來書，僕與高明所遭所志，恰恰相似。既切同病之歎。復辛始之可與者終之同歸矣。嗟乎！天下難得者同志也，既得同志，而不思所以實心交勗以求所謂一箇道學，豈不可惜？夫實

289 언지……않는다. : 《중용장구》 제20장에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대 언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다.[有不思，思之，不得不措也。]”라는 말이 있다.

心者誠心也。昔溫公教元城以誠也以不妄語爲先。今惠書之稱僕以先生大君子供灑掃之役等說，果當於僕之眞狀而爲誠實不妄之語乎。切乞向後書來，刪却此等溢獎，斷斷以眞情相，與同尋歸宿之地，至可至可。僕又竊念歸宿之地，非容易可尋。須於生平行己處事，明著眼，專著心，勇著步然後，庶可識眞境所在。今欲與高明立數件誓約曰：窮理則先切近而後玄遠。治心則絕纖惡慎隱獨。修己則遠虛名而勉實德。理家則務勤儉而息營求。扶世則尚倫理而下物利。教人則輕文辭而重經術。由此求之，不得不措則雖不中不遠矣。高明以爲如何？

이사유에게 답함 임신년(1932)

答李士裕 壬申

받은 서신 중 “금년에도 집에서 먹지 못한다(今年又不可食)”는 여섯 글자는 다소 개탄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 가운데서도 몸소 농사짓고 품팔이하면서 학업을 이룬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비록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 농사짓고 품팔이 하는 일에 비하면 오히려 여력이 있어서 가히 책을 보고 이치를 연마할 수 있습니다. 공문(孔門)의 여러 제자가 대부 집안에 벼슬했음에도 공자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선비들이 그것을 버리면 먹고 살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대에게는 속수(束修)의 예²⁹⁰가 있고 나에게서는 식력(食力

290 속수의 예 :속수는 한 묶음의 말린 고기로 제자가 글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아갈 때 간단한 예물을 바치는 예(禮)이다. 공자가 “속수의 예를 행한 자 그 이상에 대해서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自行束脩以上，吾未嘗無誨焉。)”라고 하였다 《論語 述而》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힘)의 의리가 있으니 삼가(三家)²⁹¹에게 베풀었던 자들과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리로 보나 힘으로 보나 모두 우리 학문에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송나라의 황면재(黃勉齋),²⁹² 청의 육삼어(陸三魚)²⁹³ 및 근세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에 이르기까지 모두 객지의 선생노릇을 면치 못했지만, 그들이 수립한 학문의 세계는 자유롭게 전력했던 자들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때문에 스스로 겸연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答李士裕 壬申

來書中，今年又不家食六字，似有多少慨歎意。此殊不然。古之人有躬耕行傭而成學業者。教課雖勤，比諸耕傭，猶有餘力可以觀書研理。孔門諸子，仕大夫之家而不見斥者，以當時士子舍此無食道故也。今也則在彼有束修之禮，在我有食力之義，不可與仕三家者同日語也。以義以力，俱不防吾學。是以如宋之黃勉齋清之陸三魚，以及近世炳庵金公，皆不免爲人館客，而其所樹立，非自由專力者之所及。其不可而此而自歎也明矣。

291 삼가(三家) : 춘추 시대 노(魯)나라에서 정권을 잡았던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 계손씨(季孫氏)를 말한다. 《論語 季氏 註》

292 황면재(黃勉齋) : 송나라 황간(黃榦 1152-1221)으로 면재는 그의 호이다. 주희에게 수학하였는데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사위로 삼았다.

293 육삼어(陸三魚) : 육농기(陸隴其, 1630~1693)를 말한다. 정주학(程朱學)을 숭배하고 양명학(陽明學)을 극력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삼어당집(三魚堂集)》이 있다.

이사유에게 보냄 임오년(1942)

與李士裕 壬午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이문회우(以文會友)하고 이우보인(以友輔仁)²⁹⁴한다”고 했습니다. 금일의 선비들은 애초에 문(文)으로 모임이 없으니 어찌 보인(輔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끝내 벗과 모이지 못하고 인(仁)을 보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책 가운데 현인이 있으니 서로 만날 수 있고, 지난 행실에 인이 있으니 도울 수 있으며, 또 나아가 마음과 이치로 만난다면 그 인(仁)이 나의 인(仁)이 될 것이니 보인(輔仁)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와 내가 힘이 들고 길이 막혀서 서로 만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모두 시서가 갖추어져 있고 서책 가운데 현철(賢哲)이 들어 있으니 이와 같은 만남 없는 만남이 될 것인즉, 누가 금하여 행(行 독서)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우리들은 각각 그 몸을 공경히 하고 힘쓸 따름입니다.

與李士裕 壬午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今日士子，初無文會，安有輔仁？然則竟無可會之友可輔之仁乎？曰否不然。卷中有人，可以相會，往行有仁，可以爲輔，又進乎此而心與理會，則仁卽吾仁而無待乎輔矣。貴與我力艱道梗，無由相會，然彼此俱有詩書，書中俱有賢哲，若此無會之會，則爲誰之禁而不爲也？只此吾輩各敬其身而勉之而已。

294 이문회우(以文會友), 이우보인(以友輔仁) : 《논어》〈안연(顏淵)〉에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 인을 돕는다.’[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고 하였다.

이사유에게 답함 기축년(1949)

答李士裕

봄과 여름 사이 문득 그대가 병중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려 온 풍문인지라 증세가 어떤 상황인지, 경중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 까닭이 없어서 항상 울적했습니다. 그러다 홀연 손수 쓴 편지를 받고 놀랍고 기쁜 마음에 열어 읽어보니, “십년동안 병으로 누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놀랍고 근심됨이 어떠했겠습니까? 일찍이 그와 같음을 알았더라면 저 또한 비록 병중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 편지를 보내서 위문하고, 또 인편을 찾아서 탐문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진(秦)나라 사람이 월(越)나라 사람 보듯 무관심 했겠습니까? 사문(師門)의 호칭이나 제자라 칭하는 것은 일의 체면이 심히 중대하여 가볍게 말할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그대처럼 포부를 가진 사람이 저처럼 고루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개 옛날에는 스승이란 명칭이 없었고 스승의 직책은 군주가 겸직했으나 후세에 군주가 스승의 직책을 잃었습니다. 그런 후에 난공자(欒共子)가 “백성은 세 스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²⁹⁵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맹자가 나열한 사도(司徒)가 관장하고 있는 오륜 가운데, 사생(師生)의 윤리가 없는 것은 그것이 붕우(朋友)의 윤리 가운데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스승은 벗 가운

295 난공자(欒共子)……살아간다. : 《소학집주(小學集註)》〈명륜(明倫)〉에 난공자(欒共子)가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섬기기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 주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임금은 나를 먹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임금이 먹여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 낳아 주신 것과 똑같다.[民生於三，事之如一。父生之，師教之，君食之，非父不生，非食不長，非教不知，生之族也。]”라고 하였다.

데 자기보다 나은 자요, 학생은 벗 가운데 자신보다 못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의 학문이 비록 저보다 못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그만두고자하지 않는다면 원컨대 옛날 봉우의 도를 가지고 더욱 면려(勉勵)하고, 오늘날 사생의 명칭을 쓰지 말고 더욱 실질에 힘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세하게 편지의 심획(心劃 글씨)을 살펴보니 정밀하고 바른 것이 평상시와 같으니 몸조리를 잘 하신다면 평상을 회복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이 만약 송나라에 복을 내리신다면 어찌 다른 우려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병술년(1946년)에 가족 넷을 잃은 이후에 다시 정해년(1947년)에 큰 병을 앓고 난 나머지 점점 폐인이 돼가고 있으니 어찌 오래살기를 기약하겠습니까? 동병의 처지에 서로 가련히 여기는 정이 절실하여 아득히 동쪽을 바라보며 서글픈 마음에 말이 많아졌습니다.

答李士裕 己丑

春夏間作聞賢座久在所愼。然其來是風，證崇之何狀，輕重之何境，無由得詳，恒以爲鬱。忽承手書，驚喜開讀，則乃有十年抱病坐臥須人等語。其爲警憂，又復若何？早知其如此，鄙亦雖病中人，豈不發書相問，覓便轉探，而至今作秦越之視哉？師門之號，小子之稱，事體甚重，非可輕言。況以賢座之抱負賤子之固陋乎。蓋古者無師之名，師之職兼於君，後世君失師職。然後有樂共子所論民生於三之師矣。是故孟子所列司徒所典五倫之中，無師生之倫者，以其備在朋友之倫也。何者？師者友之勝己者，生者友之不如己者也。今賢座之學，雖非不如賤子，然如欲無已，則願將古者朋友之道而益加勉勵，不用今世師生之名，而益事實際，如何如何？細審心畫，精正如常，善加調將，可信回平，天若祚宋，豈有他慮？惟是之祝。鄙則丙戌四

喪之後，丁亥大病之餘，轉成廢人，其何能久視哉？同病之地，只切相憐之情，東望黯然，寧不多言。

종제 자유 인술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宗弟子由仁術 己巳

근래에 그대가 액난(厄難)을 만나 먹고살기 어렵게 된 후부터 그 근경으로 인해 번뇌가 발생해 내면의 실질적인 일에 다소 방해가 될까 염려했는데, 지난번 손수 쓴 편지를 받고나서 그 정력(定力 학문의 힘)이 이미 탁연하고, 문장과 학문을 논하는 것이 불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또한 금세 청년 중에도 믿을만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묻는 것이 나를 흥기 시킨다”라는 사람이 곧 그대이니 타인이 아닌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언급한 말에 대해서는 합당함을 잃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약하고 바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는 자들이 현재 완성된 실제의 덕이라 간주하고 그것을 아부의 말이라고 지적한다면 어찌 나 때문에 그대에게도 병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히 두렵습니다. 현재 우리 도(道)의 궁함이 극도에 들어, 풍조(風潮)의 요탕함에 휩쓸리는 혼백을 빼앗기고, 구학(溝壑)이 눈앞에 닥치매 노성(老成)한 이들은 걸음을 잃고 있습니다. 천하를 돌아보매 이 아득히 실추된 자취를 부촉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석현(昔賢)이 이르길 “하늘이 일세에 사람을 낼 때에는 스스로 일세의 일을 마칠 수 있게 하였다.”²⁹⁶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의 재주를 헤아려 하류(下流)를 면치 못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자기의 재주와 뜻이 조금이라도 일반 사람과 다름이 있다면 곧 하늘이 나를 낸 것이 반드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퇴탁(退托)하여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은 학자의 큰 꺼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이 긴 밤을 만나서 가히 믿을만한 사람이 없게 된 날을 만났으니 분발자강(奮發自強)하여 자신의 도를 닦아 세상에 확충시켜 떳떳한 윤리를 밝히고 세교를 행하여 마땅히 이 세상의 일을 마칠 사람이 될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를 버리고 남들까지 버리는 것이니 불인(不仁)과 부지(不智)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읽고 있는 《한천편(寒泉編)》²⁹⁷ 가운데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하여 도를 세우며, 전대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가야 한다.”라는 훈계를 보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으로 큰 절박(節拍)을 삼는다면 곧 평생의 대사가 무슨 일을 하던지 절반을 이룰 것입니다. 크게 보고 얻는 것이 이보다 높은 것이 없을 터이니, 어찌 몇 편을 송독하는 효과와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내온 편지에서 “자중자려(自重自勵)하여 진상(陳相)을²⁹⁸ 범치 않을 터이니 가르치는 제자의 반열에 두기를 청합니다.”라는 말에서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힘쓰고자 하는 “걸음걸이를 넓게 차지하고, 의지를 굳게 가진다.”라는 것으로 그대의 일층 격앙된 뜻을 돕고자 합니다. 또 일상생활 가

296 하늘이……하였다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에 나오는 말로 “천지가 한 시대의 인재를 낼 때는 한 시대의 일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天地生一人, 自足了一世事。]”라고 하였다.

297 한천편(寒泉編) : 《근사록(近思錄)》을 말한다.

298 진상(陳相) : 《맹자》〈등문공상〉에 나오는 인물로, 본래 유학자인 진량(陳良)에게 유가의 학설을 배웠지만 농가(農家)인 허행(許行)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여 맹자의 질책을 받았다.

운데 진덕수업(進德修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편(한천편)의 격치(格致), 존양(存養) 등의 항목이 있으니 번거롭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答宗弟子由 仁術 己巳

近自賢弟遭厄艱食之後，意其因境生惱，少妨向裡實事，頃得手書，見其定力既有卓然，措辭論學，又復可觀。乃知根深之木，非風雨之可撼，今世青年中，亦有可恃人物。所問起余者，即賢弟是已，非他人也，何辛何辛。至於語及此身者，有失稱停。然認出期望之愛，則非不可感。但見之者，視作見成實德，而指謂阿好之言，則豈不以我而病賢弟乎？可懼可懼。見今吾道之窮，入於極度，風潮之蕩，少者奪魄，溝壑之迫，老成失步。環顧宇內，扶此茫茫之墜緒者，何人乎？昔賢不云乎？天生一世人，自足了一世事。自量己材，苟不免下流則已，如其之才之志，稍有異乎衆者，則是天之生我，必非偶然。退托自少之爲學者大忌，尙矣。而况遭此世入長夜，無人可恃之日，不思所以奮發自強修道于身，而推之於世，使彝倫明而世教行，當得了此世事之人，則其爲自棄棄人，不仁不智亦已大矣。盍觀乎盛課《寒泉編》中，爲天地立心，爲生民立道，爲前聖繼絕學，爲萬世開太平之訓乎？若能於此四爲，把作一箇大節拍，即此平生大事，思過半矣。其爲大見得，莫此爲尙，豈可以幾篇之誦讀，與論於效果哉？今於來狀自重自勵毋犯陳相乞置教數等語，深有感焉。以所欲自勉於闊占地步硬著脊梁者，庸助賢弟一層激昂之志。至於日間進修之方，自有此編格致存養等目在，不必煩提耳。

종제 자유에게 보냄 계유년(1933)

與宗弟子由 癸酉

지난번 여흥 김용승²⁹⁹의 일에 대해 논했는데 그대가 나의 변론을 보고 “그가 스승을 배반한 실체임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내가 다시 번거롭게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랑캐 연호를 썼다고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을 배척한 일은 일찍이 명백한 변문(辨文)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니, 때문에 내가 다시 상논(詳論)하여 그대에게 알려주어서 보고 듣는 것의 미혹됨을 깨뜨려주겠습니다. 그는 “노주가 오랑캐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야(朝野)에 가히 근거할만한 문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집(本集) 경세문(警世文)에³⁰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비록 저 오랑캐의 정삭(正朔)을 행하더라도 공사(公私) 문헌에 대부분 여전히 숭정(崇禎) 연호를 쓰는 것은 실로 정밀한 의리가 있다. 이것이 어찌 한갓 황명(皇明)이 재조(再造)한 은혜³⁰¹를 잊지 않아서이겠는가? 신주(神州 중화)가 침탈을 당해 존왕양이(尊王攘夷)를 강론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성인이 10월을 양월(陽月)이라 부른 의리를 취하여 공언(空言)에 양기(陽氣)의 일선을 기탁하여 그것을 써서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대개 경세의 정론이 이미 이와 같은 즉 어찌 스스로 오랑캐 연호를 쓸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김씨는

299 여흥의 김씨 : 김씨는 김용승(金容承)을 말한다. 처음에는 후창과 함께 오진영을 성토하는 쪽에 가담했으나 뒤에 돌아선 자이다.

300 본집(本集) 경세문(警世文) : 노주 오희상의 《노주집(老洲集)》〈경세문(警世文)〉을 말한다.

301 황명(皇明)이……은혜 : 명(明)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의미이다.

《매산집(梅山集)》의 〈간노주용노년서(諫老洲用虜年書)〉’를 근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매산집(梅山集)》에 그 글이 있는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진실로 있다하더라도 노주가 애초에 쓰지 않았는데 매산이 혹 노주가 그것을 사용할까 지나치게 우려하여 규간하여 그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모두가 노주에게 손상 될 것이 없는데도 어찌하여 괴롭게 구차히 비난하는 것인지요? 김씨는 늘 “이 의리(오랑캐 연호를 쓰지 않는 것)는 우리 집안 삼백년간 대대로 지켜온 것이요. 중화를 높이는데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설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근자에 〈김과제행장(金過齊行狀)〉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소에 송정연호를 썼느냐고 물으니, 답하기를 ‘위호(僞號 오랑캐 연호)를 썼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구(知舊 오랜 친구)들이 의심한다고 하니, ‘우리 선세(先世)는 과목(科目 문과 무과 등 과거)으로 출신(出身 벼슬살이)했기 때문에 부득불 쓰지 않을 수 없어서 나 또한 썼다.’” 이 문장은 본고(本稿) 11권 4판에 있는데 송강제(宋剛齊)가 편찬한 것입니다. 과제(過齊)는 곧 김씨의 5대조조로 함께 충정공(忠正公)에서부터 나왔고 그의 고조(高祖)는 매산(梅山)의 스승입니다. 그 고조의 연원과 도학은 세상에서 나라 안의 대가(大家)로 칭해졌으니, 비단 김문(金門)의 으뜸만이 아닙니다. 과제(過齊)도 이와 같았으니, 그가 말한 우리 집안의 삼백년 지켜온 의리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대저 김씨가 노주(老洲)를 배척한 것이 공정한 것인가? 사사로운 것인가? 물으면 저는 반드시 공정한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인 과제(過齊)에 있어서는 위호(僞號)가 들어간 글이 본고에 드러났음에도 은폐하여 말하지 않고, 노주(老洲)에 있어서는 경세의 문장이 일세에 전파되었음에도 애써 이를 심히 배척

하니, 이를 공심(公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김씨가 과제(過齊)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면, 곧 자기 집안의 문헌에도 오히려 어두운 것이니 어찌 유독 노주(老洲)가 꼭 위호(僞號)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에게 공정한 마음이 있다면 과제(過齊)의 사건을 보여준 날에 마땅히 그 편견과 망언을 사과하고 복종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거늘, 그런 계책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끈하여 “어디 사는 놈이 과제(過齊)의 유고(遺稿)를 이와 같이 인출하였단 말인가?”라고 진노하니, 그렇다면 저 인출한 원고가 조작되어 그 문장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아! 그러니 그 사람됨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기기 좋아하는 기질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망상이 습관이 되어 극복해내지 못하고 고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진영과 시기하고 교묘하게 쟁변하다가, 노주(老洲)가 오진영의 족조(族祖)로 성리의 여러 설이 오진영에게 인용되기 때문에 노주의 설까지 아울러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돌고 돌아 노주가 오랑캐 연호를 썼다고 배척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노주(老洲)는 우리 선사(先師 간재) 연원의 정맥(正脈)으로 가장 존신(尊信)해야 할 분이거늘 저들이 감히 배척하기를 여력을 남기지 않으니, 어찌 인무(認誣)³⁰²를 믿고 선사(先師)를 사우(師友)로 여기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사문의 죄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까?

與宗第子由 癸酉

向論驪金事， 左右既見鄙辨， 而謂明知其爲倍師之實， 則吾不須再煩。 若其斥老洲以書虜年， 則未曾有明辨之文， 故茲復詳論以告左右，

302 인무(認誣) : 스승과 절의를 무함하여 원고를 고치고 일제의 허가를 받아 선사의 유집을 간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并以破觀聽之惑。其云老洲用虜年者，雖未知出於朝野文字之可據者與否。然本集警世文，有曰國中縱行彼虜正朔，公私文獻亦多尚記崇禎年號者，實有精義。豈徒爲不忘皇明再造之恩而然哉？神州陸沈，無地可講尊攘矣。竊取聖人十月號陽月之義，欲寓一線於空言，用俟河清已矣。蓋其警世之定論既如此，則豈有自用虜年之理哉？金謂《梅山集》有〈諫老洲用虜年書〉，此爲可據。梅集之有無，亦不可知，信有之安知其非洲初不用，梅或過慮洲或欲用，因諫而止耶？如此則俱無損於老洲，何苦苟訾乎哉？金常曰此義吾家三百年世守，尊周之家，莫不皆然，此說亦不然。近觀〈金過齋行狀〉，有人問疏中書崇禎年號耶，答曰書僞號。知舊多疑之者，而吾先世科目出身，不得不用，故吾亦用之。此見本稿十一卷四板，而宋剛齋撰也。過齋卽金之族五代祖，而同出於忠正公，其高祖梅山之師也。淵源道學，世所稱國中大家，非獨爲金門最矣。過齋而如此，則所謂吾家三百年世守之義者，果安在哉？蓋金斥老洲者，爲公耶？爲私也？彼必曰爲公矣。然在過齋則僞號之書，明著本稿而掩之不言，在老洲，則警世之文，布諸一世而斥之甚力，是可謂公心耶？若曰不知過齋之有此，則自家文獻，尙且昧然者，何以獨知老洲之必用僞號乎？苟有公心於左右，示以過齋事之日，當謝服其偏見妄言之不暇，計不出此，乃勃然怒曰，何許漢印出過齋遺稿乃如此？彼謂印稿者，造入此文也耶？噫！其人可知己矣。蓋其好勝之氣，自尊之習，不能克下，爲其痼疾。始與吳震泳猜巧爭辨，因以老洲爲震族祖，而性理諸說爲震引用，故并不滿其說，而輾轉至於斥以用虜號而極矣。老洲先師之淵源正脈，而最所尊信者，彼敢斥之不遺餘力，何待信認誣而師友先師然後爲得罪斯文耶？

종제 자유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宗弟子由 癸酉

그대는 편지에서 “여흥 김씨가 간옹에게 심복하지 않는 것은 성리설(性理說)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기(理氣)가 일물(一物)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명덕(明德)이 기(氣)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도심(道心)에 과불급(過不及)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理氣)의 원두(原頭)가 이물(二物)이라는 것은 퇴계(退溪) 선생도 동일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명덕(明德)과 도심(道心)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자고로 선현 중에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흥 김씨가 사우(師友)로 대우하는 것이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러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진실로 김씨가 일찍이 선사에게 망령되게 의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우 간으로 대우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생(師生) 간에 의론이 같지 않은 경우는 종고 이래로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때문에 칭호를 고쳤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마땅치 않는 말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순수한 스승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생전에 이견(異見)이 있던 날부터 그러해야지 어찌 유명(幽明)이 크게 갈린 연후에 비로소 이와 같은 설을 두겠습니까? 대개 김씨는 기절(氣節)로 스스로를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홀연 음인(陰人 오진영)의 인무(認誣)를 듣고 문인 되기를 부끄러워해서 결연히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또 스승을 배신했다는 이름도 싫어하여 이처럼 심복하지 않는다는 설을 만들어 애초부터 사우(師友)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식(掩飾 가리고 꾸밈)하는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일찍이 망령되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선사께서 평일에 이미 다음과 같이 명백

히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주자는 ‘도(道)가 기(器)이고, 기(器)가 도(道)이다.’라고 하시고, 또 ‘도(道)와 기(器)는 하나이다.’라고 하시고, 또 ‘도(道)와 기(器)는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그 실질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자께서 도기(道器)가 일물(一物)이라고 말한 것이 이와 같이 많거늘 이제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어찌 고찰함이 상세하지 않고 말이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자가 훗날 또 말하길 “이기(理氣)는 결단코 이물(二物)이다.”라고 하시고, 또 “음양(陰陽)을 단지 형이상(形而上)자로만 여긴다면 도기(道器)의 분수에 어두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선생께서 이(理)에 대해 혹은 일물(一物)이다 하시고, 혹은 이물(二物)이라 하시는 것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자는 모두 이해하지만 어두운 자는 모두 막힙니다. 율곡 이이께서는 “이미 이물(二物)이 아니고 또 일물(一物)도 아니다. 일물(一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물(二物)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땅하고 둘 다 서로 균정하여 우리 학맥의 이기(理氣)의 정안자(正案者)가 되었습니다. 또 이기(理氣)의 원두(原頭)에 대해 논하실 때는 ‘명덕(明德)은 분명히 지각(知覺)과 정의(情意)가 있다’라고 하시고 또 ‘심(心 마음)은 기(氣)에 소속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氣)라는 글자는 조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유자들이 이(理)로 인식한 허령(虛靈)입니다. 그 령(靈)을 이(理)로 인식한다면 《대학》 주에 나오는 ‘작리(作理)를 구리(具理)’의 뜻으로 보아야 할까요? 《성학집요》 〈수장(首章)〉의 안설(按說)에 “성(性)은 명덕에 갖추어져 있고 도(道)는 명덕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도(道)를 행하고 성(性)을 갖춘 것을 다만 이(理)로 여기면 과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또한 심히 율옹(栗翁 이이)을 존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명덕(明德)을 기(氣)라고 논할 때에 말씀하시길
 “증자(曾子)가 아버지를 섬김에 뜻을 따르는 것은 도심(道心)이다.
 그러나 큰 매를 피하지 않는 것은 도심(道心)이 중(中)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상에 극진히 슬퍼하는 것은 도심(道心)이다.
 그러나 7일 동안 먹지 않는 것은 도심(道心)이 중(中)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도심(道心)의 과불급(過不及)에
 대해 논한 것도 모두 원고 가운데 보이는데 그 중 이기(理氣)가 하
 나인가? 둘인가? 논한 것은 저(김씨)에게 답한 편지 내용 가운데에
 있습니다. 명덕(明德)과 도심(道心)을 논한 것이 비록 나에게 답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말씀에서 실컷 받들어 들어온 것들입니다. 주
 자(朱子)와 율옹(栗翁)에 근거하고 사리(事理)를 징험하여 정론(定
 論)을 세움이 이와 같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사납게 불복하면서
 “자고로 선현가운데 이와 같이 본 자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니 이
 를 더 이상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문자로 저술하여 훗날에
 전해지는 것도 장차 유리병처럼 스스로 깨지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소중히 여겨지겠습니까? 그대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
 니라고 근심하여 내가 통렬히 분석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는 어찌
 이리를 보고 호랑이라고 놀라고, 햇별 아래 등불을 켜는 일이 아
 니겠습니까? 또 그가 잘못을 고치고 심복하는 일이 거의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대는 어찌 그리 일을 보는 것이 밝지 못한지
 요? 김씨가 배신하고 떠난 것은 인무(認誣)의 미혹됨에 달린 것이
 고, 이것은 엄식(掩飾)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비록 세 가지 안건을 분석하여 귀에 우레를
 울리고 촛불을 눈에 비추어 미혹된 것을 풀어준다 해도 개복(改服)
 에 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또 그는 편견으로 스스로만 옳다고 여
 기는 한쪽만을 붙잡아 통하지 않으니 친히 손수 쓰신 유서(遺書)를

보고서도 여전히 망령되고 어긋난 견해만을 지킵니다. 그리고 평일의 정론을 익숙히 듣고서도 끝내 복종하지 않을 뜻을 가집니다. 선사의 대절(大節)과 웅변(雄辨)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와 같거나 어찌 나머지 사람들의 말에 깨우쳐 기꺼이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그만 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答宗第子由 癸酉

所示驪金之謂不心服於良翁者，自性理說而始然。其一曰理氣一物。其二曰明德爲氣。其三曰道心有過不及。理氣之原頭二物，退溪之所同見。明德道心之如此看，自古先賢無如此者。待以師友間者，豈無所見而然乎云云，此固金之所嘗妄疑於先師者，然以此而待師友間云，則不成說。師生之間，議論不同，從古何限。而皆未聞因此而改其稱號，則已是無當之言，且若以此而不欲待以純師，則當自生前異見日而已然，何至幽明大判後始有此說乎？蓋金以氣節自許者。故忽聞陰人之認誣，恥爲門人，而決然背去。又惡背師之名，則爲此不心服之說，有若從初待以師友者然。而掩飾之情狀顯露，人誰信諸？若其所嘗妄疑者，則先師平日已有明白說破者。其曰朱子曰道則器器則道，又曰道器一也，又曰道器之名雖異，然其實一也。朱子之言道器一物，如是之多，而今曰云云，豈非考之未詳而言之太輕歟？朱子他日又嘗言，理氣決是二物，又言直以陰陽爲形而上者，則昧於道器之分矣。竊謂諸先生於理，或曰一物，或曰二物，皆有其指。達者皆通，昧者皆窒。栗翁言既非二物，又非一物，非一物故一而二，非二物故二而一也。其言平穩，兩相均停，可爲吾門理氣之正案者。論理氣原頭也，其曰明德分明是有知覺情意，而謂心屬氣。此氣字非粗低，乃世儒所認爲理之虛靈也。認靈爲理，則《大學》註作理以具理看也？輯要首章，按說性明德之所具，道明德之所行，行道具性者，直以爲理果安

於心乎? 抑亦甚尊敬栗翁者歟? 論明德爲氣也, 其曰曾子事親順志, 道心也, 而不避大杖, 道心之未合中也。親喪致哀, 道心也。而七日不食, 道心之未合中也者。論道心過不及也, 俱見於稿中, 而其論理氣一二者? 答渠書也。其論明德道心者, 雖非答渠, 而亦所飫承於雅言者也。據之朱栗, 證之事理, 立爲定論, 若此之明切, 而猶悍然不服曰, 自古先賢無如此看, 則亦復何哉? 其所云著之文字以傳諸後者, 將見琉璃瓶子自碎之不暇, 何能爲有? 高明之憂以非細故而欲淺陋之痛加剖析, 豈非見狸而驚虎添燈於日下者耶? 且謂其改服, 庶幾在此者, 何其見事不明? 金之背去, 在惑認誣, 而此不過爲掩飾。是其真情。則雖使剖析三案, 雷耳燭目, 所釋非所惑, 無所益於改服。又其偏見自是, 執一不通, 親見手筆之遺書, 猶守妄悖之見。熟聞平日之定論, 而終有不服之意。於先師之大節雄辨乎, 尙能如此, 豈肯見悟於餘人之言, 而回其頭也? 不如置之而已。

이협천 재영에게 보냄 기미년(1919)

與李協天 在英 己未

가만히 보건대 협천은 이 일(학문)에 대해서 철석같이 분비(憤悱)하는 마음이 언사와 안색에 드러나고 정성된 뜻은 신명에게 질정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나는 너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아서 농사에 힘써서 수확을 걷는 것처럼 성취가 있을 것임을 안다. 다만 성취를 추구하기를 너무 서둘러서 도리어 진취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것을 농사에 비유해보겠다. 대저 쌀독이 비고 솔에 먼지가 낀 집안은 어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밥을 짓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그러나 천시(天時)에는 빠르고

늦음이 있고, 인력(人力)에 차등이 있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짝이 트고, 이삭이 피고, 열매가 맺혀, 튼실해지는 것은 절로 이르는 날이 있거늘, 만일 어리석은 사내가 있어서 그것을 뽑아서 조장한다면 곧바로 짝이 말라서 종세(終歲)토록 굶주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 한 해를 마치도록 굶주리는 것은 오히려 슬퍼할 것이 없으나 학문을 조장하는 것은, 나는 그의 일생을 그르칠까 두렵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처음에는 화급하게 공부를 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다가 후에 그 공부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무너지듯 폐하게 된다. 이미 학문을 폐하게 되면 향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날마다 낮은 하류로 달려갈 뿐이니 이것이 첫 번째 우려할만한 것이다. 또 속성(速成)을 바라는 자는 대체로 명성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하는 경우가 많다. 명성을 추구하는데 관계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위선이 된다. 위선이 되면 본성은 사라지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근심이다. 이미 속성을 바라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때때로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보다 나은 자가 바야흐로 전진하는 것을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가 밑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마음이 그렇게 사특하게 되면 신명의 견책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세 번째 근심이다. 이 세 가지 근심을 범하고도 일생을 그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하여 성인들은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얻을 수 있는 일을 뒤에 하라”라고 하셨고 또 “차분히 사색하고 깊이 체인하여 선후 순서를 두라.”고 하셨으며, 또 “나아감이 날카로운 자는 그 물러남도 빠르다.”라고 하셨다. 만일 단박에 급히 성취할 이치가 있다면 옛 성인들께서 어찌하여 곧바로 들어 알려주시지 않고 이와 같이 부지런히 힘쓰고 지속하라는 가르침을 두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속히 이루기를 바라면 얻지 못하고 해만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아성인 안자(顔子)도 재주가 고갈한 나머지 한숨짓는 탄식이 있었고, 증자도 오랜 세월을 쌓은 연후에 일이관지(一以貫之)라고 대답했던 사실”을 살피지 않는가? 그런데 (너는) 도리어 한 흙의 재주로 작은 힘을 쓰면서 크나큰 효과를 바라고 있으니, 이것은 저 풍년을 기도하는 자가 제나라 순우곤(淳于髡)의 비웃음을 받은 일에³⁰³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다만 서서히 하되 속성을 바라지 말고, 급급해 하되 느슨해지지 말 것이다. 염증내지 말고 길을 바꾸지도 말고, 시종 한 가지 뜻으로 한 치를 얻어도 한자를 얻어도 모두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할 것이며, 빈 곳을 채운 후에 나아가고 문장을 이룬 후에 도달하는 것뿐이다. 그대가 날카롭게 징창(懲創 징계)하는 뜻이 매우 절실한데 지나치게 급박한 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 말을 알려주노니 그 조급함을 진정시키고, 그 능력을 펼치는데 부디 뜻을 더하기 바란다.

與李協天 在英 己未

竊觀協天于此事，心石腸鐵，憤悻見辭色，誠意質神明。吾知其功塔不壞，力農有秋。但恐求成太速而反害進就也。請且農以喻之。夫甕空而釜塵之家。豈不欲朝下種而夕炊飯？無奈天時有早晚，人力有此序？苗秀實堅，自有月至，一有癡獸漢者，摠之而助長，則立見枯其苗，而終歲飢。噫！終歲之飢，猶爲無傷也，學之助長，吾恐其誤了

303 저 풍년을……받은 일에 : 전국 시대 제나라 위왕(威王)이 초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순우곤(淳于髡)을 조(趙)나라로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하는데, 초나라에 보내는 예물을 매우 인색하게 준비하였다. 이에 순우곤이 ‘돼지 족발 하나로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이, 고지대 밭의 수확도 광주리에 가득하고, 저지대 밭의 수확도 수레에 가득 차게 하며, 오곡이 모두 잘 익어 집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더라는 이야기로 왕을 깨우쳤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淳于髡》

他一生也。曷謂焉？始也火急去做，無遺餘力，後無以繼之，則頽然而廢。其廢乎此，則所向者何？日究乎迂下而已，此一可憂也。且欲速者類多先名後實。才涉爲名，是爲僞也。爲僞則本心亡矣，此二可憂也。既不免欲速，則時常以己方人嫉勝己者之方進。幸遜己者之在下。此心此慮，神譴難逃，此三可憂也。犯此三憂而曰不誤其生，吾不信也。故曰先難後獲，曰優柔厭飶，有先後次序，曰其進銳者，其退速。苟有驀地亟就之理，往聖何不直舉告之，爲此勤苦彌留之教哉？正以其欲速不得而害己隨之也。蓋嘗觀乎喟然之歎，發顏聖竭才之餘，一貫之唯，在曾氏積久之後。顧乃以龠合之才，用些兒力，而望多大之效，不幾乎祈田者之爲齊髡所笑矣乎？然則如之何而可？不過曰徐徐毋欲速，汲汲毋欲緩，不厭不改，終始一意，得寸得尺，皆爲我有，盈科而後進，成章而後達而已矣。君之懲創，銳意頗切而有傷急迫。故以此說告之，令鎮其躁而紓其力，幸或加意否。

이협천에게 답함 경신년(1920)

答李協天 庚申

편지를 받아보니 “봄, 여름을 허송하여 독서를 기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구나. 어찌 분비(憤悱)하고 망식(妄息)하는 정성이 몇 개월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재처럼 식어버려서 ‘빨리 나아가면 물러남도 빠르다.’라는 나의 예견을 신명처럼 징험하게 하느냐. 이점에 있어서 나도 사람을 알아보면 철인이라는 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 철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대가 불인(不仁)하게 된다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금강산을 여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큰 망상이다. 해상의 금강이

비록 아름다우나 서책 가운데의 금강이 더욱 아름다움만 같지 못하다. 해상의 기이한 경관은 눈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지만, 서책 가운데 오묘한 이치를 완색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마음과 눈의 경중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 마음의 소중함을 안다면 반드시 서책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로 그치지 못할 것이다. 부디 급히 수레를 돌려 온고지신(溫故知新)하며 예전처럼 생활하여라. 처음처럼 마지막을 잘 마친다면 시장에서 매를 맞는 부끄러움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대 가문에 뛰어난 오룡(五龍 다섯 형제)이 끝내 한 사람도 식자(識者)가 되지 못할 것이니 거듭 안타깝구나.

答李協天 庚申

辱書有虛送春夏讀書未必等語。何其憤悻妄食之誠，烟消灰冷於數月之間，而使淺見進銳退速之憂，見驗如神耶。於是乎拙者與有知人之哲矣。然終輸知哲於拙者，則賢者之不仁，豈不可惜？金剛之行，大是妄想。海上金剛雖好，不如書中金剛之尤好。海上奇觀，不過爲悅目而止，書中妙玩，乃所以悅吾心也。心之與目，輕重奚在？知吾心之所以爲重，則書之必讀，自有不容已矣。幸汲汲回輟，溫古食舊克終如始。得免市撻之恥如何？不然君家矯矯五龍，恐竟無一識字者矣，重可惜也。

이헌영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李 憲永 乙丑

지난 그믐 이별할 때에 그대의 눈을 보니 거의 눈물이 줄줄 흐

를 듯 했으니 나의 혼도 어찌 슬피 녹아내리지 않았겠는가?304 얼마 후 듣자하니 다음날 아침 강교(江郊)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별했을 때에 끝내 나의(蘿衣 은자의 복장)를 적셨다고 들었다. 그러한 행동이 바로 우리 현영다운 것이리라. 그 눈물이 어찌 벗과 이별하는 애달픈 정 때문 만이었겠는가? 학문의 파도가 막 용솨음 쳐 오르는데 서탁(書橐)의 금305이 다하여 공부가 끊어짐을 개탄하고 우수 같은 세월을 한탄한 것이니 어찌 눈물 한번 흘러내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눈물을 쏟은 것이 곧 현영이 학문에 뜻이 있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오호라! 종고 이래로 뜻은 있지만 자금이 떨어져 학업 성취에 방해를 받은 자가 어찌 한이306 있겠는가? 내가 그대를 아끼지만 도울 길이 없어서 다만 두보(杜甫)의 <대비한사(大庇寒士)>307의 탄식만 절절하구나. 그러나 분수에 따라 공부를 하는 것도 옛사람이 이르지 않았던가? 나는 ‘분수에 따른다는 것은 곧 분수에 편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귀에 뜻을 두고 분수에 안주하지 못한 자는 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덕업에 뜻을 두었는데도 분수에 안주하지 못한 자 또한 허물과 인색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행유여력즉학문(行有餘力則學文)’308과 ‘필유사언물망물정(必有事焉勿忘勿正)’309 열여섯 글자를 그대에게 보내니

304 이별할……않았겠는가? : 강엄(江淹)은 그의 <별부(別賦)> 첫머리에서 “암담하게 애간장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이별하는 일이구나[黯黯銷魂者，唯別而已矣。]” 하였다.

305 서탁(書橐)의 금 :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자금의 의미이다.

306 한이 : 원문에는 恨이나 限으로 여겨 번역하였다.

307 대비한사(大庇寒士) : 두보(杜甫)는 <모옥위추풍소파가(茅屋爲秋風所破歌)>에서 “어떻게 하면 천만 칸의 넓은 집을 얻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들을 크게 덮어 주어 모두 즐겁게 하고, 비바람에도 산처럼 끄떡없이 편안하게 할까?[安得廣廈千萬間，大庇天下寒士俱歡顏，風雨不動安如山]”라는 구절이 있다.

308 행유여력즉학문 : 《논어 학이(學而)》 “[弟子 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則以學文]”

한편으로는 사람의 도리에 따라 부여된 직책을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공부의 절차로 삼아서 한번 마련한 전일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答李 憲永 乙丑

去晦之別，見君眼睫，幾乎潛潛然淚矣，我之魂豈不斃然銷乎？俄聞翼朝江郊羣別，竟不覺蘿衣之濕，此所以爲吾憲永也。斯漏也豈爲雲樹勞勞之情？文瀾之泉纔湧，書橐之金告罄，慨工夫之間斷，恨流光之迅駛，安得不恨恨然一涕也？惟其恨恨乎此，此憲永之所以爲有志也。嗚呼！從古來，有志無姿而妨進就者何恨？愛莫助之，只切老杜大庇寒士之歎。雖然隨分施功，古不云乎？余謂隨分者即安分也。志富貴而不安分者，固不足論也，志德業而不安分者，亦致咎吝。今以行有餘力，則以學文，必有事焉，勿忘勿正，十六字，奉呈，一以修人道之分職，一以作工程之節度，俾毋負所辦一志而已。

김순만 상락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順萬 常洛 乙丑

“뜻을 세움이 높지 못해 안맹(顔孟 안자 맹자)을 언급하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고차원적인 것을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진료옹(陳了翁)³¹⁰의 말이다. 내가 그를 이어서 “자임(自任)함

309 필유사언물망물정 :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말하며 “반드시 무슨 일을 하되 미리 기약하지 말아서, 마음에 잊지 말며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라고 하였다. 《맹자》〈공손 추상(公孫丑上)〉

310 진료옹(陳了翁) : 송(宋)나라 때 학자인 진관(陳瓘, 1057~1124)을 가

이 무겁지 않아서 세도를 부지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지 않는다면, 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대저 성현의 학문은 가까이 수신(修身)으로부터 멀리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이른다. 공맹(孔孟)께서는 도를 이미 통하시고 제후를 낱낱이 방문했으나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돌아가 서책을 저술하여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쳤으며,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였기에 일치(一治)의 운³¹¹에 해당시킨 것이, 이러한 연고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유(先儒)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부지(扶持)하는 자는 (세도를) 부지하는 것으로 부지하는 자요. 재야에 있으면서 부지하는 자는 불부지(不扶持, 교육 등)로 부지한다는 것이 또한 이런 뜻이다. 대저 학문에 뜻을 두면서 안맹(顔孟)에 뜻을 두지 않는 자는 전성(前聖)을 이어서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려는 자가 아니다. 또 세도(世道)로 마음을 삼지 않는 자는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주려는 자가 아니다. 다만 이 일념(一念)이 이미 스스로를 샷되게 하는 큰 요인이니, 어찌 학문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개 세상의 화(禍)는 완급(緩急)의 차이가 있고 성인의 공택(功澤)에는 대소의 차이가 있다. 비록 우임금처럼 홍수를 다스려 천지를 평성(平成)하지 못하고, 맹자처럼 양목을 배척하여 사악함을 물리치고 성인의 도를 옹호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 만일 성학(聖學)을 밝히고 민속을 바르게 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세도를 부지했다는 공을 허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창려(昌黎) 한유(韓愈)를 보지 않는가? 한유의 도는 대원(大源)을

리킨다. 요용은 그의 호이다.

311 일치(一治)의 운 : 한 시대를 평치한 공로이다. 맹자(孟子)는 사설(邪說)을 막는 자신의 일을, 우(禹)가 홍수(洪水)를 다스린 일, 주공(周公)이 이적(夷狄)을 겸병한 공, 공자가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두렵게 한 일과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다스린 것이라고 하였다.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

궁구하지 못했고, 학문 또한 요체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천년의 학문이 끊어진 후, 세상의 화란이 매우 급박하던 날에 불로(佛老)를 배척했기 때문에 상론자(尙論者)³¹²들이 그의 공을 맹자에 버금간다고 말한다. 다만 지금 천하의 화는 태고 이래로 있지 않은 바이니, 대성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족히 (세상을) 부지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대가 나의 말에 겸손히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그대는 뜻이 굳건하고 견해가 밝으며, 행동이 민첩하고 기(氣)가 맑다. 그러니 만일 안자(顏子)가 말한 것처럼 “순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³¹³ 라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옛 성인에 미치고 이 세상을 부지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비록 갑자기 미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찌 한유의 사업에는 많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한유가 될 수 있다면 우임금, 맹자의 사업도 순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니, 그대는 힘쓰기를 부탁한다.

答金順萬 常洛 乙丑

立志不高，語及顏孟而不敢當，則不可以語上，此陳了翁語也。余嘗繼之曰，自任不重，不以扶世道爲心，則不足與有爲也。夫聖賢之學，近自修身，遠而至於治平天下。孔孟之道既通，歷聘諸侯而不遇。則歸而著書，尊華而攘夷，遏人欲存天理，以當一治之運者，爲是故也。故先儒有言，出而扶持者，以扶持而扶持者也。處而扶持者，以不扶持而扶持者也，亦此意也。夫爲學而不以顏孟立志者，非爲前聖繼絕學者也。不以世道爲心者，非爲萬世開太平者也。只此一念，己是自私之大者，焉用學爲哉？蓋世禍有緩急之殊，功澤有大小之異。

312 상론자(尙論者) : 옛것을 평론하는 자들로 《맹자(孟子) 만장(萬章)》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313 순은……사람인가?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안연(顏淵)의 말로 인용되어 나온다.

雖不能地平天成，若禹抑洪水，閑聖距諛，若孟斥楊墨，然生斯世也，苟有能明聖學正民俗者，皆可許以扶世道之功。盍觀乎昌黎韓氏？道不能究大源，學且不得其要。以其排斥佛老於千載絕學之後，世禍孔急之日，故尚論者，稱其功亞於孟子乎。顧今天下之禍，振古之所未有，非有大聖賢出，不足以扶持。此君之所以謙謙於余言也。然君志堅而見明，行敏而氣清。苟能以顏子之舜何予何爲心，其於及古聖而扶斯世也，何難之有？雖不可遽及，亦豈多讓於昌黎氏事業乎？既得爲昌黎，則禹孟之業，可馴致矣，請君之勗哉。

족속 낙조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族叔 洛潮 乙丑

학문에 대해서 논한 말씀은 모두 이치에 맞습니다. 예컨대 “작은 일을 삼가지 않는다면 덕을 넓힐 수 없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쉴 때에도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마땅히 실천해야 할 서적으로는 소학만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금일 청년의 무리 가운데 어디에서 이런 말을 얻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것이 예로부터 환난이였습니다. 만일 일일이 실천하여 말과 행동이 서로를 돌아보게 되면³¹⁴ 오랜 후에 홀연히 자신도 모르게 고명 광대한 경지에 들어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한때의 이치에 맞는 논설로 도리어 허튼 변론만 조장하여 실사(實事)에 이익이 없다면 어찌 경계할 일

314 말과……되면 : 《중용장구》 제13장에 “말할 때는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할 때는 말을 돌아보니 군자가 어찌 독실하지 않겠는가?(言顧行 行顧言 君子胡不慥慥爾?)”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점에 뜻을 더하십시오.

答族叔 洛潮 乙丑

所論爲學，皆中理。如不謹小節，莫之弘德。一動一息，莫不有至理，當行之籍，莫如小學之云，今日青年叢中，何處得來？雖然言之非艱，行之惟艱，從古爲患。如得一一實踐，言行之互顧，久後忽不自知入於高明廣大之域。如其不然，一時中理之論說，反以助浮辯而無益於實事也，豈非可戒乎？幸於此又加意焉。

소태화 진석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蘇太化 鎮奭 丙寅

편지를 받고 옥동(玉洞)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는 독후(篤厚)함은 남음이 있으나, 소통함은 부족하니 모름지기 더욱 고명한 스승을 따라서 견문을 넓히고 격물치지의 공부를 빌려서, 밝고 굳건함 둘 다 극진한 군자가 되십시오. 대개 초학자의 공부 선후를 말하자면, 실천이 비록 급하지만 최후의 경중으로 말하자면 지(知)가 무겁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효제충신인의예양(孝弟忠信仁義禮讓) 하다가 망국패가자(亡國敗家者)가 있다.”라고 운운한 이가 있는데, 이는 식견이 밝지 못한 소치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答蘇太化 鎮奭 丙寅

承見住玉洞做業，甚善甚善。賢篤厚有餘而疏通少遜，須益從高明之門，廣聞見藉格致，用作明剛兩至之君子也。蓋以初學之緩急言，則

行雖急，以究竟之輕重言，則知爲重。故昔人云孝弟忠信仁義禮讓而亡國敗家者有之，此識見不明之致也，可不懼哉？

조철하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趙澈夏 丙寅

지난번 편지에는 월(月), 일(日), 성명(姓名)이 없었으니, 이것에 근거해보면 마음이 일단(一端)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는 병통은 곧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르는³¹⁵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하물며 도리의 미묘함처럼 원래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자리를 바르게 한 연후에 귀에 들어온 것을 마음에 보존하고, 눈에 이른 것을 마음에 귀결시키고, 입으로 외운 것을 마음에 체인하십시오. 그리하여 서(書)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이치(理)가 떨어지지 않아서, 눈을 떠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귀를 기울여도 다른 것을 듣지 말며, 입을 열어도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미한 것이라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答趙 澈夏 丙寅

向書無月日姓名，卽此可見心不在之一端。心不在之病，乃至於視不見，聽不聞，食不知味，而復道理微妙，元自難見難知者乎？須將此心，先正其位然後，入乎耳者存乎心，到乎目者歸乎心，誦之口者體

315 보아도……모르는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7장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之心。書與心爲一，心與理不離，開眼無他視，側耳無他聽，啓口無他言。將無微之不見不知矣。

이기용에게 보냄 갑자년(1924)

與李起容 甲子

집은 가까운데 사람은 천상에 있는 것 같으니 형편 때문인가? 마음 때문인가? 이 모임의 설립은 그대와 자유(子由)가 선창한 것이 아니던가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설창(雪窓)과 월황(月樞)³¹⁶에서 삼여(三餘)의 여가³¹⁷에 서로 절차탁마하는 것이었는데 누가 알았으랴? 즐거운 일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대의 가문에 변란이 생겨 홀연 아내를 잃게 될 줄을. 그리하여 방은 비고 음식은 떨어지고, 회포는 사납고 뜻은 꺾여서 그대로 하여금 나를 꿈속에 있는 낭 잊게 만들었고, 나는 그대를 구름을 바라보듯 하게 되었습니다. 아아! 이것은 내 인연의 각박함과 그대 운수의 기구함 때문 이리라. 대개 종고 이래로 하늘이 정한 원만한 복을 향유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되었던가? 대개는 우환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만약 편안하고 부유한 자만 뭔가를 이루고 근심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민이(民彝)³¹⁸가 헛된 그릇이 되지 않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316 설창(雪窓)과 월황(月樞) : 눈과 달빛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서재의 의미이다.

317 삼여(三餘)의 여가 : 삼여란 한 해의 겨울과, 하루의 밤과, 흐리고 비 오는 날들을 말한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가 시간들만 잘 이용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318 민이(民彝) : 사람의 마음에 가진 떳떳한 도리로, 《시경》〈증민(蒸民)〉의 “사람이 떳떳한 본성을 가진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시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으며,³¹⁹ 빈천과 근심이 너를 옥으로 다듬어 완성시킨다.’³²⁰ 훈계가 모두 나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즉 학문이 진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덕을 완성시키는 복음이 됩니다. 지난 밤에 그대를 위해 천강대임장(天降大任章)³²¹을 강론한 것이, 생각해보건대 우연이 아닌듯한데 과연 그대가 나의 뜻을 이해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대의 타고난 자질은 굳세고 주도면밀하고, 효도하고 우애하고, 근면하여서 진실로 이처럼 뜻에 어긋나는 역경으로 인해 배로 더욱 인내하며 진덕수업(進德修業)해야 할 것입니다. 순임금과 부열(傅說)은 큰 덕을 지닌 사람이라 쉽게 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앞날의 성취를 어찌 다만 관중(管仲), 백리해(百里奚) 이하를 기약하겠습니까? 오직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니 부디 급히 찾아오십시오. 하늘가득 장풍이 일시의 번뇌를 씻어주고 천강의 맑은 달이 전성(前聖)의 심법(心法)을 밝혀주니 창송(蒼松)과 백설가(白雪歌)³²²로 서로 세한(歲寒)을 기약하는 것이 어떻겠습

(民之秉彝，好是懿德。)”라는 구절이 있다.

319 우환에서……죽으며 : 《맹자》〈고자 하(告子下)〉“(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320 빈천과……완성시킨다. : 송(宋)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그대를 빈궁하게 하고 시름에 잠기게 하는 것은, 장차 그대를 옥으로 만들어 주려 함이다.[貧賤憂戚，庸玉汝於成也。]”라고 하였다.

321 천강대임장(天降大任章) : “하늘이 어떤 이에게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며 그의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그의 몸을 빈궁하게 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을성 있는 기질로 만들어 그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亂其所爲。所以動心忍性，曾益其所不能。]”라고 하였다. 《맹자》〈고자 하(告子下)〉

322 백설가(白雪歌) :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고아(高雅)한 가곡(歌曲)이다. 어떤 나그네가 초나라에서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의 속요(俗謠)를 부르니 수천 명이 따라 불렀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의

니까?

與李 起容 甲子

室邇而人若天上，勢歟心歟？次會之設，非賢與子由倡之乎？所準擬者，雪牕月榭三餘之相觀也，孰謂其樂事未幾，變出德門，奄哭伉儷。室虛而簞空，懷惡而志沮，便賢忘我如夢，使我望賢如雲乎。噫！其我之緣之薄也，賢之數之奇也。蓋從古以來，享得天定圓福者幾人？舉皆生且死於憂患之中。若道安富者有爲，而憂貧者無爲，天惟與我民彝，其不爲虛器者幸矣。焉有是理而復生於憂患？死於安樂，貧賤憂戚，庸玉汝成之訓，俱不我欺。則不惟不妨進學，實爲成德之福音也。疇夜之爲賢講天降大任章，意非偶然，而未知果能領會否。賢之素質，堅確而周敏，孝友而勤蠱，誠能因此拂戾困衡，一倍動忍而進修也。舜傳大德，縱未易論，前頭所就，奚遽但以管奚以下期哉？惟是之望，幸亟賁然。滿天長風，滌一時之煩惱，千江霽月，講前聖之心法，蒼松白雪，相期於歲寒如何？

최이득 종열 이관 일섭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崔以得 宗烈 以貫 一燮 乙亥

지난번 그대들의 형이 산려(山廬)에서 돌아왔을 때 총총히 지나쳐 가서 지금까지 한스럽게 여깁니다. 형은 홀로 묘에서 슬퍼하고 아우는 집에서 영혼을 받들어 선대의 업을 보존하여 형의 뜻을 안정시키니 일문의 세 효자가 자취는 다르나 마음은 같으니 어찌 찬

노래를 부르니 몇백명이 따라 불렀는데, 고상한 <양춘(陽春)>과 <백설(白雪)>의 가곡을 부르니 몇십명밖에 따라 부르지 못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文選 卷23 宋玉 對楚王問》

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 진백상(陳伯常)은 스스로 경작하면서 아우 평(平)은 자유롭게 학문하게 하여 끝내 경상(卿相)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육자정(陸子靜) 형제는³²³ 여섯 사람인데, 세 사람은 집안일을 하고 세 사람은 유학을 하여 송나라의 명가(名家)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애(兩哀) 어머니 상중인 두 형제)께서 형을 대신해 집안일을 다스려 형으로 하여금 예를 다하는 효자로 완성시키는 것은 가히 진씨와 육씨로 하여금 옛날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러나 진씨(陳氏)와 육씨(陸氏)는 반평생의 일이고, 그대들은 삼년의 일이니 오랜 세월 지속은 어렵고 짧은 세월은 쉬우니 그 차이가 어찌 현격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세월은 쉽지만 오랜 세월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오래지속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삼년 또한 오랜 세월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처음과 끝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형에게 선조를 받들면서 집안을 지키는 근심을 초래시킨다면 어찌 다시 진륙(陳陸)의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순임금은 대성인임에도 그 신하가 오히려 오만하지 말라는 경계를 진언했습니다. 비록 그대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의리상 일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을 쓰는 것이 부득불 여기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

與崔以得宗烈 以貫一燮 乙亥

向自令兄山廬而歸，惴惴憂過，至今爲恨。兄專哀于墓，弟奉靈于家，保先業安兄意，一門三孝，迹殊心同，豈勝贊嘆？昔陳伯常耕，縱弟平遊學，終致卿相。陸子靜兄弟六人，三人治產業，三人遊學爲宋名

323 육자정(陸子靜) 형제 : 남송의 사상가인 육구연(陸九淵, 1139~1192) 과 육구령(陸九齡, 1132~1180) 형제를 이른다.

家。今兩哀之替兄治家，俾成盡禮之孝子者，可使陳陸二氏不得專美於古也。雖然陳陸是半生事，兩哀是三年事，久近難易，豈不懸乎？但易暫而難久人情也。自其難久而言，則三年亦長遠歲月。萬之一始終不克，以致令兄奉靈保家之憂，則豈不更爲陳陸之罪人乎？夫以大舜之聖，其臣猶進傲慢之戒。雖知兩哀之無是理，誼同一家，自不得不用情至此。幸并深諒焉。

최이관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崔以貫 丙寅

이 일(학문의 길)은 모름지기 전일한 지극정성과 오랜 시간의 접속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붙잡듯 한 연후에 성취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닭이 만약 등지를 벗어나고 고양이가 혹 다른 곳을 본다면, 계란은 곧 부패하고 쥐는 곧 바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등지를 벗어나고 다른 곳을 본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그대가 알과 쥐를 잃을까 걱정됩니다. 대저 질병이 오는 것은 성현도 면치 못한 것으로 비록 어찌할 바가 없으나, 이불을 안고도 덕을 성취한 것은 고인이 이미 능한 바이니 고인의 그리움이 또한 느낌을 일으킵니다. 그런 즉 병이 심하거나 조금 나은 중에 힘쓸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듣자하니 그대의 질병이 차도가 있게 된지 몇 십일 되어서 먹지 못하거나 누워있는 데는 이르지 않아 여전히 문밖에 나가 손님을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곳 청정하고 밝은 서창 아래 사우(師友)와 서적(書籍)들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완쾌되지 못한 증세를 보양하고, 한편으로는

혼우한 마음을 맑게 하지 아니합니까? 그리고 늘 먼지 나는 길거리 파리가 들끓는 좁은 집에서 농사이야기와 아이들 떠들썩한 곳에서 정신과 기운이 막혀 퍼지 못하고 심지(心志)가 쇠퇴해 쓰러질 듯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대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흑암으로 들어가서 유학이 진멸하게 된 것은 배우는 자가 싫어하는 것이 빌미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자가 게으른 소치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건대 자식을 가르치는데 정성을 다하는 자도 이미 많지 않거늘, 어찌 아우를 가르치는데 힘을 다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지탱해주고 아래에서 받쳐주어 배우는 자가 궁핍하지 않도록 그대의 형처럼 동서로 자문을 구하며 완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우 된 자가 만일 진지한 정성과 접속한 공부를 써서 그 형의 마음을 체인하지 못한다면 아우노릇도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학문의) 일은 그대에게 한 가지 무거운 짐으로 한 순간도 게으를 수 없는 것인즉 병든 몸을 부축하고 번뇌를 맞볼 즈음이라도 요컨대 마땅히 일삼아서 잊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의 계란을 부화시키고 쥐를 붙잡으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크게 마땅할 것입니다.

與崔以貫 丙寅

此事要須有一團眞至精誠，長時接續工夫。如鷄抱卵，如猫捕鼠，然後有成。鷄若離窠，猫或放視，卵便腐而鼠便逸矣。今君之離窠放視，不其久乎？吾竊慮夫君之卵鼠也。夫疾病之來，聖賢之所不免，雖無如之何，然擁衾而成德。古人之所已能，亦可以興感。然則或劇或差之間，可以知所勉矣。聞君之疾向蘇數旬，不至於減食委床，尚可以出門對客。則何不來此淨境明牕師友書籍之中？一以調養未快之證，一以澄清昏擾之心？長處乎巷蠅窩農談兒喧之間，使神氣溼鬱而不

宣，心志委靡而欲頹，誠不知其意所在也？今世入長夜，儒學殄滅者，不但學者厭之之爲崇，亦教者倦之之攸致。環顧一世，盡誠於教子者，已不多得。更安有竭力於教弟，上支下築，學資不乏，東咨西諏，社事以完如令兄者乎？爲弟者如不用真至精誠接續工夫以體其兄之心，雖謂不足爲人弟，不爲過矣。此爲君一副重擔，不容一息少懈者，則雖於扶病喫惱之際，要當有有事勿忘者存。以毋負父兄化卵獲鼠之望焉，丕宜丕宜。

김진옥 수성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金振玉 秀聲 庚午

대저 뜻이란 백행(百行)의 근원이요, 만선(萬善)의 기초입니다. 어찌 일찍이 근원 없이 흐름을 구하고, 기초 없이 집을 축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천루한 내가 지난번 정성스럽게 알려준 것과 그대가 이번 편지에서 누누이 말한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열명(說命 《서경》의 편명)에 이르길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오직 어렵다.”라고 하였고, 주자서에서도 “만약 이 같이 하는 것이 병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뜻이 정성스럽지 못함이 병통임을 알고서도 다시 옛 자취를 답습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이는 나아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선을 굽고 연지방아를 돌리는 나귀처럼 앞발자취만 즐겨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앞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원대한 경지에 나아가고자 하나 어찌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와 그대가 깊이 반성해야 할 바입니다.

答金振玉 秀聲 庚午

夫志者百行之源本，萬善之基礎。曷嘗見無源而求流，無基而築室者乎？淺陋向告之懇懇，高明今書之縷縷，蓋以此也。〈說明〉曰非知之艱，行之惟艱，朱書曰若知如此是病，不如此是藥。既知志不誠之爲病，而不免復蹈舊轍，是能進而自畫，甘作磨驢之踏，舊跡也。雖欲偕進於遠大如前書之云，豈可得乎？此正吾與賢者之分外猛省者也。

김진옥에게 보냄 경진(1940)

與金振玉 庚辰

애시(哀侍)는³²⁴ 나에게 여러 해 동안 서신이 끊겼습니다. 그리 하여 나는 ‘강호(江湖)에 사는 나를 잊은 지 오래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상을 만나 멀리서 부음을 전해 오자 비로소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학문을 잊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옛날 우암(尤庵 송시열)이 임금께 고하여 말씀하시길 “전하께서 참연(斬然 끊어질듯 한 마음)히 상중에 계셔서 다만 일단의 순선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금일 애시(哀侍)의 마음 또한 그러한 때입니다. 옛날에 오염되었던 나쁜 것들이 자연히 얼음처럼 녹아사라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기회로 인하여 독례(讀禮)의 여가에 더욱 격물치지(格物致知)하고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공부를 더하여 끝내 성현의 학문을 이루는 것이 평소 선장(先丈)께서 가졌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효를 행하는

324 애시(哀侍) : 어머니 상중(喪中)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이다.

것이 어찌 검은 얼굴과 수척한 몸으로 거상(居喪)을 잘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與金振玉 庚辰

哀侍於鄙人，積歲阻信。意謂江湖之忘久矣。今遭大故，遠致訃音，始知其不忘也。其不忘我者，乃所以不忘學也。昔尤庵之告君曰，殿下斬然在疚，只有一端純善之心。今日哀侍之心，亦其時也。舊梁之汗，自然冰消矣。惟願因此機會，更加窮格誠正之功於讀禮之暇，終以成聖賢之學，是爲奉副先丈平日之望也。而其爲孝也，豈但面墨身瘡善居喪比也？

김군장 한두에게 보냄 무진년(1928)

與金君章 漢斗 戊辰

선비로서 배우는 자는 구하는 것이 있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얻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구하는 것이 있어서 공부하는 자는 시장의 장사치이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수렵하는 사내일 뿐입니다. 어찌 선비의 학문이 시장 장사치나 사냥꾼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또 모름지기 구하지 않는 중에 구해지는 것이 있으니, 인(仁)이 그것입니다. 또 얻으려고 하지 않는 중에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 도(道)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구함은 구할수록 더욱 욕심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얻음은 얻을수록 더욱 탐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컨대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종신토록 그만두지 않아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與金君章 漢斗 戊辰

士之學者，不以其有所求而作。故不以其無所得而輟也。有所求而作者市豎也，無所得而輟者獵夫也，焉有士之學之同乎市獵哉？雖然又須知不求之中有求者存，仁是也。無得之中有得者存，道是也。是求也愈求而愈不爲慾也，是得也愈得而愈不爲貪。然要之非一朝之可求，而必終身不輟有得。此又不可不知也。

김유정 용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金孺定 瀟 丁卯

편지에서 “경솔함을 바로잡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능치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근자에 학문을 근심하는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천품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맹자가 이른바 “사람됨이 욕심이 적은 자”에 해당하니 어찌 근심이 그 같이 이르렀습니까? 혹 근심할 것이 있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타고난 자질의 허물이며 공부에 힘씀이 소홀해서 뿐이겠습니까? 또한 부족한 내가 본디 가르치는 방법이 없고, 정성과 힘이 부족한 소치 때문일 터니 그 점이 매우 부끄럽고 계면쩍을 따름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여사인(呂舍人 여본중)이 “지도하여 인도하는 것은 스승의 공이요. 가만히 경계하는 것은 벗의 임무이며, 뜻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은 모름지기 자기의 힘을 써야지 타인에 기대서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르지 않았습니까?³²⁵ 그러니 집에

325 여사인(呂舍人)……않았습니까? : 《소학》〈가언(嘉言)〉 “[夫指引者, 師之功也, 行有不至, 從容規戒者, 朋友之任也. 決意而往, 則須用己力, 難仰他人矣.]”

있거나 멀리 유람하든 간에 모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격려함에 달려 있으니 스승이나 벗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심분 노력하여 견문(見聞)이나 문사(文辭)에 주력하지 말고 존성극치(存省克治)³²⁶를 임무로 삼아, 돌아오는 날에는 몇 단계 정진되었음을 징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홍의(弘毅)³²⁷ 두 글자는 선비가 덕을 세우는데 수레바퀴, 날개와 같은 것이니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보건대, 그대는 홍(弘)은 가 능하나 의(毅)는 혹 부족한 듯합니다. 옛 현인이 말하길 “극기(克己)는 모름지기 자기 성(性)이 치우쳐서 극복하기 어려운 곳부터 이겨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통에는 머리에 뜬을 하고, 각통(脚痛)에는 다리에 뜬을 한다.”라고 했으니, 만약 분신용발(奮迅聳拔)하고 각고인내(刻苦忍耐)하여 천리를 홀로 나아가면서 화복(禍福)을 따지지 말고, 한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도의(道義)를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毅)의 시종(始終)입니다. 이것이 그대의 약석(藥石)이 될 것이니 시험 삼아 뜻을 더해 한번 복용해 봄이 어 떻겠습니까?

答金孺定 浦 丁卯

所喻矯輕革汗之未能，可見近日憂學之切。然君之天分，較諸夫夫，正孟子所謂爲人寡慾者，何至憂之若此？雖或有可憂者，豈但君稟質之疵？功力之疎，亦由淺拙，素無教術，并之誠力致然，是爲媿歎。雖然呂舍人不云乎？指引師之功，從容規戒，朋友之任，決意而往，

326 존성극치(存省克治) : 본성을 보존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릇된 생각을 이겨 내어 물리치는 것이다.

327 홍의(弘毅) : 《논어》〈태백(泰伯)〉에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士不可以不弘毅.]”라고 하였다.

直須用己力，難仰他人。不論在家與遠遊，總在自策自勵，依靠師友不得，須十分努力。勿以聞見文辭爲主，以存省克治爲務，驗取歸日進得幾格也。夫弘毅二字，士子立德之翰翼，闕一不得。竊觀高明弘則可能，毅或不足。昔賢曰克己須從性偏難克處，克將去。又云頭痛灸頭，脚痛灸脚，若乃奮迅聳拔，刻苦忍耐，千里獨往，不計禍福，一息尙存，不忘道義，此毅之始終而可作高明藥石也。試加意服之如何？

박희재 근호에게 보냄 기사년(1929)

與朴晦哉根浩 己巳

편지에서 ‘지난날 심화(心火)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바로 주자(朱子)가 말한 ‘불길이 없는데 뜨거운 것’으로서 그대처럼 아름다운 자태와 맑은 흥금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요컨대 반드시 일시적인 유소(有所)의 매임이³²⁸ 있어서 급절하게 마음을 쏟아내기 어려워 그것을 심화가 발작한 것으로 인식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오래도록 청소하지 않아 더욱 치성하게 되면 어찌 끝내 우려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마음은 신명이 머무르는 집으로, 본디 담일(湛一)하고 허명(虛明)하여 허다한 사물이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치를 따라 마음을 순히 길러서 그 신체를 온전히 하고 그 마음의 작용을 잘 이끌어낸다면 백행(百行)과 만선(萬善)이

328 유소(有所)의 매임 : 《대학》〈정심수신장(正心修身章)〉 “[心有所忿懣則不得其正，有所恐懼則不得其正，有所好樂則不得其正，有所憂患則不得其正.]”

도도하게 흘러 강하가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될 터이니, 어찌 맹렬히 타오르는 햇불과 석탄덩이 같은 사물이 있겠습니까? 오장(五臟)을 오행(五行)에 분속시키면 심(心)은 불에 해당합니다. 고로 경영하여 계산하는 바가 있어서 큰 욕망이 있는데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경우와, 사랑하고 기대어 평생 의지하는데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경우에 번민과 조급증이 뜨거운 불길로 타올라 유향, 인, 땀감, 석유 등의 물질이 없어도 오장이 타서 작열(灼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원지(遠志), 창포(菖蒲) 등의 청량한 약재로 다스리니, 그것이 본디 병을 치료하는 관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성현의 문정(門庭)에 또한 한 가지 청량한 약제가 있어서 탕전(湯煎 탕약)과 도규(刀圭 병 고치는 기술)를 기다리지 않고도 한 번에 쓸어 없앨 수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청량한 약제는 무엇일까요? 독서하여 이치를 밝히고, 이치를 따라 분수에 안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자가 “세간의 만사는 잠깐 사이에 변멸(變滅)하니 모두 흉중에 담아둘 것이 없다. 오직 독서하고 궁리하는 것만이 궁극의 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자가 이른바 세상만사란 모든 성색(聲色), 취미(臭味), 궁실(宮室), 의복(衣服)으로서 하나같이 응당 경영하고 애련의 마음이 쉽게 발생하는 것들이니, 심화라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훈계를 읽어보면 책을 펴서 이치를 완미하여 그 힘을 얻을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먼저 흉중에 청쾌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저 이른바 독서궁리(讀書窮理)는 또 어찌 백발이 되도록 경전에 골몰하여 종신토록 애쓰는 것뿐이겠습니까? 대개 이 네 글자 “독서궁리(讀書窮理)” 중에는 심신(心身) 안팎의 일과, 가국(家國)의 멀고 가까운 허다한 사업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늘 “자고로 도리를 알지 못하는 영웅은 없다”라고 하였고,

옛 훈계에도 “진정한 대 영웅은 전전공공(戰戰兢兢), 여림심연(如臨深淵), 여리박빙(如履薄氷)³²⁹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모두 정확하고 간절한 의론으로 매번 암송할 때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흔들어 분발을 느끼게 합니다. 부족한 나를 돌이켜보면 비록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배로 더욱 힘써서 “언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소원이 있는데, 하물며 그대처럼 젊고 건장하여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어찌 잠시라도 무관심하여 진실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방해가 있다고 하여 평소에 가졌던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이 학문과 세도(世道)를 일으킬 책임은 그대 같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으니, 부형(父兄)은 자재를 믿고 스승과 웃어른은 후생을 기약합니다. 그러니 선진(先進)을 계승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도는 거의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잘 것 없는 내가 세한(歲寒)의 마음을 기약함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대에게 하는 까닭입니다. 만일 이런 나의 고심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면 나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곧바로 행장(行裝)을 꾸려서 이곳으로 와 서로 교학상장하여 여러 해 동안 학업을 온당하게 닦는다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與朴晦哉 根浩 己巳

向日心火之喻，是何謂也？此正朱子所謂不火而熱者，以賢美姿清襟，豈有是耶？要必不免爲一時有所之係，而難於急切放下，認以爲心火之發也。然此念久不掃清，而益以熾盛，則安保其終無慮也？蓋心者

329 전전공공(戰戰兢兢), 여림심연(如臨深淵), 여리박빙(如履薄氷) : 《시경》〈소아(小雅) 소민(小旻)〉에 “전전공공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은 듯이 하라.[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라는 구절이 있다.

神明之舍，本自湛一虛明，不容許多物介其間。苟順而養之，全其體而達其用，則但見百行萬善，混混流出，若江河之達海，安有一般燄燄烈烈，燎把炭槐樣物事哉？惟其以五臟分屬於五行，則心乃屬火。故有營爲計較，大欲所在而積久未遂者，及愛憐依恃，生平所賴而一朝見失者，則煩悶燥輕，烈舉熾揚，無硫磷柴油等物，而五內已焚灼矣。醫者乃以遠志菖蒲等清涼之劑治之，此固治病之例方。然殊不知吾聖賢門庭，亦自有一副清涼之劑，不待湯煎刀圭而一掃掃下者也。所謂聖門清劑何也？讀書而明理，循理而安分是也。朱子不云乎？世間萬事，須與變滅，舉不足置胸中。惟有讀書窮理爲究竟法，所謂世間萬事，凡聲色臭味宮室衣服，一應營爲，愛憐易生，心火者非此乎？試讀此訓，不待展卷玩理得其力，而先覺胸膈之清快也。夫所謂讀書窮理，又豈但皓首窮經矻矻終身而已乎？蓋此四字中包括身心內外，家國遠近許多事業。故人有恒言曰，自古無不識道理底英雄，古訓又曰真正大英雄，從戰兢臨履上做出來。皆的確懇切之論，每一詠誦，使人足以興感奮發也。顧茲陋劣，雖顛髮星星，尚有一倍加勉不得不措之願，況如賢之年富力强，可以一日千里者，豈可片刻佻倪，有妨於造真境而負夙志乎？蓋斯文世道之責，有望於來許者，在父兄侍子弟，在師長期後生。不有繼先進而作者，吾道不幾乎熄乎？此區區所以歲寒相期者，不于他而于賢也。如不諒此苦心，雖謂之負余可也。須卽理裝賁枉，互相長益，穩做歲月之業，甚幸甚幸。

박희재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朴晦哉 己巳

기망(既望 16일 날)에 호남을 행차했을 때의 편지는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척연한 감동이 있게 하였습니다. 만일 진실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극진할 때가 곧 실학(實學)이 됩니다. 그러니 하필 독서한 연후에 학문이 된다고 구구하게 춘하(春夏) 완급(緩急)의 사이를 따지겠습니까? 또 진실로 독서를 근심한다면 비록 9개월 동안 근심하고 하루를 독서하더라도 곧 패연(沛然)히 뿜릴 것입니다. 그대는 “최간이(崔簡易)가³³⁰ 7년 동안 독서를 하지 못해 늘 걱정하다가 흉중에 근심덩어리 하나가 맺혔는데, 후에 책을 읽어서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날에 문장을 성취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를 두고 담론하는 자들은 “독서가 여전히 이르고 근심이 크지 못했다면 천하의 문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나 또한 생각하기를 “엄병덤병 날만 허비한다는 그대의 근심이 진실로 참된 것이라면 하추(夏秋)를 기다려 독서하더라도 여전히 빠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털끝만치라도 참된 것이 아니라면 그대 편지에 가득 찬 구구한 말들이 한바탕 말만 희롱하고 걸치레만 꾸며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 것으로 귀결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근심할만한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答朴晦哉 己巳

豈望湖行時書，認出心眞，眞令人戚然有動。苟能眞有是心，卽此心到時，便爲實學。何必讀書然後爲學而區區計較春夏緩急之間哉？且眞以讀書爲憂，雖使九月憂之，一日讀之，便可沛然。豈不聞崔簡易？七年不讀書，常以不讀書爲憂，胸中結成憂塊一顆，後到讀書解塊之

330 최간이(崔簡易) : 최립(崔曄, 1539~1612)으로 간이는 호이다. 율곡의 문인으로 시(詩)와 문(文)에 모두 조예가 깊어 명나라 문인들의 칭찬을 받았다. 차천로(車天輅)의 시(詩), 한호(韓濩)의 글씨와 최립(崔曄)의 문(文)이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일컬어졌다.

日而成文章乎。談者猶以爲讀書尙早，塊之未大，不能成天下文章。由此言之，吾亦謂高明因循費日之憂。苟眞也，待夏秋而讀，猶爲太早，如有一毫未眞，吾恐滿幅縷縷。逃歸一場弄話飾幅自欺欺人之科矣，此眞可憂者也，如何如何？

나익부 인상에게 보냄 을축년(1937)

與羅益夫仁相 乙丑

공자께서 광견(狂狷)을 칭찬한 것은 중행(中行)의 선비를 얻기 어려움을 탄식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낮아지고 풍습은 세상을 따라 비속해져서, 오늘날 인재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중도보다 과하다고 칭해지는 자가 중도에 귀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대도(大道)가 어두워지고 이해(利害)의 길이 밝아져 유자(儒者)의 무리 가운데도, 일종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은 인물들이 있어서, 도(道)와 의(義)는 궁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편리함만 차지하면서 중도에 거처한다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를 중도로 여기는데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날 말하는 중행(中行)의 선비는 고대에 말하는 향원(鄉原)입니다. 대저 광자(狂者)는 지나치게 고대하고, 견자(狷者)는 지나치게 개결하여 진실로 중도를 넘는 재질입니다. 다만 오늘날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습관과 혼란한 풍습이 어지럽게 세상에 가득차서 그들이 아니면 벗어나 도에 합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광견자(狂狷者)가 오늘날 나온다면 중행의 인재로 하여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하, 은, 주 삼대의 시절에 선비를 구하면 오직 명예를 좋아할 것을 걱정하

고, 삼대 이하에서 선비를 구하면 오직 명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라고 했으니, 이 또한 같은 뜻입니다. 감히 스스로 생각하건대 폐단을 구제할 뜻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공자 평상의 가르침과 말은 다르지만 뜻은 일치하지 않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대처럼 과격하지도 않고 순하지도 않으며, 소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재질은 진실로 얻기 어려운 자질입니다. 다만 그대가 오늘날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힘쓰게 해서 떨치고 일어나 용감하게 나아가 한번 도약해 뛰쳐나가는 힘을 내가 돕고자 합니다.

與羅益夫 仁相 乙丑

孔子之稱狂狷，歎中行之難得也。余謂人以代降，風隨世卑，至于今日人材，則其所稱過中者，乃可以歸乎中也。何者？大道晦，利害之塗明，儒流之中，乃有一種非寒非熱不平不仄低人物，不究道義，自占便宜者，居之以中而不疑，人亦疑其爲中。噫！今之所謂中行，古之所謂鄉原也。夫狂者過於高大，狷者過於介潔，固過中之材也。但今卑小之習，混汙之風，汨汨盈世，非此無以脫出而揆諸道。吾故曰有狂狷者，出於今日，乃可許以中行之材也。古人云求士於三代之上，惟恐其好名，求士於三代之下，惟恐其不好名，亦此意也。敢自謂其掄弊之意，未始不與過猶不及平常之訓，殊言而一致也。君之不激不循，匪樸匪華之材，誠難得也。但在今世也故，以此說勗之，助振發勇邁一躍躍出之力。

나익부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羅益夫 丁卯

익부가 나를 종유(從遊)한 지 이미 삼 년입니다. 옛사람은 대개 삼 년으로 하나의 큰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예컨대 “삼년유성(三年有成),³³¹ 삼년고적(三年考績),³³² 삼년학부지어곡(三年學不至於穀)³³³ 등의 유가 그것입니다. 익부는 과연 한 가지 소득이 있어서 손에 쥘 만한 것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익부가 세월을 허비한 것이 애석할 뿐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인도한 것이니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옛사람은 20년 동안 하나의 노(怒)자를 다스리는데도 미진함이 있었다고 했으니, 익부가 만약 하나의 지(志)자를 결정해 옮기지 않았다면 그 공부가 민첩해 옛사람이 노(怒)자를 다스린 것보다 넉넉하여 삼년의 소득이 또한 많다고 할 것입니다. 대저 지(志) 한 글자를 이미 정했다면 백가지 방도가 모두 올곧을 것이니 이를지나 더 나아가면 위로는 성인이 되고, 다음은 현인이 되며, 또 그 다음은 선신(善信)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자질과 기량, 공부와 능력의 크기와 깊이가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지(志)가 혹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비록 삼년 사이에 강변(講辨)의 웅패(雄沛)함이 강하(江河)와 같고,

331 삼년유성(三年有成) : 《논어》〈자로(子路)〉에 공자가 자신이 등용되지 못함을 한탄하여 “만일 나를 등용해 주는 자가 있다면 1년만 하더라도 팬참을 것이니, 3년이면 이루어짐이 있을 것이다.(苟有用我者 晷月而已可也 三年有成)”라고 하였다.

332 삼년고적(三年考績) : 《서전》〈순전(舜典)〉의 “3년마다 한 번씩 성적을 고사(考査)하였다.(三載考績)”라고 하였다.

333 삼년학부지어곡(三年學不至於穀) : 《논어》〈태백(泰伯)〉에 “3년을 배우고서도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자를 얻기가 쉽지 않구나.(三年學不至於穀 不易得也)”라고 하였다.

문장의 아름답고 찬란함이 별자리와 같다 할지라도 어찌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익부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징험하여 앞날의 성취를 이루십시오. 나는 장차 익부가 삼년의 배움으로 종신토록 덕업을 쌓을 것이라고 예견해보겠습니다.

與羅益夫 丁卯

益夫之從我遊，已三年矣。古人有爲多以三年定一大限，如云三年有成，三年考績，三年學不至於毅之類是也。益夫果有一副所得可以藉手乎？否則非惟益夫之費日爲可惜，我之誤人亦可恥也。雖然昔之人，有二十年治一怒字未盡者，益夫若能定一志字，移易不得，則其下功敏速，優於昔人治怒，而三年之得，亦已夥矣。夫一志既定，百度皆貞，過此以往，上而爲聖，次而爲賢，又其次而爲善信之人。惟在其才器工力小大淺深之如何爾。志或有未盡定者，雖使三年之間，講辨之雄沛若江河，文章之麗爛若星斗，尙何足謂有得乎？請益夫自驗自志，管取他日成就。吾將以益夫三年學，卜終身德業。

홍찬오 석규에게 보냄 무진년(1928)

與洪燦五 錫奎 戊辰

대저 옥(玉)이 원석 가운데 있으면 한 개의 돌을 벗어나지 못하고, 목재가 산에 있을 때는 한그루 나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숙련된 석공이 탁마(琢磨)하고 대장(大匠)이 승착(繩斲)해야 규(圭 홀), 새(璽 옥새), 장(璋), 찬(瓊 제기) 등으로 각각 그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고, 동량(棟樑 마룻대와 들보), 각쇠(桷椳 서까래) 등으로 각 쓰임에 들어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완성할 수 없고, 나무는 먹줄을 따라야 바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대저 쪼고, 갈고, 먹줄을 대어 깎아냄에 그 헤치고 쳐내는
 것이 매우 심하지만, 옥과 나무가 일찍이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
 쓰임을 다하게 함으로서 그 본성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
 건대 사람 또한 그러합니다. 만일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실로 꿈
 틀대는 한 동물일 뿐입니다. 반드시 엄한 스승에게 채찍질을 받고
 외경하는 벗에게 연마와 질책을 받은 연후에 현성(賢聖), 호걸로
 각각 그 그릇을 완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하고, 간언(諫言)을 따라야 성인이 된다.”³³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승과 벗의 채찍과 질책은 석공과 목수의 갈고 깎아내는
 것에 비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안마하는 것보다도 훨씬 미
 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채찍과 질책을 받는 자가 자신을
 해칠까 의심하여 마음을 편안케 가지지 못한다면 덕업이 무엇을
 쫓아 정밀하고 완숙하게 되겠습니까? 그대 형제는 약관의 나이에
 두각이 뚜렷하니 진실로 사람 가운데 소중한 보배요, 빼어난 목재
 입니다. 그러니 원하건대 더욱 깎고 쪼는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규
 장(圭璋)과 동량(棟樑)의 쓰임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말로 진덕수업(進德修業)의 공을 돕고자 합니다.

與洪燦五 錫奎 戊辰

夫玉之在璞，未離乎一箇石，材之在山，未離乎一箇木。及乎良工琢
 磨之，大匠繩斲之，圭璽璋攢，各致其美，棟樑桷榱，各中其用。故
 曰 玉不琢，不成器，又曰木從繩則正，夫琢磨之繩斲之也，其戕賊椽

334 배우지……된다 : “옥은 조각하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
 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玉不琢 不成器，人不學 不知
 道。]”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거
 록해진다[惟木從繩則正，后從諫則聖。]” 《서경》〈열명(說命)〉

喪，亦已甚矣，玉與木之不曾怨者，以盡其用而遂其性也。惟人亦然。苟不學問，則實不離乎蠢動一物而已。必也鞭策於嚴師，淬礪於外友，然後賢聖豪傑，各成其器。故曰不學不知道，又曰從諫則聖。然師友之策礪，其視工匠之琢斲焉，不啻爬痒按痛之不若。而受之者，乃或疑其厲己而不安意焉，則德業安從而得精熟哉？君之昆季，弱冠嶄然，誠人中之重寶秀木。吾願其益受鑿沙斤錫之治，俾成圭璋棟樑之用。故爲是說，助其進修之功。

족질 영노 형린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姪靈魯 炯麟 乙丑

돌의 정세(精細)한 것은 수영(琇瑩)이³³⁵ 되고, 거친 것은 성과 담장을 쌓는 곳으로 귀결됩니다. 곤룡포와 면류관의 화사함은 그 비단의 정세(精細)한 것이요, 갈락(褐絡)의 추함은 곧 포(布)의 거친 것입니다. 사물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가히 사람이 되어 정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모를 움직임에 정세하지 않으면 포악하고 태만한 기운을 멀리할 수 없고, 독서가 정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의 목적이나 의도의 귀결점을 알 수 없습니다. 궁리(窮理)가 정세하지 않으면 최고 경지의 도착점을 볼 수 없고, 마음을 다스림에 정세하지 않으면 은미한 사특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정세하지 않으면 때에 맞는 도(道)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릇 대소(大小), 표리(表裏), 원근(遠近), 시종(始終)이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정세해야지 거

335 수영(琇瑩) : 아름다운 돌이다.《시경(詩經)》〈위풍(衛風) 기옥(淇奥)〉에 “문채 나는 군자여! 귀막이가 수영이며, 피변에 꿰맨 것이 별과 같다.〔有匪君子 充耳琇瑩 會弁如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와 같습니다. 아! 돌과 포백은 완성된 자질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사람만이 거친 것을 정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성긴 것을 섬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힘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與族姪靈魯 炯麟 乙丑

石之精細者爲琇瑩，而麤疎者，歸城垣之築。袞冕之華，其帛之精細，而褐絡之惡，乃布之麤疎者也。物猶然也，可以人而不精細乎？動容而不精細，無以遼暴慢之氣，讀書而不精細，無以識旨趣之歸。窮理而不精細，無以見極致之到，治心而不精細，無以去纖隱之慝。處事而不精細，無以得時中之道。凡小大表裡遠近始終，罔不皆然。人之宜精不可麤也，有如是矣。噫！石與布帛，見成之質，不可得而變也，唯人則可以變麤爲精。變疎爲細，只在用力之如何爾，豈非幸哉？

장문거 연풍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張文居 然豐 戊辰

침심(沈深)하고 진밀(縝密)한 것은 곧 학자의 아름다운 자질이지만, 광대(廣大)하고 고명(高明)한 것은 곧 군자의 아량입니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로 공부하는데 있어서 급한 일입니다. 우유자적(優游自適)³³⁶은 실로 도를 얻는 진전(眞詮 참된 도리)입니다. 또 밤낮으로 우근척려(憂勤惕慮)³³⁷ 하는 것은 자신을 닦는 정법(定法)이며, “천하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할까”³³⁸

336 우유자적(優游自適) : 편안하고 한가롭게 마음대로 즐김.

337 우근척려(憂勤惕慮) :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함.

하는 것 또한 사물에 대응하는 중요한 도입입니다. 그러니 학문을 진전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것이 오로지 많이 읽고 고심하며 탐색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름지기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원래 고요함을 익혀 마음을 밝히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몸과 행동을 삼가는 소성(小成)에 안주할 것을 말하지 말고, 모름지기 높은 견해와 고원한 식견에 귀결되는 요체를 알아야 합니다.

答張文居 然豐 戊辰

沈深縝密，雖學者之美質，廣大高明，乃君子之雅量。如恐不及，固下功之急務，優遊自適，實得道之真詮。日夕憂勤惕慮，是謂修己之定法。天下何思何慮，亦爲應物之要道。勿謂進學益智專繫劇讀窮索。須知澄清本源，元在習靜明心。勿謂安小成於飾身謹行，須知要其歸於高見遠識。

장문거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張文居 己巳

편지에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에서 가히 스스로를 닮는 절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 선생을 인용해 말한 것에서 반드시 스승삼고 본받을 바를 알았을 터인데, 다시 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어찌 된

338 천하에……염려할까 :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천하만사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라. 천하만사는 귀결은 같은데 길이 다를 뿐이다.[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塗。]”라는 말이 있다.

일인가요? 대개 동래(東萊) 선생의 기질은 그 병폐가 치우치고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궁자후박책임(躬自厚薄責人)”³³⁹이라는 한마디 말을 얻어 번연히 고치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마치 벼를 돌리는 것처럼 민첩하고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습니다. 그러니 그대 또한 자신의 기질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서(古書) 가운데 어떤 말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심으로 그것을 구한다면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바둑판을 맞이한 자는 미혹되고, 곁에서 보는 자는 맑다는 그 이치가 없지는 않으니, 그대가 타인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대를 보건대 진밀(縝密)하고, 견실(堅實)하고, 응정(凝靜) 의젓함)하고, 간묵(簡默)하여 진실로 물에 두어도 새지 않고 산처럼 움직임이 없을듯합니다. 그러니 학문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질인데 여기에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라는 의미에서 질책하자면 그대에게 편체(偏滯), 혼침(昏沈)의³⁴⁰ 병폐가 있는듯합니다. 그리하여 대수(大受)³⁴¹, 부유(富有)³⁴²에 방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그대에게 맞는 약재를 구해주자면 《주역》 경문의 관이거지(寬以居之)³⁴³, 《논어》의 불가불

339 궁자후박책임(躬自厚薄責人) : 《논어》〈위령공(衛靈公)〉에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라고 한 공자의 말이 있다.

340 편체(偏滯), 혼침(昏沈) : 편체는 치우치고 침체되는 것이며, 혼침은 정신을 놓아서 혼미해지는 것이다.

341 대수(大受) : 《논어》〈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작은 일에 알 수는 없으나 큰 것을 받을 만하고, 소인은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작은 일에 알 수는 있다.(君子, 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 不可大受而可小知也.)”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

342 부유(富有) :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의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대업(大業)이라고 이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성덕(盛德)이라고 이른다.[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라는 말이 있다.

홍(不可不弘)³⁴⁴, 《중용》의 고명(高明)³⁴⁵, 《맹자》의 대용(大勇)³⁴⁶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대가 시험 삼아 세월의 공부를 더하여 힘써 나아간다면 동래선생의 한번 변하여 효과를 거둔 것과, 빠르고 느림은 같지 않더라도 평생 터득한 전체의 대용은 동래선생이 거둔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더욱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答張文居 己巳

所需變化氣質之法，可見自修之切實。而其引呂東萊先生而爲說者，是必知所以師法矣，乃復求於鄙說何也？蓋東萊之氣質，病在偏乖粗急。故得躬自厚薄責人一語幡然改悟，若轉機之捷，反手之易。賢亦試思，我之氣質，病在何處。古書中何語可藥吾病。心誠求之，必無不中之理也。雖然當局者迷，傍觀則清，不無其理，賢所以求之於人者，無乃以此也歟？以吾觀於賢者，縝密堅實，凝靜簡默。眞置水不漏，如山不動。進學美質，何以加此？但責備以論，則似有偏滯昏沈之病。而恐妨於大受富有。若求其對證之劑，則大易之寬以居之，論

343 관이거지(寬以居之) : 《주역》〈건괘(乾卦)〉에 “군자는 배워서 지식을 모으고 물어서 분별하며, 너그러움으로써 거하고 인으로 실행한다.〔君子學以聚之 問以辨之 寬以居之 仁以行之〕”라고 하였다.

344 불가불홍(不可不弘) : 《논어(論語)》〈태백(泰伯)〉에 “선비는 그릇이 크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라고 하였다.

345 고명(高明) : 《중용장구》 제27장에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도삼으니, 광대함을 지극히 하고 정미함을 다하며, 고명을 극진히 하고 중용을 따른다.〔君子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라고 하였다.

346 대용(大勇) : 《맹자》〈공손추 상〉에 “내 일찍이 대용(大勇)을 부자(夫子)에게 들었다.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지 못하면 비록 갈관박(褐寬博)이라도 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吾嘗聞大勇於夫子矣。自反而不縮，雖褐寬博，吾不焉？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라고 한 말이 있다.

語之不可不弘，中庸之高明，孟子之大勇，其可以當之乎。賢者試可歲月之功，而力進之，則其與東萊之一變奏效者，遲速雖不同，其生平全體大用之所得，又非如東萊已奏之效而止也，豈不更快哉？

조정호 찬흥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趙正豪 燦興 丁卯

맹자는 “사람의 즐거움에 어진 부형이 계시는 것이다.”라고 했고, 여형공(呂榮公)은³⁴⁷ “집안에 어진 부형이 없으니 성취한자가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호의 아버지는 몸소 농사를 지으며 그대를 놓아 유학케 해주니 그 어진 아버지 됨이 누가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옛날의 호걸이 반드시 다 어진 아버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중궁(仲弓)의 경우 지극히 천악(賤惡)한 아버지였음에도 오히려 십철(十哲)의 으뜸으로 손꼽혔으니,³⁴⁸ 다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때문에 말합니다. ‘어진 아버지가 없이 자신의 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할 말이 있겠지만, 어진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 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죄가 막심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반드시 도를 밝히고 덕을 세워서 부모가 남기신 몸을 착하게 하고 후세에 이름을

347 여형공(呂榮公) : 여희철(呂希哲)로 그의 부모가 모든 일은 반드시 예법을 따르도록 엄격하게 가르쳤다.

348 중궁(仲弓)……꼽혔으니 : 공자가 문하의 제자들을 두고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고, 언어에는 재야, 자공이고, 정사에는 염유, 계로이고, 문학에는 자유, 자하이다.[德行,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夏。]”라고 했는데, 이를 공문사과(孔門四科)라 하고, 열거한 열 명의 제자를 공문십철(孔門十哲)이라고 한다. 《논어》〈선진(先進)〉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한 연후에 내 일을 마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호는 의당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答趙正豪 燦興 丁卯

孟子曰人樂有賢父兄，呂滎公曰內無賢父兄，而有成者少矣。今正豪之嚴君，躬幹稼穡，而縱正豪遊學，其爲賢父，孰加於此？雖然古之豪傑，未必皆有賢父。如仲弓則至有賤惡之父，而尙得爲十哲之首科，其他更何論？余故曰無賢父而不成其身者，尙可說，有賢父而不成其身者，其罪莫甚焉，然則如之何其可也？必也明道立德，用淑遺體，揚名後世以顯父母，然後吾事已了。正豪乎宜深思而盡心焉。

유성오 삼종에게 보냄 기사년(1929)

與劉省吾 三鍾 己巳

성오(省吾)여! 그대의 이름이 삼(三)이라고 해서 내가 그 때문에 공경하였나니, 한갓 글에 따라서 뜻을 취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삼성(三省) 가운데, 충신(忠信)이 근본이 되니 사람이 충신하지 않으면 일마다 모두 진실이 없어서 악행을 행하기 쉽고 선(善)을 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날 사기가 성행하고 충신이 사라져서 안으로는 내 마음을 속이고 밖으로는 타인을 속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군주를 속이고, 아버이를 속이며, 스승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러 꺼리는 것이 없어졌으니 지극히 개탄스럽습니다. 성호는 진실로 순신한 사람이지만 혹 세상의 풍조에 간힐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호라! 충신한 사람만이 가히 도(道)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니면 도가 괜히 행해지지 않을 것이니, 부탁하건대 그대는 이 말을 여러 동학들에게 두루 알려주기 바랍니다.

與劉省吾 三鍾 己巳

省吾乎! 君名以三, 而余欽以此, 毋徒曰應文取義。三省之中, 忠信爲本, 而人不忠信, 事皆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見今欺詐盛而忠信亡, 內而欺心, 外而欺人, 上而至於欺君欺親欺師而無憚, 極用慨歎。省吾固淳實人, 吾猶恐其或囿於世風也。茲復申囑焉。嗚呼! 忠信之人, 可以學道。苟非其人, 道不虛行, 請君徧以此諭諸同學諸子。

송기창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宋基滄 乙丑

옛날 ‘공자께서 광(匡) 땅에서 마음에 경계를 두셨을 때 안자(顔子)가 뒤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³⁴⁹라고 했습니다. 호씨(胡氏)가 이를 논하길 “공자께서 불행하게 환난을 만났다면 안자가 반드시 삶을 버리고 쫓아가서 구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 아! 여기서 옛사람의 스승 공경하는 의리를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환난

349 옛날에……죽겠습니까? : “공자께서 광 땅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연이 맨 나중에 왔다. 공자께서,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하자 안연이 말하길,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子畏於匡顔然後子曰吾以女爲死矣。日子在回何敢死]”라고 하였다. 《논어》〈선진(先進)〉

에 처했을 때, 그대가 추후에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먹지도 않고, 유자(儒者)의 옷을 입고 홀로 백리 길을 달려왔던 것은 내가 이미 인간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터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힘이 미약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 마음만은 안자가 생을 버리고 쫓아가 구하고자 했던 것보다 못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덕이 박하여 그대의 스승 되기에 부족합니다. 염계(濂溪 주돈이)선생은 “안자를 배울 때에 학문이 그보다 지나치면 성인이 되고, 그에게 미치면 현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대가 스승 섬기는 한 대목만큼은 이미 배우지 않고도 안자와 동일하니, 그 나머지 ‘불천노불이과(不遷怒不貳過)’,³⁵⁰ ‘비례물시청언동(非禮勿視聽言動)’,³⁵¹ ‘일선복응(一善服膺)’³⁵²하였던 선을 하나하나 배워서 진실로 쌓아가 힘이 오래되면 거의 그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대한 덕과 큰 이름을 장차 만세에 드리우게 될 것이니, 어찌 한때 스승의 환란에 달려갔던 일만 칭송하겠습니까? 원컨대 그대는 면전(勉旃 힘을 쓰다)하여 나도 함께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與宋基滄 乙丑

昔孔子之畏於匡也，顏子從之而曰，子在某何敢死。胡氏論之曰：孔

350 불천노불이과(不遷怒不貳過) : 공자가 안회를 평하면서 “[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라고 하였다. 《논어》〈옹야(雍也)〉

351 비례물시청언동(非禮勿視聽言動) :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으로, 안연이 공자에게 인(仁)을 행하는 조목을 묻자 대답하신 대목이다. 《논어(論語)》〈안연(顏淵)〉

352 일선복응(一善服膺)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8장에 “안회(顏回)의 사람됨은 중용의 길을 택해 행하면서 어떤 한 가지 선을 얻으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回之爲人也，擇乎中庸，得一善，則拳拳服膺而不失之矣。]”라고 하였다.

子不幸而遇難，顏子必捐生而赴救。噫！古人事師之義，可知已。向余之有難也，汝追後聞之，痛哭不食，衣闕袖隻行百里而來者，以余爲不在人世也。雖其年幼力弱，不能有爲，其心乃顏子之捐生赴救，如汝者，可謂不讓乎古人。而愧余德薄，不足爲汝師也。濂溪先生不云乎？學顏淵之所學，過則聖，及則賢。汝於事師一節，既不學而同乎顏子矣，其餘若不遷怒貳過，非禮勿視聽言動，得一善服膺之類，一一善學，眞積力久，而幾及焉。則盛德大名，將垂乎萬世矣，豈但一時赴師難之贊誦而已哉？願汝之勉旃，俾余之亦有光焉。

송기창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宋基滄 丁卯

그대는 이같이 하던 동자시절에 신학문을 버리고 머리를 기르며 성현을 공부하셨다던 분이 아니셨던가요? 또 성동(成童 15세) 시절에는 먼저 유자(儒者)의 옷을 입어서 여러 유생들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어려운 일이거늘, 눈 쌓인 한겨울에 울부짖으며 먹지 않고 홀로 백리를 걸어 스승의 환난에 달려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나는 “인재가 사라진 시절에 하늘이 이 사람을 낸 것은 뜻이 있어서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영주산(瀛洲山) 아래 우덕리(優德里) 송씨 가문에서 위인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크게 어긋나 그대처럼 청고하고 독실한 자질로 갑자기 스스로 암흑의 땅에 빠지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바야흐로 긴 밤 책을 송독할 때는 금쟁반에 옥젓가락 소리가 들렸고, 종이를 펴서 문사를 토해낼 때는 바람이 세차게 일고 물이 용솟음치는 형세여서 장차 천하의

문장을 들어 홀로 독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개월 동안 먼지더미에 경전을 묶어 보관하고, 여름 내내 파리 떼 나는 소굴에서 썩은 나무와 썩은 담장이 되어버렸는가요? 참으로 사람은 지혜롭기가 쉽지 않고, 사람을 안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내가 여러 제자들과 교학 상장할 때에 그대를 믿을 만하다고 여겨 이름을 기창(基滄)이라 하였고, 자(字)를 이경(以敬)이라 한 것은 대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또한 운기(運氣)이지 인력(人力)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분수가 박복한 소치일 터이니, 마음의 근심이 은하수처럼 유장합니다. 《시경》에 이르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것은 각각 까닭이 있다.”³⁵³ 라고 했는데, 이제 그대가 이 학문을 버리고 다른 학문을 도모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대가 부랑한 것을 쫓고 잡란한 것을 일삼는다 해도 결코 최악의 지경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염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가 신학문을 한다고 해도 풍부(馮婦)가 천고의 웃음거리가 되었다³⁵⁴는 사실은 잘 알 것입니다. 만일 또 그대가 학업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다스린다고 하면 아버이의 바람은 학업에 있지 결코 집안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찍이 그대의 시를 보았는데 “어느 때에 통쾌하게 삼백주(三百州)가 회복되는 것을 볼까?”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풍진 세상에 발을 내딛어 크게 바라는 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초당의 봄잠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³⁵⁵라는 생각도 해봅시다. 그러나 비록 천지를

353 사람들의……있다 : 《시경》〈재치(載馳)〉에 “여자가 그리움 많은 것은 또한 각기 도리가 있거늘.(女子善懷, 亦各有行。)”에서 나온 말이다. 정현(鄭玄)과 주자(朱子)가 ‘선(善)’을 ‘다(多)’로 풀이하였다.

354 풍부(馮婦)가……되었다 : “진(晉)나라 풍부(馮婦)가 호랑이를 잘 잡았는데, 마침내 좋은 선비가 되었다. 그러나 호랑이를 보자 팔을 걸어붙이고 수레에서 내리며 절제할 바를 알지 못했다. 《맹자》〈진심(盡心)〉

뒤흔드는 공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학문의 본지가 있는 연후에 불만한 것이 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태공(太公)이 목야(牧野)를 청명하게 한 것도 “경의(敬義)를 따르면 길하다.³⁵⁵”라는 서책에 근본했고,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천하삼분 계획도 “영정(寧靜) 담박(澹泊)”의 훈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주자(朱子)는 “진정한 영웅은 전전공공하는 신중한 자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 것도 미더운 말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는 재략(才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했으니, 그대와 나의 경우는 본래 품수 받은 자질이 다만 경전에 힘쓰고 심신을 선하게 하여 윤리강상(倫理綱常)을 부축하고 도학(道學)을 밝힐 수 있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이 학문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면 세도(世道)에 공이 있는 것이 혼천동지(掀天動地)의 공업에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그대가 어찌 모르는가요? 아! 그대의 뜻이 과연 여기(학문)에 있는 것인가? 저기(공업)에 있는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년 동안 스승과 제자의 우의에 절실한 아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폐간에서 나오는 말을 개진하는 것이니, 그대가 번연히 길을 바꾸어 더욱 용감히 나아간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를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나는 천금의 옥벽을 헤진 빛자루와 동일하게 보는 처지에 던져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장차 편지를 안고 스스로 슬퍼하면서 그대를 강호에서 잇을 것입니다.

355 초당의……아닌가 : 제갈량이 일찍이 용중(隆中)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읊은 시에 “초당에 봄잠이 넉넉하니, 창밖의 해는 더디기만 하구나. 큰 꿈을 누가 먼저 깰까? 평소 내 스스로 아노라.[草堂春睡足, 窓外日遲遲. 大夢誰先覺, 平生我自知。]”에서 의미를 취했다.

356 경의(敬義)를……길하다 : “군자는 경으로써 안의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의 일을 바르게 하니, 이렇게 경과 의가 확립되어서 그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

與宋基滄 丁卯

汝在齟齬，非棄新學而長髮讀聖賢書者乎？又在成童，非先著儒服爲諸生效法者乎？此已是難事，而隆冬積雪，號泣不食，隻行百里，赴師難而誓同死者，何處更覯？吾以爲當此人材寥寥乏日天生此人，其或有意乎？又以爲瀛洲山下優德里，宋氏之門，有偉人者出乎，孰料其事有大謬？以若清高篤實之姿，遽自陷於窄窄沓沓之地，方其永夜誦讀，金盤玉筋之聲，展紙吐辭，風迅水湧之勢也。若將舉天下之文而獨擅之，胡爲乎累月塵堆，束閣經傳，長夏蠅窩，朽木糞土之爲乎？人固未易知，知人亦未易也。念吾相從諸子，以汝爲可侍，名以基滄，字以以敬，蓋有深意存也。今乃若此，是亦運氣而非人力歟，抑亦賤子分薄之致歟。心之憂矣，河漢其長。詩云人之善懷，亦各有行，今汝之舍此而他圖者，志果安在？使汝欲遂浮浪事雜亂，吾知其汗不至此，不須慮也。使汝欲更理新學，馮婦之偉千古所笑，汝所知也。欲輟業而幹蠱，則親之所欲，在此而不在彼也。吾嘗見汝詩，有何時快復三百州之句矣。無乃出脚風塵，求所大欲，先足此草堂春睡也乎。蓋雖掀天揭地事業，必有學問爲之本地，然後有可觀者。故太公之牧野清明，本於敬義吉從之書，孔明之三分籌策，本於寧靜澹泊之戒。朱子所謂真正大英，雄自戰兢臨履做來者，其信矣。夫雖然，此以才略可爲者言，若汝與我者，合下稟質，只可劬經傳淑身心，扶倫綱明道學而已。雖然若能於此，透關出場，其有功世道，曾不下掀揭事業。此箇義諦，汝豈未知？噫！汝之志，果在此乎在彼乎？吾不得以知之。但三年師生之誼，有切痛痒之關，陳此瀝肝之言，如得幡然改轍，一倍勇進則幸矣。不然此紙還以見歸。吾不欲以千之璧，投諸視同弊帚之地。將抱此自傷，而伊人則可忘江湖也。

유우일 만종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劉于一 萬鍾 庚午

그대의 자질은 순실(淳實)하고 성근(誠勤)하며 독서를 좋아하고 문기를 잘하니 대체적으로 자질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인(善人)이라 이른다.”라고 했는데, 주자는 이를 자품(資品)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자질이 있다는 것은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지만 주자는 또 말하길 “좋은 자질의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지극한 도리에 이르렀다는 말은 듣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자질은 이처럼 믿을만한 것이 못되니 족히 다행으로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과 불행의 사이에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예로부터 아름다운 자질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끝내 요순(堯舜), 주공(周公), 공자(孔子)의 경지에 들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학문의 큰 방도입니다. 학자는 그 기질을 변화시키기를 추구하지만 능히 변화된 자는 드뭅니다. 비록 변화시키되 타고난 기분(氣分)의 찌꺼기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요? 그대는 돌아가서 생각해 터득하여 나에게도 알려주어 서로 교학 상장의 자질로 삼기를 청합니다.

與劉于一 萬鍾 庚午

君之資質，淳實而誠勤，好讀而能問，蓋質美者也。孟子曰可欲之謂善，朱子釋以資稟好。人之有美質，豈非幸哉？雖然，朱子又曰美質易得，至道難聞。美質之不可恃如此，則無足以爲幸。幸與不幸之間，將何以處之？且從古以來，美質不爲不多，終不入堯舜周孔之域者，

其故何歟? 變化氣質, 爲學大方。學者求變其質, 而能變者鮮。雖變之而不能無氣分查滓者, 又何故歟? 請歸思得之而喻我, 作相長之資。

박종기에게 보냄

與朴 鍾基

초연히 고명(高明)한 경지를 멀리 바라보고, 탁연히 통렬하게 범루(凡陋)한 자태를 끊는다고 하였으니, 한갓 만권의 책을 읽는 것이 요긴한 말 한마디만 못한 것입니다. 작은 행실을 자궁하지 못한다면, 어찌 구인(九仞 높은)의 성공을³⁵⁷ 바랄 수 있겠습니까?

與朴 鍾基

超然乎遠覽高明之域, 卓然乎痛絕凡陋之態, 徒讀萬卷。不如一語喫緊, 不矜細行, 豈望九仞成功?

김동길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 東吉 乙丑

구천이 회계(會稽)에 깃들어 살고,³⁵⁸ 전단이 즉묵(卽墨)에 있을

357 작은……성공을 : “작은 행실에 조심하지 않으면 끝내 큰 덕에 누를 끼쳐서,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 데, 공이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무너진다.(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라고 하였다. 《서경(書經)》〈여오(旅獒)〉

358 구천이……살고 : 월왕 구천은 부차에게 패배하여 회계에 숨었다가

때에³⁵⁹ 어떠한 심정이었고 어떠한 괴로움이었던가요? 그런데도 끝내 강한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온전한 제(齊)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그대의 괴로운 마음도 학업계의 회계와 즉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연한 공부를 목전에 행하여 훗날 전체의 공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회계의 구천일뿐이고, 즉묵의 전단일 뿐입니다. 이는 한갓 수고롭고 무익한 것이니 무슨 가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答金 東吉 乙丑

句踐之棲會稽，田單之在即墨，何等心力？何等辛苦？然而卒以滅強吳復全齊。今子之辛苦心力，可謂學業界稽墨。不能下卓然之功於目前，收全體之效於異日，稽之踐而已，墨之單而已。徒勞無益，烏足尚哉？

홍자정 석모에게 보냄 무진년(1928)

與洪子正 錫模 戊辰

《논어(論語)》는 천고 이래로 제일가는 대성현의 책이요. 여러 경

버티지 못하고 오왕의 신하가 되었다. 그 후 치욕을 씻기 위하여 쓸개를 핥으면서 부국강병에 힘썼다. 그리하여 끝내 부차를 꺾고 패자(覇者)가 되었다. 《史記 越王句踐世家》

359 전단이……때에 : 전단은 연나라 장군 악의(樂毅)가 제나라를 공격할 때 즉묵(即墨)에서 맞서 싸운 장군이다. 성 안의 소 천여 마리를 모아 뿔에 칼을 장식하고, 몸에는 용의 그림을 그리고, 꼬리에는 기름을 묻히고, 결사대 오천 명을 뒤따르게 했다. 소의 꼬리에 불을 붙이자 소는 미친 듯이 적진을 향해 달려갔고, 결사대가 뒤따르면서 연나라 군대를 궤멸시켰다. 《史記 卷82 田單列傳》

전 중에서도 제일가는 절실하고 요긴한 말씀입니다. 그 비근한 것을 말하자면 “거처공(居處恭), 집사경(執事敬), 시사명(視思明), 청사총(聽思聰)”³⁶⁰ 등의 유(類)인데 이는 초학자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 고원한 것을 말하자면 “일이관지(一以貫之), 소립탁이(所立卓爾)”³⁶¹ 등의 유(類)로 성인의 능사(能事)조차도 이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고원한 것과 그 비근한 것이 비록 다름이 있는듯하나, 실제로는 비근한 것에서 나아가 확충하여 고원한 데에 이를 따름입니다. 또한 일부 《논어》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의 천근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생각해 터득함이 있고, 행하여 효과가 있다면 성인을 배움에 있어서 이해가 절반은 넘을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길 “지금 사람은 《논어》를 읽는데, 《논어》를 읽지 않았을 때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읽고 난 후에도 또한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읽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대가 《논어》를 숙독하기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與洪子正 錫模 戊辰

論語是太古來第一大聖之書，郡經中第一切要之言。語其近：如居處恭執事敬，視思明德思聰之類，初學可以下手。語其遠：如一以貫之，所立卓爾之類，聖人能事，不過如此。其遠其近，雖若有異，實則即近而充之以至於遠。且從一部中日間動靜淺易去處，思之有得。行之有效，則於學聖也，思過半矣。朱子曰今人讀論語，未讀時是這樣人，讀了後又這樣人，其實未曾讀，可不戒哉？吾欲子熟讀論語，故以是及之。

360 거처공(居處恭)……청사총(聽思聰) : 《논어》〈자로(子路)〉편에 나온다.
361 일이관지(一以貫之), 소립탁이(所立卓爾) : 《논어》〈자한(子罕)〉편과, 《논어》이인(里仁)〉편에 나온다.

이태원 인수에게 보냄 신미년(1931)

答李台元 仁洙 辛未

〈호연장(浩然章)〉을 읽고도 길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에서 근일 연찬(研鑽)의 공이 지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장은 대략 천여 글귀지만 그 요지는 집의(集義)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의(義)와 비의(非義)를 초학자는 알기 어려우니 반드시 궁리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궁리(窮理)의 공부는 또 지언(知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호연장)의 지언(知言)은 《대학》의 치지(致知)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장(호연장)의 집의(集義)는 《대학》의 성선(誠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을 읽고 치지(致知), 성선(誠善)에 가히 착수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 장(호연장)을 읽고 지언(知言), 집의(集義)가 들어가는 길이 되는 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유추하여 회통하는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性)은 본말이 모두 선하고, 심(心)은 본래 선하지만 끝에 가서 혹 불선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理)는 본말이 없지만, 기(氣)에는 본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심(本心)을 근거로 말하자면 맹자가 이미 “이의(理義)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똑같이 그러하다고 말했으니, 낙민(洛閩)의 제현(諸賢)들이³⁶² 어찌 이론이 있어서 다만 ‘이(理)가 선하다 말하고 기(氣, 신명의 영묘함으로 말함)의 선함을 말하지 않으며, 다만 성(性)을 같다고 말하고 심(心)은 같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당신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본체(本體)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性)은 같고 심(心) 또한 같으며, 기질의 구

362 낙민(洛閩)의 제현(諸賢) : 낙민(洛閩)은 중국의 두 지명이다. 낙수(洛水)에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의 제현(諸賢)이나 정주학(程朱學)의 의미로 쓰인다.

속된 바로 말하자면 심(心)은 같지 않고 성(性) 또한 같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혼륜(混淪 두루 몽실)하여 말하자면 그 말이 통용될 수 있지만 분정(分定 세분)하여 말하자면 정밀하지 못합니다. 성(性)은 비록 기질에 구속되지만 본체의 선은 스스로 그대로입니다. 심(心)은 기질에 구속될 때에 본체의 선도 이미 변하여 악이 되니, 그 점이 다른 까닭입니다.

答李台元 仁洙 辛未

讀浩然章，未得蹊逕之喻，可認近日研鑽功至也。蓋此章無慮千餘言，而其要旨不出乎集義二字。但義與非義，初學難知，必須窮理而明之。窮理之功，又知言是也。乃知此章之知言，即大學之致知也。此章之集義，即大學之誠善也。讀大學而知致知誠善之可以下手，而讀此章而不知知言集義之爲入頭蹊逕，豈得爲推類會通之法乎？性本末皆善，心則本善而末或不善。故曰理無本末，而氣有本末。然據本心而言，則孟子已言理義悅心，人所同然，洛閩諸賢，豈有異論，而但言理善而不言氣(以神明靈妙言)善，但言性同而不言心同乎？雖然至於盛喻，以本體言，則性同心亦同，以氣質所拘言，則心不同性亦不同之云，則混淪說時可行，而分定說則未精。性則雖爲氣拘，而當體之善自如也。心則被氣拘時，本體之善，已變爲惡，此所以異也。

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편지를 받고 모 어른의 일이 과연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님을 알았으니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일이 기왕의 일인지라 비

록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세교(世教)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이 종남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미봉하고 장찬(粧撰)³⁶³하여 왜곡되게 한 가지 의리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또 어찌된 일입니까? 한훤당(寒暄堂 김굉필)이 매우 노해서 여종을 질책한 것과, 우암(尤庵 송시열)이 복어를 먹으려 한 것은 비록 소소한 일이지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과 소윤[少尹 윤원형(尹元衡)]이 오히려 간쟁하고 저지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바른 도리로 스승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았거늘, 그대는 이미 충간하지 못하고 스승을 큰 실수에 빠뜨렸습니다. 또 이어서 그 잘못을 대 순임금의 “알리지 않고 장가간 일”³⁶⁴에 견주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성품과 이치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또한 모 어르신은 평소에 이(理)가 기(氣)를 따라서 품수를 달리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발용(發用)에도 편전(偏全)이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일을 강론하는 것은 실로 밝지 못한 것입니다.

答李台元 辛未

承書知某丈事果非虛傳，此何事此何事？事係既往，雖不欲說，世教之害，憂齊終南。左右乃彌縫粧撰，曲成一副當義理，此又何也？寒暄之盛怒責婢，尤庵之欲食河豚，細事也。靜庵少尹猶諫而止之，至今傳爲美談。古人之以道事師如此，左右既不能忠諫而陷師於大失。又從而擬之於大舜之不告而娶，天下安有似此性理？抑亦某丈雅言理隨氣而異稟，故發用有便全者耶？如此講理，實所未曉。

363 장찬(粧撰) :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미는 일이다.

364 알리지……일 : “순이 어버이에게 알리지 않고 장가를 든 것은 후사가 없게 될까 염려해서였다. 그래서 군자는 그것을 어버이에게 알린 것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舜不告而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 《맹자》〈이루 상(離婁上)〉

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맹자는 양기(養氣)의 방도를 논하면서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서 마음에 잊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호연지기를 양성하게 되면 학문이 여기에 더할 것이 없게 됩니다. 곧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한 공부는 “유사불망(有事不忘)” 한 마디에 불과합니다. 학자는 여기에서 그 요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논한 학문의 방도는 이미 그 마땅함을 얻었고, 또한 스스로를 질책하는 언사도 심히 간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슬픔이 함께 이르게 합니다. 그대가 요청한 정문일침(頂門一針)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각건대 다른데서 구할 것이 없고 그대의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부지런히 힘쓰다 죽은 이후에 그친다.”³⁶⁵라는 것은 유사불망(有事不忘)의 공이요 “아무리 은미한 것이라도 파고들지 않음이 없고, 아무리 견고한 것도 깨뜨리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공효입니다. 그대가 발명한 것과 천루한 내가 질정한 것이 모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성인의 훈계에서 드리운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으니 소견이 대략 똑같다.”라는 말씀이 어찌 지혜로운 자를 기다려서만 서로 부합되는 말이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은 한갓 말만 즐겨하고 진실로 실천하지 않으려는 것이 공통된 근심입니다. 편지에서 “재질이 높지 못하고, 거처하는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한 것도 비록 한스럽긴 하지만 학문의 진퇴와 덕의 성패는 실로 여기에 있지 않으니, 족히 근심하기에 부족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다

365 부지런히……그친다. : “전심하여 날마다 힘쓰고 힘쓰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俛焉日有孳藝 斃而后已]” 《예기》〈표기(表記)〉

만 요컨대 백천(百千)의 힘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공부를 시행하여 기어이 명강(明剛)한 곳에 이르기를 기약하고, 용솨음치는 기개로 견백(堅白)의 덕을 이루어서 치린(緇磷)에 이르지 않기를³⁶⁶ 기약할 뿐입니다.

答李台元 辛未

孟子論養氣之方曰：必有事焉而心不忘。人至于養成浩氣，則學之無以可矣。而乃其用功，則不過有事不忘一語。學者於此可以知其要矣。來書所論學問之道，既得其當，自訟之辭，亦心懇切，令人欣戚交至也。頂針之請，料不可他求，則於來書中在焉。俛焉孜孜，斃而後已，有事不忘之功也。無微不至，無堅不破，養成浩氣之效也。發之左右，質之淺陋，并無異辭，聖訓所垂人心有知，所見畧同，豈待智者而相符也？但吾輩徒能言之而不肯允蹈者，是爲通患也。至於材質未高，居俗不美，雖亦可恨，學之進退，德之成敗，實不在此，此不足爲憂，憂亦無所益也。只要以百千之力，施不措之功，期至乎明剛而已，以聳拔之氣。成堅白之德，期不至磷緇而已。

이태원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台元 辛未

보내온 편지에서 “학문의 부진을 근심함이 예전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라는 구절에 근거해 학문에 더욱 정진하고 있음을 알 수

366 견백(堅白)의……않기를 : “굳은 것이 있지 않느냐! 갈아도 얽어지지 않고, 흰 것이 있지 않느냐!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느냐[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 《논어》〈양화(陽貨)〉

있으니 “이익에 치달려 세속에 함몰되었다.”라는 말은 지나친 겸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서로 바탕을 귀하게 여겨야지 문채를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스스로 깨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의심들이나 괴롭게 근심하는 병통을 가지고 와서 묻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연후에 제목에 따라 글을 짓고 증세에 대응하는 약을 투여해 함께 피차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것을 얻어야 하는데, 도리어 일반적인 범연(泛然)한 지식과 서두의 몇 글자만 들어서 겉치레를 꾸미는 것만 지어내니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한탄과 “남에게 물을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바람 또한 나의 견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실로 뜻이 있다면 성인의 도가 실추되지 않아서 사람에게 있으니 참으로 일정한 스승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자를 택하여 따르고 불선한 자를 돌이켜 나를 고친다면 세 사람이 가는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돌이켜 내 마음에서 구한다면 순선한 성(性) 그 가운데에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르치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순(舜)과 탕(湯)은 대성인입니다. 공자는 순임금이 문기를 좋아한다고 칭찬하였고, 중휼(仲虺)는 탕왕에게 문기를 좋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안자(顏子)는 대현인임에도 증자(曾子)께서 “능 하시면서도 불능한 자에게 문기를 좋아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물며 그 이하의 사람에게 있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람이 배울 때에는 반드시 학문(學問)이라고 말하는 법이니, 대개 물음이 아니면 학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야 이에 물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배우려고 하면서 물음이 없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배부름을 구하면서 먹지 않는 것과 다름이 있

겠습니까? 그대의 잘못된 견해를 안타깝게 여겨 이 두 가지 뜻을 지어서 보내니 급히 고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答李台元 辛未

來喻憂學不進，比前益切，卽此可見學之愈進，而馳利陷俗之云，認出於過謙也。大抵吾儕相與貴質不貴文。胡不把自家所憤悱底疑晦？所苦患底疾病來問。使之隨題做文，對證投藥，彼此俱見實心實得，却作一般泛知，最初書頭，修飾邊幅樣子，吾不知其何意也？教導無人之嘆，無事問人之願，亦不槩於鄙見。我苟有志，聖人之道未墜在人者，固無常師矣。擇善而從之，不善者改焉，則三人行，亦有我師矣。又反而求之吾心，則純善之性，師在其中矣。何患乎教導無人乎？舜與湯大聖也。孔子稱舜以好文，仲虺勸湯以好問。顏子大賢也，曾子稱之以以能問不能，況在其下者乎？故人之爲學，必曰學問。蓋以非問不可以爲學，除是不學，乃無問也。今左右欲爲學而願無問，是何異於求飽而不飯也？斯二義，竊爲左右悶其錯見，幸亟改之。

문학수에게 답함

答文 學洙

‘증자(曾子)는 끝내 노둔함으로 얻었으니’³⁶⁷ 지나치게 민첩하고 날카로운 것은 바른 도(道)에서 멀다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367 증자는……얻었으니 : 《논어》〈선진(先進)〉에 “증삼은 노둔한 편이다.[參也魯]”라는 공자의 평이 나오고, 《근사록》〈위학(爲學)〉에 “증삼은 노둔하기 때문에 마침내 도를 얻었다.[參也竟以魯得之]”라는 정명도(程明道)의 말이 있다.

자질이 노둔하고 민첩하거나 날카롭지 않음을 좋아합니다. “터득하지 못하면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총명예지(聰明睿智)는 모두 경(敬)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니, 나는 그대가 그만두지 않아서 밝아지고, 경(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答文 學洙

曾子竟以魯得之，便儂皎厲，去道遠。而吾愛君之質魯而不儂厲也。不得不措，則雖愚必明，聰明睿智。皆由敬出，吾願君之不措而明，由敬而智也。

족제 사문 흥술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弟士聞 興述 癸酉

맹자는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릇 제왕의 여러 정무처리와 공경대부의 온갖 정사에서부터 아래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백가지 임무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일없는 자가 없는데도 “반드시 일삼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사람 된 까닭은 그 의(義)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모인 곳에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생겨나고, 호연지기가 생긴 이후에 사람은 천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이 말은 사람이 집의양기(集義養氣)에 종사하는 데, 간단(間斷)이 없어야 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집의양기(集義養氣)는 진실로 세간의 여러 일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간의 여러 일 외에 별도로 집의양기(集義養氣)할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다면, 이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義)는 일의 마땅함입니다. 일상생활 중 사물에 응접함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인해 의를 모을 것인가요? 다만 의라는 것은 반드시 독서궁리(讀書窮理)하여 밝혀야 하고 본원을 함양해서 내야지, 사물에 시행하여도 절도에 맞고 언행에 징험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서 호연지기의 생성에 차츰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때문에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제왕의 호령(號令)과 형상(刑賞), 공경대부의 열심히 봉직하는 일, 사농공장(士農工商)의 독서하고, 농사짓고, 기계를 만들고, 화물을 운송하는 것들이 모두 집의(集義)가 아님이 없습니다. 유사(有事)라고 이른 것은 마땅히 사물 가운데서 구할 따름입니다. 이제 그대는 힘이 넉넉지 못하고 또한 분가하여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나 농사의 수고로움을 면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일없이 고요히 앉아 독서궁리할 수 있는 날을 아마 많이 얻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현재 일하는 가운데 반드시 일삼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아는 것에 나아가 얻을 바를 추구한다면 이미 이해가 절반은 넘은 것입니다. 게다가 밤과 새벽의 외물을 접하기 이전과 겨울과 봄사이의 여가에, 족히 의를 모으고 호연지기 생성의 바탕이 되는 밝고 고요한 공부가 없음을 근심하지 않으니, 그대는 더욱 힘쓰십시오.

答族弟士聞 興述 癸酉

孟子曰必有事焉。夫自帝王之萬機，公卿大夫之庶政，下至士農工商之百務，世無有無事者，其必曰必有事焉何也？人之所以爲人者，以其有義也。義之所集，浩氣生焉。浩氣生然後，人可以參天地。孟子此言，謂人當從事於集義養氣而無間斷也。此事也，固非若世間庶務

之事者，故云然。然則外世間庶事，而別有事乎集義養氣乎？曰否。義者事之宜也。非應事接物，何所因而集其義乎？但所謂義者，必須讀書窮理以明之，涵養本源以出之，乃可以施之事物而中節，驗之言行而無愧，以馴致乎浩氣之生。故於是乎有除却煩冗兀然端坐之時。除此以外，帝王之號令刑賞，公卿大夫之奉職執掌，士農工商之文字稼穡器械貨物，罔非集義之地。所謂有事者，當於事物中求之而已。今子力既不贍，而亦已析著，治家之務，服田之勞，勢所難免，無事靜座讀書窮格之日，恐不多得。然苟知其必有事乎當下應事之中，則但就所知所得者而求之，思已過半。而況乎夜朝之未接，冬春之餘暇，不患無明靜之功足以資義集氣生之本乎，子其勉之。

최원경 갑열에게 답함 임신년(1932)

答崔元敬 甲烈 壬申

이전에 이미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편지가 와서 또 그대의 품은 뜻을 상세히 알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만 나를 칭찬하는 곳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위축되어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집안끼리 친분이 있어 아부하는 것이라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자질이 둔하고 기질이 게을러 스스로 병통으로 여겨서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추구한다.”라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반성이 절실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자 하는 성대한 뜻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 병통은 사람마다 공통된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궁구하여 말하자면, 그대가 비록 현명하지만 제 생각에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겸손에서 모두 나온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대개 공통으로 근심하

는 병에는 또한 공통으로 다스리는 약제가 있습니다. 듣건대 “총명예지(聰明睿知)가 모두 공경으로부터 나온다.”³⁶⁸라고 하였고, “군자가 위엄이 있고 공경하면 날로 강해진다.”고 하였습니다.³⁶⁹ 총명하면 둔한 자도 변화되고 강하면 게으른 자도 변화됩니다. 이미 밝아지고 강해지면 이것이 곧 중용의 지극한 공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경(敬)이라는 글자는 유문(儒門)에서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범상하게 여겨서 기특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통환의 병통을 매우 근심하지 않는다면 통치의 약도 매우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끝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통환의 병은 천하의 큰 병이고, 통치의 약은 천하의 영약입니다. 때문에 좋은 의사는 통치의 약으로 통환의 병을 구제합니다. 유문(儒門)의 병을 다스리는 것도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이제 그대가 약을 구하면서 경(敬)이라는 글자를 버리고는 다른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보았던 소릉(昭陵)이라 여겨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答崔元敬 甲烈 壬申

前既獲觀雅儀，書來又詳志蘊，何幸如之。但稱鄙人處，太不停當。不惟鄙之瑟縮不安，竊恐人之疑左右何好於通家之親也。至以質鈍氣慢自病而求其變化，則省切學勤之盛可仰，蓋此病人所通患。究而言

368 총명예지(聰明睿知)……나온다 : 《논어집주》〈헌문(憲問)〉에서 주자가 장하주(章下註)로 인용한 정이의 말씀으로 “총명예지가 모두 이 공경으로 말미암아 나오니, 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상제에 제향하는 것이다. [聰明睿知皆由是出，以此事天饗帝。]”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369 군자가……하였습니다 : “군자가 장중하고 공손하면 날로 더욱 강해지고, 안일하고 방자하면 날로 구차해진다.〔君子莊敬日強，安肆日偷。〕” 《예기》〈표기(表記)〉

之，左右雖賢，意亦有近似者，非盡出於撝謙也。夫通患之病，亦有通治之藥。蓋聞敬則聰明睿知，皆由此出。又聞君子莊敬則日強，聰明則鈍者變矣，強則慢者化矣。既明且強，乃中庸之極功也。雖然敬字爲儒門之所常談，故聞者恬常而不之奇，此惑也。夫人不甚憂通患之病，不甚貴通治之藥，此所以病終不療而死亡無日也。通患之病，天下之大病，通治之藥，天下之靈藥。故善醫者，以通治之藥，救通患之病。儒門之治病，何獨異也？今於左右之求藥也，未有舍敬字而可以他圖者，幸勿以已見昭陵而忽之如何。

박남룡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朴南龍 癸酉

요즘 젊은이들이 신평조에 취해서 관상(冠裳 유학자의 의상)을 훼손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이 유학을 업으로 삼아 여전히 옛 법식에 있는 자들조차 모두 전일의 스승과 어른을 잇고 지내는 것이 강호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대만큼은 학문을 그만두고 돌아간 지 한 해가 지났는데도 멀리서 편지를 부쳐 나의 생사를 물어주니, 적조(積阻 오랫동안 격조)함을 위로해주는 기쁨일 뿐 아니라 그대가 이 학문에 종사하여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에서 “가난으로 인해 높은 누각에 서책을 묶어두었다.”라는 말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힘써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약간의 세풍에 구속됨을 면치 못한 것이 아닌가요? 시험 삼아 옛날의 현인, 군자를 보건데 누가 빈궁(貧窮) 가운데로부터 성취를 이루지 않았던가요? 안자(顏子)는 늘 궁핍했지만 덕행이 가장 높았고, 증자(曾子)는 밭의 김을 매었지만 끝내 성인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계로(季路 자로)는 짐

을 이고 지고 날랐지만 백세의 사표가 되었고, 호미질을 하면서도 경전을 차고 다녔던 예관(倪寬)은 한(漢)나라의 경상이 되었고, 주경야독하였던 동소남(董邵南)은³⁷⁰ 이름을 드날렸습니다. 또 세간의 부호 자제들을 보십시오. 누가 즐겨 머리를 숙이고 학문을 구하는 자가 있던가요? 마음으로는 주색을 연연해하고 서책을 도외시하면서 다통으로 남을 능멸하고 도박으로 아버이를 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거처하면 금수에 가까워짐을 순임금 때부터 근심하였고, 완악함과 사치로 종족을 전복시킨다고 유공(柳公 유형원?)은 경계를 두었습니다. 이는 가난이 도리어 바탕이 되어 학문을 이루고 부(富)는 학문에 방해됨이 이와 같은 바, 그대는 어찌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욱 힘쓰십시오.

答朴南龍 癸酉

近日年少，醉新風而毀冠裳者，不須言，其嘗業文而尚在舊式者，舉忘前日師長，若江湖之魚。惟左右輟歸經年，乃能寄遠書問死生，非但喜積阻之慰，因此而知左右之於此學。有事而不忘矣，乃有緣於傷哉束書高閣之喻何也？無乃知尙未堅，力尙未勤，不免些爲世風所囿耶？試觀古之賢人君子，孰不從貧窮中做成？顏子屢空，德行最崇，曾氏芸田，卒繼聖傳。季路負戴，師表百世，鉏禾帶經，兒爲漢卿，暮讀朝■，董生顯名。又觀世間當豪子弟，孰肯屈首而向學者？心戀酒色，■視簡冊，鬪狼陵人，博賭遺親。逸居近獸，憂自舜后，頑奢覆宗，戒存柳公。是則貧之反資而成學，富之適足以妨學，有如此者，左右何不以此自慰而益孜孜也。

370 동소남(董召南) : 당나라 때 안풍(安豐) 사람으로 은사(隱士)인데 한유(韓愈)가 <동생행(董生行)>이라는 노래를 지어 동소남이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는 내용을 읊었다. 《小學善行》

강제철 기석에게 답함 무인년(1933)

答姜齊七 璣錫 戊寅

중양일(重陽日)에 보낸 편지를 받고 “예전의 질병이 나은 후에 얼굴에 종기가 생겼고, 종기가 그치자 다시 설사의 괴로움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금년 신운이 곤액하십니다. 비록 그렇지만 질병이 닥치는 것은 성현도 면치 못한 바였으니 하물며 못사람들이겠습니까? 끝내 우려할 것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다행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것으로 위로하고 굳이 뒤늦게 문제 삼을 일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대로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부모는 오직 질병만을 근심하신다.”³⁷¹ 라는 훈계를 마땅히 두렵게 생각하여 음식, 희로애락, 과로 등 모든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질병이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 아버지께 근심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배우는 자는 마땅히 질병이 오면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이 나에게 병을 가한 것은 내 평상시의 처신에 착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깊이 후회하고 질책하여 타일 수신(修身)의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안팎을 번갈아 닦아 나아가야지 성현 또한 질병을 면치 못한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 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무엇을 하던지 공부처가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섭생하여 쇠약한 몸을 좋아지게 단련하는 여가에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는지 모

371 부모는……하신다. : “맹무백(孟武伯)이 효(孝)를 물으니, 공자께서 [父母唯其疾之憂]라고 대답하였다.” 《논어》〈위정(爲政)〉

르겠군요.

答姜齊七 璣錫 戊寅

奉重陽日書，知昔疾療後，有面腫，腫已又苦於痢甚矣。高明今年身運之厄也。雖然疾病之來，聖賢所不免，況衆人乎？終而無慮，則斯已幸矣。當者與傍觀，只當以此慰之，不必追提。但有一焉，現在侍下者，當惕念孔子父母唯憂之訓，其於居處飲食喜怒逸勞，凡可以致疾者，一倍戒慎。勿使疾自我作以貽親憂者，是所可勉。又進而言之，則學者當於疾病時，恐懼省念曰，天之加我以病者，是治我平日行己未善之罪也，深自悔訟以爲他日改修之姿。不可少有愠怒慝尤之心者，尤所當勉。以此二者，內外交修，不宜槩以聖賢亦不免疾病之語自寬，則是乃撫適而非下工處也。未知調將之暇，亦嘗念及於此否。

권영규에게 답함

答權寧奎

초연하고 깨끗함은 한 마리 봉황이 하늘을 날듯해야 하고, 일을 시행함에 열심히 전진하는 것은 천리마가 길에서 달리듯 해야 합니다. 또 뜻을 쓰는 일이 전일하고 미더운 것은 암탉이 알을 품듯 해야 하고, 선(善)을 행할 때 안정되고 굳건함은 늙은 용이 연못에 깊이 숨듯 해야 합니다.

答權寧奎

超俗脫灑，若孤鳳之翔天，施功邁往，若名騏之在途。用志專孚，若雌鷄之抱卵，處善安固若老龍之藏淵。

안수근에게 보냄

與安壽根

석담(石潭 울곡 이이) 선생께서 이르기를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³⁷²라고 하였으니, 이미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금수가 됴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 부부(夫婦)가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학문이 독서를 일컫는 것이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즉 비록 독서를 하더라도 인도(人道)의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 끝내 금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배우고 글자를 묻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곧 도를 배우고 이치를 묻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도리(道理)의 학문을 하고 문자의 학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독서하지 않는다면 또한 인도(人道)의 당연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학문이란 독서를 일컫는 것이 아니지만 독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학문을 하고자 하면 또한 독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니 그대는 힘쓰기 바랍니다.

與安壽根

石潭夫子謂，人生斯世，非學問無以爲人，旣無以爲人，則其爲禽獸可知也。又謂學問者，父子君臣長幼夫婦，各得其當而已，則其非讀書之謂，又可知也。然則雖能讀書，苟不得人道之當，則究不免禽獸而已。故學問云者，非學大問字之謂，乃學道問理之謂也。吾欲汝爲

372 사람이……없다 : 《격몽요결(擊蒙要訣) 序》에 “非學問，無以爲人”이 나온다.

道理學問，而勿爲文字學問也。雖然不讀書，又無以知人道之當然，故吾固曰：學問者非讀書之謂，而不曰不讀書也。然則欲爲學問，還從讀書始，汝其勗哉。

손창오 동선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孫昌午東宣 丁丑

만추(晩秋) 이래로 가슴과 배에 병이 들어 문을 닫고 시름하니 전혀 이승에 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따스한 바람이 편지를 날려 보내와 온 집안의 병환이 모두 쾌차한 경사가 있었고, 또 삼여(三餘)의 여가에 은반(殷盤)과 주고(周誥)의³⁷³ 학업을 온전히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놀라 일어나 기쁘게 들으니 귀가 상쾌하고 마음이 열려서 병이 몸에서 떠나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마음에 “금일(今日)에야 비로소 좋은 상황이 있다고 이를만하구나”라고 했습니다. 아! 나의 마음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요? 종이 위에 가로 쓴 글자와 치간(齒間)의 격음이³⁷⁴ 천하에 가득차서 공맹(孔孟)을 송독하고 본받아야 할 연소자들이 새 풍조에 눈을 뜨고 달려가서 남아있는 자들이 없는데, 오직 우리 창오(昌午 수신인)가 갈수록 공부를 더함에 전진하고 물러남이 없으며, 모든 취한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 못 잡초 가운데 외롭게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박괘(剝卦) 상구(上九)의³⁷⁵ 석과(碩果)가 되고자 하고, 7일의 우레처럼 분발하기를

373 은반(殷盤), 주고(周誥) : 《서경》의 편명이다.

374 종이위에……격음: 영어와 외국어 등을 가리킨다.

375 박괘(剝卦) 상구(上九) : 《주역》〈박괘(剝卦) 상구(上九)〉에 “큰 과일 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섯 개의 효(爻)

기약하니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은 비록 평소에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오히려 마음으로 좋아하기를 그치지 못하거늘, 오래도록 집안끼리 우호를 나누고 또 2년 동안 교학 상장한 내 제자에게서 보게 되니 어찌 기쁘고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바라는 것은 참됨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하여 능히 그 마침을 이루어서, 기쁘고 통쾌하여 하루 만에 나의 병을 낫게 한 이 일이 영세토록 전해지는 미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만 다행스러운 일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答孫昌午 東宣 丁丑

自晚秋以來，見病胸腹，閉戶呻嚶，絕無陽界氣味。何來惠風颺送華翰，有以知堂瘳閣患，并奏妄五之慶，殷盤周誥，穩做三餘之業，驚起喜聽，耳爽心豁，有若病之祛體。自語於心曰：今日可謂有佳況。嗟呼！吾之此心，胡爲而至此？紙上蠻行，齒間鶻音，盈滿天下，年少之誦法孔孟者，發蒙振落於新風，而無有存者。惟吾昌午，去益加功，有進無退，獨醒於皆醉之中，孤芳於衆蕪之間。擬作上九之果，期奮七日之雷，此世此人，雖在素昧平生之地，猶當心好之不已，乃於累世講好兩歲相長之人見之，如之何不喜快哉？惟願其真積力久，克成厥終，使我一日之喜快祛病，作永世相傳之美談。不勝千萬之幸。

가 모두 음(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만 양(陽)인 것을 말한다. 또한 박괘(剝卦)가 궁극에 이르면 하나의 양효(陽爻)가 제일 아래에서 부터 회복되어 점점 자라나는 형세의 복괘(復卦)로 됨을 비유하였다.

손창오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孫昌午 戊寅

편지를 받고 편안함을 알았고 멀리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미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학문에 힘쓰면서 도움을 구한다는 뜻을 보니 매우 착하고 착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틀에만 의지해 평상적인 공부만 해서는 안 되니, 그대는 저 구천(句踐)이 회계(會稽)에 갇들어 있던 때를 듣지 못했는가요?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겨울에 얼음 깨고 여름에 불을 때면서 자신은 몸소 경작하고 부인은 스스로 길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취교훈(生聚敎訓)³⁷⁶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끝내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또 전단이 즉묵(卽墨)에 있던 때를 듣지 못했는가요? 자신은 판삽(版鍤)³⁷⁷을 지고 사졸들과 함께 고생하였고 처첩들은 군대 행렬에 편입시켜서 죽을 마음만 있었지 살아가는 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또한 연(燕)나라를 이기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세가 월(越)나라, 제(齊)나라의 고약(孤弱)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깥 유혹의 침범과 옛 습속의 이기기 어려움이 오나라, 연나라의 강적보다 더욱 심합니다. 그런대도 죽을힘을 다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으니… (이하 빠짐)

376 생취교훈(生聚敎訓) : 《춘추좌전》〈애공(哀公) 원년(元年)〉조에 월(越)나라가 “10년 동안 인구를 늘리고 물자를 비축하며, 10년 동안 백성을 잘 가르치면(十年生聚 而十年敎訓)” 끝내 부국강병을 도모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음을 ‘생취교훈(生聚敎訓)’이라 한다.

377 판삽(版鍤) : 판(版)은 흙을 양쪽에서 끼고 쌓는 데 쓰는 판대기. 삽(鍤)은 흙을 파는 데 쓰는 가래 따위로 모두 담이나 성을 쌓는 데 쓰는 도구이다.

答孫昌午 戊寅

奉書審安，既慰懸戀。又以見勉學求助之意，甚善甚善。然定如此依樣子，作平常工夫不得，子不聞夫句踐之棲會稽乎？臥薪嘗膽，冬冰夏火，身自耕作，夫人自織。生聚教訓，以致富強，卒能滅吳，而報仇。又不聞田單之在即墨乎？身操版鍤，與士卒同苦，妻妾編於行伍，有死之心，無生之樂。是以亦能克燕而復國。今也資質不逮越齊之孤弱也，外誘之侵軼舊習之難，克甚於吳燕之強敵。乃欲以下盡死之力不切… (以下缺)

조카 김상현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金姪庠鉉 丁巳

이별 후 줄곧 소식이 막혀서 내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정성(定省)의 여가에 날마다 경적(經籍)을 가까이하며 이른바 도(道)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릇 도에는 성인의 도가 있고 이단의 도가 있습니다. 그 행실이 인륜에 힘을 다하고 그 지식은 사리에 마음을 다하여 덕을 떼땀이 하고 천명에 부응하여 복록이 절로 이르고 은미한 기미를 알아서 재앙이 절로 멀어지게 하며 평탄하고 곧아서 실족(失足)과 복철(覆轍) 실패한 자취의 근심이 없는 것이 곧 성인의 도이고 내가 말하는 도입니다. 은미하고 괴이한 것을 찾아서 좋아하며 현묘(玄妙)한 것을 탐색하여 지혜로 삼고, 술수를 써서 요행을 바라며 귀신을 말하고 거짓을 구사하여 울통불통 유심(幽深)하여 구덩이와 함정에 추락하는 환란이 있는 것이 곧 이단의 도로 내가 말하는 도가 아닙니다. 이제 천하에 유술(儒術)이 어두워지고 잡교가 횡행하여 그 음벽(淫僻)함으로 윤리를 진

멸시키는 가르침이 금수의 지역에서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하여 천하의 풍속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혹은 스스로 하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종교라 일컬기도 하지만 그 자취를 논해보면 형체를 훼손하고 세력에 붙어서 복록과 요행만을 구하는 것이고, 혹은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불사르며 스스로 눈이 열려서 도를 보았다고 하지만 그 귀결점을 궁구해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을 무혹시키고 재물만을 편취(騙取) 속여서 빼앗음)합니다. 이들은 단지 사람을 미혹시키는 기괴한 자들로 이단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믿어서 도라고 여긴다면 어찌 구덩이와 함정에 빠지는 환란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그 몸을 보존하고 제사를 지키는 것조차도 거의 요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길 “이제 이교의 무리들이 모두 득의양양하니 감히 누구도 어찌지 못한다. 유자(儒者)들은 오히려 머리를 움츠리고 숨을 죽여 사망할 날이 거의 멀지않게 되었다. 시세를 헤아려보건대 장차 누가 화를 당하고 누가 복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정말 무식한 논쟁입니다. 군자가 화복을 논하는 것은 한때의 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세의 영구함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현의 학문을 높이고 정도를 지켜서 화를 얻는다면, 이는 비록 일시적인 만남일 뿐이고 윤리 강상이 나에게 의지해 세워지는 것이니 위대하고 열렬한 공적이 무궁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는 곧 백세의 복입니다. 이교를 믿고 사술을 행하여 복을 얻게 된다면, 그 복을 비록 한때에 만날지라도 세교가 나로 말미암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니 그 더러운 명성이 미래에 흐르게 되어 백세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대장부가 천지간에 태어나 백년이 바람에 날리는 꽃과 같아서 이 몸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통곡할만한데도 다행히 총명한 이목을 가지고 순수한 성품과 영명한 마음을 부여받았으니, 이 몸을 정도(正道)에 의지해 명성이 먼 훗날에 전해지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또 어느 정도의 환희이겠습니까? 만약 일찍 취사를 결정하여 정도(正道)를 보위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대업을 세우지 못한다면 일생을 참으로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正道)와 이단(異端)은 천길 백길이 눈앞에서 교차하는지라 연소한 초학자가 쉽게 분별하여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환란입니다. 그대는 자질이 아름답고 성정이 고요하며, 뜻이 견고하고 재주가 민첩하니 가히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소견이 너무 단정하고 뚜렷하지 못해 혹 세상 추이에 어두울까 두려워 그 때문에 우려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병이 들기 전에 약을 주는 것이니 부디 뜻을 더하여 세세히 살피도록 하십시오.

與金姪庠鉉 丁巳

別後一向阻信，余心於邑。未知定省之暇，日親經籍以求所謂道者否。夫道有聖人之道，異端之道。其行也盡力乎人倫，其知也究心乎事理，經德配命，福祿自臻，識微見幾，禍辱自遠，坦易自直，無失足覆轍之虞者，是聖人之道。而吾所謂道也。索隱好怪以爲行，窮玄探妙以爲知，任數用術，希覬僥倖，談鬼說神，騁逞邪詐，崎嶇幽深，有墮坑落窞之患者，是異端之道。而非吾所謂道也。今天下儒術晦盲，雜教恣縱，其淫僻殄倫之教，出自禽獸之域者尙矣。乃有作俑於我人而思以易天下者：或自謂敬天修教之宗教，而論其迹，則毀形附勢以邀福幸，或誦呪焚符，自謂開眼見道，而究其歸，則誣惑蚩氓，騙取財帛，是直鬼怪之述人。不啻異端之亂真也，以若所爲，信以爲道，則豈惟坑窞之患而已？其得保軀而守祀者，殆亦幸矣。或者謂今異教

輩, 皆得意掉臂, 莫敢誰何。儒者則縮首屏息, 死亡無日。料時度勢, 將誰禍誰福? 此無識之論也。君子之論禍福, 不以一時之暫, 而定於百世之久。尊聖學守正道而得禍, 禍雖遭於一時, 倫綱賴我而立, 偉烈傳之無窮, 是百世之福也。信異教行邪術而獲福, 福雖值於一時, 世教由我而敗, 穢聲流諸來許, 是百世之禍也。此又不可不知也。噫! 男子生天地間, 百年若鷗花, 此身不再來。便可一痛哭, 而幸以聰明之耳目, 賦純粹之性, 靈明之心, 其於依此身於正道, 傳諸悠遠, 易以爲力, 此又何等歡喜? 若不早快於取舍, 而建衛正闢奧之大業, 則真是枉度一生。然正道異端, 千塗百轍, 交差眼前, 年少初學, 美易辨破, 此則通患。汝質美而性靜, 志堅而才敏, 可與共爲此事者。第恐所見未甚端的, 而或昧於趨向, 而用是爲慮。發此病前之藥, 幸加意而細繹焉。

조카 최춘열에게 보냄 계해년(1923)

與崔甥春烈 癸亥

옛말에 이르길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험험한 7척의 한갓 형체만 갖추고 오랜 백년 세월의 일생을 헛되게 보낸다면 어찌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실심지각고공부(眞實心地刻苦工夫)³⁷⁸” 이 여덟 자의 비결을 그대를 위해 읊어 주겠습니다. 모름지기 선현(先賢)의 격언

378 진실심지각고공부(眞實心地刻苦工夫) : 주희의 문인인 황간(黃幹)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에 “학문은 반드시 진실한 마음 바탕 위에서 각고의 공부를 해야만 가능하다(必有眞實心地 刻苦工夫 然後可)”라고 알려 주었다. 《송사(宋史)》 권438 〈하기전(何基傳)〉

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갖추어진 덕과 애(愛)를 인식하고 취하십시오. 또 사서육경(四書六經)³⁷⁹을 생계로 삼고, 삼대(三代, 하 은 주)의 인물을 귀의처로 삼아서 도(道)를 회자(膾炙)처럼 즐기고 연안(燕安)을 짐독(鳩毒)같이 보면서, 앞에 놓여있는 한 길을 나아가고 나아감에 흐르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점의 찌꺼기도 남기지 말아서 온전히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與崔甥春烈 癸亥

古語云人不學不知道，此言人不知道人不爲人。軒軒七尺，徒爾具形，鼎鼎百年，枉過一生，豈不惕念？眞實心地刻苦工夫八字訣，爲汝誦之。須記取前修格言，認取此心德愛。四子六經作家計，三代上人爲依歸，嗜道義作膾炙，視宴安如酖毒，進進一路在前，冉冉光陰可惜。一點莫留渣滓，十分成就好人。

조카 박진호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朴甥珍浩 乙亥

보내온 편지에서 “검과 창을 지닌 자는 호랑이가 오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총포를 안고 있는 자는 도적이 오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금옥(金玉)을 쌓아놓은 자는 흉년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절(氣節, 기개와 절개)을 지닌 자가 유독 세상의 환란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정확한 논변입니다. 우리 온재(韞哉)³⁸⁰의 최근 소견이 이와 같이 매우 고명한데 이르렀음을

379 사서육경(四書六經) : 원문에는 ‘書’자 대신 ‘字’로 되어있는데, 오자로 보아 書로 번역하였다

380 온재(韞哉) : 박진호(朴珍浩) 이름의 ‘진(珍)’자로 인해 그의 字로 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릇 검포금옥(劔砲金玉)은 모름지기 스스로 구하여 모으고 스스로 지니고 쌓아서 타인이 대신 구하고 대신 지닐 이치가 없는 것인데, 기절만 유독 스스로 양성하여 스스로 지니지 않고 타인에게 의지하여 구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높고 졸렬한 나에게 의지하여 가르침을 베풀어주길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맹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논하면서 “의(義)를 모아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의를 모으는 방법을 논하면서 “반드시 일을 두어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 잊지 말며 조장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절(氣節)은 즉 호연지기입니다. 만약 기절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맹자의 이 교훈을 버리고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이 교훈을 주석한 뜻은 그대도 일찍이 송독하고 완색(玩索)한 것이니 내가 모름지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연소한 자들의 공통된 병폐를 논하자면 거의 모두 그것을 잊고 일삼음을 두지 않는데 있으니 어찌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 또한 요즘 연소자들 중 한사람이니 그러한 병폐가 없다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인을 행함이나로 말미암지 남으로 말미암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일 모름지기 스스로 일을 두어서 스스로 잊지 말며, 스스로 의를 모아서 스스로 기절(氣節)을 양성하기에 이르러야지, 털끝만큼이라도 남에게서 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불꽃처럼 범할 수 없는 뜻으로 한줌의 흙을 쌓아 높은 산을 완성하는 공을 이룬 연후에 가히 양성을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아니면 결단코 성취할 수 있는 이치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호연한 기절(氣節)이 아니라 곧 자질(資質)의 작용으로 간혹 일시에 습취(襲取)된 것이니, 어찌 오래도록 꺾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또 마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정한다.

答朴甥珍浩 乙亥

來喻謂持劔戈者，不患虎至，抱銃砲者，不患盜來，積金玉者，不患歲凶。然則有氣節者，獨患世亂乎？比誠確論。不謂吾韞哉近日所見，懇至高明有如是矣。夫劔砲金玉，須自求聚自持積，無他人替求替持之理？則氣節獨有不自養成自有之，而仰求他人之理哉？而乃依之於老拙，而冀其有賜者何哉？孟子論浩然之氣曰，是集義所生者，又論集義之方曰：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氣節者即浩氣也。如欲養成氣節，舍孟子此訓而奚求哉？此訓之註釋義意，汝所嘗誦讀而玩索者，吾不須說。但論近日年少通病，則舉皆是忘之而至於不有事者，其何能有成哉？汝亦近日年少中一人，安保其無此病也？孔子曰爲仁由己而由人乎哉？今須自有事，自勿忘，自集義以至於自養成氣節，雖欲一毫借人分力，正不可得也。要之以烈火不可犯之志，下拳土積成高之功，然後乃可言養成，非此決無有成之理。藉曰有之，非浩氣之氣節，乃資質之作用，或一時之襲取者，安得久而不挫乎？此又所當辨者也。

후창집 제12권

재종조부께 올림 병인년(1926)

上再從祖 丙寅

삼가 듣건대, 융희 황제(隆熙皇帝)³⁸¹께서 14일 창덕궁에서 승하하시니 모든 천하 신민들의 망극지통(罔極之痛)이 평상시 국상에 비해 몇 곱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로 삼종제 혼례를 내일 그대로 치른다고 하던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종을 틈탄 혼사는 나라에 정법(正法)이 있거늘 하물며 막중한 국상에 성복(成服 처음 상복을 입는 것)도 하기 전이지 않습니다. 이는 선왕(先王), 선성(先聖), 선조(先祖)에 죄를 얻고, 또 온 나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이 세상에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소소한 눈앞의 불편으로 만고의 대방(大防 예의)을 범하겠습니까. 천천히 졸곡(卒哭)이 끝나고 나서 행하심이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나라의 백성 된 의리상 비록 상민이나 천민이라도 오히려 예법을 범하여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우리 집안은 수 백 년 동안 전해온 사대부 집안이 아닙니까. 부디 잘 살피시어 속히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上再從祖 丙寅

伏聞隆熙皇帝以十四日，昇遐于昌德宮，凡在普率，痛隕罔極，倍蓰

381 융희 황제(隆熙皇帝) :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純宗)이다. 1926년 음 3월 14일(양 4월 25일) 오전 6시 15분 창덕궁 대조전에서 5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平時國恤也。俄聞三從弟婚禮，欲以明日仍行云，果然否？若然則乘喪嫁娶，國有正法，況莫重大喪成服前乎！此爲得罪於先王先聖先祖，又見唾罵於舉國人士，難以立於人世矣。豈可以小小目下不便，犯萬古之大防乎？徐俟卒哭後行之，十分丕宜。國民之義，雖在常賤，猶不當冒禮犯法，況吾家數百年士大夫古族乎！伏乞澄鑑而亟罷焉。

하수 족속 낙구에게 올림 을해년(1935)

上河叟族叔 洛龜 乙亥

일전에 말씀하신 초하루 제사를 올리는 축사에 ‘삭일(朔日)’ 하나만 쓸 것이냐, 거듭 ‘일일(一日)’을 쓸 것이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송자대전》을 고찰해보니, 〈윤집사를 제사 지내는 글〉에 이르기를 “유 송정세차기유팔월삭일신유(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³⁸²라고 하였습니다. 고염무(顧炎武)³⁸³의 《일지록(日知錄)》에 이르기를 “한나라 문장에는 삭일에 나아가서 반드시 일일(一日)을 거듭 쓴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한태수심자거면죽강언비(廣漢太守沈子琚綿竹江堰碑)〉에는 “희평오년오월신유삭일일신유(熹平五年五月辛酉朔一日辛酉)”라고 하였고, 〈수민교위웅군비(綏民校尉熊君碑)〉에 이르기를 “건안십일년십일월병인삭일일병인(建安十一年十一月丙寅朔一日丙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번다하기만 하고 무용하니 후인의 간소함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문

382 유 송정세차기유팔월삭일신유(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 : 《송자대전(宋子大全)》에는 “유 송정세차기유팔월신유삭일(維崇禎歲次己酉八月辛酉朔日)”로 되어있다. 《宋子大全 卷153 祭尹吉甫文》

383 고염무(顧炎武) : 청국 초기의 학자로 청조 학풍(淸朝學風)의 시조(始祖). 《일지록(日知錄)》·《구고록(求古錄)》 등 많은 저서를 남겼음.

중에서 10월 1일 지내는 문정공(文貞公)³⁸⁴ 묘제 축식(祝式)은 《송자대전》과 고염무의 《일지록》에 근거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上河叟族叔 洛龜 乙亥

前者所謂朔日行祭祀辭，單書朔日重書一日之疑，考得《宋子大全·祭尹執義文》云：“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顧氏《日知錄》云：“漢人之文，有即朔之日而必重書一日者”。《廣漢太守沈子琚綿竹江堰碑》云：“熹平五年五月辛酉朔一日辛酉”，《綏民校尉熊君碑》云：“建安廿一年十一月丙寅朔一日丙寅”，此則繁而無用，未若後人之簡矣。然則從茲以後，吾門中十月一日文貞公墓祭祀式，可準宋書顧錄而定之矣。

송고 족형 익술에게 보냄 기미년(1919)

與松皐族兄 翊述 己未

근세 상례의 기강이 무너져 맛있는 음식, 비단 옷, 여인, 음악³⁸⁵

384 문정공(文貞公) : 金坵(1211~1278). 본관은 부령(扶寧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초명은 김백일(金百鎰),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포(止浦)이다. 원나라에 갔을 때 『북정록(北征錄)』을 남겼고, 충렬왕의 『용루집(龍樓集)』에도 김구의 시가 들어 있으며, 특히 변려문에 뛰어났다고 한다. 저서로는 『지포집(止浦集)』이 있다.

385 맛있는 …… 음악 : 《논어(論語)》〈양화(陽貨)〉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중(喪中)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네 마음에 편안하냐?’ 재아(宰我)가 대답하였다. ‘편안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리 하라. 군자(君子)가 거상(居喪)할 때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네가 편안하거든 그리 하라.’ [子曰：“食夫稻，衣夫錦，於女，安乎？”曰：“安。” “女，安則爲之。夫君子之居喪，食旨不甘，聞樂不樂，居處不安。故不爲也，

을 편안히 누리기를 평상시처럼 하니, 곧 이름하여 ‘망친(忘親)’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가 도도히 한 길로만 가고 있으니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 족형께서 애통한 상을 당하여 슬픔에 겨운 상황에서 서도 전례(典禮)를 따르시니 어찌 닭 무리 속 한 마리 봉황이요, 수많은 잡초 속 외로운 방초(芳草)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평소 술과 고기로 길들여진 위장이 갑자기 술을 끊고 소식(素食)³⁸⁶만 하신 지 열 달이 되어, 위장이 상하고 몸에 윤기가 없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차마 권도(權道)를 따르지 않으니, 이것이 곧 이름하여 ‘망신(忘身)’이라는 겁니다. 망친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고 망신 또한 그 어버이에게 받은 몸을 상하게 하니 또한 효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비록 이·욕(理欲)이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장(藏)과 곡(穀)이 둘 다 양을 잃은 경우와 매한가지니³⁸⁷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무릇 오늘날 예를 지키는 것은 빈부와 귀천이 각각 그 분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수를 어기면 위태롭고, 위태로우면 잘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종신토록 명아주와 콩일도 충분치 않는데 어찌 소식(素食)을 하여 병을 만들겠습니까. 이에 고깃국으로 입맛을 돋우는 것은 부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천한 사람은 평생 걸어 다니는 것도 달게 여

今女安則爲之。]”라고 하였다.

386 소식(素食) : 죽음을 애통해 하여 밥을 먹을 적에 고기반찬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이른다.

387 장(臧)과 …… 매한가지니 : 장곡망양(臧穀忘羊)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자(莊子)》〈변무(駢拇)〉에 나오는 고사로, 장(臧)과 곡(穀) 두 사람이 양을 치다가 두 사람 모두 양을 잃었다. 장은 책을 읽었고, 곡은 쌍륙(雙六)을 치며 놀았다. 두 사람이 한 일은 다르지만 양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는데 어떻게 탈 것의 좋고 나쁨을 따지겠습니까. 이에 장식 없는 말과 베 안장³⁸⁸은 귀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만약 부귀한 자가 베 안장으로 된 말과 고깃국으로 입맛을 돋게 하는 것마저 다 버리고, 빈천한 자의 거상(居喪)을 역지로 흉내 내려고 한다면 그 분수를 어기고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나면 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비록 일찍이 형님이 어질고 효성스런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실로 이렇게까지 예를 고집할 줄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찌 말세의 보기 드문 일일뿐이겠습니까. 또한 가문의 광영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여 어느 날인들 잊었겠습니까. 오직 사랑과 공경이 깊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감히 권도(權道)를 따르라는 말로 그 지키는 것을 어지럽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 일의 기미가 한 번 변하고, 일의 조짐³⁸⁹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원칙을 지키는 것만 지나치게 고집하고 변통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진실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상을 잘 마칠 방책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27개월의 상기(喪期) 중 삼분의 이가 남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이 멀기에 길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잘 살피는 것을 어찌 허투루 하겠습니까. 부디 생각을 확 바꾸어 때때로 약물과 포혜(脯醢 포와 젓갈)를 드시어 위태로운 몸을

388 장식 …… 안장 : 상중(喪中)에 출입하게 되면 갖추어야 하는 차림새를 말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 권4 〈상례(喪禮)〉에 “만약 상사(喪事)나 부득이한 일로 출입하게 되면, 장식 없는 말을 타고 베 안장을 하거나 소교(素轎)를 타고 베 주렴을 한다.[若以喪事及不得已而出入, 則乘樸馬布鞍, 素轎布簾.]”라고 하였다.

389 일의 조짐 : 미세한 조짐을 보고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안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곤괘(坤卦) 초육(初六)에 “서리를 밟게 되면 두꺼운 얼음이 곧 얼게 된다.[履霜堅冰至]”는 말이 나온다.

부지할 계책으로 삼길 바랍니다. 형님의 밝은 견해로 비춰보면 어찌 몸소 몸을 상하게 했다³⁹⁰는 비난을 받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다만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의 미혹은 때로는 옆 사람의 맑은 의견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與松臯族兄 翊述 己未

近世喪紀蕩然，彼旨錦姬樂安享如常者，是則命曰“忘親”。滔滔一轍，孰能遏之？乃於此時，吾兄丈斬然苦經，懺懺孜孜，典禮之是遵，豈不是群鷄一鳳，衆蕪孤芳？但素以酒豢腸胃，絕飲行素迨此十朔以致土敗水枯，懍懍以危，而猶不忍從權，是則命曰“忘身”。忘親者，固不足言，忘身者，傷其親遺，亦非孝也。二者雖理欲之天淵，其爲藏穀亡羊均也，可不戒哉！故澤述以爲凡今守禮，貧富貴賤，各隨其分。違分則殆，殆則鮮終矣。貧者終身藜藿不充，安因食素成疾？是知肉汁助味爲富人設。賤者一生徒步是甘，奚論所乘美惡，是知樸馬布鞍爲貴人設。如貴富者，并與樸馬助味而舍之，欲效嘖於貧賤者之居憂，則是違其分而病厥躬，躬之既病。如禮則何。澤述雖曾知兄丈是賢孝人，實不圖執禮之若是也。豈徒叔世之希覲？抑亦一門之光輝。心乎愛敬，何日忘之？惟其愛敬也深，故前此未敢以從權之說，亂其所守也。而今以後，則事機一變，履霜已著。然且守經太執，不思變通，則誠恐一朝疾作，克終沒策。二十七月，三分餘二。往者既過，來頭更遠，長慮却顧，豈其虛徐？幸乞幡然改圖，時進藥餌脯鹽，用圖持危扶顛之計也。明見所照，豈至身犯傷生之譏？但當局之迷，或不如旁清。故爲此多囑。

390 몸을 …… 했다 : 《예기(禮記)》〈상복사제(喪服四制)〉에 “상중(喪中)에 슬픔으로 몸을 손상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니, 이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해치지 않는 기 위해서이다.[毀不滅性, 不以死傷生也.]” 하였다.

수동의 여러 종친에게 보냄 신미년(1931)

與壽洞僉宗座 辛未

만휴당(晩休堂) 공은 순일한 효와 곧은 충절, 명철한 식견과 바른 도리를 가진 분으로 귀 파의 현달한 조상일 뿐 아니라 진실로 우리 김씨 문중의 이름난 명현입니다. 그런데도 그 실기(實紀)가 아직 간행 배포되지 않았으니 어찌 유감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손(本孫)의 근심과 회한은 표현할 길이 없겠으나, 그 방손(傍孫)에게도 또한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라건대, 재실 수리비용을 나누어 간행비로 삼아 오래도록 전해질 방도를 속히 모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설사 재실 일은 완전하게 다 못하더라도 이 일의 성취에 견주면 그 경중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뜻밖의 변고로 끝내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우선 만수(萬壽) 문중에서 간역을 주도한다면 귀문중의 모든 파와 대종(大宗)의 각 종파가 어찌 도와서 이를 길이 없겠습니까?

與壽洞僉宗座 辛未

晩休堂公，純孝貞忠，哲識直道，不惟貴派之顯祖，寔爲吾金之名賢。而其實紀尙未刊布，豈非欠事？本孫之憂恨，想無容喩，而其在旁裔，亦切悶悶。惟願就修齋用中，分作刊費，亟圖壽傳如何？設未盡善於齋役，視此事之成，其輕重何如？如其不然，不虞之變，終至遺泯可慮。先自萬壽門中倡設刊役，則貴全派與大宗各派，豈無贊成之道乎？

족형 사일 형술에게 보냄 계미년(1943)

與族兄士一 垞述 癸未

어제 환철(煥喆)이 광주 윤씨와 함께 와서 윤씨 부친의 행장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행장이란 게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아 한 터럭이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초상을 그리기도 어려운 일이라 비록 여러 날 직접 대면해도 오히려 닳지 않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처음부터 얼굴도 모르니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일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마다하니, 윤씨가 말하길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하였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 일은 스스로 정해진 분수가 있어서 권세가나 부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행하는 것과, 의사나 지관(地官)이 성의를 보고 행해주는 것과도 다릅니다. 다시 와서 요구해봤자 끝내 무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환철이를 불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못 오게 일러, 피차 번거롭고 성가신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매우 아껴주는 것입니다. 깊이 믿고 믿겠습니다.

與族兄士一 垞述 癸未

昨日煥喆同光州尹氏來，介尹父狀文。此文若寫眞，然一髮不似，便是別人。寫眞之難，雖累日親臨，猶恐不肖，況初不識面乎！今日之事，何以異此。以此說與而辭之，則尹謂“他日再來。”吾又爲言“此事自有定分，非如權家富人之施恩而爲之，醫生地師之觀誠而爲之。雖再來究，無益。”云矣。幸招煥喆，喻以俾其人勿再來，無至彼此煩擾之地。是爲愛我之深。深恃深恃。

족제 명익 병재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族弟明益 柄梓 戊辰

일전에 보내신 기문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커서 불초한 제가 감당할 게 아니었습니다. 후생으로서 창주(滄洲)³⁹¹를 배우는 것은 바로 선사(先師)께서 편역을 명명한 본뜻을 얻은 것이니,³⁹² 비록 매우 두려웠지만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사자(後死者)³⁹³로 사문의 책무를 맡긴 데 이르렀고, 또 “오(吳)·강(姜)³⁹⁴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 말이 내력이 있긴 하지만 그 빚대어 논의한 것이 조리를 잃었으니, “한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³⁹⁵는 게 곧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이 때문에 받은 기문을 감히 벽에 걸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오·강의 화로 거의 사문이 남아나질 않게 되었다.”는 당신의 의견은 옳습니다.

391 창주(滄洲) : 주자를 말한다. 주희가 무이산(武夷山)에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짓고 강학하였다. 송나라 이종(理宗)이 고정서원(考亭書院)이라는 편역을 하사하였다. 자신의 호인 후창(後滄)에 대한 설명이다.

392 선사께서 …… 것이니 : 김택술의 『연보』에 따르면 1903년 20세에 스승 간재 전우가 “後滄居士 滄東處士”의 8글자를 써서 사호(賜號)하였다.

393 후사자(後死者) : 공자가 광(匡) 땅에서 위협을 받을 때 도통을 자임하여 “하늘이 장차 사문을 없애려 하신다면 후사자가 사문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하늘이 사문을 없애지 않으시니 광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하였다. 《論語 子罕》

394 오(吳)·강(姜) : 오진영(吳震泳)과 강신윤(姜信倫)을 말한다. 둘 다 전우(田愚)의 제자로 『간재집』 진주본(晉州本) 간행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395 한마디 …… 된다 : 《논어》〈자장〉에 “군자는 한 마디 말로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되기도 하므로 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라고 하였다.

지난번 당신 마을 제군들이 《당화역(唐晝易)》³⁹⁶을 취하여 제 운명을 보았는데 “사십에 음인(陰人)에게 화를 당한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곧 인생의 화복은 저절로 하늘이 정함이 있습니다. 또 이로써 저들이 음인이라는 것이 지명(地名)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먼저 천문(天文)에 갖추어져 있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개 그 호종(怙終)의 악³⁹⁷을 어찌 다만 광(匡) 땅 사람이 우연히 범한 잘못³⁹⁸에 견주어 논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품 고하를 보고서 그 화심(禍心)을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答族弟明益 柄梓 戊辰

前惠記文，拜領多感。而屬望太重，有非無似者所堪。後生而學滄洲，正得先師命額本意，雖甚兢兢，而不敢終讓。至於責之以後死者斯文之任，而謂“吳、姜之無奈何。”，則語有來歷，擬議失倫，“一言不知。”，其謂此歟！所以來記不敢揭壁，但“吳、姜之禍，幾乎斯文無遺。”，則高見是矣。向者貴里諸君，取唐晝易觀賤命，有“四十被陰人禍”之文。乃人生禍福，自有天定。又以信彼爲陰人，非惟著之地名，亦先具於天文也。蓋其怙終之惡，豈但比論於匡人偶誤之犯而已哉？此又不可視所被者之人品高下，而輕重其禍心也。未知如何？

396 당화역(唐晝易) : 당나라 사람이 그림을 그려 역을 풀이한 책.

397 호종(怙終) : 배경을 믿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말한다. 호종적형(怙終賊刑)의 줄임 말로, 《서경》〈순전(舜典)〉에 “무의식적인 실수나 불운해서 지은 죄는 용서하여 풀어 주었지만, 믿는 데가 있어서 끝끝내 범하는 죄인은 사형에 처하였다.[眚災肆赦, 怙終賊刑。]”라는 말이 나온다.

398 광(匡) 땅 …… 잘못 : 노(魯) 나라 양호(陽虎)가 광(匡) 땅 사람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공자(孔子)가 그곳을 지나자 광인(匡人)은 공자의 얼굴이 양호와 같다 하여 무기를 들고 5일 동안을 포위하니, 공자가 “하늘이 사문(斯文)을 아주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광인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였다.

족제 명익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弟明益 癸酉

제 동생이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종종에서 대동보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현좌(賢座)³⁹⁹ 또한 같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현좌가 나에게 가부를 묻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제 무슨 견해가 현좌보다 높아 가부를 물을 게 있겠습니까. 또 여러 어른들이 미리 정해놓은 계획이 있는데 비록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한들 어찌 감히 제가 망령되이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대동보에 관한 논의는 문중을 위하는 일이므로 현좌와 제 동생이 지위가 낮고 견해가 일천하다고 하여, 끝내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을 겁니다. 감히 이에 진언하니 부디 살펴 주십시오.

대저 족보는 족친을 화합시키는 것이니 작게 화합하는 것보다 크게 화합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각 성씨들이 대동보를 많이 만들지만 유독 우리 김씨 문중만 없습니다. 이제 이 논의에 있어 누군들 기쁘게 듣고 즐거이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형세가 불가한 면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만드는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고들 말하는데 족보의 어려움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역사의 실책은 오직 사실과 어긋나는 데 있지만, 족보의 실책은 곧 윤리와 명분에 죄를 얻는 데 이릅니다. 이는 평안한 시대의 파보로 이야기해도 오히려 이 같은 점이 있거늘 하물며 오늘날 세상에선 어떠하겠습니까.

천지가 뒤집히고 윤리와 예법이 무너지며, 사설(邪說)이 횡행하여

399 현좌(賢座) : 서간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합하(閣下)라 하였고, 연장자에게는 헌하(軒下)라고 하였으며, 평교간에는 좌하(座下),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현좌(賢座)라고 한다.

정론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같이 세도와 인심이 강상(綱常)과 어긋나고 흩어져 사는 곳이 다수이기에 이목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단히 밝은 안목과 대단히 씩씩하고 굳센 힘이 있어서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의 다툼, 처첩의 무분별, 서족(庶族)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 남의 족보에 무릅쓰고 들러붙는 미혹과 패륜, 관첩(官帖)의 진위, 행적(行蹟)의 허실을 거울로 비추고 죄를 끝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실로 믿지 못하겠고, 만약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죄를 어찌 면하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세상은 각 성씨마다 모두 그렇게 하는데 어찌 우리만 유독 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여러 종종과 현좌에게 바라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김문(金門)의 대대로 전할 족보법의 엄정함을 헤아려보면 제종(諸宗)과 현좌 또한 결단코 이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와 형세를 헤아려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가 있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비록 농기구가 있더라도 시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한 법인데, 어찌하여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세상이 변한 이후로 모든 일에 있어 시대의 구애를 받는 것은 일체 제쳐두었다가 언젠가 결말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실로 우리 마음속 자연스런 본연일 테고, 또한 입으로 평소 익숙하게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동보는 400년 동안 만들지 못하였지만 우리 김문(金門)에 허물이 되지 않았고, 족친이 화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부득이 하다고 보고 급급하며 그만두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현좌가 다시 생각해보고 말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현좌의 백부님과 춘부장 어른, 두 숙부님께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번거롭게 돌려서 구설에 오르면 안 될 겁니다. 꼭 진히 생각해 주십시오.

答族弟明益 癸酉

家弟來言，近自宗中發大同譜議，賢座亦與同情。既而又傳賢座轉質可否於鄙人之意。鄙人有何見高於賢座而可質可否？且諸長老定算有在，縱些有見，安敢自下妄議？雖然在譜議爲宗事，在賢座若親弟，終有不可以位下見淺而噤嘿者。敢茲布悉，幸有以察焉。夫譜所以合族，小合孰與大合。是以我東各姓，多譜大同，而獨吾金無焉。今於此議，孰不喜聞而樂成？但時非其時，勢有不可。作史之難，古今云然，而譜之難爲尤焉。史之失，惟在於事實差爽；譜之失，乃至得罪於倫理名分。此以平世派譜言之，尚有若此者。而況今之世何如也！天翻地覆，綱淪法斁，邪說熾而正論熄者久矣。以若今日世道人心之乖常，散處多數，耳目意念之不及，何許大明眼大壯力，有能照鏡截鐵於宗支之常爭、妻妾之無分、庶族之濫想、冒附之迷悖、官帖之眞贗、行蹟之虛實者乎？如曰“能之。”，吾實不信。如曰“不能。”，厥罪奚免。如曰：“今之世，各姓皆然，而我獨何罪？”，非惟非所望於諸宗與賢座，揆以吾金世傳譜法之嚴正，諸宗與賢座，亦斷不至此也。此所以云量時度勢而不可焉者。雖有智慧，不如乘勢；雖有鎡器，不如待時，盍少俟之？且自世變以後，凡事涉時拘者，一切遷就以待究竟出場，實吾人心中自然之天，亦口頭平日之熟講。胡爲於此大譜四百年未遑，而不失爲吾金，無傷於合族者，視以爲不得已，而汲汲然不置也，竊所未曉。惟賢座再思而見教。因將此書，獻覽于尊伯父春府兩叔主，如何？他眼不宜轉煩以致多口。想在曲念。

족제 명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弟明益 辛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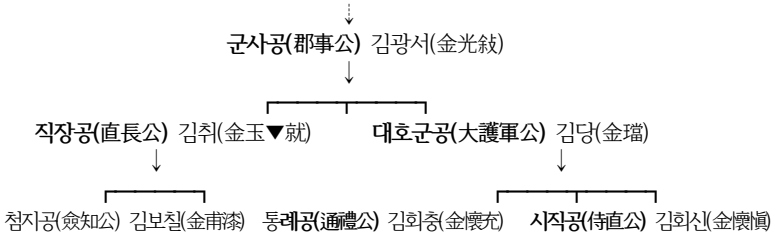
지난번 성재(星齋)⁴⁰⁰의 인일(人日)⁴⁰¹ 종회에서 제가 의견을 내어

말하기를 “석동(席洞) 원재(元齋)의 종중 돈은 원래 군사공(郡事公), 대호군공(大護軍公), 직장공(直長公), 시직공(侍直公), 통례공(通禮公) 다섯 분⁴⁰²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묘소 석물 중 오직 직장공 배위(配位) 숙인(淑人) 이씨 석상(石床)만 품질이 좋지 않아 세월이 오래되어 떨어져나갔습니다. 다 같은 선조인데 좋고 나쁨이 있는 게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제를 지내며 음식을 진설할 적에도 이리 저리 옮기고 서로 바뀌도 가지런하지 않고, 행렬이 밀집되어 합해져 있으니 어찌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결코 신령을 섬기고 공경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다행히 종중의 재물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마땅히 즉시 새로 마련하여 신령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뜻

400 성재(星齋) : 취성재(聚星齋)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을 연곡리에 있는 김광서(金光敍)묘의 재실이다. 군사공(君事公) 김광서는 문정공(文貞公) 김구(金丘, 호는 止浦)의 후예로 고려 말에 고부군수를 지냈다. 취성재라는 이름은 임억령(林億齡)이 부안 김씨가 살고 있는 용정리를 찾아서 “용정에는 군자가 많은데 김문(金門)에는 덕성(德星)이 모였다.”라고 칭찬한 글의 ‘취덕성(聚德星)’에서 유래한 것이다. 1819년(순조 19)에 세워진 것이 화재로 소실되고 1826년에 중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401 인일(人日) : 1월 7일을 말한다. 1일에서 6일까지는 가축의 길흉을 점치고, 7일에는 인사(人事)를 점치며, 8일에는 곡식을 점치는 풍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점치는 날이 모두 청명하고 온화하면 1년 동안 길(吉)하고, 음습하거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흉한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荊楚歲時記》《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402 다섯 분 : 문정공(文貞公) 김구(金丘)



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2월 5일 종회에서 제관(祭官)을 나누어 정한 뒤 비용을 계획하고 석공을 불러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얼핏 들으니 통례공파 중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말하기를 “원재의 재정은 통례공파가 맡고 있습니다. 필시 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할 때 우리가 출력(出力)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장공파 사직공 두 종파는 종전부터 권리가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석상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원래 본손(本孫)의 일이니 원재에서 마련하여 지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였다더군요. 내가 이르기를 “이 말은 또 중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업신여기는 너무나 불공평한 구시대 말투입니다.”라고 하고, 다만 비루함을 비웃고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도천(道川)의 낙환(洛環) 씨가 “본파가 원재(元齋)의 기금을 전담합니다.”라는 말을 대중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곧 통례공파 다수 의견이고, 낙환 씨 입이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아 저절로 무안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제가 의견을 낼 때 아무 이견이 없었던 안(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이 이미 바르게 귀결되었으니 뒤늦게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로 인하여 일전에 당신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과도한 우려가 생기려는 의심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지요? 그렇지 않은지요?

그대는 원재(元齋)에서 석상을 바꾼다는 일을 듣고서 “이는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좋은 말이지만, 당연하다는 말만 못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그 재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 재물로

남의 일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당이 또한 약간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위에서 말한 다수(多數)와 의견과 같지만 단지 독특한 은혜를 베풀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나머지 사람은 우선 놔두고 우당도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우선 분명히 말하겠는데 석동산(席洞山)⁴⁰³은 군사공 묘지가 아닙니다. 대호군공과 직장공은 군사공의 두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커다란 산판(山坂)과 소나무와 삼나무가 자라기 좋은 땅에서 해마다 재물이 나와 군사공의 후사(後事 제사)를 받드니 어찌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재물이 넉넉히 쌓여 오늘날에 이르러 부유한 문중이라고 일컬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 산판에서 나온 재물로 누구는 허여하고 누구는 허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일 이르기를 “군사공의 묘사가 친진(親盡 제사 지내는 대수가 다 됨)하여 재실(齋室)을 따로 세우는 날, 용도(用度)가 넉넉하지 못하니 부득이 기금을 거둬 본전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 이때는 양가 자손 수의 많고 적음이나 빈부의 형세가 서로 차이가 많지 않은데 어찌 돈을 내는 데 많고 적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재의 종종 재산은 원래 대호군과 직장공 두 파의 공동 재물이니 마땅히 나누어 관장하여 고르게 써야합니다. 무릇 선조를 봉양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은 같은 선산에 있지 않아서 다섯 분의 제삿날 함께 제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가의 종종 재물이 많고 적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록 형세가 이미

403 석동산(席洞山) : 전북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부안 김씨 일가의 묘소가 있다.

불공정한데다 이제 다시 바로 직장공 부인이요, 군사공의 머느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니, 어찌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이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설에 대해 또 어찌 족히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일파(직장공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곳곳마다 모든 집안이 전몰되고, 남은 집안 또한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수는 통례공파의 삼분의 일도 안 됩니다. 많은 무리는 강하고 적은 무리는 약하기 마련입니다. 강자가 주장하면 약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세에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 그렇다고 으스대며 그 기금을 세울 때의 공을 독차지하려고만 하고 근본 이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당(藕堂)이여! 우당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는 족히 천지간의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시원하게 풀어내어 남겨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종족 간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소상히 알려 훗날 사단이 될 만일의 염려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與族弟明益 辛巳

向於星齋人日宗會，澤述發論曰：“席洞元齋宗金，原係郡事公、大護軍公、直長公、侍直公、通禮公五位有事時取用者。今五位墓石儀中，惟直長公配位淑人李氏石床，品本薄劣，歲久剝落。不惟均是祖先有厚薄之爲未安，歲祀陳饌之際，儻那互易不整，行列挨摻合并，豈復成樣？甚非事神致敬之道。現幸宗財少裕，宜卽改備以安神人之情，未知僉意何如？”則衆皆無異辭。而約以二月五日衆會，分定祭官後，計劃費用，招任石工矣。既而乍聞，通禮公派中，有人私相語曰：“元齋財政，通禮公派主張。則必是植金立本時，多出力之故，所

以直長公侍直公兩派，從前少權利者。今此改備石床，自是本孫事，不當自元齋辦出。”余謂“此又是中間許多年，恃強凌弱，大不公底舊時口氣。”，但笑其陋如不聞也者。及道川洛環氏，發“本派專擔元齋寄助”之說於衆中。則乃知有人私語者，是通禮公派多數意見，而洛環氏之口爲其所使矣。言不中理故，不見施行，自歸無顏。竟定以發論時無異辭者。事已歸正，不必追提，但因此而念及日前盛教。不免轉生過慮之疑。其然其不然。座下聞自元齋改備石床之事，不曰“此好事”乎。好事云者，雖好辭，然不若云當然之辭。當然者，以其財成其事之謂也。好事者，助以我財成人事之意也。未知藕堂亦有些什麼意思，如上所謂多數者之見，而特以施敦睦之惠，故云爾歟！餘人且舍，以藕堂而有此，甚非所望也。我且明言之，席洞山非郡事公墓地乎？大護軍公、直長公，非郡事公二子乎？以若許大山坂，松杉宜土，年年出財奉郡事公後事，豈不綽綽有餘？所以羨餘居積以至於今，稱爲富門矣。均是子也，而其父山坂餘財，或得與焉，或不得與焉云者，可成說乎？如曰：“逮郡事公親盡墓祀，營立齋舍之日，用度未給，不免收金植本。”，則是時兩家子孫衆寡之數，貧富之勢，不相上下，豈有出力多少之異乎？然則星齋宗財，元是大護軍、直長公兩派公共之物，所當分掌均用。凡於奉先，不可有偏全。但以直長子僉知公葬不同岡，未得同享於五位祀日。故宗財延及有兩家長短之異。此雖勢也己是不公，今復直於直長公配位爲郡事公子婦之事，有所云云，豈非不思之甚而害理之大者乎？至於主張之說，又何足道？鄙派則壬丁之亂，往往闔家全沒，餘存之家，又不繁衍。至于今，數不及通禮公派三分之一。衆者強，寡者弱。強者主張，弱者不能，是叔季常事，豈可以此自多，至欲認其植本之擅功，而不念夫原初之事理乎？嗟呼，藕堂！藕堂而豈有是也？然如有毫末什麼意思，則此足以減傷天地間和氣。切願廓然掃去而勿留，亦望詳諭於宗族間有是心者，俾絕後日事端萬一之慮，如何如何？

족질 상집 형돈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姪庠集 炯敦 辛巳

예전부터 서로 그리워하며 여러 해 동안 만나고 싶었던 게 단지 백대를 내려온 한 집안의 정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피차 같은 심정이라 많은 말이 필요 없겠지요. 다만 이번 일은 어찌 그리 서로 감응한 게 오묘하고 서로 어긋난 게 기이하던 말입니까. 천리 길을 한 번 가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번갈아 찾아가 끝내 만나지 못하였으니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아마도 또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때의 희롱거리로 삼았나 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망연자실하여 이 심정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미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각각 멀리 방문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나지 못한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설령 서로 만나서 온종일 함께 있어도 칠 척의 몸과 네 치의 구이(口耳)⁴⁰⁴는 남들과 같은 데 지나지 않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새롭고 기이한 것은 없어 두 사람 마음이 함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제가 당신 집으로 행차했을 때 당신 아들의 정성과 물색이 모두 극진하여 평소에 곧은 의리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집안 조카가 예로 대접한 게 없어서 가르침이 온전

404 칠 척의 …… 구이(口耳) : 마음속에 깊이 체인(體認)하지 않고 그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소인의 학문을 가리킨다. 《순자(荀子)》〈권학편(勸學篇)〉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간다. 입과 귀의 사이는 네 치밖에 안 되니, 어떻게 칠 척의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小人之學也，入乎耳，出乎口。口耳之間則四寸耳，曷足以美七尺之軀哉?!”라는 구절에서 연유하였다.

하지 못한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듣건대 지난 여행에 계룡산과 금강산을 둘러보고 돌아간다 하셨는데 과연 하늘에 잇닿은 비로봉(毗盧峯) 정상에 올라 장가(長歌)를 부르며 애통해하고, 다시 망월대(望越臺)에서 상심하며 사육신의 충혼을 위로하며, 마의태자(麻衣太子)의 능에 성묘하고, 선조의 높은 절개를 사모하며, 표연히 금강(錦江)과 동해의 바람을 씌며 가슴속에 많은 쾌활함을 느끼셨는지요?

제가 갔을 때도 선향(仙鄉) 삼동(三洞)⁴⁰⁵의 승경을 두루 돌아보고 선현의 유적을 다 방문하여 가슴가득 우울한 기분을 삭이려 하였으나, 그대를 만나지 못해 전혀 감흥이 일지 않아 겨우 화림동(花林洞)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 심진동(尋眞洞)과 원학동(猿鶴洞)⁴⁰⁶에서 안문(雁門)의 불우함⁴⁰⁷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신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겠지요. 동쪽을 아련히 바라보며 읊에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與族姪庠集 炯敦 辛巳

夙昔相慕，積年願見，非但以百世一室之誼，彼此同情，不須多言。

405 삼동(三洞) : 안의삼동(安義三洞) 즉 화림(花林), 원학(猿鶴), 심진(尋眞)을 이른다.

406 원학동(猿鶴洞) : 원문에는 “원학(園鶴)”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다. 원지명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407 안문(雁門)의 불우함 : 《한서(漢書)》 권70 <단회종전(段會宗傳)>에 의하면, 단회종은 대절(大節)을 좋아하고 공명(功名)을 자랑하는 인물로, 안문 태수(雁門太守)에서 면직되었다가 다시 서역(西域)의 도호(都護)에 제수되었는데, 부임할 때에, 그와 친하게 지내던 곡영(谷永)이 그가 늙은 나이에 변방으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증언(贈言)을 지어 이르기 “그대는 옛 제도를 따르고, 특별한 공로를 세우려 들지 말라. 마치고 다시 속히 돌아오기만 해도 안문의 불우함을 보상(補償)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여기서는 뒷날 더 좋은 만남을 기약하자는 것이다.

惟是今番之事，何其相感之妙，而相戾之奇耶！千里一行，良非易事，而互換踵門，竟失識面，有若迷藏者然。豈亦天公故將吾兩人作一時戲耶。悵焉惘焉，不知爲懷。雖然，吾輩既有所同存之心，又各盡遠訪之誠，則斯亦足矣。不見何害？使其相見而竟晷不離，不過七尺之修四寸之具，與人同者；達宵談討，亦無新奇，而不過兩心之所同存者爾。又何悵惘之有？但念塵裝之於仙庄，令子之情物俱摯，可見義方之有素。而高躅之於弊齋，家姪之禮數埋沒，甚慙教導之全未也。竊聞曩行將歷覽鷄龍金剛而歸，果能陟連天毘盧之頂，放長歌之痛，而復傷心於望越之臺，弔六臣之忠魂，拜省於麻衣之陵，慕先祖之大節，飄然溯錦江東海之風，覺胸中多少快豁否？鄙行亦欲徧觀仙鄉三洞之勝，畢訪先賢之遺跡，盡銷滿腔之鬱氣，以未遇貴座，殊沒意況，僅見花林而歸。未知彼尋真園⁴⁰⁸鶴，如得補鴈門之跼者有日。則那時可能重詣衡門也歟！東望杳然臨風於邑。

족속 경원 낙상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族叔景元 洛相 丙寅

지난번에 부풍관(扶風館)⁴⁰⁹ 상량문이 선조 화곡공(火谷公)⁴¹⁰이

408 園：원문 “園”은 ‘猿’의 오류다.

409 부풍관(扶風館)：부안(扶安) 향교(鄉校) 객사이다. 화곡공(火谷公) 김명(金銘)이 정유재란(丁酉再亂) 중에 불탄 부안 향교를 1600년(선조 33)에 중건할 때 상량문(上樑文)을 지었으며, 객사 부풍관(扶風館)의 상량문도 지었다.

410 화곡공(火谷公)：김명(金銘, 1545-1619). 자는 여신(汝新), 호는 화곡,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문정공(文貞公) 구(丘)의 후예이다. 주부(主簿) 경정(景貞)의 아들로 죽계(竹溪) 황(鎡)의 아우이며 부안에서 살았다. 저술은 2권 1책의 《화곡선생유고(火谷先生遺稿)》가 있는데, 1915년에 간행되었다. 그 서문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지었고, 발문

지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제 집안 동생이 필사해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부안(扶安) 사람들은 다만 공께서 성묘(聖廟)에 관한 문장만 지은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하니 이 글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魯) 나라 공자(孔子)의 집이 무너지자 공경(孔經)이 세상에 나온 것⁴¹¹과 같고, 범명우(范明友)의 노복(奴僕) 무덤이 발굴되자 곽광(霍光)의 일이 밝혀진 것⁴¹²과 같으니, 예와 지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받들어 백 번 읽고 나니 느낀 바가 매우 많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황이 일어나고 교룡이 승천하듯 운기(韻氣)가 죽지 않고, 신령이 아끼고 귀신이 보호하여 그 손때가 아직도 새로워 완연히 선조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아시겠지요. 선조에게 이런 귀중한 글이 있었는데도 능히 전하지 못한데다가 아울러 그 사정도 몰랐으니 그 부끄러움이 어떻겠습니까.

부안은 예로부터 문학의 연수(淵藪)로 일컬어졌습니다. 목릉성세(穆陵盛世) 때 공관(公館)과 성묘(聖廟)를 막중히 경영하여, 그 일을 송축하고 발원한 문장이 유독 공의 손에 의해 애써 이루어졌으니, 그 아름다운 문장은 고을의 으뜸이 되고 그 후손의 빛이 뒀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랑캐가 제멋대로 우리나라를 빼

은 후손인 병술(炳述)과 수철(水喆)이 지었다.

411 노(魯) 나라 …… 나온 것 : 진시황제가 유교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자, 공자의 고향 노(魯) 지역에 사는 ‘문통군(文通君)’이라는 사람이 유교 책을 과거 공자가 살았던 집 담장에 몰래 숨기고 산으로 도망쳤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370년이 지나, 노(魯) 지방정부의 공왕(恭王)이 공자가 살았던 집을 정리하다가 담장에서 유교 책을 발견하였다. 이때 발견된 책이 《논어》《효경》《상서》 등이다.

412 범명우(范明友)의 …… 밝혀진 것 : 한(漢) 나라 말기에 곽광(霍光)의 사위 범명우(范明友)의 종 무덤을 발굴하였더니, 그 종이 다시 살아나서 곽광의 집안일 및 곽광이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울 무렵에 한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한서(漢書)》의 말과 서로 맞는 점이 많았다.

앗고 이것까지 아울러 휩철하니, 공이 문장으로 국가에 송축(頌祝)을 바친 정성과 충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총괄해 보면 공사(公私)의 애통함이 지극하니 또한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문장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는 것은 후인의 책임에 맡기더라도, 우선 인쇄를 위해 유고(遺稿)를 엮는 것은 그 만들 수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與族叔景元 洛相 丙寅

頃聞扶風館六偉文，是先祖火谷公所撰，而再昨家弟鈔來，始得見之矣。扶之人，但知公聖廟之有文，而時移世變，此文又出。魯宅壞而孔經行，范塚發而霍事明，古今何殊。奉讀百回，所感萬端，不知何以爲心也。鳳起蛟騰，韻氣不死，神慳鬼護，手澤尙新，宛然如承祖顏。其喜可知。先祖有此等重大文字，非惟不能傳，并不知其事，其愧又何如？扶風古稱文學淵藪。而當穆陵晟際，莫重公館聖廟經始，頌願之文，獨賢乎公手，則想見黼黻之文，爲鄉冠冕，而足爲後裔光華矣。然讐夷得志，既奪我國并此而毀掃，使公助文公役獻頌國家之誠忠，一朝歸於烏有。總之爲公私之痛極焉，亦復何言！文之載入《輿覽》後人責，先將印出，編之遺稿，似不可已。未知如何？

족질 응봉 형일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姪應鳳 炯日 癸酉

대개 학문은 추향(趨向)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대가 이미 이단에 유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니, 대본(大本)이 서고나면 도(道)는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바라 나에게 한마디를 구합니다. 또 지금 백가(百家)가 떠들썩하게 각각 문호를 세운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컨대 각각 그들의 해로움은 쉽게 알 수 있고, 그들의 논설은 쉽게 변파(辨破)할 수 있습니다. 묵자(墨子)가 인(仁)과 유사하고, 양씨(楊氏)가 의(義)와 유사하며, 노장(老壯)과 불교가 이치에 가까워서 옳은 것 같으나 그 큰 경우와는 다르니, 그대의 현명함으로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는 마땅히 쉬울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정도(正道)와 이단(異端)의 구분은 동시대의 학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학계의 이단에 유혹되지 않기는 쉽지만 심중(心中)의 이단에 유혹되지 않기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성인의 도가 아니면서 따로 한 단서를 만드는 것은 학계의 이단이고, 본심의 덕이 아닌데도 따라서 한 단서를 일으키는 것은 심중의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곧 사사롭고 거짓된 마음이 이것입니다. 대개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합니다. 은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참됨을 보기 어렵고, 위태롭기 때문에 사사롭고 망령된 데로 빠지기 쉬우니 이것이 천고의 공통된 병폐입니다. 그대가 비록 명철하더라도 아마 초연히 홀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청컨대 이 점을 미루어 나의 한마디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는지요.

대저 스스로 믿는 것은 정조(精粗)와 심천(深淺)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은 ‘치지(致知)’가 요체가 됩니다. ‘치(致)’라는 것은 최대한 정심(精深)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 지혜를 극진히 하고서 자신을 돈독히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단은 알기 쉬운 것과 분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뉩니다. 비단

학문에 있어서 노불(老佛)·양묵(楊墨) 같이 옳은 것 같으나 그른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참된 것 같아도 실은 사사롭고 망령된 것도 있으니, 실로 이런 것이 분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저 능히 그 앎을 극진히 한다면 그 어려운 것도 족히 걱정할 것이 없고, 유혹되지 않을 것을 더욱 자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논지입니다.

대저 도(道)는 반드시 지극한 것을 주로 해야지 제이등(第二等)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⁴¹³ 그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지’ 두 글자는 마땅히 그대가 오늘날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 방법은 모두 주자가 논한 《대학혹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공부는 ‘독서(讀書)’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독서 방법도 《소학》〈가언(嘉言)〉편 끝에 있습니다. 서책도 헛되이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시대 선비 가운데 연원(淵源)이 단정하고 지행(知行)이 명확한 자를 쫓아서 의심나고 모르는 부분을 묻고 답하며, 아울러 그 마음과 입으로 전한 것까지 얻어야 비로소 조예가 정밀해지고 실천이 중정(中正)할 것입니다. 부디 그대가 여기에 뜻을 두기를 바랍니다.

答族姪應鳳 炯日 癸酉

413 도는 …… 됩니다 : 정호(程顥)가 “제일등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제이등이나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비록 인에 거하지 않고 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와는 그 차이가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다. 학문으로 말한다면 곧 도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곧 성인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莫說道將第一等，讓與別人，且做第二等。才如此說，便是自棄。雖與不能居仁由義者，差等不同，其自小一也。言學，便以道爲志：言人，便以聖爲志。]”라고 한 이야기를 가리키는데,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류(爲學類)〉에 소개되어 있다.

夫學趨向爲先，自信爲難。賢者既以不爲異端誘去自信，則是大本已立，道將自生。更何待別人指教而要賤子一言乎？且今百家喙喙各立門戶者，不可勝數。然要皆其害易知，其說易破，非如墨子疑仁，楊氏疑義，老佛近理之爲似是而非者，則以賢者之明，不爲其所誘，宜其易易。不惟賢者自信，人亦信之也。但正道異端之分，不獨在於并世學界，亦在於吾人心中。吾故曰：“不爲學界異端所誘易，不爲心中異端所誘難。”非聖人之道，而別爲一端者，爲學界異端，則非本心之德而別生一端者，非心中異端乎！卽私妄之念是已。蓋人心惟危，道心惟微。微也故因微而見公眞難，危也故自危而陷私妄易，此千古之通患。賢者雖明，恐亦未能超然獨免。則請推此而容有一言可告者乎。夫自信有精粗深淺之異。在《大學》八條，致知爲要。致者十分精深之謂。未有能致其知而不篤於自信者也。異端有易知難辨之分，不惟在學而有老佛楊墨似是而非者，在心亦有似公眞而實私妄者，是爲難辨。夫有能致其知乎 則其難者不足憂，而益信其不誘矣。此又更進一格之論也。夫道必以至者爲主，不要且做第二等。賢者之所欲言，不在此乎。然則致知二字，當爲賢者今日要務。其方具在朱子所論《大學章句或問》。然若其主功，則不出乎讀書二字。讀書之方，又具於《小學》〈嘉言〉篇末。而書又不可徒讀，必從并世儒士中，淵源端的知行明確者，講質疑晦，并與其心口所傳而得之，始乃造詣精而踐履中矣。幸賢者於此加意焉。

성재 종중에 올림 무오년(1918)

上星齋宗中 戊午

제가 일찍이 듣건대, 정부자(程夫子)가 훈계하여 말하기를 “인자

는 천지 만물로 일체를 삼는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사람이 자기 몸으로 체득하면 인(仁)이 된다.”⁴¹⁴고 하였습니다. 만물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뿌리가 같은 친족이면서 저와 나의 구분을 두는 것은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 바입니다. 일을 처리하면서 지극히 공정한 도로써 하지 않는 것은 인자가 편치 않은 바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대, 석동산(席洞山)이 우리 김씨의 선산이 된 것은 군사공(郡事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호군공(大護軍公)과 직장공(直長公) 두 분 이하 선영이 차례로 이어져있습니다. 두 분 자손이 힘을 합하고 재물을 모아 재실을 함께 세우고 제수음식을 함께 올린 지 지금까지 400백년입니다. 다만 대호군공과 직장공 외에 원재(元齋)의 제수음식은 유독 대호군공의 아들 시직공(侍直公)과 통례공(通禮公)에게만 미치고,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제까지 겨를이 없어 행하지 못한 예를 뒤늦게라도 거행하여, 제위(諸位)의 제사 의전으로 하여금 동일한 전례(典例)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원재(元齋) 가운데 통례공의 아들 세 분의 제수를 내면서 같은 항렬의 여러 종형제의 지위에 있는 시직공과 첨지공의 아들은 일찍이 묻지도 않으니, 과연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지극히 공정하고 일체(一體)로 여기는 인(仁)’이란 것이 진실로 어떤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첨존께서는 위로는 선조 당시에 제宗들이 화락

414 공정하면서 …… 된다 : 정이(程頤)가 공정함과 인(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의 도를 요약하면 하나의 ‘공’ 자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은 인의 도리인 만큼 공을 바로 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사람이 자기 몸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인이 되는 것이다.[仁之道要之，只消道一公字，公只是仁之理，不可將公便喚做仁。公而以身體之，故爲仁。]”라고 하였다.

한 정을 체인(體認)하시고, 아래로는 종족이 백세토록 돈독하고 화목한 우의를 생각하시어 시직공, 통례공, 첨지공 이하 제위의 제사의전을 통틀어 원재의 재물로 함께 합향(合享)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上星齋宗中 戊午

竊嘗聞程夫子之訓曰：“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又曰：“公而以人體之則爲仁。”萬物且猶然，況乎同根之親，而視有物我，仁者之所不爲也。處事而不以至公之道，仁者之所不安也。竊惟席洞山之爲吾金世阡，自郡事公始。而大護軍公、直長公兩位以下兆塋，秩然相繼。兩位子孫，協力鳩財，齋宇焉共建，苾芬焉同薦者，四百年于茲矣。但大護軍公、直長公之外，元齋之粢牲，獨延及於大護軍公之子侍直公、通禮公，而不及於直長公之子僉知公，此爲未善也。宜追舉未遑之禮，使諸位祀典，同出一例，可也。今則非惟不以爲然，又於元齋之中，出通禮公之子三位享需，而其在同行諸從之位，侍直公、僉知公之子，未嘗問焉，果如是已，則於所謂至公一體之仁者，誠何如也。伏願僉尊上體祖先當日諸從湛樂之情，下念宗族百世敦睦之誼，侍直公、通禮公、僉知公以下諸位祀典，統以元齋之物，共爲合享之地，千萬懇望。

성재 종중에 보냄 무인년(1938)

與星齋宗中 戊寅

제가 듣건대, 지난번 선은동유허비(仙隱洞遺墟碑)⁴¹⁵ 일로, 일이

415 선은동유허비(仙隱洞遺墟碑) : 문정공(文貞公) 김구(金丘, 1211~1278)

분란이 많아 비석의 글자를 깎아내는 번고까지 있었다하여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번고가 우리 종파 사람에게서 나왔다니 마음이 몹시 편치 않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곧 당사자가 사죄하고 또 종중에서 처벌하였다하니 그 일은 이미 잘 처리 된 것으로 압니다. 요사이 또 듣건대, 한 쪽 의론만으로 뒷면의 음기(陰記)를 갈아 없애려고 한다던데 과연 이런 말이 있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문중 일의 분란이 그칠 날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비문(碑文)의 일로 여러 종친들과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글은 칭찬과 선양이 온당함을 얻는 것이 귀하지 비단 칭호(稱號)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니, 이 글의 칭양(稱揚)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글을 받을 때 ‘선생’이라 불러주길 청하여, 받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미 새겨서 세웠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글을 사양하고 쓰지 않으려 해도, 그 글을 지은 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일이 심히 의미가 없고, 글 또한 보낼만한 데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부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조상을 폄훼하고 선사를 높인다는 배척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 조상을 폄훼하는 것은 큰 악행입니다. 천하에 어찌 조상을 폄훼하는 악행을 하고서 능히 그 선사를 높이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상을 폄훼했다고 하는 것도 원래 그 실정이 아니며, 제가 선사를 높였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종중의 조치가 마땅치 않아서 사람들의 비난을 초래하였고, 위로 선조에

의 유허비이다. 『간재집(艮齋集)』 권18에 「지포김문정공유허비음기(止浦金文貞公遺墟碑陰記)」로 실려있다. 간재가 이 비문을 지을 당시 ‘선생’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고 지은 것이 간재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누를 끼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니 실지로선 선조를 높인 일이지 선사를 높인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문장이 연재(淵齋)⁴¹⁶나 면암(勉菴)⁴¹⁷, 송사(松沙)⁴¹⁸, 약재(約齋)⁴¹⁹ 같은 제현의 손에서 나왔을지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의론을 세울 것입니다. 어찌 구구하게 저의 선사께서 지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종구나, 고인(古人)의 말이여! 그 말에 이르기를 “천하는 본래

416 연재(淵齋) :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학행(學行)으로 천거를 받아 성군관 제주(祭酒)에 기용된 뒤 대사헌에까지 올랐다. 1905년(광무9)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상소 10조를 바치며 진언하였다가, 다음날 일본 헌병대에 의해 고향 대전 회덕으로 이송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하였다. 저서로는 《무계만집(武溪漫輯)》이 있고, 문집으로 《연재집(淵齋集)》이 간행되었다.

417 면암(勉菴) :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문신이며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자는 찬겸(贊謙)이고, 호는 면암(勉菴)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1855년(철종 6)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실정(失政)을 상소하여 대원군 실각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격렬한 척사소(斥邪疏)를 올렸으며, 단발령에 반대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리고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74세의 고령으로 태인(泰仁)과 순창(淳昌)에서 의병을 이끌고 관군 및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한 후,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에 유배 생활하던 중에 유소(遺疏)를 구술(口述)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집에 《면암집(勉菴集)》이 있다.

418 송사(松沙) : 기우만(奇宇萬, 1846~1916).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이다. 참봉을 지내 기 참봉으로 불렸으며, 호남의 거유(巨儒)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로 그 학업을 이어받아 문유(文儒)로 추앙받았다.

419 약재(約齋) : 송병화(宋炳華, 1852~1916). 자는 회경(晦卿)·영중(英仲), 호는 난곡(蘭谷)·약재(約齋),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울곡(栗谷) 이이(李珣)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흠모하여, 19살 때부터는 회덕(懷德) 남쪽, 우암이 기거했던 소재동에 자주 방문하였다. 저술로 《난곡집(蘭谷集)》이 있다.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스스로 어지럽힌다.”⁴²⁰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앞면을 다시 새긴 것도 이미 옳지 않은데, 지금 또 사리를 궁구하지도, 사람들의 비난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뒷면을 갈아 없애는 것은 또한 안 될 일입니다. 어찌 모두 아무 일이 없는데 스스로 어지럽혀서 분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침존께 아뢰는 것은 전날 여러 종친들과 변론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지켜온 견해가 전후로 한결같이 이와 같아 단연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종종 일에 대한 걱정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말씀 드리니, 실정이 아닌 배척과 외부의 비방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엮드려 바라건대, 침존(僉尊)께서는 천리의 자연스런 이치를 따라서 한 쪽의 부당한 논의를 무마하시어, 크게 그릇된 일을 하여⁴²¹ 외부의 모멸을 받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與星齋宗中 戊寅

420 천하는 …… 어지럽힌다 : 당 나라 육상(陸象)이 한 말이다.

421 크게 …… 하여 : 당 소종(唐昭宗) 연간에 위박 절도사(魏博節度使) 나소위(羅紹威)가 주전충(朱全忠)과 연합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위부(魏府)의 아군(牙軍) 8천 인을 소탕하는 숙원을 풀었으나, 그 과정에서 주전충을 대접하느라 엄청난 재물을 탕진한 나머지 자신의 세력이 쇠잔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후회하여 “6주 43현의 무쇠를 모아 줄갈 하나도 주조하지 못했다.[合六州四十三縣鐵，不能爲此錯也。]”라고 말한 주성대착(鑄成大錯)의 고사가 전한다. 《資治通鑑 唐昭宗天祐3年》《北夢瑣言 卷14》 여기에서 착(錯)은 곧 옥석(玉石)을 다루는 도구인 줄갈(鑪)이라는 뜻과 함께 착오(錯誤)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나소위가 스스로 큰 착오를 빚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그래서 이 주착(鑄錯)의 고사가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라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증전도인(贈錢道人)〉 시에 이 고사를 인용하여 “당시에는 한번 뜻이 쾌했어도, 일이 지난 뒤엔 부끄러움이 남는 법. 모르겠네 몇 주의 무쇠를 모아, 이 하나의 착오를 빚어냈는지.[當時一快意，事過有餘怍，不知幾州鐵，鑄此一大錯。]”라고 표현한 말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18》

竊聞向以仙隱洞遺墟碑事，事多紛紜，至有鑿碑之變，萬萬可駭。而變出鄙派中人，心切不安，又如何哉？旋聞當人謝罪，而自宗中處罰，則知其事已得當矣。近又聞一邊議論，欲磨去後面陰記云，未知果有此說否？若爾則竊恐宗事之紛紜，無有已時也。區區前此累以碑事與諸宗辨者。有曰：“文貴稱揚得當。不徒在稱號之間。而此文之稱揚，則蔑以加矣。”，有曰：“受文時，請稱先生而得之則善矣。念不及此，既已刻立，則無辭可說矣。”，有曰：“雖欲退文不用，既不及作文家在世，則事甚無謂，文亦無可送處矣。”之類，不勝其多，而至被貶祖尊師之斥矣。嗚呼！貶祖大惡也。天下安有有貶祖之惡而能尊其師之理乎？謂我爲貶祖者，元非其情，謂我爲尊師者，亦非其實。特以恐宗中之舉措無當，致人譏議，上累祖先而然，則實亦尊祖非尊師也。假使此文出於淵齋、勉菴、松沙、約齋諸賢之手，亦當如是立論。豈區區爲鄙先師所作而然哉？善乎，古人之言！曰：“天下本無事，庸人自撓之。”向之改刻前面，已是不可，今又不究事理，不恤人譏，而爲磨去後面之尤不可者。則豈非皆無事自撓以致紛紜者乎？澤述今日爲僉尊仰告者，不過前日之與諸宗辨者。蓋所執之見，前後一直如是，斷無他意矣。宗事之憂，不能自己，有此瀝誠之言，非情之斥。外來之謗，有不可顧者。伏願僉尊循天理自在之理，鎮一邊未當之論，無至鑄大錯受外侮之地，千萬幸甚。

분재 문중에 올림 기미년(1919)

上粉齋門中 己未

지난 가을 판곡(板谷) 유허비⁴²² 일로 일의 단서를 여쭙었습니다
만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

겠습니다. 대개 이 땅은 죽계(竹溪 김굉(金鉉)) 선조께서 당시 학문에 전념하시고 명석(名碩)들이 서로 종유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누세토록 노래하고 곡하고 종족이 모이던 곳⁴²³이니, 곧 우리 김씨 일파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마을입니다. 문정공이 선학(仙鶴)⁴²⁴에 처음 거쳐하고 화곡공(火谷公)⁴²⁵이 개박(介朴)에 난을 피한 곳과 견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선인(先人)의 자취이고 똑같이 자손이 있는 곳인데 어떤 데는 빗돌이 찬란하여 사람의 이목을 통쾌하게 하고, 어떤 데는 모두 풀만 무성하여 지나는 사람의 탄식을 자아내니 진실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일은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가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 지난 자취와 옛일을 빗돌에 근거를 남겨 말하지 않는다면,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탄식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록 현명하고 효성스런 자손이 나와서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고자 해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청하건대,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서둘러 대사(大事)를 도모하십시오.

422 판곡(板谷) 유희비 : 죽계(竹溪) 김굉(金鉉)의 유희비로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이 지었다. 판곡(板谷)은 전북 부안군 보안면 부안 김씨 직장공파의 세거지이다.

423 노래하고 …… 곳 : 진(晉) 나라 헌문자(憲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이때 장로(張老)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아름답도다. 제사 때에는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사(喪事) 때에는 여기에서 곡음을 하고, 연회 때에는 여기에서 국빈(國賓)과 종족을 모아 즐길 것이로다.[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하니, 헌문자가 장로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군자들이 축사와 답사를 모두 잘했다고 칭찬한 고사가 전한다. 《禮記 檀弓下》

424 선학(仙鶴) : 선은(仙隱)의 옛 지명이다.

425 화곡공(火谷公) : 김명(金銘)이다. 직장공파 매죽공(梅竹公) 김종(金宗)의 손자로 죽계공(竹溪公) 김굉(金鉉)의 중형(仲兄)이다.

上粉齋門中 己未

昨秋, 以板谷遺墟碑事, 微稟其端, 未究其說。不審再入思議否? 蓋此地, 非惟竹溪先祖當日藏修名碩相從之所, 乃累世歌哭聚族之處, 則吾金一派桑梓故里。有非文貞公仙鶴初居, 火谷公介朴避亂之比也。同是先跡, 均有子孫之地, 或貞珉煥然快人耳目, 或鞠爲茂草行路齋咨, 是誠何以? 良可一吁。往旣勿諫, 來者可追。今若視爲無事, 不使往蹟故事, 憑諸片石之堪語, 則世經年移, 并與其指點咨嗟者而無矣。後雖有賢孝子孫者出, 欲舉今日之未遑, 奚從而施之哉! 伏乞深思永慮, 亟圖大事焉。

분재 문중에 보냄 무인년(1938)

與粉齋門中 戊寅

제가 듣건대, 우리 종파에서 족보를 만들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족보는 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짓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일족의 역사를 짓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역사의 실책은 사실에 어긋나는 데 있지만, 족보의 실책은 윤리가 어긋나는 것에 관계됩니다. 법도를 어기고 족보를 만들면 족보는 그 족보가 아니고, 그 폐해(弊害)는 역사의 실책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보법(譜法)을 행하기 어려움은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지금 같은 인심과 세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어느 시절입니까? 누

가 나라의 명(命)을 잡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괴롭게 시대의 법에 제약을 받아가면서까지 선조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백번을 생각해봐도 결국 각각 가승(家乘)을 기록하여 대동보를 만들 만한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또 일의 완급으로 말하더라도 직장공의 배위 숙인 이씨 묘 석상이 매우 열악하여 진찬(進饌)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미안함이 어떻겠습니까. 매죽당공의 묘갈은 외손인 명현 쌍백당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는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것이 유일하니 족히 우리 문파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돌이 부풀고 글자가 마모가 되어 판독이 어려우니 그 안타까움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족보 만들 재물을 가지고 매죽당공의 묘갈을 갖추고 숙인의 묘 석상 비용을 성재(星齋) 종중에 청하는 것이 아마도 현재의 온전한 처사라 생각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與粉齋門中 戊寅

竊聞自派中，有修譜之意。區區之見，以爲此非其時，不可爲也。譜者族史也。史之作固難，而族史之作，尤爲難。何也？史之失，在事實差爽，譜之失，乃關於倫理舛錯。失法而譜，則譜非其譜，而害有甚於史失故也。譜法之難行，在平世猶然，況今日之人心世態乎？故曰非其時也。且此時何時？何人執命？何苦被制時律而爲累先之事乎？故曰：“非其時也。”百爾思之，終不如各錄家乘，以待可爲之時之爲得也。且以事之緩急言之，直長公配位淑人李氏墓石床甚劣，難容陳饌。其爲未安何如？梅竹堂公墓碣，出於外孫名賢有如雙柏堂之手者，乃席洞全山之獨有，足爲吾派之生色。而石肥字泐，難以辨讀，其爲可悶又何如也。故當以修譜之財，具梅竹堂公墓碣而因請淑人墓石床費於星齋宗中，恐爲目下全務，未知僉座如何？

계제 여안 역술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季弟汝安 億述 丙辰

비가 계속 내리는 좁은 여막에서 우두커니 홀로 앉아있으니 부모님을 잃은 아픔⁴²⁶과 형제를 그리는 마음⁴²⁷으로 정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러한 때에 네 편지를 받으니 비할 데 없이 위로가 되는구나. 같은 가족끼리 잘못을 뉘우친다하니 내 마음이 슬픔에 복받치는구나. 무릇 이렇게 서로 질책하는 것은 모두 곤궁한 처지를 구제하는 계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내가 어리석고 못나 사업을 그르쳐서 너에게 걱정을 안겨주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대저 집안의 흥망은 비록 말하기를 “인사(人事)의 선악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을 궁구하면 운기(運氣)의 통색(通塞)에 관계되어 있으니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느냐. 비록 그렇지만 또 삼가 부지런히 하여 후일의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늘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하기를 바란다. 고인이 이르기를 “곤궁해도 의를 잃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곤궁해도 또 더욱 굳건히 하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가난 때문에 뜻을 버리지 말고 늘 스스로 격려하여 기량(器量)과 덕업(德業)을 이루고 가문의 명성을 잇기를 바란다.

426 부모님을 잃은 아픔 : 《시경》〈소아(小雅) 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 생각, 날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던가.[哀哀父母, 生我劬勞。]”라고 하였다.

427 형제를 그리는 마음 : 원문 영원(鵲原)은 《시경》〈소아(小雅) 상체(常棣)〉의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 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랴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랴오.[鵲在原, 兄弟急難。每有良朋, 況也永歎。]”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 옛날의 선비 된 자는 영화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의 선비 된 자는 치욕을 부른다. 옛날의 독서한 이는 천 종(鍾)의 녹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독서한 이는 종신토록 굶주린다. 우선 농사일에 부지런히 힘써서 선조를 받들고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것이 낫다. 부디 피차(彼此)가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성내지 말고 고생을 참아내며 한결같이 실천해나가, 내가 철수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길 바란다.

나 또한 장차 쟁기를 잡고 호미를 메고, 몸을 땀으로 적시고 밭에 흙을 묻히면서 옛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는 의리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복(口腹)을 채우기에만 힘쓰고 의로써 몸을 바르게 하고 예로써 집안일을 처리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이다. 짐승을 면하고 사람이 되길 구하고자 하면 또한 독서가 아니면 이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독서를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느냐! 농사에 밝은 것은 시급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독서에 힘쓰는 것은 평생의 대사임을 알겠다.

친지들이 이곳을 들러 두 분의 묘소를 보고 모두 재해가 있을까를 우려하니, 안타깝고 근심스런 마음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구나. 저들이 묘금(墓禁)⁴²⁸을 내리기 전에 이장하여 오늘날 합장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그러나 거센 바람과 폭우도 아침나절 내내 지속되는 경우는 없으니 저들의 금령이 비록 엄혹할지라도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느냐. 다만 한스러운 것은 맨손이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이 한 가지 일에 있어 계속 생각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

너는 스무 살이 안 되어, 비록 장대하다고는 해도 기혈의 충만함이나 근골의 견고함은 여전히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상(喪)을

428 묘금(墓禁) :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강제로 개인묘지를 일절 금지시키고 공동묘지만을 허용하며 화장을 적극 장려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기지 못한 것은 불효를 면치 못하는 것⁴²⁹이다. 그러니 먹고 마실 적에 역량에 맞춰 행하도록 하여라.

答季弟汝安 億述 丙辰

積雨陰廬，累然塊坐，蓼莪之痛，鶴鴒之懷，定無淚乾之時，際得手滋，慰沃可敵。同堂悔過之云，吾心惻惻有動。凡此相責，皆爲救窮失策。而總由吾迂拙敗業，以致汝憂，是可愧也。大抵家之興敗，雖曰：“在於人事臧否。”，究其本，則實係運氣通塞，復何怨尤。雖然，又不容不謹勤善後，以冀上天之悔禍也。古人云：“窮不失義。”，又曰：“窮且益堅。”，願勿因貧窮而墮志，常自激昂，成器業而繼家聲也。噫，古之爲士者，致榮；今之爲士者，招辱。古之讀書也，有千鍾祿；今之讀書也，有終身飢。不若且就畎畝中勤力，奉先俯育之爲愈也。幸勿以彼此勞逸之不均爲慍，忍辛耐苦，一意做去，待吾之撤歸也。吾亦將操耒荷鋤，沾體塗足，追古人非力不食之義也。然徒務口腹之充，而不知以義飭躬以禮處家，則是人獸之所分。欲求獸之免而人之爲，又非讀書，無以致之也。然則讀書豈可以已乎！是知明農者，救時之急務；讀書者，終身之大事也。親知過此，見兩位墓所，皆慮有災害，憫憂之心，如坐針氈。恨未及彼人墓禁前移窆，而得今日合祔也。然疾風暴雨，無崇朝之遲，彼禁雖嚴，豈能久乎！但所恨者手赤耳。須於此一著，念念在茲也。汝是弱冠前，雖曰“壯大”，氣血之充，筋骨之固，尙不及我。不勝喪，不免爲不孝。此則飲食之時，量力而行之也。

429 상(喪)을 …… 것 :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병이 났는데도 음식이나 약물로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나를 낳아 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불효이고 자손에 대해서는 자애롭지 못함이 된다는 말이다.

계제 여안에게 보냄 병진년(1916)

與季弟汝安 丙辰

오늘이 설달그믐이구나. 세월이 어찌 이리 빠르단 말이나. 우리들이 어버이께 갚을 수 있는 만의 하나는 오직 집상(執喪) 하나에 있을 뿐인데 눈 깜짝할 사이 일 년이 되가는구나.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응대하는 것까지 만약 열심히 노력하여 상을 잘 마치지 않고 슬픔을 잊고 예의를 범하는 데 이르면, 참으로 사람중자가 아니고 신명에게 죄를 얻는 것이다. 네가 어린 나이에 상례를 치르며 진실로 항심(恒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은 비록 이를 아끼지만, 그러나 시간이 오래될수록 쉽게 잊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나아감이 급하면 물러남이 빠르다.”⁴³⁰는 옛 성현이 경계한 말이다. 그러므로 단지 이를 편지에 언급하여 서로 면려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마땅히 헤아려 알기 바란다.

집안 부녀자의 분분한 말은 듣는 사람도 참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당하는 사람도 또한 분변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분변하여 밝히려고 하면 저 또한 단서를 야기하여 더욱 난리를 칠 것이다. 특히 장부의 도량이 아니면 바로 가문의 누가 될 것이다. 단지 나의 말을 신실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저가 믿음을 보고 감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與季弟汝安 丙辰

今日歲除也。何居諸之迅也。吾輩報親之萬一，惟在於執喪一節，而轉眄之間，歲將一周。自起居飲食，以至一應應接，若不加勉而克終，

430 나아감이 …… 빠르다 : 《맹자》〈진심 상〉에 나온다.

以致忘哀犯禮，則眞非人類，而獲誅神明矣。汝之弱齡執制，固非無恆者。吾心雖愛之，然日遠易忘，人之常情；“進銳退速”，往聖攸戒。故聊此書及，爲胥勸之資，想宜諒會也。家間婦女之紛言，聽之者固不可信，而遭之者，亦不須辨。苟欲辨而明之，彼又惹出端緒，益致紛騰。殊非丈夫之量，適爲門戶之累也。只要我之發言也信，行己也正，俟彼見孚而感化，可也。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季弟汝安 丁巳

이번 행차에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혹시라도 내가 스승께 힘써 말하지 않았다고 여겨 마음에 겸연쩍은 것이 있는가? 진실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맹자께서 말하기를, “돌아가 구하면 여러 스승이 있다.” 하였고,⁴³¹ 『예기』에 말하기를, “삼왕(三王)⁴³²과 사대(四代)⁴³³는 오직

431 맹자께서 …… 하였고 : 《맹자》〈고자 하〉에 보인다. 전국 시대 조군(曹君)의 아우인 조교(曹交)가 일찍이 맹자의 문하에 들어가서 요순(堯舜)의 도를 배우겠다고 청한 데 대하여, 맹자가 이르기를 “대저 도는 큰길과 같은 것이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구하지 않은 게 병통일 뿐이니, 그대가 집에 돌아가서 구한다면 배울 만한 스승이 많을 것이다.[夫道若大路然，豈難知哉？人病不求耳。子歸而求之，有餘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에 대해서 주희는, “배울 만한 스승이 많다는 것은 곧 집에 돌아가 아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일에서 구한다면 자기 본성의 분한 내에 오만 이치가 다 갖추어져서 처하는 곳마다 발현하여 이 모두가 스승으로 삼을 만하여 머물러서 학업을 전수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孟子集註大全》

432 삼왕(三王) : 중국 고대(古代)의 세 임금. 즉 하 우왕(夏禹王), 은 탕

스승에 말미암았다.” 하였다.⁴³⁴ 무릇 성사(性師)와 경사(經師)가 스승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고금의 사람들이 반드시 인사(人師)를 찾아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실로 성(性)과 리(理)는 은미하여 보기 어렵고 성인의 말은 오묘하여 알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나면서부터 알아 마음으로 깨닫고 몸소 터득한 자가 아니면, 반드시 귀를 잡고 입으로 전수해 주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전해진 묘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사(人師)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사(人師)가 없어서는 안 됨을 알았다면, 그 속수(束脩)의 예를 행하여 명단에 들고[入案], 호칭을 세워 사제의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승이 가르치는 바와 제자가 배우는 바는 곧 도(道)와 의(義)에 있지 호칭에 있지 않으니, 그 안과 바깥, 이름과 실제(文實)의 완급을 또한 알 수 있다. 무릇 70명의 제자 무리 중에 안자(顏子)와 증자(曾子)가 가장 어렸고, 그들이 공자를 스승이라 부른 것은 의당 자로(子路)와 자공(子貢)보다 늦었지만 유독 그 종지(宗旨)를 얻었다. 자사(子思)의 문하에서 맹자는 친히 학업을 전수 받

왕(殷湯王), 주 문왕(周文王) 또는 무왕(武王)을 일컫는 말임.

433 사대(四代) : 우(虞)와 하(夏)·상(商)·주(周)의 삼대(三代)를 합친 말이다.

434 옛 …… 하였다 : 《예기》〈학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군자는 배움에 이르기 어려움과 쉬움을 알고 그 자질의 아름다움과 나쁨을 안 뒤에 널리 가르칠 수 있으며, 널리 가르칠 수 있는 뒤에 스승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는 뒤에 장(長)이 될 수 있고, 장이 될 수 있는 뒤에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승은 그를 통해 군주가 되는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승을 선발하기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 기록에 ‘삼왕(三王)과 사대(四代)가 오직 스승에 말미암았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함일 것이다.[君子知至學之難易而知其美惡，然後能博喻，能博喻然後能爲師，能爲師然後能爲長，能爲長然後能爲君。故師也者，所以學爲君也。是故擇師不可不慎也。《記》曰“三王四代唯其師”，其此之謂乎!]”

지 않았지만 끝내 그 도를 전해 받았고, 유원성(劉元城)⁴³⁵은 온공(溫公)⁴³⁶에게 5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종신토록 쓰임이 되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도의 전수를 얻음은 공력을 들이는 기민함과 독실함에 관계된 것이지, 스승이라 일컬음이 빠른 지 늦은지와 관계가 없는 것 또한 이미 분명하다.

나의 이 말은 비록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지 수업을 받지 않으면서 외람되이 아무개의 문인이라고 일컫는 자를 경계하기에는 또한 매우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번 행차가 당초 계획과 어긋난 것은 목전에 놓인 시의(時義)에 스스로 헤아리는 바가 있어 그런 것이지, 오로지 이를 징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의 이치가 실로 이와 같은 점이 있다. 이제 네가 간옹(艮翁)에 대하여 비록 예물을 드리고 사제 관계를 맺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맹자의 몸소 가르침을 받지 않음과 원성(元城)의 5일의 가르침에 견주면, ‘넉넉히 남음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컨대 삼석(三席)⁴³⁷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정밀하게 궁구하고 힘써 행하되 얻지 못하더라도 그만두지 말고, 평상시 말과 행동은 들은 바 뜻에 부합되게 하여라. 그러면 설령 당시 스승이라 부르

435 유원성(劉元城) : 북송의 명신인 유안세(劉安世, 1048~1125)로, 그가 원성 사람이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의 문인인데, 철종(哲宗) 즉위 후에 사마광이 집권하자 그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으나 간신인 장돈(章惇)에 의해 광둥(廣東)과 광서(廣西) 등 멀고 험악한 곳으로 일곱 번이나 유배 가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 소식(蘇軾)은 그를 ‘철한(鐵漢)’이라 일컬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宋史 卷345 劉安世列傳》

436 온공(溫公) : 송나라의 명재상 사마광(司馬光, 1019~1086)으로,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수(迂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속수선생(涑水先生)으로 불린다. 사후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으로 부른다. 저서로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이 있다.

437 삼석(三席) : 임금이나 신하,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매우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禮記 文王世子》

지 못하였더라도 후세에 도를 전해 받은 제자가 되는 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예물을 바치고 사제 관계를 맺기를 다음 번을 기다려 반드시 실행하기로 한 자임에랴? 만약 이번 행차가 헛되이 돌아왔다고 하여 스스로 조금이라도 그만두고 물러나려는 생각이 있다면, 결코 도를 구하고 실제에 힘쓰는 본뜻이 아니다. 혹시라도 남에게 내보이려고 명성 있는 분을 가까이하려는 사사로운 뜻이 개입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與季弟汝安 丁巳

今行，未遂汝願而歸，豈或意吾不力言於函席，而有歉然于中者乎？苟無是心則已，如不免有此，此有不然者存也。孟子曰：“歸而求之，有餘師。”記曰：“三王四代，惟其師。”夫性師、經師，罔非師也。而古今人之必求人師而學之者，何也？誠以性理微而難見，聖言奧而難知，自非生知之心悟而體得者，必待耳提口授而後，得相傳之妙。然則其不可無人師也，審矣。既知人師之不可無，則其行脩入案、立號定倫，又不容已也。然師之所以教、弟子之所以學，乃在於道義而不在稱號，則其內外文實之緩急，又可知已。夫七十之列，顏、曾最少，其稱師，宜由、賜之後，而獨得其宗。子思之門，孟子不親受業，而卒傳其道，劉元城得溫公五日教，而爲終身用。由此觀之，得道之傳，係乎用功之敏篤，無係乎稱師之早晚也，亦已審矣。吾之此言，雖若有弊，其爲無實業而猥稱某門人者之戒，則不亦切乎？若乃今行之違初料，以目下時義，自有商度者而然，非爲專懲乎此戒也。然事理實有如此者。今汝於艮翁，雖未及納贄定倫，視孟子之不親炙、元城之五日教，則可謂優餘矣。願將所聞於三席者，精究力行，不得不措，要使日用云爲，符合所聞之旨，則假使未得稱師於當日，不害爲後世傳道之弟子。況納贄定倫，容俟後回而必行者乎？若因今行之虛

歸，有自小隳退之念，則決非求道務實之本旨，或涉爲人近名之私意，天必厭之。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季弟汝安 丁巳

형복(炯復)이가 돌아와 근래 네가 아주 부지런히 글을 읽다 문득 한밤중이 되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 마음이 크게 위로 되는 구나. 우리 집안이 이 지역에 살아온 지 또한 8대가 되었는데 가문이 한미하고 가난하여 남에게 드러낼 게 없었다. 다만 대대로 문행(文行)이 이어졌고, 돌아가신 부친 또한 효와 공경, 절제된 행실, 시와 예로 집안을 부지하여 당세의 대군자(大君子)에게 중망을 받았다. 이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어서 열심히 공부하여 몸을 이루어 위로 선친의 뜻을 천명하고 아래로 후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기질이 이미 순수하지 못하고 행실에도 힘을 쏟지 않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어느새 불혹의 나이에 가까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탓하며 슬픔에 잠겨 즐겁지 않구나. 우리 여안이가 독려하지 않아도 이 일에 뜻을 두고서 의리에 잠심하고 법도에 몸을 두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마 선친(先親)의 영령이 지하에서 인도하여 입신(立身)하고 덕을 이루게 하여 가문의 명성을 빛나게 하려는가보다. 나 역시 깨우치고 분발한 것이 깊고 도움을 얻은 것이 크구나. 그러나 사람의 정력은 한계가 있어 계속하기가 어렵고 기운에는 성쇠가 있어, 뜻이 따라서 견고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만약 그 마음을 과하게 써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정력이 이미 소진되어서 의지는 해이해진다. 이것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나아감이 예리하면 물러남이 빠른 근심’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입지(立志)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느냐. 인(仁)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죽은 후에야 그치는 것이 이것이다. 용공(用功)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느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고 조장(助長)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與季弟汝安 丁巳

復兒回，知近頗劇讀，輒到夜分，大慰我懷。吾家居茲土，且八世，族寒而貧，無以炫耀於人者。但世以文行相承，先君又以孝敬制行詩禮持家，見重於并世大君子。此可以有辭矣。不肖繼之，宜其奮學成身，上以闡先志，下以範後昆，質既未純，行又不力，兀兀無成。遽近不惑之年，撫躬自咎，愀然不樂。何幸吾汝安，不待督勸，而有志斯事，潛心於義理，置身於繩墨。意者，先人之靈，有以冥誘，使之立身成德，用光家聲也。吾亦警發深，而得助大矣。然人之精力，有限而難繼，氣之盛衰，志隨而堅脆。若過用其心，而求效不獲，則精力既竭，而志意瓓珊。此所以有“有始鮮終、進銳退速”之患也。然則，立志也，當如何？仁以爲己任，死而後已，是也。用功也，當如何？必有事焉，勿忘勿助，是也。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季弟汝安 丁巳

일찍이 《안씨가훈(顔氏家訓)》 한 부를 구입한 것은 몸을 수양하

고 집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니 심히 훌륭하다. 형복(炯復)이가 가지고 왔기에 전부 열람하였다. 그 말이 모두 몸소 직접 경험한 데서 나와 비유가 상세하고 경책(警策)이 엄절(嚴切)하여 족히 집안을 지키는 귀감이 될 수 있겠더구나. 멋대로 이렇게 구두를 표시하여 보내니 부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이해해 보아라.

그러나 이 사람⁴³⁸은 육조의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사승 관계가 없기에 학문이 순정하지 않다. 그가 자식을 훈계한 것은 좋기는 좋지만 정밀한 의리로써 검토해보면 하자가 솔하게 많이 나온다. 보고 열람할 적에는 마땅히 요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귀심(歸心)>⁴³⁹ 한 편은 불교를 내전(內典)으로, 유교를 외전(外傳)으로 삼고서 불도(佛道)의 위대함은 요순(堯舜)·주공(周公)·공자(孔子)가 미칠 바가 아니라고 이른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식견과 학문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편(篇)들은 다만 빼놓고 보지 말아야 한다. 초학자는 아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저런 설들에 의해 혼란이 생길까 두렵구나.

與季弟汝安 丁巳

438 이 사람 : 남북조(南北朝) 시대 말기의 안지추(顏之推, 531~602)를 말한다. 자는 개(介)이다. 양(梁)에서 산기시랑(散騎侍郎), 제(齊)에서 봉조청(奉朝請)·중서사인(中書舍人), 주(周)에서 어사상사(御史上史), 수(隋)의 개황(開皇) 중에 학사(學士)를 삼았다. 저서에 문집(文集)과 가훈(家訓)이 전한다. 《北齊書 卷45》《南史 卷83》

439 귀심(歸心) : 《안씨가훈(顏氏家訓)》 <귀심(歸心)> 제16편이다. 590년 경 안지추(顏之推)가 지은 책으로, 동란 속을 살아가던 한 지식인이 자손에게 남긴 인생과 생활의 지침서이다. 책 제목은 '안씨(顏氏) 집안의 가훈(家訓)'이라는 뜻이다. 구성은 <서(序)>에서 <유언>까지 모두 20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曾購《顏氏家訓》一部，認出飭躬御家之意，甚善矣。復兒持來，得以繙閱全部。其言皆從身親經歷中來，指喻詳盡，警策嚴切，足爲保家龜鑑。謾此標定句讀以送，幸更從頭一番理會也。然此人生於六朝壞亂之世，無所師承，學不純正。其所以訓子者，美則美矣，律之以精義，疵類百出。觀覽之際，當有斟量者存。若乃《歸心》一篇，以佛教爲內典，儒教爲外典，謂佛道之大，非堯舜、周、孔所及。於是乎，此人之見識學問，不足多說也。如此等篇，只宜闕之勿觀。初學識既未定，恐爲彼說所亂也。

계제 여안에게 답함 기미년(1919)

答季弟汝安 己未

요즘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문장 실력이 향상됨은 <중용의난(中庸疑難)>과 <이아서(李雅書)>에서 알 수 있었다. 비록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를 확충해서 구하면 어찌 이루지 못함을 근심하겠느냐.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중용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나 호랑이 같아 용을 무찌르고 호랑이를 때려잡는 수단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 두루 망라할 수 없음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큰 수단을 기다린 다음에 읽으려 한다면 큰 수단은 흔히 얻기가 쉽지 않으니 이 책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내 생각엔 일단 용을 물리치고 호랑이를 잡는 것을 바라지 말고 우선 누에를 제거하고 이[蝨]를 잡는 작은 수단을 써서 공부를 하면, 조리와 맥락이 눈앞에 확연하게 보여 실책을 하지 않을 게다.

모름지기 ‘중용’ 두 글자를 간파하는 것이 이 책의 골자이니, 책 속의 수많은 항목과 개개의 정신이 두 글자에 담겨있다. 성(性)·중(中)·은(隱)은 중용의 본원(本原)이다. 도(道)·화(和)·비(費)는 중용의 조리(條理)이다. 삼덕(三德)⁴⁴⁰은 중용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구경(九經)⁴⁴¹은 중용을 베푸는 바이다. 계구신독(戒懼慎獨)⁴⁴²은 중용의 공부이다. 참찬화육(參贊化育)⁴⁴³은 중용의 공효(功效)이다. 이를 총괄하여 하나의 ‘성(誠)’자를 중용의 핵심으로 삼았다. 참으로 이에 능통하여 하나하나 체인(體認)한다면 이 책을 읽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440 삼덕(三德) : 삼덕(三德)은 지(智), 인(仁), 용(勇)을 가리킨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천하의 달도가 다섯 가지인데 이를 행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군신간, 부자간, 부부간, 형제간, 붕우간의 사귀 이 다섯 가지는 천하의 달도요, 지, 인, 용 이 세 가지는 천하의 달덕이니, 이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曰 : “君臣也、父子也、夫婦也、昆弟也、朋友之教也”五者, 天下之達道也, 智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一也。]”라고 하였다.

441 구경(九經) : 나라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도리. 《중용(中庸)》에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이를 높이는 것[尊賢],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여러 신하들을 알아주는 것[體群臣], 백성을 사랑하는 것[子庶民], 백공이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의 미개인을 어루만지는 것[柔遠人], 제후를 회유하는 것[懷諸侯]”이라 하였다.

442 계구신독(戒懼慎獨) : 사려(思慮)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물이 없는 미발(未發)의 상태에서도 항상 계신(戒慎)과 공구(恐懼)에 마음을 두어, 홀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남이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까지 삼가는 것을 말한다. 《中庸章句 首章》

443 참찬화육(參贊化育) : 《중용장구》에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진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하였으며, 또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어야 본성을 다할 수 있으니, 본성을 다하면 사람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의 본성을 다하면 물건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고 물건의 본성을 다하면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우면 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하였다.

하늘이 인(人)과 물(物)에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인과 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도(道)’라고 한다. 도가 품절(品節)을 얻은 것을 ‘교(教)’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과 물에 나아가 자연의 도리를 설명한 것이다. 비록 “인과 물을 겸한 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지는 사람을 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말하길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안다.”⁴⁴⁴고 운운하였다. 대개 이 세 글자를 첫머리에 배열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성(性)·도(道)·교(教)가 모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고, 그 아래 문장의 계구신독(戒懼慎獨) 등 허다한 공부가 모두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소이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도는 떨어질 수 없다.”는 이 말은 도가 사람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밝힌 것이지 사람을 면려시켜 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다.

答季弟汝安 己未

近日研索之勤，措辭之進，《中庸疑難》及《李雅書》可見。雖不能一飯告飽，充此以求，何患無成。古人云：“中庸如生龍活虎 有屠龍搏虎手段 乃可讀。”此甚言其包羅不周也。然必待大手段而後讀之，則大手段未易多得，而此書不幾於虛器乎！吾意且莫要屠龍搏虎，且下

444 사람이 …… 안다 : 《중용》 수장(首章)에 대한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대개 사람들이 자기 몸에 성이 있음은 알면서 그것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일에 도가 있음은 알면서 성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이 있음은 알면서 나에게 본래부터 소유되어 있는 것을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사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점을 드러내 밝히셨으니, 동중서(董仲舒)의 이른바 ‘도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 또한 이러한 뜻이다.[蓋人知己之有性而不知其出於天，知事之有道而不知其由於性，知聖人之有教而不知其因吾之所固有者裁之也。故子思於此，首發明之，而董子所謂道之大原出於天，亦此意也。]”라고 하였다.

掃蠶捉蝨底細手段工夫，要見條理脈絡，躍如於前，未爲失算也。須看中庸二字，爲此篇骨子，篇中許多頭項箇箇精神，注在二字上。曰性、曰中、曰隱，中庸之本原也。曰道、曰和、曰費，中庸之條理也。三德者，中庸之所入也。九經者，中庸之所施也。戒懼慎獨，中庸之工夫也。參贊化育，中庸之功效也。總之以一誠字爲中庸之樞紐也。果能於此，一一體會，則其於讀是書也，亦何難之有？

自天之命於人物而謂之性，自人物之所當行者而謂之道，自道之得品節者而謂之教。此三者，統就人物上，說自然底道理。雖曰“兼人物說”，其實則以人爲主。故《章句》曰：“蓋人知己性”云云。蓋以此三字，排列於劈頭者，使人知曰性、曰道、曰教，皆在我所固有者，而下文戒懼慎獨許多工夫，皆求所以不違乎此三者也。道不可離，是明道之於人，非可離之物，非勉人以不離於道也。

계제 여안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季弟汝安 乙丑

몇 해 전, 청도(淸道)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왔는데 성순재(成舜在)⁴⁴⁵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말하기를 “임자년(1912) 간에 화도(華島 계화도)로 들어가 선사(先師)의 유고를 선사(繕寫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베껴 쓰는 것)할 때 노형께서 상중에 행상(行商)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사께서 선존장(先尊丈) 돌아가신 남의

445 성순재(成舜在) : 성기운(成璣運, 1876~1956)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순재(舜在), 호가 덕천(惠泉)이다.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문인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부친)에게 보낸 편지 속에 ‘아드님은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합니다.[聖人自期]’라는 한 구절이 너무 지나치므로 선사께 말씀드려 삭제하였는데 지금까지 편지 않습니다.”라고 하더구나.

내가 말하길 “유교 작업을 할 때 단지 노형이 내가 장사를 했다고 여겨 그 글을 삭제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속으로 ‘공상(工商)은 사민(四民)의 직분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그 집이 가난하면 장사를 한들 학문에 무슨 문제가 될까.’싶었습니다. 다만 나는 그런대로 살 만하여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근년 이래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일이 번다하고, 집안일에 몰두하느라 규범을 지키는 것이 독실하지 못하여, 이 구절이 참으로 과당(過當)하였으므로 노형과 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들어보니 또한 한층 더하여 지목한 것은 노형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상중에 행상이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순재가 말하길 “그 당시 노형의 종족들께 들은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천하의 말이란 믿을 만한 데에서 들어도 온통 다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인하여 말하기를 “흠재(欽齋)⁴⁴⁶가 이 면의 면장 말을 들어보니, ‘성기운(成璣運)이 관아의 형벌을 받고나서 분명히 민적(民籍)에 가입했다.’고 하였답니다. 면장의 말을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나는 참으로 입적(入籍)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저들이 사사로이 이름을 넣은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더구나.

대개 성순재의 이 말은 의도가 나의 일로 인해 자기 일을 해명하는 데 있다. 그가 “상중의 장사” 얘기를 운운한 것은 그 당시 실지로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갑자기 이를 들추어내어 입적(入

446 흠재(欽齋) : 최병심(崔秉心, 1874~1957)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존(敬存), 호는 흠재(欽齋)이다. 이병우(李炳宇)·전우(田愚)의 문인이다.

籍)의 변명거리로 들이댄 까닭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소문을 믿지 못하겠다.”고 운운한 얘기는 분명하다.

내가 그러므로 다만 권순명(權純名)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가까이 살고 있으니 내가 상중에 행상을 한 것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라고 하니, 권순명이 말하길 “나는 모릅니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행상은 자기 집안 일이 아닌데, 천하에 어찌 이웃 마을에서 모르는 행상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더 이상 소문의 출처를 캐묻지 않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남진영(南軫永), 유영선(柳永善)과 동행하면서 내 친김에 일러 말하기를 “내가 신해년(1911) 봄 상(喪)을 마치고, 그해 겨울 어떤 사람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순창(淳昌)에 있다.’고 하여, 마침내 가서 받아내고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베로 바꾸어 돌아와 돈을 만들어 썼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일이 매매에 관계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장사’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를 상중에 전가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는 한 번 웃고 말았다.

저 운한(雲翰)과 제철(濟喆) 무리는 불고 씻는 데⁴⁴⁷ 열을 올리다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에 성순재가 남을 끌어들여 자기를 변명한 애기로써 뒤집어 면박하니 거상(居喪)이 무례하다는 사안이 갈수록 더욱 험해졌다. 성순재는 내가 임시로 재물을 맡은 것에 화가 났으나, 경묵(京默)에게 깨져 필시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쓸데없이 지필(紙筆)을 허비하여 성순재를 힐난하지 말거라. 아, 스승에 대한 모함도 아직 변론하여 밝히지 못하였거늘 자신과 관계된 일을 어찌 족히 변명을 하겠느냐. 다만 네가 꼭 알아야 되야 할 것이 있어 한 마디 하였다.

447 불고 씻는 데 : 원문의 ‘취세(吹洗)’는 털을 불어 흠을 찾고 때를 씻어 흉터를 잡아내는 것으로, 숨겨진 남의 잘못을 상세히 들추어내는 것이다.

與季弟汝安 乙丑

年前往清道旋歸，成舜在於衆中謂余曰：“壬子年間，入華島，繕寫師稿時，聞‘老兄喪中行商’之說。而先師與先尊丈書中，‘令胤以聖人自期’一句，語太過。故告先師而刪之，至今未安。”余曰：“稿役時，但聞‘老兄以吾爲商業 故刪其書’，而吾心以爲‘工商參爲四民之職，苟其家貧商業，何害學問。’但吾則且得捱過，不至此境，而因年來事育務煩，埋頭幹蠱，守規未篤，此句實爲過當。故不與老兄辨理。今始聞之，則又加一層指目，是老兄自那時至于今，認我爲喪中行商者也。”成曰：“那時聞於老兄宗族間者，如此矣。以今觀之，天下之言，不可以其聞於可信處，而一切信之也。”因言“欽齋聞此面面長之言，則以爲成璣運當官刑後，分明入民籍云。面長言孰不信之。但我實不許入籍，則彼輩私自入名，吾不可得得知之矣。“蓋成之此言，意在於因我之事以發明己事也。其云“喪商”之說，那時實有所聞。抑臨時撰出，對舉入籍之資，皆未可知，“其不信所聞”云云之說。則昭然矣。余故但顧謂權純名曰：“君居我近，吾之喪中行商，君其知乎？”權曰：“吾不知也。”余曰：“行商非自家屋裏事，而天下焉有隣村所不知之行商乎？”不復盤問言根而歸。歸路與南軫永、柳永善同行，語次謂之曰：“吾以辛亥春解喪，是年冬，請人借金。其人以謂‘金在淳昌，’遂往推尋。而備路中不虞，貿布而歸，作錢用之。只此一事，亦涉買賣。然謂之爲商則非實矣。轉而移之喪中，則又誤矣。”一笑而罷。彼雲翰、濟喆輩，疲於吹洗，而不得疵癢，則乃以成之因人明己之說，翻作面駁，居喪無禮之案，可謂愈出愈險也。成則怒我假掌財僞京默之撲破，必不爲之一言也。汝毋庸徒費楮筆而詰於成也。噫，師誣尚未辨白，事關自身者，何足置辨。但在汝有不可不知者，爲一言之。

계제 여안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季弟汝安 丙寅

우편이 와서 편지를 보니 무릇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다 먼저 하였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다만 명치가 꼭 막히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풀이 죽고 기운이 다 빠져 움츠러들어 머뭇거리린다면 선친의 영령이 몹시 걱정할 테고, 또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무릇 부모의 장례 전에는 성인도 오히려 몸을 훼손하여 병이 생길까 경계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도리어 불효가 된다.

오늘 일은 비록 “애타고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심한 데까지 이르느냐. 주자가 이른 “사단(四端)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런 계지. 하자평(何子平)이 장사(葬事)를 치르지 못하여 8년 동안 호곡(號哭)한 경우⁴⁴⁸가 있었다. 만약 지금 처럼 거의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8년이란 오랜 시간을 버티어 끝내 그 뜻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 너는 성질이 너무 급해 내가 늘 걱정이다.

지금 비록 아버지를 그리는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나왔더라도 이런 성질을 너무 숭상하는 거 아니냐? 만약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고치기 어려운 증상이 될까 싶으니 모름지기 속히 경계하도록 하여라. 그 간에 잠시라도 우리가 불효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의

448 하자평(何子平)이 …… 경우 : 하자평은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람으로, 효성이 뛰어났다. 60이 다 된 나이에 모친상을 당하여 기근과 전란으로 8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마치 어린애처럼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피하고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南史 卷73 孝義傳上 何子平》

덕에 누를 끼칠까 편치 않구나. 어찌 끝내 길택(吉宅)이 없겠느냐. 이는 족히 알 수 있으니 다만 나에게 달린 도를 다해야 할 뿐이다.

“규범을 지키고 보전하기 어려운 게 하나의 커다란 연구과제입니다.”라고 한 말은 “지사(志士)는 구덩이 속에 시신(屍身)이 뒹굴게 될 것을 항상 잊지 않는다.”⁴⁴⁹는 말을 살피지 않은 것이다. 이제 평상시에 하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느냐. 다만 한계를 넘지 않는⁴⁵⁰ 가운데 가난을 구제할 계책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근래 네가 적은 글 중 볼만 한 것은 일일이 수록하여 나에게 보이도록 하여라. 이것은 예전에 선친께서 나에게 명한 것이니, 부디 어기지 말거라.

答季弟汝安 丙寅

郵來見書，凡吾所欲言者，汝皆先獲，復何言哉！只覺中焦之塞而已。然因此而致心死氣竭，蹙蹙靡靡，則爲先親尊靈所深憂，亦非吾之所願聞也。夫在父母葬，前聖人猶以毀瘠生病爲戒者，何也？爲其因親亡而傷親遺者，反爲不孝也。今日事，雖云“憫迫”，胡至於此甚。朱子所謂“四端而有不中理”者，此歟！何子平情事未伸，八年號哭則有之矣。若如今之幾不自保，則何以支八年之久，而終遂其志乎？汝性頗急，吾常慮之矣。今雖出於孝思痛切，無乃夾些性氣所崇歟？若不寬抑，恐成難治之證，須亟戒之也。其間不安暫爲吾不孝所累先妣之賢。豈終無吉宅？是足以謀之，而只可盡在我之道耳。“守

449 지사(志士)는 …… 않는다 :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나온다.

450 한계를 …… 않는 : 《논어》〈자장(子張)〉에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드러나들이 있더라도 괜찮다.[大德不踰閑，小德出入可也。]”라는 자하(子夏)의 말이 나온다.

規難保，一大研窮”之云，不省所謂“志士不忘在溝壑。”不於今日用，而更俟何時？但思救窮之策於不踰閑之中，則可爲耳。近來汝所記文字可觀者，一一收錄以示我也。此是昔年先考所命於不肖者，勿泛勿泛。

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季弟汝安 丁卯

눈 쌓인 궁벽한 시골 방안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으니 의연히 교량을 끊어버린 스님⁴⁵¹ 같구나. 마땅히 성성적적(惺惺寂寂)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건만,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네가 그리워 봉래산(蓬萊山)과 영해(瀛海)⁴⁵²로 두루 유랑하니 골육지간이 무엇이란 말이나?

이 엄동설한에 사방 벽만 있는 집에서 한 표주박 물만 마시는⁴⁵³ 신세는 피차일반이니 천륜(天倫)의 지친(至親)이 어찌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옛사람 중 천하에 굶주리는 이가

451 교량을 …… 스님 : 송시열의 8대손인 송근수(宋根洙)가 지은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筭)》 권4 〈권지41 서(書)〉의 단교승 주(註)에 “옛날에 어떤 승려가 다리[橋]를 끊고 참선하였기에 단교 화상(和尚)이라 칭하였다.[古有僧斷橋而修禪，謂之斷橋和尚。]”라고 보인다.

452 봉래산(蓬萊山)과 영해(瀛海) : 영해는 동쪽 바다, 봉래산은 동쪽 바다에 있는 신선이 사는 산으로 삼신산의 하나이다. 대개는 전설상의 공간이며, 간혹 금강산과 동해의 이칭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비유인지 실제인지 분명치 않다.

453 표주박 …… 마시는 : 《논어》〈옹야(雍也)〉에 “한 대광주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며 궁벽한 시골에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라고 하였다.

있으면 자기가 그를 굶주리게 한 듯이 생각한 이도 있었고, 큰 집을 지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를 덮어주기를 원한 이도 있었다. 천하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골육에 있어서는 어떻겠느냐! 우리가 비록 힘은 서로 보탬 수 없지만 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 자신이 살아갈 계책은 오직 자신이 힘을 쓰는 데 달려있으니 절대로 친속(親屬)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참으로 학문하는 자는 모름지기 자기 힘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는 어렵다. 이 또한 지당한 이치이다.

살아갈 계책은 다만 논밭에 종사하는 하나의 일에 있을 뿐 그밖에 좋은 방책은 없다. 옛날 방공(龐公)⁴⁵⁴은 몸소 쟁기와 보습을 잡고 처자(妻子)는 앞에서 김을 매었다. 이때 천하가 비록 어지러웠으나 한(漢) 나라는 아직 있었다. 선비가 먹을 것을 취하는 데에 다른 길이 없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거늘,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어 인류가 멸절된 때에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다만 아득히 큰 이 세상에 밭 갈 땅이 없다면 또한 호연히 지사(志士) 불망(不忘)⁴⁵⁵의 자리를 따르는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뜻은 기(氣)를 제어하는 장수이고 배움은 업을 보전하는[居業] 집이다. 장수가 아니면 군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집이 아니면 사람이 살지 못한다. 곤란을 당하였다고 변한다면 어찌 장수가 될 수 있으며, 잠깐이라도 버릴 수 있으면 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454 방공(龐公) : 후한(後漢) 때의 인물인 방덕공(龐德公)을 가리킨다.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였으며,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초빙하자 나아가지 않고 가솔을 모두 거느리고 녹문산(鹿門山)에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後漢書 卷 83 逸民列傳 龐公》

455 지사(志士) 불망(不忘) : 공자가 이르기를 “의지가 굳은 선비는 곤궁하여 자기 시체가 구렁에 버려질 것을 잊지 않고, 용맹한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喪其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滕文公下》

요컨대 “예부터 누구나 다 죽지만,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⁴⁵⁶와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곧 금수에 가깝다.”⁴⁵⁷라는 말을 경계로 삼아라.

우리 형제가 태어나 이때를 당하여 궁액(窮厄)이 지극하다만, 신학문을 힘써 배척하고 단발(斷髮)에 죽음을 맹세하신 벽봉(碧峯)⁴⁵⁸ 선자(先子)께서 남겨주신 몸을 받았고, “저 사람들에게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구산(臼山)⁴⁵⁹ 선사(先師)가 남긴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 비록 아홉 번 죽고 열 번 살며, 천 번 맵고 만 번 쓰라려도, 세속을 따르고 더러운 데 부합하여 누린 내 나는 고기를 주워 먹으며 구차히 입과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오직 이 한 생각은 피차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족이 떨어져 지낸 지가 4년째다.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근심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비록 열흘이나 한 달 만에 서로 듣지만, 상을 나란히 하고 이불을 함께 덮는 것은 갑자기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구나. 구름을 보는 눈에 어찌 해가 뚫고 비추지 않겠느냐.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구나. 이 편지를 쓴 이후 큰 요지는 <소완(小宛)> 시의 “나는 해로 너는 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되게 함이 없기를.”⁴⁶⁰이라는 뜻이다. 마음으로

456 예부터 …… 못한다 :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정사(政事)에 대해 묻자 양식과 무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답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믿음이 없으면 살더라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한 데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論語 顏淵》

457 사람이 …… 가깝다 :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따듯이 입으면서 편안히 지내기만 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없으면 금수와 가깝게 되고 말 것이다.[人之有道也。飽食煖衣，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라는 말이 보인다.

458 벽봉(碧峯) : 김택술의 부친 김락진(金洛進, 1859~1909)의 호이다.

459 구산(臼山) : 김택술의 스승 전우(田愚, 1841~1922)의 호 중 하나이다.

460 소완(小宛) …… 없기를 : 《시경》 <소완(小宛)>에 “題彼脊脊，載飛載

깨우쳐 주의하길 바란다.

與季弟汝安 丁卯

積雪窮巷，塊坐一室，依然若斷橋和尚。宜其惺惺寂寂，不動一念，而不覺懂懂爾思，周流蓬山瀛海。骨肉之間，何也？當此窮冬祈寒，四壁一瓢，彼此一般，天倫之親，安得不發一體之念也。古之人，有思天下有飢者，若己飢之者，有願庇天下寒士者。天下猶然，而況於骨肉乎。吾輩雖力不能相資，常存此心，可也。至於自身活計，只在自身用力，切勿生依賴親屬之心。正如爲學者之須用其力，難仰他人。此又至當之理也。活計只有服田一事，外無良策。昔龐公，親執耒耜，妻子耘前。是時天下雖亂，漢室尚在。士之取食，不無他道而猶如此，而在今日國破君亡、人類殄滅之秋乎？但廣漠大界，無田可耕，則又有浩然從志士不忘處一道耳。志是御氣之帥，學乃居業之宅。非帥，軍必債；非宅，人不活。顛沛而可變，豈得爲帥；造次而可棄，非所謂宅。要當以“自古皆有死，人無信，不立。”、“人不學，卽近禽獸”爲戒。吾兄弟生丁此辰，窮厄極矣。然受遺體於力排新學、誓死薙髮之碧峯先子，守遺訓於“請願彼人，決是自辱。”之白山先師。雖九死十生、千辛萬苦，其不可隨俗合污、拾腥吃羶，以苟充口腹也，明矣。惟此一念，彼此無他者。而但一舍分居，于茲四霜。病健憂樂，雖旬朔相聞，聯床共被，似猝未易遂。看雲之眼，何日不穿？當此歲窮，益切孔懷。聊書此以往，大要〈小宛〉詩“我日而月，夙夜無忝。”之義也。想會心加意也。

鳴. 我日斯邁, 而月斯征. 夙興夜寐, 無忝爾所生.”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해서 주희는, “저 할미새를 보건대, 날며 지저귀도다. 나는 날마다 나아가고, 너는 달마다 나아가,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들며, 부모님을 욕되게 말자.”라고 풀이하였다.

계제 여안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季弟汝安 戊辰

편지를 보니 품행이 단정치 못한 것을 뉘우침이 자못 절실하구나. 이를 기준으로 삼아 나간다면 무슨 덕인들 세울 수 없겠는가. 요즘 들어 일마다 세세한 절목(節目)은 때마침 우연히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세세한 행동에 신중하지 않으면 끝내 커다란 덕에 누를 끼치고, 잠시 풀어 놓으면 천 리로 달아난다. 세세한 절도가 우연히 그렇다고 하여 통렬히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 또한 이 잘못을 끊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젊고 팔팔하기는 고사하고 더군다나 이젠 늙었다. 지금 뜻한 바를 보니 깨우친 것이 많구나.

| | |
|-------------------------------|------|
| 엄숙하고 통명(通明)한 사람은 | 人之齊聖 |
| 술을 마셔도 온공(溫恭)히 이겨내거늘 | 飲酒溫克 |
| 저 어둡고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 彼昏不知 |
| 한결같이 취함이 날로 심해지도다 | 壹醉日富 |
| 각기 너의 위의를 경건히 할지니 | 各敬爾儀 |
| 천명은 다시 오지 않느니라 ⁴⁶¹ | 天命不又 |

이는 옛사람이 형제를 경계시키는 시이자, 실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이다. 지금 마땅히 이 시를 희생 위에 올리는 글⁴⁶²로 삼아서 지금부터 관을 덮을 때까지 맹세코 범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461 엄숙하고 …… 않느니라 : 《시경》〈소완(小宛)〉의 시 구절이다.

462 희생 …… 글 : 《맹자》〈고자 하〉에 다음 구절이 보인다. “오패 중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가장 강성하였는데, 규구(葵丘)의 회맹(會盟)에서 제후들을 모아놓고 희생을 묶어, 그 위에 맹약하는 글을 올려놓고 희생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하지 않고 명령하였다.”

이 일 하나를 마치면 다른 허물을 고치는 것도 쉬이 힘을 얻을 것이다. 주자가 말한 “한결같이 밖으로 내달려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모두 술을 끊은 예를 기준으로 하여 끊었습니다.”⁴⁶³라고 한 것에 가까울 것이다. 어떠한가?

앞의 편지에서 스승의 학문을 이어 담당하고 후생을 고무시켜 나아가게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사문(斯文)이 길이 어두워지고 천도(天道)가 의지할 데 없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도가 없다고 하여 필시 천하를 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육조(六朝)와 오대(五代)의 수백 년간에 성인의 학문을 이어서 후학을 고무시켜 나아가게 한 이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지만, 끝내는 송(宋) 나라 제현이 사도(斯道)를 창명(昌明)하는 데 이르렀으니, 지난 일에서 징험할 수 있다. 또 천하는 지극히 넓고 태어나는 사람은 지극히 많으니, 일방(一方)에서 떨쳐 일어나 의연히 도를 담당하는 이가 없으리란 걸 어찌 알겠는가. 이제 눈앞의 한 문하에 사람이 없다고 미루어 단정해 버린다면, 일세(一世)의 사람을 모조리 기만하는 데 가깝지 않겠는가?

또 하늘이 나에게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성품과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은 마음과 굳세고 씩씩하며 바르고 빼어난 형체를 부여해 주었다. 만약 과연 일문(一門)과 일세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품부 받은 선과 여러 미덕으로 유독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없겠는가. 익주(益州)는 피폐하고 유선(劉禪)⁴⁶⁴은 암약(闇弱)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공명(孔明)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

463 한결같이 …… 끊었습니다 : 《주자대전》 권31 <답장경부(答張敬夫)에 나오는 대목으로 일부 생략되었다.

464 유선(劉禪) : 중국 삼국 시대 촉(蜀)나라 유비(劉備)의 아들이다. 소열제(昭烈帝) 유비가 죽자 제위를 이어받은 그는, 제갈량(諸葛亮) 등 어진 신하들이 죽은 뒤 황호(黃皓) 등 간신을 중용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하다가 나라를 잃었다.

다. 하지만 국운이 영영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성패(成敗)는 미리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⁴⁶⁵라고 말하고는, 몸소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하물며 사도(斯道)는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지지 않으리니, 국가의 흥망에 견줄 바가 아니다. 이른바 “하늘이 변하지 않으니, 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⁴⁶⁶ “천년이 되어도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항상 그러한 도의 이치이다.”⁴⁶⁷, “양(陽)에는 다하는 이치가 없다.”⁴⁶⁸ 등의 설은 천고의 격언이다.

도를 배운다는 선비가 어찌하여 믿음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성급히 스스로 억측하여 단정하는가? 이는 일세를 속이고 천하를 버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혹 이로 인하여 풀이 죽고 타성에 젖어 마침내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버리는 부류로 돌아갈까 저어되니,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과 시비를 따지고 다투지 않아야 함은 참으로 말한 바와 같다. 하지만 이는 다만 일이 자기 한 몸 에 관련된 것일 때 말이고, 부형(父兄)과 선사(先師)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자제와 문생 된 자로서 어찌 편안히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세교(世教)와 학술의 커다란 관건에 미쳐서는 더욱

465 성패(成敗)는 …… 아닙니다 : 제갈량의 〈후출사표(後出師表)〉에 나오는 말이다.

466 하늘이 …… 않는다 : 동중서(董仲舒)가 말하기를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오나니, 하늘이 변하지 않으면 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道之大原, 出於天, 天不變, 道亦不變。]” 라고 하였다.

467 천년이면 …… 이치이다 : “千秋必返 理(古)之常”이란 말이 순경(荀卿)의 말로 전하여 온 것 같다.

468 양(陽)에는 …… 없다 : 《주역(周易)》 박괘(剝卦)의 정전(程傳)에 “박괘는 모든 양이 다 떨어져 없어지고 유독 상구 일효만 남아 있어 마치 큰 과일 하나만 먹히지 않아서 장차 다시 생겨날 도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상구 일효 또한 변하면 순음으로 되어 버리긴 하지만, 양이 완전히 다 없어질 리는 없으므로, 위에서 변하면 아래서 생겨 잠시도 멈출 틈이 없는 것이다.[剝之爲卦, 諸陽消剝已盡, 獨有上九一爻尚存, 如碩大之果不見食, 將有復生之理, 上九亦變則純陰矣, 然陽無可盡之理, 變於上則生於下, 無間可容息也。]”라고 하였다.

입을 닫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맹자는 양주(楊朱)·묵적(墨翟)에 대해서, 주자는 육구연(陸九淵)⁴⁶⁹·진량(陳亮)⁴⁷⁰에 대해서 일찍이 ‘시비를 다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였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금일에 있어서는 ‘부강(富強)한 것이 윤리나 강상보다 중하다.’거나 ‘예수가 공자보다 성인이다.’라는 등의 일종의 괴이한 논의는, 우리가 마땅히 다투고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덕이 정립되지 못하고 식견이 투철하지 못하며 필력이 장대하지 못하면 우선 날카로움을 비축했다가 발휘해야 될 것이다. 대개 이 두 가지 조목은 네가 세상의 도에 절망하고 자기 편한 데 안주하여 큰 성취에 방해될까 염려되어 나도 모르게 말이 여기에 이르렀다. 헤아려서 주의하길 바란다.

함께 모여 사는 즐거움은 참으로 갑작스레 마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이 진실로 함께 모이면 몸이 하나로 모이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너와 내가 뜻을 두는 것은 선성(先聖)의 도이고, 힘쓰는 것은 선인(先人)의 가르침이며, 좋아하는 것은 경전(經傳)의 의리(義理)이고, 싫어하는 것은 세속의 더러움과 비루함이다. 빛깔 없는 아가위 꽃⁴⁷¹이 두 곳에서 서로 비추고, 소리 없는

469 육구연(陸九淵) : 1139~1192. 자는 자정(子靜), 호는 존재(存齋)·상산(象山)이다. ‘심즉리(心卽理)’ 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유교의 고전인 육경(六經)조차도 ‘내 마음의 주각(註脚)’이라 하여 주자와 대립하였다.

470 진량(陳亮) : 1143~1194. 자는 동보(同甫), 호는 용천선생(龍川先生)이며, 시호는 문毅(文毅)이다. 금(金)나라와의 화의(和議)를 강력히 반대하여 1183년 절교를 이끌어 낸 송나라의 학자 관료이다. 그는 주희와 친하면서도 학문적 지향은 달랐으니, ‘사공지학(事功之學)’을 주장하여 실제적인 공용(功用)과 효과를 중시하고 이학가(理學家)들의 ‘의리(義理)’를 실질이 없는 빈말이라고 비판하였다. 저서로 《용천문집(龍川文集)》·《용천사(龍川詞)》 등이 있다.

471 아가위 꽃 : 아가위 꽃은 《시경》〈상체(常棣)〉에 “아가위 꽃 그 꽃송

질 나발과 짓대⁴⁷²가 날마다 서로 화응하니, 그 함께 모임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만약 지상(志尙)은 길이 다르고, 호오(好惡)는 취향이 다르다면, 비록 탁자를 같이 하고 이불을 나란히 하여 밤낮으로 함께 한들 어찌 그 마음이 연(燕)나라와 월(越)나라처럼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며 천천히 도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기와 골육이 구렁에 나뉘구니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 더욱 싫습니다.”라는 말에서는 우려가 매우 깊고 천륜의 정이 지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사가 절박하고 뜻이 애상(哀傷)하니 어찌 하여 굳이 그리하는가? 무릇 몸이 구렁에 있음은 지사(志士)가 있지 않는 것이고, “하늘이 살리고 하늘이 죽인다.”⁴⁷³는 것은 달인(達人)의 말이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다소 유쾌해질 것이다. 또 옛 사람이 이르기를, “죽어서는 마땅히 아귀(餓鬼)가 되어야지, 다시 수귀(愁鬼)가 되어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⁴⁷⁴라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이치에 닿은 견해이다.

옛사람이 또 말하기를, “곤란이 극심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데

이 울긋불긋 아름답네. 오늘의 모든 사람 중에 형제보다 좋은 건 없네.[常棣之華，鄂不韡韡。凡今之人，莫如兄弟。]”라고 한 구절에서 나온 것으로, 우애 있는 형제를 가리킨다.

472 질나발과 짓대 : 서로 가락이 잘 맞는 두 개의 관악기로서 보통 형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시경》〈소아 하인사(何人斯)〉에 “형은 질 나발 불고, 아우는 피리 분다[伯氏吹塤，仲氏吹篳。]”라 하였다.

473 하늘이 …… 죽인다 : 《주자어류》 권132에 보인다. “어떤 이가 호방형(胡邦衡)이 신주(新州)에 17, 8년간 있어도 아무 탈 없는 것을 물었다. 선생이 말하기를, ‘하늘이 살리고 하늘이 죽이는 것이니, 도의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474 죽어서는 …… 된다 : 《송자대전》과 김규오(金奎五, 1729~1791)의 《최와집(最窩集)》에 따르면, 임숙영(任叔英, 1576~1623)이 유배지에 있을 때 어떤 이가 전혀 근심 어린 빛이 없는 까닭을 묻자, 답한 말이라 한다.

이르면,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슬기롭게 스스로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놓으라.”⁴⁷⁵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가 비록 곤궁함이 심하나 또한 앉아서 서책을 보고 학도를 지도하고 여력으로 조금이나마 집안을 다스려 여전히 먹고 입으며 죽지 않으니, 밭을 갈거나 샅일을 하거나 등짐을 지면서 자질구레한 재물을 얻어 입에 풀칠하는 자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로 헤아려 보면 한바탕 더욱 유쾌해질 것이다. 일전에 규모를 조금 바꾸어 조그만 사업을 경영하겠다고 말한 것은 너의 지상(志尙)으로 헤아려 보건대, 이것이 일시의 충동에서 일어난 것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털끝만큼의 생각이 라도 아직 마음속에 있다면 일찍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무릇 사농공상(士農工商)은 고루 네 갈래 신분의 백성이지만 청탁(淸濁)과 아속(雅俗)의 품격이 절로 다르다. 성인의 “채찍을 잡는다.”⁴⁷⁶는 말 역시 유래가 있는 말이지만 실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만 부귀는 결코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평소에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에 몸을 굽혀 나아가서 종신토록 좋아할 즐거움을 버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앞에 있어서 자신을 아는 데 밝은 것을 귀히 여긴다. 스스로 예전을 징험하고 장래를 헤아려 보면, 우리의 타고난 복과 심력이 과연 풍족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만 현재의 분수를 따

475 곤란이 …… 갖는다 :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에 초록된 《복수총서(福壽叢書)》라는 책의 질병을 물리치는 열 가지 방법 중 세 번째 “늘 나보다 못한 자를 생각하며 스스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와 흡사하다.

476 채찍을 잡는다 : 《논어》〈술이(述而)〉에 보이는 공자의 말이다. “만약 부가 추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지만, 만일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

라 살아감만 못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생활이 조금 풀린다면 참으로 싫지 않겠지만, 끝내 여기서 그치더라도 편안히 여길 뿐 다른 게 없다. 불행히도 구덩이 속 시체가 되어도 또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천명을 알며, 덕을 세우고, 자신을 이루는 도가 될 것이다. 어떠냐?

答季弟汝安 戊辰

見書，以行修未端，悔懊頗切。稱此以進，何德之不可立哉。至於近日，事事細節，時適偶爾。然不矜細行，終累大德，晷刻放之，千里其奔。其不可以細節適爾而不痛懲也，審矣。吾亦未斷此失，迄至于今，舍曰少壯，矧茲老大。今見所志，警發多矣。“人之齊聖，飲酒溫克。彼昏不知，壹醉日富。各敬爾儀，天命不又。”此古人兄弟相戒之詩，而實爲吾輩準備語也。今當以此詩作牲上載書，從茲至于蓋棺，誓不相犯焉，已矣。了此一事，他過之改，亦易得力。朱子所謂“一種向外走作，心悅之者，皆準止酒例絕之”者，可庶幾矣。如何如何？前書，以無有承當師學而鼓進後生者，謂“斯文之永晦、天道之無恃，從可知矣。”此非以無道必天下而棄之者乎？六朝五季數百年間，不見有承聖學而鼓進後學者。然卒至於有宋，諸賢倡明斯道，已事可驗也。且天下至廣，人生至衆，安知不有奮起一方，毅然任道者。而乃以目前一門之無人，而推斷而已，則不幾於盡欺一世之人乎？且天賦我以純粹至善之性，虛靈不昧之心，強壯正秀之形。若果一門一世之無人焉，則以我所稟之備善衆美，獨不可以當此任乎？夫以益州疲弊，劉禪闇弱，孔明非不知其無可如何。然而不曰：“國運永訖。”，但曰：“成敗非所逆觀。”，而自盡鞠躬盡瘁之力。而況斯道之極天罔墜，非比國之有興亡。若乃所謂“天不變，道亦不變。”、“千秋必返，道之常。”、“陽無可盡之理。”等說，千古之格言也。士之學道者，胡不信

及乎此，而遽自臆斷也。是則非惟欺一世、棄天下。恐或因此而沮喪偷墮，終歸於自欺自棄之科，可不省哉。不宜與人較爭是非，固如所喻。然此但以事涉一己者言，若有關於父兄、先師者，則爲子弟、門生者，豈可晏然無事而已。且若至於世教、學術之大關，則尤爲不容含默者。故孟子之於楊、墨、朱子之於陸、陳，曾不以不宜較爭是非已之。在今日則如“富強重於倫綱”、“耶穌聖於孔子”等一種怪論，吾輩在所當爭而不可已者也。但德未立，識未透，而筆力未壯，且可蓄銳而發之耳。蓋此二款，有慮汝之望絕世道，安於自便，有妨大就。故不覺言之至此，想諒加意也。團聚之樂，固難猝辦。然心苟團聚，則身不團聚，何病焉。彼此所志者，先聖之道；所勉者，先人之教；所好者，經傳義理；所惡者，世俗污陋。隔色棣花，兩地交暎，無聲填篋，逐日和相，其爲團聚，孰加於此。如使志尚殊途，好惡異趣，雖同卓聯被，以日以夜，安能掄其心之燕越哉？用是相慰而徐圖之，可也。“同氣骨肉，宛轉溝壑，益厭生世之樂。”之喻，可見憂慮之遠、倫情之至。然辭涉切迫，情犯哀傷，何必乃爾也。夫身在溝壑，志士不忘，天生天殺，達人言，思之到此，多少快活。且昔人云：“死當爲餓鬼，不宜復爲愁鬼，以一身供兩役。”此真理到之見。昔人又云：“到困極難勘處，常將不如我者，巧自寬解。”今吾輩雖窮甚，亦坐而看書，課學徒，餘力略些幹家，猶得喫著不死，其視耕田行傭負任而得零財糊口者，可謂遠勝。以此算來，更快一場。前以少變舊規經營些業見告。揆以汝之志尚，知是發於一時衝激，非由中而出也。然不免一毫念頭尚在裏許，則不如早早刷刷棄之也。夫士農工商，均爲四民，清濁雅俗，品格自殊。聖人“執鞭”，亦有爲之言，非出實際，特以明富之決不可求。則吾輩安可俯就平日不屑之業，分却終身所好之樂乎？人之有知，貴其自知甚明。試自驗前量來，吾輩之福分心力，果能豐足者乎？不如且隨現分活去。如得前頭稍紓，則固所

不厭。終止於斯而已，亦安之無他。不幸而至爲溝中瘠，又無如之何矣。此當爲安分、知命、立德、成身之道。如何如何？

계재 여안에게 답함 기사년(1929)

答季弟汝安 己巳

옛사람이 이른 것은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살면 살아도 죽은 것이고, 의로운 일을 하다 죽으면 죽어서도 사는 것’이 옛 사람의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단지 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의를 가슴에 안고 죽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 중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하여 지금까지도 능름히 생기가 있는 자가 어찌 세상과 자신이 합치되고 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가정과 국가의 일을 원만히 성취한 자 이겠느냐. 참으로 이와 같이 실의에 빠져서, 죽은 후에야 그칠 원대한 도에 도달할 수 없을까 두렵구나. 경계하고 경계하여라.

答季弟汝安 己巳

古人所云 異乎吾所聞。“不義而生，生而死；義而死，死而生。”非古人意乎？吾人只求抱義而生，抱義而死，不愧乎心。而古人之成仁取義，至今凜然有生氣者，豈是世與吾合，運自天來，成就得家國事圓滿者乎？誠恐若此隕穫，無以到達得死而後已之遠道矣。戒之戒之。

계제 여안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季弟汝安 庚午

근래 공방형(孔方兄 엽전)을 대면하지 못한 지 40일 남짓 되었다. 상의(上衣)를 바꾸는 것도 여전히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한번 찾아가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 궁색함으로 네가 더 심할 줄 알겠다. 아, 사람의 일생이 눈 깜짝할 사이 같구나. 그 사이 고생스런 삶에 대한 근심으로 이처럼 괴로우니 또한 슬프구나.

비록 그렇지만 금옥(金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충신(忠信)을 보배로 여기며, 토지를 바라지 않고 입의(立義)를 토지로 여기고, 재물을 많이 쌓기를 바라지 않고 글이 많은 것을 부자로 여기는 것이 유학자의 일이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순간이나, 순간이 아닌 것이 그 사이에 늘 있어 이것이 사람 마음을 아주 굳세게 한다. 만약 이 한 가지 일이 없고, 그저 금옥도 없고 토지도 없는 괴로움만 있다면 평생 순간의 슬픔이 장차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현재 깊이 생각할 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與季弟汝安 庚午

近不與孔方兄對面者，爲四十日餘。改造上衣，尙此未易。所以欲一進而未果者，此爾。以吾之見窘，知汝之尤甚也。噫，人之一生，若瞬息也。其間乃以艱生之憂，辛苦若此，亦足悲夫。雖然，不寶金玉，而忠信以爲寶；不祈土地，立義以爲土地；不祈多積，多文以爲富，儒者事也。其見艱苦者，眞瞬息，而不瞬息者，長存乎其間，是爲頗強人意。如無此一著，而徒有無金玉無土地之苦，則一生瞬息之悲，將無有窮期也。此非吾儕目下一副深思處乎！

계제 여안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季弟汝安 庚午

보내온 편지에 괴로운 상황은 반도 못 읽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비 오듯 하는구나. 비록 그렇지만 천하의 일이란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최근 한두 가지 목격한 일로 보면 괴로움이 되돌아 즐거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구나. 한번 들어 보거라. 어떤 사람은 억척스럽게 이익을 도모하여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거두면서 은혜와 원한이 교차하고,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와 자고 먹는 것을 제 때 못하면서, 겨우 터전과 재산을 일궈지만 도적이 집으로 들어와 칼날이 몸에 닿으니, 그것을 면한 사람은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돈 쓰는 것을 금하다가 독살을 당하거나 자식을 명토(名土)로 옮겼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그 망하지 않은 것은 재물이지만, 그 집안은 망하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 없고 가난하게 하였다면, 어찌 이런 근심에 이르렀겠느냐. 우리들이 비록 가난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안에 앉아서 글을 보고 있으니 가령 구덩이에 빠져 죽더라도 저들이 칼날과 독으로써 하는 것에 비하면 또한 복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곧바로 스스로 행복하여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어떠냐? “변복(變服)은 변형(變形)의 조짐이다.”고 논한 것은 옳다. 흑자는 치의(緇衣)·고구(羔裘)를 끌어들이고 우리나라는 푸른색을 숭상하여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잠꼬대라고 이를 만하다. 저들은 이미 예의를 썩은 흙덩이로 여기는데 우리는 다행히 옛 옷을 입고 있고, 저들이 이미 강토(疆土)를 빼앗았는데도 우리는 나라를 아끼고 있다. 가족이 남아 있지 않고서 털을 어

떻게 전하겠느냐. 그 푸른 것이 장차 검어지고, 검은 것은 장차 자
 를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처음부터 변복령에 복종하면 끝내
 도망하여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근래 절구 시 하나에 뜻을 드러내
 어 지어보았다.

| | |
|------------------------------|---------|
| 기재(箕子)가 동쪽으로 온 지 몇 천 년이 되었는가 | 殷師東來幾千年 |
| 흰 옷을 숭상하는 유풍이 오늘까지 전해졌네 | 尙白遺風此日傳 |
| 하물며 우리 상을 당한 자손들이 | 矧我孤哀當室子 |
| 차마 검은 옷을 몸에 입을 수 있겠는가 | 忍將黑服著身邊 |

저들에게 할 답을 갖춘 셈이니 깊은 말은 하지 않고 우선 여기까
 지 만하겠다.

答季弟汝安 庚午

來章艱苦之狀，讀之未半，不覺淚雨。雖然，天下事有乘除。以近日
 一二目擊事觀之，有可以回苦作樂者矣。試聽之，有人矻矻孜孜，以
 利爲謀，春散秋斂，恩怨交至。晨出夕歸，寢食失時，僅得基業，而
 暴客入室，白刃逼身，其得免者，幸也。有人禁子用錢，幾遭其所毒，
 移子名土，又遭其所訴。雖其不亡者財，而其家則不可謂不亡矣。使
 二人者無財而貧，豈至此患乎？吾儕雖云艱窶，尙得坐屋裏看文字，
 即使有填壑而死，視彼以刃以毒者，亦不爲福乎？念之至此，卽可以
 自幸而不以爲戚也。如何如何？“變服爲變形之兆。”所論，是矣。或
 者引緇衣羔裘，我國尙青而爲無傷，可謂夢囈語也。彼旣糞壤禮義，
 我幸其爲古衣；彼旣奪取疆土，我愛其爲國尙。則皮之不存，毛將安
 傳？其青者將黑，黑者將薙，吾無疑也。始服其令，終其逃脫乎！近
 有一絕詩，見志曰：“殷師東來幾千年，尙白遺風此日傳。矧我孤哀
 當室子，忍將黑服著身邊。”爲備答彼，故不欲深言，而姑及此耳。

계제 여안에게 보냄 신미년(1931)

與季弟汝安 辛未

형관(炯觀)의 혼사가 여태 정해지지 않아 아마 듣고서 불쌍히 여기리라 생각된다. 대개 “가난이 문등병보다 추하다.”고 옛 속담에 말하였고, ‘구학문(舊學問)은 부패했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공론이다. 이 두 가지를 겸하였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코를 막고서 달아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이에 도리어 가리고 분별하는 바가 있으니 말하자면, “나에게는 세 가지 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같은 성씨, 기년복(基年服) 이상의 상(喪)을 당한 이, 부조(父祖)가 몸을 훼손한 이는 마땅히 맞지 않아 합치되기 어렵다.”이다.

나를 힐난하는 이가 말하기를, “본관이 다르고 성이 같은 혼인은 나라의 풍속에 유래가 오래되었고, 선현도 이를 면하지 못하였소. 거상(居喪) 중에 혼인하는 것은 학문에 독실하고 덕이 훌륭한 사람들도 근래에 많이 행할 뿐만 아니라, 저쪽에 상제(喪制)가 있는 것은 절로 저쪽 일에 속하지, 그대가 어찌 거기에 관련이 있소. 부조(父祖)가 몸을 훼손한 것은 대성(大姓)과 거족(巨族) 중에는 거의 집집마다 있는 것이오. 그대는 후생으로 학문이 남보다 아래고 친족도 번성하지 못하면서 구구히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서 굽히지 않으니, 심하오, 그대가 시국에 우월하여 일을 그르침이여!”라고 하였다.

이는 공리(功利)로 말한 것이지 도의(道義)의 논의는 아니다. 같은 성씨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변하지 않는 도(天經)에서 비롯되고, 성인의 가르침에 확립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선 왕조에서 법으로 금한 것이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여기는 것은 고려의 풍속이 흘러 전해온 때문인데 선현이 면하지 못한 것은 심력

이 미치지 못해서이다. 선비의 입신(立身)과 행기(行己)는 절로 정격(定格)이 있으니, 어찌 전례의 미진한 것으로 준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상례 중에 시집이나 장가가는 것은 《소학》에서 엄밀히 따지고⁴⁷⁷, 《가례》에서 분명히 금하였다.⁴⁷⁸ 요즘 학문하는 집안마저 무릅쓰고 행하니 의(義)를 팽개치고 도(道)를 어김이 심한 것은 애초에 말할 수도 없다. 저쪽에서 예를 범하는 것은 비록 저쪽 일에 속하지만, 우리가 그와 더불어 혼인하면 우리가 저쪽의 죄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몸의 훼손 여부는 화(華)·이(夷)의 큰 경계(境界)이다. 천하가 어지러워 더 이상 제한이 없음은 내 힘으로 구원할 바가 아니나, 오직 나는 자손이 화(華)를 지키길 바라는 것이다. 먼저 오랑캐 모습 취한 이가 존귀한 장인과 친밀한 시아버지가 된다면, 비단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찌 자식에게서 중정(中正)함을 빼앗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 가지 관문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與季弟汝安 辛未

觀兒婚事，尙此未定，想聞之憫然也。蓋“貧醜於癩。”，古諺云然。舊學腐敗，今世公論。兼此二者，人之見我，將掩鼻而走也。我乃反

477 상례 …… 따지고 : 《소학》〈명륜(明倫)〉에 “여자는 다섯 가지 취하지 않음이 있다. 역적 집안 자식은 취하지 않는다. 어지러운 집안 자식은 취하지 않는다. 대대로 형벌을 받은 이가 있으면 취하지 않는다. 대대로 나쁜 질병이 있으면 취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장자를 잃었으면 취하지 않는다[女有五不取。逆家子，不取：亂家子，不取：世有刑人，不取：世有惡疾，不取：喪父長子，不取。]”라는 구절이 보인다.

478 《가례》에서 …… 금하였다 : 《가례》〈혼례(昏禮)〉에 “본인과 혼례를 주관하는 이가 기복제 이상의 상제가 없으면 혼례를 할 수 있다.[身及主昏者，無葦以上喪，乃可成昏。]”라는 구절이 보인다.

有所揀別，而曰：“吾有三不取。同姓也，有葦以上喪也，父祖毀形也，宜乎其戛戛而難合也。”有譏余者曰：“貫異姓同之昏，國俗尙矣，先賢亦不免焉。乘喪而昏，不惟篤學長德，近多行之，彼之有喪，自屬彼事，子何與焉？至於父祖毀形，大姓巨族之殆乎家家有者也。子以後生，學出人下，族又不盛，區區守此三關而不撓，甚矣，子之迂局敗事也！”此就功利上說，非道義之論也。不取同姓，出於天經，而立於聖教，亦粵我先王朝法禁也。國人之滔滔，因麗俗之流傳，先賢之不免，是心力之不及。士子立身、行己，自有正格，豈可以前例之未盡者爲準乎？喪中嫁娶，嚴討於《小學》之書，明禁於《家禮》之篇。近日學家之冒行，棄義悖道之甚者，初不可說。彼之犯禮，雖屬彼事，我與之昏，則我成彼罪，亦不敢爲也。形之毀否，華夷大防。天下淪胥，無復制限，非吾力之所掄，惟是我欲子之守華也。而先取夷形者，作其丈人之尊、半父之親，非惟吾心之不安，亦豈不奪中於子乎？此三關者，決不可得以踰也。

계제 여안에게 보냄 갑술년(1934)

與季弟汝安 甲戌

자유(子由)가 초 3일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도를 구하는 간절함과 학문을 하는 근실(勤實)함, 이는 근래 노소(老少)중에서 비할 데가 없을 게다. 어찌 그 경쾌한 발굽이 한껏 내달리다가 중도에 넘어지고, 아름다운 곡식이 이미 이삭을 틔우고도 열매를 맺지 못할 줄 생각이나 했겠느냐. 애석하고 애석하구나.

7월 중 그 아이가 나를 보러 이곳에 왔었는데 내가 너의 병을

간호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네가 불행히도 학문을 달성하지 못할까 몹시 걱정하고 우려하며 돌아갔단다. 아직 몇 십일도 되지 않아 그 아이가 이렇게 되다니, 사람일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해보면 성인이 수(壽)를 오복(五福)의 으뜸에 둔 것이 어찌 평생 배부르고 편안한 것을 취한 것이겠느냐. 대개 그 덕업을 다하고 사람의 분수를 다 채우고자 한 것이다. 유호덕(攸好德 덕을 지키기를 좋아한다)⁴⁷⁹과 고종명(考終命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음)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안자가 장수하지 못하여 세상을 교화하지 못한 것이 천고의 한(恨) 가운데 하나란다.

지난번 너의 병은 필시 불행이라고 이를 만하였는데 마침내 무사하였다. 이는 어찌 하늘이 너를 오래 살게 하여 뜻과 소원을 달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름지기 ‘하늘이 나를 이처럼 아끼는데도 내가 만약 저버리면 참으로 사람이 아님’을 항상 생각하여라. 또 ‘내가 만약 그때 자유처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면 어찌겠는가?’를 항상 생각하여라. 환난 속에서 백절불굴(百折不屈)하고 고난 속에서 십배면려(十倍勉勵)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 옳을 것이다.

與季弟汝安 甲戌

子由以初三日，不幸長逝矣。念渠求道之切，爲學之勤，此近老少無與爲比。豈意其快蹄方馳而中倒，嘉穀既秀而不實？惜哉！惜哉！七月中，渠爲見余來此，聞余往救汝病，恐汝不幸而未究其學，深致憂

479 유호덕(攸好德)과 고종명(考終命) : 《서경》〈홍범〉에, “오복은 첫 번째는 장수이고 두 번째는 부이며 세 번째는 강녕이고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함이며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다.[五福，一曰“壽”，二曰“富”，三曰“康寧”，四曰“攸好德”，五曰“考終命”。]” 하였다.

慮而歸。曾未幾旬，渠乃至此，人事誠不可測。因思聖人居壽於五福之首者，豈取其飽安終身哉？蓋欲其造極德業充盡人分也。觀於攸好德考終命，其意可知。所以顏子無壽而未化，爲千古一恨。向日汝病，可謂必無幸矣。而竟得無事。安知非天欲壽汝而俾究志願耶？須常思“天愛我若此，而我若靠負，眞非人也。又常思‘我若當時溘然若子由者，奈如之何？’”百折不回於顛沛之際，十倍加勉於艱難之中，至可至可。

계제 여안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季弟汝安 戊寅

이렇게 단발(斷髮) 풍조가 한창 성행하여 필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구나. 몇 년 전부터 늘 산에 들어가 생을 마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비록 늦었지만 또한 실행할 수 있다.

변산(邊山)은 후미진 곳인데다 또 화도(華島)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거의 선사(先師)의 유풍을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면려하여 실추시키는 데 이르지 않을 게다. 다만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것이 꺼림칙한데 종족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묻고 듣는 것이 편치 않구나. 오직 첩첩 지리산이 가장 좋지만 또 너무 낮설구나. 두 산 중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다. 만약 지리산이 괜찮으면 올 겨울에 우선 풍곡재(風谷齋)⁴⁸⁰에서 머무르며 조짐을 살피려한다. 모름지

480 풍곡재(風谷齋) : 풍곡재는 재간당(在澗堂) 김화(金澣)의 재실로 남원 운봉 근처에 위치한다. 김택술의 「두류산유록(頭流山遊錄)」에 따르면 김택술은 1934년 3월 19일~4월 7일에 지리산을 유람하였으며 3월 27일 풍곡재를 방문하였다.

기 세세히 상량해보고 그 방편을 헤아려 알려주어라. 단발 풍조는 이곳 군(郡)이 심하고, 이곳 면(面)은 더욱 심하다. 형관(炯觀)이는 일을 마친 후 잠시 목동(木洞)과 내기(內基)⁴⁸¹ 등지에 머물며 형세를 살피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與季弟汝安 戊寅

見此薙風方盛，必不但已。前此幾年，常欲入山終身而未果。今雖晚矣，亦可行也。邊山旣是一隅，且與華島相望。正宜想先師遺風而策勵身心，庶不至頽墮。但尙嫌淺近，而宗族知舊問聞不絕，亦不穩便。惟萬壘智異之山最好，而又太生疏。未知二山何者爲得。如以智異爲優，則欲於今冬，先住風谷齋以爲之兆耳。須細入思議，量其方便而示之也。此風此郡爲甚，此面又爲尤。觀兒令了役後，姑留木洞內基等地，觀勢歸家如何？

계제 여안에게 보냄 을유년(1945)

與季弟汝安 乙酉

춘우(春雨) 김장(金丈)의 향사(鄉祠)는 왜변(倭變) 때 절의를 세운 현인을 위해 왜구가 물러간 뒤에 세웠으니 대저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느냐! 얼핏 듣건대, 너는 “내가 요청에 응하여 간 것을 일찍이 계양(繼陽)⁴⁸²에 불참한 뜻과 어긋난다.”고 하였다니 이는

481 목동(木洞)과 내기(內基) : 지리산 아래 남원에서 운봉(雲峯) 넘어가는 고개 여원치(女院峙) 아래 있는 마을이다. 김택술의 「두류산유록(頭流山遊錄)」에 따르면, 김택술이 풍곡재를 방문하면서 지나갔다.

482 계양(繼陽) : 간재(良齋) 전우(田愚)가 계화도(繼華島)에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한 강당 이름이다. 여기서 계양은 간재의 향사를 이른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무릇 중(中)은 일정한 체(體)가 없고 때에 따라 있는 것이다.⁴⁸³ 저쪽은 나라가 없을 때이니 요행히 그 금법도 없다는 혐의가 있고, 이쪽은 나라가 이미 광복된 때이니 예전 금법의 유무를 추론할 필요가 없다. 비록 그렇지만 계화(繼華)⁴⁸⁴에 불참한 것은 어찌 다만 때로써 그만두었겠는가. 그 스승을 모함하는 무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전혀 안 될 일이기에 발을 들여놓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는 너 또한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與季弟汝安 乙酉

春雨金丈鄉祠，爲立節倭變之賢，設於倭讎退逐之後，夫誰曰“不可。”？似聞汝以余應請而往，爲戾曾不參繼陽之義，其未之思也。夫中無定體，隨時而在。彼則在無國之時，而有幸其無禁之嫌，此則在邦國既復之時，而舊禁有無，不必追論也。雖然，繼華之不參，豈但以時已哉？其與陷師者輩同事，爲不可之大者，而尤難涉跡。此非汝亦所已知者耶？

삼종제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三從弟 丙子

옛날 말에 이르기를 “엮어진 등지에는 온전한 알이 없다.”⁴⁸⁵고

보인다.

483 무릇 …… 것이다 : 《중용장구》 제2장의 시중(時中)에 대한 주희(朱熹)의 해설에 나오는 말이다.

484 계화(繼華) : 간재가 계화도에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여기서 계화는 간재의 향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485 엮어진 …… 없다 : 한(漢) 나라 공융(孔融)이 사형을 당할 때 8세와 9세 된 두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 주기를 원했는데, 이때 두 아들이

하였다. 한 번 나라가 망하고부터 슬프게도 우리 백성이 죽을 날이 머지않으니, 이치와 형세가 그러하다. 비록 그렇다 해도 어려움을 먼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날 먼저 우리 가문부터 이산(離散)의 난을 당할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느냐? 봄에 네가 만주로 들어갈 때 나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전송하며 잊지 못하는 정 때문에 목이 메었다.

이제 만 리 밖에서 안부 편지를 받으니 희비가 엇갈려 뭐라 할 말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아, 남을 도울 힘이 없기에 가까운 친척의 이산을 앉아서 보고만 있자니 이미 견디기 어렵구나. 낯선 강산과 어렵고 힘든 생계에 생각이 미치면 너의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그려 볼 수 있구나. 다만 땅이 넓고 비옥하여 풍요롭고 배부를 희망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다만 또 생각건대, 옛사람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뽕나무 활고자를 매달고 쑥대로 만든 화살을 쏘아, 뜻이 사방에 있음을 보였다.⁴⁸⁶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넓은 하늘 아래에 삶에 어디인들 안 되겠는가. 이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하면 회포를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땅이 비옥하고 음식이 풍족한 즐거움으로 또한 족히 만나는 곳에 따라 편안한 것임에랴?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너의 정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노친께서 집에 계시고, 밤낮으로 그리워하시니, 예(禮)에 부

“부서진 둥지 아래 다시 온전한 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大人豈見覆巢之下，復有完卵乎?]”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言語》
 486 옛사람은 …… 보였다 : 옛날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쑥대로 화살을 만들어 천지 사방으로 쏘면서 장차 이처럼 웅비(雄飛)할 것을 기대했던 풍습이 있었다. 《예기(禮記)》〈내칙(內則)〉에 “나라의 임금이 세자를 낳으면 사인(射人)이 뽕나무로 만든 활로 쑥대로 만든 화살 여섯 개를 천지 사방으로 쏘았다.[國君世子生，射人以桑弧蓬矢六，射天地四方。]”는 구절이 보인다.

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나다니는 것도 오히려 하지 않거늘⁴⁸⁷ 하물며 처자를 거느리고서 멀리서 살 수 있겠는가? “차라리 건업(建業)의 물을 마실지언정 무창(武昌)의 물고기를 먹지 않고, 차라리 건업으로 돌아가 죽을지언정 무창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⁴⁸⁸는 것은 고향 땅을 몹시 그리워한 이의 말이다. 하물며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땅에 대해서이겠는가? 몇 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여 약간의 재물을 얻으면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나의 곤궁한 처지는 네가 이역에서 겪는 고생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 족히 말할 것이 없다. 다만 문중의 여러 집안이 하나하나 두루 편안한 것이 다행이다. 멀리서 너무 염려치 말거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소리 없는 데서 듣고, 형체 없는 데서 본다.”⁴⁸⁹고 하였다. 이는 본시 먼저 마음으로 뜻을 받들어, 부모의 목소리나 형체를 기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슬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는 더욱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한다.

《논어》에 이르기를, “부모는 오직 그 병을 걱정한다.”⁴⁹⁰고 하였

487 부모가 …… 않거늘 : 《논어》〈이인(里仁)〉에 “부모가 계실 때에는 멀리 나가서 노닐지 말 것이요, 나가서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처소가 있어야 한다.[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라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488 차라리 …… 않겠다. : 삼국 시대 오(吳)나라의 손호(孫皓)가 도읍을 건업(建業)에서 무창으로 옮기자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여 원망이 높았다. 이에 육개(陸凱)가 “차라리 건업의 물을 마실지언정, 무창의 물고기는 먹지 않겠네. 차라리 건업으로 돌아가 죽을지언정, 무창에 머물러 살지 않겠네.[寧飲建業水, 不食武昌魚 : 寧選建業死, 不止武昌居.]”라는 민간의 동요를 들어 상소한 일이 있다. 《三國志 卷61 吳書 陸凱傳》

489 소리 …… 본다 : 《예기》〈곡례 상(曲禮上)〉에 나오는 내용으로, 직접 보고 듣지 않더라도 부모의 의도를 먼저 헤아려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490 부모는 …… 걱정한다 : 《논어》〈위정(爲政)〉에서 맹무백(孟武伯)이 효에 관해 묻자, 공자가 한 말이다.

다. 대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르지 않는 데가 없지만, 오직 그 질병을 늘 근심한다. 너는 다른 나라에서 충신(忠信)을 말하고, 독경(篤敬)을 행하는 것 이외에, 병이 있으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것을 가장 엄두에 두어라. 행로가 위험할 때에는 방비를 단단히 하고, 풍토가 맞지 않으면 섭생에 신중을 기하여라. 비록 만 리 밖에 있지만, 부모의 목소리와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듣듯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장의 의무니 절대 소홀히 하지 말거라.

答三從弟 丙子

古語云：“覆巢，無完卵。”一自國亡，哀我民生，死亡無日，理勢然也。雖然，難不欲先當，人之情也，豈意今者先自吾門，當離散之難哉？春間，君之入滿也，吾以淚眼送之，不忘之情，如物在喉。今得萬里外安信，悲喜交集，無以云喻。吾赤貧爲生，無力及人，坐見至親之離散，既所難堪。念及生面江山、間關營生，則君之難堪，又可想也。但地廣而肥沃，豐飽有望云，是可幸也。第又念之，古之人，男子生，懸以桑弧，射以蓬矢，以示志在四方。然則人之生，居廣天之下，何所不可。以此寬譬，可以忘懷。況土肥食豐之樂，亦足以隨遇而安者乎？此則然矣，又論以君之情，則有不然者。老親在堂，日夜以思，在禮，父母存者，遠遊尙不爲，況率妻子遠居乎？“寧飲建業水，不食武昌魚；寧還建業死，不止武昌居。”，甚懷故土者之言。況於父母在之故土乎？惟望數年勤勞，略得物力，亟捲而歸焉耳。吾之窮途狀況，與君之殊方辛酸，不甚遠，無足言。惟以門內諸家一一均安爲幸。勿勞遠念也。《記》曰：“聽於無聲，視於無形。”此本以先意承志，不待父母之聲形者言。然遠離膝下者，尤當深省也。《論語》曰：“父母唯其疾之憂。”蓋父母愛子之心，無所不至，惟以其疾病，

常以爲憂。君在他邦，言忠信、行篤敬以外，最以有疾貽親憂爲念。行路危險之際，極其防慮；水土不服之中，極其慎攝。雖在萬里之外，如視聽父母之聲形於目前，是爲當下義務，十分毋忽。

형복에게 부침 병진년(1916)

寄炯復 丙辰

벼는 참새를 쫓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란다. 일을 맡아 대응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실지다. 이미 그 일에 대응할 적에는 그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다하는 것이 또한 학문에 실로 힘을 얻는 방법이다. 진대사(陳大士)는 농사를 지으며 시를 읊어⁴⁹¹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단다. 조문열공(趙文烈公)⁴⁹²은 고기 잡고 나무 하며 글을 읽어 문묘에 배향되었지. 이것이 모두 옛사람의 뛰어난 심력(心力)이다. 너의 나약한 근간과 유약한 뜻으로 비록 여기까지 바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늘 스스로 용기를 내어 고인의 발자취 중 만분의 일이라도 뒤따르기를 어찌 감히 잊겠느냐. 모름지기 일에 응하는 여가로 조금이라도 학업을 정하여 자세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손을 빌릴 곳이 있으면 네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여라.

네 아우 또한 조금이라도 일과(日課)를 주어 풀어놓은 돼지가 되

491 진대사(陳大士) : 명나라 진제태(陳際泰, 1567~1641)이다. 대사(大士)는 자이다. 호는 방성(方城)이다.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가 농사 일을 시키면 책을 몸에 끼고 다니며 읽었다. 《明史》卷288 列傳 第176 文苑4

492 조문열공(趙文烈公) : 조헌(趙憲, 1544~1592)의 시호이다. 본관은 백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울(後栗)이다. 경기도 김포 출생이다. 아버지는 조응지(趙應祉)이다. 이이(李珣)·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 현자가 이르길 “독서는 가문을 일으키는 근본이다.”⁴⁹³고 하였으니 훌륭하다, 그 말이여! 무릇 사람의 집안에 문자가 한 번 끊어지면, 비록 금과 비단이 산처럼 쌓이고 자손이 별떼처럼 흥하여도 그 적막하여 떨치지 못함은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이니 한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 집안에는 모름지기 다스리는 기강이 있어야 천지가 뒤집히는 데에 이르지 않는 법이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의 계부(季父)가 곧 한 집안의 주인이다. 남녀노소 모두 오직 그 지시를 따라야 하거늘 하물며 너는 어떻겠느냐.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형제의 아들은 내 아들과 같이 본다.”⁴⁹⁴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형제 또한 당연히 자기 아버지와 같단다. 네가 집에 있는 날에는 한마디 말 한 가지 일에 있어 털끝만큼도 명을 어기지 말거라.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寄炯復 丙辰

稻曰驅雀，係不得已。當事而應，自是學問實地。既應其事，則盡其應事之方，又是學問實得力處也。陳大士服田而哦詩，名聞天下；趙文烈漁樵而讀書，升祀聖廡。此皆古人絕倫之心力。汝之弱幹脆志，雖不敢以此爲望，然常自賈勇追古人步武之萬一，安敢忘也？須於應

493 독서 …… 근본이다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화순(和順)은 제가(齊家)의 근본이요, 근검(勤儉)은 치가(治家)의 근본이며, 독서(讀書)는 기가(起家)의 근본이요, 순리(順理)는 보가(保家)의 근본이다.[朱子曰：和順齊家之本，勤儉治家之本，讀書起家之本，循理保家之本。]”라고 하였다.

494 형제의 …… 본다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상복에 있어서 형제의 아들 즉 조카에 대한 복을 내 아들과 같이 한 것은 대체로 끌어당겨 올린 것이고, 수속의 사이에 복이 없는 것은 대체로 밀어내서 멀리 한 것이다.[喪服，兄弟之子猶子也，蓋引而進之也，嫂叔之無服也，蓋推而遠之也。]”라는 말이 나온다.

事之暇，少定課業，靜思劇讀，俾有藉手見乃父。汝弟亦少授日課，無至爲放豚，可也。昔賢云：“讀書，起家之本。”，旨哉，言乎！凡人門戶，文字一絕，雖金帛山積，子姓蜂興，其蕭索不振，莫此爲甚，可不寒心哉！一家之內，須有統紀，不至天翻地覆。吾既在此，則汝之季父，乃一家之主。內外少長，惟其指使是從，況在於汝乎？禮曰：“兄弟之子，視之若吾子。”此既然矣，則父之兄弟，亦當視之猶吾父。汝於在家之日，一言一事，毫勿違命也。若不如此，非所以敬汝父也。

형복에게 부침

寄炯復

네가 돌아간 지 이제 십일 남짓 되었구나. 몇 가지 허물을 고치고 몇 가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듣기로 효자는 밝은 대낮이라 하여 절도(節度)를 펴고 어두운 밤길이라 하여 행실을 태만히 하지 않는다더구나. 네가 만약 내 곁을 떠났다고 그 행실을 태만히 한다면, 어찌 다만 효도를 하지 못할 뿐이겠느냐. 장차 패역한 자식으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네가 바로 지금 마땅히 면려해야 할 것을 조목조목 적어 보내니, 이를 보고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아 병자가 낫기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노력하되, 배부른 이가 밥을 대하는 것같이 등한히 하지 말거라. 만약 이를 믿지 않는다면 평생을 그르치니 마땅히 깊이 염두에 두어라.

첫째,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식이 부모를 섬길 적에 비록 집안에 두 높은 분이 없다는 의(義)로써 아버지를 먼저 하고 어머니를 뒤로 하지만, 그 존경하는 마음은 어찌 차별을 두는 이치가 있겠는

가. 내가 여염의 자식을 보건대, 아이가 젓 먹이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친압(親狎)하여 자라서도 이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어, 부름에 답하거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기 아버지에게 감히 이르지 못하는 것을 곧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으며, 점점 그 명을 어기고, 그 좋아하는 바를 거슬러 불효에 크게 빠진 뒤에야 그친다. 이는 다른 게 아니라 모범을 듣고 보지 못하여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너는 비록 여항에서 자랐고 나이 또한 어리지만, 읽은 것은 성현의 말씀이고 공경히 법식으로 삼은 것은 사우(師友)의 가르침이다. 그러니 가정에서 행하는 바가 혹시 여항의 자식이 하는 바를 면하지 못한다면, 이는 크게 경계할 만하다. 속담에 말하기를, “세 살 때 잘못된 버릇은 여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다. 어찌 일찍 도모하지 않겠느냐!

둘째, 교유에 신중하라. 무릇 사람의 삶은 선과 악이 일정하지 않다. 선한 사람을 따라 사귀면 선으로 나아가고, 악한 사람을 따라 사귀면 악으로 나아간다. 비유하면 물건 중에서 흰 것이 붉은데 물들면 붉어지고, 옷칠에 물들면 검어지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맹자는 타고난 아성(亞聖)이었음에도 무덤과 저자 가까이에서 따라 노닐 때는 무덤 만들고 장사하는 허물을 면하지 못하다가, 학궁(學宮) 옆으로 이사한 뒤에야 읍양(揖讓)하는 모습을 익혔다.⁴⁹⁵ 자천(子賤)은 탁월한 자질이 아니었지만 노(魯) 나라의 군자에게서 선(善)을 취하였고,⁴⁹⁶ 호향(互鄉) 또한 인륜을 지키는 사람

495 맹자는 …… 익혔다 :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고사가 실려 있는데, 무덤 근처에 집을 정하자 맹자가 매장하는 놀이를 하고, 시장 가까이 집을 정하자 맹자가 장사하는 놀이를 했으므로 결국 학교 가까이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496 자천(子賤) …… 취하였고 : 《논어》〈공야장(公冶長)〉에, 공자(孔子)가 자천(子賤)을 두고 평하면서 “군자답다, 이 사람이여! 노나라에 군자가

들이었으나, 나쁜 것을 익혀 더불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해졌다.⁴⁹⁷ 이로 말미암아 보면 교유에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린 나이로 교유가 넓지 않아 이로운 벗 세 사람과 해로운 벗 세 사람⁴⁹⁸은 비록 다 갖추어 논하지 못하나, 또한 마을 도래 중에서 행실이 단정하고 배움이 기민한 이를 택하여 교유하여라. 만일 들뜨고 조급하며 방만한 이를 보거든 몸을 돌려 멀리하여라. 입으로 비속하고 외설스런 말을 하고 손으로 도박을 하는 이는 곧 잡된 부류와 패역한 무리이다. 만일 한 번 그 속에 발을 들이면 몸은 재앙을 만나고 집안은 패망할지니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셋째, 위 의(威儀)를 중후하게 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학문이 견고하지 못하다.”고 하셨다.⁴⁹⁹ 여형공(呂縈公)⁵⁰⁰이 말하기를 “응대하는 말이나, 행동거지의 경중은 귀천(貴賤)과 수요(壽夭)가 이로부터 나누어진다.”⁵⁰¹라고 하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덕을 취했겠는가?[君子哉, 若人! 魯無君子者, 斯焉取斯?]"라고 하였다.

497 호향(互鄉) …… 악해졌다 : 호향은 춘추(春秋) 시대의 한 고을 이름이다. 풍속이 나빠서 그 고을 사람과는 함께 선(善)을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고을 동자가 공자의 덕에 감화되어 찾아가자 공자가 그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論語 述而》

498 이로운 …… 사람 : 《논어》〈계씨(季氏)〉에 “유익한 것이 세 종류의 벗이고 손해되는 것이 세 종류의 벗이다. 정직한 벗, 성실한 벗, 견문이 많은 벗은 유익하고, 한 가지에만 익숙한 벗, 아첨을 잘하는 벗, 말을 잘하는 벗은 손해된다.[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友諒、友多聞, 益矣. 友便辟、友善柔、友便佞, 損矣.]”라고 하였다.

499 공자께서 …… 하셨다 : 《논어》〈학이(學而)〉에 나온다.

500 여형공(呂縈公) : 여형공은 송나라 학자인 여희철(呂希哲)의 봉호로, 자는 원명(原明)이고 여공저(呂公著)의 아들이다. 어려서는 손복(孫復)·호원(胡瑗) 등에게 종학하였고 나중에는 이정(二程)과 장재(張載)에게 수학하였다.

501 응대하는 …… 나누어진다 : 《소학》〈가언(嘉言)〉에 여형공이 말하기를 “후생으로 처음 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기상을 알아야 한다. 기상이

다. 그러나 위의를 경중은 비단 이 학문 성패의 기틀일 뿐 아니라 또한 종신토록 길흉의 부적(符籍)이다. 너의 자질과 바탕이 섬약하여 이미 남에게 경시를 당하는데 하물며 거동마저 예로써 하지 않는 게 많다면, 학문을 성취하는 것과 스스로 길(吉)과 복(福)을 구하는 것은 나는 어려울 것이라 안다. 지금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다만 구용(九容)⁵⁰²으로 자신의 계책으로 삼아라. 옛사람이 이르되, “구용이 근엄치 않으면 이는 몸이 없는 것이다.”⁵⁰³라고 하였으니, 훌륭하구나, 이 말이여!

넷째, 도량을 넓혀라.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의 도량을 넓고 크게 해야 남의 선(善)을 수용하여 자기의 모자란 것을 보완하고, 남의 허물을 포용하여 자기의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거드름피우며 자기만 옳다 하고 강박하게 남을 거부하는 이는 비록 행하는 바가 다 옳아도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물며 거드름

좋을 때는 온갖 일이 마땅하다. 기상이란 응대하는 말과 용모와 거동의 가볍고 무거움, 빠르고 느긋함에서 족히 볼 수 있다. 군자와 소인만이 여기서 나누어질 뿐 아니라 귀하고 천함, 수명의 길고 짧음 또한 이를 말미암아 정해진다[後生初學，且須理會氣象。氣象好時，百事是當。氣象者，辭令容止輕重疾徐，足以見之矣。不惟君子小人，於此焉分，亦貴賤壽夭之所由定也。] 하였다.

502 구용(九容) : 옛날 군자가 수신하는 아홉 가지 몸가짐으로,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바르게, 입은 신중하게, 말소리는 고요하게, 머리는 똑바르게, 숨소리는 고르게, 설 때는 의젓하게, 낮빛은 단정하게 한다.[足容重，手容恭，目容端，口容止，聲容靜，頭容直，氣容肅，立容德，色容莊。]”라는 것이다. 《禮記 玉藻》

503 구용이 …… 것이다 : 김택술의 스승 전우(田愚)의 문집 《간재집·후편속집》 권4 〈정태수(鄭兌秀)에게 답하는 편지 을묘〉에 “유방채가 말하기를, ‘구용을 닦지 않으면, 이는 몸이 없는 것이다. 구사를 신중히 하지 않으면, 이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군자가 의용을 닦아서 인도를 세우고, 생각을 신중히 하여 천덕에 도달한다.’ 하였다.[劉邦采曰：九容不修，是無身也。九思不慎，是無心也。君子修容，以立人道，慎思以達天德。]”라는 구절이 보인다. 유방채(劉邦采，? ~ ?)의 자는 군량(君亮), 호는 사천(師泉)으로 강서(江西) 안복(安福) 사람이며, 왕수인(王守仁)에게 수업하였고, 《역온(易蘊)》이라는 저술이 있다.

피우거나 강박한 것은 반드시 천리(天理)의 공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움에 관련된 것임에라!

내가 너를 보건대, 또한 도량이 넓지 못한 사람 중 하나다. 남이 범함이 있으면 참으로 포용하려 들지 않고, 잘 인도하는 사람은 혹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나는 덕을 나아가게 하는 데 해가 되기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여긴다. 만약 순임금이 남의 선을 취한 것,⁵⁰⁴ 증유(仲由)가 허물을 듣기를 잘한 것,⁵⁰⁵ 안연(顏淵)이 남이 자기에게 허물을 범한 데 대하여 따지지 않은 것,⁵⁰⁶ 맹자가 세가지를 스스로 돌아본 것⁵⁰⁷에 대해서 능히 마음을 두고 힘을 쓴다

504 순임금이 …… 것 :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대순(大舜)은 이보다 더 위대한 점이 있었으니, 자기에게 훌륭한 면이 있으면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타인에게 훌륭한 점이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大舜有大焉，善與人同，舍己從人。]”라는 말이 나온다.

505 증유(仲由)가 …… 것 : 증유는 공자의 제자로 자가 자로(子路)이다. 이 내용은 《맹자》〈공손추 상〉에 “자로는 남들이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말해주면 기뻐하였다.[子路，人告之以有過則喜。]”라고 보인다.

506 안연(顏淵)이 …… 것 : 이 구절은 《논어》〈태백(泰伯)〉에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으며, 많으면서 적은 이에게 물으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가득해도 빈 것처럼 여기며,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는 것을, 옛날에 나의 벗이 일찍이 이 일에 종사했었다.[以能問於不能，以多問於寡，有若無，實若虛，犯而不校，昔者吾友嘗從事於斯矣。]”라는 증자의 말이 보인다. 《논어집주》의 ‘나의 벗’은 안자(顏子)를 가리킨 것이라 하였다.

507 맹자가 …… 것 : 《맹자》〈이루 하〉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대하기를 난폭한 행동으로써 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 반드시 인(仁)하지 못하며 내 반드시 예가 없는가 보다. 이러한 일이 어찌 이를 수 있겠는가.’ 한다. 그 스스로 돌이켜 인하였으며 스스로 돌이켜 예가 있었는데도, 그 난폭한 행동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 반드시 성실하지 못한가 보다 한다. 스스로 돌이켜 성실하였으되, 그 난폭한 행동이 전과 같다면 군자는 말하기를 ‘이 또한 망인일 따름이다.’라 하나니 이와 같다면 금수와 어찌 구별하겠는가. 금수에게 또 무엇을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有人於此，其待我以橫逆，則君子必自反也，我必不仁也，必無禮也。此物，奚宜至哉？其自反而仁矣，自反而有禮矣，其橫逆，由是也，君子必自反也，我必不忠，自反而忠矣，其橫逆，由是也，君子曰：此亦妄人也已矣，如此，則

면 자기를 닮는 것과 남을 수용하는 것 두 가지 모두 그 이르는 경지가 지극할 것이고 덕의 나아감은 막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기억하고 외우는 것을 부지런히 하여라. 기억하고 외우는 것을 덕행과 견주면 비록 말단이지만, 기억하고 외지 않으면 어떻게 옛사람의 지극한 가르침과 성법(成法)을 살피 덕행을 향상시키는 밑천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기억하고 외는 것은 실로 뒤로할 수 없는 것이다. 천하의 의리는 무궁하고 일생의 세월은 유한하다. 유한한 세월로 무궁한 의리를 궁구하는데 어찌 느슨한 마음과 느긋한 힘을 들여서 얻을 수 있겠느냐? 무릇 으뜸가는 성인인 주공(周公)도 아침에 글 백 편(篇)을 읽었고⁵⁰⁸, 나면서부터 안공자도 가족으로 엮은 《주역》이 세 번이나 끊어졌으니 달리 무슨 이야기를 더하겠느냐? 너는 모름지기 아주 절실한 심력을 써서 읽는 것과 외는 것을 날마다 일과를 세워 혹시라도 빠짐이 없게 하여라.

아, 한마디 말이 때로 종신토록 행하는 데 밑천이 되기도 한다. 청춘에 배움을 잃으면 족히 백발 노년에 후회를 불러올 것이다. 근면과 태만 사이의 득실이 이와 같으니 염두에 두고 힘쓰라.

寄炯復

汝歸今十日餘矣。未知改得幾款過惡，做得幾款工夫。吾聞孝子不以昭昭伸節，不以冥行情行。汝若以離吾側而情其行，豈惟不得爲孝，而將不免悖子之歸矣。茲條錄汝當下所當勉者，寄往。見此，發精振力，汲汲若病者之求瘡，毋沁沁若飫者之對飯也。如不信此，誤却生

與禽獸奚擇哉？於禽獸，又何難焉？]”라고 하였다.

508 주공(周公)도 …… 읽었고 : 《예문유취(藝文類聚)》 권55 〈독서〉 조에 “묵자(墨子)가 말하기를, ‘주공은 아침에 백 편의 글을 읽고, 저녁에 칠십 명의 선비를 만났다.’ 하였다.”는 대목이 보인다.

平，宜深念之。其一：敬慈母。子事父母，雖以家無二尊之義，先父而後母，然其尊敬之意，則豈有間然之理？余見閭巷人子，自孩提乳哺時，以親狎其母，及乎稍長，此習猶存。應對承奉，大不若敬厥父，所不敢告厥父之事，乃敢恣行無憚於厥母前。駸駸至於方厥攸命、拂厥攸好，大陷不孝而後已。此非他，無聞見模範而致然也。汝雖生長閭巷而年且幼，所誦讀者，聖賢也；所矜式者，師友也。而家庭所行，乃或不免閭巷子所爲，此大可戒也。諺云：“三歲悖習，八耄猶在。”盍早圖之！其二：慎交遊。夫人之生，善惡非一定。從善人交，則趨於善；從惡人交，則趨於惡。譬如物之白者，染於丹則赤，染於漆則黑。是故孟子，以天生之亞聖，從遊墓、市之傍，則不免於築埋、賈術之失，徙舍學宮之側，然後乃習揖讓之容。子賤非卓越之資，而取善於魯之君子。互鄉亦秉彝之人，習非而致難言之惡。由此觀之，交遊可不慎乎？汝是童年，交遊不廣，三益三損，雖未及備論，亦於同閉儕類中，擇端行敏學者，交之。若見浮躁放慢者，引身遠之也。至於口發鄙褻之言、手執賭⁵⁰⁹技之戲者，直是雜類悖徒。若一涉跡其間，身其逢殃，家用敗亡，可畏可畏！其三：重威儀。孔子曰：“不重則不威，學則不固。”呂榮公曰：“辭令、容止之輕重，貴賤、壽夭之所由分。”然則威儀之輕重，非惟此學成敗之機，亦終身吉凶之符也。汝質幹纖弱，固已爲人所輕，而況動之多不以禮，其於成就學問、自求吉福，吾知其難矣。今不要多談。只可把九容作家計。昔人云：“九容不謹，是無身。”旨哉，言乎！其四：恢度量。人須弘大其量，有以受人之善，用補己闕；容人之過，使化己善。若訑訑是己、悻悻拒人者，雖所行皆是，不過爲自好之人。況其訑訑、悻悻者，未必出於天理之公，而涉於一己之私乎！以余觀汝，亦一量不廣底人也。人之有犯，固不肯容；善導之人，或不肯受。吾以爲進德之害，

509 賭：원문 “賭”는 ‘賭’의 오류이다.

莫此爲甚。若能於大舜之取人善、仲由之喜聞過、顏淵之犯而不較、孟子之三自反，留心而用力焉，則修己、容物，兩極其至，而德之進也，莫禦矣。其五：勤記誦。記誦視德行，雖曰爲末。然非記誦，何以考古人之至訓成法，用資德行之進乎？記誦實不可後也。天下之義理，無窮；一生之歲月，有限。以有限之歲月，究無窮之義理，豈容致緩心徐力而可得乎？夫以周公之元聖，朝讀百篇；孔子之生知，韋編三絕，他尙何說哉？汝須煞用緊實心力，所讀所記，逐日立課，罔或闕漏也。嗚呼！一言之得，或資終身之行。青春之失學，足以招白首之噬臍。勤慢之間，得失如此。念哉勸哉！

형복에게 부침 신유년(1921)

寄炯復 辛酉

일전에 부탁한 “책을 읽어라, 도량을 너그럽게 하라, 술을 경계하라.”는 세 가지 일은 과연 생각해 보았느냐? 사람들은 “집안일을 주관하면 독서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집안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더욱 독서에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대저 독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를 밑바탕으로 해서 용무에 응함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로지 독서만을 일삼으면서 용무에 응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경우엔 오히려 조금 느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안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하루의 일에 응대할 것을 잃고, 이틀 책을 읽지 않으면 이틀의 일에 응대할 것을 잃으니, 어찌 더욱 독서가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가난한 집안 살림을 맡아 비록 바쁘다고는 해도, 몸소 낮

이나 호미를 잡을 정도는 아니니 진실로 뜻만 있다면 어찌 거를이 없는 걸 걱정하겠느냐. 다만 네가 근면하고 독실함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옛 사람 중에 넓고 큰 도량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다스린 분은 더할 나위 없지만, 너그럽고 온화함에 힘쓰고 성급하고 경박한 것을 경계하여 한 집안을 태평하게 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겠느냐.

대개 집안에 있어서 너그럽고 온화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효를 잃게 되고 집안사람에게는 덕을 잃게 되어, 끝내 은혜로운 정의는 야박해지고 형제간은 어그러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좁은 도량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못지않다. 유관(劉寬)은 더럽혀진 옷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⁵¹⁰, 왕공(王公)은 검은 먼지를 싫어하지 않았다.⁵¹¹ 이것은 타고난 자질에 달려 있어 비록 여기에 미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동래(東萊)가 통렬하게 이전의 습관을 고쳤듯⁵¹² 본인이 만약 하고자 한다면 무

510 유관(劉寬)은 …… 않았고 : 유관(劉寬)은 후한(後漢)의 남양 태수(南陽太守)이다. 그가 화를 내는지 시험해 보려고 시비(侍婢)를 시켜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그의 조의(朝衣)에 얹지르게 하였을 때 안색을 변치 않고 “혹시 손을 데지나 않았느냐.[羹爛汝手]”고 한 일화가 유명하다. 《後漢書 卷55》

511 왕공(王公)은 …… 않았다 : 동진(東晉) 때 사람인 왕도(王導)이다. 동진 성제(成帝)의 장인인 유량(庾亮)이 서쪽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도 조정의 권력을 주무르자, 왕도가 불쾌하게 생각하여 서풍이 불면 그때마다 부채를 들어 바람을 막으며 말하기를 “원규(元規 : 유량의 자)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히려 하는구나.” 하였다. 《晉書 권86 王導傳》

512 동래(東萊)가 …… 고쳤듯 : 여조겸(呂祖謙)의 호이다. 《심경부주》〈징분질육장(懲忿窒慾章)〉에 주자(朱子)가 “지난번에 여백공을 만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였다. 그가 젊었을 적에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언짢게 여겨 집안의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곤 하였는데, 뒷날 오래도록 병을 앓으면서 단지 《논어》 한 책을 가지고 조석으로 익히 보다가, ‘자기를 책망함은 후하게 하고 남을 책망함은 적게 한다.’라는 대목에 이르러 홀연히 마음속 생각이 한순간에 평온해짐을 깨달았으며,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분노를 폭발하는 일이 없었다

엇이 어려워 못하겠느냐. 네가 빨리 고치지 않으면 덕에 누가됨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될까 내 몫시 우려되는구나.

술이라는 물건은 마시면 안 된다하면 너무 편협한 듯하고, 마셔도 된다하면 함부로 행동하기 쉬우니 당연히 기혈(氣血)의 허실과 심력(心力)의 강약을 살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운이 좋고 마음이 왕성하여 함부로 행동할 염려가 없다면 그뿐이지만, 만약 행여 그렇지 않은데도 좋아하면 이는 짐독(鳩毒)⁵¹³이다. 너는 몸이 약하여 기운이 충실하지 못하고 나이가 어려 뜻이 굳세지 못하다. 나는 네가 차라리 심히 편협하여 문제가 될지라도 행여 짐독을 가까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글을 읽지 않으면 만사(萬事)는 이치를 잃고 인도(人道)는 무너진다. 도량이 너그럽지 못하면 친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집안일은 엉망이 된다. 술을 경계하지 않으면 일신(一身)이 법도를 잃어 재화(災禍)는 예측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네가 마땅히 급선무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열거하여 거듭 부탁하니, 부디 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면려하여 소홀하지 않길 바란다.

寄炯復 辛酉

日前所囑“讀書、寬量、戒酒”三事，果能動念否？人言幹家務，不暇讀書，余謂‘幹家務者，尤當急於讀書也。’何也？夫讀書非爲他也，欲資此而不失應務也。其專事誦讀，而無應務之煩者，猶可少

고 하였다. 이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삼을 만하다.[向見呂伯恭說少時性氣粗暴，嫌飲食不如意，便打破家事，後日久病，只將一冊《論語》，早晚閑看，至“躬自厚而薄責於人。”，忽然覺得意思一時平了，遂終身無暴怒。此可爲變化氣質法。]”라고 말한 내용이 실려 있다.

513 짐독(鳩毒) : 집안에 액을 가져온다는 상징적인 새의 깃에 있는 맹렬한 독을 말한다.

緩。至於幹家者，一日不讀，則一日之務失其應；二日不讀，則二日之務失其應，豈非尤急者乎？汝之食貧幹蠱，雖曰“滾沓。”，不至躬執鎌鋤，苟有其志，豈患無暇？只在汝勤篤如何耳。古人之弘量大度，安邦濟民者，尙矣，至於務寬和，戒急遽，以底一家泰平者，亦不可能乎！蓋居家而不寬和，則失孝於父母，失德於家衆，終至恩義衰薄，骨肉乖異。其非狹量攸濟，又不下爲國也。劉寬之不悲汚服，王公之無嫌埃墨。係是天分，縱難及之，東萊之痛改前習，我苟欲之，何難而不爲？汝不速改，非惟累德不細，亦恐有妨遐福，吾深慮之。酒之爲物，以爲不當飲則似太偏，以爲當飲則易至亂，當量其氣血虛實，心力強弱而處之。若我氣實心強，無慮乎亂則已，苟或未然而嗜之，是鳩毒也。汝清弱而氣未實，年少而志未堅。吾欲汝寧失太偏，而無或近鳩毒也。噫，書不讀，則萬事失理，而人道壞矣。量不寬，則九族失和，而家政戾矣。酒不戒，則一身失度，而禍不測矣。此三者，汝當下之急務。故另舉申勸，幸體若心，勉旃毋忽。

형복에게 부침 경오년(1930)

寄炯復 庚午

옛날에 듣기로 ‘금강산은 마치 천상에 있는 듯하다’ 던데, 어제 출발하여 오늘 도착했으니 기차가 이렇게 빠르구나. 겨우 동천(洞天)에 들어가니 맑은 승경이 더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평생 세상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것들 조차 거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없어지는 듯하였는데, 하물며 일종의 잡념과 사욕으로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몸을 망치는 것에 있어서랴! 스스로 상쾌한 나머지 너를 데리고 와서 함께 보지

못한 것이 한이더구나. 비록 그렇지만 산수(山水)는 외적인 것이고, 마음은 내적인 것이다. 마음이 만약 청정하면 내 몸은 금강산의 승경에 있지 않은 날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구경법(究竟法)이다. 스스로 나를 면려하는 중에 또 너도 여기에서 준칙으로 삼기를 바란다. 천리 멀리서 마음으로 부탁함은 또한 대면하여 말하는 것보다 특별하니 맹렬히 성찰하기 바란다.

寄炯復 庚午

昔聞金剛如在天上，昨發而今到，沆電之速，乃若是也。才入洞天，已覺清勝，非復人境。生平世念，并與不容己者，幾欲烟消雲滅，而況一種雜思私欲，以辱名喪身者乎！自快之餘，恨不携汝同觀也。雖然，山水外也，心地內也。心苟清淨，吾身無日不在金剛勝境。此乃爲究竟法。自勉之餘，又欲汝之準極于此也。千里心託，又別面喻，想或猛省。

형복에게 부침 경술년(1934)

寄炯復 甲戌

얼핏 듣기로 네가 현광(玄狂)을 쫓아 《간재선생속집(艮齋先生續集)》 관련 일을 같이 한다고 하던데, 만약 전해준 자가 빈말이 아니라면 이는 필시 내가 알면 못하게 할까봐 서신도 다 끊고 행방도 비밀로 한 것인가 보구나. 너는 한 번 생각해보아라. 오늘날 형세 상 어찌 문집이 간행되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또 아버지는 유훈을 지키는데 자식이 간행 일을 보는 이치가 어디 있단 말이나. 네가 비록 스스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 일은 스승 문하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집에 있으면서도 모르는가.”하곤 하는데, 그것을 듣고 걱정과 상심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부디 속히 돌아와 산중에 깊이 들어가 시골 수재나 가르치며 겨울을 날 계책으로 삼거라. 이것이 네가 명(命)을 세워 몸을 편히 할 수 있는 자리이니 깊이 반성하여 소홀히 하지 말거라.

寄炯復 甲戌

似聞，汝從玄狂，同事良翁續集之役，若傳者非虛，是必汝恐我知而禁止，并絕書信秘行住也。汝試思之。今日之勢，焉有不認刊集之理？又焉有父守訓而子認刊之理？汝雖自作此事，事係師門。人肯謂吾“在家不知乎？”，聞之憂傷，莫知所爲。千萬亟歸，深入窮山，教授村秀，爲經冬計也。是爲汝立命安身之地，其猛省毋忽。

형복에게 부침 기묘년(1939)

寄炯復 己卯

듣건대, 네가 근래 모모 유림의 연원도(淵源圖) 작업에 참여하였다던데 사실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어려움은 옛날부터 그러하였다. 그 밝은 안목을 구비하기가 어렵기도하고 또 믿을 만한 자취를 고찰하기가 어렵다. 이에 허실(虛實)을 변별하지 못함에 이르기 쉬워 끝내 성취한 바가 세교(世教)에 공로가 없고 그저 신령과 사람에게 죄를 얻게 된다. 이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말하자면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겠느냐. 애초 그 허와 실을 묻지 않고 그 공과 죄를 어떻게 논하겠느냐. 네가 비록 지식

이 없다 해도 마땅히 혹 이 정도는 알 것인데 어찌하여 발을 싸매고⁵¹⁴ 달려가서 남의 불미스런 일을 돕는 것이냐. 당장 그만 두어라.

寄炯復 己卯

聞汝近參某某儒林淵源圖之役，果然否？作史之難，從古而然。以其既難具得明眼，又難考得信蹟。易致虛實莫辨，究竟所就，無爲功於世教，而徒得罪於神人也。此以持公心做事業者，言之猶然，而況今世之爲此等事者，其設心何在？初不問其虛實，又何論其功罪？汝雖無識，宜或知此，胡爲乎裹足奔走，助成人不美事乎？千萬已之。

형태에게 부침 갑자년(1924)

寄炯泰 甲子

네 자질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세가 막혀 끝내 그 머리는 쑥대머리가 되고 그 손에는 굳은살이 박이게 하였구나. 아버로서의 도를 잃은 게 부끄러워 내 마음이 끊어지는 듯하다. 비록 그렇지만 천도(天道)를 이용하고 지리(地利)를 의지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공자가 내린 가르침이다. 산에서 땀나무를 하고 물에서

514 발을 싸매고 : ‘발을 싸맨다[裹足]’라는 것은 발이 부르토고 물집이 생기거나 굳은살이 박혔을 때에 옷을 찢어 발을 감싸고 달려간다는 뜻이다. 《회남자》에 “옛날에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목자가 듣고서 딱하게 여겨 노나라에서 달려갔다. 열흘 밤낮을 달려 발이 누에고치처럼 부르텠는데도 쉬지 않고, 옷을 찢어 발을 싸매고 달려갔다. 영에 이르러 초나라 왕에게 유세하였다.[昔者楚欲攻宋，墨子聞而悼之，自魯趨而十日十夜，足重繭而不休息，裂衣裳裹足。至於郢，見楚王。]”라고 하였다.

물고기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한공(韓公)이 칭송⁵¹⁵ 하였다. 네가 만약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백행의 근원이 흐니, 곧 학문은 다른 데서 구할 게 없다. 하물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책을 읽을 만한 작은 틈도 없겠느냐. 네가 만약 뜻이 있다면 예관(兒寬)이 책을 지니고 밭일을 하고⁵¹⁶ 중봉(重峯)이 아궁이 불에 비추며 읽은 것⁵¹⁷도 넉넉히 할 수 있을 게다. 나는 비록 아버지의 도를 잃었으나 너는 옛날 사람의 아름다운 자취를 바라니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여 기억하도록 하여라.

寄炯泰 甲子

汝之才質，非不可爲者，形格勢禁，竟使蓬其首而胝其手。愧失父道，我心若折。雖然，用天因地，以養父母，孔聖垂訓。樵山漁水，以供甘旨，韓公有贊。汝若能此，百行有源，卽此是學，不可他求。況非終晷通宵，無片隙之可讀者乎？汝若有志，兒寬之帶經鋤田，重峯之

515 한공(韓公)이 칭송 : 당(唐)나라 때의 고사(高士) 동소남(董召南)이 안풍(安豐)에 살았는데 그의 정렴함과 효행이 워낙 우뚝하여 문장가 한유(韓愈)가 <동생행(董生行)>이란 노래를 지어 “딱하다, 동생이여! 아침에 나가 농사짓고, 밤에 돌아와 고인의 책을 읽네.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잡아, 부엌에서는 맛난 음식 차리고 당에 올라서는 부모의 안부 살피네. 부모는 근심이 없고, 처자식은 원망이 없네.[嗟哉，董生！朝出耕，夜歸讀古人書。盡日不得息，或山而樵，或水而漁，入廚具甘旨，上堂問起居。父母不感感，妻子不咨咨。]”라고 칭송하였다. 《小學 善行》

516 예관(兒寬) …… 하고 : 한(漢) 나라 예관(兒寬)이 품팔이를 할 적에 늘 경서를 몸에 지니고 밭일을 하다가 휴식할 때면 독송을 했던[時行賃作，帶經而鋤，休息輒讀誦。] 고사가 있다. 《漢書 兒寬傳》

517 중봉(重峯) …… 것 : 조헌(趙憲, 1544~1592)이다. 중봉은 발같이 하면서도 쉬는 사이에 글을 읽었고, 일을 나가면 먼저 책을 올려놓을 받침을 架設하였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면 잣 속에서 불을 골라 빛을 밝혀 글을 읽다가 꺼진 다음에 그만두곤 하였다.

燎竈照讀，可優爲也。吾則雖失父道，望汝以古人懿蹟，須深念記取也。

형태에게 부침 병인년(1926)

寄炯泰 丙寅

이번 국상(國喪)⁵¹⁸의 애통함은 앞 시대의 큰 근심에 비할 게 아닙니다. 이 황제 이후 더 이상 우리의 임금이 없기 때문이다. 무릇 국상이 나면 선비와 서민의 처와 아들까지 또한 모두 상복을 입는 것이 국법이다. 게다가 지금은 나라가 이미 망하고 임금도 없어서 이천만 동포가 너무나 애통하고 망극하여, 눈물을 비처럼 흘리고 우레처럼 울부짖으며 남녀학교의 어린 학생들과 노예·백정·배우·기생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흰옷을 입지 않은 이가 없으리라! 너는 비록 관례는 안했지만 성동(成童 15세)은 이미 지났으니 시시덕거리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또 연한 검정색 땡기⁵¹⁹를 써서 슬픔을 표현하도록 하여라. 너의 모친은 순수한 흰 명주를 사용하고 네 형수와 누이는 비록 흰 것을 쓸 수 없다면 연한 옥색은 반드시 해야 한다.

寄炯泰 丙寅

518 이번 국상(國喪) : 순종황제의 국상을 말한다. 1926년 음 3월 14일 (양 4월 25일) 오전 6시 15분 창덕궁 대조전에서 5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519 땡기 : 원문 ‘당기(唐岐)’는 땡기를 뜻하는 말로 보인다. 땡기는 한자어로 ‘당지(唐只)’이나 ‘당기(唐岐)’는 머리를 땅을 때의 ‘갈래[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땡기일 가능성이 높다.

今番國恤之痛，非比前世大憾。以此帝後，更無吾君故也。凡有國哀，士庶之妻與子，亦皆有服 國典也。況今國既破君又亡，二千萬衆，至痛罔極，揮淚成雨，號哭如雷，至於男女學校幼年生徒 阜隸屠賤，倡優淫妓，莫不一朝縞素者乎！汝雖未冠，成童已過，不宜嬉笑恣放。又用淺黑唐岐 以表哀情。汝慈則純用縞素，汝嫂汝妹，雖不能用素，淺玉色，則決不可已也。

형태에게 부침

寄炯泰

네가 요사이 당한 일은 필시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오로지 횡역(橫逆)으로 지목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횡역의 재앙이 오면 맹자도 오히려 망령된 사람[妄人]으로 치부하고⁵²⁰ 따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자기에게 화근이 있어서 그리된 것에는 어떠하겠느냐. 이번 기회로 인하여 분노를 징계하고 성질을 참으며 뜻을 분발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덕을 높여서 저들로

520 망령된 …… 치부하고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어떤 사람이 횡역으로 대할 때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어질지 못하였거나 예가 없었나보다.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한다. 스스로 반성하여 어질며 또 예가 있었는데도 그 횡역함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다시 반성하여 ‘내가 충실치 못하였나보다.’ 한다. 또다시 반성하여 충실하였는데도 그 횡역함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저 사람은 망령된 사람일 뿐이다.’ 한다. 그런 사람은 금수와 무엇이 다르랴. 금수와 무엇을 할난하겠는가? [有人於此，其待我以橫逆，則君子必自反也，我必不仁也，必無禮也。此物奚宜至哉？其自反而仁矣，自反而有禮矣，其橫逆由(猶)是也，君子必自反也，我必不忠。自反而忠矣，其橫逆由是也，君子曰：此亦妄人也已矣。如此則與禽獸奚擇哉？於禽獸，又何難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하여금 경외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 바 “어려움을 겪으면 지혜가 밝아지고 근심으로 인해 몸이 편안해 지는 것”이니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는 것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에 계책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 사소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갚아주려는 서원(誓願)을 내면, 이[蝨]를 원망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고 모기를 보고서 검을 뽑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약 이런 일단(一團)의 참되고 간절한 서원(誓願)이 있다면, 어찌하여 공분(公憤)할 데로 옮겨서 금수 같은 오랑캐를 쫓아내고 우리 강토를 회복할 방도를 생각지 않는 것이냐. 모든 것은 단지 이 사이에서 상량하여 모두 내려놓아라.

너는 타고난 성품이 실로 자애롭고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다. 다만 간간이 사납게 성질을 부려 아내와 아우에게 성을 내곤 하니, 속담에 이른 바 “순한 사람이 성질을 내면 무섭다.”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아내와 아우에게 화를 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냈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겠느냐? 무릇 남에게 화를 잘 내면, 부귀한 사람도 반드시 실패할 것인데 하물며 너 같이 지위나 권세도 없고 지혜와 힘도 없이 가장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아름답도다! 옛사람이 시에 이르기를,

용이 변화에 능하지만 금시조(金翅鳥)⁵²¹를 근심하고 龍能變化愁金翅
호랑이도 맹수의 영웅이나 화사(火獅)를 겁낸다네 虎亦猛雉恟火獅
피와 힘은 세상에서 다 꺾일 데가 있는 법 智力世間皆有屈
낮추고 공손하면 결국 만인의 스승이 되리라⁵²² 卑恭終作萬人師

521 금시조(金翅鳥) : 일명 ‘가루라(迦樓羅)’라고 하는 인도 전설상의 새인데 조류(鳥類)의 괴수로서 용을 잡아먹고는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 시를 매일 세 번씩 외워야 한다. 이에 <징분잠(懲忿箴)> 한 편을 지었으니 적어서 보여주마.

| | |
|--|------|
| 《주역》에서는 “분노를 경계하라.” ⁵²³ 하고 | 易著懲忿 |
| 공자는 “어려움을 생각하라.” ⁵²⁴ 고 하였다 | 孔曰思難 |
| 몸을 잊는 것이 미혹이니 | 忘身是惑 |
| 마음에 치우치는 바가 있으면 | 有所心偏 |
|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 處此有術 |
| 오묘하도다, 정자의 말이여 | 妙哉程言 |
| “화가 나면 화를 잊고 | 當怒忘怒 |
| 오직 이치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 惟理之觀 |
| 자신이 진실로 스스로를 다했다면 | 我苟自盡 |
| 저들은 망령된 사람이 될 것이다 | 彼爲妄人 |
| 스스로 돌아보아 정직하지 못하면 | 自反不縮 |
| 어찌 갈관박(褐寬博)이라도 두렵게 하겠느냐 ⁵²⁵ | 盍惴褐寬 |

522 용이 …… 되리라 : 김창흡(金昌翕), 《삼연집(三淵集)》권16 <見寺樓樑上畫 金翅鳥劈海噉龍>，“龍能變化愁金翅。虎亦雄獅怯火獅。天下易窮惟智力。卑謙終作萬人師。”이다. 3, 4구의 몇몇 글자가 차이를 보인다.

523 주역에서는 …… 하라 : 《주역(周易)》 손괘(損卦) 상(象)에 “산 아래 못이 있음이 손(損)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분노를 징계하고 욕망을 막는다.”라고 하였고, 주자(朱子)는 이것을 풀이하기를, “산의 형상을 보고 분노를 징계하고 못의 형상을 보고 욕망을 막는다.” 하고, 또 “분노를 징계하기를 산을 누르듯이 하고 욕망을 막기를 골짜기를 매우듯이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524 어려움을 생각하라 : 《논어》 <계씨(季氏)>에 나오는 구사(九思) 가운데에, “분할 때에는 나중에 곤란하게 될 것을 생각하라.[忿思難]”라는 말이 있다.

525 스스로 …… 하겠느냐 :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큰 용맹을 부자께 들었는데, 스스로 반성해 보아 정직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천

| | |
|-----------------------------|------|
| 대용(大勇)이 무엇이더냐 | 大勇維何 |
|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있는 것이지 | 有氣浩然 |
| 어떻게 기르는 것이더냐 | 何以養成 |
| 부지런히 의(義)를 축적하여 | 集義之勤 |
| 본체에 채워서 | 充得本體 |
| 천하에 가득 차야 한다 ⁵²⁶ | 塞乎乾坤 |
| 저 잘못을 범하는 무리를 | 視彼群犯 |
| 이[蝨]나 모기처럼 여겨라 | 有若蝨蚊 |
| 너는 이 말을 공경하여 | 爾其欽此 |
| 종신토록 부적으로 삼도록 하여라 | 作符終身 |

寄炯泰

汝之近日所遭，未必自反無愧，則不宜專以橫逆目之。橫逆之來，孟子尚以妄人置之不較，而況由己有苗脈而致之乎？正好因此機會，懲忿忍性，奮志賈勇，用崇其德，而使彼畏服。是則所謂“涉難智明，因患身安。”，而天降大任，亦非別人也。乃計不出此，不勝區區之忿，至發必報之誓，是何異於怨蝨而切齒見蚊而拔劍也？苟有此一團真切

인이라도 내가 그를 두렵게 하지 않거니와 스스로 반성해 보아 정직했으면 아무리 천만인이 앞에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吾嘗聞大勇於夫子矣，自反而不縮，雖褐寬博，吾不慚焉，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公孫丑上》

526 부지런히 …… 한다 : 맹자가 공손추(公孫丑)에게 호연지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말하기를 “호연지기는 의를 축적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의가 갑자기 엄습해서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是集義所生者，非義襲而取之也。]” 하였고, 또 맹자가 공손추와 부동심(不動心)을 논하는 대목에서 말하기를 “의지는 기운을 부리는 장수이고, 기운은 몸을 채우고 있는 것이니, 의지가 첫째요 기운이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확고히 세우고도 또 그 기를 거칠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夫志氣之帥也，氣體之充也，夫志至焉，氣次焉。故曰：“持其志，無暴其氣。]” 하였다. 《孟子 公孫丑上》

誓願，胡不移之於公憤，思所以掃除夷獸，而復我疆土乎？總只是間商量，一切放下也。汝之資性，實慈善柔順人也。但間有暴發性，施於妻與弟，可見諺所謂“柔人暴性可畏者。”，此耶！以施於妻弟者，施他人，人肯受之乎？夫尚氣加人，雖富貴者必敗，況如汝之無位勢，無智力，最出人下者乎！旨哉！古人詩曰：“龍能變化愁金翅，虎亦英雄恟火獅。智力世間皆有屈，卑恭終作萬人師。”，此當日三復也。茲作懲忿箴一篇寫示。《易》著“懲忿。”，孔曰“思難。”忘身是惑，有所心偏，處此有術，妙哉，程言！“當怒忘怒，惟理之觀。”我苟自盡，彼爲妄人。自反不縮，盍惴禍寬。大勇維何？有氣浩然。何以養成？集義之勤，充得本體，塞乎乾坤。視彼群犯，有若蝨蚊。爾其欽此，作符終身。

형관에게 부침 계유년(1933)

寄炯觀 癸酉

단봉(丹鳳)⁵²⁷은 비록 굶주려도 결국 모든 새들의 으뜸이다. 아름다운 옥이 팔리지 않는다고 어찌 세상에 드문 보배가 손상되겠느냐. 선비가 출중히 뛰어나 도덕을 마음에 품고서 의롭지 못한 부귀를 더럽게 보는 것이 이와 흡사하다. 매양 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말아져 한 점 티끌이 없다. 선비가 흔탁한 세상에 살면서 이로써 뜻을 삼은 뒤에야 거의 더럽고 낮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도 함께 알아 두어라.

寄炯觀 癸酉

527 단봉(丹鳳) : 목과 날개가 붉은 봉황.

丹鳳雖飢，竟爲百鳥之長。美玉不售，何害稀世之珍？士之出類拔萃，懷藏道德，汚視不義之富貴者，似之。每一想此，不覺胸次清淨，無一點塵也。士居濁世，以此爲志，然後，庶不歸汚下之地，爾共識之。

형관에게 부침 아울러 사위 박진호에게 보임 계유년(1933)
寄炯觀 兼示朴錫珍浩 癸酉

면재(勉齋)⁵²⁸는 회옹(晦翁 주자)의 도를 계승했으나 야(埜)와 재(在)⁵²⁹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신재(愼齋)⁵³⁰는 사계(沙溪)⁵³¹의 학문을 이었으나 서경수(徐景需)와 한덕급(韓德及)⁵³²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금을 살펴보아도 아버지와 아들, 사위와 장인이 모두 훌륭한 덕으로 드러난 경우는 전혀 없다. 문장가에 있어 오직 동파(東坡)와 산곡(山谷)⁵³³만이 노천(老泉)⁵³⁴의 아름다움을 아울러 이루어

528 면재(勉齋) : 송(宋)나라 황간(黃幹, 1152~1221)의 호이다. 자(字)는 직경(直卿)이며 주희(朱熹)의 문인이자 사위로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529 야(埜)와 재(在) : 주희(朱熹)의 두 아들이다.

530 신재(愼齋) :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이다. 자는 사강(士剛), 본관은 광산이다. 김장생(金長生)의 아들이다.

531 사계(沙溪) : 김장생(金長生)이다. 본관이 광산이며,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선조 때 서인(西人) 김계휘(金繼輝)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효종 때의 예학으로 주목받았던 김집(金集)의 아버지이다.

532 서경수(徐景需)와 한덕급(韓德及) : 김장생(金長生)의 사위이다.

533 동파(東坡)와 산곡(山谷) : 동파는 소식(蘇軾)을 말한다. 산곡(山谷)은 보통 황정견(黃庭堅)을 지칭하지만 문맥의 흐름상 소식의 동생 소철(蘇轍)로 추정된다. 둘은 소순(蘇洵)의 아들이다.

534 노천(老泉) : 소순(蘇洵)의 호이다. 자는 명윤(明允), 소식(蘇軾)과 소철(蘇轍)의 아버지다.

천고토록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큰 데 뜻을 둔 자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늘날 나와 너희는 부자간이거나 사위와 장인 사이가 되어 그 뜻을 묻는다면 모두 이 학문이다.

나는 이를 행하는 데 힘을 쏟지 않아 늙도록 이론 게 없구나. 옛날 현자인 회옹이나 사계 같은 덕업은 이미 바랄 수 없지만, 남은 날을 부지런히 하면 고니를 깎으려다 집오리를 깎는⁵³⁵ 정도는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이가 아직 젊고 재주 또한 둔하지 않으며 독서도 적지 않으니 진실로 심혈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어찌 문득 옛 현인을 스스로 기약할 수 없겠느냐.

나는 비록 보잘 것 없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받아들일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형관아! 너는 가학을 계승할 바를 생각하여라. 진호(珍浩)야! 너는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할 것을 생각하여라. 능히 그 끝을 삼가고 큰 성공을 더하여 아버지와 장인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자의 사위⁵³⁶와 김문(金門)의 아들⁵³⁷을 아울러 함께 갖추는 것이니 사람들이 혹 학문하는 집안의 노천과 파곡(坡谷)⁵³⁸에 비긴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느냐.

안연이 말하기를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순 임금이 되려고

535 고니를 …… 깎는 : 후한(後漢)의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조카 마돈(馬敦)에게 글을 보내어, “용술(龍述)은 신중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를 본받으면 행검(行檢) 있는 선비는 될 수 있으니, 이른바 ‘고니를 새기다가 못 이루더라도 집오리처럼 될 수는 있다.[刻鵠不成 尚類鶩]’는 것이다. 하지만 두보(杜保)는 호협(豪俠)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를 본받다가는 천하의 경박(輕薄)한 사람이 될 것이니, 이른바 ‘범을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면 도리어 개같이 되어 버린다.[畫虎不成 反類狗]’는 것이다.”라고 경계한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東觀漢記 馬援傳》

536 주자의 사위 : 면재(勉齋) 황간(黃幹)을 이른다.

537 김문(金門)의 아들 : 김장생의 아들 즉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을 이른다.

538 파곡(坡谷) : 동파(東坡)와 산곡(山谷)을 이른다.

노력하는 자는 또한 순 임금같이 될 것이다.”⁵³⁹라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나와 너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고, 재주와 힘은 한계가 있기에 기필(期必)할 수 없으니, 주자(周子)가 이르지 않았더니! “선비는 현인이 되길 희망해야 한다.⁵⁴⁰ 그러면 만약 현인이 못되더라도 아름다운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⁵⁴¹ 고 하였으니 이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는 오늘날 나와 너희들이 평생토록 맹세를 세운 말이다. 이와 같이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각기 힘쓸지어다.

寄炯觀 兼示朴甥珍浩 癸酉

勉齋繼晦翁之道，而埜在不與。慎齋紹沙溪之學，而徐韓無聞。歷考今古，父子甥舅，俱以賢著者，絕無矣。在文章家，惟東坡山谷，并濟老泉之美，而千古艷之。然志乎大者，則不屑焉。今吾與汝輩，得爲父子甥舅，而問其志，則皆此學也。余則行之不力，到老無成。古之賢者，如晦沙德業，雖已無望，猶欲勉勉餘日爲刻鵠之鷺。汝輩年甚富，而才不甚魯，讀書不少，苟能卓然用力，何遽不可以古賢自期？吾雖無似，自汝輩視之，不可謂無所受。觀乎！汝思所以紹家學。珍

539 안연이 …… 것이다 : 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 임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또한 순 임금같이 될 것이다.[舜何人也，予何人也？有爲者亦若是。]”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滕文公上》

540 선비는 …… 한다 :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 지학편(志學篇)에, “성인은 하늘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선비는 현인처럼 되기를 희망한다.[聖希天，賢希聖，士希賢。]” 고 하였다.

541 그러면 …… 것이다 : 송유(宋儒) 주돈이(周敦頤)가 말하기를 “이윤이 뜻을 두었던 바에 뜻을 두고 안연이 배웠던 바를 배워 이들을 능가하면 바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현인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비록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명성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志伊尹之所志，學顔子之所學，過則聖，及則賢，不及則亦不失於令名。]” 하였다. 《近思錄 卷2》

乎! 汝思所以服師教。克謹其終，增益成大，用光父舅。是則朱子之甥，金門之子，并聚俱備，人或擬之於學問家老泉坡谷 豈非幸哉! 顏淵曰：“舜何人也? 有爲者亦若是。”是固吾與汝輩之願也。然年歲不待，才力有限，有不可必，則周子不云乎!“士希賢”，“不及，亦不失令名。”此尙可以不勉乎! 此今日吾與汝輩，生平立誓之言。所不若此者，有如蒼天，其各勸哉!

형관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炯觀 乙亥

네가 집을 떠나고부터 오직 질병에 대한 근심 외에 언제나 가난을 상심하여 뜻을 바꾸고, 세상살이 때문에 학업을 그만둘까 염려하였다. 지금 너의 편지를 보면 “어린 나이의 재지(才志)를 다하여 중간에 번고가 있더라도, 결국 백 번 단련시킨 금과 거센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는 지주(砥柱)로서 스스로 훗날을 기약한다.”고 하였다. 네가 진실로 이를 할 수 있다면 내 오늘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편지를 반복하여 읽다보니 희비가 교차하여 눈물과 웃음이 함께 나오는구나. 이는 곧 너의 생사(生死)의 관건이다. 내가 평생토록 한 학문을 되돌아보니 스스로 얻은 게 없어 몹시 부끄럽구나. 만약 아들이나 조카 가운데 뒤를 이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끝내 적막하게 된다면 거둬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율곡(栗谷) 선생이 과거공부와 학문을 논하였는데 둘을 병행할 수 있다며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몸소 밭을 갈고 품팔이를 하면서도 학문을 하였다. 하물며 과거공부에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하였고, 끝에 가서는 정자(程子)가 말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뜻을 잃을까를 근심해야한다.”⁵⁴²는 말을 인용하여 끝맺음하였다. 지금 너의 현재 일이 복잡하고 바쁘다고는 해도 궁구해보면 발 갈고 품 파는 것 보다 심하지는 않다. 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오늘 일에 대해 또 이르기를 “공부에 방해된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뜻을 잃을까 걱정하라.”고 하겠다. 아, “뜻을 가진 자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⁵⁴³는 말은 천고의 격언이니 너는 유념하여라.

答炯觀 乙亥

自汝離家，惟疾憂外，恒以傷貧變志涉世廢業爲慮。今見汝書“說盡幼齡才志，中間變故，終以百鍊金顏波柱，自期於後。”汝苟能此，吾雖今日死，可以瞑目。執書反復，悲喜交集，淚笑并發。此既爲汝生死機關。復念我生平爲學，自無所得，已極可恥。若加以子姪中，無一人繼其後，而終致寂寞，則重爲人笑。

栗谷先生論科業學問，可以并行而曰：“古人有躬耕行傭，而爲學者。況科業乎!”，終引程子“不患妨工，惟患奪志”之說，而結焉。今汝現務，雖云紛忙，究不甚於耕傭。吾故，於汝今日事，亦曰：“不患妨功，惟患奪志。”嗚呼!“有志者事竟成。”，千古格言，汝其念哉!

542 과거공부와 …… 근심해야한다 : 《격몽요결(擊蒙要訣)》(處世章)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543 뜻을 …… 이루어진다 : 후한(後漢)의 대장군 경엄(耿弇)이 축하(祝阿)를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자, 광무제(光武帝)가 그에게 이르기를 “장군이 앞서 남양에서 이 대책을 세운 데 대하여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으리라고 여겼었는데,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끝내 이루는 구려.[將軍前在南陽建此大策，常以爲落落難合，有志者事竟成也。]”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49 耿弇列傳》

형관에게 부침 을묘년(1915)

寄炯觀 乙卯

지금 일에 대해서도 홀로 깨끗하였고⁵⁴⁴ 지난번의 네 의견도 또한 나와 합치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일전에 너의 계부(季父) 말로는 종중(宗中)의 중론이 이르기를 “형관(炯觀)이가 결코 법도 없이 족보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고 하였더니, 이 얼마나 중망(重望)을 받는 말이나. 사람이 이를 얻기도 또한 쉽지 않다. 결코 부화뇌동(夫化腦動) 남을 따라하여 이 논의를 꺼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거라.

寄炯觀 乙卯

對今事而獨淸，向見汝意，亦與吾合，何幸如之。向日，汝季父言，宗中衆論謂：“觀也決非無法而譖者。”，此爲何等重望語。人而得此，亦不易易。切勿詭隨於人，使爲此論者，歸於失望也。

아이들에게 보임 경진년(1940)

示兒輩 庚辰

세상의 변고가 날로 심해져 귀로는 차마 들을 수 없고 눈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오직 바라는 것은 빨리 죽는 것만 다행으로 여길 뿐인데 그럴 수 없으니 어찌겠느냐. 내가 죽음으로써 옛것을

544 홀로 깨끗하였고 :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 “온 세상이 모두 탁한데 나 홀로 맑고, 사람들 모두 취했는데 나만 정신이 또렷하네.[舉世皆濁，我獨淸，衆人皆醉，我獨醒。]”라는 말이 있다.

지켜 너희 네 사람과 함께 모두 머리카락을 보전하였으니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 창씨개명(創氏改名)의 변고는 단발(斷髮)에 비해 한 층 더 가혹하다. 외양(外樣)의 형식도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지켰는데 내면(內面)의 실지를 어찌 재앙을 두려워하여 바꿀 수 있겠느냐.

구한(舊韓)의 유족(遺族)들이 생활의 이해(利害)에 관계된 것과 자손의 귀천(貴賤)에 관한 얘기에 동요되어 서로 앞 다투어 바꾸는 꼴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비록 그렇지만 우리들 생활은 본래 구덩이에 있는 것을 준칙으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인작(人爵)의 귀천은 무상하여 천작(天爵)의 고귀함만 못한 것은 또한 옛날에도 오히려 그러하였다. 하물며 오늘날에 저들의 귀천이 무상한 인작을 얻는 것이, 어찌 우리의 고귀한 천작을 구하는 것과 같겠느냐. 다만 자손들이 선행에 힘쓰기를 바랄 뿐이다. 창씨개명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보다 심한 일이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서 지킬 결단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이런 뜻을 너희들은 진실로 이미 알고 있을 게다.

다만 인정에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먹을 것이 가난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이니 뒷날 너희들 중에서 혹 내 명을 어기고 내 도장을 만들어 저들의 명을 따름이 근래에 기호지방의 아무개 무리 같을까 두렵다. 그 아버를 속이고 벼슬과 돈을 받는 행위는 나로 하여금 길이 몸을 욕되게 하고 의를 잃어 천지간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나 너희들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느냐. 나의 지나친 염려가 그렇다는 거다. 그러므로 이에 가르침을 보이니 마땅히 두려워하며 염두에 두도록 하여라.

示兒輩 庚辰

時變日甚，耳不忍聞，目不忍見。惟願速死之爲幸，而不可得，奈如之何？吾之以死守舊，而與汝四人，皆得保髮，可謂俯仰無忤。然今此變姓之變，比諸薙髮，更加一層。外樣形式，猶抵死以守之，裏面實地，豈可畏禍而改之！舊韓遺族，爲生活利害之關，子孫貴賤之說所動，爭相先變，亦口不忍言。雖然，吾人生活，本以在溝壑爲準的，固不須言。人爵貴賤無常，不如天爵之良貴，亦在古猶然。況於今日，與其得彼貴賤無常之人爵，豈若自求我良貴之天爵乎？只要子孫勉於爲善而已。變甚薙髮。故死守之決，有加無減。吾之此志，汝輩固已知之。但人情之最難堪者，食貧受侮。而又非一日二日，則恐異時汝輩中，或有矯我命造我印，而從彼之令，如近者畿湖間某某輩。欺其父，受爵金之爲，使我永作辱身失義，俯仰慙忤之人也。雖然，汝輩豈忍爲此者？吾之過慮則然。故茲示喻，宜加惕念。

조카 형수에게 답함 경진년(1940)

答從子炯洙 庚辰

편지를 보고서 네가 의관(衣冠)을 지킬 마음이 있고,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의리를 알고 있으며, 가업을 밑바탕으로 집안의 명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르기까지 “마땅히 순수한 본성을 지켜 비루한 무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난초는 잡초에 섞여 있어도 그 향기를 잃지 않고, 봉황은 같은 조류일지라도 그 깃드는 곳이 다릅니다.”라고 하였다. 현재 마땅히 행할 것을 말하자면 “사방의 원대한 뜻”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니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인륜을 바로잡

으며 독서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제일(第一)의 의리이다.

나는 참으로 네가 말이 없고 단정하여 심지가 요즘 젊은이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로 뜻이 이렇게 견고한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혹시 네 조부 벽봉 선생(碧峰先生)의 영령이 저승에서 네 마음을 이끌어 너로 하여금 선조의 뜻과 일을 계승하게 한 것인가 싶다. 네 편지를 보고 밤새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러 번 가난을 상심하는 탄식⁵⁴⁵을 일으키곤 하는데 참으로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재주와 뜻이 없어서 자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보았지만 재물이 없어서 덕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하였다. 이 또한 근심할 것이 못된다. 도리어 이를 바탕으로 덕을 이룬 사람도 있다. “가난하고 곤궁한 처지가 너를 옥으로 만든다.⁵⁴⁶”고 말하지 않았더냐. 또 “나에게 부곽전(負郭田) 한 이랑이라도 있었다면, 어찌 육국(六國)의 재상 인장을 찰 수 있었겠는가.”⁵⁴⁷라고 말한 경우도 있다.

저것은 비록 부귀로써 말하였지만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정을 참게 하는 점은 동일하다. 만약 너로 하여금 따뜻하고 배부르며 편안하고 즐겁게 하였다면 또한 이런 뜻을 가질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니 가난은 불행이 아니다. 이를 다행이라 해도 지나친

545 가난을 …… 탄식 :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일찍이 말하기를 “속상해라 가난함이며, 생전에는 봉양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돌아가서서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구나.[傷哉, 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也.]”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

546 가난하고 …… 만든다 : 송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빈천과 곤궁한 상황의 근심은 그대를 옥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貧賤憂戚, 庸玉汝於成也.]”라고 했다. 《張子全書 卷1》

547 부곽전(負郭田) …… 있었겠는가 : 성곽 부근의 비옥한 토지를 부곽전이라고 하는데, 전국 시대 소진(蘇秦)이 “가령 나에게 낙양(洛陽)의 부곽전이 2경(頃) 쯤만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육국(六國) 정승의 인(印)을 찰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1경(頃)은 2경(頃)의 오류이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말은 아닐 것이다. 절대로 기력이 꺾이거나 기운을 잃지 말고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 아! 나는 늙어 이룬 것이 없다면 다만 자식과 조카, 손자 가운데 성취한 이가 몇 사람만 있어도 나는 미련없이 눈을 감고 돌아갈 수 있을 게다. 기쁜 나머지 감회가 생겨 여기까지 썼으니 이 마음을 더욱 헤아릴 수 있을게다.

答從子炯洙 庚辰

見書，知汝有衣冠之心，識尊攘之義，欲資箕裘而繼家聲。又謂“當準純粹之性 而不歸污下之流。”，而曰：“蘭雜於蕪，而不泯其薰，鳳雖鳥類，其棲不同。”言當下當行，則曰：“四方之志”，今非其時，潔身正倫，讀書自靖，第一義也。吾固知汝沈默端莊，心知其非同今世年少，實不料志尙堅固之乃爾也。或者汝祖考碧峰先生之靈，冥誘其衷，使之繼述志事歟！自見汝書，連夜喜而不寐。至於累興傷哉之歎，正不當爾也。吾見無才志而未成身者，未聞無錢財而不進德者也。且也不足以爲病。反資而成德則有之。不曰：“貧賤憂戚，庸玉汝成乎！”又有言“使我有負郭田一頃，豈能佩六國相印”者。彼則雖以富貴言，其動心忍性則一也。若使汝得煖飽逸樂，亦安知有此志乎？然則貧者，非不幸也。謂之幸也，亦非過言。切勿沮喪益加勉勵焉。噫，吾則雖老而無成，但得子姪孫中，有成就者幾人，吾可以浩然瞑目而歸矣。喜餘生感，書之至此，此心尤可諒也。

역자

권명숙 |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김성희 | 경상대학교 문학박사

유미정 | 전남대학교 박사수료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5

후창집 2 後滄集 二

인쇄 2020년 1월 10일

발행 2020년 1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김택술(金澤述)

역자 권명숙 김성희 유미정

편집제작 맥스타

광주광역시 문화의전당로 12-2(남동)

전화 062-224-2783 팩스 062-233-3400

비매품

ISBN 979-11-968006-7-3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